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사람과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구술문화총서 ⑩

중부산 문화권 설화(Ⅱ)

부산진구·연제구 편

박경수·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9

일 러 두 기

1. 구성과 체제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 자료와 민요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10권『중부산 문화권 설화(Ⅱ)』로 중부산 문화권에서도 북·중부에 위치한 부산진구·연제구의 설화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3)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Ⅰ. 현장조사 설화,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Ⅲ. 문헌 소재 설화로 편성하고, 각 장의 설화를 조사지역(구, 동, 조사장소), 조사일, 제보자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단, 문헌 소재 설화는 조사지역(구별) 다음에 설화 제목과 내용을 고려하여 문헌 소재의 발간 시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4) Ⅰ부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한 설화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설화마다 제목, 구술자(이름·성별·출생년도), 구술 일자, 구술 장소, 본문 순으로 정리하였다.

(5) Ⅱ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설화 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자료의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6) Ⅲ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 수록 설화로서 현장조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료를 엮은 것이다. 동일한 설화의 경우 먼저 출판된 자료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설화라도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있으면 별도의 자료로 보았다. 각 설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혀 각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게 했으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설화이되 미세한 표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주에서 이를 밝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7)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제보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①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책 이름은 겹낫표 『　』, 작품명은 낫표 「　」, 설화에서 혼잣말은 홑따옴표 '　', 대화는 겹따옴표 "　"로 표시하였다.

(3) Ⅰ부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제보자의 구술 특징이나 구술 시 행위 등은 대괄호 [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했다.

(4) Ⅱ부 기존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원전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5) Ⅲ부 문헌 소재 설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가능한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어휘 표현만 수정하였다.

각권별편제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기장군 편 - [2012년 발간]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 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3년 발간]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4년 발간]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Ⅱ) -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 - [2015년 발간]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 - 강서구 편 - [2016년 발간]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7년 발간]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Ⅰ) - 강서구 편 - [2017년 발간]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Ⅱ) -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 [2018년 발간]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 - 금정구·동래구 편 - [2018년 발간]

제10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Ⅱ) - 연제구·부산진구 편 - [2019년 발간 예정]

제11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Ⅲ) - 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0년 발간 예정]

제12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Ⅰ) - 금정구·동래구·연제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제13권 중부산 문화권 민요(Ⅱ) - 부산진구·동구·서구·영도구·중구 편 - [2021년 발간 예정]

제14권 부산광역시 설화·민요 보유편 - [2022년 발간 예정]

목 차

일러두기 ····· i

Ⅰ. 현장조사 설화 ····· 1

1. 부산진구 설화 ····· 3

2. 연제구 설화 ····· 208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 353

- 박경수·황경숙의 현장조사 설화 ····· 355

Ⅲ. 문헌 소재 설화 ····· 405

1. 부산진구 설화 ····· 407

2. 연제구 설화 ····· 514

※ 참고문헌 ····· 526

※ 제보자 색인 ····· 527

※ 설화 제목 색인 ····· 531

Ⅰ. 현장조사 설화

1. 부산진구 설화
2. 연제구 설화

1. 부산진구 설화

[부산진구 설화 1]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복순(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둘이서 내우 간에 참 사는데, 여자는 항상 쟁피(강피)만 훑고 나르고, 그 인자 도는 그 사람은 내- 일층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왔어. 왔는데 집에 오니께네 남팬(남편)이란 사람이 그 쟁피 그거, 덕시기 널어난 쟁피를 한번 안 걷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찌 보골이(화가) 나는지.

"그때는 어저 어떻게 쟁피를 이렇게 비를 맞챠놓고서 망갔느냐(망가트렸느냐)?"

고, 남편을 뭐라 캤어. 그래나놓이 남자가 그 질로 가버렸어. 가가지고, 그 질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인자 그 인자 과게 공부를 해가지고, 핸 그기 공부한 게 있으이 자기가 인자 그기 됐는 기라 인자. [조사자: 급제가 됐구나.] 급제됐다. 급제가 돼가지고 인자 떡- 돌아온다고 돌아오면서 보이까네로 안적까지(아직까지) 그 마누라가 쟁피를 훑고 있거든. 그러니께 인제 자기가 지내가면서 한다는 말이,

"응! 저제 저게 있는 저 부인은 안적까지 쟁피를 훑고 있다."

고. 응!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니까네, 이 여자가 떡 쳐다보니까 저거 남편이란 말이다. 그래서 잡을라이까네, 남편이 그냥 가니까 그래서 그기,

"아리랑 아리랑, 가면 십리도 몬(못) 가서 발병난다."

하는 그 노래 그렇게 나온 거라 그기.

[부산진구 설화 2]

고려장이 없이진 내력

김복순(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옛날에는 칠십만 넘으면은, 칠십 되면 고려장을 시킨다 안 했습니까. 그래나이께 인자 엄마가 인제 칠십이 됐다 아이가. 그래나이까네 인제 고래장을 시킨다고 인자 아들이 인제 엄마

를 지게에 지고 업고 올라갔지. 이제 산으로.

그래 인자 거를(거기에) 가가지고 자기는 인자 산에 그 인자 터에다 탁-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 딱- 해 놓고, 엄마를 갖다 여 인자 묻을 때, 갖다 옇어놓을 때, 고래장을 시킬 때 그래 메칠까지(며칠까지), 얼마까지 먹을 양식을 딱- 옇어둔다 하대요.

옇어놨다가 그래 그 양식을 묵고 쓰러지면은 엄마가 돌아가신다 아이가. 굶었으니까네. 그래 인자 그래놓고 장례를 해나놓고 그 내려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 그래 내려오이까네 인제 저거 아들이 지게를 지고 내려오니까네,

"왜 가져오냐?"

카면은,

"나도 담에 아버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고 그 말이. 반복하는 거 아입니꺼 그게. 그지예? 그래 그렇게 했다고 말이.

[부산진구 설화 3]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부인

김복순(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옛날에는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콩죽을 많이 낋이고 있는데, 콩죽이 펄펄 넘을라 쌌는데, 넘을라는데, 아는 울지요 저 뭐 소는 도망을 간다 카더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어마씨가 콩죽이 넘을라 카는데, '아를 잡아야 되나? 소를 잡으러 가야 되나? [웃음] 어 뭘 잡으러 가야 되나?' 하는. 그러이께 인자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대.

[부산진구 설화 4]

머리카락을 잘라 손님을 대접한 아내

강팔문(남,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여보."

"예."

그래,

"내 친한 친구가 왔는데, 술 한 상 차려 오이소."

그라거든. 아이 마누래가 기가 차거든. 돈이 있어야 뭐 술을 받아오지. 아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여필종부라꼬. 남자 하면, 남자가 '죽어라.' 쿠면 죽는 시늉을 내도 내야 된다 이거야. 그래 '야, 남편이 인제 술상을 봐오라 쿠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야, 우째야 될꼬 이거.' 그래 눈을 감고 비네를 싹 빼삐리는 거라. 비녀 찌른 거.

그래 머리 이거를. [웃음] 머리를 가위가 쓱 짜르고 달비를 팔아가지고 술로 마, 그래 술을 받고 안주 좀 그하고. 그래,

"이래 이래 술상 차려 왔습니다."

그래. 그래 친구와 둘이 갈라 묵고 갔는데, 그래 친구가 인자 갔는데, 그래 저녁에 보니까 집에 사람이 안 쓰던 수건을 장 쓰고 다닌다 이거야. 수건을. 응? 그래,

"여보, 안 쓰던 수건을 와 지금 쓰고 다니요?"

인제 벗었어. [손뼉을 한 번 치며] 머리, 비녀 찌른 머리가 없고 짤랐구만. 그래,

"와 그리 됐소?"

물으니까. 그래,

"먼저 친구가 인제 술상 봐오라 쿨 때 돈이 있십니까? 그래서 내 달비를 팔아가지고 술을 받아왔심니더."

이래.

"그래?"

남편이 여기 만지고 울고. 서로 울었다. '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잔뜩 마셨구나.' 그래서 서로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것뿌이(그것밖에) 몰라. [웃음]

[부산진구 설화 5]

모함 받아 억울하게 죽은 조광조

강팔문(남,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조광조. 조광조가, 이씨 조선 때 조광조. 저그 다른 신하들 보다 좀 이기 왕한테 잘 비이고(보이고) 똑똑하고 그랬거든. 근데 조광조를 갖다가 시기하는 기라. 이 같은 신하들끼리. 그래 주초위왕[1]이라고 한문으로예? 주(走), 초(肖) 씨면(쓰면) 조(趙) 자가 되거든. 이 성(姓) 조 자

1) 주초위왕(走肖爲王). 조선 중종 때 혁신정책을 주장했던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 훈구 세력의 집안으로 중종의 후궁이 되었던 희빈이 꾸몄던 일로 기묘사화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임.

가 되거든예. 그래 여기 [글자를 쓰면서] 주초위왕 이라면. 주초위왕이라꼬.

그 풀 좀 큰 데 [조사자: 맞아요. 파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조래 저 뜰에 가서 모란 이파리를(잎을) 풀이 붙은 데다. [조사자: 무슨 이파리예? 무슨 이파리?] 이래 아무 이파리나 넓은 이파리다가 꿀로 가지고 꿀. 주, 초, 위, 왕 써가지고 [청중: 벌레 먹은 것처럼.] 이래 우에 써 놨는 기라. 그래 벌레들이 달콤하니까 글자 그대로 뭐, 꿀 붙인 데는 다 끍어무우삣거든(긁어먹어버리거든). 그래가 멪이서 신하들이 그 이파리를 떼 와가지고, 저 임금님 이름은 내 모르겠고. 그래,

"잎 보이소. 이 주초위왕은 분명히 조광조입니다. 조. 조. 조 자가 조광조를 말하는 깁니다. 조광조가 앞으로 임금이 될 낍니다."

'주초위왕, 위왕이라 쿠면 된다. 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와 한문으로.

"그래?"

커면서 그 임금이,

"조광조를 갖다가 그라먼 저 죽이자 그라먼."

죽있다꼬. 내보다 좀 나은 사람을 갖다가 끌어내랄라꼬(끌어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백성들이 전부, 내 그 한 가지 성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 설화 6]

김삿갓이 삿갓을 쓰게 된 내력

강팔문(남,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동일경로당]

김삿갓은 과거 보러, 과거를 보러옸다(보러봤다). 아입니까. 저거 할아버지 이름도 내가 다 알았는데, 이제 지금 김삿갓 이름이 김병연일 끼다 아마. 저거 할아버지 이름도 다 알았는데. [조사자: 있다 치고.]

그 시험 보는데, 저그 할아버지 무엇이 무엇이 대해서 써라 그라는데. 그래 그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뭐 일본군한테, 당나라한테 뭐 항복을 하고 뭐 하고 그런 거 나쁘다고. 할아버지, 나쁜 그 사람이 저거 할아버지라. 바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쁘다. 요고는 요고는 써가지고 과거를 합격을 했는데, 답으로 됐는데.

그래 과거에 급제하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내가 욕을 하고 과거 봔 그 제목이 우리 할아버지 대해서 노온(나온) 기구나. 내가 우리 할아버지 욕을 했구나 욕을.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늘을 보고 몬 산다.'

그래가 하늘을 보고 벼락 맞겄다 싶어서 삿갓을 쓰고. 하늘 안 볼라고 김삿갓 삿갓을 쓰고. 급제했는데 서둘러 그만두고 뭐 팔도강산 유람을. 하늘 안 볼라고 김삿갓이 삿갓을 썼다 쿠대예.

[부산진구 설화 7]

장자늪의 유래

성인선(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창녕은 영산면 뒤 큰 못이 있거든. 그 이름이 장개늪(장자늪)이라. 장자가 못이 돼뿠기 때문에 장개늪이고. [조사자: 그 어떻게 그리 됐는대예.] 그 형님이 스님한테 인자 동냥을 줄라 쿠이 독해가지고 안 줐는 기라. 안 주이께네 그 하면서러(그렇게 하면서) 스님이 그 주인아줌마 보고 이 무조건 걸어가는 데서 인자 그 스님보고 인자 조금 줐는 기라. 주인은 안 주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캤는 기라. '안 보인다 싶을 때까지 가도 마 돌아보지 말고 가라.' 캤는데, 그 사람들이 어델 가다 돌아봤나 하믄 영산에서 길곡 가는 데 고 중간에서 돌아봐뿠는 기라. 그서 부처가 돼뿠겠노. 고거는 부처고개고, 늪은 장개늪이고. 그런 거유 그.

[부산진구 설화 8]

나병을 낫게 한 약물

성인선(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줄 땡기제? [조사자: 예. 예.] 그서 알로(아래로) 이리 보면 산이 왼쪽으로 간다. 우리는 마 하도 정말 영산 앞뜸 영산 앞뜸 이라거든. 그라면 그 약물샘이로(약물샘을) 참 마이 그거 했거든. 처음에 쪼깨(조금) 청석에서 나올 때 나병 환자가 묵고 그 뱅이(병이) 싹 낫아뿠는 기라. 나아서 그래가 그 물 참 이름 마이 났다. [조사자: 그래갖고 줄 당깁니까?] 응? 그거는 옛날부터 삼일절 그거 핸 기고. 하모 그건 진짜 뿌리 있는 거고.

그래 우리 그 클 때는 결혼할 때 옛날에는 해로 묵힜거든. 그러믄 신랑각시 만내가지고 그 가서 놀다가 헤어지고 헤어지고 싼다고(한다고) 말로 마이 들었다 내 클 때. 내 열 세 살 묵어 육이오 사변 나고 나옸기 때문에 그 뒤는 모르고.

근데 모두 가는 사람은 그 가 나래미 서가(줄서서) 오뎃까지(어디까지) 해가 있다가 물 받아오고 이런다 한께네. 물 맛있다고. 약물이고.

[부산진구 설화 9]

소변이 마려워 혼이 난 부인

이경연(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가남경로당]

밭에 가다 그런 게 아니라, 인자 어데 질(길)로 가다가 인제 오줌이 누럽아서(마려워서) 어데 몬 빼가이고 그래가 마 있으니까는, 중이 바랑을 짊어지고 가다가,

"와 부인이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소변이 보고 싶어서 이리 그랬다."

카이께는, 그래 중이 보고 [청중: 자기가 빼준다꼬.] 그래 빼줬다 카대.

[부산진구 설화 10]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에밀레.' 한대 종이 때리면. [조사자: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예? 옛날에.] 아, 시주를 할 게 없어서 줬대. 시주를 하라니까 딸을 하나 키우고, 에밀레, 봉덕이를, 딸을 하나 키우고 부부가 사는데, 인제 스님이 시주를 왔는데 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고 그러니까,

"참 줄 것 없어 미안하다."

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봉덕이나 데리고 가면 줄까. 줄 것이 없다."

그럼 그거라도 하라꼬. 그래 절에서 종을 만드는데 종을. 종을 만드는데 그기다가 인자 돈, 쇠붙이를 사야할 거를, 그걸 그렇게 돈을 걷으러 다녔는가봐. 그랬는데 인제 애를 데리고 와서 종, 쇠 녹힌 데다가 애를 넣대. 그래 녹혀가지고. 그 시주니까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종을 딱 인자 다 만들어가 달아놨는데 그 종을 때리면 종에서,

"에밀레, 에밀레."

그런대. 엄마한테 인자 그 얘기하는. 그런 얘기 하대, 내 들으니까.

[부산진구 설화 11]

욕심 때문에 죽은 총각들

이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옛날 옛날에, 인자 마 총각들이 [청중: 옛날에는 산도둑을 총각이라 캤제.] 노총각들이. 장가도 못 간 노총각들이. 서이서 장에 갖다오는데 그 전에는 한 삼십 리 오십 리 걸어서 장에 갈 거 아닌가봐? 그래 인자 오는데 뭐 돈도 없고 뭐 그렇지 뭐. 오다가 인자 쉬다가 산속에 오는데 큰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대.

근데 인제 요놈을 갖다가 노놔야(나누어야) 되는데, 깨야 되고 무겁고 하니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하다가,

"야야, 이걸 깰라면 힘도 있어야 되고 기운도 없다."

그러니까,

"니 저기 저 주막거리 가서 막걸리 한 병 받아 온나. 그라면 우리 먹고 나서 기운 좋게 깨자."

하니까, 이 하나가 달랑달랑 들고 인자 가가지고 막걸리 받아서 지가 한 잔 먹고, 지는 가마이 갖고오면서 생각한께 여 서이 나누잔께(나누려하니) 억울하거든. 셋이서 나누자니. 둘이를 죽여버리면 내 혼자 먹거든. 그랑께 인자 오다가 인자 양잿물을 샀는가봐. 그래갖고 그 주전자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구 갖고 온 기라. 그랑께 인자 이 둘이가 딱, 오는 동안에 둘이 됐거든.

"야야, 셋이서 나누면 더 억울항께, 저 놈 술 가지고 오면야 뺏어놓고 저놈을 직이삐리자."

그란 기라. 인제 둘이가 짠 거야 인제. 그래 이 사람이 주전자 술을 갖고 와서 딱 놓으면서,

"술 갖고 왔다."

하니까,

"아이 수고했다."

해놓고는 뒤에서 인자 대가리를 인제 돌을 던지서 깨 죽여삐맀어. 그니께 지는 좋지 그 둘은 놔나 먹응께. 둘이 앉아서 막 술을 처먹었어 인제. 그래 둘이 다 죽어버렸어. 셋 다 욕심 부링께 하나도 못 가져갔어.

그 금덩어리는 인제 맘 좋은 사람이 주워가 잘 살았대.

[부산진구 설화 12]

손님 못 오게 해서 망한 집

이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하이고 나는, 며느리가 못 살겠는 기라. 주야를 손님들 오니 밥을 해댈래니까. 그래 뭐 고민 하다가 스님이 지나가서,

"스님, 스님. 하 우리 집은 너무너무 손님이 많아서 내가요 하루에 밥을 열 번을 다해서 죽겠다."

고 하니까, 가마이(가만히) 이렇게 집 이런 거 구조를 쫙 보면서 이래,

"그게 정 싫으면 이 대문을 바꾸세요. 이게 남쪽인데 동쪽으로 달면은 손님이 안 옵니다." 그라더래. 그래가지고 인자 바꾼 기야.

그때부터 인제 손님도 안 오지만은, 손님이 안 오면은 첫째 사람이 이 길을 안 밟잖아. 그러니까 풀이 자꾸 자라나는 기라. 지 혼자 뽑을래도 뽑을 수가 없는 기라 인자. 너무너무 산속이니까. 사람이 많으면 밟아버려가지고 다 그게 했는데, 뽑아놓으면 여기 뽑으면 여기서 나고 여기서 뽑으면 나고. 나중에는 그게 너무너무 뭐 길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그 숲속에서 그냥 고냥 죽은 기라. 해도 못 보고. 그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가 딱 고런 것 같아.

[부산진구 설화 13]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절

이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영암 절이, 아주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보살하고 중하고 셋이 살면은, 셋 살면은 딱- 밥이 세 공기 먹을 만큼만 나오는 기라. 그게서, 구멍에서, 요만한 구멍에서. 그라면 인자 자기는 배가 안 차지 조금 되고. 손님이 하나 오면은 더 나와 쌀이. 또 둘 오면 둘이 더 나오고.

그래 마 괘씸하거든. 그냥 짝대기로 구멍을 쑤셔버렸대 많이 나오라고. 그래 다시는 안 나와서 굶어 죽었대. 옛말에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가 딱 그 얘기.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험해서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랬대. 욕심 많이 부리면.

[부산진구 설화 1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정숙(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옛날에는 고래장이란(고려장이란) 게 있었잖아. 있었다 캐. 내 못 들었는데. 근데 어느 아주 효자 하나가 어머니가 칠십이 넘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토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숨겨 놓고 밥을 드린 기라. 인제 아무도 모르게. 인자 나라에서 알면 잡아가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 조선이 참 그 없이 살아서 왜구들도 많이 침략하고 할 때니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속국인 기라. 명나라에서는 맨날 와서 조공을 바치라는 기라. 조공을. 그러게 맨날 사신이라서 와서 막 이상한 수수께끼도 내면서,

"이걸 못 맞치면은(맞추면), 못 맞히면은 니네들 조공을 더 배로 줘야 된다."

면서 오는데, 한번은 명나라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수수께끼를 갖고 왔대. 수수께끼를. 근데 수수께끼를 세 개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은 '니들이 벼 열 섬이 아니라 백 섬을 낸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제 언질을 하는 기라.

임금님이 인제 각 방에다 인자 방을 붙인 기라. 인제 그 수수께끼를. 인제 아는 사람은 여기 대구에 와서 이걸 풀어달라고. 그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나! 효자 아들이 인자 장터를 나가가지고 그 방을 본기라. 그래 방을 보이까 방에 뭐라 써있냐면은. 그 수수께끼에 나와 있는 기라. 그 자기도 전혀 모르면서도 여자지만 응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게 이러이러해서 방이 붙었는데 어머니는 이런 수수께끼를 아시느냐?"

고 그니까,

“얘기해봐라.”

아들이 인자 궁궐로 간 기라. 가가지고 자기가 맞춘다고 하이까 인자,

“그래 해 봐라.”

하이까, 인제 그 사신이 인제 말을 똑같은 거 두 개를, 말을 갖다 놓고,

“어는 게 어미고 어는 게 자식인지 맞춰보라.”

는 거야. 근데 말이 말을 할 줄 모르잖아. 똑같은 크기니까. 그걸 인제 섞어가지고 탁 내놓으니까, 인자 그 뭣이 그 인자 효자가, 효자 보고,

“내놔라.”

하니까 효자가,

“그러면 여물을 갖고 오라.”

하는 기라. 그 여물을 탁 갖다 놓으니까, 여물을 딱 놓고 있으니까 말이 하나가 딱 먹더래. 하나가 다 먹고 나니까 그 하나가 먹더래. 먼저 먹은 게 새끼라는 거라. 그만큼 모성이라는 게 짐승도 있어서. 하나 풀었고.

나무를 딱 똑같은 거를 인자 그 나무를 똑같이 잘라가 옹이 없이. 가운데는 옹이가 없잖아? 그래,

“어디가 우고(위고) 어디가 뿌리냐?”

이거지. 인자 그니깐 나무를 가지고 인제 냇가로 가는 기라. 냇가로, 물이 막 흐르는 냇가로 가니까, 인제 풍덩 집어넣으니까 알로(아래로) 간 게 뿌리고 위로 온 게 위에야. 그렇게 해서 풀었고.

한 가지는 잊어뿌렀는데 또 한 가지도 그래 풀었어. 그래 인제 하 고맙다고. 인제 임금님이 효자한테,

“니 소원이 뭐냐?”

하니까,

“내 소원은 딱 한 가지 있다.”

고 그니까,

“얘기해라.”

“나 이 얘기하면 죽이니까 안 한다.”

하이까,

“그냥 들어 준다.”

고, 얘기하라 하니까,

“내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노모가 칠십이 넘어서 고려장을 시킬라는데 내 못하고 저 토굴에다 감춰 놨어. 그 죄밖에 없으니까 고거만 살려 달라.”

카니까, 감동을 해갖고 ‘사람도 오래 살면 지혜가 많이 있다.’ 싶어서 고려장이 폐지됐대. 끝.

[부산진구 설화 15]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남순(여,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옛날에 내 아는 거는, 옛날 하도 울어싸서 달개도(달래도) 달개도 안 되는 기라. 그러이께네 어마이가,

"꽂감 주까?"

또,

"꽂감 주까"

쿠니까. 울다 울다가.

"꽂감 주꾸마."

카이께네, 덜꺽 그치는 기라. 그래 밖에 호랭이가 있다가, 호랭이가 있다가 '아, 꽂감 그기 제일 무서운 긴(것인) 갑다.' 그리 싶어서 그 아 잡으러 왔다가 다부(다시) 돌아서 가더란다. 이 말만 들었지. '꽂감이 무서운 긴가 보다.' 호랑이가.

[부산진구 설화 16]

도깨비불(1)

정남순(여,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토깨비도 마이(많이) 났다. 옛날에 불이 없다 본께네. 토깨비도 많이 나타난데 지줌 가는 기, 산에서 불이 막 이 산 저 산 불이 났다. 무섭아서(무서워) 몬 나갔어. [청중: 그렇지.] 그러고 시어른한테 그래,

"어머님, 와 산에서 토까비 저렇지(저렇게) 많이 나느냐?"

고 칸께네,

"아이고 야야, 그게 아니다. 그 산에 불 나는 거는 숯골에서 불이 난다."

[청중: 숯골?] 옛날사람이 나무를 베가이고 이 굴로 맨들어가이고 그따(그곳에) 나무를 쬐가 불로 때면 불을, 그래 숯을 맨들어가이고 그 숯을 자앙에다(장에다) 팔고 했는데, 시장 가서 팔고 했는데.

[부산진구 설화 17]

도깨비불(2)

정남순(여,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골이 짚어논께네(깊어서) 그 먼댕이 산촌에도 사람이 살고 요 밑에도 살았거든요. 옛날 불이 없었다 아이요? 이 전깃불 이기. 캄캄 어두운데 불 이리 지면 그 우서(위에서) 밑에 동네로 내려오고 이랬거든요.

그랄 때는 보통 때는 토까비가(도깨비가) 안 나는데, 비가 올라고 구름이 꽉- 끼모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그 산초리, 산 밑에 그런 데도 불이 왔다갔다 왔다 이라대. 그래 우리 시어른한테,

"어머이, 토까비불인가? 저 불이 마이(많이) 왔다갔다 해요."

근께,

"응. 그기 토까비불이 맞다. 비가 올라 쿠면 온 데 나온다." [조사자: 맞아, 맞아.]

[부산진구 설화 1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정남순(여,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가야1동 일심경로당]

옛날에는 이런 OO[2]청년이 있는데, 돈 벌러 갔는데, [조사자: 그렇지.] 메느리가 어떻게 해줄 끼 없는지, 시어마이가 오래 살아계시는데 하도 해줄 끼 없어서 고기라고 주는 걸 꺼싱이(지렁이)를 잡아다가 꾸워가 줬는 기라. 준께 그 할매가 인자 그 꺼싱이를 무보이까(먹어보니) 너무 맛이 좋은 기라.

그래서 가마이 먹다먹다 가마 생각해보이 아, 무슨, 그러니까 시어마가 봉사가 돼서 몬 봐서 그 꺼싱인지 모르는 기라. 그런께 그 시어마이가 마음에 '아, 이게 무슨 고긴데 이렇게 빼도 없고 이래 맛있는 고기가 있는고?'

그래 한 동가리썩 끈티가(끊어서) 자리 밑에 옇어놨다. 옇어놓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면

2) 녹음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음.

비줘야(보여줘야) 되겠다. 무슨 고긴고 비줘야되겠다.' 그래 묵을 때마다 그래 동가리 떼가(떼어서) 자리 밑에 묻어놓고 묻어놓고.

그래 세월이 가고나이께네 아들이 저저 그 어마이가 봉사가 돼가 그 꺼싱이를 몰랐거든. 마 이야기하다 엉뚱데. 그런데 아들이 돈 벌러 오래돼서 왔는데, 어마이 살아가 있거든. 그래 봉사가 됐는데, 그래 인자 메느리가 그래 그 묵을 거를 그래 줘도 그간에 오면 꺼싱이 줬다고 뭐라 쿨까 싶어서 말로 몬 하고 있었어. 있었는데 그래 인자 그 저저 아들이 와가 엄마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야야, 메느리가 어떻게 맛있는 고기를 날로 해주는데 너무 빼도 없고 너무 맛있더라."

그러이,

"엄마, 무슨 고긴데 빼가 없는 고기가 있었을 건고?"

그러니까,

"그래 빼가(뼈가) 없고 맛있더라."

이래. 그래 자리 밑을 들어 꺼시기 똥가리를 내가이고 똥가리 옇어논 거를 아들한테.

"아이고, 엄마 이기 뭐꼬?"

이리 됐는 기라. 어마이 눈을 퍼뜩 떴삤다. 봉사 눈을.

"엄마, 이기 뭐꼬?"

이리 된 기, 마 그 어마이가 봉산데 눈을 번뜩 떴삤다. 그것도 공든 공 아이가? [조사자: 맞어.]

[부산진구 설화 19]

병을 낫게 한 산신

박순옥(여, 1925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로 한마디.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들 낫울라고(낫게 하려고) 산신령한테 빌다가 내가 산신령 목에 물리가지고(물려서), 날로 안 업고 가고 온채(워낙) 정신이 좋아서러. 목을 물었다가 다리로 물었다가. 내가 목에 목다리가 이만큼 났는데 목을 물고 나이까네 목이 낫고,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이래 붙잡고 인자 다리가 낫고 했는데.

저 당감동 저 당산에서 내리와가주고 내가 아들 낫아줄라고 신령님한테 만날 이리 빌었거든. 우리 아들 낫아, 우리 아들이 그때 패가 나빠가지고. 그래가 하- 빌었더니 그래 아들도 낫고 나도 낫고. 그래 그래 낫았는데 다른 말은 더 몬 하겠다.

[부산진구 설화 20]

아기장수가 난 밀양 수산

송순금(여, 1932년생)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그거는 베 짜는 거는, 우리 지금 고향 가면 있거든. 요런 초가집을 지놓고 딱- 해놓고 있는데. 그거는 우옛노 칸께(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베 짜는 집에서러 참 저거 어매하고 이래 사는데 자석을 몬 나. 자석을 몬 나갖고 인자 그 집에 시어마이는 베를 짜고, 집에 짜고. 메느리는 아를 놓으러 옛날에 친정에 마이 갔거든.

친정에 가다가 이래 한 고개로 넘는데, 고개를 턱 넘어가다가 보면 그 지금도 있다. 밀양 수산이라 하는데. 요만한 별당을 지갖고 딱 요래 오만거를(갖가지를) 다 해놓고 일 년에 한 번씩 밥을 떠 놓거든.

고 가다가 이 여자가 마 배가, 산만디(산꼭대기) 올라가는데 배가 아파갖고 그서 마 트는 기라. 트는데 그래 뭐 인자 친정 갔다가 놓을라 캤는데, 이거를 아로(아이를) 놓으이 태로 낳는데 태로 끊어야 될 꺼 아이가? 태를 몬 끊는데, 그 막 산에 보이, 요래 올라가는 덴데 쇠, 옛날에 쇠 그거 그거를 갖고 배총을 끊었어. 끊어갖고 딱 해가, 이 아가 빨딱 일라디마는(일어나더니),

"어머니, 인자 쪼끔한 초립아가 올테니까네, 절대 내 배로 '배총을 뭐까(무엇으로) 끊었노?' 카거든 게르마주지(가르쳐주지) 말라."

캤는 기라.

"죽어도, 죽지는 안 하이께네 어머이 게르마주지 마이소."

그래갖고 참 저거 아들 시킨 대로 보이께네 쪼그만 초립이 오갖고(와서) 막 이 여자를 글타고(그렇다고) 마,

"바른 말 하라꼬."

카이, 이 여자가 안 게르차줐는데 그래도 촌사람들이 되니 근본 시작하이께네 마 게르마줐삤어. 근데,

"그 쇠로 갖고 우쨌노?"

카이, 그 방구 틈에 이 그 이래 고마 그 큰 방구가 지금도 가면 하나 있어. 그 방구(바위) 안에, 그 장군이 돼가 방구 안에 드갔어. 그래갖고 그 풀치, 그 배총 끊은 걸 갖고는 뭣인들 때리면 벌어지는 기라.

그 배총 끊은 거를 갖고, 쇠로 갖고 딱 때리이 딱 갈라지가 피가 쪼로로로 쏟아지가 마 팍 사그라져. 갈라지. 그래 다시 죽어서 한 번 태인다꼬(태어난다고). 그람서로 지금도 보면 명절

때마정(때마다) 밥을 떠놓고 놋그릇 탁- 있고. 보면 밀양 가는데 들판에, [조사자: 수산에.] 수산에. 그 있어 지금도.

[부산진구 설화 21]

죽어 뱀이 된 시어머니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워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그거는 옛날에 시어마이가 그래 독했든 모양이지. 독해갖고 인자 시어마이가 죽었어. 죽어 부잣집은 부잣집이라. 죽었는데, 며느리가 철뚝에 도장, 옛날 고방이 있거든. 마당에 아래채에 고방이 있는데, 쌀로 뜨러 가이께네 '찰칵 찰칵' 소리가 나는 기라. 이상하다 싶어서러 보이께네, '뭣이 그런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 저거 남편을 해가 쌀뚝을 들쳐보이 뱀이가 구렁이를 틀어갖고 둠벵하이(동그랗게) 있더란다.

그래갖고 시어마씨가 살을 때 만날 천지 뭐라고 칸 기 아이고 곡석을(곡식을) 내줬어. 그것도 죄가 많애. 곡석을 내주이께네. 고기 인자 죽어갖고 뱀이가 돼가 그 저승에서 인자 가서 철똑 챙기라 보냈는 기라. 그래가 참- 그 인자 그 아들하고 인자 좋은 굿을 사갖고 하고 나이께네 그래 없더란다.

[부산진구 설화 22]

복이 든 개를 먹은 며느리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어떤 데는 그런 데 있데요. 어느 집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 도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 거라예. 그래가 누구 덕에 이래 이집이 이리 잘 사노? 탁 보니까 사람은 아닌데 그 집 개가 복이 있더랍니다.] 그래 개 복 [조사자: 고 이야기 해주이소.]

그거? 그것도 쪼깸밖에(조금밖에) 모른다. [조사자: 조금밖에.] 그래 개가 그래 복이 있는데, [조사자: 처음부터 해주이소. 어느 집이지예?] 어느 부잣집인데, 부잣집인데 이래 떡- 인자 개

로 갔다가 미느리가(며느리가), 시아바씨가, 아 시아바씨가 개 그거를 마 자묵고(잡아먹고) 싶은 기라. 마 생전에 안 그랬는데. 개로 자묵고 싶아서 그래가 인자 시아바시 뭐라 카는 기,

"개 저 잡거들랑 아무도 주지 말고 개 봉 띧어가(뜯어서) 개 봉. 봉. 봉. 그거 띧아가 날로 도고(나에게 다오). 아무도 주지 마라."

이랬는 기라. 그래가 참 부잣집이고 이런데, 개를 잡아갖고 이리 하는데, 삶는데 시아바씨는 우째, 미느리(며느리) 개고기도 입에도 몬 대는 미느리가 바앙(방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이께네, 마 이 개고기 꾸신(구수한) 내가(냄새가) 마 코구멍에 막막 들어오는 기라. 환장할 정돈 기라.

그래갖고 참 부잣집엔 옛날에 식모도 있고 막 머슴도 있거든.

"개 봉, 저 딴 거 아무것도 고오지(가져오지) 말고 개 봉만 따갖고 날 썽글어 도고(잘라서 다오)."

이랬는 기라. 그래 개 봉만 따갖고 참 그 며느리가 썽글어 줬어. 썽글어 주고 나이 그래 묵고 이러니까 마 딴 거는 안 묵고 싶아. 봉 고것만 묵고나이. 그래갖고 인자 시아바시가 인자,

"야, 야."

인자 앉아서러 머슴보고,

"저 가서로 개봉 날 따가 썽글어가 날 도고."

이라이께네, 있어야 뭐 주까? 그러이 며느리 가서로,

"아부이, 지가 어찌 맛있고 마 냄새가 나고 둘러빼고 해서, 어무이 지가 자싰습니다."

카이.

"아휴!, 니 팔자다."

카더란다. 그래 그 살림 복을 갖다가 며느리 뭈으니(먹었으니) 에나. [조사자: 그 봉이 붕알입니꺼?] 은지(아니) 안에 여 있어. 봉, 사람도 있어. 그래 그거를 따가 묵고나이 그 부자 그대로 부자로 되가 며느리가 묵고 부자가 됐다. [조사자: 지 복은 아무도 못 말린다. 그지예?] 그래. 개도 그래 복이 많은 거 있어. 개 복.

[부산진구 설화 23]

개를 때려 벌 받은 신혼부부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상사병도 있지. 방우, 상사방우(상사바위) 가서.[조사자: 그래 상사방우. 상사병 얘기 좀 해 주이소.]

상사방우는 우떤(어떤) 한 집에 잔치를 떡 날로 받아놨거든. 날로 받아놨는데 저게 뭐꼬? 개가 날로 받은 잔칫날 닥쳐오는데, 개가 그 집에 마당에 들어오는 기라. 들어오이께네 우째 이기 또 그냥 안 들어오고 두 발 붙어갖고 들어오갖고.

그럼 그걸 갖다가 곱게 해갖고 보냈으면 될 낀데, 몽디를(몽둥이를) 갖고 때리가 떨아주뿠어. 주뿠께네 그래갖고 개가 그래 되면 우째 됐겠노? 골빙(골병) 들었어. 그래가 했디, 쫓가보내뿌고(쫓아내고) 그래 했디, 결혼하이께네 첫날 저녁에 신랑각시 딱 붙어갖고 [조사자: 안 떨어지구나.] 안 떨어지가 상사방우가 있거든. 상사방우 그 갖다놓고 우떤(어떤) 사람은 떨어진다 카는 기라. 안 떨어지가, 안 떨어지가. 안 떨어지면 그거 물에 차 옇어뿐다 둘이.

[부산진구 설화 24]

문어를 사람으로 오해한 새신랑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문이는(문어는) 촌에서로 문이. 문이 그거는 촌에서 해변가로 장개를 갔어. 장개를 가 떡 있으이, 첫날 지녁에 보이께네 달이 가당찮이 밝은데, 저게 뭐꼬? 사람이 막 산골 중놈겉이 머리도 깎고 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이께네, 이 남편이 마 오해를 해뿠는 기라. 중놈이라꼬.

오해를 해갖고 여자 손도 안 대고 첫날 지녁에(저녁에) 고대로 덮어씨았냥(덮어씌운) 고대로 놔뚜고 도망을 가뿠어. 남자는 도망을 가가 여자 혼차서(혼자서) 고대로 앉아갖고 참 썩지도 안 하고 고대로 상사가 일나가(일어나) 참 고대로 앉아가 있는 기라. 있으이 이 남자가 어데서 참 실큰 돌아댕기다가 멫 년 돼갖고 인자 고향에 한번 오고 싶어서 오이께네, 중간에 오이께네 참 점하는 사람이 보면서,

"당신이 이 질로 가면 죽는다."

카더라 캐라.

"왜 죽느냐?"

카이 그래,

"그 사람이 군서방이 아이고. 지금 군서방 카는 군서방이 아이고. 문이가, 해변가가 돼놓이 문이가 똑 큰 기 사람 같이 이래낳이 달밤에 영판 산골 중놈겉는 기라. 그거 문이가 그렇지 사람이 아니라꼬. 근데 이 여자가 상사 맺히갖고 고대로 지금 썩지도 안 하고 고대로 있다."

카더란다. 그래가,

“살 방법이 없나?”

카이께네,

“삽살개로 맺 마리(몇 마리) 사라.”

카더란다. 삽살개. 털 이래 난 거.

“그거를 사야 당신이 산다.”

카더라 캐. 그래,

“가서러 그 방문 열거들랑 당신은 드가지 말고 그 개로 옇어라.”

캐갖고, 그래갖고 참 그 남자 그 들은 대로 가서러 그래 하이께네, 개가 참 해가 드가가, 개, 삽살개 그기 인자 구신이(귀신이) 겁나는 갑대. 또 그래갖고 그 인자 그 앉안 거로 전부 띧어갖고 지어갖고 해가 그래 남자 꿈에 선몽해가,

“니는 천상 살 때다.”

카먼서로, 그래갖고도 그 참 때미 살고.

그래 옛날에 해변가로 장개가면 문이가 막 또 산골 중놈같이 댕기. [조사자: 문이가 뭔데예?] [청중: 문어. 문어.] 그기 큰 거는 크거든. 사람만 하거든. 그래놓이 달밤에 막 그기 걸어 댕기면, 영판 달밤에 문에 걸치는 기 똑 산골 중놈이 머리 싹 깎고 댕기는 거 같다 하더라.

[부산진구 설화 25]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소리가 안 나서러 했는데 몰라 오래돼서. 알기는 대강 해도. [조사자: 시주를 왔다 아입니꺼?] 시주로 와갖고 그 아가 울었는데,

“에밀레. 에밀레.”

카고 울더란다.

그래갖고 그 가서로 그거를 옇어갖고 문지르이, 막- 쇠로 치이께 소리가 동체(도대체) 안 나. 그래 인자 높은 사람이,

“이 동냥하러 가서 뭐 한 기 없나?”

이래 물으이께네, 그래 아! 저거 엄마가,

“줄 거는 없고 뭐로 주까? 봉원이로 주까 뭐를 주까?”

이래노이, 그 소리 들었다 카이. 그 아(아이) 잡아가 그 에밀레종에 옇어갖고 치이께네,

"에밀레. 에밀레."

진주 개첩 뭐꼬? 저 어데고? 협천(합천) 해인사. [조사자: 진주 아니고예?] 진주라 카더나? 협천 해인사라 카든가.

[부산진구 설화 26]

호식을 면한 오누이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옛날에는 어디 그래 엄마가. 모르겟다 첫무이도(처음도) 뭐. 호랑이가 저게 딸네집 묵을 해가 가는데, 책을 보면 있다 아이가?

묵을 해가 가는데, 그래 떡- 고개로 이래 넘어가이께네 호랭이가 딱 질로(길을) 막후는(막는) 기라. 인자 자아물라꼬(잡아먹으려고). 그래 호랭이가 인자,

"묵 한 뭉티기(뭉치) 주면 안 자아묵지."

카이, 할마이가 묵을 한 뭉티기 띠줐어(떼어줬어). 묵을 한 뭉티기 띠주이께 또 그 묵을 다 무읐는 기라. 그래 결국에는 다 해갖고 할마이꺼정 다 자아무우뿠어(잡아먹었어). 할마이꺼정 다 자아묵고 요기 아 집에 찾아갔어. 아 집에 찾아가서로,

"아가, 문 좀 열어라. 엄마 왔다."

카이께네,

"울 어매 소리 아이네. 아이네."

카더란다. 그래 카면서로 저기 잠깐 없는 녘에 이 사람, 이 아 둘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 막,

"니 우째 올라옸노?"

카이,

"뒷집에 무슨 지름 발라가 올라옸다. 뭐 우짜고 나 대강만 생기.[3] 마 지름 발라가 올라옸다. 뭐 발라가 올라옸다."

이래 카이, 그래 카이께네 지는 지름 바르이 더 미끄럽고 안 올라오거든. 그래 보이께네 인자 이 아들은 하느님 보고 그걸로 한께 줄로 주루룩 내라줐어. 아들 둘이가 하늘타고 올라가고, 지 올라오갖고 인자 해보이께네 [청중: 미끄랍아서(미끄러워서).] 미끄럽아서 몬 올라오

3) 대략만 생각난다는 의미.

고 이래갖고, 그래가 뭐 그래 또 인자 하늘에 올라가서 임금님 보고 새 줄 내라줐는데, 이거는 인자 또 그래 올라가긴 올라갔어. 올라가서 그래,

"임금님, 그래 새 줄 내라주고 헌 줄 내라줄라."

카이, 이거는 헌 줄로 내라주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톡 떨어져 죽어뿌고, 그래 가들은(아이들은) 하늘에 가 살더란다. [조사자: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책에 보면 있다.

[부산진구 설화 27]

개를 낳은 여자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저게 뭐꼬? 신랑각시 살다가 개로 똑 덱고(데리고) 잤는 기라. 개로 덱고 잤디마는 마 신랑이기 명이 짤라가 일찍 죽어뿠어. 죽어뿌노이께네 마 인자 개로 또 신랑이 덱고 자던 버릇이 돼갖고 지가 덱고 자는 기라.

같이 자이께네, 개 이기 하루 밤에는 마 여자로 마 겁탈로 하는 기라. 겁탈을 해가 막 끌어아듬아갖고 그래 마 끌아듬아갖고(끌어안아서) 이라는데, 여자 그 질로 배가 또독 또독 불러오는 기라. 불러오이께네 집안에서로 마,

"이상하다. 신랑은 아 안 배고 죽었는데, 저리 우째 배가 불러오노? 불러오노?"

카면서 이카이께네, 그래 여자도 인자 배가 불으이께네 실토를 해야 되거든. 그래가 저게 뭐꼬? 인자 시집 몬 살고 막 '무슨 짓고? 카면서 막 어른들이 막 보내거나 우짠다 카이 죽을 판이께네 지가 말로 했어. 그래가,

"개가 그런 일이 어찌 있나?"

고, 마 그짓말이라고 이카이께네, 그래 옷을 벌씨보니까(벌려 보니) 마 개가 재트랑(겨드랑) 밑에 얼마나 홀카, 그게 하면 마 아픈 줄도 모르는 모양이지. 막 개가 이 재트랑을 얼마나 홀카났는지 마 숭터가(흉터) 그래 많더라 카네.

그래 개가 그래갖고 그래 아를 뱄어. [조사자: 세상에 그래가 아는 어쨌는데예?] 그래가 아는 그 개새낀데 낳아봐야 쓸 때 있나? 내삐리고. [조사자: 진짜 그거다 그지예?]

그래 여자는, 여자는 인자 뭐했노 카이 여자는 그 질로 해가 개가 되노이께네 그집 뒤에 하고 한 평상을 늙었어. 안 쫓가보내고. 개로 되놓이께네. '군서방질 했다.' 카고. '아 뱄다.' 캐가, 보이 참 개로 놓고, 개로 개가 홀까갖고. [조사자: 개를 낳았어요?] 그래 개로 놓더라 카네. 그래 마 요 재트랑 밑에, 요런데 마 홰를 치났다 카더라대.

[부산진구 설화 28]

개똥 보리쌀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또 한 사람은 며느리가 참 가난했어. 가난해가 몬 살았는데, [청중: 형님 크게 하소 쫌. 우리도 듣게. 크게 하이소.] 확실히 몰라놓이 안 그라나.

가난해가 몬 살았는데, 신랑은 돈 벌로 가고. 그때 여름에 인자 모를 숨구는데, 저거 시어마씨 줄라고 오만 다된께네 어데 가이(가니) 개가 그거 보리쌀로 묵고 소복이 싸놨다 카는 기라. 그걸 가서 고오와갔고(가져와서) 열두 번도 더 씻고 더 해갖고 그래 묵고. 인자 시어마씨를, 지 한 번 떠 묵고 시어마씨를 줬는 기라.

그래가 모를 숨구러 나가이께네, 논바닥에서 막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막 노숭을(천둥이) 치고 막 이라거든. 막 번개 불이 뻔쩍뻔쩍하이 베락을 때릴 거 같애서,

"요 죄 진 사람 나온나. 죄 진 사람 나온나."

카이께네, 그래 그 아줌마가 논두름에 떡 서거든.

"아측에(아침에) 그래 시어마시 무울(먹을) 건 없고 해서, 그 뭐꼬? 보리쌀로, 개가 보리쌀을 누놓은 거를 씻어가 퍼쟈가(불려서) 지 함 떠 묵고 시어마이 주고 옸다."

카이. 그래 우게저게 하디만은 하늘에서 복을 내라주갖고 그래 상 받고 그래가 부자 돼가 살더라. 그래 효자는, 옛날에 효자는 효자다 그게.

[부산진구 설화 29]

누이를 마음에 품다 죽은 오빠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그러이께네 저거 오빠가 꼬치를 내가 탕탕 깨갖고 자살해뿌고. 근데 그거는 일본, 우리 다섯 살에, 옛날 하는데, 일본에 그 갔다오다가 뵈주는데, 책까지 뵈주는데 모르겠다. [조사자: 그래가지고예? 쫏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예?]

그래가 그 남자가 지가 자살했어. 쫏아가. [조사자: 누나는 뭐라고 했는데예?] 누나는,

"아이구 니만 알고 내만 알면 그 한다."

카고, 이해하는데 오빠가 그래. 그게 옷이 쪼로록 젖어놓이께네 마 마음이 갔던 모냥이지. 비가 오고 비로 쪼로로 맞고나이(맞으니). 근데 그거는 일본사람이 그랬다 카대.

[부산진구 설화 30]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조사자: 그런 이야기도 있대예. 며느리가 방구 참다가 얼굴 노래지니까.] 방구 참다가 그래, '며늘아!' 그리 카이께네 그란다. [웃음]

방구도, 며느리도 하나, 이기 처이(처녀) 때부터 방구를 잘 낐어 마. 처이 때는 마 퐁 퐁 끼다가 시집을 떡- 가고나이, 방구를 참으니 마 빙이(병이) 나는 기라. 노라이(노랗게) 빙이 나갖고. 그래가 시아바시가 묻는 기라.

"아가 올 때는 얼굴에 그리 좋더마는 오고나이 와 니가 노랑쪽줄 지고 그래 뭐하노?"

카이,

"아부이, 실제 이런 소리 할라 카이 부끄럽지마는, 저게 뭐꼬? 처이 때는 방구를 지 맘대로 저거 집에서 끼고, 요서(여기에서는) 방구를 참아야 그렇습니다."

카더란다.

"그럼 좋다. 니캉 내캉만 알고 아무도 없을 때 방구 한 번 디기(세게) 끼뿌라."

카더란다.

"아부이, 요쪽에서 지동나무로 잡으이소. 그라면 아부이 해나 내가 끼도 아부이 날 쫓가보낼랍니까 안 쫓가보낼랍니까?"

"아이, 안 쫓가보낸다."

캐. 시아바씨가 참 저쪽 지동나무 딱- 가서 붙어섰어. 붙어서가 있으이까네 며느리 이쪽에서 방구를 끼거든.

"퐁-."

낀게 마, 집이 마 한쪽으로 넘어가는 기라. [일동 웃음]

"며늘아, 집 넘어간다. 아이구 큰일났다." [웃음]

"그래, 아부이 퍼뜩(빨리) 이리 오서 잡으이소."

하더란다. 그래. 이쪽 와서 턱- 잡으이께네, '퐁' 낀게 바로 딱 서더란다.

"다시는 인자 끼지 마래이."
끼고. [웃음] 인자 그래 카면서, 그래가 그런 것도 있다 카더라.

[부산진구 설화 31]

개로 환생해서 아들집에 온 어머니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조사자: 일만 해도 별로 안 좋아 한다대예. 그래갖고 일만 하다가 저승 갔더니만 마 세상 구경 안하고 왔으니까 니 세상 구경하고 오라고 개로 태어났는 거라예.] 그래 그것도 맞다. [조사자: 그 이야기 쫌 해주이소.]

개는 우째 됐노 카이께네, 저 이 집도 부자라. 부잔데 인자 시장가서 개로 한 바리, 개가 마 치다보이 참, 사람, 메느리 지금 치면 메느리라. 개가 떡 보이께네 마, 시장 가니 그래 예쁘고 지보고 따르더라 카는 기라.

그거를 한 바리(마리) 사가 옸어. 사 와서 하이께네 참 개가 얌전키 크는 기라. 얌전코 주전엽도 안 끌고(주전부리도 안 하고), 오만 거 다 놔나도 다 안 하고 하는데. 그래 한 번은 인자 제사가 돼갖고 제삿날이 닥쳐서러 인자 제사를 가는데, 고기를 꾸우(구워) 놓으니께네 딱 생인에(생전에) 입도 안대가 하는 기 고기, 지사(제사) 쓸라고 시어마이 지사 지낼라고 고기를 딱 꾸우놓으니 고기 대가리만 딱 띠 무읐더라(떼어 먹었더라) 카는 기라.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 우짯는고 카면, 마 제사 씰(쓸) 거로 고기 대가리를 띠 무웃인께네(먹었으니까) 며느리가 부지깽이로 갖고 마 탁 때리면서,

"와 해필 이때 묵다가, 고고를(그것을) 무읐노?"

카며, 때리놓으이께네 이 개가 마 말도 없이 나가뿌는 기라. 나가뿌갖고 있는데 그래도 개가 덱고 있다가 나가뿌고 나이까네,

"아이구이, 이 개가 어디로 갔는고?"

온 천지로 다 다니께네, 그래 저거 등넘에 또, 옛날에 시골이 돼놓으니 등넘에 그 저 저거 작은집이 있는데, 작은집 동시가(동서가) 인자 제사 지내러 오갖고,

"아이고 행님, 집 갠가? 우짼가? 개가 우리 집에 오갖고 도저히 안 간다."

카는. 그래,

"안 간다."

카면서로, 그래 가갖고 인자 저거 갠가 싶어서 며느리 가이 저거 개라. 그래 우짯노 카이,

"고기 와 그랬노?"

카이,

"고기가 생전에 안 묵고 주전엽(주전부리) 안 대는데 고기를, 제사고기를 해뿔(하필) 대가리를 똑 띠 무웃뿌더라."

카는 기라. 띠 뭇어. 그래,

"부지깽이로 몇 차리(몇 차례) 때리났디마 가가(그 개가) 안 온다."

카면서. 그래갖고 시어마씨 넋이가 개가 됐어. 개가 돼갖고, 그래갖고 참 알고, 시어마씬 줄 알고. 그래 굿을 하고, 이래 해가 하이께네 그때부터 곱게 죽어갖고 안 나타나더란다. 그래 그런께. [조사자: 신기하다 그지예?] 그래.

[부산진구 설화 32]

버려진 아이를 키워준 개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개가 옛날에 사람카먼(사람보다) 낫다. 옛날 작은어마이 큰어마이가 사는데, 이 집에 자석이 귀하는 기라. 자석이 귀해서러 인자 이리 큰어마이가 아를 뱄는 기라. 큰어마이 아를 배가 이래 있는데, 신랑이 아 밸 때 어데 출장을 갔어.

출장을 갔는데 여자가 아로 놓는데 인자 작은어마이가 받을 챔이라. 받을 챔인데 아를 낳아가 작은어마이한테 죽었다 깼는 기라.

죽었다 캐가 어데 갖다 놨노 하면 저 산중에 갖다가 마 놓고. 그래 그때 누가 봤노 카이 개가 봤어. 개가 봐. 그 지금 보면 그 밀양 그 개 비가 있다. 비가 있는데, 그래 남자가 저 어데 갔다 오이께네, 남자 두루막 자리를 물고 마 자꾸 짖는데 저 산을 끌고 가더란다.

"이 와이라노? 와이라노?"

카이, 보이께네 결국은 산을 끌고 와서 따라갔어. 따라가 보이께네 굴겉은 데 이래놓고 복숭아를 항거썩(가득) 갖다 마, 물어다 갖다놓고 그 아가 하나 딱, 머시마가 하나 눕우가 울어쌌더란다.

그래가 그 남자가 오서 조사를 해보이 첩년이 그기 그 아로 갖다 산에다 죽어라고 내삐리난 기 개가 그리 보고 돌보고, 남자 오도록까지 키았어. 키아갖고 그래 작은어마이 그거는 몬 살고 쫓기가고. 밀양 가면. [조사자: 그게 밀양에 있는 겁니꺼?] 응. 밀양 가면 그.

[부산진구 설화 33]

복을 타고 난 난장이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옛날에 난쟁이가, 우리 마을에 그거는 진실이고.

우리 마을에 난쟁이가 하나 영감쟁이 있었는데, 그 영감쟁이가 돈이 마 너무 그 한 마을에 마 전부 저거 땅이고 저거 집인데. 그거 뭐꼬? 지만 난쟁이, 난쟁이가 복은 타고 나는갑대. 부자 되면.

근데 아들들은 다 크는데, 고 하나는 난쟁이로 낳아. 그래갖고 핸대. 그래 그 난쟁이로 놓을 때 여자를 마 키가 크는 기라 또. 키가 크는데 여자가 마 포은이 짔던 모양이지. 그래가 인자 저거 아부지가, 인자 친정 오는데 저거 아부지가 따라왔어. 난쟁이를 치아놓고[4]. 난쟁이는 치아놓고, 장개 갔는데 딸 아부지 오이께네, 그다 돈을, 밥그릇이고 뭣이고 아무것도 안 오고 은돈만 소복소복 담아놨어. 저거 아부지 돈이 포은이 짔으이께네 돈은 묶어 가라고.

그래 핸대, 그래 여자가 참 아로 딱 낳은데 전부 키 크고 이렇데 보이. 이런데 하나, 끝판에 하나가 난쟁이가 나오는 기라. 대가리가 커다란 기. 그거를 갖다가 마 팍- 엎어 직이뿠어. 죽지마라고. 죽어라고.

포은이 지가 그래 죽었는데 그 딱 죽고나이께네 그 부자살림이 다 망해고. [조사자: 그게 업이네.] 그래가 그거를 할 게 아이라 지 복 나온 거는. 그 직이면 안 돼.

그래 하나 나온 거 고거 직이고나니 살림이 다 망해고, 영감이 죽고, 아들은 보이까 또 저거 어매가 키가 크데. 저거 어매가 젊고, 메느리 젊는데 살림이 있으이 그렇지. 그 부자살림이 다 망하이께네, 마 있는 놈이 망해놓으니 얼매나 그 하노? 그래갖고 그래 물으면 난쟁이 그거로 복인데, 그기 복인데 그걸 직이뿠어. 직이뿠어. 그래 그 살림이 다 망하고. 그렇게.

[부산진구 설화 34]

정성을 드려야 하는 제사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4) 결혼시켰다는 의미.

그것도 있어. 영감 할마이가 둘이 쌍 메(쌍 묘), 둘이 같이 죽어 쌍 메로 딱 해놨는데, 그 질 가다가 오다가 우떤, 질이 저물아서 그 청년이 그 무십고 몬 가서 그찍에(그쪽에서) 자게 됐어. 근데 메가 요래 두 쌍 있은께네, 복판에 딱- 눕어 자이께네 하나도 안 무십더라 카네. 그래 누우 자는데 할마이가, 영감이 인자 떡- 오디,

"여보. 오늘 저거 아들 인자 제산데 밥 무러 가자."

카이,

"우리 집에 손님 오서 몬 가겠소."

카더란다. 손님 오서 몬 가겠다 카이께네,

"그라면 내 혼자 갔다오끼요."

이라더라는 기라. 그래 갔다오갖고 막 털털 하더라 하는 기라. 그래,

"와 오늘 기분이 나쁘던교?"

카이,

"뱀이로 옇나서러 마 아를 부식에(부엌에) 차 옇어뿌고 오는데."

아이 그럼, 할마이가 있다가,

"아이 그렇지만 그런 짓 해가 되요? 아가 죽어서."

"쪼끔 상처 나구로 핸대. 그 모티(모퉁이) 보면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삶아가 믹이면, 목욕 씻기고 하면 나살 낀데(나을 것인데) 우짜겠노?"

카대. 그 남자가 딱 듣고 오이, 참 그 말에 아칙에 날이 새서 오이께네, 제삿집에 아가 디이갖고(데여서) 뭐 제사고 지랄이고 뭐 얄궂더란다. 그래가 참 그 사람들이 해줐어. 그래,

"밤에 멧밥에 하먼 머리카락 들었는가 봐라."

카이께네, 머리카락 들어있더란다.

[부산진구 설화 35]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송순금(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호랭이 온다 칸게네로 그래도 울고 한께, 꽂감준게 안 울더라. 아이고 호랭이가,

"꽂감 저게 나카만(나보다) 더 무섭구나."

칸게네로, 호랭이 도망가더라 카대. [청중: 그래 꽂감이 더 겁난다 칸다.]

[부산진구 설화 36]

고양이로 도둑을 잡으려다 아이를 잃은 사람

송순금(여, 1932년생), 이창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고양이를 갖다가 [청중: 고양이를 갖다가 해갖고.] 인자 그 솥에다가 뭐 인자 안 죽을 만침 쪘째. 그런께 고양이가, 그 사람 인자 도둑놈, 도둑질 해가는 사람가지고 히비뜯는 기라. 문디가 된다 카대 마. 안 그라면 까르히비서(할퀴어) 마. [조사자: 그래 아를 그랬는가 봐예.] 그래 이건 아이고.

그래 보이 저거 아가 도둑질 해갔다고 에먼(엉뚱한) 사람을 막 그래 해노이께네, 난중에 보이 저거 아가 술독아지(술독에) 그 빠자, 기 댕기면서 빠자놓이께네, 저거 아가 그렇다. [조사자: 양밥 함부로 하면 안 되지예?] 양밥은 함부로 하면 안 돼.

[부산진구 설화 37]

봄나물들의 대화

이창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쑥이 봄에 쏙- 올라 온께요. 미나리가 나와갖고 뭐라 칸다 카더라? 뭐 미나리로. [웃음] 미나리가 마,

"나도."

그칸께, 인자 나시랭이[5]가 있다가 마, 돈내이[6]가 나와갖고,

"돌아가면서 하자."

칸께, 나시랭이가,

"나도."

칸다 카대. [일동 웃음]

5) 냉이의 방언.
6) 돌나물의 방언.

[부산진구 설화 38]

사랑도 못 나누는 단칸방 살림

이창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그래. 내나 그래갖고 도저히 내우 간 만낼 일이 없는 기라. 아들이 많애가 총총 누우갖고. 그래가 둘이서 의논을 했어.

"내가 만일 베겉에서러(밖에서) 달로(닭으로) 해갖고 내가 '꼬꼬' 카거든, 니가 살- 나온나."

카는 기라. 그래가 참 남자가 그리 둘이 짰어. 짜가 남자가 밖에서,

"꼬꼬."

카이께네, 여자가 나가거든. 아들이 다 일라가(일어나),

'삐약. 삐약. 삐약,'

하매, 저거 어메 나타나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기라. 그래갖고 도저히 결국 저거 엄마 한 번 자보지 못했어.

[부산진구 설화 39]

시아버지 병을 낫게 한 며느리

이창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옛날에는 시아부지가 아팠는데, 그래 저게 오데(어디) 가 물은께네는 아를 하나 저 삶아 믹이라 캤는가 봐. 그래논께 인자 [청중: 크기 해라. 크기.] 그래 아가 학교 갔다 오는데, 오는데 물을 끓이갖고 아 그놈을 갖다 인자 고아갖고 시아부지를 줬어. 주고난께 마 신랑이 막 저거 마누래 쫓아 직인, 독해갖고 쫓을라 카는데 막, 시아부지는 낫고. 그 쫓을라 카는데 아가 대문간에서,

"엄마."

하고 들어오더라 캐. 그기 솥에 디다 본께 삼이더라 캐. [청중: 아가 아이고.] 응. 그래가 가(아이) 그 산신님이 저 내라줬는 기라. 그런 이야기도 있대.

그래갖고 마 인자 마누래도 살고, 소부(효부) 아이가 그제? 그래 그랬다 캐. [웃음] [조사

자: 옛날에 효녀나 뭐 이런 거 다 복 받는다. 그지예?] 복 받지.

[부산진구 설화 40]

정성을 드려야 하는 제사

이창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소금장사가 소금 팔러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그 저게 소도 오데 우질러놓면은[7] 멧등 앞에 그 자거든 소도. 소가 무서움 많다. 그래 그 소금장사도 질을(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와 넘 집에 자도 몬 하고 멧등에 가서 자니까. 그 자고 있으니까 막 저 남자가, 저저 할아버지가 하나가 마,

"아이 친구, 저게 우리, 저 우리 집에 마 제사 지낸다 카던가? 뭐 하는데 그 가자."

카면서, 가자고 델고(데리고) 가더라 캐. 같이 마 가는데, 그 가면 인자 초상 친, 와 생이(상여) 메고 온 고 질로 고 질로 가는 기라. 그래 간께네로 아이 마마 뭐 참 저게 행님 말맞따나(말대로) 구리이를 삶아놔서 머리카락이 있어갖고 마 손자를 갖다가 마 부싴에 탁 차 옇어삐리고 왔어. 그래 나가,

"아이 와 일찍 왔노?"

이칸께,

"아유, 마 뭣이고 구리이를 삶아나서 마 아를 갖다가 부싴에(부엌에) 탁 차였다고."

하더라 캐. 옛날에 그런 게 있어.

[부산진구 설화 41]

수수께끼(1)

정정희(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수수께끼 하나 하께. [조사자: 하나 해주이소.] 어 일 원, 구 원, 삼 원, 칠 원은 얼마고?

7) 소를 자유롭게 풀어놓았다는 의미로 '어질러 놓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조사자: 할매 너무 어렵다. 다시.] 일 원, 구 원, 삼 원, 칠 원. [조사자: 일 원, 구 원, 삼 원, 칠 원.] 퍼뜩 대답을 해야지. [조사자: 일구 삼칠. 일구 삼칠. 모르겠네.]

일 언(원), 구 언, 삼 언, 칠 언. 그또(그것도) 몰라? 일 언, 구 언, 삼 언, 칠 언. 일 원, 구 원, 삼 원, 칠원. 몰라? 이십 원아이가. 이십 원. 일 원하고 구 원하고 보태면 십 원. 삼 원하고 칠 원하고 보태면 시 원(십 원). [조사자: 아이! 할머니.] 이십 원. 아이고.

[부산진구 설화 42]

수수께끼(2)

정정희(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이거는 진짜 몬 맞춘다. [조사자: 아, 함 해보입시다.]

여 여 메가(묘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아 그 앉았어 막 섧기(슬프게) 섧기 울고 [청중: 옳지 잘 한다.] 글서(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지내가다,

"아가 그 메가, 메하고 니하고 뭐가 되길래 글캐(그렇게) 섧게 우느냐?"

카이까네, 아가 하는 말이 있다가,

"이 메(묘) 저거 아부지는 우리 아부지 쟁인이요. 장인. 장인. 근데 그 아하고, 그 메하고 그 아하고 뭐가 되게?" [조사자: 외할아버지지 뭐. 아입니꺼?] [일동 웃음]

다시 다시 할게,

이 매 저거 아부지는 우리 아버지 쟁인이오. 장인이오. [조사자: 외할아버지고.] 이 매 저거 아부지는 우리 아부지 쟁인이까 울 아부지하고 호 누아 뭐가 되노? 이 말이다잉.

[조사자: 외할아버지 아입니까?] 아이다. [조사자: 그라면.] 응. 아이다. [조사자: 외조부. 외조부.] 어마? 외조부? 외조부나 외할아부지나 [조사자: 그러니까 고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조사자: 뭔데예?] 몬 맞추나? [조사자: 예.] 옴마(엄마). 옴마다. 옴마. [조사자: 아아! 아버지 묘가 아니라 이 묘 저거 아부지는.]

응. 이 메 저거 아부지는 우리아버지 장인이다. 에이구 그것도 몬 맞춘다. [조사자: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부산진구 설화 43]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한 호랑이

정정희(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저 저 며느리가 참 아를 놓고 참 시아바시 지 뭐꼬? 고 장이 씨이(장이 서니) 장보러 갔었는데 한 시 넘어도 안 오시는 기라. 그래서 확- 인자 마중 나갔는 기라. 아를 떡- 업고. 마중을 척- 나왔는데 아무리 가도 가도 안 돼.

인자 거서 낮은 산 있제? 낮은 산 쪽으로 짝- 고 올라가이께네, 시아바시가 술이 잔뜩 돼가 착 쓰러져 누우가 있는데, 그 옆에 호랑이가 탁- 지키고 있는 기라. 인제 자아물라고. 호랑이는 죽어가 있는 사람 절대 안 자아먹어. 살아가 있는 사람 자아묵지. [청중: 응.]

그래가 꼬리를, 저 건너 또랑에 가서 꼬리를 갖다가 물에 칠해. 칠해가 와가지고는 착착 물로 칠해. 또 가가지고 물 떨어지면 물로 그래 탁 탁. 그래 인자 하여튼 요놈우 영감, 니 깨면 자아물라꼬. [청중: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할라고.] 그라고 있는데 메느리가 턱- 오늘 그 저거 시아부시가 마 죽기 됐거든. [청중: 응.]

그래 지 등에 업은 아는 탁 내라놓고 시어바시를 막 딱 떤치업고(들쳐 업고) 막 가는 기 집에 가는 기라. 아는 나놓고 그래 턱- 할까이,

"아휴 엄마, 아는 놓으모 또 아가 있다."

고. 그래가 참 그냥 나놓고 마 가삔 기라. 그래 날 새고 아(아이가) 걱정이 돼서 턱- 아침에 가볼까 싶어서 일나서 나와보이까네, 마루에 자기 아가 탁 나와가 있는 기라. [청중: 갖다 놨다.] 얼마나 반갑노? [청중: 호랑이도 효자는 안 잡아묵는다 카더라.] 그 호랑이가 저 저 저 저 뭣고? 메느리가 너무 호성이(효성이) 지극해서 [청중: 그렇지.] 지극해서. 자기 아는, 어떤 사람 같으면 지 아만 업고 도망가지. 시어바이 그 놔놓고 하나?

[부산진구 설화 44]

여자 음부 보고 달아난 호랑이

정정희(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어떤 아낙네가, 아낙네가 자기 친정에 부친 제사를 지내고 인자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제사 지내면 시 되게 늦었잖아? 마 한 시나 안 됐겠나? 근데 차가 다 끊어지고 없고 빨리 가야 되는데 천상 산으로 올라가야 빨리 가는 기라.

그래 인자 산으로 올라 턱 가는데, [웃으며] 열나게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한 바리 턱 앉

아가, ‘어흥.’ 자아물라고 이라고 있거든. 앗다! 그 가도 오도 몬 하고 어?

그때 그 아낙네가 마침 몸엣기(생리를 말 함) 있은 기라. 몸엤기 있아가지고. 그래가 자기가 탁- 생각 하디마는 [호랑이 흉내를 내며] [청중: 진짜 호랭이 겉다.] [일동 웃음] 싹 돌아앉아가 치매가(치마로) 딱 덮는다. [웃음] [치마로 머리를 덮고 앉아서 걸어가는 흉내를 내며] 그래가 이래가 호랑이 있는 쪽으로 ‘오로로롱’ 가고 있거든. 호랑이가 여 딱 쳐다보고 오이까네, 지 입으는 요리 째졌는데 [손으로 가로 세로를 그으며] 요놈은 요리 째졌거든. 그래 딱 봐라.

‘이상하다.’ 피를 칠칠 흘려. ‘사람을 얼마나 자아묵었길래 피를 저리 흘리고 있노?’ 마 놀래가 호랑이가 마 삼십육계 줄행랑 막 도망을 가뿌는 기라. 그래서 그놈 피 때문에 살아났는 기라. [청중: 호랑이가 자아묵을라 하면 양산 짝 펴면 달나는(달아나는) 기라.] [조사자: 그래 호랑이가 그지예? 세상에 요래 째진 입은 봐도 세로로 째진 입은 첨 봤다?] [일동 웃음] [청중: 그 아주 옛날이야기다.]

여 여 여자는 요래 째졌거든. 호랑이 요래 째졌거든. [조사자: 요래 째진 것은 처음 봤다. 이라면서.] 그렇지. 세상에 지는 요래 째진데 저저 놈 입은 뭐 우찌 됐어 요리 째진 기 피, ‘사람을 얼마나 자아묵었으면 어 피를 저래 흘리고 있는고?’ 놀래가 또 호랑이가 도망을 가뿌맀어.

[부산진구 설화 45]

문둥병 남편을 낫게 한 아내

조우임(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옛날에 그 저 남편이 문둥빙이 들어갖고, 그 빙이(병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 인자 그 빙 들었는데, 인자 그 여자가 인자 저 뭣고? 참 남자 살릴라꼬, 그 저 산에 가서 저 시체 다리를 끊어다가, ‘다리를 끊어다가 그 삶아 꼬아 믹이마(먹이면) 낫는다.’ 캐놘께 여자가 막 골짜기 올라갔는 기라. 공동묘지에.

공동묘지 올라간 게 막 비가 막 녹날겉이 싸두는데(내리는데) 그래 인자 강 가갖고 보니까이 그 영장이, 참 자기 눈에는 영장이지. 그 미에(무덤에) 묻도 안 하고 꺼적때기로 갖고 그냥 막 덮어놨더란다. 그래 덮어나서 그래서 인자 이 여자가 막 이 톱을, 가지고 간 톱을 갖고 한쪽 다리를 끊었는 기라. 그래 끊어갖고 온께네로 막 그 영장이 막 뒤에 따라오미,

“내 다리 내노라.”

고. 막-,

“내 다리 내노라.”

고, 가암을(고함을) 질러쌌는 걸 마 뒤도 안돌아보고 마 와갖고, 고마 마 장작불 모다논(모아놓은) 그, 모다놓고 그래 갔는데, 물을 부우놓고 갔는데, 마 쫓아와가지고 콱- 그따다(그기에) 옇어뿌맀는 기라. 그리 옇어가지고 인자 밤에 인자 꼬아갖고 인자 남편을 믹있어. 그래 남편을 믹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인자 본께네 남편이, 막 남편 몸에서 구더리가(구더기가), 온 구더리가 막- 온몸에 구더리가 다 나온다 캐.

나왔고, 그 저 저 나왔는데 보니까 ‘내 다리 내 놓으라꼬.’ 따라온 그 그기, 시체가 보니까 막 동삼이더란다. 동삼. 그래갖고 여자를 낫았단다. 그래. 그 저 저 남편을 낫았단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

[부산진구 설화 46]

누이를 마음에 품다 죽은 오빠

조우임(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저게 인자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둘이 살았는 기라. 그 둘이 살았는데, 인자 골짝에 인자 윗도리에(웃동네에), 윗도리에 사는데, 그래 인자 누나하고 인자 동생하고 인자 이래 동네 인자 내리간다고, 볼일이 있어 내리간다고 갔어.

그래 갔는데 물이 많애가지고(많아서) 저거 누나가 건니지를 몬 하는 기라. 그러니까 남동생이 업었어. 그래 업고 인자 건니갔어. 업고 건니갔는데, 가다본게(가다보니) 남동생도 나도(나이도) 많고 여자도 나이 많은데, 이 여자라 카는 거는 처음으로 업어봤는 기라. 그런께 이 남자가 고마 암만 저거 누나지만은 고마 마음이 고마 좀 그거 했던 모옝이지(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저게 뭣고? 남자가 고만 빙이 났어. 고만 저 동생이 죽어뿌맀는 기라.

그래 죽어논께네로 그래 인자 저거 누나가,

“그 사랑한다꼬 말이나 해보지. 말도 안하고 그랬느냐?”

하면서, 그래 그런 노래도 우리 신곡도 배았다(배웠다).

[부산진구 설화 47]

상사뱀이 된 총각

조우임(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옛날에 우리 우리 클 적에 우리 나는 구경하러 안 갔는데, 모두 구경하러 갔어. 갔는데, 처녀하고 총각하고 연애를 했는데 양쪽에 부모들이 인자 처녀 집은 부자고 총각 집은 머슴이라. 이래논께 인자 저 처녀 집에서 인자 그거를 안 하는 기라. 허가를 안 내놓는 기라.

이랜께네로 인자 총각이 인자 저저 뭐꼬? 고만 그걸 했어. 죽었어. 그 빙이(병이) 들어서. 그 처녀 보고 죽었는데, 그 처녀가 저저 참 총각이 죽었는데, 그 총각이 구리이가 돼갖고 처녀 자는 방에 들어와갖고, 저게 뭐꼬? 여 텍밑에(턱밑에) 여게, 모가지는 요요 '탁' 이래갖고 있고, 탕-탕- 감아서 꼬리는 여 처녀 여 사타리(사타구니) 새로(사이로) 요래 감고 그래갖고 있는데 처녀를 고마 말라 직이는 기라 고마. 그랬는데,

"그래갖고는 안되고 상사풀이를 해야 된다."

카는 기라. 그래가 인자 그 용소라 카는 데가 있어. 소가. [청중: 용소.] 그 아이구! 동네 이름도 잊어뿔랐다.

용소라 카는 데가, 소가 막 참 무섭은 소가 있어. 그래 있는데, 나무가 척- 이래 있는데 그게다가 인자 처녀를 갖다가 인자 갖다 놔놓고, 처녀를 그 나무 밑에다 갖다 놔놓고 그래 막- 굿을 해. 막 굿을 해갖고 인자 풀이를 하는 기라. 풀이를 하민서 인자 마 저저 뭐꼬? 풀어주라꼬. 풀어주라꼬 그래 저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기라.

그래서 그 처녀하고 총각하고 같이 고마 그 소에다가 빠쟈뿌맀는 기라. [청중: 그 빠쟈뿐다.] 그 빠쟈뿌맀어. 그런 것도 있었어. 그때는.

[부산진구 설화 48]

사랑도 못 나누는 단칸방 살림(1)

문봉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옛날에 인자 저 식구들이 많은 기라. 새끼들을 많이 나놓으니까 방은 한 칸이고, 식구들은 많고, 그래 나가지고 이 영감 할멈 한 번 일을 칠라 카이 도저히 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인자 저녁에 밥 해묵으면서 하는 말이 영감이 할마이 보고,

"내가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밖에 나가가 저 '꼬곡, 꼬곡,' 하면은 '꼬끼오.' 하고 나오라."

했어. 그러니까네 인자 대체 시간이 되가지고 애들이 잔 거 같애. 그래 아이고이 살짝이

나가,

"꼭꼬-."

하고 하니께네,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하고 나오는 기라. 인자 엄마가.

"꼬꼬닭, 꼬꼬닭."

하고 나오니까네, 애들이 전부 다 일나가(일어나),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일동 웃음]

하고 나오는 거라. [웃음] 그래가 한번 일을 할려다 몬 했어. 우얄 끼고?

"삐약, 삐약"

하고 나오는데 그제? [일동 웃음] 그래 몬 했는 기라. 그래갖고 몬 했어 인자.

[부산진구 설화 49]

사랑도 못 나누는 단칸방 살림(2)

문봉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옛날에 젊은 인자 저 아들을 한 서넛이 낳아 놓고,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아들, 잘 둘이 다 - 인자 서이 눕혀놔놓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요래 발로 꿈적꿈적 했는 기라 마누라를. 그라니까,

"아이고 사람들, 사람 직이네. 아들들 잠도 안자고 있는데."

그럼서(그렇게 하면서),

"안 한다."

하는 기라. 그러니까 또 깜작깜작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도 구찮으니까는 일나봐라 캤는 기라.

그래 애들이 자니까는 머리 위로 살- 가갖고 마누라 실실 꺼지 가갖고 올리 세웠어. 옛날에는 방 빗자루를 이래 싹싹 씰고(쓸고) 어디다 걸어 놓냐면? 옛날에 선반이 두 개 딱 걸어져 있거든. 그 선반에다 딱 방 빗자루를 올리놨는 거야. 아 그래 서가지고,

"아이고 구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신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께네, 신식으로 한다고 서가지고 둘이 인자 한참 한다고 하니께네, 이놈의 것 머리가 마 빗자루 몽댕이가 닿았어. 톡 떨어지니까 아들을, 뭐 뭐 이마땍이를(이마를) 딱 씰이삣는

기라 큰아들을.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이,

"마 구식으로 하지 신식으로 한다고." [일동 웃음]

캐싸면서, 일어나는 기라.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방이 비잡으니까(비좁으니까) 몬 하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50]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문봉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그거는 인자 우째 됐냐믄은, 식구를 인자, 식구들이 아 새끼들을 있는 대로 다 나놓으니까 많다 아이가 그쟈? 방은 비잡고 이불은 작고 하니까. 이불에다 전부 다 요래 구멍을 딱딱 뚫었어. 그래갖고 인자 아부지는 모가지(목) 딱 걸고, 또 애들 모가지 쭉- 걸고, 맨 뒤에 인자 엄마 모가지 딱 걸고. 그러니까네 이불이 서로 안 끊기져 간다 아이가? 이제.

그래가 인자 모가지를 끼고 있다가 엄마를 살짝이 데려와갖고 옆에 놔놓고. 고마 마 아부지가 모가지를 빼고 했으면은 모를 낀데, 모가지를 걸고 좋으니까는 마 했는 기라. 그래가,

"좋나? 좋나?"

그러니까, 아 애들이 있으니 말을 몬 하고 [소리가 안 들리게 속삭이며] 해라 카이까네,

"좋으면 좋게 좋다 해라."

이라니까, 아 이놈우 것 아부지가 자꾸 흔드니까, 아들 서이 너이 다 누워있는데 다 흔들어지는 거라. [일동 웃음] 인자 다 흔들어지니께네, 아이고 어이 네,

"좋나? 좋나?"

하니까네, 하도 좋나 소리에 좋다 소리를 안 하는 기라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이 눕어 있다가(누워 있다가) 모가지가 씰키가지고 안 되겠는 기라. 아프고.

"엄마 좋으면 빨리 좋다 해라."

이라는 기라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잉! 애들이 하는데, 이게 그거 한 지도 모르고 아바이가 그래하다가 아들한테 들킸다 카는 그런 이야기라.

[부산진구 설화 51]

계란장사와 닭

문봉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그라고 또 내 이야기 하나 해줄께. 계란장사 계란을 팔았는데 이 아줌씨가 계란을 한 번 사갔는 기라. 사가가, 딱 사가가 보니께네, 아이 계란이 노른자가 없어. 흰자만 있어. 그러니 가져와갖고,

"아이고이, 아이고 저 계란이 와 노란자가 없고 흰자만 있어요?"

커이께네, 딱- 주인이 닭장에 가더만은 닭을 탁 보고,

"닭년들아 나온나." [일동 웃음]

하는 기라. 그러니까 닭이,

"꼬꼬댁, 꼬꼬댁." [일동 웃음]

하고 다 나오는 기라.

"엊저녁에 콘돔 끼고 자는 놈 나온나." [일동 웃음]

하는 기라. 그러니까네 닭이 전부 다,

"니가 낐나?"

"니가 끼고 했나?"

"니가 끼고 했나?"

하이, 안 나오는 기라. 아 그래서 몬 찾고 도로왔어. 왔더이 아 또 저 양반이 또 사가지고 왔던 거 턱 오디만,

"하이고 쌍디가(쌍둥이가) 나왔다."

이거라. 노랑자가. 그러니께네 또 가만히 있어봐라 캐. 또 닭장에 갔어.

"닭년들은 나온나."

하는 기라. 그러니까 또 닭들이 또 쪼꼬 쪼꼬 또 나와. 나와갖고 모가지를 다 내밀고 쭉- 하고 있으니까네,

"엊저녁에 두 탕 뛴 년 나온나." [일동 웃음]

하는 기라. 그래서는 두 탕을 서로 안 뛌다고 다 모른다 하는 거라 닭들이. 그러니 또 떡 왔어. 그러니까 둘이 갇혀 있네. 아니 또 저 사람이 또 사고 와가 또 왔네.

"아유, 당신은 왜 왔는교?"

하니까네,

"하이고 계란이요. 피가 묻었어요."

하는 기라.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봐라."

카면서, 그래가 또,

"닭년들은 나온나." [일동 웃음]

하니까, 또 나오는 기라. 닭년들 듣고.

“어제 저녁에 맨쓰 하는 년, 맨쓰 하고 하는 년 나온나.” [일동 웃음]

하는 기라. 그러니깐 닭들이 누가 나온다 하겠노? 다 안 나올라 카지. 맞아 죽을 낀데. 그래가 닭들이 전부 다 지 나름대로 다 나중에,

“돈이나 벌지 응! 일일이 와서 응! 두 탕을 뛰던가 응! 맨쓰를 하고 아를 낳던가 응! 어 콘돔을 끼고 했던가? 말라고(뭐하려고) 와서 저래 씨부리쌌노.”

이라더란다. [청중: 하이고 참, 내 몬 산다.]

[부산진구 설화 52]

목욕탕에서 나눈 부자간의 대화

문봉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인자 아들하고 인자 아바이하고 둘이 목욕탕에를 갔는 거라. 그래가 탁- 목욕을 하고. 다섯 살 묵은 아들이 가만히 보니, 아부지 이 지가 보니께네, 꼬치하고 불알하고 보이 마 새-카 맣거든.

그러이께네, 아이고 지 꺼(자기 것) 한 번 치다보고 아버지 꺼 치다보고. [청중 웃음] 지 꺼 한 번 쳐다보고 아버지 꺼 쳐다보고. 아이고 아무래도 이상한 기라.

“아부지, 아부지 꺼는 왜 그리 시커멓습니까? 내 꺼는 안 새카맣는데예.”

그라니께네, 하는 말이,

“하이고 야야, 니도 조개한테 한 30년 물려봐라. 다 새카맣는 기다.” [일동 웃음]

이라는 기라. [청중: 아들이?] 응. 조개한테 물리봐라. 조개한테 물리가지고 새카매졌다 이거라.

그러니까는 인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기라. [웃음] 그기.

[부산진구 설화 53]

곡하면서 방귀 뀐 할머니

문봉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또 하나 있는 거는.

인자 영감이 죽었어. 인자 우리 나이는 좀 안 됐것지. 한 오십이나 됐겄제. 영감이 죽어가,

"[곡소리로] 영감이, 아이고, 아이고, 영감이 죽어노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발을 뻗고 울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시동생이 와서 툭- 뒤에 와서 서서 보고 있으니까는,

"[곡소리로] 아이고 영감, 영감, 아이고, 할 때 하자할 때 할 거로, 아이고 영감." [일동 웃음]

그러니까, 요래 방구를 '풍~' 끼니까는 방구가 뒤로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푸루루푸루루룩' 나오는 기라 [일동 웃음] 그러니까는,

"[곡소리로] 아이고 영감. 영감이 가니까 내 보지도 울고. 아이고, 아이고." [일동 웃음] [청중: 니 너무 웃긴다.] 그래 내 울다가 떡- 쳐다보니까, 시동생이 와 있는 기라. 그래가 시동생.

"[곡소리로] 아이고, 시동생 언제 왔능교?"

이러니까,

"[곡소리로] 아이고 형수님, 보지 울 때 안 왔는교?" [일동 웃음]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놓겠노 그제? [일동 웃음] 그런 이야기가 있어.

[부산진구 설화 54]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1)

문봉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인자 보리를 [웃음], 오늘 해까지 못 할 건데. 보리 수매를 하는 날이라. 그래 인자 보리도 수매를 하면은 가마니가 새 가마에다 해야 되는데, 헌 가마니에다 해놓으면 보리가 줄줄 새거든. 그래노니께네 인자 이, 저, 동네 이장이 쌔가(혀가) 쪼금 짧아. 짧아노니께네 인자 그날 아침에,

"아. 아, 알립니다."

하면서 인자 마이크를 대고 동네에다가 인자 스피커로 하는 거라. 하는데,

"아. 아. 알립니다. 오늘은 보리 수맵니다."

이래야 되는데,

"보지 수매하는 날입니다."

어, 저 헌 가마니는 가오지 말고 이래 해야 되는데,

"[혀 짧은 소리로] 헌 자지는 가지오지 말고, 새 보지만 가져 오재요."

이랬는 기라. 아 그러니까, 전부 다 방송 들으니까, 보린데 보지라 카고. 가마닌데 자지라 카고 좀 이상하거덩.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아하 쌔가 짧으니까, 헌 자지는 가져오지 말고 또 헌 보지는 가져오지 마라더란다.

[조사자: 헌 보리는 새 자리에 담고 그지예?] 인자 그리 그 말을 할라 카는데, 쌔가 짜르니까, 헌 저 뭣고?, 헌 자지는 가져오지 말고, 새 자지를 가져와야만이 보리를 담는다. 이 소린데 '보지를 담는다.' 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부산진구 설화 55]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2)

문봉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인자 손인데, 이 쌔가(혀가) 짤라노니께네(짧으니) 도리깨질을 '탁 탁' 하고 있으니까네, 인자 형수가 와갖고,

"아이고 대름요(도련님요), 우리 집 도리깨질 좀 해주소."

이라고. 또 쪼매 있으니까 또 지수씨가 오더만,

"아이고, 아이고 아주버님요. 우리 저 도리깨질 좀 해주이소."

그러니께네, 도리깨질을 '탁, 탁.' 하면서,

"[노래로] 형수도 내 좇만 바라보고, 지수씨도 내 좇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래 '탁 탁' 쳐쌌는 기라. 그래 인자 쌔 짜르니까 '손만 바라보는' 소리를 '좇만 바라본다' 이래. 이리된 기라.

[부산진구 설화 56]

받침을 빼고 써서 우습게 된 편지

문봉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저, 인자 군대를 가갖고 편지를 탁- 쓸라 카이께, 이 편지를 쓸라 카이 옛날엔 글 받침이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인자 썼어. 인자,

'엄마도 본 지 오래 되고 또 지수씨도(제수씨) 본 지 새카맣고.'

이렇게 썼는데, 이기 받침이 안 들어가니까는,

'엄마 보지 본 지도 오랜만이고, 지수씨 보지도 새카맣고' [일동 웃음]

이라는 기라. 그러니께네 저거 아버지가 가만 이야기를 앉아서 듣고,

"그놈이 언제 지 형수 보지도 보고, 지수씨 보지도 봤는고?"

이라니까,

"아이고 당신, 그런 게 아니고 받침이 틀려논께 안 그렇소?"

이라더란다.

그러이 이 쌔가 인자 짤은(혀가 짧은) 사람하고 이 인자 받침이 틀리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57]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나팔수

전수정(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가야2동 중심경로당]

옛날에 그래 밥을 이고 들판에 나갔는데 오줌이 마려워갖고 이래 쪼그리고 앉아가 오줌을 딱- 누는데, 쉐-하니까는 그 밑에 까재가(가제가) 있다가 뚜겁거든(뜨겁거든). 지 대가리에다가 싸니까. 이래가지고 딲- 물었는 거라. 양쪽 날개를 딱-. 아파가지고 가암을(고함을) 지르고 서있으니까네, 사또 나팔 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암을 지르이,

"내 좀 살려 달라."

가암을 지르니까, 이래 딜다보니까(들여다보니) 가재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걸 딱 물고 있거든. 그래 고기다 대고 '띡 띡' 이리 불었는 기라.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어.

그래,

"내가 사또 나팔 불러 몇 십 년 다녀도 공알 나팔 불어보기는 처음이다."

[일동 웃음] [조사자: 그게 공알 나팔이다. 그지예?] 응. 공알 나팔.

[부산진구 설화 58]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강시준(여, 1941년생), 김봉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강시준]

참 선빈데, 공부만 하고 글공부만 하고 그거 피를 훑어다 먹는 기라. 마누라가 양식이 없어서. 피를 훑어가 먹는데도, 비가 한 날은 마 억수비가 오는데 피덕석이 떠내려가도 그 피덕석도 안 들라놓고 공부만 하는 거라. 그래 하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애가 터지던지 인자 마 살러가뿠어. 화가 나서.

갔는데, 그래 그 사람은 과거 하던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인자 과거를 보는데, 과거를, 벼슬을 해가 오는 거라. 말을 타고 오니까 저 들판에서 그 자기 마누라가 또 그 피를 훑고 있더란다. 그러니까는,

'망경장파[8] 너른 들에 갱피 훑는 저 마누라 간 데 족족 갱피 훑네.'

그래 하더라.

[김봉순]

'오나가나 갱피 훑고' 내나 있다. 고거라. 그리고 와그라면 그래가 선비를 시켰는 거라. [조사자: 뭐를 시켜예?] 갱피를 빼가지고 내내 믹여가지고 그 서방으로 먹이며 공부를, 믹이가 살리다가 그래 살래갔어. 살러간 기 맞는데, 그래 비를 맞고 있으니 얼매나 애가 터지노? 애가 터지니까네 마 가삤는 거라.

가가지고 인자 그 선비는 성공을 해가, 과거를 봐가지고 인자 사또가 되어가 인자 그렇게 뭣이로, 말을 타고 오다가 인자 갱피 뽑는 자기 전 마누라로 봤는 거라. 그래 그 노래로 한 곡을 하는데, 잘 할 끼다. 자네가 해봐. [청중: 노래는 몰라요.] 애기라도.

"멍개야 저 망개야, 저 넓은 들에."

카더라. 우리는 그라더라고. 물론,

"갱피 훑는 저 아낙네는 오나가나 갱피만 뽑고. 저렇게 있다."

꼬.

[부산진구 설화 59]

소금장사와 정승 딸

8) 만경창파(萬頃蒼波).

강시준(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옛날에 소금장사가, 참 소금장사가 대우를 몬 받았다 커대. 몬 받아서 그래 맨날 쌍놈이고. 그래가 소금장사 그 아들이 머리가 너무 좋고 그렇는데, 한 날은 밖으로 마 어데로 마 저 내보냈단다.

내보내니까 정승의 딸을 그 새깄어(사귀었어). 딸을 새깄는데, 그래 정승 그 딸을 새기도 소금장사를 하니까 이렇게 인자 남한테 인자 그거를 몬 하고. 아들이 인자 간혹 가다가 저거 엄마가 한 번썩 가서 그 어디 또 새에(구석에) 가서 만나고 만나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발표 그거를 몬 하고 했는데 어짜다가 들킸는 기라.

그래 들키가지고 그래 저 매를 맞고, 아들이 갇히고 이랬는데, 그래 그 정승 딸이 나라에 마 전신에(모두) 마 임금하고 높은 사람을 정승들을 다 청해가지고 음식을 한 상 채리났는데, 그래 인자 하나도 간을 안 옇었어. 간을 안 옇어논께네, 확 마 임금이 호령을 내면서,

"이게 웬일이냐?"

꼬.

"무슨 까닭이 있느냐?"

꼬, 막 그래 물으니까 탁 나서가지고,

"여 음식 이기 간을 안 옇으면 맛이 없는데, 어째서 소금장사를 대우를 안 해주냐?

꼬. 그래가지고 탁- 하면서, 그때부터 소금장사가 이리 그거 하고, 그 정승 딸하고 하모 결혼 해가 잘 살았대여. [조사자: 와-!] 옛날에 소금장사를 '등금쟁이, 등금쟁이' 카고 대우를 안 해준 거라. 그래서 내 집에 메느리가 잘 들어와야, 그 집이 참 소금장수 운이 있는 거라. 그래가 크게 지금은 우리 하고 같이 대우를 받고 사는 거라. 소금장수 이야기 이거는 참.

[부산진구 설화 60]

도둑질로 먹고사는 며느리

서상순(여, 1949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어느 이래 한 고을에 아-주 도둑질을 잘하는 어느 아가씨가 있었어. [조사자: 아가씨?] 아가씨가 있는데 시집을 못 가는 거라. 너-무 도둑질만 하니까 아는 사람은 메느리를 안 해. 그래 인자 총각은 인자 아들은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집에는 아들 장가를 못 보내.

그래가 인자 참 '도둑질을 해오면 먹고는 안 살겠나.' 싶어서 [일동 웃음] [조사자: 아이구야.] 이 어른들이 그 아가씨를 메느리로 삼았어. 메느리를 삼았는데 인자 참 어디 가 좀도둑질도 안하고, 어디가 저리가 돼지를 한 마리 딱 몰고 왔더라네.

그래 인자 식구들보고 잡으라 해. 딱 잡았어. 그래가 마 인자 뭣이기는 다 태워버리면 되잖아. 털은 태워버리고, 아침에 인자 그 도둑 메느리를 데려갔으니까, 가서 인자 그 돼지를 찾으러 마을 사람들이 왔는 거라. 왔는데 아무리 집을 샅샅이 다 뒤져도 그 돼지가 안 나와.

그래, 참 이 집에 메느리가 틀림없이 가져갔는데 돼지가 안 보인다 했더만, 그 돼지를 등에다 탁 업고 뚜배기를(포대기를) 딱 받쳐서 수건을 딱 덮어 쓰고 그러고 밥을 하더란다. 그래가 그 집에는 그 메느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아. 도둑질을 해도. 그 집에는 메느리 덕으로 묵고 사는 기라. 머리 좋은 도둑 메느리를 봐갖고. 그런 옛날이야기. [일동 박수] [청중: 이거는 전설이다.]

[부산진구 설화 61]

정성을 드려야 하는 제사

서상순(여, 1949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그 얘기 내가 인자 기억이 나네. [조사자: 그래, 그래.] 나는데, 옛날에 옛날 과객들이 그냥 이래 베랑만(바랑만) 씨고 길을, 그냥 산길을 가고, 가다가 묘를, 어데 가다가 묘를 베고 자면 참 깨끗하다네. 사람 짐승들도 안 달려들고 자기 꿈도 깨끗하고.

그랬는데 자다가 인자 이래가 인자 꿈인지 생신인지(생시인지) 그거는 몰라도, 그래 인자 이 아가씨처럼 옆에 묘에 보고, '그래라 내가 여보게나', 아! 꿈인데, 그 과각이(과객이) 자는데, 꿈인데 그 묘 주인이 옆에 묘 주인보고 그래,

"여보게, 오늘날 저녁에 내 제사 입젤세. 그래 같이 가자."

꼬 하께네, 그래 그 뭐 손님이 온다고 말도 안 하고 안 가고. 인자 자기가,

"갔다가 왔다."

그라면서, 얘기를 하더라 하는 거라.

"가니까네 멧밥에는 돌멩이가, 방석(바위)이 들았고(들어있고). 인자 나물에는 머리카락이 들어가 뱀이 굴러다니더라."

그래가지고,

"밥을 몬 묵고 오면서 부에가(화가) 나가지고 자기 손자로, 그 집에 손자로 마 부엌에다 옇

어삤다."

하는 거라.

"옇어뿌고 올라왔다."

이래. 그러이까네 인자 이 과각이 꿈으로 꿔가지고 인자 내라갔는데, 마을에 내라가이 그, 마을에 내려가이, 사람들이 와 쪼그마한 마을에 말이 많다아이가? 얘기를 전달을 하고.

"그란에도(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 엊저녁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가, 아무것이 씨 집에 제사를 모셨는데 제사 지내고 나오니까 아가 부- 뭐시기, 부엌에 들어가 얼굴이 막 타고 그랬다."

고. 그래 동네 마을에서 말이 막 퍼졌는 거라. 그 사람. 그래 고 얘기는 인자 내가 하는 거는 고렇게 내려오는 전설이라. [조사자: 맞어, 맞어. 아이구 고맙습니다.] [청중: 그 잤던 사람이 그걸 듣고 꿈에 그거 그리 했다는 것을 해석을 한 거지. 그래 인자 있다꼬.]

그 과객이 마을에 들러러 오이 그 얘기를 하는 기라. 자기 할아버지가 뭐 불에 차옇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려오니까 엊저녁에 그 집에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아가 뭣해가지고 얼굴이 불에 다 딨다 이런 말이 있더라. [조사자: 맞아요. 잘 하셨어요. 어머님.] 어데 얘기로 고래, 줄거리가 조금 안 맞네.

[부산진구 설화 62]

개로 환생한 어머니

임덕봉(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저-게, 이거는 실화라, 영천인데. 영천이라 카는 곳에 실화가 옛날에 있었는 갑대요. 인자 아들 메느리가 농사를 항상 지으러 다니고 이래 하다가, 인자 할머니가 집안 살림만 살고 아들 손자들 이래 돌봐주시고 이래 하는데 돌아가셨는 거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인자 집에 할머니도 안 계시니까 아들이 개로 한 마리 갖다가 인자 믹였는 거라. 집에.

믹이니까 그 개가 인자, 촌에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어는 백중이 오면 개로 잡아요. 여름에 백중에 뭐 이렇게 그거 하면 보신한다꼬. 개로 잡아가 보신 하대 촌사람들은. 어, 그러는데 자기가 그 집이 개를 길렀으니까, 개가 다 컸으니까 이제 이웃 사람하고 오거들랑 우리 오번 엘랑(이번에는) 그 개를 잡아먹자. 이래 이야기를, 의논을 했는 거라. 이래 의논을 그 개가 듣고 등넘에 딸을 데리고 가가, 참 딸을 등넘 사는데 딸집을 찾아가가지고 딸의 선몽을 댔는 거라. 꿈에,

"그래라, 야야. 내가 그제 네 오빠 집에 개로 태어나가지고 사는데, 내일이 그 집 이웃 사람하고 개로 잡아먹는다꼬 날(나를).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니한테 인자 알리러 온다."

그라고 그라더래. 이 딸이 허부야꼬(서둘러) 마 아침에 일어나가 등넘에 있는 오빠 집에 가가 그 이야기를 했는 거라.

"오빠, 이래 이래가 어머니가 그래 개 혼을 받아가지고, 개가, 우리 집에 믹이는 개가 어머니 혼이라꼬. 개로 잡지 마라."

했는 거라. 엄마가 그런 말을 해서. 이 할매가 옛날에 또 그런 전설도 있거든. 너무 구경을 안 하모, 구경을 안 하모 개 혼을 받는다는 거라. [조사자: 돌아다니라고?] 응. 우리 관광겉은 거 하고 할매들이 많이 하잖아? 옛날에는 어디 가는 게 있었소? 그래가지고,

"구경을 안 해가지고 자기가 인자 개 뭣이기 혼으로 태어났다."

그라고 그래가 시골에 발띠게(밭뙈기) 안 있나? 지게 지고 이래 하는데. 그 개를 안 잡아묵고 그 개를 짊아지고 장마다 다녔는 거라. 일을 다 제쳐놓고. 효자지. [조사자: 진짜 효자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개로 온갖 거 사 믹이고, 사 믹이면서 장에다 구경을 시키고 그래가 집에, 그래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와가지고 집에 나났디. 오던 그 이튿날이 개가 죽었는 거라. 고대로 죽어가 산소를 써줬다. 이런 [조사자: 개로 그러니까 환생한 엄마 애기. 그 얘기가 맞아예.] 그래가지고 그 묘를 써줬다 하대. [일동 박수]

[부산진구 설화 63]

호랑이 덕에 살아난 아이

김봉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해인사 그게 한 번 고개 만당을(꼭대기를) 관광간다꼬 한- 차를 실고 가는데, 똑-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턱 막아가지고 못 가그로 하더란다. 그래서 이상하다. 차를, 차가 인자 한- 차 실고 관광을 가는데 그래 못 가그로 해서 '이거 무슨 일 났다. 여에.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있는가?' 전부 다 함 다.

"이거는 안 되니까, 다 내리갖고 옷을 벗어갖고 떤지(던져) 보자."

이래 했는 거라. 그러니까 다- 내리갖고 옷을 떤지니까 다 안 받더만도, 그 3대 독자 애동이(외동이), 아! 9대 독자라 하더라 참. 9대 독자 애동이 내리고 옷을 탁- 던지께네 받더란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마 얼마나 참 탄복하면서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호석해(호식) 갈 수가 있나."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 턱- 호랑이가 넙쭉, 거기서 할 수 없이 내린 거라 아는. 그러니까 차는 지나가고. 그래 내맀는데, 아 고개 넘어가가지고 마 차가 디비져가지고(뒤집혀서) 다 죽고 그 사람 살았다 안 하나.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면서,

"삼팔선아 문 열어라. 구대 독자 내 들어간다."

커고, 그런 이야기 있었다. 그전에.[조사자 웃음]

그 산신령이 살려준 거라. 그 죄 지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거 무너지면 다 죽을 낀데 그 사람이 그래가 살았다 카대. 그래, 구대 독자.

"삼팔선아."

군대할 때,

"문 열어라. 구대 독자 내 들어간다."

카더라.

[부산진구 설화 64]

개로 환생하는 사람

강시준(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사람이 죽으면 어느 몸에, 어느 동물의 몸을 받기가 쉬운가 하면 개 몸이 제일이 젠 짓고 가야만 그만도 개 몸을 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개 몸을 받아야 사람은 환생을 빨리 한다 하대. 그래 이런 뱀겉은 그런 동물의 혼을 받으면 환생하기가 참 힘이 든다.

개가 제일이 사람이 인간관계에 혼이 가깝게. [청중: 개 띠가 좋다.] [조사자: 저 개 띤인데.] 개는 암만 놀아도 누워가 자도 '개 밥 줘라.' 카지만, 소는 죽도록 일을 해도 '소 죽 줘라' 안 카거든. 옛날부터 그 말이 있어라.

[부산진구 설화 65]

개에게 물려 죽은 아이

임덕봉(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우리 고향에. [청중: 아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조사자: 아니 우스개 소리도 되는데 괜찮아예. 우스개 소리도 여 있어예 책에.] 우리 고향에 그거. 아를 낳아가지고 똥개가 키우는데, 옛날에는 아를 이래 들어주면 여 똥을 빨아묵어. 여서(여기서). [조사자: 개가?] 응, 똥을 빨아먹는데, 핥아먹는데 핥아먹다가 봉알을 똑 따먹어버렸어. [조사자: 아이구.] [청중: 개로 빨아먹으라고 그 아를 내줐네.]

궁뎅이 똥 빨아무라고. [조사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있던께로. 핥아묵다가 붕알을 똑 따먹어부러갖고 [조사자: 그래가?] 아가 꼬치만 딱 붙어갖고. [청중: 안 죽나?] [조사자: 그래 어째 됐어?] 죽대요. 죽어.

[부산진구 설화 66]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 기름 불

강시준(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확실히는 모르는데. 하도 청춘에 과부가 돼가지고, 신랑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인자 한 날 제사가 돌아오는데, 저저 '빼뿌쟁이[9] 씨 그거를 기름을 짜가지고 보면은 보인다.' 커더라 싶어서. [청중: 기름을 짜 갖고도 지랭이 갖고 심지를 만들어가.] 그래 그걸 했는데, 기름을, 참 그거 하자면 얼마나 고생했겄노? 그래 그거를 훑어가지고 기름을 짜서 인자 제사를 정성시리 지낼라고 그 날 했는데. 고마 며칠 그걸 공을 들이야 될 낀데, 상주를 보고 말을 해삤다 카네. 삼 일을 공을 들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름을 참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막 보이기는 보이는데 막 퉁퉁 부어가지고 마, 염 해가지고 마 숭악하게(흉악) 보이더란다. 그래서 마 올키(옳게) 만내도 몬하고, 마 금방 마 숭악해서 불을 꺼부맀다 카대. 그런 전설도 있어.

공을 들이가지고, 탁- 제사 지낼 땐 공을 들이라 카는 그거. [조사자: 근데 상갓집에 상주를 만나버렸네.] 어, 상주. 옛날에는 참 미신도 많이 믿는다. [조사자: 맞아예, 맞아예.] 이월 달에 바람 올릴라 카면 상주보고도 말 안 하고, 상주 집에도 안 가고 상갓집에도 안 가고 이라는데. 상주를 보고 그 날 말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되게 흉악하게 보인대. [조사자: 만나기는 만났는데 흉한 모습으로 만났다 그지예? 좋은 모습이면 좋았을 낀데.] 그렇게 보이더란다.

9) 질경이의 방언.

[부산진구 설화 67]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 기름 불

임덕봉(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질갱이 씨를 [조사자: 그렇지예.] 받아가 기름을 짜가, 자기 신랑 제삿날 그거 저 도로에 가면, 그거 저 뭐이고? 비 오면 지렁이가 나와서 밟히가 죽어도 말라죽으면 고걸로 갖고 심지를 해. 인자 심지를 해갖고 불로 켜 놓은게(놓으니), 그 우리가 입간(입관) 하면은 각이잖아(관이잖아)? 각이 쿡 구불러(굴러) 오더라 개. 방으로 구불러 들어와. [청중: 관. 관.] 관이 구불러 들어오는데, 뚜껑이 딱 열린께, 제사상은 채려놨는데 뚜껑이 딱 열링께, 사람이 막 부어가지고 이상하더라 개. 그래 무섭아가지고,

"아이고, 두 번 다시는 몬 하겠다."

하고는, 불로 탁- 꺼버렸다 개. 지랭이 불로. [청중: 지렁이가 말라 불 쓰는데 초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이 안 굴러들어올 줄 알고. 자기 신랑을 볼 줄 알고. 자기 신랑 볼 끼라꼬 지렁이로 불로 키었지.

[부산진구 설화 68]

사돈 간 싸움으로 쫓겨난 며느리

강시준(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개금부인노인회]

옛날에는 사돈, 안사돈하고 바깥사돈하고는 절대 이래 인사를 안 하고 [청중: 안 하지.] 내외했거든. 그래 인자 딸을 떡- 시집을 보냈는데, 그래 한 날은 인자 그 딸네 집에서 초대를 했어. 친정엄마가 옷을 착- 차리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 딸네 집에를 가는 거라. 첫 딸네 집에를.

가면서 막 차반도 하고 가는데, 옷을 최고로 입고 가는데 장날이던가 봐.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막- 영감이 갓을 삐떡하이 쓰고는 마 담배를 풋다가 마, [청중: 그때 양반들 그랬다.] 그 딸네 집에 가는 사돈 마 옷을 태아삤어. [조사자: 아이구야.] 옷을 태아가지고, [조사자: 그 쪽은 바깥사돈이고?] 바깥사돈이고. [청중: 자기 사돈인데?] 그때는 모르지 인자, 안사돈인지

바깥사돈인지 모르고.

그래 옷을 태았어. 거서 마 얼마나 싸운 거라 인자 마. [조사자: 좋은 옷을 떡 태웠으니까네.] 그래 좋은 옷을 태았으끼네 이 영감 마 얼마든지 달려들고 싸웠어. 갓대가리를 주아뜯고 막- 이래 싸웠는데, 그래 떡- 딸네 집에 가서, 그 동네 가서 떡- 있으니까 막 나중에,

"헥, 뭐?" [일동 웃음]

이래 싸면서. 사돈이 들어오더란다 그 집으로. [웃음]

"아이고 마마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카미. 주 뜯기고 이래가 오더란다. [웃음] [청중: 오디, 그 뒤에는?] 그래가지고 가마이 요래 디다본께네(들여다보니) 자기하고 싸운 양반이라. [조사자: 어마야!] 아이구 그래가 인자 얼척[10]도 없다 안 하고 이만저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알기가 됐어. 이튿날 알기 됐는데,

"아이구,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런 며느리는 몬 본다."

커면서, 마 며느리하고 마 딱 친정엄마하고 그 딸리 보내뿌더란다. 그런 식이 있다 하네. [조사자: 쫓겨났어?] 쫓기났지. [웃음]

[부산진구 설화 6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천등(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조사자: 지렁이를 잡아가 마.] 전설이 있다. [조사자: 그래 어머니 생각나시는 데로 조금만 해주이소.] 자리 들치고, [조사자: 그렇지.] 만날 그걸 무우니까(먹으니) 보약이 되는 기라. 보가 돼가(보신이 되어) 사람이 좋고 이라니까, 이게 뭣인고? 싶어갖고 [조사자: 그렇지예.] 그 할매가 자리 밑에다가 여 함(한 번) 옇놓고, 옇놔이(넣어놓으니) 마른 기라. 그래가 인자 아들이 왔다 하더나? 오이까네,

"그래, 너거 마누래가 이걸 해주더라."

이랬는 기라. 이랬더니만 거 놀래가, 지렁이라 캐낳이(하니) 놀래갖고 눈을 버뜩 떴다 안 카나. [일동 웃음] [청중: 아이고, 잘했다.]

[부산진구 설화 70]

10) '어처구니'의 방언.

떡을 주고 호식면한 할머니

김일순(여, 1946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조사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묵지' 이야기 알죠? 어머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묵지.] 호랑이 고개 넘어가다가. 저 딸의 집에 밭 매러 가다가 그랬다 카대.

고개 넘어간 게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할매 니 안 잡아먹지."

이래 캤다 카대.

[조사자: 그래가지고 어째 됐는교? 떡을 줬는가?] 떡을 줬지. 안 잡아물라꼬. 딸네집에 가, 인자 떡 바구니로 해가지고 이고 가다가 그래 이제 떡 바구미(바구니) 그거를 본께로 무울(먹을) 낀줄 알지 호랑이도. 그런께네 딸네집에 가다가 그래 내줬다 카대. [조사자: 그래, 살았대?] 응. [조사자: 떡 주가 살았다는 이 이야기고.] 그래.

[부산진구 설화 71]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춘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호랑이가 온다."

캐도, 애기가 울어. 그 짐승마정(짐승마다) 불러도 그기 자꾸 우는데. 그래,

"꽂감 주꾸마."

범이 오가(와서) 듣고 있는데.

"꽂감 주꾸마."

카니까, 아(아이) 떨렁 끈치더라(그치더라) 안 카나. 그러니 '아, 꽂감이 그렇게 무섭구나.' 싶어가 도망갔다 안 카나.

[부산진구 설화 72]

칠십에 고려장

김일순(여, 1946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칠십 고려장이라고. 물 한 동이, 쌀 얼마, 한 달걷이 물 꺼. 고것만 딱 갖다주고 오래 묵고 나면 묵고 나면 끝인 기라. 죽는 거라. 그게 칠십 고려장이라. 요래 또롯하이 담을 싸나꼬(쌓아놓고) 딱.

[부산진구 설화 7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천등(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아부지 지게 지고, 지게로 지고 아달이(아들이) 따라 갔는데 그래,
"아부지요, 요 지게 내삐리소."
이러이께,
"와. 가가구로?"
아!,
"가(가져) 갑시더.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게로 지고 안 오겠나?"
이래 이래 이런다 카대. 그래서 이게 고려장이 없어졌다 이 카대.

[부산진구 설화 7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조필수(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개금1동 부녀복지경로당]

인자 부모로 칠십이 되이끼네, 인자 참 산에다가 이래 이래 맨들어가지고 그래 인자 며칠 무울 양슥은(양식은) 안에 옇어주고 [청중: 물하고.] 그래 물하고 자기 무울(먹을) 거 인자 옇어주는데, 부모가 인자 산에 몬 걸어가이께네, 아부지가 지게를 지고 부모를 업고 가는데, 업고 가서 그 인자 엄마를 딜라보내놓고.

"지게를 그 버리고 오자."

카이께네, 아들이,

"아부지, 지게를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지게를 집에 갖다놔야 나도 아버지를 갖다 그 지게가 얹차(얹어) 가지예."

카더라 카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75]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이기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7월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아를 하도 많이 낳아놓으께, 여 영감탱이 옇어놓고 열로(여기로) 열로 갈라면은 할마이가 또 여 있다 아이가? 생각이 나서 인자 그 영감, 할바이한테 가야되는데, 가다가 보이께네로, 빨가벗고(발가벗고) 가다가본께 이놈의 대가리에 찔찔, 물이 찔찔.

[부산진구 설화 76]

턱이 없는 도깨비

이기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아이구 내가 옛날에예. 그 열네 살 묵을 때, 촌 아이가? 물이 귀해갖고 새벽에 두 시나 돼서 물 길로 가이께, 물로 요 바가치가 퐁당 퐁당 퍼이께 뭣이 키가 커다란 기, 난 이 땅만 보고 퍼지. 그래,

"물 좀 주소."

그라더라, 말이 훈이 없대.

“물 줘.”

그라이께 퐁당 떠갖고 줬어.

“옛소.”

카며 주이께네로 물 철철철철 흘리샤. 그래 내가,

“텍이(턱이) 없나? 와 물을 말라 흘리샀노? 이 귀한 물로.”

그라이께 [도깨비 말을 흉내 내는 듯 옹알옹알 한 뒤] 말이 훈이 없어요 토깨비들이. 그라더만 이 쳐다보이께 막- 억수로 크대.

아이고 그래갖고 물이고 마 나발이고 바가치를 뭣같이 던지고 사구 그거는 뭐 어디 가뿌고 달그락 캤지. [웃음] 막- 내 죽어뿌라고 가이께네 우리 엄마가,

“조년 저그 또 뭣을 만냈는 갑다. 저 지랄병 하는 거 본께.”

그라더라꼬. [웃음] [조사자: 할머니 그래 도깨비는 턱이 없다 안합니까?] 그러게 물을 질질질 흘리지. [조사자: 그래 물 달라면 질질질.] 그래 내 할매들 한테 말 들었거든. [청중: 돌아보면 있더나? 없지. 없어지지.] 없어. 없어. 없어져. [조사자: 아, 돌아보면 없는 가배요.] 없어요. [청중: 없어져뿌져.] 뭣이 이리 쳐다보이 억-수로 그 높으데.

아이고 무시라(무서워라). 나는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부산진구 설화 77]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

이기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아 전에 그거 그 우리 내가 열세 살 무갖고(먹어) 우리 언니 집에 가이께, 김해 그 가이께, 김해 00[11]라고 있거든. 그 집에 지수도 과부, 형수도 과부라. 요 시동생 하나 있는 기 바보라. 쌔가(혀가) 짤라.

그래가 비가 주루룩 올라카이 그, 마당 설거지 그거로 다 치아야 되거든. 이놈의 남애가(남자가) 도루깨(도리깨) 그거로 갖고오더만 도루깨 아나? [조사자: 알아요. 이 치는 거.]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어휴, 어휴, 행쭈도 내 좇만 바래고, 지쭈도 내 좇만 바래고.” [일동 웃음]

[조사자: 맞아예. 혀가 짧아가 그지예? 그것도 말이 되는 거라예.] 그래 내 우리 언니 보고,

11) 녹음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음.

"언니야, 저 무슨, 저 아저씨 와 저라노?"
이라께,
"설거지 할라 칼게, 맨 과부 판이 되나논께 설거지 할라 카이 지가 보골이(화가) 나서 그래지 보골 나서 저 지랄 안 하나?"
이라대.

[부산진구 설화 78]

봉사와 벙어리 부부의 몰래 나눈 사랑

이기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할마이는 벙어리고 그 남자는 봉사라. 그래갖고 새끼들은 많고 그중에 또 가. 그럼 한 방 뛸라 커이께 오데로 가야 되노? 발치로 가야 되나? 대가리로 가야 되나? 그 대가리로 오이께 사르마도(속옷도) 입도 안 하고. [청중 웃음]
사르마도 입도 안 하고 빨가벗고 요래 오이께, 아 새끼 대가리에 물이 질 질 질 질. [일동 웃음] [청중: 아 대가리에다가 질 질 쌌든 가배.] 물이 질 질 질 질. [청중: 아이고 문디.]

[부산진구 설화 79]

불 난 집 구경

이기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요 촌에 물길로 가이께, 옛날에 물이 귀해갖고 가이께, 산에 그 집 지놨는데 할마니가 살았는 기라. 그래 이 할마이가 불로 떼다가 고마 뭐 뭐 먼 눈 판다고(한 눈 판다고) 고마 불이 확 붙어뿐데, 영감이 빨가벗고 잤는 갑소. [조사자 웃음] 그래갖고 [손으로 아랫도리를 가리는 흉내를 내며.] 요래갖고,
"어이 흥흥 어이 흥흥."
그러께네, 할마이는 또 하는 말이,

"이 씨불랄 씹이야 더럽은 년들아 그기 구경이가?"

[손뼉을 치민서] [조사자: 본인은 좋아하면서 그지예?] 하이고 나 우습어가지고 물 길러가 갖고 얼마나 웃어. 욕만 실컷 얻어 묵고 구경한다고.

[부산진구 설화 80]

천자봉

이기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내 보는 거는 천자봉에 [조사자: 예. 천자봉에.] 그 가면 마 큰- 산꼭대기에 마 이 방(바위) 모타이(모퉁이) 두루면(돌면) 하루 점도록(하루 종일) 돌아.

그 바위 거 비가 올라 카면 할아부지가 하-얀 옷을 입고 탁- 그걸 둘러. 이리 탁- 두루면, 그 두루고나면 막 쏘나기가 팍- 인다. [조사자: 아, 천자봉에?] 천자봉. 그 이름난 천자봉이 그기. [조사자: 거 가봤어예 천자봉.] 억수로 높으다 마. 좋다 거 마.

[부산진구 설화 81]

총 맞고 복수한 돼지

이기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엄광할머니경로당]

아가씨가 서이서 인자 봄 아이가? 나물로 뜯어싸이께. 포수가 그 돼지를 쐈는 기라. 이 돼지가 가다가 보골이(화가) 놔갖고 뭐, 아가씨 서이 앉아 그거 뜯어쌌는데 그 마 확- 가면서 마, 배 이거를 마 확- 물고 달아나뿠는 기라. 그마이(그만큼) 돼지가 악랄하다. 그래.

[조사자: 그래가지고 어째 됐는데예?] 그래갖고 아가씨는 죽었지. 지는 도망가뿌고. 돼지는 도망가뿌고.

[부산진구 설화 8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강순이(여, 1943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개금2동 일심경로당]

옛날에 아가 하도 울어싸서 꽂감을 갖고, 호랭이가 밖에 오가 있는데, 아유 울디, 울어싸서 꽂감을 입에 옇은께네(넣으니),

"꽂감 무라."

이란께, 고마 아가 떨꺽 끈치께(그치니) 호랭이가 밖에서 마 놀래가 '내카마(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는 갑다.' 싶어 [웃음] 곶감을 달아나갖고.

꽂감 말만 하면 마 호랭이가 오데로 가도 마 달라더란다(달아나더라). 놀래갖고. 지카마 아가 떨꺽 끈치께네. 마 그래싸서로 얘기를 마이 했는데 시방은(지금은) 안 하니께네 다 까뭈어.

[부산진구 설화 83]

강원도 포수

민병애(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일심경로당]

옛날에 옛적에 강원도 포수가, 들어가는 사람은 있고 나오는 사람은 없는 기라. 그래 한 사람이,

"오늘은 내가 한 번 가볼께. 볼빴기다."

이래 싶어서 들어갔거던. 그래 열 밍이(열 명이) 들어가도 몬 나오는 기라. 호랭이가 자묵고 자묵고. 그래 강원도 포수, 강원도 포순(포수인) 기라. 그래서 한 사램이 가갖고 방에다가 불로 마이 떼놓고 헐렁 벗고 앉았는께네 붕알이 축 늘어지거든. 늘어진께네,

"저거 뭐하는 기냐?"

쿤께,

"포수 잡아옇는 기라."

쿤께네, 고마 도망을 가삐더란다(가버리더란다). 그래 강원도 포수라. [웃음]

[부산진구 설화 84]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아버지

민병애(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일심경로당]

고래장 뭐, 옛날에 뭐 칠십이, 칠십 되면 아들이 등에 업고 가서 고래장을 했는데, 그래 그래 고래장을 하라고 인자 업고 가는데, 아부지가 그거 거시기 나무를 꺾어가 '똑 똑' 요리 낳더라(놓더라) 커대. 업고 가는데 낳은께네로. 그 갔다 고래장 시키놓고,

"니 갈 때 그 내가 나무를 꺾어서 다 그래 놨으니, 너도 난제(나중에), 후제(후에) 요 길로 간다."

이래갖고 그래 그런 이야기 있대. 고래장이.

[부산진구 설화 85]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민병애(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일심경로당]

[조사자: 예, 남편이.] 시집을 가갖고 [조사자: 남편이 십 년이 돼도.] 시집을 갔는데, 그냥 십 년을 살아도 맨날 공부한다고 책만 이리 디다보고(쳐다보고) 있는 기라. 그래 여자가 갱피(강피), 그 무울(먹을) 끼 없어서 갱피 그놈을 훑어다가 널어놨는데 비가 와도 그거 디놓을(들여놓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몬 살겄다."

고,

"마 내가 오데로 가야 된다."

고, 인자 가삤어. 가삤는데 가다가 가갖고 오데 이리 큰 이런, 저 옛날에 뭐 큰 한 방이 있었어. 그 등금장사들(등짐장사들) 자는 한 방에 그 잔께네로, 그래 마 하룻밤 자고 또 갔는 기라. 가갖고 그래 인자 딴 또 남자를 얻었어. 딴 남자로.

그 등금장사 그 온 한 방에 함께 잤는데, 그 사람이 발로 갖고 이래 하더라 캐. 그래가 좋아서 그라는가 해 따라갔는 기라. 그래 따라갔는데 그 가도 아무것도 없어서 갱피만 훑으러

댕기는 기라 훑으러. 갱피, 깽분에(강변에) 갱피를 훑은께네로 그래 인자,

"저게 오는 저 마누래. 간 데 쪽쪽 갱피 훑네. 갱피 훑네."

그러 쿰서러, 자기가 과게(과거) 해갖고 말을 타고 내려왔어. 그래 인자 내려온께 갱피를 뜯어갖고 인자 그 집을 가는 거를 인자 요 사람이 살살 봤는 기라. 그래도 살던 정이 있는데 안 그렇던가배? 그래 본께네로 그 집이 있대. 그래 자기가 벼슬을 해논께네로 그 집에 가서 인자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래 했다 캐.

[부산진구 설화 86]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 기름 불

양옥순(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일심경로당]

옛날에 뭐 하도 남팬이(남편이) 죽고 참 호부가(포부가) 졌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우짜, 우째 하면 어데 가서 잘 아는 사람한테,

"어째서 남편을 보냐?"

이래 쿤께네, 빼뿌재이씨 와 있지요? [조사자: 알아요.] 지렁이씨(질경이씨).

"그거를 훑어다가 지름을(기름을) 짜서 그 저게 불로 요리 제삿날 저녁에 키면, 뭣이 돼갖고 왔는고 그걸 안다."

쿠더라. 그래서 그거를 인자 짜서 요래 불로 켜놓은께네 남팬이라고 왔는데, 큰 구링이가 소로로 들어오디만 그 젯상에 마 그 음석해(음식해) 논(놓은) 데 수루루루 댕기더라꼬.

그런 소리를 하대 할매가. [조사자: 구렁이로 환생했는갑다.] 응. 구렁이로.

[부산진구 설화 87]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양옥순(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일심경로당]

옛날에 와 [청중: 나 그런 거 몰라.] 봉사 시어마이로 갖다가 저 봉사 시어마이로 메느리가

아들 군대 가고 나서 지렁이를, 만날 해줄 끼 없어갖고 지렁이로 잡아 갖고 해준께,

"야야 야야, 우째 이리 빼도 없는 고기가 있노?"

쿤께,

"만날 저 잡아오갖고, 물에 가서 잡아오가(잡아와서)해준다."

고. 시어마이가 마 살이 올라가 봉덕겉이. 한 개 딱- 아들 오면 준다고 자리 밑에 옇놨네. 아들이,

"엄마, 우째서 엄마 얼굴이 이리 좋소?"

쿤께,

"메느리가 빼 없는 고기를 해줬어 그래 저 이리 내가 좋다."

고,

"니 줄라 한 마리 남가났다."

고, 자리를 펴이 지렁이가 이만한 게 쑥- 나온께 깜-짝 놀라,

"엄마, 이 지렁이요."

그래 눈을 퍼떡 떠. [청중: 그래서 눈이 떠, 봉사가 눈이 떴단다.] 봉사가 눈이 떠갖고 그리. [청중: 그 이야기 있다.] 이야기라. 옛날이야기. 하모

옛날이야기라.

[부산진구 설화 88]

수숫대가 붉은 이유

민병애(여, 1935년생)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일심경로당]

떡 팔러 맨날 가는데, 고 고개를 아 인자 둘이를 놨두고 떡 팔러를 갔어. 밤에 떡 팔러 간께네로 한 고개 넘어간께 호랭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묵지."

그래 캤거든. 그래 캐고, 고개 몇 고개 넘어가도록꺼정 뭐 떡 함지를 고마 그거 해삤어. 다 고마 떨이미(떨이) 해삤어. 그래 인자 떡 함지를 이고 따라온께네로, 어- 그래 그래갖고 [청중: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묵지.] 그래 첨지(처음) 갈 때는 열 고개를 넘어 갔는데, 떡 하나쓱 주고 갔는데, [조사자: 안 되니까 팔도 주고.] 갔는데, 돌아온께네 아들하고 딸하고 없더라 쿠대.

그래 하늘에서 동앗줄이 내려와갖고 그래갖고 그거를 올리줘갖고, 그래 그 줄로, 줄로 끊었

다 카더나? 우짰어. 그래 수씨가(수수가), 뺄가이 묻은 수씨밭에 널짰어(떨어졌어). 그래 그 수씨가 피가 묻어서 뺄갛다고. 그런 이야기. [조사자: 호랑이가 그지예? 호랑이가 떨어져가지고.] 호랭이가.

[부산진구 설화 89]

당산을 옮기고 편안해진 마을

하만청(남, 1942년생)
2018년 2월 7일 채록
[개금2동 일심경로당(남)]

저 입구에 거기가, 거기 있는 당산을 요 경로당으로 당산이 옮겨 놨거든예. 그래가 위치가 그 반 지하고 당산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갖고, 당산이라면은 유교사상이 있고 이런 불교와 가깝다 아입니까? 근데 그게 있는 관리를, 뭐 요새 인자 교회 믿는 사람이 뭐 관리를 하고 이란께네, 당산 관리가 잘 몬 해가지고 이 동네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이 많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인자 처음엔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 밑에 있는 점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걸 저리 좋은 데로 안 옮기면 동네에서 크고 난 사고가 계속 날 것이다."

하는, 그 들어가지고 인자 그 인자 우에 국회의원이나 동장, 구의원 이런 사람 협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저 우에 수도사 절에 인자 당사를 지가 옮겨가지고 그 뒤부터는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그래 저 잘됩니다.

그래서 그기에 있는 점하는 분이,

"당산만 옮겨놔도 앞으로 인자 이 동네에 크고 작은 사건이 안 날 것이다."

하는, 그기 여하튼 말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좋습니더.

[부산진구 설화 90]

손님 못 오게 해서 망한 집

김은희(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인자 참 메느리가 하도 손님 와서 손님 치를라 하이께네, 손님 치를라 하이께네 귀찮애서 그래 인제 어느 스님이 와서, 와서 인자,

"보시하라."

한께네 스님 보고,

"아이고이! 밥도 귀찮다."

카며,

"아이고! 귀찮다."

꼬 그런께,

"정말로 그 밥이 귀찮냐?"

꼬 그래놔놓이, 스님이 보고 그라니까,

"그렇게 귀찮으면 삼년 안에 재산이 가도록 해주까?"

"그래 해주라."

꼬 그라더란다. 그런께네 그래낳이, 그런께네 그 사람이,

"그러면 옛날에 이 아궁이 불 떼는 데 거기다가 아침에 오줌을 누고, 오줌을 누고 아침 할 때 머리 빗고, 그기다가 아궁이 앞에서 오줌을 누고 삼 년만 그래라."

그라더라 캐. 삼년을 그러고 나이께 그기 재산이 가는 줄 모리게(모르게) 가뿔더라는(가버리더라는) 기라. 그러니 손님이 안 오잖아.

[부산진구 설화 91]

산신령이 내린 동삼

윤선이(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그래 어른이 아팠는데 그 약이 없어. 돈도 없고. 그래가,

"저거 저 사람이, 이거를 삶은 그거를 묵어야 된다."

고 이캐가, 메느리 그래 학교 갔다 오는 아로(아이를) 솥에다 삶아가 믹있대. 그래 믹이고 나이까네, 그래 인자 저거 한-참 있으니까네 아가 또 다부(다시) 돌아오는 기라. 그래 메느리, 시어머니인데(시어머니한테) 온갖 정성을 다하이까네, 그 무슨 신령이라 캤나? 그기 인자 이게 산신령이 그기 인자 애로 보이가지고, 그기 무슨 삼이 변해가 애가 보이가지고, 그래가 그거로 약이 되가 믹였는데, 어른 낫는데.

그래 참 있으니까 또 자기 본 애가 돌아오더라 카대. 그런 효성이 지극하이까네 인자 그런

인자 무슨 산신령인가? 뭐 참 신이 그래 자기 그거 뭐로? 애로 보이가지고 그래가 삶아믹였는데, 애는 따로 있고, 그기 인자 뭐 삼이 무슨 그기 변해가 그리 그거를 묵고 나샀다고. 그래 효부라꼬 그래 얘기가.

[부산진구 설화 9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윤선이(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조사자: 에밀레종 이야기는 압니꺼? 스님이.] 에밀레종? [조사자: 스님이 시주를 와가주고 어떻게 됐는데예?] 시주를 왔는데 [조사자: 예.] 자기 아를, 아주 귀한 아를 낳아가 이래 이래 하이까네,

"그 아를, 시주 할 건 없고 이 아이를 델고 가라."

이캤다. [조사자: 맞아예.] 확실히 모르겠다. [조사자: 그래가지고예?] [청중: 에밀레종 아이가?] 그래가지고 인자 그 중이,

"그러면 아를 주라."

이랬어. 주라 캤는데(달라 했는데) 이거 불국사에 에밀레종인가 모르겠는데. 하이튼 나도 마이.[청중: 에밀레종, 에밀레종.] 그런데 불국사 에밀레종에서 이 종을 맨들다가 맨들다가 하니까 소리가 안 나.

그래 '이 아를 갖다가 그거 하면은 때디려(두드려) 같이 쇠하고 같이 하면은 그기 종이 된다.' 꼬, 그래 인자 그리 생각을 했는 모냉이지. 그래가지고 그 아를 델고가(데리고가) 이래 했는데, 그 종이 이 새벽만 되면 그거 친다 아인교?

"에밀레-, 에밀레-, 에밀레."

커고. 그래 내- '에밀레, 에밀레.'.

그런데 그것 또 노래도 있았는데. '에밀레' 억수로 그 슬프더라. 그래 '에밀레, 에밀레.' 그 종이 그래 있어. 에밀레종이.

[부산진구 설화 93]

은행나무를 지켜준 총각

윤선이(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그거는 오래 안 됐는데, 이거는 실환데. 경찰인데 그래 자기가 인자 근무하는 날이 아이고 쉬는 날인데, 인자 잠을 자고 있는데, 날이 다 새가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총각이 여기 있고 처녀는 여기 있고 이래 가는 기라. 맞주치 가면서 이 처녀가,

"살려 달라, 살려 달라."

카거든. 총각보고. '살려 달라.' 카이 총각이 못 본 체하고 마 가뿠는 기라. 그리 처녀가 울면서 이래 지내갔는데, 그래 그날이 쉬는 날인데, 마 늦잠 잘 껀데 그 꿈을 꾸고 나이까네 쌩쌩하이. 하- 그래가,

"이거 가봐야겠다."

그래가 일나가 인자 자기 근무하는 데, 그 파출소로 갔어. 가이까네 동네 사람이 다 모아 놓고 그 뒤에 은행나무가 이래 저 쪽에 있고 이 쪽에 두 개가 경찰있는데, 있는데 동네 사람이 다비(뒤져), 나와가지고 그 그늘이 마 낙엽도 떨어지고, 인자 마 그거 마 익어가 떨어지면 냄새도 많이 나거든. 그래 마을에서 인자,

"저거를 비자."

이랬어. 그래 빈다꼬(베어낸다고) 마 사람들이 전부 와가, 사가지고 연장 가지고 빌라 컸는데, 그래 이 사람이 가만 보이까네, '아, 저거를 말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자사자 말렸어. 그래 말렸더마는, 참 안 비고 있었더마는 그해 진급도 되고 아들도 놓고.

그리 그리까네, 은행나무는 항상 [조사자: 암수가 있어야.] 암수가 있어야 열매도 열고 그렇다 카대. 그기 그 참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가.

[부산진구 설화 94]

죽어서 구렁이가 된 어머니

윤선이(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이것도 실화라. 우리 클 때, 이우제(이웃에) 되게(많이) 잘 살았어. 되게 잘 살았는데 그래 시어마시가 돌아가셨어. 시어마시가 그리 잘 사는 집이도, 옛날에는 이 방아가 집집마장(집집마다) 없었어. 동네 인자 몇 집 몇 집밖에 없었는데, 그 방아를 찧으러, 동네 사람이 찧을 거 있으면 그기 가가 떡도, 떡방간도 그 찧어가 가고 이라는데, 그도 많이 묻었잖아요?

그 할매가 맨날 그거로 나물을 넣어가, 씻거가 넣어가 죽도 끓이고 만날 씻거가 먹었어. 씻거 먹었는데, 그 할매가 그래 참 저저 몬 살지 않았는데도 그리 해가 먹었는데 그 할매가 죽고 나이까네, 여기 여여 옛날에는 빈소를 나놓고 삼년을 그것 밥상 차맀는데, 혼수, 혼담이라고 요게 있어. [조사자: 혼담?] 혼 모시는 혼백단, 요런 거 있어.

그래 한 날은 며느리는 저저 아침마당 상석을 올리는데 떡- 가이, 구렁이가 돼가지고 고딱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아들이 '구경도 몬 하고 만날 인자 호박 씻가 묵고 마 그래놓이 그랬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집에 봉택에, 옛날에 봉태기 있거든. 쌀 담는 그기다 옇어가 인자 짊아지고, 옛날에는 구경 갈 덴 없으니 시장에 인자 시장, 촌 시장마장 아들이 짊아지고 시장 바닥에 구경시켜 준다꼬 빙- 빙- 댕겼어 짊아지고. 저 시장가면, 시장 장날 있거든? 5일장이니까네 이 시장 가 구경시키고, 저 시장 가 구경시키고 내- 구경시켜. 어딜갔부고 없어.

그래가 그 아들네들이 남자가 삼형젠데, 다 요새 요런 거 하면 국회의원 그런 거 다 해묵고 부-자로 그래 잘 살대. 그 아들들.

[부산진구 설화 95]

윤씨와 권씨의 내력

윤선이(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제보자: 파평 윤 씨 그 가문이야기도 좀 없습니까?] 파평 윤씨가 와 최고로 양반이라 커노 커면은, [청중: 왕비가 많이 났지.] 왕비가 여섯 명인가 났어. 그래가 최초로 인자 이게 왕비가 그래 났으니까네 그래가 인자 양반이라꼬 이카고.

권 씨는 어예서(어떻게 해서) 양반, 이 최고 양반이라 커나 커면, 그 윗대서 족보 이거를 최고 우리나라 최고 머에(먼저) 맨들어 낸 사람들이 권 씬 거라. 그래서 인자 최고 양반 듣고. 이런 참 역사가 있어. 그래.

[부산진구 설화 96]

제삿날 처녀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윤선이(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그것도 들았는데(들었는데), 우리 회사 댕길적에 책임자가 있었어. 책임자가 있는데 다른 데로 그 저저 또 이동을 해가 갔어. 이거는 실화라. 거짓말이 아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제 절로 좋아해. 절로 좋아하는데, 아침 일찍이 인자 절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애떤(어떤) 여자가 막- 손짓을 하대. 하얗이 입고. 그래 인자,

"타라."

캤어. 탔는데, 뒤에 돌아보이까네 타기는 탔는데 안 보이대. [제보자: 그래가지고예?] 안 보이는데, 오다가 마 차사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삣다 아이가. 그거는 실화고.

그 옛날에 하는 얘기는, 하는 애기는 그래 여자가 참 그거를 하더라 카대. 그거 저거 흰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래 태아주니까네,

"어느 어느 집을 가자."

캐. 가이까네 그 집이 그 사람 제삿날이래. 그래가 태아줬다 카더라꼬. 그런 말도 있었고. [조사자: 택시비는 안 받고?] 택시비는? 그러이까네 택시비는 몬 받았지. 집에, 그꺼정(그기까지) 태와주니까네,

"집에 가 받아가라."

커고 그라는데, 그래 받아갔는 그거꺼진(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집이 그 날 여자 제삿날이라.

[부산진구 설화 97]

약도 없는 상사병

윤선이(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상사병 걸리는 사람으는, 이거는 우리 친구가, 그거 아주 가는(그 아이는) 인물도 잘났고 곱아. 한 동갑인데, 곱는데, 저거 아버지도 없고 인자 저저 딸 둘이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참 이뻐.

그런데 그 이우제(이웃에) 저거 고모 집에 놀러 온 총각이 군인, 직업군인이라. 고모 집에 놀러왔는데, 그 처녀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래 뭐 좀 연애를 해볼라 카이 옛날에 뭐 그게 되나? 그래가 지 혼자 사랑하다가 마 병이 나삤는 거라. 나가지고 저거 고모 집에 마 드러눕어가,

"죽는다."

카고 누워있는 기라. 그래 저거 고모가 그 동네 제일이 나 만은(나이 많은) 할매가 있는데 물으러 갔어.

"저게 집 처녀보고 그래 좋아라 하더마는, 저 집 처녀는 눈도 안 뜨고. 그리 뭐 어얄 수도(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 병이 났지 싶으다."

꼬, 마 그래가 마 걱정을 해쌌는디 그래 그 할매가,

"그거는 병 낫는 거는 아무 약도 없다. 사체, 여자 밑에 사체를 씻거가 물로 믹이고 그래라."

뭐 그런 뜻으로 말 하더라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하대. 했는데 그 남자가 저 본여자가(아내가) 있었는가? 그거는 모르겠고. 결혼하고 아 하나 딱 낳아, 아들 하나 낳아놓고는 행방불명 되삤는 거라. 여자가 있었는지 우예 됐는지.

[부산진구 설화 98]

황진이를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

윤선이(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감1동경로당]

황진이가, 황진이가 그거 인자 그 집에 머슴살이 했는 남자가 좋아했어. [조사자: 그래가지고예?] 그래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그리 상사병 들어가 죽었어.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거 저 이기 참 생이를(상여를) 미고(메고) 가는데, 그 상두꾼이 발이 안 떨어져 그 집 대문에서. 그래서 그 옷을 하나 덮아주이까네, [조사자: 황진이 옷을?] 황진이 옷으로 덮아주이까 그리 발 띠고 가더라 안 카나. 그래 그 노래가 안 그래요? [조사자: 어떤 데예?] 황진이 내 사랑. [조사자: 어떤 거?] 처음에 뭐더라? 그거 내 잘 불렀는데. [조사자: 그거 유행간데 그지예? 그건 유행가다 그지예?] 응, 황진이 내 사랑.

[부산진구 설화 99]

꼬부랑 할머니

문봉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조사자: 꼬구랑 할머니가 꼬구랑 지팡이를 짚고.] 꼬꾸랑 할머이가 꼬꾸랑 꼬꾸랑 작대기를 짚고,
"꼬꾸랑, 꼬꾸랑."
한께, 꼬꾸랑 강아지가 할머이를 콕 물라 하거든. 꼬꾸랑 작대기로가 탁 쌔리(때려),
"이놈우 강아지야, 니도 꼬꾸랑 할마이 될래."
이카더란다. [조사자 웃음]

[부산진구 설화 100]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문봉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근데 도깨비가 뭐가 나냐 하면, 빗자루겉은 거 씨다(쓰다) 몽댕이로 내삐리거든. 그기 밤이 되면 변동을 해가 불로 켜가이고 그 도깨비불로. [조사자: 그래, 사람 보고 씨름하자고 이란다데예.] 어. 따라오고 마 그래.
그래 하도 하루는 따라와서로 끈을가(끈으로) 나무에다 꽁꽁 묶아놓고 왔디, 그 이튿날 아측 날 새서 가본께 빗자루 몽댕이를 꽁꽁 묶아놨더란다. 그래서 그기 그 빗자루 몽댕이가 도깨비 된다 카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101]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문봉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쟁피는 뭐 어이 됐냐면? 이 남편이 만 날천 날[12] 공부만 하고. 나락이고, 피는 뭐냐 하면

마른 논에 잡티가 나는 게 피거든. 그놈을 훌어다(훑어다) 늘어놓고, 또 피를 훑으러 가고 나면, 비가 와갖고 다 떠내려가삐도 이 선비가 공부만 하고 그 안 걷어딜라가 다 떠내려가삤어. 그래서,

"이 새빠질 놈, 니 놈. 니하고 살도록 내는 평생 몬 살겠다."

꼬, 갔거든. 가뿌렸는데, 그래 이 선비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과게를 보러 갔다가 말을 타고 온께네, 인자 암행어사가 되가 온께네, 다랑논에 쟁피를 훑거든. 그래서,

"어허, 저게 있는 저 댁은 골골마당 쟁피 훑네."

그런께,

"그 어데 가면 별 수가 있나? 잔딕이(진득하게) 참고 살지."

이래 쿤께네, 차려보이(쳐다보니) 자기 남편이거든. 그래 얼마나 억울할 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내 팔자가 그런께 쟁피도 훑어가 산다."

카면서 그라더라. 그리 됐어.

[부산진구 설화 102]

선녀와 나무꾼

문봉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나무꾼이 인제 나무를 하러 가다가 사심이(사슴이) 다리를 다칬어. 그래 그 다리를 인자 촌에서 뭐 붕대가 있나? 자기 인자 이렇게 옷 그름을(고름을), 매 간 그 고름을 뜯어가지고 인자 나무꾼을 다리를 묶아줬어. 그래 묶아줬는데, 그래 나무꾼이 갔는데, 그래 이리 나무를 또, 묵는 사람이 만날 나무를 해야 살 거 아닌 가배? 그거 팔아야 된께.

그래 나무를 하러 가이께, 저만 저만 하도 달덩이같은 선녀들이 서이서 목욕을 하거든. 그래 그 촌사람이, 옛날 사람이 그런 처녀들로 보면 그 기가 찰 거 아닌 가배? 자기가 우째 보도 몬 하제, 졑에(옆에) 가보지 몬 하제. 그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째 볼꼬?' 싶으다가 마, 그마 하도 탐이 나가지고, 마 살망살망 가서 마 하내이(한 명) 옷을 그마 훔쳐가 와삣어.

그 옷이 없이면 하늘로 올라가지를 몬 해. 그래 올라가지는 몬 해. 그래 둘은 올라갔는데, 시간되면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는 기라. 내려오는데, 둘은 올라가는데 인자 제일 언니 옷을 가왔는(가져왔는) 기라. 그러면 언니는 홀딱 벗었은께 어찌 집에 갈 끼고? 몬 가지. 그래,

12) '언제나'의 방언인 '천 날 만 날'을 잘못 말함.

"언니야, 우짜꼬 우리만 갈까?"

"그래, 너거만 가라. 내 마 다음에 가께."

이러쿠고. 그래 옷을 갖다가 가마이(가만히) 훔치놔놓고 그래 인자 자기는 그 선녀를 덱고(데리고) 갔은게(갔으니) 너무 좋은 기지.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래 마 참 보리죽도 근근히 묵는데 뎃고 와논께, 그래 마누라는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시라고 한들 무울 끼(먹을 것이) 있어야 마 마누라 좋든가 어떤가 하지. 그래 어찌 해갖고 애를 둘이를 낳았어. 그래, 그 도사님 말할 때,

"이 선녀를 데려가되 애기를 서이 나을 때까정은 옷을 주지 마라."

했는 기라. 그래 만날 옷을 없어서, 몬 가서 그리워하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애 둘 낳아서 고마 옷을 줘삤는 기라. 줘삔께 마 양쪽에 하나씩 끼고 마 하늘로 가뿠다.

그래 그 영감이 마 그 산신령이 시키준 말로 안 들어가지고. 하나 더 놓도록 있었으면 서이면 몬 갈 낀데. 그래 가뿌더란다. 응, 그기라.

[부산진구 설화 103]

여우가 둔갑한 여인

문봉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그래 코피를 쭉- 흘리더라 카는 기라. 바느질로 하면서 코피를 쭉- 흘린께, [조사자: 누가예?] 그 선녀가. 코피를 쭉- 흘린께, 남편이 자다가 가만히 보이 암만캐도(아무래도) 수상하거든.

그래서 가마-이(가만히) 누우자는 칙하고(척하고) 있다가, 그 인자 참 바느질로 다 하고 나서 제쳐놓고 누워자는 칙하는데, 자기도 자는 칙하고 있은께, 자다가 살-짝 나와가지고 마 자-꾸 가더니만, 오데 무덤에를 드가디(들어가더니). 막- 파디(파더니). 막 무덤에 드가갖고 시체를 막 꺼내가 묵고.

그래, 그만 꼬랭이가 몇 발되는 여우가 되었어. [조사자: 마누라가?] 응. 그래가지고 식겁을 하고 왔는 갑대. 그래 왔는데, 그 뒤에는 마 몰라.

[부산진구 설화 104]

은혜 갚은 수꿩

문봉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한 선비가 서울로 과게를(과거) 보러 갈 낀데, 그래 가다가 가다가 보이께 하도 깐치가(까치가) 찌적거려쌌으러 보이까네, 꽁이(꿩이) 한 마리 수꽁인데 오데 물맀는가? 맞았는가? 머리가 다 깨짔더라 캐. 그래서 자기 도포 자락을 끌러가이고 뜯어가이고(뜩어서) 꽁을 갖다가 머리를 다- 치매줬어.

치매주고 그래 가다가 가다가 보이, 인자 그걸 놨두고 갔는데, 그래 이 사람이 가다가 보이 다 가가는데 고마 이따만한(이만한) 구랭이가 나타나가 마 절대 못 가거로(못 가게) 하거든. 못 가거로 하는 기라. 고마 우쨌든 오늘 밤은 가야되는데, 못 가거로 한께 그래 어느 주막에서 인자 가마이(가만히) 누워 자는데, 그 구랭이도 여우라. 누우자는데, 고 새댁이 있건데,

"그 새댁이, 암만 수고시럽지마는(수고스럽지만) 요구를(요기를) 쪼금 시켜줄 수 없느냐?"

한께, 그래 그 보리밥 조금하고 된장국 하고 주는 기라. 그래 인자 그놈 얻어묵고 그래 자는 체- 하고 있으니께네, 살- 나가디마는, 나가디만은 살- 가더라는 기라. 그래 가더니만, 우짜니까 고만 구렁이가 이따만 게(이만한 게) 마, 그 꽁(꿩) 그놈 잡아물라하는 그 구렁이가 마 나타나는 기라.

그래 마 이 남자가 마 죽을판 살판 가이께네 구렁이가 자꾸 따라올 거 아닌 가배? 오떤(어떤) 나무 위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있은께, 구렁이가 나무에 몬 올라온다고 올라올 적에.

그래 올라온께네 그래 그 수꽁들이 얼~매나 모이가지고, 저거끼리 모이가이고 말리더마는. 그 종만 소리 나면 이 사람을. 고마 구렁이를 여우로 변하지를 몬 하는 기라. 그래가 마 싸움을 하다하다가 하인께 종소리가,

"댕-."

난께 고마,

"저 놈을 내가 잡아물라 캤디 틀맀구나."

카면서 가더란다. 가고나서 보이께네, 종 있는 졑에 가 보이께 수꽁들이 한도(끝도) 없이 머리로가 종을 처박아가지고 그래가 꿩이 종을 울맀어. 그래서 저 수꽁들이 그 한 기(그렇게 한 것이) 있어. 그런 전설의 고향도 우리 할매가 얼매나 얘기를 마이(많이) 해줬는데.

[부산진구 설화 105]

복이 있는 개

윤도연(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그래 저거 어떤 집에 과객이 떡- 오이까네, 이기 뭐를 좀 상을 볼 줄 아는 기라. 그래 이 집에 아무리 봐도 잘 사는, 복이 없는 사람들인데 개가 떡- 복이 있더란다. 그래가 '아이고, 저 놈의 개로 잡아가 간이라 커든 뭐든 내가 묵어야 되겠다.' 싶어가 마 각중에[13] 배 아프다고 마 구부니까네, 마 우야노? 요새 같으면 병원에 가지마는. 그래,

"저 개를 잡아라."

[청중: 개 간 묵을라고.] 야. 그래 개를 딱 잡아가 삶아갖고 껀지묵어야(건져먹어야) 인자 내 복이 올 끼다.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 아 선다고,[14] 그 집에 며느리 마 부엌에서 껀지묵아 삤어. 껀지(건져) 묵아삐놓이,

"아이고, 복 없는 놈은 할 수 없다."

커더라. [웃음] 그 칸다 카대. 복은 다 타고나는 기라.

[청중: 복 든 거로 묵어뿠어. 며느리가 묵어뿠어.] 며느리 묵아뿌니 그래,

"복 없는 놈은 할 수 없다."

커더란다. 누 복이라도 하나만 복이 있으면 잘 산다요.

[부산진구 설화 10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문봉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당감1동 당삼경로당]

거싱이(지렁이)? [조사자: 거싱이 이야기 하나만 해주이소.] 그래 아들이 만 날 천 날[15] 저거 여편네가 어마이를 어찌 싫어하던지. 그래서,

"내 오데 갔다올게, 엄마로 그 동안에 잘 믹이가지고 살로 찌아라. 그래야 다음 장에 갖다 팔지."

그라이께네, '아이고 우짜꼬?' 싶어갖고, '팔라쿠먼 잘 믹이야 될 끼나?' 밭을 마, 날새밭을 히빈께(파니) 이만큼한 거싱이가 나오거든. 그놈을 삶아갖고 주고 주고 한께, 이 할망구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묵고 한 동가리썩 자리 밑에 딱- 옇놓고 옇놓고 이랬어.

그래 인자 아들이 오데 뭐 벌이를 하러 갔겠지? 없으이께네. 어디 갔다 뭐 한 달인가? 이

13) 갑자기의 방언.
14) 임신 했다는 의미.
15) 언제나의 방언인 '천 날 만 날'을 잘못 말함.

십 일인가? 있다 오이께네 뽀~얗거든. 그 거싱이 얼마나 보신 돼노? 뽀-얗거든.

"아이고 당신, 우찌 엄마를 우찌 구양했건데(봉양했기에) 아이고, 저렇게 살이 올랐거나? 엄마 다음 자앙(장에) 갖다 팔자."

이라이,

"아이고, 안 파요. 인자 엄마 이제 집도 보고 우리 아도 봐주고 하는데 안 파요."

그래서 바앙 드간께(방에 들어가니) 눈을 감고 자리를 들치며 아들보고,

"야야, 애미가 이걸 해줘서 내가 뭇더니 그리 맛있고 살이 쪘다."

그란다. 거싱이가 나온다.

"아이고 엄마, 이거 거싱이다."

컨께,

"어잉! 거싱이라?"

그래 눈을 떴어. 그랬다. 그래가이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아들이 얼마나, 마누래도 안 뭐라 하고 얼마나 효자고? 그래 둘러대갖고 잘 믹이고.

[부산진구 설화 107]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중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아, 게, 게 게가 이렇게 물고 [조사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데예?] 나도 그거 모르겠다. 그래 각각 [조사자: 들판에 밥주러.] 그래 물어서 그걸 갖다가 절에 올라가다가 그래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여,

"이게 물어가지고 안 된다."

카께, 절의 중이 탁 그놈을 딜다 본께 고마 한 쪽 발이 저 저 중 입을 물었어. [조사자: 양쪽에.] 아이고 고마 몰라. [조사자: 그래갖고 어찌 됐는데예?] 몰라, 마 그 딜다 봤겠지 뭐 절에 중이 뭐. [조사자: 그 어떻게 뗐는고예?] 나는 몰라. 여가 더 잘 아네.

[부산진구 설화 10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고래장. 옛날에 고래장 할 때는 뭐, 인자 나이가 육십이고 칠십이가 돼서 인자 산에 아바이가 딜고(데리고), 지고 인자 고래장하듯이 무덤을 파나놓고, 무덤을 파다놓고, 호롱불 딱-키나놓고, 얼마 묵을 양석을(양식을) 딱 들다놓고, 고마 고려장을 딱 덮어놓고 내려왔어.

내려온께, 고거 떨어지마 촛불, 저게 기름 떨어지고 양석 떨어지면 죽는 기지 뭐. 그래 지고 내려온께, 아들이 있다가 지게를 갖다가 딱 더금에다 갖다 놓는 기라. 옛날에 집, 촌에 가면 더금이라 있었다. 집 우에(집 위에) 그따(그기에) 갖다 아들이 지게를 갖다 얹이니까, 그래 저거 아바이가 있다가,

"이 지게를 와 그따 얹노?"

칸께,

"나도 아부지, 아부지 연세가 많은께 아부지 이때 되면 나도 아부지도 갖다 묻어야 될 거 아이가?"

칸께, 파(파서) 오더란다.

[부산진구 설화 109]

꾀를 내어 주인집 딸과 결혼한 머슴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아이구 처녀도, 옛날에 처녀가 시집은 가고 싶은데, 그런께 인자 누가 시집 가고 시집 가고 했단께, 노처녀가 집에서 머리를 갖다가 이래 따가주는데(땋아주는데) 지 혼차 마 거울보고 아무도 사람이 집에 없은께, 그걸 갖다가 머리로 비녀를 찔렀어. 옛날에 그리 찌르면 그거 큰 숭이지(흉이지). 그리 찌른데. 밖에서,

"불이 났다."

칸께, 들고 머리를 비녀를 찌른 채로 쫓아나왔는 기라. 쫓아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났다고 구경와가지고,

"니 언제 시집 갔노?"

칸께, 그 집 머슴이 있다가,

"그 사람 시집간 제가(시집간 것이) 언제라고요." [일동 웃음]

진짜 신랑처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하고 살더란다. [조사자: 하인이 똑똑한 사람이네.] 하모, 하모.[웃음]

[부산진구 설화 110]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1)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한참 신나게 한께 아들이 저게 둘채(둘째)가 인나서(일어나서) 가만히 쳐다본께, 인나서 가만히 쳐다본께, 쳐다보고 있은께 저거 아버지가 마 귀싸대기를 때려주는 기라. [청중 웃음] 인나서 본다꼬 때려주니까, 큰기(큰아들이) 있다가,

"가만- 누서도(누워서도) 다 보이는데, 말라꼬 인나서 귀싸대기를 맞노?"

카더란다.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111]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2)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옛날에 애기들이 한 집에 이불 커다란 거 해가지고 옛날에 불로 떼고 누우자는데 영감 할마이가 한테 가지를 못하는 기라. 아들이 항거(많이) 누웄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내가 '꼭꼭꼭꼭' 그 카덜랑은 따라오라"

카는 기라. 그래가,

"꼭, 꼭, 꼭, 꼭."

따라간께, 이래 인자 방에 인자 한 바쿠 도는 기라.

"꼭, 꼭, 꼭, 꼭."

마누라한테 찾아간다 간께, 아들이 졸졸졸졸 일어나가지고,

"삐약, 삐약, 삐약, 삐약."

카디, 졸졸졸졸 따라 가더란다. 근께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뭣고?

[부산진구 설화 112]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3)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한 방에 아들하고 자는데,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민서(하면서),
"좋나? 좋나?"
칸께, 할마이가 말로 안 하거든. 근께 아들이,
"좋으면 좋다 캐라."
칸다 카대.

[부산진구 설화 113]

죽어 구렁이가 되어 복수한 개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옛날에 시집을 와서 시집을 사는데, 하-도 양석은(양식은) 안 주고, 돈은 저게 시어마이가 고기를, 저저 쌀로 갖다 고방에서 탁 키를(열쇠를) 시어마이 가주(가지고) 있고 쌀로 요만치썩 내주는 기라. 내준께네 밥을, 식구들 밥을 뜨고 나면 밥이 없는 기라.

누룽지가 나면 개를 줘야 되는데 지 배가 고프니까 개는 물만 주고, 자기가 누룽지를 묵었는 기라. 미느리가(며느리가) 묵고나서 난제(나중에), 난제 큰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기 나타난께 무섭어가지고 독 속으로 들어갔어.

단지 안에 들어있을 때, 구링이가 그 독을 자꾸 감고 도는 기라. 돌고, 그래 그래난께 난제 여자가 물이 싹- 됐더란다. 너무 구링이한테, 저저 개한테, 개가 물로 묵어가지고 개가 죽어가지고 구링이가 돼가지고 고거 앙물을(복수를) 하더란다 그래. [조사자: 그럼 시어머니가 물이 됐네예. 며느리가?] 며느리가. 누룽지는 개 묵을 거를 지가 다 묵고가지고. [조사자: 시엄

마가 안 줘서 그런데. 안 됐다.] 시어마이가 안 주서 그렇지마는 그래도 그래. [웃음]

[부산진구 설화 114]

구멍 난 마루에서 생긴 일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고냉이(고양이) 빠진께, 그게 빠진께 강아지 새끼가 그 밑에서. [조사자: 그 이야기 좀 해주이소.]

그것도 내나 종이 마루에 자는데, 평상에 여름에 자는데 그거 마 한참 그거 자는 거 달밤에 보고 달이가 마 허옇이 나와있은께, 그 좋아서 올라가서, 그 이거는 자니라고 모르고 그 올라가서 한참 비비댄께, 고마 평상에 고냥이 구녁이(구멍이) 떨삐졌어. 꼬치가 그리 빠졌어.

그런께 고마 강아지 새끼들이, 그기 강아지 새끼들이 기기 젖인 줄 알고, 젖인 줄 알고 쫄쫄쫄쫄 빨았어. 빤께,

"아이구, 역시 니 끼 좋긴 좋다."

카더란다. 아이구 마 인자 고만.

[부산진구 설화 115]

무조건 존댓말을 쓰는 며느리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저게 옛날에는 시아부지가 옛날에는 시집을 가마(가면) 어른한테 항시 존경을, 존경을 하라캤어. 존경을 하라 카니까, 그래 인자 시집을 갔는데 시아부지가, 시아부지한테나 어데나 다 존경을 해야 될 거 아인 가배. 그런께,

"아부님, 대갈님 우에 사발님 좀 내주이소."

카더란다. 존경한다 아이가.

"대갈님 우에 사발님 좀 내주이소."

옛날엔 대접을 사발이라 캤거든.

“대갈님 우에 사발님 좀 내주이소.”

카고. 또 할아버지가 인자 개가 ‘콩 콩’ 짖어싼께,

“야야, 밖에서 뭣이, 저 누가 왔는데 개가 저래 짖노?”

카니까,

“송치씨가 거치씨로 뜯으신께 개씨가 보씨고 짓시오.”

카거든. 기 뭔 소린고 알아요? [조사자: 뭐가 뭐하니까.] 송아지가 꺼적대기를 뜯으니까, 송치씨가 그치시고, 꺼적대기를 뜯으니까 개가 보고 짖는다고 그 노리를 존댓말로 할라 칸께, 송아지를 보고 송치씨가, 꺼적때기를 거치씨가, 뜯으니까 개씨가, 개가 보고 그걸 보고 짖는다고 개씨가 보시고 짖시오.”

카거든.

[부산진구 설화 116]

자린고비 이야기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미느리(며느리) 그래 봐나놓고 옛날에 너무 없이 사니까 꼬등어 장사가 왔어. 꼬등어를 팔러 왔는데 조물락 조물락 하는 기라. 그거 인자 사지는 안 하고. 조물껄 가지고 조물락 조물락 하고 인자 그래가지고 마 안 산다꼬 꼬등어 장사를 보내놓고, 그래가지고 그 손을 갖다가 싹싹 씻거가지고 국을 끓있어.

국을 끓이논께 시어마이가,

“하이고, 올 지녁에(저녁에) 국이 맛있다.”

카거든. 그래,

“어째서 이리 국이 맛있노?”

카이. 그래,

“꼬등어 장사가 와가지고 그걸 만친(만진) 그 손을 씼거서 국을 끓있디 맛이 있다.”

칸께,

“엣, 그년 손도 크다. 장똑에다 씻것으마 새 내 묵을 낀데.”

그래가지고 마 미느리 쫓가냈어. 쫓가내께 샘이가에 가서 우두커이 있으께, 동네사람 물로 이러 이리 오디마는,

“니, 와 여 나와 있노?”

카거든.

“그래 사실 꼬등어를 갖다 그리 해가지고 국을 끓이줐는데 한 끼 다 묵었다고. 그래 너무 손 크다고 쫓기났다.”

칸께,

“엣, 그년 손도 크다. 우물에다 씻겄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묵을 낀데.”

카더란다.

[부산진구 설화 117]

봉사 처녀를 놀린 동네사람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봉사가, 아! 여자가 봉사지. 여자가 봉산데, 어마이가 인자 어마이가 어데 가고 없는데, 동네 사램이 장난친다꼬, 딸이 봉사라. 엄마는 어데 가고 없는데, 동네 사램이 그걸 인자 가마를 가지 와서 태아가지고,

“니, 아무것이한테 시집보내 주꾸마.”

칸께, 장님이 돼가지고 나이가 묵도록 들어앉았다가 인자 그 사람이 시집 보내준다 깐께, 가마를 가지와서,

“타라.”

칸께, 가마를 탔어. 타고 빵-빵- 집을 돌다가 니라논께(내려놓으니), 저거 구석에 가마이, 시집 왔다고 앉았은께 방에, 구들막에 앉았어. 친정엄마가 오디마,

“니, 와 이래가지고 앉았노?”

칸께,

“어매요 우짠 일입니꺼?”

시집 왔다꼬. [웃음]

[부산진구 설화 118]

봉사 놀리기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옛날에 저게 사램이 전장 났다고, 옛날에 그거 모두다 옛말이 그짓말이지. 그 인자 전장이 났다꼬. 장님인데 전장이 났다꼬, 친구한테 피난 가자꼬 가가주골랑(가서는) 어디로 막 콱~ 집에 빵빵빵빵 돌다가 아궁이에 저- 안으로 막,

"여 지금 굴로 들어가야 된다."

커싼께, 아궁이로 막 어데까정 들어갔어. 아궁이로 들어간께, 그 피란을 가야될 꺼 아닌 가배? 인자 전쟁이 나면 죽으니까 아궁지에, 인자 굴속에 숨어야 된다 아이가? 들어가니까, 한참 있으니까 누가 부엌에 와서 불로 땔라 칸께 뭣이 '뿌시식' 소리가 나는 거라. 디다본께,

"아이구, 전장 끝났어요?"

카고, 나와뿐께, 밖에서 본께 눈만 뻔쩍뻔쩍한 게 새-카맣이 덮어씨가지고.

그래 장님이. 그기 옛날에 놀린다꼬 그래 쌌는(했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119]

젊은 여종과 사랑을 나누는 할아버지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옛날에 부잣집에 종을 딜이면은(들이면), 종을 종끼리 또 결혼을 시키가지고 그 집에 종노릇을 하거든. 하는데 인자 대-기(아주) 상할배가 아들 있고 또 뭐 손자 있고, 상할배가 밤에 잠은 안 오고 다른 사람 다 누우자는데, 달이 훤하이 밝은데 빵뱅 돌아댕긴께, 한여름에 열여덟 살 문(열여덟 살 난), 종의 딸인께 종 딸 아이가? 그거 또 종이지 뭐.

그래 평상에다가 이래 누웄어. 다리를 마 글케 마, 한참 잠들마 이라고 다리를 훅- 올리고 잔께, 할배가 달밤에 돌아댕기다 그 다리를 쳐다본께 막 좋아죽겠는 기라. 하구 싶어서. 그래가지고 하무 꽁꽁 거려싸.

"뭣이가 그기 좋더라. 뭣이가 그기 좋더라."

아들한테 자꾸 한께, 그기 뭣인고 싶어가지고 그래 인자 종한테, 딸아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분(한번) 해주라 캤는 기라. 그런께 인자 아랫방에다가 할배를 인자 들라보냈어. 들라보냈디마는,

"뭣이야 좋나? 뭣이야 들어갔나? 드갔나?"

카거든. 그래,

"안적(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칸께, 또 하다가,
"들어갔나? 들어갔나?"
카이,
"안적 안 들어갔습니다."
칸께, 아들이 있다가 망을 보고 있다가 어떻기 답답한지,
"뭣이야 드갔다 캐라."
그칸께, 그래 종이 있다,
"인자 드갔습니다."
깐께,
"역시 니 끼 좋긴 좋더라."
카더란다.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120]

흑심 담은 염불

정숙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제일경로당]

절에 중한테 가서 불공을 드리러 갔디마는 한-참 드리고 있은께, 저게 절에 중이,
"[염불하듯이] 안 주마(주면) 가나봐라. 안 주마 가나봐라." [조사자 웃음]
칸께, 그거 불공드리러 간 사람이,
"줘봐라 하나봐라, 줘봐라 하나봐라." [조사자 웃음]
카더란다. 아이구! 몰라. [웃음]

[부산진구 설화 121]

모르고 가져온 호랑이 새끼

오순근(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진짜도 있다. [조사자: 어떤 건데예?] 숙모가, 우리 시숙모가 저게 옛날에는 나무가 하도 귀해가지고 솔방구리 따러 밥을 싸가지고 그서 어하실이라는 동네가 참 산골짝이라. 근데 갔는데, 그리 간께로 방구(바위) 밑에 강아지 있더라네. 모르고 강아지더로.

강아지를 근데 막 북실북실한 기 막 네 마리가 있더라더로. 그래 한 마리를, 솔방구리를 안 따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데리끼가지고(데리고)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 우리 시삼촌이 또 인제 옛날에 왜 동신제 지내는 거 그런 걸 잘 하거든. 집에 오께로 시삼촌이 한다는 말이,

"너는 그 저 어려운 저 뭣이를 왜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느냐?"

면서 막- 뭐라 카거든. 그래 그래도 뭐 우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막 귀엽다고 마 방에 갖다놓고 쓰다듬고 이랬는데, 저녁에 깜깜하게 해가 질란께로 막 베락(벼락) 치는 소리가 나는 기라 마 동네에. 베락 치는 소리가 나. 그러께로 시삼촌이,

"아이고 예쁘다. 니 엄마 찾아가래이. 예쁘다."

함서. 우에 매논께로 어디로 갔는가 간 곳도 없어. 소리가 잠잠한 기 그리 간 곳도 없어. [청중: 옛날에 산신령이라 안 하나 호랑이를.] 그래. 그래.

[부산진구 설화 122]

구렁이를 죽여 망한 집안

오순근(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요 요 저 기장. 부산 기장도 그랬잖애요. 부산 기장 그 쪽파가 많이 나잖아. 쪽파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우리 영감이 저 저 경북에 살았을 때 어데로 갔는고 사람이 흔적이 없어. 안 와. 안 와가지고 날은 춥고 이런데 마 군바지 이래 솜 넣은 거 그걸 해 입고 나가더라고. 그렀디만은 어데 누구 친구하고 가디만 한 달을 안 오는 기라. 소식이 없어.

[청중: 데리러 간 사람도 안 와?] 아 데리러 간, 어데로 간 줄 알아야 델로 가지? 그래가지고 소식 오도록만 기다리고 있으면 자꾸 문소문을 하고 이랬는데, 한 날은 어데 그 친구가 카더라고.

"저 기장 가서 쪽파 장사 할라고 누구하고 갔다."

고 이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장을 찾아 왔거든. 기장을 찾아오이께로 그 우에 참 기장이라 카는 데는, 지금은 기장을 알지만은 기장이라는 데가 어덴동(어딘지) 아나? 고 가이께

고 저 송정 그리 해가지고, 지금 송정 그리 해가지고 고 간께 기장 우에 고 기장 있대.

근데 쪽파를 하는데, 산이 요래 있는데 밭 한 뙈기가 요래 있는데, 참말로 쪽파를 캐더라고 가이께로. 그래 점심을 나와가지고 인제 저게 먹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할매들이,

"저게 저 아무것이."

그 할매가 하나가 자꾸 쪽파를 인제 캐다가, 돈 때문에 나오기는 나와도 이 한숨만 쉬고 밥을 안 먹더라고 때가 됐는데. 그래 인자 그 동네 할매들이 이야기 하는데 그카더라고.

"저 얼마나 한이 됐으면 청춘 아들로 보내고, 저 저래 저 저 밥도 안 먹고 저 카겠느냐?"

이카면서 카던데. 배를 타러 갔다더라 아들이. 배를 타러 갔는데 배 타러 갔을 때 말 안 들으면 그거 또 저게 바다 가운데 잡아옇고 대로 사고 났다고 하고 안 가르키 준다네.

"그래 저 배만 오기도록 기다리고 있고 만날 그렇다고. 먼 산만 보고 있고 여태끔(지금까지)."

그 카디만은. 그래 기장 우에 그 우에 저게 돌담을 이래 쌓놨는 집이 있더라고 내가 보께로. 그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인동 손잔동(아들인지 손자인지) 아파가지고 꼬지꼬지 말랐어. 말랐는데 옛날에 할매들이 그카는데, 그 집 담에 누런 구렁이가 이런 거 있는 거를 그 아가 잡아가지고. 잡으이께로 또 그것도 동가리 동가리 냈다 카네. 동가리 동가리 내 이래 끊어가지고 한께, 마 뱀 동가리가 팔딱 팔딱 뛰더라 그래. 마 자꾸 뛰더라 그래. 그라며 수대로 다 뛰더라 그래.

그러디만은 그러디만 고질로(그길로)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런데, 뱀을 제사를 지내도 안 돼고 아무 짓을 해도 안, 병원을 가도 안 돼고. 그렇디만은 나중에 여게 또 한 마리 나옸더라네. 그래 그기 한 쌍이라 매. 한 마리가 또 나옸다 그로(나왔다 그래) 한 쌍이라 그로(한 쌍이라 그래). 그래 그 뭐 아가 결국 죽었다. 말라가이고. 실지로(실제로) 그랬다. 그 기장 거기서.

[부산진구 설화 123]

죽었다 세 번 깨어난 사람

오순근(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그래 또 한 집에는 도 씬데, 덕봉 도 씨라고 그 한 집만 우리 친정 있는데 고 와 살았는데 저게 외동이래. 사대 독자 외동이라. 그런데 저 월남 가가지고 참말 먹고 살기 거북해가 월남 가서 돈 벌로 갔다가 와 이 간암이 걸리가지고 왔단 말이라. 와가지고 그카다가(그렇게 하다가) 인제 고마 죽어뿌맀어.

그렇게 엄마가 얼마나 한이 되겠노? 그게 외동아들이 죽었으께로. 그래가지고 또 마 밥도 굶고 이래 하다가 참말 어마이가 우리들 보기에 죽었어. 죽었는데 인제 생질이, 저 시누의 아들이 생질이 염을 했는데, 이 다 해가 염을 해가지고 옇은께.

"아야야야."

그런 소리가 또 나더라 카네. [청중: 입에서?] 으응 저 관에서. [청중: 저 저 생에를(상여를) 메고 가면서 그런 소리가?] 상에가 맸는 게 아이고. 인제 관에다가 염 해놓고 있는데, 그래 그리 해놨는데.

"아야야."

소리가 나더라 그로(그래). 그래가지고 또 끌랐다(열었다) 그로. 지금도 그 저 아저바님 살고 있다. 그 집엔 저 저 외갓집은 도 씨지마는 저게 본 우리하고 성은 경주 김 씨라. 그래 그 아저바님 지금도 그래 살고 있는데. [청중: 산 사람은 산다.]

그 소리가 나갔고 또 끌러놓면(열어놓으면) 또 숨이 없어. 그래가이고 또 염을 해놓으만 또 소리 나고. 시 번을(세 번을) 끌렀다 그로. 시 번째는 싹- 죽었어. 굶어죽었다 그래. 아들 땜에. 그런 게 있더라고.

[부산진구 설화 124]

지킴이가 눈에 보여 망한 집

오순근(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옛날에는 쌀을 이런 도라물깡(드럼통)에다가, 독에다가 이리 찌어가지고 먹대. [청중: 그렇지.] 그래 찧어가지고 먹고. 한 도라물깡 해놨는데, 저녁에 밥을 할라꼬, 인제 아지매하고 모두 들에 다가고 없고 밥을 할라꼬 저 다락에 올라가이께로, 구렁이가 마 큰- 기 나와서 이리 딜딜 감고 있더라 그로. 고마 기절을 하고, 바가지를 집 던지고 뛰나오면서 막,

"할머니 할머니, 저 우에 저 저 쌀 단지에 구렁이가 감고 있다."

카면서, 뛰나온께로 할매가 하는 말이 카더란다. 그 할매 택호가 산사할매대. 산사할매라꼬 그 있는데.

"야야 야야 행자야, 니 그렇거들랑 니 나하고 살자. 나하고 살자 그러지 왜 뛰어나오노?"

쿠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 그 집이 다 망했어. [청중: 그 집에 업이 사람한테 들키면은 그 집이 바짝 망해.]

[부산진구 설화 125]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오순근(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아니 인자 이기다. 와? 피를 훑어다가 널어놓은. 억수로 몬 살아서, 신랑을 만내가지고 와? 억수로 몬 살아가지고 피를, 인자 이 부인이 피를 뽑아다가 덕석에 널어놓고 넘의 모를 숨구러 품 팔로를 갔는데, 낭군이 그 피를 좀 담아놓야 되는데 마 다 떠내려 가뿌맀어. 그 떠내려 갔는데, 그 노래가 있던데, 그래갖고 저기 이래 커던데, '공부도 좋지만은 묵고 살 거를 떠내러 보냈나?'

그래서를, 신랑이 나는 당신하고는 나는 안 맞아서 몬 사니 베실(벼슬)하러 갔는 기라. 떠돌아 댕김성 인자 울러매고 인자 삿갓 씨고 가는 거 안 있나? 그런 거 하러 갔는데. 그래 인자 과게를(과거를),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해가 과게를 하고 오니까는, 그때 만수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로,

"저게 저게 모 숭구는 저 부인은 [조사자: 오나 가나.] 안적꺼지로(아직까지도) 모를 숨구나?"

뭐라 카고, 그래 모 숨구면서 뛰나와가지고 좀 아는 척을 했는가, 뛰나와가지고 아무 인사를 했겠지. 반갑다 인사를 한께 저게,

"물 한 그릇만 날로 떠다주면은."

인자 뭐라 카며, 군소리가 있더라고.

"떠다 주면은."

하고, 마 인자,

"좋다."

하고, 마 인자 '내하고 만나 살란가?' 싶어가 그랬겠지. 퍼뜩(빨리)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리 주니까는 물을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딱- 부어논께 이기,

"이 물을 담을 수가 있냐? 한 분 봤던 사람은 또 만낼 수가 있냐?"

카면서, 저 군사를 거느리고 가더라고.

피 훑는, 피 훑는 여자는 평상(평생) 피를 훑어야 먹고 살고. 이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만, 만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그래 그래 몬 만나지더란다 그 부부가.

[부산진구 설화 12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오순근(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쪼깨(조금) 들은 것 같은데.

뭐 시어마이를 그래 모싰더니, 참 건강, 눈이 어둡더라 카네 시어마이가. 그래가 그 지렁이를 잡아다가 내- 삶아주니까 살이 쪄서 마 이렇더란다. 그래 그 신랑이 지렁이 준 지를 몰라 가지고 자기 여자를 죽있다 카더나? 뭐라 카더나?

[부산진구 설화 127]

뱀탕으로 어머니를 봉양한 아들

오순근(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효자가 저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아파서 누웠는데 비린내 나는 것을 안 잡순다 말이래. 그런께 어느 뭣이기 가이께로, 동네 가이께로,

"뱀을 잡아서 꼬아가지고 주면은 저게 회복이 된다."

캐가지고, 그래 인제 뱀을 껍데기를 삣기가지고(벗겨서), 잡아 꼬아가지고 그거를 명태라고 갖다 주고, 그거를 계속 명탠 줄 알고 자시고(잡수시고) 깨어났다거든. 새로 또. [청중: 신랑이 얼마나 좋다 카노.] 신랑이 아니고 아들이라. [청중: 아들이 참 얼마나 좋다 카노.] 효자라고 우리 소문 났잖아.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부산진구 설화 128]

산신령의 부탁을 거절해 죽게 된 군인들

전덕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2동 중앙할머니경로당]

산신님이 있어. 산신님이 사람이 아니고 무슨 짐승이라. 큰- 뭐 용이라 카기도 하고, 뭐 큰- 뭐 뭐 저게 뭐고? 저 저 [청중: 호랑이.] 호랑이라 카기도 하고. 그래 그게, 그 산에 그 지키고 사는 산신님이 있어.

그리 있는데, 저 마천이라고 알제? 마천. [조사자: 아, 마천? 응. 마천예] 마천 산골에 옛날에 군인들이 와갖고 질을(길을) 냈다 말이다. 군인들은 인자 빨가이(빨갛게) 올라가고 난 뒤, 오래오래 된 군인들이 와서 질을 냈는데, 이 바우 저거를 헐어야 질이 되는 기라.

그런데 그 바우를 인자 마 폭탄을 낳아가지고(놓아서) 마 이리 놓을라 카니까는 그 대장 꿈에 이리 나오더란다.

"어, 여기 내가 몸이 무겁어서 잠깐 좀 있다가 이 산을 헐어갖고, 내가 몸이 무겁어서 이 동을 몬 하니까는."

꿈에 그리 끼이더라(꾸이더라) 카네. 그래서 에고 쫄병이 꿌다 카더나? 뭐 상사가 꿌는데. 그래,

"이 꿈에 그리 나왔소."

이라이까,

"요새 그 그런 소리 하지마라. 그런 게 에데 어데 있노? 요새는."

그래 그랬는데, 그 인자 굴을 파고 나포를 놓으면은 그 돌이 탁- 떨어져 나간다 아이가? 떨어져나가는 나포를 놨는데, 큰 배암이 막 벌-거리 깨짔더란다. 그러고 깨짐서 군인이 서(셋)인가 죽어뿌맀어.

그거를 인자 꿈자리를 해줬으면, 꿈대로 해줬으면 괜찮았고, 이리 좀 뭘 놓고 막걸리도 놓고 안 하나? 옛날에. 그거 아무리 요새 기험(영험) 없다고 싸도(해도) 뭐 차 고사도 지내고 하는 거는 다 그런 긴데. 그러 커면은 '아 참 그 하도 바우가 오래 돼서 그거 참 미신인가 모르지만은 그럼 참자.' 하든지, 그다가 좀 뭐 적신을 묻든지 이랬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날 낀데, 그런 사고가 날라고 벌써 꿈에 그래 나타났거든. 군인이 서이나 죽었다 아이가.

[부산진구 설화 12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양순연(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동평부인경로당]

애가 암만 달래도 안 끈치고(그치고) 자꾸 울어서러,

"꽂감 줄게."

카이까, 애가 덜컹 근치거든. 밖에서 호랑이가 들었는 기라. 문밖에서러. 애가 저래 울어도 오만 거 다 준다 캐도 안 끈치더만은 저그 엄마가 뭐,

"꽂감 줄게."

덜렁 끈치거든. 그러니까 호랑이가,

"야야, 꽂감이 호랑이보다 무섭은 갑다."

카면서, 그래 호랑이 가더라 안 카나.

[부산진구 설화 130]

개똥 보리쌀로 시아버지를 봉양한 며느리

노상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그래 시아바시하고 메느리하고 둘이 살았는 기라. 아들, 신랑은 죽고. 둘이 살았는데, 너무 너무 몬 살아. 너무 몬 살아서 그래갖고 밥해 줄 기 없어가 한번 비 온 날에 여 나와 보이까네, 개가 똥을 싸갖고, 보리쌀을 항거 싸낳거든.

그래 그거를 가오갖고(가져와서) 열두 번을 씻거갖고 그래 밥을 해가 지가 먼저 한 번 떠 묵어보고 시아바시를 줬더만은 시아바시가,

"이리 맛있는 밥이 어데 있노? 어데 이런 밥이? 우리 메느리 호부(효부)다."

우짜고 그래 쌌는데, 그래갖고 마 각중에 막- 구름이 끼고 마, 무슨 비가 오고 마, 베락(벼락)이 치거든. 그래 그 메느리 이기 나가가지고,

"그래 나는 내가 죄를, 베락 맞을 죄를 짔다."

고,

"개똥을 씻거가지고 시아바시 밥을 해줬다."

고, 카인끼네 하늘에서 베락이 내려오다가 혹을 하나 탁- 붙이주고 가더란다. 혹을 하나 탁- 붙이주고 가더란다. 그 뒤 좋아서 마 마 자꾸 돈이 들어오고, 그래 시아바시를 잘 섬기고 잘 살았다 캐.

[부산진구 설화 13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노상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아이고! 아부지 죽고 저(저기) 묻으러 가거든. 지게에 지아(져서). 아! 아버지인 기 아이라 저거 엄마가. 엄마 죽었는데 그래 인자 지게 지고 저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갔는 기라. 그래 아들이 그 지게를 가올라 카이께네 아부지가,

"마할라꼬(뭐하려고) 그 지게 가아갈라(가져가려) 카노?"

카이께네,

"이 지게 갖다 놔야 아부지도 이거 지고 가지요."

응. 그래 그런 말이 있다.

[부산진구 설화 132]

에밀레종과 여승

노상주(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에밀레종? 에밀레종? [조사자: 예.] 아이구 그거 종 그거 만든다꼬 다 기부를 이래 스님이 댕기거든. 댕기께네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는 돈은 없고, 이 아만 주면, 아를 줄라 카면 주지. 돈은 없다."

고 이캤어. 그러 카고 그 스님이 갔는데, 그래 난제(나중에) 얼매나 있다 오보이께네(와보니) 그 딸아 그기 여승 돼가 절에 갔다고 안 하더나.

[부산진구 설화 133]

수숫대가 빨간 이유

안의자(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옛날에 왜 인제 두 남매가 살았는데, 인제 엄마가 왜 저게, 떡 저게 [조사자: 맞아예.] 등넘

에 떡 팔러 갔다가는 인제 올 낀데, 안 와가지고는 인제 저게 뭣고? 호랑이가 인제,

"너거가 인제 나중에 저기 뭣고? 내 손 디밀거들랑은 인자 엄마 온 줄 알고, 그래 안 들거들랑은 엄마 저 안 온 줄 알어라."

이캤는데, 인자 호랑이가 와가지고 손을, 호랑이가 손을 실컷 덮어씨가지고. 옛날 얘기 그렇지. 그래 손을 쑥- 내미니까 야들이 저기 고만에(그만) 문을 열어줬어.

문을 열어줘가지고 호랑이가 왔는데, 옹달샘이 있는 옆에 인제 나무가 있다 안 그라대? 나무가 있어가지고 미처 무서워서로 그 나무에 올라가이까, 옹달샘에 아가 비칬가(비치니) 호랭이는 뭐 '오늘 푸자. 내일 푸자.' 그 물을 암만 퍼도 그게 아가 안 나오잖아? 아는 저- 우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다하다 안 되이까 낭게(나무) 치다보더이만, 둘이가 있으이까 호랑이가 그 낭게 올라가다가, 낭게 올라가다가 수수밭에, 수수 막 빚는 수수밭에 가서 뚝 떨어져가져고, 수숫대 비면 뻘건 게 그게 호랭이 피라 그러잖애? [일동 웃음]

수숫대만 보면 말깡 뻘개. 그기 인제 저기 뭣고? 그기 호랭이가 올라갔다 툭- 널쩌가지고, 그기 호랭이 피라 그것이. 그런 소리 있대.

[부산진구 설화 134]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정기저(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옛날에 시집을 갔는데, [청중: 우리들 하는 거 하고 또 틀리다 아이가.] 방구를 인자 시집가가 몬 끼잖아? 내- 방구 나올 거 억지로 참고, 밥도 못 묵고 억지로 참고 이란께네, 방구에 그해갖고 얼굴이 노라이 인자 새각시가 그러께네, 시아바이가 묻는 거라.

"야야, 니 얼굴이 와 그렇노?"

이라이께,

"아부님, 내가 빵구를 몬 끼갖고 그렇다."

캤는 거라. 그러께네 [청중: 노란병이 들었다.] 어.

"노란병이 들었다."

이라니까,

"그라지 말고, 야야 속 시원히 푹 푹 끼뿌라."

이라니까,

"아버님, 내 빵구 낌 우리 집이 날라간다."

카더란다. 그러니까네 집 지동을(기둥을) 전부 잡으라 캤어. 그래 신랑하고 시아바이하고 전부 지동 붙잡고 있는데,

"풍, 풍."

낐다 카더라. 그래 그런 얘기 있어

[부산진구 설화 13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정기저(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당감4동 연수정경로당]

그래 아들이 어데 갔다 오니까, 인제 메느리가, 할매가, 엄마가 살이 뿌옇게 쪄가지고 그래. [청중1: 그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이야기 해야지.] [조사자: 처음부터 해주이소.] [청중2: 할매가 봉사라. 앞을 못 본다.] 봉사라 그래 참.

[청중3: 그래 아들은 군에 가고 없고.] 시어마이하고 인자 고부끼리 살았는데 양석도(양식도) 없고 해줄 기 없으니까 지렁이를 잡아다 만날 폭- 고아가 인자 시어마이를 줬는 거라. 그럼 맛있다꼬 묵고 인자, '뭣을 이래 맛있는 걸 해주는고?' 싶어 그 할매가 아들 오면 비준다꼬(보여준다고) 지렁이 그 한 바리 삶은 걸 자리 밑에 딱- 옇낐는 거야. [청중1: 그래 고 말이다.] 그래 보-하이 살이 쪄가 있으니 아들이 인자 군에 갔다 오갖고,

"우리 엄마가 어째서 이리 살이 찌고 뽀-야이 이쁘노?"

카이끼네,

"야야, 너거 마누라가 이런 걸 만날 날로 이리 고아줘서 내가 묵고 몸이 이래 좋다."

저 자리 밑에서 꺼내가 비주더래. 그래 지렁이가 빼짝 말른 거 있더라 안 하나.

옛날에 묵을 건 없고 그래 지렁이를 잡아다 폭- 고아가 시어마이를 자꾸 인자 줬는 거라. 시어마이는 봉사니까, 모리니까(모르니까) 인자 묵고 묵고 인자 살을 찌았는데, 인자 아들이 오가 어무이 얼굴 좋고 이러니까 물으니까,

"엄마 뭐 묵고 이리 좋으노?"

인자 물으니까, 자리 밑에서 내가 빘는데(보였는데) 지렁이 폭- 삶아가 말른(말린) 걸 자리 밑에 포개 놓다가 하나. 그래 그 효녀 상도 타고 그랬다 하더라 옛날에.

[부산진구 설화 136]

호랑이와 곶감

김남순(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옛날에 아가 마이(많이) 울어샀는데, 아무리 해도 애기가 안 그치갖고,
"아가 꽂감(곶감) 하나 주꾸마. 울지 마라."
카이께네, 호랑이가 무섭아서, 호랑이도 꽂감 그기 뭔고 몰랐는데, 아가, 호랑이가 들어본께네 '이 꽂감이 내보다 더 무서운갑다.' 싶어갖고 아가 울음을 떨꺽 그칬뿠다는 그런 말이 있지.

[부산진구 설화 137]

호식 당한 떡장사 어머니와 호식 면한 아이들

김남순(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떡 하나 주몬 안 잡아 먹지."
이렇케 해놔 놓은께네, 떡장사가 그래가 안자 떡을 이고 가다가 그 인자 호랑이로 인자 떡을 인자 하나로 준께네, 호랑이가 떡이 하나가 작아서,
"떡을 마이 주야 안 잡아먹지."
카거든. 그래가 그 떡장사가 기가 찰 것 아이가. 떡을 팔로 가는데, 그거로 팔아야 묵고 사는데.
그래 인자 떡을 인자 다라이 채로 거따다 땅바닥에 내라 놓은께노 호랑이가 안 잡아 묵고, 떡 그거로 마 퍽퍽 묵더만은 돌아서가 저리 간다 카대, 호랑이가. [조사자: 그냥 갔어? 호랑이인데 잡히 먹힐 뻔 하다가.] 안 잡히뮸지.
[이후 조사자가 떡장사가 호랑이에게 떡을 다 뺏기고 결국 잡아먹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제보자가 말을 바꾸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말을 바꾸어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했다.]
호랑이가 인자 또 저거 엄마 죽은 옷을 입고, 인자 저거 집에, 아들만 있는 집에 그 옷을

입고 가나 놓은께네, 저거 엄마를 쳐다본께 기가 차거든. 둔갑을 해가, 저거 엄마가[16] 둔갑을 해가 와놔 놓은께. 그래가,

"어? 우리 엄마가 오늘 떡 팔러 갔는데 엄마가 와 저래 변해가 왔노?"

캄서 마 아들이 전부 다 기가 차가 마 뒤로 막 휘떡 다 넘어가삤거던. 넘어가나 놓은께 호랑이가 가서 디다(들여다) 보고 그 아들 이리 이리 막 이리 홀타삤다가(핥아보다가), 홀타삤다가 아들이 마 기겁을 해갖고 일나지도 몬 하고 그래가 마 누우가 있거든. 그래 놓은께, 호랑이가 인자 '아, 내가 이깄구나.' 캄서 고마 돌아서가 간다 카대. 호랑이가. [조사자: 아들도 살았네.] 응. 아들도 살고.

[부산진구 설화 138]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김남순(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옛날에 저 여자들이 부엌에 이래 불로 떼몬 빗자리를 그거를 깔고 앉으고 그래갖고 저 불로 떼고 한다 아입니꺼? 그런데 그 빗자리에 옛날은 여자들이 생리 겉은 그런 것도 관리를 잘 안 해갖고 빗자리에 생리가 묻어갖고 있는 기라. 그래가 인자 빗자리가 모자라지몬(닳아서 없어지면) 빗자리 그거로 갖다가 부엌에 태아는(태우는) 건 아니다 캄서, 인자 저, 저저 또랑(도랑)에다가 떤지삐거든. 내삐리 뿌거든.

그라몬 인자 비가 마이 오먼, 또랑에 거서 인자 빗자리 그기 떠내려가갖고 쫌 멀리 가가 턱 걸치갖고 전신에 빗자리 몽댕이 천진기라. 그 언자 피가 묻어 놔논께 그기 인자 밤 되몬 그기 전부 다 도깨비로 변하는 기라.

인자 구름이 인자 꾸루무리하이, 저저 구름이 꾸리무리하이 찌이고 이래갖고 인자 한 두 시나 세 시나 되몬 어른들이 저 냇가로 쳐다보몬 막 불덩거리가 마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전신에 막 냇가가 막 불덩거리가 마 왔다가 갔다가, 이런 불덩거리가 왔다가 갔다가 해샀는 기라.

그래가 '저 불덩거리가 뭔 불덩거린고?' 싶어갖고 인자 그 어른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날 새갖고 그 인자 가 보몬 빗자리 몽댕이가 마 천지라 카는 기라. 그기 인자 밤 되몬 그기 전부 다 모두 다 도깨비로 변하는 기라. 그기 인자, 그기 빗자루 몽댕이라 도깨비가.

[조사자: 어머이 봤어요?] 우리는 못 봐도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지.

16) "호랑이가"라고 해야 할 말을 잘못 말했다.

[부산진구 설화 139]

도깨비와 싸운 사람

김남순(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인자 남자들이 술로 묵고 인자 저녁 때 인자 늦게 시장 갔다가 이리, 옛날에는 시골 장에 갔다가, 늦게 갔다가 인제 이래 오거든. 그라몬 막 도깨비가 막 불로 막, 짜다라 마꺼 마 이 사람맨치로(사람처럼) 이래가 걸어댕기거든.

그라몬 '야가 이거 와 이리 걸어댕기노?' 캄서 막 그 언자 빗자루 몽댕이로 그걸 인자 도깨빈 줄 알고 뚜드리 패고 그라는 기라. 인자 그라고 마 빗자리하구 안고 막 거서 굴이지갖고(구르며) 싸움을 막, 싸움을 하고 그라는 기라. 그래가 막 싸움을 하고 빗자리 몽댕이 그거로 안고 싸움을 하고 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샀 했는데, 날이 새이께네 아무 것도 아이고 빗자리하고 싸웠는 기라. 그 남자들이.

날이 새이께네, 날이 새몬 그기 인자 도깨비 그거 없어지삐거든. 없어져삐리고 날이 새갖고 인자 술도 깨고 해서 인자 떡 보이께네 밤새도록 빗자리 그거만 안고 싸웠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140]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 기름 불

김남순(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빼뿌재이(질경이)는 나쁘다 안 하더나. 빼뿌재이로 기름을 짜가지고 [청중: 귀신 이야기다.] 귀신이 이래 보인다 하대. 불로 써몬(쓰면). 기름을 짜갖고 접시에다 담아놓고, 기름을 그래 담아놓고 있다가 인자 심지를 요래 딱 놔갖고 불로 캐나놓고 언자 그라몬 언자 그기 귀신이 보인다 카대. 그래가 빼뿌재이 기름을 짜가. [청중: 빼뿌재이 씨앗가 기름을 짠다.] 응.

기름을 짜갖고 인자 화장실이나 저런 데 거다따 접시다 기름을 여 부놓코 심지로 이래 맨들어갖고 해갖고 불로 딱 캐나놓으몬, 그 언자 신랑이 하도 보고짚아서 신랑 볼라고 저 화장실에 저런 데 인자 불로 켜나놓으몬 안 보이갖고, 그것도 신랑은 안 보인다 캐. 보인다 캐서 그래논께 안 보이고, 그냥 고마 밤새도록 앉아갖고 바라봐도 안 보인다 카대. 그래가 안 보이

갖고 그냉 고마 밤새도록 앉아갖고 안 보인다 카대.

그래가 안 보이갖고 마 그 이튿날 그 언자 보고 싶은 그 여자가 뱅(병)이 나갖고, 그래갖고 마, 병이 나갖고 한 한 달로 계속 빼뿌쟁이 그거로 마 기름을 짜가 마 계속 그래 하이끼네 난중에는 인자 신랑이 보이는 거라. 보이는 그기 인자 엄청 그 여자가 굶고, 굶어가면서 그 인자 거따다가 몰두로 해놔논께네, 몰두를 해나논께네 이 사람이 영양가가 다 빠져서 그기 인자 귀신이 보이는 기라. (조사자: 아, 몸이 허약해져서.) 응, 몸이 허약해져서 그래가 귀신이 보이는 기라. 그래가 [청중: 그래 인자 헛보인다.] 응. 헛보이는 기라. 그래가,

"아 저 엊저녁에는, 어 엊저녁에는 우리 신랑이 왔다. 와서 내가 보고 막 안고 그랬다."

캄서 또 그런 말도 있고 그래.

[부산진구 설화 141]

각시로 둔갑한 여우를 물리친 사람

김필선(여, 1945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야시가(여우가) 나오고 둔갑을 해가지고. [조사자: 어떻게?] 우리는 거게 저 넘에 거 가는 여수굴이라고 있어. 인자 산 넘에 넘어가는데 여수굴이라고 있는데, 그게 인자 장에 가면 인자 술로 먹고 늦가 오면은, 마 여시가 사람이 돼가지고, 둔갑을 해가지고 막 나온대요. 나오면은 그래, 저 할배로 보고,

"같이 가자."

하고 막 이란대요. 각시가 돼가지고, 여시가 각시가 돼가 그라면 마,

"요기 어데 날로 사람으로 갖다가 깔로 보고 이기 이라노."

커매 펄-쩍 뛰가 저게 산에 막 솔이 막 우러져가지고(우거져서) 나무가 잡목이 우러져가 펄쩍 뛰가 그놈으로 저게 뚝 뿌지리몬(부러뜨리면) 우춤('멈칫' 하는 모양) 한대요.

그래 또 걸이(개울이) 있는 기라. 걸로 건네가면은 [청중: 아, 나무로 뿌지리몬.] 응. 그라몬 좀 우춤 해가. 걸로 또 건네가니, 건네가면 돌다리에 딱 앉아가지고 물로 헤죽 헤죽헤죽 하고. 그기 진짜로 우리 아부지가 젂은(겪은) 일이라. 헤죽헤죽하고 돌다리로 안 비키준다.

"요 망칙한 기 돌다리 거 안 비키나."

커모 그래 비끼준대요. 전에는 다 그랬어 우리 클 때 쪼깨끔 할 때는. 응, 옛날엔 그랬어.

[부산진구 설화 142]

닭 잡아먹으려고 내려온 여우

김필선(여, 1945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우리 클 때만 해도, 여시가(여우가), 우리 뒤에 산이 있는데 여시가 닭 자아물라고(잡아먹으려고), 집에 사람만 마이 없이몬, 우리도 인자 집에 이리 인자 저기 집 보라고 어데 나가가지고 올 때가 다 돼 가는데 해가 그늘허면 여시가 저 내려오는 기라. 내러오가지고 닭 자아물라고 내려왔는 기라.

와몬(오면) 간지깨이로가(간짓대로) 훑으몬(쫓으면) 요마이 가다가 딱 돌아앉아가지가 또 딱 쳐다보고, 또 훑으몬 요마이 가다가 딱 돌아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전에는 그랬어. 진짜 우리 집에도.

[부산진구 설화 143]

영험 있는 제삿밥

김필선(여, 1945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밥이 인자, 조상이 잘 되구로 해줄라 카몬 밥이 소복하고. 또 귀신, 아이 사람이 죽으만 저 그기 돼서, 새나 짐승이 돼서 발자국이 딱 있고. 그렇더라, 진짜.

[부산진구 설화 144]

먼 불에서 김 굽는 며느리

임정예(여, 1943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옛날에 시아바시가 아를 김을 꿉으라 카거든.

“김을 꿉어 온나.”

카이께네, 김을 부적게(부엌에), 부엌에다가 꿉으이까네 타뿌고, 또 꿉으이까네 타뿌고 이러거던. 그래,

“아부님예. 부적게 김을 꿉으이까 자꾸 타네요.”

이라이까네,

“야야. 김은 먼 불에 꿉우야 된다.”

이라이까네 대문 밖에 서가 이래 쌌더란다.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145]

제사상에 명태가 올라가는 이유

임정예(여, 1943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1동 신천경로당]

“아니 제사를 모시는데 왜 맹태를(명태를) 놓느냐?”

원장이 그라는 기라. 그래이께네 아무도 말 안 하고 한 사람이 딱 말로 하는 기라. 아무도 모른다 카는데, 왜 놓냐 카이께네,

“맹태가 알이 마이 나오기 때문에 조상이 자식들 마이 놓으라, 응, 번창하라고 언자 그래 맹태를 놓는대.”

[청중: 그래 놓고 제사를 지낸다.] 응. 맹태를 놓고 제사를 지내.

[부산진구 설화 146]

범내골 이름의 유래

김기남(여, 1929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2동 선인경로당]

마이산이라 카는 산이, 내 오서 들으이꺼네 옛날에 여게 범이 나왔더라 카네. 범이 나오서, 그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밭이고 산인데, 그래 범내골이라고 지있다 카네. 범내골이라고. [조사자: 아, 범이 나와서.] 범이 나와서 범내골이라고. 그러니, 그러이 카네 이름이 범내골이

다 여게. [조사자: 그럼 범천은?] 범천이 내나 범내골 아이가. [조사자: 똑 같은 거라?] 어어. 범내골.

[부산진구 설화 147]

황산의 개대가리와 대바위 내력

김기남(여, 1929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2동 선인경로당]

옛날에 나도 모르고 안 나서. 옛날에 옛날에 난리 날 적에 비가 어찌 오났던지, 비가 마이 오가 그 저 산에 개 대가리 만대이라 카는 데는, 개가 개 대가리만침 산이 남은 때문에 그래 개대가리라 카고.

황산에는 바구가(바위가) 있는데, 그 바구에 말 꼬리 맸던 거, 전부 거 말 짜구 놨던 거, 손 짚었던 거 다 있대. 장군이 있는데. 고 황산에 고 대바구 고기 물이 안 담기기 때문에 황산 대바구. [조사자: 황산 대바구.] 황산 대바구라고 있다.

고 옛날에 및 년 전에, 한 십 년 됐을 끼고만은, 십 년 됐는가 안 됐는가, 그 불이 나가지고 와 황산에 사람 마이 안 죽었나. 불 타가지고 죽었다고 광고 마이 안 났더나. 그래 안 났더나. 나가 그라고 나서는 거게 인자 사람 많이 안 모인다, 안 모이고. 또 그 산에, 황산이라는 그 산에가 그 너르고 너른 산에 솔나무 하나 안 올라온다. 날라가도 날 낀데.

옛날에 난리날 제, 저게 뭐꼬 그 난리가 났는데, 강마구단 할매, 장군 할매가 바구로(바위를) 싸갖고, 처매 꼬리 싸가 가다가, 저 농쟁이 열 개카마(열 개보다) 더 크다. 그런 거로 바구에 처매자리 싸 가다가 거따 흘리뿌고. 성 다 쌓다 카는 바람에 그따 놔뿌고 울어뿠어. 그 바구가 우는바군기라. [조사자: 우는바구.] 그 젙에 가몬 우르르르거리모 운다. 전부 질가(길가) 간데 지내가몬 운다.

그 이바구로 하나 들을라고, 그 옛날 거로 들을라고 커는 바람에 내가 이바구로 해준다. 그래 그기 우는바구고, 그 황산에는 성을 전부 다 싸놨는 기라. 옛날에 난리 진 칠라고. 정을 씨다가 앞산이 밤에, 하룻밤에 내리마냥(내일마냥) 난리 붙을 낀데 밤에 자고 일난까네(일어나니까) 일봉 산이 푹 솟아뿠는 기라. 일봉 산이 푹 솟아뿌내이까네 난리 몬 칬는 기라. 난리 몬 치고 성을 쌓다가 놔두고 장군이 말았는 기라. 말아가 그래가 갔는데 그 산에는 풀, 솔이 파리가 날라오도 솔 하나 있을 낀데 그 터 안에는 그리치 너른 터 안에 솔 하나 없다. 전부 갈대뿐이다.

[부산진구 설화 148]

견우와 직녀

김기남(여, 1929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2동 선인경로당]

책에, 일학년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저게 뭐고?

하늘나라에 임금이 살고 동네 사람이 마이 살았는 기라.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땅 생기자마자 그럴 적에, 그 임금이 하늘나라 임금인데, 과연한(과년한) 딸로, 스무 살 넘겨묵는 딸로 집에다 가다(가두어) 놓고 점을새록(하루 종일) 비만(베만) 짰는 기라. 비만 짰는 기라. 처지가(처자가). [조사자: 아, 베 짜라고.] 응. 비만 짰는 기라. 비만 짜고 삽짝 밖에 처지는 안 내봤는 기라. 안 내나 봤으꺼네 그 처지가 인자 과연하게 베를 점으나새나 비만 들앉아 집에서 짜다가, 그렇치 크도록 짜다가, 하루는 동네 처지를 불렀어. 동네 처지를 불러가지고,

"너거 오늘 하루는 내 따라 가자."

그래, 그 카이끼네, 임금 딸이 놀러 가자 하이께네, 동네 처지가 좋다 카고 따라 가지. 그래 인자 따라 참 이 동네 밖으로 떡 나간꺼네, 그 동네 처지로 마카 데꼬 그 직녀라 카는, 임금 딸이 이름이 직년기라, 직녀.

그래 인자 따라가이꺼네, 나가이꺼네 생전에 집에만 들앉아가 비만 짜다가 나오이 세상 밖을 나온께 엄청시리 좋거든. 그래 나간다고 나가이꺼네 산비탈에 질 우에서 말이지 건우가 소를 믹이고 있는 기라. 총각이. 총각이 과연한 총각이 이름이 건우라.

그래 그 총각이 소로 믹이고 있는데, 그 소 믹이는 총각을 보이꺼네 이 직녀가 대번에 첫눈에 반해뿠어 고마. 고마 마 총각도 직녀를 보이 첫 눈에 맘이 들었뿠고, 이 처지도 마 총각을 본께 첫눈에 맘이 딱 들어뿠는 기라. '아, 저 사람 겉으만 내가 내 남편을 맨들어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드는 기라. 둘이 다.

그래서 첫날 가서 딱 한 분 보고 둘이서 인자 눈을 이리 보고 왔는데, 이튿날 나간꺼네 고마 서로 눈이 마주 바여지고 마 그 총각을 마 친해질라 카는 기라.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인자 처지들이 가만 보이꺼네 암만 캐도 눈질이(눈길이) 좀 다르거든. 그 처자로 친핼라 카이께네. 그래 인자 그러구로 그러구로 인자 미칠(며칠) 되이까네 이 동네 소문이 쫙 퍼지뿌는 기라. 동네 소문이 쫙 퍼지이꺼네, 그래 그 직녀 저거 아부지가 나라 임금이 직녀로 불러다 놓코 인자 묻는 기라. 물은이꺼네 그래,

"그래 그 과연한 그 건우라 카는 총각을, 소 믹이는 총각을 그래 좋아한다."

이카거든.

"좋아하나?"

카니,

“좋아한다.”

캐. 그래 좋아한다 카니까네, 또 인자 총각을 불러다 놓고 저거 아부지가, 임금이,

“그래 과연 그래 니가 우리 직녀를 좋아하나?”

“예, 좋아합니더.”

카이꺼네, 그저세는(그제서는),

“너거 둘이 그래 절대로 니로 몬 준다. 어 내가 임금 딸인데, 어 내가 우째 천한, 소 믹이는 니를 주겠노.”

저거 인자 영감이 그 카이꺼네, 그래도 둘이서 죽기 살기 좋은 거, 이놈의 자석 그, 그러구로 동네 소문은 다 퍼짔제, 인제 넘들 다 알제 이란끼네, 이눔의 저거 아부지가 잡아다 놓고, 가다 놓고, 패 봐도(때려보아도) 안 되고 굼가(굶겨) 봐도 안 되고 묶아놔도 안 되고, 안 되는 기라, 처지가. 그래, 안 되이까네, 그래 좋은꺼네 안 되이꺼네 인자 그때는, 그때는,

“꼭 너거가 둘이서 살아야 되겠나?”

카이,

“살아야 되겠다.”

카는 기라.

“그래 됐다. 그런 것 같으몬 나는 너거 둘이 몬 살린다.”

몬 살린꺼네 처지는 서쪽 나라로, 떡을 해가 묵고 살구로 서쪽 나라로 보내뿌고, 처지는 서쪽 나라로. 못에, 복판에 못이 있는 기라. 큰 강이, 못이 있는데 서쪽 나라로 떡 해가 너거는 떡 장사해가 평상 묵고 살아라 카고 보내뿌고, 총각은 동쪽 나라로, 저게 신을 삶아갖고 니는 신 삶아가지고, 짚신 삶아가지고 묵고 살아라고 보내뿌고 둘이서 이래 막 띠 놔뿠는 기라. 복판에 완전 못이 있고. 그래, 젊으나 새나 칠월 칠석날만 되면은 하나는 저짝 갓에서,

“직녀야.”

고 총각이 부르며 울어 제끼고, 이짝에서는 저 처지가,

“건우야.”

고 대고 불러제끼도, 이 못이 시-퍼러이 물이 그러고 나서는 그 길로 폭포가 지이꺼네 물이 많아서 도저히 못 건너가겠는 기라. 그라이꺼네 만날 수가 없는 기라. 한 평상을 암만 살아도.

못 만내이꺼네 그래 하는 말이, 그래, 한 번은 인자 그러구로 그러구로 세월이 흘러가고 오래 되이꺼네, 못이 찌지구리 하이 못이 빌 듯 말 듯 하이 마르는 기라. 마르이꺼네 그때는 하는 말이, 까막까치가,

“너거 보래. 우리, 내 말 들어라.”

“응, 그래 듣지.”

“그 칠월 칠석날에만 건우야 직녀가 저녁마중 오서 저래 해마중 저래 못 가에서 울어샀는데 우리 저거 둘이 한 분 만나주록 해주자.”

까막까치가,
"다리를 놔 주자."
"그래, 다리를 놔 주꾸마. 그래, 마 좋다, 다리를 놔 주자."
그래 마 인자 못이 찌지그리 해가 이리 말라 있으몬 까막까치가 막캉 엎디리가 누우가 있으몬 그거로 인자 풀쩍풀쩍 건니서 인자 건우 직녀가 만내고 가는 기라. 그래, 직녀가 만내고 가는 기라. 가는데, 그래 만내가지고, 그래 인자 일 년에 한 분썩(한 번씩) 만나는, 그 노래가 있다.[17)]

칠월이라 칠석날은 건아여(견우와) 직녀도
은하수 여기 부운물로 일년에 한번을 만나는데
오랏님은(우리님은) 어디를 가고 일년에 한번도 못만나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부산진구 설화 149]

은혜 갚은 두꺼비

김기남(여, 1929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2동 선인경로당]

옛날에 저게 처지가(처자가) 딸로 낳아서 키아고(키우고), 정지이(부엌에) 저거 어매 저거 아배가 있고, 살림을 이래 사는데.
딸로 하나 나아가 키아고 이라이께네, 정지 부뚜막에 만날 밥을 해 놓으마 밥떡거리가(밥풀이) 흘러가 있으몬 조먹고(주워먹고) 조먹고, 사람이 빱떡거리가 밥 풀 적에는 분밍이 저거 어매가 밥을 흘리놨는데 밥 묵고 나와서 치알라 카몬 밥떡거리가 없는 기라. 다 조아무뿌고. '그기 이상하다.' 할마이 생각에, 저거 어매 생각에, '이상하다. 와 밥떡거리가 내가 여어 마이 흘리놨는데 이거 쥐가 와서 무었는가?' 내 속으로만. '누고 와서 이래 무었는고 밥떡거리 맬가이 조아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그러고로 인자 딸로 나아가, 딸로 여럿이 나가 키아는데 큰딸로 잔잔 머리는 잔잔하고, 큰딸로 이래 나아가 웁어(제법) 크고 정지 밥을 해묵게 된 거래.
뚜끼비가 만날 나오는 기라, 고서. 부뚜막에 엉금엉금 기이나오고 하이께네 밥을 퍼 가 처지는 좀 놔주는 기라. 밥을 갖다가 만날 때마중 쪼매끔 쪼매끔 지 무을만치 놔주이 그 뚜깨

17) 아래는 창부타령조로 부른 노래이다.

비가 그러고로 그러구로 마이 컸어.

넙덕하이 이래 컸는데, 그래가 처지로 치알라 카이께네, 처지로 치알라 카이께네, 인자 처지 그기 생각할 때, '내가 시집을 오고나몬 저 뚜끼비는 굶어 안 죽겠나?' 싶으거던. 자꾸 마음이 그래 싶은데, 처지로 시집가는 집에가 그 동네가 이놈의 농사를 지을라 카모 마 전부 마 뚜끼비 그거로, 그거로 안 해노몬 마, 전부 뚜끼비로 해주야 농사를 지(지어) 묵지. 농사를 몬 지 묵는 기라. 그래,

"농사를 와 몬 짓노."

카이께네 그 뚜끼비가 그 농사에 그 해마중 섣달 그믐날 밤에 마 처지로 하나썩 옇어주는 기라. 그 당을 요만할 거로 지이놓고, 집을 지어놓고 고 안에다 처지로 옇어주몬 밤새도록 사르륵 녹하뿌고(녹여버리고) 없고, 녹하뿌고 없고. 녹하뿌고 없을 해는 농사, 그 농사가 잘 되는데, 처지로 안 옇어주면은 온 동네 쑤시갖고 나락 하나 못 묵는 기라. 옛날에 우리 시아바시가 그래 이바글(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래 인자 거 나락을 참 못 묵게 되이꺼네, 그래 이놈의 동네 사람들이 전부 짜가지고 인자 마 사람을 하낙썩(하나씩), 삼년거리, 삼년거리가 카더라. 삼년거리 하낙썩, 하낙썩 옇어주기로 하는데, 거 심지로 빼가지고, 빼이면은 딸이, 금딩이 겉은 딸이래도 안 주고 안 되는 기라. 그래 거도 드가면 죽어뿌는 기라. 참, 그 동네가 인자 기가 차는 기라. 우짤 수도 없고, 어데 가이 물을 때도 없고, 고 머 천자 저걸 그러이께네, 이 사람들은 모른꺼네 만날 농사로 지을라 카몬 삼 년만에 딸로 하나썩 녹하구로 주면은 농사가 삼 년을 잘 되는데, 안 그라면 농사 하나 안 되이꺼네, 이거 머 어데 가서 물을 때도 없고, 천자 저걸 그러이까네 기가 차는 기라. 그 동네 낭팬기라.

그래, 이 동네 인자 그 동네 이 사람이 시집을 가게 됐는 기라. 모르고 시집을 떡 가게 됐는데, 그 집에 가이 인자 밥도 묵고 사는 사람이고, 사람은 살림은 괜찮은 사람인데, 아들이 또 그 집에 외동아들이라 카대. 외동아들인데, 그래 인자 장개를 떡 들이가지고 며칠 사이꺼네, 어! 이 사람이 그 심지 빼가 그 집에 메느리를 들라 주게 됐는 기라. 메느리로.

그런께네 이놈의 자석, 이 동 메느리로 들라 줬으이 살림살이는 괜찮는데 마 기도 안 차는 기라, 마 식구대로. 그래, 이 처지가 시집을 딱 가인꺼네, 처지가 가는 날 가매문에 언제 꼬랭이 들고 들왔든지 가매문 안에 딱 들오가 있는 기라, 뚜끼비가. 아무 사람 눈에도 안 비고. 가매문 안에 딱 들아갖고 언제 나오가지고 버씨러(벌써) 정지, 정지, 그 집 부뚜막에 딱 드가가 있는 기라. 숨어가지고, 처지가 [말을 바꾸어] 그 뚜끼비가. 숨어가 있는데 이 처지는 이 생각할 때, 안주 몬 봤으이꺼네,

"하이고. 이기 내 없으몬 굶어 죽는가."

싶어서 마 신랑 걱징도(걱정도) 안 되고 마 그 걱정백에(걱정밖에) 안 되는 기라. 마 자꾸 이기 인자 굶어죽지 싶어서 걱정이 된께. 지가 인자 사흘만에 밥을 하러 나온께 부뚜막 빼꼼 내다보는 기라. 얼매나 좋을 것고 이기. 그래,

"언제 니가 내 따러 왔노. 내가 내 없으몬 니 죽는 줄 알았디만은 언제 니가 따라왔노. 아

이구, 좋애라."

그러미 그 인자 지가 밥 하는 날부텅 밥을 해가 쪼매꿈 쪼매꿈 자꾸 들라주기로 시작하는데 뭐, 뚜찌비는 자꾸 묵고 살지. 그러고로 그 사람이 빼이서 그 집에 거 죽기가 되는데, 밤에 인자 당 안에 들라주고 인자 선패이때기(거적대기) 하나 턱 덮어놓고 나오는데, 그래 할긴데, 이 집에는 마 메느리, 이덕 메느리 봐가지고 마 사랑도 못 되고 거 들라줄라 카이 온 식구가 난리 났지. [조사자: 그렇지. 아이고.]

그래갖고 들라주고 동네 구장이라 카는 사람이 밤에 인자, 저녁에 밤, 제 밤 돼서 델고서 들라주고 문 딱 잠가놓고 가가, 이튿날 아직에(아침에) 오보이 처지가 맬-가이 해가 있더란다. 그래, 뚜찌비 그기 들오서 안개로 푸아께네(피우니까) 큰 짐짝 겉은 지네가 방 바닥에 툭- 널찌이(떨어져) 죽더란다, 천장에서. 뚜찌비는 안개로 푸아면은 온 방이 뭉개-뭉개 푸아지고, 지네는 안개로 푸아몬 쪼르르륵 하고 나간다 커네. 그래 뚜찌비한테 안개가 몬 이깄는 기라, 지네가. 몬 이기서 제 밤 된께 녹할라고 천자아(천장에) 들어붙어갖고 이 뚜찌비가 안개를 푸안께네 툭- 떨어져 죽어뿠는 기라.

툭- 떨어져 죽어뿌니까 처녀는 아직에 맬가이, 각시는 맬가이 해가 있은께네 얼매나 좋은 일고. 그라고 나서 시작에서는 그 들에 사람 안 직이도(죽여도) 농사가 그렇기 잘 되더란다.

그래 우리 시아바시가 이바구를 해주더라.

[부산진구 설화 150]

흥부와 놀부

김기남(여, 1929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2동 선인경로당]

한 사람이 살민성(살면서), 그래 인자 참 동상이, 동상도 살고 힝이도(형도) 살고 요래 모두 여럿이 사는데, 힝이는 잘 사는 기라. 힝이는 참 잘 사는 기라. 부자고 힝이는 아들도 안 많고 딸도 안 많고, 동상은 아들딸이 한 여남은 되는 기라. 아무 것도 없는데 밥떼거리는 없는데 디릭디비 낳아가지고 아들딸이 여남시 되이께네 이거 뭐 옷도 전부 헐벗고 있고, 밥도 몬 얻어 묵고 굶고 마 이 지경인데, 동상이 아무리 몬 살아도 형님이 쌀 한 도배기(토막) 안 주는 기라.

쌀 한 도배기로 안 주고 이래 사는데, 그래 인자 밥 얻으러, 헝님 집에 밥 무러, 얻어무러 간다고 가면 주걱으로 갖고 빼말로 들고 쌔리 마, 주개에 거 밥이 붙어갖고 아들이 막 띠 묵고, 그래 오고 밥 한 숟가락 안 주는 기라.

참 고상을(고생을) 수연을(수년을) 고상을 하고 사는데, 하루는 우연히 오두막집에, 오두막집에 우연히 제비가 날라 오서 집을 짓는데, 그 집 지가 사는데, 제비가 사는데, 올개(올해) 지가 가고 밍년에(명년에) 지가 가고 후명년에쯤 오더만은 봄이 된께네 호박씨를 하나, 박씨를 하나 딱 물어다가 지 집 짓는 밑에 탁 흘리놨는 기라. 그런께네 그 얼라(아기) 마이 낳은 그 사람 어마이가, 저거 오매가,

"하이구야꼬."

신랑을 보고,

"아이구, 여기 보소. 여게 박씨가 하나 흘렀구매."

"아이구, 그래? 박씨가 흘렀으몬 올개 숨구자(심자)."

이래 됐는 기라. 그래 그 박씨를 조어다가 참 이 남핀이(남편이) 저거 밭 가에 말이지 텃밭이 쪼매 있는 데다 박을 피기(포기) 숨가노이 지붕크로 올라가갖고 박이 주렁주렁 여는 기라. 주렁주렁 여는데 막 참 그 박 오막집 그기 마 찌그러지도록 여는 기라.

찌그러지도록 여는데, 박이 인자 열어가지고, 찌그러지도록 여는데, 여 열어가지고 가실에(가을에) 인자 탈 때가 돼서 한 딩이를 딱 타언꺼네 막 금이 소복이 나오고, 인자 이 동상, 이 동상이 그러치 고상을 하다가 밥 얻어 묵으러 힝이 집에 가도 밥 한 숟가락 안 주고 쌀 한 도배기 안 주고, 힝이는 그 집 댕기미 자꾸 용심만 지기고 이라는데, 하루는 또 막 하문은 또 박을 또 한 딩이 따이꺼네 옷이 마, 비단옷이 마마 첩첩으로 나오는 기라. 막 이래 나오고 금이 나오고 하인까네, 이놈의 자석 그 마 아를 금을 해가 옷을 나오이 옷을 아들이 해가 짜다라 해 입히고 이란께네, 이 동상 집에 한 분 오본께네 말이지 돈도 천지고 옷도 천지고 이거 뭐 기적이거든. 지가 암만 있다 해도 이 동상카만은(동생보다는) 몬한(못한) 기라. 그래, 한 문은 또 마 박을 타이끼네 쌀하고 막 소복이 들어가 쌀이 암, 부자 방맹이가 나오는데 뚜드리이 돈 나오제, 밥 나오제, 막 자꾸 쌀도 나오제 이래 나오거든. 그란께네 잘 사는 기라.

잘 사는데 힝이가 오서 보이 용심이 나서 죽겠는 기라. [조사자: 그렇지. 용심 나지.] 내 한 가지 지이뭈다. 잊어뿠다. 내가 잊어뿠다. 와글로만(왜 그렇냐 하면은), 제비가 날라 오가지고 집을 짓고 살다가 하루는 제비가 다리가 뿔라지가 집 밑에 톡 널찌가 있는 기라. 그래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실로 가지고 창창 무엇은 껍디기를, 솔 나무 껍디기를, 사람 묵는 거 그 있다 안에. 솔나무 껍디기 고거로 삣기가 사르르 감아가지고 실로 창창 감아가 그래 놨디만은, 참 고기 다리에 붙어가 살아가지고, 고 해 새끼를 까가 가가지고 밍년에 나오면 고 박씨를 물어다 떤지놨는 기라. 그래 떤지 놨는데, 그래 인자 동상이 인자 그래 잘 사이꺼네 힝이가 오보인께네 샘이 나 죽겠는 기라. 그래,

"니가 어째서 그래 니가 이래 잘 살고 하노?"

자꾸 파고 묻는 기라 오서(와서). 날마중 아침마중 뛰어 오는 기라. 뛰어 오이 안 갈치 줄라 캐도 안 되고, 그래 인자 갈쳐줐다.

"그래, 헝님. 내가 제비가 날라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 하루는 집을 짓고 사는데, 봄에 새끼를 까는데, 널찌갖고 다리가 뿔라지가 있어서 내가 그래 그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래, 저 송

기 껍데기를 삣기갖고 안에 감고 겉에 실로 감아 줬디 낫아갖고 가 가지고 밍년에는 오면서 박씨를 하나 물어다 여 떤지놨걸래, 물어다가 던져놨걸래 우리 숨가가 박이, 지붕케 박이 주렁주렁 여이꺼네, 하나는 떠이까네 금 나오고, 하나는 떠이 비단 나오고, 하나는 따이 쌀 나오고 그래서 이래 잘 사누매."

칸꺼네, 이 영감이 고 용심이 나가지고 지는 고마 마 제비가 저거꺼정 오서 집 짓고 사는데 다리를 덜렁 뿔라가지고 묶가놨는 기라. [조사자: 아이구야. 욕심을 부렸구나.] 야. 용심이 그래 많았고 사람이 본심인테 안 되는 기라. 이 동상은 그래갖고 그 아들딸이 여남은 돼도 마 비단옷에다가 잘 입고 인자 잘 사는 기라. 잘 사는데, 이 힝이는 그 용심이 나가지고 제비 다리로 뿔라가 감아줐거던. 감아줬니 밍년에 제비 새끼 또 물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는데 숨겄다. 숨가갖고 박이 참 막 산딩이만 한 박이 주렁주렁 여는데, 뭐 겉은 막 여는데, 그래 인자 박 탈 때가 돼서 서그렁 서그렁 큰 톱을 갖고 마 용매로 이런 거로 갖다 놓고 마 서그렁 서그렁 따인까네, 타이께네 문딩이가(문둥이가) 마 소복이 나오는 기라, 문딩이가. [조사자: 문딩이?] 문딩이, 진짜 문딩이 안 있나? 진짜 문딩이 이기 막 야단을 씨고 나온께,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 마 죽을 판이라.

그래, 그래 반다시 사람을 선심을 살아야 되지, 선심을 안 살몬 안 된다 카는 그기라 인자.

[부산진구 설화 151]

부모에게 잘해서 잘 살게 된 며느리

김기남(여, 1929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2동 선인경로당]

아들 하나만 딜고(데리고) 마 만날 나무를 해고(하고), 그 전에 공부를 했나 옛날에는 나무만 해고 요 때고 참 살았는데, 얄궂게 해가 막 짐승맨치로 이래 살고 있는데, 참 미느리를 하나 봤는 기라.

미느리를 하나 보기 되고 이라이 마 아들 하나 고거로 할마이가 키아면성 괴기(고기)는 자식 온동가리만 주고, 대갈빼기 꼬랑댕이는 자기만 묵고. 시아미시가. 춘하로 저거 엄매가 그래 키아갖고 장래를 떡 딜이논께네 마누라한테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대구 꼬랑댕이하고 대가리하고만 주래이. 그것빽이 못 묵는다."

참 그래 저거 오매가 만날 참 대가리하고 꼬랑댕이하고 묵고, 저거는 온동가리로 묵고. 참 할마시가 막 설움을 많이 받았는 기라. 그래, 밥도, 배도 마이 굶고, 만날 밥도 요맨침(요만큼) 끓어가 묵는 고것만치 고래 주고 이러 하이, 인자 만날 그래 살면성 이대로 살아도 알라로(아기를) 배태도 못 하는 기라.

그래서 인자 이 여자가 마 자석을 못 놓으이꺼네, 저 멀리 좀 멀리 한나잘 가는 길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춘하추동 날마중(날마다) 가는 기라. 날마중. 날마중 아침 묵고 나몬 시어마시보고 집 보라 카고 옛날에는 와 집, 삽짝이, 대로가 이래 실레실레 얽어 놓고, 그거 철사 질 꼽아가 철사 빙빙 돌리는, 그 그 집이라. 그 대문이 그기라.

그래 만날 아적을(아침을) 먹고 나몬, 뭐 절에 갔다 오몬 해가 다 지고, 해가 다 지고, 지녁 해물 때 되면 오고, 춘하로 이라. 주야장천 절에 가는데, 주야장천 절에 참 그래 가도 아가 없는 기라. 주야장청 및 년에나 그렇게 절에 댕기도 아가 없어서, 하루는 절에 간꺼네 주지가 하는 말이,

"보살, 오늘은 집에 돌아가소."

그래, 이래 만날 절에 오는 사람을 돌아가라 카는데 기도 안 차는 기라, 지가.

"그래 오늘은 보살, 암만 부치님한테 와서 절로 해봐야 자기가 자석을 배태도 못할 모냥인께네, 오늘은 가다가 내 말로 들으소. 오늘은 가다가 신을 꺼꾸로 신고 나오는 사람 있거덜랑 그 사람한테만 잘하만 내일이라도 아 놓는다."

이카거든. [조사자: 어, 아이구야.] 참, 그 메느리가 들으니끼네 참 기억정 없는 기라. 그래 이 주지가 '이 절에는 인자 오지 마라. 인자 당신 오늘 가다가 신 꺼꾸로 신고 나오는 사람한테만 잘 해라. 이놈의 자석이야, 및 년을 절에 댕기도 그런 소리 안 하더만, 오늘은 와 그런 소리 하는고?' 싶어서 참 여자가 마 마음을 참 그거 하기 묵고 마 돌아온다. 돌아온거네 해가 다 져야 오는 사람이 점슴(점심) 때가 된거네 문 열어 도라 카는 기라.

"문 열어 도라."

카니 시어마시가 놀래가지고 막 신을 꺼꾸로 신고 나오는 기라. 신을 꺼꾸로 신고 삽짝을 열어주러 나오는 기라. 삽짝을 꺼꾸로 신고 열어주러 나온꺼네, 차차 절에 말하는 주지 말이 생각키는 기라. '올치, 내가 부모한테 잘 못했구나. 내가 부모한테는 잘 몬해 놓고 절에 가이꺼네 절에 주지가 고 카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인자 오다, 오면서 칼치를 한 마리 사가 오고 개기(고기)로 사가 오서 나중에 쌀밥을 재지고 개기로 참 꿉고 해서 온동가리 해서 밥을 한 가릇 담아준꺼네 메느리를 붙잡고,

"날로 직일라(죽일가) 카거들랑 고이 직이 돌라."

카는 기라. 안 그러던 사람이, 생전에 안 그러던 사람이 개기도 온동가리 주지, 밥도 쌀로 한 그릇 주지, 시아마시가 놀래갖고,

"날로 직일라 카거든 고이 직이 도라."

이카거든. 그래,

"그기 어무이 아이고요. 그래 오늘은 밥도 그래 마이 잡숩고, 고기도 잡숩고, 그래 어무이 하이소."

카이, 참 이 마마 밥도 배부르게 주제, 고기 반찬 해주제, 뭐 이거 뭐 소답 씻거 잘 해주제 한꺼네 할마이가 살이 찌는 기라. 그러고로 한 및 달 있으이 태기가 있는 기라. 그래 참 낳인께네 떡 붙은 겉은 머스마로 나아가 키아는데, 그 길로 시작아서 시오마이가 젊어서 인자 막

오만 거 다 해주는 기라. 정지 가서도 다 해주고, 메느리가 밭에 일하러 가도 다 해주고, 밥 해주고, 아로 놔 놓으이 아 다 키아주제, 이놈의 자석 호박 구불었는 기라. 그라고 인자 시작아서 아들딸로, 아들딸로 어찌기 마이 낳아가 그래 잘 살더란다.

그런께네 부모한테 잘해야. [청중: 부모한테 잘해야 절에 그거 하지. 부모한테 잘못해몬.] 잘못해 놓고 절에 가몬 뭐하노. 스님이 그래, 그래 그카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152]

욕심 부리다 부인 고려장 터에 죽게 한 사람

김기남(여, 1929년생) 구술
2018년 2월 8일 채록
[범천2동 선인경로당]

시어마시로 직일라고 그 전에 옛날에 구딩이로 파놓고, 저거 어매로 갖다가 묻을라고 그래 놓고, 갖다 옇어놓고 집에 돌아와가 있으면서, 그 지게로 지고 오인께네,

"아부지."

아들이,

"지게 지고 갑시더. 아부지도 그래야지."

칸다 카던데, 그래 인자 저거 어매이로 죽으라고 그따 안에 옇어놓고, 짚이(깊이) 파가 옇어놓고 오서인께네 한 달이 다 돼 가인꺼네, 양석이 떨어질 때 된꺼네, 어떤 놈이 소로 팔고 오다가, 소로 팔고 오다가 도둑놈이 붙어갖고 돈다발이 그놈이 구딩이에 툭 빠지뿠는 기라. 구딩이 툭 빠지니 돈이 한 다발 빠짔은께네 얼매나 많노. 그래 인자 저거 어매가 죽었는강 싶어서 들다 보러 오이꺼네, 저거 어매가 돈 다발 아듬고(보듬고) 있는 기라. 밑에 그 굴에서 몬 나오고.

"아이구, 야야. 여게 어서 온나. 내가 니 기다리고 있다. 돈 다발로 한 다발 여게 빠졌는데 내가 몬 올라간다."

카인꺼네, 어이구 아들이 부르저키(부리나케) 올리고 돈 다발 한 다발로 빼가 나옸는 기라. 그래서, 그래 인자 하는 말이, '엄마로 갖다가 죽으라고 구딩이를 파가 옇어놨디만은 우리 엄마가 돈을 한 다발 쥐고 들오는데, 우리 마누래도 새끼 구디 갖다 옇고, 그 구디기 갖다 옇고, 마누라도 한 다발 가오몬 우리 대부자 안 되겠나.' 싶어서 저거 오매 돈 한 다발 가온 거로 갖다가 옇어놓고 또 갖다 옇어놨다. 또 갖다 옇어놓은꺼네 비가 와가 사태가 져가 말에 그 돈 다발도 안 나오고 마마 찡기 죽어뿌이까, 마누래 죽어뿌고.

[조사자: 마누래를 거다가 보냈는 갑다.] 그래 본심을 써야 된다.

[부산진구 설화 153]

도깨비와 싸운 사람

구연규(남,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도깨비 이얘기는 내가 확실히 들은 대로 하나 해드릴게. 그는 바로 우리 장인 이야긴데,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살아계싰으몬 구십 한 둘 정도 됐네. 근데 우리 장인어르신 덩치는 별로 안 크지만 힘이 아주 옛날 장사라요. 장산데, 우리 장인 어르신이 그때에 도깨비 잡을 때는 나는 결혼 전이었지.

그 뒤에 인자 그 이얘기 들었는데, 술을 어- 마이 자시고 밤만 되면은 옷 딱 입고 동네로 가는 기라. 밤만 되몬. 낮에는 일하고 저녁만 잡수고 나면 옷 딱 갈아입고 몰래러 가는 기라요. 그러면 밤 한량이제. 그래 맨날 맨날 저녁만 묵고 나몬, 요즘 겉은 날은 이거 뭐 술집이 많지만도, 옛날에는 술집이 참 귀하거든. 밤에 몇 십리를 가는 거여.

근데 우리 마을에서 보면은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 넘어 가는데 그 남자재라고 하는 재가 있는데, 그 재를 갖다가 밤 매일 넘는 거요. 매일 넘어가지고 밤새도록 술 자시고 새벽 되몬 술이 꽉 채(취해) 오시는 거요. 그래 참 인자 술이 채가 오시면서 앞산에 오면서, 아들이 영순데, 영수야고 소리를 지르는 거요. 그러면 소리 지르는 집에서는 인자 아버지 오실 때까지 아들 기다린 거라. 그라몬 인자 또 모시러 가고 이라는데, 하루는 있으이 안 오시는 거요. 아부지 올 시간, 우리 장인이 인자 올 시간이 딱 됐는데, 집에 안 오는 거요. 소식이 없어.

그래 인자, '큰일 났다. 인자 오다가 중간에 오다가 인자 강도한테 당했다.' 이랬는데, 새벽에 날이 새니까 옷을 완전히 젖으면서 집에 들어오시는 거요.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리이,

"왜 이렇기 됐냐?"

물으니까, 술이 채가, 억수리 술이 채가 오는데, 산 넘어 우에 오는데, 보통 사람 못 댕기요 그 산에. 근데 워낙 간담이 크논께네, 그래 어느 놈이 인자, 한 놈이 도둑놈이 나타나가지고 인자,

"돈 내라."

이래. 인자 영감이,

"내가 돈 가 댕기나. 돈 없다."

이래 산 넘어 옴서(오면서) 둘이 결투가 붙었는 기라. 강도하고 인자. 그래 결투가 붙었는데, 결국 인자 구불고 구불고 고저방에 옷이 엉망이 되고 피가 나고 이랬겄죠? 그래 결국은 인자 잡았어. 강도를 딱 잡았는데, 이 강도를 놔나몬 달아날 기고, 그래가 강도를 잡아가지고 인자 끌고 인자 산골짜기로 갔어. 가가지고 그때 인자 끈이 없잖아요? 그래 혁대로 인자 풀

어가지고, 혁대로 풀어가지고 인자 딱 인자 물고 가가지고 송 한매이[18] 딱 묶었어.

그 뒤로 인자 집으로 오는 거라. 인자 기진맥진해가지고 술도 다 깨버리고.

"새벽에 왜 이래 늦게 들옸냐?"

인께,

"사실은 강도로 만냈는데, 저 산골짜기 가면 내가 혁대로 해가 묶어놨다. 함 가봐라."

그 집에도 가마 들으니까 그럴 듯 하거든? 그래 인자 아침 묵고 애들하고 식구가 그 골짜기에 갔어. 가니까 강도는 없고, 아니 소나무 하다가 빗자루 빗자루, [조사자: 빗자루.] 빗자루 몽댕이를 갖다가 이거 혁대를 풀어가지고 똘똘 뭉쳐놨더라 이거라.

[조사자: 도깨비네 그지예.] 그래이 장인어른은 술이 취했고 이 먼데 올라가몬 뭣이 나타날 건데, 무서운께네 내- 겁이 나는 거지. 그래 오는데 무엇이 인자 나타났는데 이놈이 그 인자 토캐비, 헛개비는 그 인자 헛것이지? 그래가 옛날에, 그래서 그놈하고 싸워가지고, 뭔 손에 거머쥐고, 거머쥤는데 그놈을 나무에다 묶어낳고 이래가지고 인자 집에,

"귀신인테 갔는데, 가봐라."

이라이께네, 그 헛것이지 결국 토캐비가 어딨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빗자루, 큰 빗자루 갖다가 묶어놓고 집에 왔더라 그래요.

그래 그것은 진실이라. 그래가 돌아가셨어요.

[청중1: 그래 인자 저 뭐고 부인들이 방앗간에 가 방아 찧을 때 몽땅 빗자루 이거를 이래 앉아가지고 방아실에 있는데, 몽땅 빗자루 이걸 깔고 앉아서골랑 월경 그 해뿌리만 그 토째비 된다.] [조사자: 토깨비 된다. 옛날 그런 얘기지예. 몽당 빗자리나 뭐 그 뭐 부지깽이나 이런 거 깔고앉아가 여자들 인자 그거하몬 그거 묻어가지고.] [청중1: 그래. 그래 그런 말은 마이 있지.] [청중2: 토째비한테 홀키가지고.]

[청중3: 현대, 우리 느끼는 걸 현대에 봤어요.] [조사자: 그래요?] [청중3: 예. 우리 동네에 석정, 경북 석정리 남길동이라는 카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영감 정주 이씬데, 동네 구장이라. 구장인데, 그 사람이 참 선배라(선비라). 근데 애장 카는, 읍내 장에 가가지고 술을 마이 먹고설랑 오다가 진짜 토채비한테 홀킨 기라. 토째비한테 밤새도록 그 갓을 씨고 두루매기 입고 돌아댕기는데 얼매나 돌아댕깄는지. 아침에 자고 나서 본께, 동네 뒤에 그 공동묘지가, 그 왜놈 때 공동묘지가 맨들었는데, 그 공동묘지 큰 바우 있는데, 바우 밑에 거 인자 있다 나왔는 기라. 그런데 봐도 갓도 한쪽에 막 찌그러지고 두루매기도 마 전신에 마마마 옆에 째지고, 그래 물은께로, 밤새도록 이래, 물으이,

"어째서 이래 됐노?"

물은께로,

"밤새두록 어데록 마 까시잽이로 가자 카고, 물로 가자 카고, 그래 인자 끌리댕기다 보이 이래 됐다."

18) "소나무 한 그루에"의 뜻으로 말한 듯함.

이랬는데.] [조사자: 아, 도깨비인테.] [청중3: 토깨비인테 그래 홀키가지고. 우리는 현대에 봤어, 그런 사람.] [조사자: (웃음) 아이고 참 재미나시네.]

[청중4: 헛것이 인자 결국 봐서는 도깨비라 그러지만.] [조사자가 새로 조사장소에 오는 사람이 있어서 잠시 조사의 취지를 말함] [청중3: 옛날엔 그 진실을 알아들었지, 요즘은 거기 별로 안 알아듣는데.] [청중2: 옛날에 그런 일 있었다.] [청중4: 옛날에 또째비들이, 우리 고향은 저 경북, 낙동강 짙엔데, 전부 밤송인데, 온 들이 전부 밤나무 숲인데, 밤 여 아침에 가면, 거 하게 가면 안개가 꽉 끼있는데 가면, 아침에 일나가 가만, 큰 바지개 짊어지고 서끔 간답니다. 가몬, 젙에 가몬 아랫도리도 없고, 그 모양 그 바지개만 짊어지고 끄떡끄떡 간다 카고 가는 기라. (웃으며) 그가 토깨비 거기. 그러이 있다 카대. 옛날에 토깨비가 많애.] [청중3: 그 도깨비 불은 실제로 있었어.] [청중4: 불은 실제로 있어. 우리도 봤고. 아랫도리는 없고 불만 가는 기라, 보만. 밑에 여 아랫도리는 없고, 불만. 초롱, 옛날 초롱불 아있는교? 등불. 그것만 들고 가는 기라. 복(다시) 보몬, 아랫도리는 없고 불만 가는 기라. 그래서 마이.] [조사자: 그렇지. [청중4: 그래서 마이.] [청중2: 옛날 산에 짐승이라 짐승.] [청중5: 짐승이 아니고.] [청중2: 마 이래 몰리 가고, 이래 몰리 가고, 이래 집에서 보몬 산에서 몰리키거든. 그런 거는 짐승이라. 사람이 아이고.] [조사자가 사람마다 서로 달리 본다고 말함] [청중2: 시퍼런 불이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짐승 불이지 뭐. 우리 눈에.]

[부산진구 설화 154]

제삿밥을 못 먹은 귀신

김화자(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할아버지가 오니까 제사를 다 모시고 나서 불을 다 끄고 자서로(자기에), 이층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그 이층에는 불로 써놨어.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내 기일이 돼서 오니까 다 누워잔다. 배가 고프다."

이층에 가가 그라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밥을 좀 디맀대요(드렸대요).

[부산진구 설화 155]

요령 단 소를 보고 상여 나가는 것으로 오인한 사람

김화자(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옛날에 해치 이야기 한 번 해보까. 우리 아버지가 [조사자: 바다에 도깨비를 해치라 그라는데, 어딘가?] 아니요. 우리는 저 가덕도에 있거든요. [청중: 가덕도 바다 아이가.] [조사자: 가덕도 그러니까 가덕도 해치다 그래.] 예예. 해치라 하거든. 그거 밤에 불, 귀신불 나오는 거. 산에서 퍼뜩거리는 거. [조사자: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 촌에 참 이가네 아저씬데, 인자 어디 갔다가 술을 한 잔 잡숫고, 우리 그기는 옛날에 우리 동생들하고 중학교 댕길라 하몬 한 이십 리 고개를 넘어갔거든예. 차도 없었잖아예. 가덕고개라 카는 곡이 있었어예. 그래 가는데, 그 인자 갔다가 그 노인이 오는데, 새이를(상여를) 큰 네발 차로 앞에 요롱을(요령을) 흔들고 꽃생이로(꽃상여로) 가더랍니다. 밤에, 밤에. 막 앞소리 믹이면서 와 요롱을 흔들면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자,

"야들아, 저 가인께네 밤에 꽃생이가 지나가는데 요롱을 흔들고 앞소리를 믹이고 가더라. 밤에."

이랬어예. 그래 인자 날이 세가,

"아버지 어데짬찌(어디쯤에서) 그랬어요?"

"어데 어데 가몬 그 우물 가가 물 내려오는데 있는데 가봐라."

이랬어. 그래가지고 아들들하고 동네 인자 어른신들하고 멫이 가니까, 소 있잖아요 소, 황소. 앞에 요롱을 달고 철렁철렁 네 발로, 네 발 아입니까 발이.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그런께네 인자 생이라고, 생이 발 맞차 간다고, 소를 봐가지고 그 요롱을 흔든께네, 인자 그거 꽃생이라 나갔다 했대요.

그것도 안 맞습니까? 그럴 듯 안 합니까예. 네 발로 예예 요롱을 이래, 앞에 달아놔이 요롱을 흔들고 가잖아요. 그라인께네 인자 어르신은 인자 발로 맞차가지고 인자 요롱을 흔들고 꽃생이로 지내가더라. 그 우물이, 당산 같은데 물이 쫌 내려 왔거든예. 그게 쫌 험한 길인데, 그래 가봐라 카더랍니다. 그래 소가 있더랍니다, 그 부근에. 그 소를 보고 인자 꽃생이로, 꽃생이라 캤어. 옛날에는 와 생이를 했다 아입니까? [조사자: 그렇죠. 상여 나갔지요.] 예. 나가고, 앞소리도 믹이고 막 이랬다 아입니까. 그랬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부산진구 설화 156]

개똥 보리쌀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두복(남,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옛날에는 못 살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청중: 하도 묵을 게 없어가지고.] 개가 보리쌀을, 보리쌀을 훔치 먹고, 그 똥을 눈 거 보리쌀이 그냥 나오는 기라. 그래이 그거를 보고설랑, 그래가 와가지고 씻거가지고 시어머니를 인제 삶아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믹이고 이런 일도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지. [조사자: 개가 보리쌀을 먹고 똥을 놔났는데.] 그래 그게 그대로 살아나왔거든. 보리쌀 그게 안 삭는다 말이야. 통으로 나온께로 그걸 보고서는 끍어가 가와가지고, 씻거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시어마이 믹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조사자: 그 얘기도 안자 듣으싰네. 그지예.] 예.

[부산진구 설화 157]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박두복(남,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에밀레종 그거 뭘로 우째 맨들었는고 아는교. [조사자: 어떤 거요?] 에밀레종. [조사자: 아, 그 이야기 해주이소.]

에밀레종 그기 어예 됐냐면은 중이 인제 참 집집마다 댕기매 목탁을 두드리고 그 동냥하러 댕깄는데, 그 한 집에 가니까, 목탁 이래 치면성,

"시주 좀 하이소." 이래 하인께로, 아를 이래 등에 업고,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이름은 내 모르겠고. [조사자: 봉덕이라.]

"우리 아무개 고마, 그래 고마 바칠까?"

마 이래 말을 해뿠는 기라. 그래가 중이 그 집 아를 갖다가 갤국은(결국은) 받아 가가지고 그 에밀레 종을 맨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을 치면은, 그때가 종을 치면은 '에밀레~', 근디 에밀레~ 소리가 나오는 기라. 그래 됐답니다.

[조사자: 엄마가 원망, 원망스러워서 그러는가 보죠.] 예. 그래 뭐 아무것도 우리는 동냥 드릴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아 뭐 우리 줄까 드릴까 뭐 이케 했는 기라. 그런께 중이 '아이고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 아를 갤국 데려가지고 그 종을 맨들었답니다. 그래서 치면은 그때가서는 '에밀레~' 소리가 나오는 기라. [청중: 쇠 구울 때 아 옇어가지고 종을 만들어뿠다 그런 결론이지.] 지금 저 종 치면, 언직에(언뜻) 들으면 '에밀레~' 소리가 나와요. 그래 나옵니다. 그래 됐다.]

[부산진구 설화 158]

고려장 하려던 시아버지를 다시 데려온 효부

정복조(여, 1946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고래장 할 직에 노부모가 인자 내- 나이는 많고, 근데 먹을 거는 없고 뭐 자꾸,
"야야 뭐가 먹고 싶다. 고기가 잡숫고 싶다."
인자 그런 얘기를 했는 기라. 하니까, 고래장 시킬 날짜를 딱 받아놓고서는 메느리가 자기 허벅를 짤라가, 엉덩이 허벅지를 짤라가지고 그래 그걸 볶아가지고, 인제 뭐뭐 있읍니꺼? 고기도 없고 하니께네, 볶아가지고 무하고, 그래가지고 인자 노부모를 인제 한 때 저녁을 잡수구로 했는 기라.
그 이튿날, 인제 부부 노부부 인제 인제 지게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마누라도 같이 올라갔는 기라. 그래 올라가니 할매가 하는 말이, 시어른이 하는 말이,
"야야, 내가 어저께 니가 고기를 사다 뽂아줘서 너무너무 잘 먹었다. 잘 먹고난께네 내가 기운이 팔팔 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메느리가 아차 싶어가지고 너무 못 믹이가지고 이렇게 늙고 저거 하는 것이, 그라고 또 자기가 칭찬을 또 했는 기라. 그러니까 둘이서 인제 부부끼리 눈을 맞대고 '안 되겠다' 도로 모시고 내려왔대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부산진구 설화 15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정복조(여, 1946년생) 구술
2018년 2월 6일 채록
[부암1동 본동경로당]

내가, 저 저게 할아버지로 갖다가 지고 갔다 카대요. 지고 산을 가몬, 가갖고 그래 인제,
"지게를 와 저저게 놔놓고 오놓고?"
손지가.
"여 놔놓고 가야 된다."
캐이카네,

"아부지도 돌아가시모 저저게 또 지고 와야 하는데, 왜 여 놔놓고 오놓고."

그 이야기로 내가 들었어요. 고 말만. [조사자: 그래가지고 도로 어머이, 할아부지를 싣고 왔는가예? 지게다 다시 지고 왔는가예?] 지게만 가져 왔는 같더만. 놔 놓고 갈라 카는 거를 지게를 놔 놓는다 캐카네, 이기 지게를 놔 놓으면 되냐고, 놔 놨는데 아부지도 도로, 아부지도 그 연시(연세) 되몬 또 지고 와야 되는데, 와 여다 놔놓고 오놓고. 지게 가져 가자 캤다 카더라. [조사자: 그런께네 그 아무지, 그래 나도 난중에 또 저래 고려장 당하겠구나 해가지고 인자.] 그렇지예. [청중: 그래가 없어졌다 하더나?] 그래갖고 고려장이다 그 말이 났지.

[부산진구 설화 16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차주열(남,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암1동 부암새마을경로당]

그러니 인제 고래장 하러 칠십 이상 정도쯤 되면 절대 인자 고래, 그래서 고래희(古來稀)라. '드물 희(稀)'자. [조사자: 칠십에 고래희라.] 희라 캤거든요. 그러니 칠십 이상은 데꼬(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래가는 안 된다, 캐서 지게를 짊어지고 인자 결국은 산에 가서 고래, 불경 해서 굴로 파가지고 옇어야 될 것 아닌교.

그래 알았는 거라 벌써. 그러면서러도, 가면서러도 싶(숲)이 우거졌으니, 나무를 이래 지게 지고 가는 데를 나무로 이래 꺾어 놨는 기라. [조사자: 아, 어무이가? 지게에 타고 있는 어무이가?] 그렇치, 그렇치. 자, 인자 그러다보니 그기 내력이 우옛노? 난중에 내 묻고, 내를 갖다가 거 묻어놓고 집을 몬 찾아가 가까 봐 싶어서 어머니가 나무를 꺾어놨다.

[부산진구 설화 161]

출가외인이라는 말의 유래

차주열(남,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암1동 부암새마을경로당]

처녀 때 친정에서 시아바시가 죽으면, 그 저 저 친정 부친 안 있습니까. 죽으면은 그 요즘

모냥 같으면은 그 뭐냐 관상, 그런까네 저저저저 풍수. 데비다가(데려다가) 묫자리로 딱 해놨거든요? 해놓는데, 내가 시집을 갔단 말이요.

시집을 갔으니까 시아바시, 시아마시가 모녀가[19] 오래 돼가지고, 빨리 얼렁 그 자리를 갖다가 얼렁 앉아가지고 써야 될 욕심이 나오는 거라. 저저 우얗든, 우예끼는 틈만 있으면 거가(가서) 물로 가가 퍼붓고 물로 가가 퍼붓고.

그래가 난중에 인자 친정 부친이 돌아갔단 말이여. 파보이 물이 나오거든요. '아하, 이 자리가 잘 못 됐다.' 캐가지고, 그 자리에 시아. [조사자: 시아버지를.] 그러니까네 시집을 가면은, 딸은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出嫁外人) 카는 말이 거서 나왔는 거라.

[부산진구 설화 162]

제사를 자시(子時)에 지내는 이유

차주열(남,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암1동 부암새마을경로당]

지금 자시(子時),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시(子時), 축시(丑時), 인시(寅時), 묘시(卯時), 이런 게 시간인데, 자시는 열한 시에서부터 한 시까지가 자시거든요. 열한 시가 넘어가면은 저쪽 날이다.

그래 사주(四柱)를 뺀다든가 뭐를 빼면은 자시, 축시, 인시, 자기 출생일을 빼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 겉으면 아버지 어머님 사주 빼가지고, 뭔가는 철학으로 해가지고 풀이하는교.

그래 열한 시만 넘어가면은 저 날로 쳤다 그래. 응, 저 날로. 그러니 열한 시에서 한 시 사이만 제사 지내면 산 날로 기준 해가, 그리 영혼이, 영혼이 있었다. 그 죽었다 카면 영혼부터 먼저 나간다 카거든요. 그렇죠? 그래 영혼이 살아있는 그 시간이 바로 산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열한 시부터 한 시까지 사이는 저 날로 쳤다.

안자 요즘도 그래서 보면은, 사주를 본다든가 뭐로 보면은 자시, 축시, 인시 이거를 빼가지고 글 써.

[부산진구 설화 163]

보리밥으로 한 제삿밥

19) "시부모가"라고 해야 할 말을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임.

차주열(남,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암1동 부암새마을경로당]

몬 사니까네 쌀이 없다 말입니다. 보리밥빽기는 없거든요. 보리밥을 해가, 보리밥은 힘이 없는 거라. 숟가락은 꼽아나 놓고, 어! 절로 할라 카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탁 내려치며] 숟가락이 또 꺼지고 뿌져지고(부러지고) 또 꼽아지이(꽂으니) 꾸부러지고 이래 싸이 난중에 서너 너덧 번째 뭐라 카네,

"아부지요. 내가 어렵어서 이 보리밥뿐이라고 티집거리는교(트집을 잡는가요)?"

이런 말꺼정 그래 나왔다 이래 카거든요. 그런 말을 있어요.

보리밥 그거 우리도 먹어봤지만은, 힘이 없단 말입니다. 쌀은 앉아갖고 딱 꼽아 놓으몬 숟가락이 힘이 있어서 딱 꼽아 있는데, 보리는 힘이 없다 보니, 밥이 힘이 없다 보니, 꼽아 놓고 절 할라 카이 내 뿌러지고, 절 할라 카이 그러니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이까네,

"몬 살아서 보리밥이라고 티집거리는교? 아부지."

이래 나왔다 카는 말까정 우리는 들었는 거라.

[부산진구 설화 16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손춘자(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시어머니가 되게(많이) 아파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은 뭐 어데 배를 타로 가뿠는가, 어데로 가뿟는가 없고. 그래가 참 며느리가 물(먹을) 끼 없어서 그래 지렁이를 그기 해가 삶아가 줬는데, 그래가 인자 아들이 오면 보여줄라꼬 지렁이 한 마리를 얼마 씻어가 자리 밑에다가 옇어놨다 카대. 그래 아들이 와서 보고 그래 그기 지렁이더라꼬. 그리 지렁이가 그기 보약이라꼬.

[부산진구 설화 16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옛날에 그래 마 너무 몬 살아가지고 아들은 어데 가뿌고 없고. 인자 그래 너무 몬 살아가 인자 며느리 시어마이로 해줄게 있나? 고기도 없제, 아무것도 없제 이래가 가만히 생각카이 지랭이가 좋다하더라 싶어가, 그거로 인자 해가지고 맨날 때마정(때마다) 주니까,

"이 뭣이 이렇게 맛있는고?"

싶어가, 인제 며느리가 아니 할매가 만날 샅자리, 옛날에 샅자리 있거든. 그래가 밑에 한 마리쓱 옇어놨더만은, 몇 년 봉산데(봉사인데), 그래 아들이 와가지고,

"아이구 야야, 이 뭣인고 이렇게 맛있어가 내가 이거를 낳둬났다."

카이, 아들이,

"엄마, 그 지렁이네요."

카이, 눈을 퍼뜩 떠뿌더란다.

[부산진구 설화 166]

내 다리 내놔라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옛날에 양정에 저 저게 공동묘지 다 집을 지아놓으니까네, 밤에 자이까네,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칸다꼬, 그래 소문이 나샀대.

[부산진구 설화 167]

당산나무 베고 죽은 사람

김복순(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옛날에 당산은 영검해갖고 마, 우리 클 때는, 우리 동네는 마 당산 나무가 논 가운데 이래 큰 당산나무가 있었어. 그 인자 그 집에 그거 논이 있었거든. 나락에 그 자꾸 그늘진다고 논 주인이 그 마 졑가지 그거를 저그 그늘지는 거를 비뿠어. 그래 그 사람이 마 죽어삤다 아이가. 그 사람이. 우리 어릴 때야 그거는.

[부산진구 설화 168]

영험한 당산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당산 제사를 모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싰거든. 우리집에 마 안 와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왔다 갔다 아이가. 석 달도 안됐는데.[20] 그래가 마 아가 마 하도 설사를 해가 마 안 죽어뿟나. 아 하나 마 안 죽어뿠나. 당산나무가 그마이(그만큼) 영검했었다고 옛날에.

[청중: 우리 친정 곳에는 또 어떤 사람이 인자 최 강인데(최 씨인데). 술을 먹고 당산 앞에서 죽어뿠어. 당산 앞에 그 가 마 죽어뿠는 기라. 그래놓으이까 마 그 동네에 마 청년들이 여덟 명인가 죽어뿠는 기라. 그래가 큰~ 굿을 해가지고 마 천도를 시키이 그러이 괜찮애. 그 옛날에 당산이 그만큼 영검스럽다.]

당산제를 잘 모시야 그 동네에 홍진이 들어오면 아들이 그래 안 죽는단다. 이게 마 잘못해 놓으면 아가 마 홍진이 들어오면 다 쓸어간다 안 하나. 그마이 무섭다.

[부산진구 설화 169]

용심 많은 이월 바람할매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바람할매도 영검하다 아입니까?] [청중: 와아이라.] [조사자: 바람할매 이야기 좀 해주이소.] [청중: 바람할매도 영검했다.]

20) 출산 후 석 달이 안 되어 당산제 제주를 맡은 친정에 와 동티가 났다는 의미.

바람할매도 옛날에는 나락을 늘어, 이래 그 인자 할만네 한다고 나락을 늘어놓으면 새가 까먹으면 새가 고 자리에서 구부러진다 캤거든. 그만큼 영검(영험) 있었는데 인자 마 세월이 인자 바끼니까네.

[조사자: 할머니, 딸 데꼬 오면 바람이 분다꼬.] 아, 그래. 하늘에. 내나 인자 영동할마시네가 딸로 데꼬오면 인자 저 팔락팔락하이 인자 이 다홍치마 인자 예쁘라꼬 바람이 불고, 며느리 데꼬오면 다홍치마 얼룽지라고 비가 오고. 옛날에 할머니가 그만큼 [청중: 댕기 그게 발랑발랑 하고.] 시어마씨가 그만큼 심천궂더란다.[21]

[부산진구 설화 170]

살림살이를 지켰던 업

김복순(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옛날에는 와 뱀이 이리 큰 기 있대. 꺼-먼 것도 있고 누런 것도 있는데.

그럼 인제 살림이 갈라 카면, 업이 나간다 카면, 사람이 그기 보이면 인자 업이 나가믄 살림이 망한다 이라는데. 옛날에 그러니깐 저 이래 담이 있는 데 고 마 나오대. 그런 집에 그런 것도 보고. 그기 업이라 카대. 업이라 카고. 그 뭐 업인둥 뭣인둥 우리가 아나?

[부산진구 설화 171]

죽어 뱀이 된 할머니

김복순(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외갓집에 인자 친척이 우리 엄마 친척인데 밀양이었잖아. 그때는 밀양인데. 항상 절에를 인자 할머니가, 할매가 돼가 절에를 가싰는데, 그날 또 마 눈이 마이(많이) 왔대. 마이 왔는데. 아유!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없어졌어. 기도하러 가싰는데. 그래가 마 아들한테 연락을 해가 마 오가 막~ 찾는데 우에(어떻게) 눈에 우에 밑으로 굴러가, 절이 와 보통 보면 낭떠러기

21) 심술이 많다는 의미.

가 있는데, 밑에가 들아가(들어가) 있더래.

그래 인자 집에 모시와가 초상을 다 칬는데. 아유! 뱀이가, 뱀이가 한 마리 탁~ 있어가 그래가 막~ 인자 그거 그런 거, 초상 그거 하는 사람이 와갖고 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갖고 뱀이가 됐어. 그래 천도를 잘해가 그래 살~ 가뿌더라 안 하나 할머니가. [청중: 옛날에는 그래 천도 하면 간다 카고.]

[부산진구 설화 172]

삼신을 모실 때 절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그것도 와 어데 내나 여주 할맨가? 눈고(누군가)? 모르겠다. 그때 삼칠날은 인자 그 국을 묵고 가가지고, 절에 가가 아무리 찾아도, 그 여럿이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가, 낸중 며칠 찾으니까네 밤을 새워가 딱 죽어 있더란다. 칠국가 덕국가[22] 그런 거 먹고는 절에 안 가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영검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 없어. 이 시대가 바뀌니 그런 거 없다.

[부산진구 설화 17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복순(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그거는 말이 그렇대. 인자 아부지가 인자 내~ 고려장을 했는데, 아부지가 인자 엄마를 지고 산골을 산골을 자꾸 올라가거든. 손주가 따라가다 보니까네,

"아부지, 와 자꾸 이래 올라가는교?"

"응, 느그 할매 고려장 하러 갈라꼬. 그래 그런다."

"와 할매를 고려장하느냐?"

22) 출산 후 삼칠일에 삼신상에 올리는 미역국을 말함.

카이,
"옛날부터 그리 내려오는 그기 있어서 그리 해야 된다."
이래가 인자 갔는데, 그러먼 내삐리고 오이까네,
"지게를 인자 내삐리고 가자."
카거든. 아들이 인자 지게를 내삐리고 갈라 카이 손주가,
"엄마, 아부지 저 돌아가시면 또 그 지게로 지고 가야되는데 그 내삐리면 안 된다."
카거든. [청중 웃음] 그래 그기 없어졌어. 고려장이. 자기가 인자 자기는 하기 싫거든. [청중: 자기는 고려장 하기 싫어가.] 고려장이 없어짔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174]

떡을 주고 호식을 면한 할머니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옛날에 말이 그렇대. 옛날에 말이 인자 떡 장사 할매가 있었는데 그래 인자 내~ 뭐 떡을 팔러 댕깄는데. 그것도 잊어뿌고 인자 모르겠다. 팔러 댕깄는데, 산만디로 인자 넘어가는 기라. 그래 넘어가, 넘어가고 그래 팔고 오니까, 떡 팔러간다고 가이까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묵지."
해가, 떡 하나 떤져주이, 또 인자 한 쪼깨 오니까네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묵지."
이리 자꾸자꾸 주다보니 뭐 떡이 없거든. 그래 집에까지 왔는 기라. 그러면 집에까지 와가지고 뭐 그 하니까네 뭐. 그래가지고 참 우옛다 하더노? 잊어뿌고 모르겠다. [조사자: 호랑이가 아를 또 잡아물라꼬.] 아! 그래 참.
"아를 내놔라."
카이까, 집에까지 와가 인자. 그래 아를 내놔라 카는데 아를 줬다 카던가 안 줬어. 그건 모르겠고. 잊어뿌고(잊어버리고) 모르겠다. 다 잊어뿠다. 옛날이라놓이까. 얘기를 다 잊아뿌고 아나?

[부산진구 설화 175]

손주를 귀여워한 시어머니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옛날에 또 며느리인데(며느리한테) 하도 시어머니가 못되구로. 이 며느리는 너무나 저 시아마시가 마 며느리를 시집을 살리거든. 이 며느리가 가마이 생각카이. '내인데(나한테) 저라는데 손주인데는 얼매나 할매가 그하게 하겠노?' 싶어가, 딱 나가다 봤는 기라. 보이까네,

"밉은 놈 참새, 고분(고운) 놈도 나는 기라."

억수로 마 할매가 어라샀거든 손주를. 그래싸이 가마이 며느리가 보니까 '저래 손주를 좋다카는데 나도 어머이한테 잘해야겠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겠다.' 싶어가 그 며느리 그래 잘하더라요. [청중: 지혜롭다.]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176]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옛날에 말이 글테.

"뭐 아로 줄까? 뭐로 줄까."

그래 인자 에밀레. [조사자: 처음부터.] 처음에 모르겠네 그래. [조사자: 그 집에 시주를 온 거지예?] 시주를 왔는데 시님이(스님이). 그래 인자 마 아가 너무 좋아가 어르면서,

"뭐 시주 줄 것도 없는데 아를 줄끼요? 뭐로 줄끼요?"

캐싸며, 이리 어랐거든. 그래 요래 어르며 갔는데, 시님이 아무리 종을 맨들어도 이놈우 종이 소리가 안 나는 기라. [청중 웃음] 아무리 소리가 안 나가. 아 이 와일노(왜그렇나) 싶어가, 인자 그래 막 무신(무슨) 꿈에 그라더라 카던가, 시님 꿈에 그라던가 카던가,

"그 애로 잡아가 옇어야만 소리가 난다."

이러 캐가, 그래 참 그 애로 잡아가 옇어가 종을 맨드러놓이 아! 소리가 나면서 낸중에(나중에),

"에밀레, 에밀레."

이래 이래 하더란다.

[부산진구 설화 177]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옛날에 그렇대 말이. 이놈우 여자는 너무 없어가지고 마 쌔~가 빠지도록[23] 마 살라꼬 오만 넘의 일도 하고 오만 거 다 하는데, 이놈의 신랑은 천날 책만 들여다보고 있거든. 이 마 여자가 사알 마 속이 블이나. 그래놓고 한 번은 그렇대, 넘의 집에 가 근근이 품들어가 뭐 고생이 좀 나을라는데, 비에 다 떠내려가도 안 그하고 고(그기에서) 책만 보고 있거든.

그래서 마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이까 마, '하, 내가 마 저 신랑하고는 몬 살겠다.' 싶어가 인자 갔다 카대. 가가 딴 데로 가가 오나 마 그래 쟁피만 만날 훑는 기라. 그 집에서 쟁피도 훑고 오만 거 다 훑는데, 또 가도 글렇는(그렇는) 기라. 그 사람 팔자가 내나 그런 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선비가 참 그 어사출도가 뭐꼬? [조사자: 맞아예.] 그 벼실로(벼슬로) 암행어사로 돼가 턱~ 인자 막 말로 타고 오이까네, 그 마누래가 아즉 딴 집에 가 쟁피를 훑고 있거든. 그래가 인자 뭐라 칸다 하더나? 신랑이 뭐라 카면서,

"가나 오나 쟁피만 훑구나."

카미, 그러쿤다 하대. 그런 말이 있대.

[부산진구 설화 178]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뭐로 주까?"

암만 줄래도,

"이거 주까? 저거 주까?"

글캐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자꾸 울거든. 그래 말이 그렇대. 그래,

"뭐, 곶감 주까?"

23) 힘들게라는 의미의 경상도 방언.

그러이 애가 딱 끈치뿌거든. 그래 호랭이가 '아이구, 무섭어라 마.' 호랑이 '곶감이 내카마(나보다) 더 무섭은 갑다.'싶어가, 호랑이가 달라빼뿐다(달아나버린다) 카대. 처음에는 다 모르고, 그 말이 마 맺마디만 알지 몰라. 다 잊아뿠어.

[부산진구 설화 179]

산 지킴이 호랑이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옛날에는 산신이 그렇게 영험이 있었는 기라. 이 그 찌끄미는(지킴이는) 인자 만약에 산에 산신령이 있는데 절대로 여 이 동네 사람은 안 잡아묵고, 타동네 인자 사는 사람이 와야 잡아묵고. 이 찌끄미는 안 잡아 묵는 기라. 안 잡아 묵고, 그래 요새는 뭐 호랭이가 있나?

[부산진구 설화 180]

뱀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

김복순(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밤에 그런데 누~런 마 뱀이가 인자 마 집 찌그미인 기라. 막 나오가 있을 때 그럴 때 때리 죽이면 절대로 안 돼. [조사자: 때리 죽이면 무슨 일이 있는데예?] 때리 죽이면 집에 막 무신(무슨) 일이 일어나. [청중: 크가 그 뱀이는. 큰 뱀이가 나온다 카이까네.] 그 집 찌그미라.

[부산진구 설화 181]

개가 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양복남(여, 1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부암3동 동부부녀경로당]

말이 그렇대 옛날에. 엄마가 하~도 구경이라고 안 했는 기라. 만날 일만 하고 구경이라고 안 하고 죽어놓으니까네. 뭐 어데 가 물으면, 어데 가 물으면, '엄마가 죽어가 개가 됐다.' 카거든. 그래 그 개를 짊어지고 마 온~ 팔도 그거를 댕기면서 구경을 시키더라란다. [조사자: 그래갖고 개 몸을 벗었는가예?] 그래가 뭐 모르지. 말이 그렇대. 구경을 안 하고 죽으면 안 된다. 이긴(이것인) 거라.

[부산진구 설화 18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맹분남(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호랑이가요, 꽂감이(곶감이) 무섭어서러, '와 내가 호랑이가 억수로 무섭운데' 하고, 억수로 그거 했는데, 애기가 아무리 해도 안 달개지고(달래지고),

"꽂감 주께. 꽂감 주께."

한께네 마 떨걱 그치서로 호랑이가,

"아, 내보다 더 무섭은 사람이 있어서, 아 애기가 끈친다."

카고 도망가삤대예. [조사자: 꽂감이 뭔지 모르니까 호랑이는.] 야 야. 그 꽂감이라 캐서러 그래 겁이 나서 도망가삤다 하대.

[부산진구 설화 183]

송아지로 변해 길을 안내한 산신령

맹분남(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 나는 그 양산에 저 내원사 있는데 노전암에 댕기거든요. 노전에. 거 댕기는데, 우리 그 저, 신도 하나가 억수로 절, 절에 대해서는 마 잘 이래 반 스님이라요.

그란데 이리 그 해서, 떡을 해서 인자 시루에다 딱 쪄서 이고 간께, 밤에 갔는데, 그 간께노 인자 어둡을 때 올라갔는데, 올라간께노 인자 입구에 딱 들어간께 송아지 한 마리요 끄떡

끄떡 끄떡하고 앞에 서서 가더래요. [조사자: 송아지가?] 응.

가이 인자 떡을 이고 아들 업고 간께 못 따라 가몬, 또 요래갖고 훌끄러미 돌아보고 있대요, 서서. 서서 돌아보고 있다가 그래 저마이 인자 앵가히 다가가면 또 앞에 끄떡끄떡 간대요. 가몬 또 인자 이리 떨어지면은 또 가마히 서가 있다 카네. [조사자: 송아지가?] 야.

그래갖고 인자 싸안고 가다가 일출문에 딱 가몬 온데 간데도 없다 캐요. [조사자: 그 송아지가 길을 안내 했네.] 그 송아지가 인자 산신령이래. 예.

그래 인자 이 밤에 떡 해서 이고 오는 기 고맙다고, 인자 거서 그래, [청중: 마중하는 택이가?.] 야. 길을 인도하는 거야. 다른 누가 이리 그거 하고 침범하까 싶어갖고 그리 한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아들을 그거 할라 하면은 탁꿈이 희안해 딱딱 맞다는데. 그 자기 사주에, 그 아들 사주에는 의사될 팔자가 아인데 엄마가 너무 너무 공을 마이 들이가지고 서울에서 의사하고 있어요.

[부산진구 설화 184]

몰래 딸을 챙기다 죽어서 개가 된 어머니

맹분남(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평소에 엄마가 인자 늘 집을 지킸대요. 집을 지키고 놀러도 못 가고 집을 지킸는데, 그래 인자 그거 아들 몰래, 딸이 몬 살몬 부모는 딸을 항상 끼잖아요. 인자 그렁께 인자 아들, 메느리 없으몬 딸을 쌀을 쪼끔썩 퍼준대.

퍼주고 그라이, 그래 인자 구경도 생전 몬 가고 그래서러 인자 저 늙어 죽어서 개가 돼라. 이래 카고 개가 돼서 죽어서도 개가 돼갖고 집을 지킨다고 그런 말이 있대예.

[부산진구 설화 185]

개가 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맹분남(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우떤 할매는 또 이런 그것도 있더라고요. 인자 살아 생전에 생전 구경도 못 가고, 그래서러 인자 이래 그 인자 죽어서 개가 됐는데, 아까 그 말에 개가 됐는데, 고 오데 물은께네,

"엄마가 죽어서 개가 됐다."

하더래요. 그래서러 그 아들이 어마이를 지게에다 지고 골골이 엄마를 구경을 시키러 댕기더라요. [조사자: 개네. 결국 개를 데리고?] 응, 개를 짊어지고. 지고 구경을 시키러 댕기더래.

[부산진구 설화 186]

지렁이국을 끓여 아이와 시어머니 먹인 며느리

맹분남(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아가 저게 옛날에는, 지금은 보약 같은 게 쌧고(많고), 약이 쌨는데, 옛날에는 없어갖고 아가 꼬치꼬치 애비만 지렁이를 고아갖고 믹있대요. 그라몬 아가 이리 그거 하더란다.

[청중: 살이 붙는다 하대.] 그래도 그 메느리가 그 지렁이 그걸, 어 시어마이 이리 국 끓이 주는 기 대단한 메느리다 아이요. 얼마나 진짜 대단하노.

[부산진구 설화 187]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맹분남(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메느리가 하도 이래 애비서러(야위어서) 얼굴이 노라이 그러고 인자 그래,

"왜 니가 왜 그러느냐고? 인자 말을 해 봐라. 말을 해 봐라."

"말 해도 되느냐."

그런께,

"그래, 해보라."

하더래요. 그래 하이 거,

"제가 인자 시집 오고 방구를 잘 낐는데, 방구를 몬 끼서 그렇다."

하면서 그라이,
"그래, 방구를 끼봐, 끼라."
캉께,
"그라몬 제가 방구를 끼면은요 너무 세서."
상, 여 상기둥, 시골에 와 지동 앞에 있는 거 그걸 상기둥이라 하거든요.
"상기둥이 날라간다."
하면서 그란께,
"그래도 끼라."
캉께노 진짜 낑께노 상기둥이 막 날라가고 막 [일동 웃음] 그거 하더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 쌌더라. [청중: 그렇께 메느리 저게 "야야, 내가 날라가겄다. 고만 끼라. 고만 끼라." 하고, "야이고 야야, 내가 날라가겄다. 고만 끼라. 고만 끼라."] 그래,
고만 고만, 북북. 고만 고만, 북북 그러더라.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188]

도깨비에 홀려서 고생한 사람

맹분남(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우리 집안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저게 행님이 안의에서 약국을 했다. 한약방. 저게 약국을 했고 동생인데, 저게 거시기 오데 갔다가 늦게 왔는 모양이라요. 늦게 왔는데 술에 취해갖고 와 가지고, 인자 그 이리 함양 살다가 인자, 그 인자 고향이라고 집에 가본다고 갔는가 봐요.
그런데 세상에 도깨비가요 밤새도록 끄고(끌고) 댕기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거- 그래갖고 밤새도록 막 끄고 댕기. 마누래는 함양 시장에서 장사 했어요. 장사 하고 밤새도록 끄고 댕기.
그래갖고 세상에 아침에 날이 다 샐 때 놔나노이 그 밤새도록 끄고 댕긴다 카고, 신도 벗고, 그 겨울에요 신도 벗고 옷도 다 마 찢어지고 그래갖고, 그 얼팽이라고 있다 카더나? 얼팽인가 하튼 마 [조사자: 월평. 월평.] 하튼 그 있는 줄만 아는데, 저게 뭔가 확실히 고 오데서 지체했는고 몰라. 거 아침에 들왔더라. 아침에 그게갖고(그렇게 해서).
그러고 사람이 얼빵하이 그게 했어요. 그래가 죽기 됐고 막 그거 해도 사니 몬 사니 마, 그래갖고 뭐 발이고 뭐 동상 걸리서 엉망이지. 그렇는데 [청중: 그때는 끄이 댕기느라고.] 야. 밤에, 야 밤새도록 술에 취해놔노이 끄고 댕깄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189]

이승에서 못 살았지만 저승에서 잘 사는 사람

맹분남(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또 인자 평소에 억수로 억수로 그 사람들이 잘 살았는데, 잘 살고. 자기 친군데, 이 사람은 너무 너무 몬 살았는 거라요.

너무 몬 살아갖고, 인자 몬 사는 사람이 먼저 죽었대. 죽었는데 저승에 가서는 너무 너무 잘 살더래요. 몬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인자 평소에 길 겉은 것도 많이 실고, 화장실 청소도 마이 하고, 남 안한 거는 그 사람들이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인자 요 내 아가씨들 들으라고 그란대.

그래, 넘 안 하고 그거 추접운(더러운) 거는 자기가 절대로 그거 말없이 그걸 다 하고, 이리 그 했는데, 저승 가서 보이 너무 너무 잘 살더래. 친구는 이승에서는 잘 살았는데, 그래갖고 인자 가이,

"저 친구는 우째서 저렇게 몬 살았는데 요 와서 이리 잘 사느냐?"

고 물은께노,

"이승에선 너무 너무 좋은 일로 많이 해고 그래서러 요 저승에 와서 잘 산다."

하면서로,

"니는 그 부자가 돈 마이 갖고 뭐 하느냐? 가서 니도 남 안 하는 건 다 화장실 청소 겉은 것도 하고, 그 돈 많은 거 남한테 베풀고, 응! 그거 해갖고 십 년만 더 살다 오라."

카면서러 보내주더라요. 그래 깨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니가 그리 가서 안 하면은 도로 잡아온다."

하더라요. 그래 나와서 진짜 그리 했대.

[부산진구 설화 190]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줄 아는 호랑이

정김해(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7일 채록
[부전1동 범양경로당]

그래 할매네가(할머니가) 나물 하러 가이께네, 나물 뜯다 보이까네, 어데 오디 구댕이서러(구덩이에서) 돼지 새끼 같은 기 요래 앵앵 커매 나오더란다. 그래 나온께 고 새카만 기 나오니 얼마나 귀얀고(귀여운가). 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

"아유, 이뻐라. 이뻐라 요 이끼야(새끼야)."

어마이는 고 귀-탄다고(귀여워한다고) 고래 걸 잘 봐줬거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고마 놀래가 사람은, 놀래가지고 마 집에, 놀래가지골랑 고만에 나물바구닌동 뭔동 마 다 잃어삐끼네, 여 앞이 해가야 뛰지. 그래가지고 비끼 놓고 고만에 기양 왔어, 무서워가지고. 오이끼네, 그래 집 오이끼네, 어른들이,

"나물 하러 갔더나? 나물은 우옛노(어떻게 했노)?"

"그 아인나 뭐 어예가 무서워가지고 그래 쫓아왔다."

이카니까, 진두얼 봐가지고, 그래 그래 있다걸랑,

"아이구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거디만은, 아이구 나물은, 어제꺼나 나물은 마이 했는데, 그 집에 가져오몬 잘 먹을 낀데, 그래 들에 가이꺼네, 그래 강아지 새끼가 나오길래 하도 무서아가지골 이뻐가지고,

"아이구 이뻐라. 이뻐라,"

고걸랑, 고래 왔디만은 나중 어떤 거는 고만에 그거를 오이께네 훌 떠등키버렸어(떠들어버렸어). 이뻐 그랬음 될 낀데 같이. 어떤 건 사람이 여럿이 잃은 것마냥 떠등키버렸어. 그래서 떠등키가지골랑, 아이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쫓겨 오거든. 하내이(한 명이) 쫓으이 쫓기오기 다 쫓기왔어.

그래가지고는 집에 오이께네, 아척에(아침에) 자고 일어난께, 우예 집을 그리 잘 아꼬(알까)? 그것들이. 야들 집에도 갖다 놓고, 야들 집에도 하나 갖다 놓고, 야들 집에도 문 앞에 집집마다 다 갖다 놨더라이더. [청중: 나물바구니를?] 그래, 나물바구니를. 그래, 지 애를, 그 사람 나물바구니를 어예 아는고? 그거를 다 집집매덩 그 삽작걸에(대문 길에) 다 갖다 놨더란다 거게. 아척에 자고 일나이께네.

[청중: 그런 기 산신령이지.] 그래 말이야. 아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지 새끼 이뻐가지고는, 이쁘다 그러는 사람은 가만 놔두거든 누구라도.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아 이쁘다 그거는.

[부산진구 설화 19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경자(여,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1동 진남경로당]

아들은 집에 없고, 시어머니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앞 못 보는 장님이라 그라대예.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하도 반찬도 줄 것도 없고, 집에서 살림이 어려우니까 아들이 없은게. 그래인자 아침마다 주는데 참 묵우니까(먹으니까) 맛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고?' 싶어갖고 줄 때마다 그거를 갖다 딱 삽자리('돗자리'의 방언) 밑에 딱 옇었답니다. 옇어갖고 말루어갖고, 말랐는데 아들이 오소로(와서),

"야야 너거 마누라가 이런 거를 주는데, 이거 뭣인고 한 번 알아봐라."

캤더마는, 본께나 마른 지렁이더랍니다. 그기 그 사람한테 좋더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 마 구체적은 아닙니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조사자: 그래 그 어머이는 눈을 떴는교?] 눈을 떴답니다.

[주위 청중에게] 눈 떴다 커제? [청중: 아이, "그거 뭐이고?" 하이까, 아들이 "어머이 그 저 지렁입니더." 항께, 시어매가 눈을 떴다. 옛날에 우리가 예예, 놀래갖고 그래가 눈을 떴다 캐. 그런데 그래서 눈 뜬 것보다도 보신을 해논께 눈이 떠졌지. 내- 그 지렁이를 먹고 보신을 해서.]

[부산진구 설화 19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경자(여,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1동 진남경로당]

아들하고 같이 할머니를 고래장, 아버지가 아들 두고 지게 지고, 할머니 지게 지고 갔는데, 할머니를 그래 버리고 그런게, 아버지 지게를 놔주고 올라 커는데, 버맀는데, 할머니 아버지가 저랬은게, 나가 많으몬 그래 시긴다고(시킨다고) 해놓고는 지게를 나주고 오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럼 아버지도 칠십세 되면은 내가 이 지게로 가지가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버리야 안 되겠습니까?"

지게를 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이거 큰일, 잘 못됐구나' 싶어갖고 지게를 도로 가지갔다고 커는 그런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청중: 아버지를 도로 지게.] 아이고 아버지, 지게를 바로 좌서(주워서) 자기가 인자 칠십 살 되면은 아들이 혹시나 지게 지갖고 자기를 버릴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도, 그 당시 그랬다 카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그기 고래장이 없어졌다 쿠

는 소리도 듣기도 했는데.

[조사자: 그래, 또 도로 지고 왔는가 또?] 모르겠어요. 할무니 지고 갖다 카더나? [청중: 지고 갔다 카대. 갖다 버리고, 지게도 버리고 오니까, 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지게는 와 버리고 가요? 가(가져) 갑시다. 나중 내도 아버지 갖다 져다 버리야지요." 그래 그러께, 아들이 그리 해서, 인자 대대로 그리 되겄다 싶어서 거 거 없어졌다 이래쌌대.]

[부산진구 설화 19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경자(여,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1동 진남경로당]

거 확실히는 몰라도예, 스님이 어느 마을로 돌면서로 인자 동장을(동냥을) 했는데, 집집마다 다니며 했는데, 한 집에 들어가니까 애가 울어쌌는데, 그래,

"요 동장 좀 해주라."

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깐,

"동장은 줄 거 없고, 우리 봉덕이, 이 아이 봉덕이제, 봉덕이나 주면 몰라도 줄 기(것이) 없다."

캤는 기라. 그래 집에 와서 가마 생각한께, 스님이 절에 올라가서 생각한께, 꿈에 누가 나타나가,

"요 봉덕이를 덱고(데리고) 종을 만들면은 소리가 난다."

캐서, 그래 봉덕이를 덕고(데리고) 그 집에서 시주를, 돈을 좀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갖고 저 봉덕이를 절에 데려가갖고, 진짜 꿈에 본 대로, 꿈에 시키는 대로 했더만은 종이 과연 울더랍니다. 울어가 그래 그란께 노래도 안 있는, "봉덕아 울지마라 이 애미를 원망하라." 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예.

[조사자: 아하, 그래가 인자 에미가 그랬다고 에밀렐레.] 예, 그렇답니다. 에미가 그래, 에미 때문에 그리 됐다고 에밀레~ 에밀레~ 한다고.

[부산진구 설화 194]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경자(여, 1940년생), 이복심(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1동 진남경로당]

[이복심] 저거 엄마가 인자 울어싼께 그래 인자, [조사자: 아니 아니 호랑이가 내려온 것부터 이야기 해야지.] 호랑이가 내려왔는지 우짼는지 모르고 저거매는 그렇게 했지예.

"울지 마라. 꽂감 줄게."

항께, 호랑이가 도망갔다 그래 쌌대.

[김경자] 아 울음 끄떡 그치서, '아이고 내보다 겁난 사람 있는 갑다.' 싶어갖고.

[조사자: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온 이야기부터 한 번 해보이소 그라몬. 호랑이가 산에 아 잡아물라고.] 모르겠슴더 확실히. 호랑이가 산에서로 배가 고파갖고 마을로 내려왔는데, 뭣이든 먹이를 묵을라고 한 집에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애가 갑작시리 울어싸서로 '왜 저리 우는고?' 싶어서 자를 잡아무야겠다 싶어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마,

"니 울지 마라. 요 꽂감 주께."

컹께, 아가 울음을 그치더라고. 그랑게 호랑이가 '아차 내보다 겁난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예.

[부산진구 설화 195]

여자 밑을 문 게를 떼어준 중

이복심(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1동 진남경로당]

그래 참, 참을 이고 갔다 쿠더라. 뭐 어데 일하는 데. 일하는 데 참을 이고 가는디 소변이 누르고 싶어싸서, 그래 언덕 밑에 마 이고서 앉아 오줌을 놨다 하대.

노는데 깨가(게가) 나와가지고 마 물어삤어. 근데 아프다 고함을 지른께, 스님이 지내다가 참 안타깝거던. 근께 인자 가가지고, 손을 뗄 수도 없고 마 그래갖고, 입을 대가 뗐다 쿠대.

입을 대가 떼갖고 마 끼가(게가) 스님 입도 물고 마 그래가, 그래 인자 그 중이 하는 말이,

"꼬리내 꼬리내. 여자 중이(성기) 겉이 꼬린 거 거 처음 봤다."

쿠대. [일동 웃음] 그런 소리 우리 아-들(아이들) 때 들었어요.

[부산진구 설화 196]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이복심(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1동 진남경로당]

상세한 거는 내 거 다 잊아삤어.

우리 엄마가 그래 얘기해쌌더만은 다 잊아삤다. [조사자: 그래가 어디 딴 데 또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또 딴 데 살러갔더만은 또 경피 훑고.] 참 그런 데로 가고, 신랑은 과게 봐갖고 말을 타고 오고. 뭐 그런 거.

그런 내 상세한 그거는 모르겄네. 그래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뭐 노래로 그 노래가 지어졌더만은. [조사자: 간데 쪽쪽 갱피로다.] 뭐 간디 쪽쪽 갱피로다 한다고. 그 그러네.

[부산진구 설화 197]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이복심(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1동 진남경로당]

우리 듣기는, 그래 인자 메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차 올 때도 봉덕각시 없이 왔는데, 그래 인자 메느리가 우찌 좀 있응게, 자꾸 얼굴이 노래가지서(노래져서) 하도 노래라서(노래져서),

"아가 아가."

그런게,

"방구를 참아 그렇다."

캐.

"아이구, 방구 그거를 와 몬 끼서 그러냐?"

쿠고, 그래갖고,

"아이구, 방구를 실컷 끼라."

캐갖고,

"그러면 아버님 저저 대문 잡아라."

캐가 대문을 가서 대문을 잡고 있는데, 마 메늘 방구를 끼서 얼마나 멀리 갔던고 사흘만에

돌아왔다 쿠대. [일동 웃음] 시아배가.

[조사자: 방구에 날려서?] 응, 날리갔다가 삼일만에 돌아왔다 쿠대. 시아배가.

순전히 거짓말이지 뭐. 그래 그래 싸. [조사자: 그래 인자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노래는 참말이고 그런 말이 있제.] 참 거짓말이제. 아이구 삼일만에 어디로 방구바람에 날아갔다 왔겄노? 이우지도(이웃에도) 가지도 못할 건데. 아이구 그래그래 쌌더라.

[부산진구 설화 19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지렁이 국을 고아가지고 그것도 인자 죄 받으까 싶어 자기부터 무(먹어) 보고 괜찮거든. 그래노이 시어마시로 인자 준 기라. 주이 그거로 내 묵고 나이 살이 오소로하이 찌는 기라.

“날로 뭐로 주갖고 날로 이렇노.”

싶어서, 고 인자 껍디기 고거로 자리 밑에다 옇어놨다가 그래 인자 아들이 와 놓이께네,

“아이고 어머이, 우째 이렇게 몸이 좋아졌노. 어짷노?”

이래 카이꺼네,

“아이고 야야, 이게 뭔고 봐라. 이거로 내가 먹고 나이 살이 찌고 몸이 건강이 좋아졌다 야.”

하며 자리 밑에 들시(들어) 보는데, 꺼시(지렁이), 꺼시 껍디기가 거 말라가지고 붙어 있는 기라. 지렁이 그기.

그래 묵고 인자 살이 찌가 좋아가지고 그래 뭐 저저 아들이 며느리한테, 마누라한테 참 착하기 잘했다고 효부상 받았다 이런 말이 있대. 그것도 인자 그냥 좄으몬 하지만 자기가 죄 받을라 싶아서 자기가 무 보고, 무 모고 인자 그래가 줬는 기라. 그래가 줬다고 그런 말이 옛날에 있대예.

[부산진구 설화 199]

개똥 보리쌀로 부모 봉양한 효부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조사자: 옛날에는 물(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그런 이야기 안 있는교? 어데 개가 보리쌀을 먹고는 똥을 싸난 걸.] 토해 놘 거. 묵고 토해난 그거로 가지 와서 씻거갖고 그래가 인자 자기 무 보고 또 어른 디리고.

다 거 옛날에는 그래 다 살았어요. [청중: 옛날에는 그랬어요.]

[부산진구 설화 200]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문칠네 복인데, 그거는 참 만날 갱피로 마누라는 가서 훑어갖고 오가, 훑어갖고 집에다가 덕석에다가 늘어놨는 기라. 늘었는데 소내기가 주르륵 오는데 이놈의 남자라 카는 거는 만날 책만 들고, 그기 다 떠내려가뿠는 기라. 비가 와갖고.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살다가는 안 되겠다. 복장이 터져서."

고마 가뿠는 기라. 그래 가뿠는데, 인자 이 사람을 공부로 막- 고래가 과게로(과거를) 했는 기라. 과게를 해갖고 월컥 절컥 마마 그거로 타고, 말로 타고 이래 해가 종 거느리고 이래가 오이꺼네, 내나 지 복이 없어노이께네 또 갱피로 훑는 기라. 그 여자가. 그리고,

"아이구이 갱피 훑는 저 마누래 오나가나 갱피 훑네."

카면서는 그래 해 논께, 그거는 또,

"아이고,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가서 소죽 죽을 낋이줘도 내가 저 가서 살몬 안 좋겠나."

이리 카면서는 그래 가보이꺼네 자기 남편이거든. 그래가 인자 말 꼬리 잡고,

"그 소죽을 낋이줘도 따라갈라."

고, 따라갈라고 이러 카이꺼네, 남자가,

"그러먼, 정 오고 싶으면 마 물로 한 도우(동이) 가 오라."

카는 기라.

"요 부어갖고."

문(못) 한다 카는 소리라.

"다부 담거든 가자. 물 이거 부어보고 다부 담을 수 있거들랑 가자."

그래 담어지나. 몬 오라 카는 기거든. [조사자: 그렇지.] 그래가 저저저 뭐고? 그 사람 복이

없어가 갱피 그것 마 훑고 그래가 살더란다. 복이 없어가. [조자자: 복이 그것밖에 없네.] 없어. [조사자: 복이 없는 사람은 문칠네 복이라 하대.] 그래 문칠네, 문칠네 복이라 그래.

[부산진구 설화 20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그거는 인자 지게 지다가 저거 아부지가 저거 할매로 갖다 내삐리꺼네, 그래,
"아버지 와 그라느냐?"
카이,
"칠십에 고래장이꺼네 그란다."
카이, 그라모 그이 지게다 내삐리고 가이까네, 그래 아들이,
"아버지요, 지게 그거 가 가입시더."
"와?"
카이,
"아버지도 난주 그래 되몬 내가 져다 내삐, 그 지게로 져다 내삐리야 안 되겠는교."
이래 카이께네, '그래,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부, 다부 지고 오더래요.

[부산진구 설화 202]

진주 자린고비 일화(1)[24]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진주 자린고비라고는 들었지요? 진주 자린고비. 그거는 우떻기 하든지 지독해가 몬 살아갖고 인자, 거 해가 뭣이라도 저저 장사가 새로 그래 살림을 이루는 기라. 그래가 인자 메누리

24) <진주 자린고비 일화(1)>부터 <진주 자린고비 일화(3)>까지는 본래 제보자가 연속해서 구술한 것인데, 이야기 각편에 따라 나누어서 채록했다.

로 봐논께네, 저 뭐꼬 생전에 생선을 안 사먹거던.

"생선 사소."

오이께네, 메느리가,

"오라."

캐갖고, 인자 실실 그다(그곳에다) 손을 씻는 기라. 생선 물에. 이래 씨갖고, 그라이 이 시래기로 옇고 사리갖고 인자 국을 낋인다. 오며가이 시아바시 어디 갔다 오이 마 맛있는 내가 나거든. 생전에 안 먹어이.

"이 무신 내고? 맛인 내가 아이고 뭐꼬? 뭐꼬?"

카이께네,

"뭐로 사와가지고 했노?"

고, 막 뭐라 카거던.

"아이고, 그기 아이고 생선장사가 왔건대, 내가 손을 씻거가 시락국에다 그래 옇디만은 그래갖고 그래 그렇다."

카케네,

"에이, 이거 저저 손이 커서 안 되겠다."

해매 쫓가뿌는 기라.

"그거를 장에다 옇었이몬 일 년 내내 물 긴데, 손이 커서 안 된다."

이기라. 솥에, 한 솥에다 이래 한테 다 묵거든. 장 단지 가 씻거 옇었이몬 그걸 일 년 내 물 긴데. [일동 웃음] [조사자: 아, 그 사람이 진주 자린고비네.] 응, 진주 자린고비라.

그래갖고 인자 밖에 후두끼 나가, 그놈의 동네는 그런 사람만 살았는가, 나와가지고 몬 들오고, 떡 이제 문을 닫아놔노이 들올 수가 있나. 이래가 있으이께네, 동네 사람이 인자 지내가주,

"아이고이, 이 사람 새댁이 와 이래 후두끼 놔, 와 이래가 있노."

카이께네,

"아이고, 그라고 저라고."

인자 얘기를 쭉 하거던. 하이께네,

"하이고, 맞네. 후두끼 나와야 마땅하다. 아이 그거로 샘이다 씻거 옇었이몬 온 동네 사람이 다 갈라물(갈라먹을) 거로." [일동 웃음]

이카거든. 한테 그리 옇어서 후두키 나오는 기 마땅하다 하거던. 자기 편 들어주까 이얘기했디만은 막 그러 카더래.

그래가 자린고비가 그래가 자린고비. 그거는 마 장딴지 구더리가 있어도 쪽 빨아먹고 내삐리고, 장에 짝 빨아먹고나이 파리가 간장 우에, 옛날에는 상에 다 간장 놨거던, 간장 종지 파리가 폭 빠졌다 카몬 저 십 리꺼정도 저거 장 뭇다고 가서 빨아묵고, 어디 붙었으몬 빨아묵고 내삐리는 기라. [일동 웃음] 아이구, 생전 그래가 살림을 이랐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203]

진주 자린고비 일화(2)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그래 이랐는데, 부자는 부잔데 생전에 생선장사 댕기도 생선을 안 사묵는 기라. 그래가 어떤 사람이 생선장사 가다,

"이 무슨 그냥 담 넘에 떤지 주보자. 이리 부자면서도 생전에 생선을 안 사무서만."

집어떤지 놔노이께네, 마당 씰다가,

"이기 밥도둑님이 왔네!"

밥도둑놈이라 카매 다부 담 넘에 던져뿌더래요. 안 묵고. 안 묵고. 그래갖고 돈을 모으는 기라. 돈을 모으가 그래 자린고비가 크게 부자가 되었어요. [조사자: 세상에, 밥, 밥 마이 묵는다고 도로 던져뿌건 갑네.] 응, 도로 던지뿌.

그 저저 간고등어에 간조기 한 마리 사가지고 달아놓고 그것만 채리보고(쳐다보고) 밥 한 그릇 먹고, 그거 채리보고 밥 한 숟갈, 이 놈의 고것만 채리봐도 밥이 맛있는 기라. 그래가 난중에 결국은 안 돼가,

"이것도 안 되겠다. 여어 놔뒀다가 밥도둑님이다. 그것도 안 되겠다."

카매 갖다 밖에다 집어던지뿠는 기라. [일동 웃음] [조사자: 하이고, 참 대단한 자린고비다.] 그래 그래가 자린고비라고 인자 벼루가 났는 기라요.

[부산진구 설화 204]

진주 자린고비 일화(3)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그래 저 사돈찌리 짚신을 인자 신으면서 저짝 사돈 저 사돈 인자 만나기로 이리이리 한데, 가다가 보이 저게서 오거던. 신을 벗고 갔다. 짚신을 벗고 이래 가다가 오이께네 이제 신어야 될 것 아이가.

떡- 신고 인제 그 사람 가더록 이래가 있어도 그 사람 그 지내가야 또 벗고 갈기거든(갈 것이거든). 가몬 떨어지거든. 그래가 인자 돈을 모으고 옛날에는 사돈 카몬, 사돈 편지가 오

거든요. 편지가 오이께네, 뭐를 인제 음석을 해가 쪼금 보내고 이런데, 답이 안 오는 기라.

그래갖고 자린고비가 고마 뜯어가지고 묵고, 무이 떨어져가 있고, 그거로 문조우(문종이)니께, 창호지에 거다 갖다 붙이뿠는 기라. 거는 또 거짜도 안 온다고, 그기 안 온다고 부애가 나갖고 그거 인자,

"조오따나(종이나마) 보내라고."

인제 또 막 재촉을 하이, 연락하니께네, 그래 그거로 인자 문에 붙였던 거 띠가지고 밥떡거리 붙은 거를 뜯어묵고 고치 하다가 보냈더라요. 그마큼. 자린고비라 자린고비. 그래가 돈을 그렇기 모았다. 진주 자린고비가 이때까지 내려온다 아이가.

[부산진구 설화 205]

마누라 가까이 가지 않는 바보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그래 어느 사람은 들에서 그거는 해가 오라고, 밥을 해가 이고 가야 되고 이라는데, 바빠갖고 부엌에서 뭐를 찾아가 하이께네, 불로 이래 옇으케네 새앙쥐가(생쥐가) 있다가 옛날에 속옷이 떡 벌어졌거던. 막 갈 데 없어가 발딱발딱 하다가 거 쏙 들어가뿟다. [일동 웃음] 그 쏙 드가뿠다.

[청중: 새앙쥐가 뭔고 압니까?] [조사자: 알죠, 알죠.] 그래가 '이놈을 우째야 될고?' 싶어갖고 인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인지 좀 모지라는 사람은 머슴을 대리놨디(들여 놓았더니), 거 머슴이 인자 불렀든가, 모지랜다고 불러갖고,

"내 여게 그기 드갔으이께네 여 봐라."

그거를 여 봐라고 씨기가 옇어니까, 이놈의 안에서 여 못 나가갖고는 왔다갔다 요래 쌌는데, 그거 뭣이 하나 들오거든. 막 이런 기 하나 들오거든. 들오디만은 그래노이 그거를 깍 물었다. 마 이 사람이 몰래 이거 물어노이, 뭐 쑥 빼이께네 그래 그것도 따라나오거든. [일동 웃음] 물리갖고 따라나오갖고.

그래 인자 저 뭐꼬, 이 바보를 이제 장가로 딜이났다. 딜이나노이께네 여자가 다 가는 기라. 물까봐 겁을 내가지고. 한 번 물리봐놔 논께네. [일동 웃음] 그래갖고 저저 뭐꼬, [청중: 아가씨들은 듣지 마라.] [웃으며] 아가씨들도 다 알 긴데 뭐. 그래 그래갖고 여자가 할 수 없어서 자꾸자꾸 거 한다. 인자 오라고 그걸 하이께네,

"물라고. 또 물라고. 또 물라고."

안 가거든. 꼼짝없이.

“물기는 뭣이 무노.”

카면서는 옛날에는 저저 귀먹퉁이 나무로 이래 핸 거, 구심을 이래 해가 설거지하고 하는 기 있었거던, 옛날에는. 인자 그 인자 정지 문이 있었거든. 그런데 거 인자 씻겄다. 씻고 가가지고,

“뭣인데, 내 씻겄다. 아무것도 없다.”

하이께네, 이래 보디 인자 거 보리, 귀먹 물이 해놔이 보리 밥떡거리(밥풀), 보리밥 해노이 보리 밥떡거리 씻기카이 마 찡기뿠다(끼워버렸다).

“어이구, 인제 이가 났네. 봐라 이거 이 났네, 이 났네.” [일동 웃음]

하면서로 당체 마누래한테 안 가는 기라. 그래가 [조사자: 아하, 밥떡거리 붙어 있는 걸 보고 안자.] 보리 밥떡거리 붙었으이,

“이 겉다.”

그래 이 났다고. 더 문다고 안자 안 가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206]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조사자: 어떤 아줌매가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이 있는 기라. 호랑이가. 이거 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에이고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마 꺼꿀로, 치마를 꺼꿀로 해가, 그런 이야기 있지예?]

맞아. 그래갖고 인자 얼강이 맨수가(맨스, 즉 월경이) 나오거든. 그거를 호랑이가 이래 보디 마는 뭣이 벌거이 마마, 입이, 사람은 입이 여 붙은 줄 알았지, 거 입이 붙어갖고 벌거이 해 있거든.

“와이구, 저거 내카마 더 무서운 기겠다.”

막 새가 빠지 달나더란다. 호랑이가.

[부산진구 설화 207]

딸 덕분에 우사를 면한 친정아버지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저 사돈네 집에 떡 가이께네, 잣죽을 낋이주거든. 잣, 그기 맛있단 말이다. 가만히, '내가 이거 왔는데 잣죽을 낋인다'고 보굴(화가) 나갖고, 사돈은 마 사르륵 잘 묵는데, 자기는 부애가(부화가) 나서 마 묵기 싫은 기라. 안 뭈다.

안 묵고 있으이 배는 고프고, '이놈의 죽이 어데가 있는고?' 싶어갖고, 또 인자 한 번 이래 무 보고 부애가 나서 안 뭈는데, 입을 딱딱 팔기 달달하이 고기 맛있었거든. 잣죽이 맛있지. 꼬시고. '아, 요 맛있겠다. 맛있는 기다.' 입이 달달하이 잠은 안 오고.

'아! 그기 어데 있는공?' 싶어서 인자 살살, 아마 촌에는 거 우에 방아(방에) 실경(선반) 해 놓거든. 방에 실경에다가 죽 논 양 비대(벌려서) 이래갖고 얹이놓는단 말이지. [조사자: 그렇지. 선반에.] 선반에 그래 떡 얹이놨는데, '이놈우 내가 옷은 입고 드가몬 소리가 나서 안 될 기고.' 옷은 벗어갖고 마리(마루) 밑에 옇어 놓고 고냥 [조용히 가는 시늉을 낮은 목소리로 하며] 살-살 갔다. 가가 보이께네 마 무겁는 기라. 무거운 냄비 그것을 한 양피 무겁아갖고 그 놈을 내룰라고 해쌌다가 보이 상투가 못에 걸리뿠어. [조사자: 아! 못에.]

그 못 쳐놘 데, 못에 상투가 걸리가, 이놈을 미룰라 카이커네 머리가 걸리갖고 안 떨어지제, 이놈을 또 놓고 이거 띨라 카이케네 죽 쏟기겠제, 얼매나 용을 써놨던지 마 헐떡 벗었는데 오줌이 주룩주룩 줄줄 나오는 기라. 나온께네 밑에 사돈이 눕어가 있다가, 저 뭐고,

"야야 며늘아, 여 와 봐라. 이 뭣이 저저 죽이 쏟깃는 갑다.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

카이케네, 며느리가 쫓아와서 불로 턱 캐가 보이, 저거 아부지가 할딱 벗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일동 웃음] 막 그래가 있거던. 그래갖고 인자 그해 놓고, 저 부끄럽아가 사돈집에서 바로 가뿠다. 가뿠는데, 거 뭐 얼굴도 몬 들고 그래 갔디, 그래 인자 며느리가, 고 딸이가 여헌이('현명함이'의 뜻으로 말한 듯함) 많애. 그래 가이,

"저 어머이 저, 거하기 듣지 마이소. 사주로 보이, 결혼할라 사주로 보이께네, 내가 여 시집을 가가 큰 우사(愚事)로 한 번 해야 삼정승을 놓는다고. 그래갖고 아부지가 그랬다."

[조사자: 일부러 그랬다고.] 그랬다. 고 그래 그카이 그이 의견이('소견이'의 뜻으로 말함) 많애노이 그래노이까, 그 참 그래서 삼정승을 놓더래요. 키았대. 아들 나았다 키았대, 삼정승을.

[부산진구 설화 208]

술만 마시면 옷을 벗는 사람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한 사람은 또 술만 무몬(먹으면) 옷을 할락 벗는 기라. 술만 무몬. 술 묵고 옷 벗는 사람 있거던. 그래갖고 인자 동생이,

“형님, 가지 마소. 새 곳에 가가지고 옷 벗으만 거 우사, 큰 우사다.”

“내가 가서 거 가서 그라까(그렇게 할까)마. 안 그런다.”

카매, 지 자식이라고 또 살짝 따라 갈라 카네. 갈라 카이 그래가 인제 보내 놨다.

거 마음이 안 놓이는데, 그래 가가지고 가마- 있으께네, 물은 먹고 싶고, 이래가 물 돌라 소리도 못하고, 살- 나가 부엌에 드가갖고 인자 물이라고 휙 그래가 한 분 떠무보이 청주라. 청주라 노이 마 실컷 묵고 마 옷을 벗고 어데가 어덴동 모르고 안방 마 드갔다. 술이 취해노이 모르고.

안방 드가 말키(모두 다) 덥다고 불로 때가 덥다고 말키 웃목(윗목)으로 말키 좀, 구들목 떡비가 있거든. 그래서 인자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인자 마 빈 데라고 가서 눕으가 씩-씩 부랄이 마 녹아가 축 처져가지고 이래서 [일동 웃음]

[청중: 아이고, 아가씨야. 그걸 녹음하지 말고.] 그래가 눕어가 있으이, 인자 세수해라고 인자 상강, 인자 아적으로(아침에) 새복(새벽) 떡국 낋이갖고 보내고, 또 난중에 저 아침상 나가거든, 옛날에는 법이 그런데. 아직에 떡국 낋인다고 부엌에 불을 옇이께네, 무슨 환하이 삐치는데 정지 문이 있으이께네, 불로 떼이 비치거든 방아.

“아이고, 야야.”

옛날에는 그거 어물 빠지몬 짚신을 가 요래 밀어 옇거던. 그 저 빠지면. 미자바리 빠지면.

“아이고, 야야. 니 동시(동서) 빠졌다 카디, 짚신 그거 저 따사가지고 한 분 들라 봐라. 눌리 보자.”

카면서는 그래 인자 따끈하이 따사가지고 주는데 요래갖고 살- 놓다 눌리이께네 막 뜨겁거던. 아이고, 놀래가 마 막 을매, 발딱 벗고 마 저거 집까징 달나는 기라. [일동 웃음] 그래갖고 인자 그래 아이라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가 오거던.

“아이고, 형님! 우짤라고 이래가 오는교.”

이러 카이,

“니는 부랄하고 자지하고 찌지몬 안 오겠나?”

카더든.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209]

자기 성도 잘 모르는 바보

손승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옛날에 저 책에 보몬 그기 나와 있다.

그거로 참 바보가 뭘 몰라갖고, 배로 지가 기리고, 저 뭐꼬 공매로(공처럼) 요래 저저 그거 해야 되이,

"배로 기리가 요래 되는데, 꼭다리로 기리야 될 긴데, 이것만 기리가 있나."

이이께네, 인자 거서러 그거로 비이주이께네,

"아, 공서방이네. 공가이네. 공서방이."

"공가가 아니라 배가올시다."

아, 공가라 하이,

"아, 꼭지를 안 기맀구나."

[부산진구 설화 210]

폐병 걸린 딸에게 구더기 국을 끓여준 어머니

손희기(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양정1동 황령경로당]

우리 저저 젊은 시절에도 이부지(이웃집) 저 참 딸래미가(따님이, 딸이) 폐병이 들리가지고, 폐병이 들리가지고 이래가 들앉아있는데.

암만 뭐 딴 걸 할라, 옛날에 뭐 약이 그래 있습니까? 어데. 없고 이래 해 놓은까네, 전부 조약을 가지고. 그래 개 겉은 거 어데 주워가지고 여름 되만 벌기가(벌레가), 구더리 벌기 그기 마 버글버글 안 합니껴? 그거를 씰어(쓸어) 담아 와가지고, 그래 엄마가 씰어 담아 와가지고 폭- 삶아가지고 참 죄 많을까봐 자기 한 번 떠(떠서) 무보고, 그래 아를 믹있어요.

그건 진짜 이우지 사는 아줌마가 그래 했다. [조사자: 그 구더기를?] 예. [조사자: 아이구야.]

[부산진구 설화 21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양숙(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경로당]

제가 듣기에는예 확실히 깊이를 몰라. 듣기는

그때는 옛날 육십만 돼도 인자 뭐 고래장 시긴다고 아들이, 아들이 인자 뭐 할머니를 지게 언차가지고(얹어서), 그래 가는 산골짜기를 올라가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따라 갔는가봐예. 따라갔어, 그 아들이. 지고 간 아들의 아들이 따라 갔는 모양이라.

그래 인자 참 옛날에는 죽이지는 안 하고 천막 같은 이런 데에 있는데, 한 달 묵을 거만 딱 옇어놓고, 그래 할머니를 그다 인자 모시놨는 기라.

모시놓고 내려오는데, 그 언자 아들이 자기 아들이 지게를 갖고 나오, 지게를 그 놔놓고 할머니만 가다놓고 오는데, 그 아들이 지게를 갖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니 지게를 왜 가오노?"

이래 하니까,

"나도 아버지 늙으면 여 갖고 모실라고 지게 갖고 옵니다."

그라고부터 그기 없어졌답니더. 고래장이, [청중: 전설이 내려오는데.] [조사자: 아, 그래예. 그 유명한 얘기 잘하시네.] 그기 그래가지고 없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아버지가 노인 되면 나도 고래장 여 업고 올라고, 내 지게 다부(도로) 갖고 옵니다."

하이까네, 그라고부터는 없어졌답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대예.

[청중: 그기 맞아.] 그런 이야기가 있대예. 그게 실진가 실환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예. 그래도 요새는 약이 좋고 병원이 좋으니까 그런 거는 없지만은도 그라고부터는 고래장이 없어졌답니다.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라고 없어졌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예.

[부산진구 설화 212]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양숙(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경로당]

아들하고 인자 저 메늘하고, 그 또 인자 저 시어머니하고 서이 사는데, 아들이 인자 뭐 어디 장사를 하는가 봐. 가몬 매일 오는 게 아이고 한 달만에 한 번 오고, 두 달 만에 한 번

오고 이런데,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 고기가 먹고 짚고 뭣이 그땐 무울 거 없다 아입니꺼?

그래 메늘보고 막,

"뭐가 좀 먹고 싶다."

카고, 이 장애인이라 눈을 못 봐. 앞을 못 봐예. 그래 내 먹고싶다 해줄 기 없는 거라예. 그래 그 메느리 지렁이있지예, 그거를 삶아가지고 내- 물이 보-한 그거를 믹있어예. 믹이니까네 마 살이 푸실-해이지고 허-해가 마 금방 몸도 억수로 좋는 기라. 좋아.

그제 그 인자 할머니가 그 지렁이도 껀데기가 들었는가 '이상하다. 이거로 먹고나이 내가 어째서러 이리 몸이 좋아졌는공?' 싶어 아들이 오면 자랑을 시킬라고 그 껀데기로 껀지가, 옛날에 삽자리 아입니꺼? 삽자리 깔아가 놓고, 뭐 아주 옛날에는, 삽자리 밑에 고기를 집어옇어 놨어예.

그래 인자 아들이 왔어. 인자 한 두 달만에 소금장사 뭉 하다 와가지고 저거 엄마가 마 살이 이래 찌가 허-해가 있거등예. 그래가,

"아이고 엄마, 얼굴이 참."

"야야, 내가 요새는 힘이 난다."

"그래, 엄마 뭐 잘 묵어서 그렇노?"

항께,

"몰래 애기가 이런 걸 해줘."

그래모 지렁인 기라. 지렁이를 비더랍니다(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참 자기 마누라가 자기 엄마한테 그 시절만 해도 무울 기 없다 아입니까 그지예. 그래 '이리까지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효녀짓을, 효자를 해, 효부를 했구나.' 싶어가 그래 마누라를 호부상(효부상)을, 그래 그때부터 또 호부상이 생깄고. 그렇답니다.

[부산진구 설화 213]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양숙(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경로당]

저 그거는 할매, 확실히 깊이는 모르고 들었는데, 애기는 자-꾸 인자 엄마가 울어싸서 달개도(달래도) 안 듣고 알기도 안 듣고, 이거 마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기라.

그래 호랭이가 인자 그 뭐 산에서 내려 와가지고 그거 뭐 아를 잡아 묵을라 캤다 하든가 이랬는데, 그래 인자 아 잡아묵을라고 인자 마 이래 하는데, 방에선 아가 울어싸이, 엄마가

뭐 달개도 안 되고 나중에는 마,

"꽂감 주께. 꽂감 주께."

이라이, 마 울음을 뚝 그치더랍니다. 그래 호랑이가 마 놀래가 마, '그 꽂감이 지카면 더 무섭운가' 싶어가 그래 마 도망가뿠더랍니다.

[조사자: 고 앞에 인자 호랑이 온다 해도 울고.] 예예예. [조사자: 어어어 순사 온다 해도 울고.] 울고, 어 예. 꽂감 주께 카이 안 우더랍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내카만 더 무섭운 사람이 있구나' 카고 마 아 잡아먹을라 하다 도망가삐더랍니다.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214]

두 동네가 한 동네 되었네

김양숙(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경로당]

그런데 시아바시가 시, 인자 메느리, 거 인자 시어머이도 돌아가시가 안 계시고, 인자 시아바시를 모시고 있는데, 맨날 인자 밥을 해다 나르고, 마 이래 옛날에는 시어른 카만 마 이래 한다 아입니꺼?

그래가 밥을 딱 해다 나르니까 밥만 착 마 채리주고 화장실로 가는 기라. 화장실 그 메느리. 그래 이바, 시아바시가 가마 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예. 밥만 채리주고는 화장실에 가뿌고, 밥만 채리주몬 화장실에 가뿌이 기분이 쫌 나쁘거든예.

그래 옛날엔 후지가(휴지가) 없었잖아예. 휴지가 없고 짚, 짚 짚있지예, 짚가 마 이 여래, 이 아가씨들한테 [약간 머쓱해 하며] 좀 그렇다. [웃음] [조사자: 그래 옛날 참 신화같은 이야기고.] 그 실화라예. [조사자: 그렇지. 짚으로 갖고 옛날에는 똥.] 실활니더 그거는. [조사자: 돌가리 조도(종이도) 그거로 닦고 그랬거던.] 예 실활니더. 그런데 부모 갖다 내삐리는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확실히 마 전설, 내러오는 이야긴지 그거는 모르겠지, 이거는 실화라예.

그래가 하도 해서 시아바시 가마 생각해이까 화가 나거든예. '왜 내 밥상만 들라주고 저래 화장실로 가는' 기분이 나쁜 기라. 그래 보이까네, 가마 보이까네 그 메느리 화장실에 보고는, 옛날에 후지가 없다 아입니까, 짚가 닦대이(닦더니) 안 되이 마 지동에다(기둥에다) 씩 문대삐고(문질러버리고) 오고, 씩 문대삐고 오고 이라는 기라. 시아바시가 가마 보니까.

'아 요고 내가 질을 드리야되겠다. 요고 요래 안 되겠다.' 고다 탁 못을 쳤어. [조사자: 아, 못을.] 못을. 그 지동에다가 못을 치가 그 메느리는 모르고 화장실에 드가가 인자 볼일을 보고 씩- 딱으까이 쭉- 째지삤는 기라 마.

그래가 시아바시가 메느리 안 나오거던, 화장실에서.
"아가! 아가!"
부르이까,
"예."
이라더랍니다.
"와 이래 빨리 안 나오노? 상을 차리라."
이까네,
"상이고 뭐고."
내가 이 아가씨들 쌍말로 몬 하겠다. [조사자: 괜찮아예. 두 동네가 한 동네 됐네 그긴데.] 그래 인자,
"밥상이고 뭐고 두 동네가 한 동네 됐거만은. 무슨 밥상 차리라 카느냐고."
마 그런 메느리, 그런 이야기도 참,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더. [웃음]

[부산진구 설화 215]

고양이와 개의 보은

김양숙(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경로당]

지금어는 고양이를 별찮게 이기고(여기고) 짐승을 거예라. 옛날에는 짐승을 키우몬 은혜가 뭐 그거 한다고, 노인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고양이하고 개하고 키았어예. 개하고 키았는데. 하 인자 마 알뜰이, 옛날에는 옛날에는 얼매나 다 여뭅니까. 지금도 우리도 이 시절, 옛날 시절에 고생했으몬 고생했다고 봐야 되거든예.

그런께 쫌 여문 기 있거든예. 억수로 여문데 고양이하고 개를 키았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조사자: 어. 외로워서.] 키았는데, 막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고양이한테 하고 개한테 하고 너무 사랑을 주는 기라예. 그 짐승도 알아예.

그래 아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뭐 돈을 우째가 차-이 이래 한 푼 씰까(쓸까) 안 쓰고 모으고 모으고 했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 근데 그 강이 있는데, 강 건너, 도둑놈이 강 건너 살아예. 건너 사는데, 건너에서 넘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삤는 기라. 그거를 돈을 훔치 가삤는 기라. 그래가예 그래 인자 할매, 할배가 그 한탄을 해가 우는 기라.

그래 고양이하고 그 개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차 이래보이 고양이하고, 이거 인자 이야기겠지예 그지예. 고양이하고 둘이서,

"우리 물 건너가가 그거 돈을 가져 오자."

[조사자: 찾아주자.] 찾아주자 이래 했는 기라. 그람 인자 둘이 마음을 맞찼어(맞추었어). 고양이하고 개하고. 그래 헤엄을 치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헤엄을 치고 인자 그 건너 인자 그 뚬치간 그 집에 갔는 기라요. 집에 가가지고 그래 막 고양이가 앵앵 우이까네, 할매는 마 고양이 운다고 이래 마, 없던 고양이 와 왔노 카고 마 이래 뭐 훑고 이래 분위기를 인자 개하고 짰는 기라 고양이하고. 그래가 훔치가 물고 물 건너 할머니 갖다 줬는 기라예. 그거를 뺏아, 그거를 그기 해가 와가.

그래가 그런께 짐승도 잘하면은 사람카마 낫다 카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예. 잘 그거 해놔노면, 요새는 그런 기 없지,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그 건너갔던 훔친 돈을 갖다가 뺏아 갖다가 그걸 할머니 집에 그래 갖다 줬답니다. 그래 그래가 그 개를 고양이하고 더 사랑하는 기라. 사랑해가 늙어 죽어가지고 그래 묻어줬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대예.

[청중: 사람은 앙물을 하고, 옛날 전설에 말이 짐승을 구하면 은혜를 한다고.] 은혜를 한다고 그래 그건 말이 있어예. [청중: 내러오는 말이 있어.]

[부산진구 설화 216]

꼬부랑 이야기

김양숙(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경로당]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짝지를 짚고 이래 마 길로 가는데, 인자 꼬부랑 개가 할머니 자꾸 따라오거든. 따러가이 할매가,

"이놈우 개새끼 와 이래 따라 오노."

카마 꼬부랑 짝대기를 가지고 그 개를 딱 때리삤는 기라. 때리이, 꼬부랑 깽 꼬부랑 깽 하고 도망가더랍니다. [웃음]

[부산진구 설화 217]

호식 당한 어머니와 호식 면한 아이들

김양숙(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경로당]

호랑이가 그거 떡 하나 주몬 안 자아묵지 안 자아묵지, 그 이야기를 얼풋하게 들어서 옳게 기억이 없네예. 떡 하나 주몬 안 잡아먹지.

아. 저거 엄마가 머 아이구, 내가 그거는 모르겠네. [조사자: 엄마가 그래 가다가 떡을 결국 주고 또 묵고 또 따라와가 또 하나 달라하고.] 예예. [조사자: 마 다 잡아먹어. 그래가 이 호랑이가 지 엄마 옷을 입고 아들 있는 데 가서 또 그 아들까지 자아 묵을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왔다." 하이카네, "우리 엄마 목소리 아인데요."] 예예 맞아. 예예.

아이 호랑이 그래가 손을 턱 옇어 주이카네, 손을 여가 울엄마, 그 아 자아무을라고 그 호랑이가, 그 호랑이가 그 아를 자아무울라고, 그래,

"엄마 왔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가치(한 것 같이) 이케 했는데, 호랑이가 이래 손을 옇었어. 그래,

"우리 엄마 손."

근데 엄마 손이 털이 났거던. 호랑이가 손이 털이 나노이까네,

"우리 엄마가 아인데."

카마 문을 안 열어줬답니더. 그래 그 아들 안 죽었지.

[부산진구 설화 21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상해(남,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제2경로당]

어떤 집안에 저거 아부지가 저거 엄마를 인자 지게, 그러이께네,

"아부지 그 지게 버리지 마이소. 다음에 내가 아부지를 지고 가야 됩니더."

대충 그런 식으로 그래 고래장, 어느 임금 때라 카더나 그거는 내가 잘 모르는데, 대충 고정도는 알고 있어요.

[조사자: 예예. 아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지예. 그래가지고 도로 어떤 이야기는 또 도로 어무니를 지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그래서 뭐 그 지게가 없어졌다. 그런 대충 고론 알고 들은 적이 있어요. [조사자: 또 인자 저래 고래장 당하겠구나 싶어가 인자 그래 인자 없어졌다 그 이야기 그지예.] 예예.

어느 임금 땐가 그거는 나는 마 모르는데, 그래서 고래장이 없어졌다. 그 사람이 벼슬로

좀 높으게 했다 하대예. 자기 아부지가. 그 아들이 이자,

"아부지 지게 내뿌리지 마이소. 다음에 내가 아부지 지고 갈 차롑니더."

카는, 그 아부지가 벼슬로 쪼끔 높으게 했다. 그래 놔놓은께네 인자 자기 맘대로 그래 인자 임금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없애자."

이래가 그래 없어졌다. 대충 고 정도만 알고 있어예.

[부산진구 설화 219]

피가 묻어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이상해(남,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제2경로당]

도깨비가 오른쪽으로 땡기마 절대 안 넘어지고, 왼쪽으로 뭐 이래 카더나 뭐뭐. 그래서 저 저 인자 날이 밝어가 아침에 그 자리를 찾아보이 빗자루에 말피가 묻었다 카더나? 뭐뭐 무슨 피가 묻었다. 그라면 이자 그기 뭐뭐뭐 도깨비가 되니 어짜니 요즘 뭐 영양이 부족해서 그랬겠지요. [일동 웃음]

[조사자: 그래 저 여자들 그 저 뭡니까 "빗자루 깔고 앉지 마라." 그라는데, 하혈에 그 피가 묻으몬 그게 뭐 도깨비 된다고 그런 말이 있대요.] 그거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심더. 그러이 인자 여자들 빗자루 깔고 앉으몬 안 된다 카는, 방정맞다 인자 말이.

옛날에는 와 저 부엌에 전부 나무로 불 땐다 아입니꺼? 그라면 여자들이 보면 깔고 앉을 기 마땅 없으이 빗자루로 마이 깔고 앉는 모양이지예. 그래서 내려왔는 긴가 모르지예 뭐. 그 때 안 살아봐서 알 수가 있습니꺼. [웃음]

[부산진구 설화 22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그것도 여러 가지 가지 갑자기 얘기 되몬, 뭐 저저 역사를, 고래장 시키삐니께로, 그 옛날 역사가 도저히 안 없어져서 그래서 살리놓는단 사람도 있고.

그래, 저저 또 할매를 지고, 할매를 저거 아버지가 지게다 실고 가이까너만은, 갖다 뭐 놓고 지게를 내삐리께노,

"아버지, 지게로 와 내삐리고 가냐?"

칸께로, 저 지게는 저거 아부지 주고,

"저 할매를 내삐맀은께로 내삐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는 죽으면, 그러면 난제(나중에) 누가 지고 갈 것고? 내가 갖고 갈란다."

카이까, 그래 저검매로(자기 엄마를) 다부 짊어지고 오더라 카대.

[조사자: 아, 짊어지고 오고. 그때부터 인자 고래장이 없어졌구나.] 하모, 하모. 그래갖고 고래장이 없어짐서로 이얘기가 나가.

[부산진구 설화 221]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호랭이가, 아가 하도 울어싸이카로마는,

"뭘 주꺼나?"

캐도 꼭 울거든. 그러니까,

"호랭이가 온다."

카더마는, 또 그래도 울고.

"그럼 꽂감 주까."

했더만, 떨컥 그치거든. 이래이까 호랭이가 '아이고, 내카마 더 무서운 기 있는 갑다. 아가 끈치는 거 보이께.'

그래가 호랭이가 달아나삐더래.

[부산진구 설화 222]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챙피(강피) 뜯어서 하는 기가, 저 뭐꼬 피 피. 피 그거 풀에서 피라고, 피 씨가 나는 게 고기 나거든.

그니께로만은 집에 덕석 한테(함께) 패서(펴서) 보리를 늘어놓고 들에 가서 쟁피 그놈 뜯는다고 있으이까는 비가 소내기가 주리릭 떨어져 와도 그 보리 덕시기(덕석) 날라, 떠내려가도 와도 신랑 공부한다고 방에 앉아 내다를 안 보거든.

이래께로만은 그마 하도 이 마누래가 '아이고! 이 저 뭐 거둥신랑(기둥신랑) 덱고(데리고) 사다가 이래가 몬 살겠다.' 싶어서 시집을 간다고 간 기 또 그런 델 또 갔어. [웃음] [조사자: 또 갱피 훑는 데 갔네.] 하모. 그런 델 가가지고.

신랑이 과게를(과거를) 해가지고 참 저 베슬(벼슬)도 붙이갖고 말로 타고 오는디, 내나 저거 본각시가 밭에 가서 또 챙피 그걸 뜯고 있거든. 이래인까노 그래,

"저 부치는 저 양반아, 똑띡이 쳐다보소. 내나 가도 그기(그것) 묵어나(먹고 있나)?"

카고, 그래 차려봉께(쳐다보니), 저거 신랭이 그래 과거 해가 내러오더라 안 카나.

그래이께로 '본 거석은 버리지 마라' 카는 기라. 내 제최(애초에) 밥을 내논 게 그기 옳은 뱁(밥)인디. 이기 내 복에 과하다 싶어서 떤지뿌니께로 지는 그런 복이 없어요. [조사자: 지 복이 지가 없어서.] 하모. 고래 하라 카는 복인 기라. 아이고 몬 살겄네 살겄네, 뭐 이 야단해쌌는 이게 제 복에 제인(겨운) 거를 구할 것고. 그런 소리 이야기 하는 게 아이야.

[부산진구 설화 22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저거 저저 아들이 이제 가난하게 살다본께, 일본을 갔단 말이지. 일본을 갔는데, 메느리하고 인제 손지가 하나 났던 갑지. 근데 거 아하고 서이가 있는디가 해줄 건 없고, 그만 뭐 넘우사 같은 거 이런 거 가(가져) 댕기매 이리저리 해줬다가 호매이로 파고 보몬 거싱이(지렁이) 안 나오는가배. 거싱이 그걸 나오는 걸, 띠 묻은 거싱이 그건 안 된다 카대. 이 저 거석 거싱이 그걸 잡아다가 국을 낋이가지고 놔준께, 눈은 어둡은데 그거를 하나썩 건지갖고 자리 밑에다 옇어놓고 옇어놓고. 이리 옇어놓고.

그래 신랭이 일본 가 돈을 벌어갖고 와가지고,
"엄마 덱고 욕 마이 봤다."
고, 저검매가(자기 엄마가),
"아이고, 니가 왔나."
카고 손을 잡으면서 저검매 보하이 얼굴에 살이 찌가 있거든요.
"엄마로 어떻게 거신했길래 이렇기 잘했나?"
"엄마를 어찌 이렇기 잘해주던교?"
칸께,
"오냐, 참 맛있는 국을 만날 낋여 잘해주더라. 그래, 니 오면 비아(보여)줄려고 내가 요리 옇어났다."
캄서 자리를 들시 내놓는디 거싱이더란다. 그것도 잡아서 자기 딴에는 물(먹을) 건 없으니께로만은 그런 거를 잡아갖고 주기는 주대, 맨밥을 저저 그석한께노 그런 걸 잡아 국을 낋이줘도 자기는 그기 좋으라고 준 기 아인디, [웃음] 할매는 그기 좋아. [조사자: 보약이 됐네.] 보약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래 인자 신랭이 욕 봤다고 마누래를 그래 칭찬을 하고, 여 사람도 참 욕 봤다 카고. 정성 들이(들여서) 파싼게,
"뭘 했냐?"
카몬,
"마 물 건 없은께 이런 기라도 갖고 나만(나이 많은) 사람 국 낋이줄라고 그런다."
파인께라마는 고 얼마나 넘 배기도 효자거마는도. [조사자: 그렇지.] 그러이까 메느리가 그래 칭찬을 받더라 카는 것이. 신랑한테도 대우 받고.

[부산진구 설화 224]

선녀와 나무꾼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선녀가 목욕을, 서이서(셋이서) 내려왔다 카지. 서이서 내려와가지고 참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디, 나무꾼이 살-살 그 연못에 처녀들 목욕하는 옷을 뚱치갖고(훔쳐서) 옷을 한 번 숨캐 났거든.
숨캐논께(숨겨놓으니까), 아이구 이 처녀들 목욕하다 본께로, 산에 사람이 보이더께만은, 얼

른 나와 아 둘은 찾아갖고 입고 고마 올라가삐는디, 처녀 하나는 몬 찾았어. 몬 찾아가지고, 그래가 그 옷을 아 서이 놓도록꺼정, 그래 그 산신령이 그래 갈촤죴겠지(가르쳐주었겠지).

"아 서이 놓도록까징 이 옷을 내놓지 마고 갤차(가르쳐)주지 마라. 그래 져전(해선) 안 된다."

카이께로, 그래가 저 참말로 참 가이께로 어마이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는 데가 참 그래 가난하게 살거든.

그래 인자 딸이 안 내려온까로 옥황상에서 대번에 내라줄 거로 안 내려주냔 말이다. 그래 인자 지도 여기서 삼을 삶고 길쌈해갖고 베를 짜고 이래갖고, 참 그석을 하고 그래 공양을 하고 시어매잔테(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이러 하고 있는데, 그래 아로 둘이나 오늘은 낳았는기라.

낳았는데, '인자 둘 낳았인께 셋쯤이사, 그래 둘 요기사 뭐 어째 안 하겠나.' 싶어갖고, 그래 뭐 어띻기 한 기 이야기를 해뿠는 기라.

그것도 이얘기 줄이 안 맞는다. 딱 맞으면 참 좋는디.

그래 인자 하고 보이까는, 마 아이 고마 이 좋아가지고 살살 꼬았는 기라.

"갈차주몬 입고 갈라고."

하이,

"아 둘로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갈 기냐?"

고, 마 그런께 막,

"내놔라. 함 보자."

준께네, 고마 옷 그걸 딱 입고 아 둘을 딱 옆구리 찌고(끼고) 고마 올라가삐더라. 하늘로 올라가삐린게, 그래 인자 올라간께로, 하도 하도 애원해놓이 막 뚜디리고, 기도로 해도록 울어싸이 있더만은, 그래 인자 또 신랑이 올라오라고 줄로 내라 보냄, 내려 보내가 중간에 가다간 뭐 떨어졌비고 떨어졌비리고 몬 올라오라 카는 기라.

그러니께로, [조사자: 그래, 그 셋 낳을 때까지 안 해야 되는데.] 그래 그 셋 낳을 때까지는 아니면, 하나는 버리고 몬 가는 기라. 둘은 찌고 갈 수가 있지마는. 그런께 아 셋 놓도록 해주몬 이얘기해지 마라고, 산신령이 그만큼 이얘기를 해줬는디. 얘기해서 나무꾼이 그만 그걸 모르고 왔다가 두나 놓고 나서 이얘기를 했어. 그래 옷을 입고 그래 한 사람은 남은 기 그만 데리고 올라가삤어.

[조사자: 아! 애들 다 뺏겨버리고 참.] 아꺼정 다 뺏겨버리고. 그린께로 어마이하고 그리 사다 마는 기지 뭐 우짤 기라. 올라갈라 해도 몬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참고 살아야 되는 기라. 이걸 참고.

[부산진구 설화 225]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와 참빗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그래 몽당 빗자루는 왜 깔고 앉지 마라, 부석에(부엌에) 앉지 마라 이래 카만, 여자들이 인자 좀 그런 수가 있거든.

그게 만약에 그 빗자루에, 옛날에는 뭐 옷이나 옳기 입고 적이 있나 이런데, [조사자: 꼬장주 입고 그랬대.] 하몬 꼬장주 입고 그랬지. 그래 좀 있는 사람이야 잘 입지. 하지만 있어도 별 수 없던 거라. 젤 잘허리 잔 임자도 꼬장주 입고는 잘못 지거든. 지금은 사리마다가 최고라 마.

그래 빗자루에 묻으면은 그기 가서 도째비가 되는 기라. 도째비가 되몬, 지 해미진(후미진. 구석지고 으슥한) 데 가몬, 빗자루 몽댕이 그런 거 해미진 데 잘 떤지거든. 떤지노몬, 그기가 마 비가 오고 어스륵 할라 카몬, 그기 나서서 재달을 하고.

챔빗구신(참빗귀신)이 더 무서운 기고. [조사자: 챔빗귀신은 무슨, 어떤 귀신입니까?] 도째비 같은 무서운 기고. 챔빗 도째비는 그런 거 집어 떤지놓으몬 똑 고거는 고마 마 똑 무슨 거석매로 달라붙어가 걸음 못 젼디는데, 난중에 보몬, 그라이 참 장사는 그걸 거석해가지고 노나불로(노끈으로) 해가지고 소나무에다 탁탁 허리다 쪼매놓고(묶어놓고), 뒷날 뭣이 그렇나 하고 가본께로 챔빗이 그렇고.

또 빗자루 몽댕이가 그라고. 그런데 빗자루 몽댕이 여자들 본래 몬 깔고 앉으라 카고, 챔빗도 본룬에(본래) 챔빗꺼정 그중 도깨비가 더 무섭다 카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226]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에밀레가, 저 아를 몬 놓다보이 그재 쌌다가 아들 하나 낳았는 기라. 나논께로 중이 동냥을 오라들라큰, 그 에밀레종 맨들라고 동냥을 얻으러 왔는 기라.

그럴라 크는데, 그만 암말도(아무 말도) 말고, 아이야 좋은 일 하는데 좋은 데 쓰라 카고 좀 떠주면 될 긴디, 그래놓고 마무리하든지 말았을 긴데.

"뭐 주꼬, 동냥 뭣 주꼬?. 우리 뭣이리 주까?"

이러 카이, 망개가석 그 떠부우 주는 거 떠가가지고 그 쌀가(쌀로) 가지고 종을 맨들어 종이 안 되는 기라.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헛기(헛일이) 돼고, 헛기 돼고 이런께마는, 그래,

"이 동냥하러 갔을 제 뭐 무슨 들은 말이 있은께, 말로 한 번 해봐라."

이래 칸께, 아무도 없고, 그런고로 그 아는 죽는 아거든. 그런께이마는 안 갤차(가르쳐) 주거든.

"모른다."

카고, 모른다고 이란께, 이 천날만날 해봐야 안 되는디,

"이런 걸 갤차야 에밀레종을 맨든다."

이래 카이, 그래 인자 할 수 없어 끝판에 가서는 그래,

"이리이리 간께, 동냥하러 간께, 뭐 주고, 뭐 주고. 동냥은 못주나도 우리 뭣이리 주까 카더라고."

[조사자: 우리 봉덕이를 주까.] 하모. 마 그래논께로, 그 동냥 조도 그기 들어간께로 아 덱고(데리고) 오라 하지 동냥 그 안 받을라 카는 기라. 그 에밀레가 안 받을라 카는 기라. 그래 할 수 없어서 와가지고 그 종을 그 아를 데비다가(데려다가) 갤국(결국) 직이뿌갖고(죽여서) 그 종을 옇어갖고 맨든께로, 그 배에 에밀레종이라.

[조사자: 목소리, 저거 애미 찾는다고 에밀렐레.] 에밀레, 에밀레. 애미가 잘몬했다고 내가 이리 됐다 하는 그기라. 그래 에밀레, 에밀레 하는 게 그래 그 나왔다 카대. [청중: 칠 때마다 에밀레 칸다 카대.]

[부산진구 설화 227]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그래 저저 하도 노래서,

"야야, 니가 와, 와 얼굴이 그리 노리노? 무슨 밥이 부족이 되더나?"

칸께는,

"그게 아이고, 아범, 내가 방구로 몬 끼서 그렇다."

칸께로,

"야야, 그러면 가서 뀌라. 사람이 뱅(병)이 나도록 그래 몬 뀌갖고도 되나. 가서 뀌라."

이래 칸께로,

"그럼 아버님, 뒷 지동(기둥) 잡으이소." [일동 웃음]

뒷 지둥 잡으이소 칸데, 아이고 뒷중 잡으러 앞에 나가가지고 방구를 뀐께네 마 고만 집이 뒤로 넘어갈라 하대. [청중: 무시라.]

"야야, 고마 뀌라."

한께,

"아버님, 좀 더 나와야 되겠는데요." [일동 웃음]

그래 뒤로 집이 이래 되더마는.

"그러면 앞 지둥 잡으이소."

하더란다. 거 뒤에 가서 뀐께로 집 지둥이 바로 서더라 카대.

"그래, 야야. 방구도 함부로 몬 뀌겄다. 함부래 다음에는 뀌거들랑 뒷동산 몬댕이(꼭대기) 가가지고 뀌야, 솔나무는 뿌리가 있는더만은 안 넘어가지 안 하겄나."

그러더라 카이.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228]

일해야 먹고 산다는 것을 깨달은 게으름뱅이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사람이 백수 장머리래. 이래 놀고 입에 감 떨어지면 입에 들어오라고 기다리고 앉았지 말고, 제가 삿갓을 꼭대기 끊어갖고 입에다 떠억 물고 우째 바작대기(지겟작대기)로 갖고 감을 뚜지뿌니께로 감이 삿갓 안에 떨어져가 지 입으로 들어가든가.

"아하, 요것이 놀지 말고 일을 해야 묵고 사는 기라 카는 기 갑다."

싶어가, 그래 일로 부지런히 허더라 안 하나. [조사자: 아하, 삿갓을 요래 거꾸로 세아가지고.] 하모, 삿갓을. 삿갓을 모르제. 지금 양산 따매로(때문에). [청중: 아저씨도 알지.] 양산. 그 삿갓 알제?

그래, 그 꼭대기를 내버리고 입에 물고 저저 바작데기를 갖고 그 감을 쑤시께, 그 감이 그 삿갓 안에 들어가 입에 들어가니, '아, 이게 이게 일로 하고 묵어라 하는 기구나. 이 내가 누워가 이래갖고는 안 되는구나.' 싶어 그래 일로 부지런히 하더란다.

[부산진구 설화 229]

호식 당한 떡장수 어머니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그래, 저 떡장사가 떡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오고, 팔고 오고 하는데, 호랭이가 자꾸 따라오면서 고개 넘는디,

"떡 하나 주몬 안 잡아묵지."

하니, 또 하나 주니까, 또 살랑께로 또 하나 주고, 또 가 또 주고 가몬,

"또 하나 주몬 안 잡아먹지."

한께네, 저 저 다 뺏기고 결국 지 죽고 그라더란다.

거거 호랭이가 들어서 자아묵고, 결국에는 그 아들도 다 놔두고 가가지고, 저거 엄마 기다리께는 저검매는(자기 엄마는) 안 오고. 그래 난제(나중에) 나무꾼이 간께로, 안티고개 있더라 안 카나. 그래가 없지.

그래 호랭이는 죽어도 창자 그것만 내 묵지 딴 거는 손 안 댄다 카네 또. [조사자: 어디, 어디 창자만.] 창자만 쪽 빠서 빨아묵지. 뭐, 딴 데는 손 안 대고 그냥 놔둔다 카네.

[부산진구 설화 230]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호랭이 새끼가 낳아놓으몬, 갓 낳아놓으면 똑 강아지 새끼매로 [청중: 예쁘다.] 참 예삐다네. 예삐서 하이고 그럼 좋다고 막 예쁘다고 그따 싼게, 지 새끼 좋아한다고 호랭이가 차리보고(쳐다보고) 있다가, '허흐헝' 우는께노, 마 막 놀라가지고 마 소쿠리마 넘의 소쿠리 다 주우 내삐리고 고마 집에 쫓아온께로, 호랭이가 집집에 소쿠리로 마 틀리도 안 하고 소쿠리 칼하고 갖다 딱딱 집 앞에 놔주더라 안 하나.

그라고 뭐 그 엉겁결에 보듬은 놈은 보듬고 온 넘이 있고, 내삐린 놈은 내삐린 대로 있고. 그래 딱 소쿠리 갖다 놔서, 그 저저 소쿠리 옆에다가 살째기(살짝) 갖다 놓고. 안 베릿은께 재인 니 몸을 실 패있거 아인가배.[25]

25) 정확한 어휘와 말뜻을 알기 어렵다.

패모 인자 저 소쿠리 잩에다가 갖다가 놓고, 소쿠리도 놔두고, 겁이 나는데 어짜겄고. 집에 들앉아가 방에 들앉아가 내 문구멍 뚫어놓고 차리본께로(쳐다보니까) 지 새끼만 덱고 가더라 안 하나.

[조사자: 호랭이도 지 새끼 좋아하는 줄은 알고.] 지 새끼 좋아하몬, 지 자석 좋아하몬 어는 부모가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노 말이다.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그런 교훈이 있는 기다. 그지요.] 맞아. 좋은 이야기지. [청중: 지 새끼도 죽이는 사람 천진데 뭐.]

[부산진구 설화 231]

개똥 보리쌀로 부모 봉양한 며느리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하도 못 살아서 못 살아서 거석해논께, 어른들 밥해 줄 돈은 없제, 뭐를 어떻게 할지 몰라 갖고, 안 본 긴께, 이제 마마 참 개가 묵었는가 사람이 묵었는가 보리쌀을 묵고 생이지를(삼키지를) 몬해갖고(못해서) 그냥 내놓고 있은께로, 그거를 갖다 씻쳐부리고 씻고 씻고 또 씻고 씻고 해가지고 한 번 삶아 내삐리고, 그거를 퍼자갖고 그거를 줌서롱, 하늘로 쳐다보고 지 한 번 맛을 보고 어른을 갖다가 줌서러 속은 아프는 기라. '저런 걸 저래 줬는데, 모르고 자시는 디 내 큰 죄 받겄다.' 한디, 그거 그거 복을 받더라 안 하나.

[조사자: 아, 하늘에서 오히려 복을 줬네.] 응, 복을 주더라 안 하나. 그래가 어른 공경을 잘해라 이러는 기거든.

[부산진구 설화 232]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남해 잔채이(잔챙이. 즉, 송사리) 장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핸디, 발 끝이 요래가 홱 틀어졌어. 그래서,

"할매, 발 그래갖고 우째 댕기노?"

이러칸께노 마,

"그래도 내가 참 잘 댕긴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기라.

이야기를 하는디, 자기가 딱 그때부터 젊어서 하난, 그때가 한 사오십 됐다 카는 기라. 그래 몬 살고 이래 거석을 함선 허다가 고만 뱅(병)이 나가지고 고만 죽어졌는, 죽었는디.

아 그래 염을, 옛날엔 참 염 한다 아이가. 그래논께 입 해다가 허우져가지고 깨어났는디 끌러논께로 뿌아져가고 이러거만, 뼈가 그만 그래 허우져가 안 펴진다 카는 기라.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서도 발라서 거 하면 되지마는 거 안 되는 기라.

[조사자: 염 할 때 되게 묶아서, 묶아가지고.] 옛날에는 매 묶을수록 좋다 하이까. 그리그리 매 묶았는 기라. 그래갖고 죽고 뒷날, 오늘 죽었는디 인자 우째 살자 칸께, 그만 그날치는 몬 가도 진단은 나간다 아가. 아구, 그 평상 뒤에서 고마 소리가 나는 기라. 똑 거석한 소리가 나는데. 놀래서 일나보이께로, 염을 해가지고 덮어논 디가, 누가 안 왔다 하더라? 저거 동생이 안 왔다 카더나? 그래 와가지고 그래 은장(나비장) 문은 안 걸었는 갑대. 은장 문에서 마 우두치는 소리가 나는 기라. 은장 문을 걸어놓으면 아무리 살고져도 몬 산다 아이가. [조사자: 아, 우에 덮개.] 덮개 그게 은장이거든.

그래갖고 인자 고만 은장을 똑 두들키는 소리가 나서 평풍을 걷어본께, 참 안에서 얼매나 몸부림 쳤든지 그게 삐딱하게 돼 있거든. 그래 그걸 내 보인께로, 깨나더란께. 그래,

"니가 여기 우짠 일이냐고?"

인자 막 울고 불고 야단을 거석을 해갖고 막 어서 꺼낸다고 막 야단을 치고 헌께로마는, 그래,

"내가 빨리 나와라, 시간 바빠 배 뜨버린다. 쌔기(속히) 이 배로 쌔기 가구로 저 강아지 따라 쌔기 따라 나가라. 배 시방 뜰 때가 됐다. 여 뭐하러 왔냐? 너 올 적에 아직 멀었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쫓아나온다고 나온께로마는 그래 인자 배는 탔는디, 그기 잼기삤거든. 그러카이 쪼깨만 있으몬 싣고 갈 판이라 파묻으러. 싣고 갈 판인디, 그래갖고 깨났다 카는 기라. [조사자: 그래, 저승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안자 빨리 배 타고 빨리 나가라.] 하모.

"배 타갖고 저 강아지 따라 쌔키 나가라."

하더래. [조사자: 아, 강아지를 따라.] 강아지 따라. 강아지가 뱃머리 나가이께로 쌔키 강아지 따라 쌔키 나가라 하더라 카는 기라. 그래 고 추간에 쪼금 있으몬 마 떨군다고 가라가라 카는 기라. 고래 고 추간에 쪼금 있으몬 마 떨군다고 고마 가라 카라 하는 기라. 보이, 운반해서 갈라 카는디 하몬 고마 쪼금만 더디 나왔으몬 뭐 싣고 가버리지 뭐. [웃음]

[부산진구 설화 233]

제삿밥을 먹지 못한 혼령

진봉숭(여, 1924년생) 구술
2018년 2월 3일 채록
[연지동 영선희경로당]

형부가 죽었는디, 지사를(제사를) 지냈는디, 꿈에 너거 집에.

그거는 얼마 안됐어. 돼봐야 한 십년 됐을까. 아이구 우리 시동생이 죽은 지 올해 구년 채 난다.

그래서 아가 아파서 어디 물으인께로,

"와 제사를 지냄서로 시간을 땡기 지냈노."

지금은 거석하고 요새 사람들은 기제로, 그 전엔 정방으로 지냈거든. [조사자: 그리 인자 열두 시 넘어가 지내야 되는데.] 하모, 딱 열두 시 넘어가 한 시가 걸칠랑 말칠랑 이래 되몬 제사를 지냈는데, 열두 시 몬 돼서 지사를 지내버렸어.

이래논께로 죽을 묵고 모두 가고 제사로 두루 놓은 기라고 그래 일찍 묵고 가삤는 기라. 그래 지사로,

"저저 집에 가이께로마는 문 딱 닫아놓고 불도 안 캐놔서, 내가 와서 내가 배가 고파 밉어서 내 아로 하나 자는 걸 때리고 와삤다."

그러더란다. 그래 그 아가 그래 아프더라 카고 그런께, 거참 그거는 우리 시동세한테 들었다. 저거 저저 생이(형의) 신랭이 그랬은께. 그래 여 옆에 초읍에 산다. 그 지금. [청중: 형부다 형부.] 그래 형부가?

그래가지고 지사를 새로 지냈어. 그석으로 그러고 난 뒤로는 지사를 정직하게 지사로 인자 제 시간을 맞차 지내주는 기라. 구신(귀신) 올 때 시간을 맞차 지내주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234]

노루고기 대신 지렁이 잡아 국 끓여준 며느리

이상해(남,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5일 채록
[양정2동 양정2동제2경로당]

내가 들은 기억은,

"야야 내가 노루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인자 노루를 천지에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자 가서 지렁이를 캐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걸 끓이주니까,

"아따 노루고기가 이렇기 맛있나." [웃음]
그 소리를 나도 한 번 들어본 기억이 있어예.

[부산진구 설화 235]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진주댁[26](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호랭이가 이래 내려온께네, 배가 고파서 여 떡 사람들 들어간께, 아가 자꾸 울어싼께네 이 아를 갖다가,
"순사 온다."
캐도 아가 울고, 아무리 해도 달개도(달래도), 뭐 온다 캐도 울고, 뭐 온다 캐도 울고. 그래 갖고 나중 순사 온다 캐도 안 되고,
"호랭이 온다."
캐도 안 되고. 호랭이가 밖에서 가마이 들어본께네, 호랭이 온다 캐도, 호랭이는 제일 지가 겁이 난 줄 알았는데, 호랭이 온다 캐도 울제 이런데,
"꽂감 온다."
쿤께네, 아가 마 딱 근치삐더란다(그쳐버리더란다). 이놈의 호랭이가 '어디 나는 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더만은 꽂감이 제일 무섭운가봐' 싶어가지고, 그리 있은께네, 도둑님이, 도둑놈이 오는데, 인자 오래 돼서 그것도 아롱아롱 하다.
도둑놈이 그 집에 떡 온께네 마, '아이고 꽂감 왔는가?' 싶어가지고 고마 꽂감 왔는고 싶어 저 뭐 소마구로(소 마구간. 즉, 외양간으로) 가서 숨었다 카더나? 그래갖고 뭐 소를 뭐 우쨌다 쌌던데, 아이고 오래 돼서 모르겄다.

[부산진구 설화 23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진주댁(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26) 고향이 진주라고 말하고, 성함을 밝히지 않았다. 진주를 택호로 삼아 이름을 대신했다.

[전포1동 근화경로당]

옛날에 인자 아들이, 할매가 눈이 앞을 못 본께네, 어마이를 인자 메느리하고 놔뚜고, 저 돈 버리러 외국에 갔는가베예.

외국에 돈 버리러 가놔 놓은께네, 돈을 인자 붙이가 조놔(주어) 놓은께네, 돈을 씨고 메느리가 거시를(지렁이를) 잡아다가 장 고아 믹있는 기라. 시어매로.

이 거시가 어떻기 맛이 있든지 이 할매가, '우리 아들 오몬 비이자' 싶어가지고 한 바리 잡아가 자리 밑에다 떨궈. 자기는 눈이 어둡아 안 빈께(보이니까), 무신 고긴지 모르고 딱 옇어 놨다가 그런께, 거시를 자꾸 마이 먹고 이래논께 얼굴이 허-여이 늙은이 좋거든?

그래 좋아갖고 있은께 인자 아들이 인자 돈 버리가(벌어서) 왔다. 집에 와논께네,

"아이구! 야야. 이 메느리가 참 뭐로 맛있는 걸 해줘서 내가 이래 갖고 그래 잘 있다. 맛있는 거로 이 고기를 갖다가."

자리 밑에 들고,

"이 고기를 해가 만날, 이 뭣이고? 이거로 갖다 내를 그리 해 미더라(먹이더라)."

캐놔논께,

"아이고! 엄마. 거시다!."

헌께, '으이?' 캄서 눈을 번덕 떠삐리가지고. [청중: 눈 봉사 떨어졌다.] 할매가 봉사가 눈이 번덕 떨어가 눈이 보더란다(보이더란다).

거시 그거를 묵고 좋는 모냥이라. 좋은께네, 그래 [청중: 전에 아들도 안 믹이쌌나.] 껌쩍 놀래갖고 눈을 펀덕 떠삐더라 카대. 그래가 떴다고 이래쌌대 또.

[부산진구 설화 237]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진주댁(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선비가 공부만 내- 이래 하고 있은께네, 참 시집을 가가 있은께 아무것도 없고 돈을 안 버는께 돈이 어디 있노. 그래가 참 없기 살아갖고, 남자는 만날 공부만 하고 있고.

그래논께 인자 여자가 인자 저 댐서러(다니면서) 밭 넘의 밭 밥품도 들고, 전에 피 피 훑는다 아이가, 갱피라 캤나 그거를 훑어가 죽도 끼리묵고, 그거 삶아가 널어갖고 죽도 끼리묵고, 이래가 그 했는데.

그래 인자 늙은이가, 한 분은 늙은이가 그거로 갱피 그거 뜯어갖고 삶아갖고 늘어놔 놓고, 인자 죽 끼리 물라 늘어놔 놓고, 또 갱피를 훑어가 온께네, 소내기가 와삤는 기라. 소내가 온께 그기 마 떠내려 가삤네. 떠내려 가삐도 공부만 하고 있는 기라.

그면 여자가 우찌 살겠고? 애가 터져서 몬 사는 기라. 그래도 마 여자가 마 도망을 갔다 카든가, 이혼을 해삤어.

그래 했는데, 이 남자는 공부만 하다하다 해갖고 급제하러 가갖고 급제가 됐는 기라. 돼갖고 저-게 내려온께네 그 여자가 내나 갱피 훑고 있더란다.

그런께 그 영감이 내려옴서는 뭐 무신? [조사자: 진주라 너는 들에 뭐뭐뭐.] 너린(너른) 들에 갱피 훑는 저 늙은아. 뭐, [조사자: 훑던 쟁피.] 뭐 우째가 노래를 그리 부리고, 그랬다 커대.

그란께네 그 늙은이가 소로,

"소죽을 끼리 줘도 되고 뭐를 말죽을 끼리 줘도 된께네 같이 따라 갈라."

고 글 쿠고 그렇더라 하디만은, 그 뒤 또 모르겄다 마. [웃으며] 그 뒤는. [조사자: 그런케네 그 신랑이, "니하고, 니 내하고 같이 살라 카면은 물, 물을 한 도오(동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물을 땅에 턱 부었더마는. 이 물 다시 다 무면 니하고 다시 같이 산다 했어. 엎질러진 물 안자.] 엎질러진 물 건지도 몬 한다 이기제. 아몬(아무렴) 그래 그래 쌓는 소리도 듣고 막 그래 쌌다.

[부산진구 설화 238]

도깨비 불과 도깨비에 홀려 죽은 사람

진주댁(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조사자: 옛날에는 그 토째비들이 좀 있었는 모양이지요? 영감들이 뭐 씨름을 하고 어짜고 그래 하던데.]

우리 애릴 짜도(쯤에도) 여게 저 진주 남강 저쩌 덤 밑이, 거니다 보면 강 건너에 덤 밑이 있고, 덤이 있고 이래. 촌에는 덤이 산이 있고 막 이렇거든예. 이짜이(이쪽에) 있이몬 지녁으로 불이 출출출출출출 이래 가몬 사람들이,

"저짜(저곳에) 저게 토깨비 불이다. 토깨비 불이다."

이래 쌌대. 있었는 그 날이 구무리하이 껌껌하이 비 올라 클(할) 짜는(쯤에는, 때는), 그 덤 밑에 사람도 안 가는데 저 토째비 불이 나가지고 시뻐리(새빨갛게) 이리 막, 귀가 우리 보기

에, 귀가 이래 막 쭈밋쭈밋쭈밋 이래 가고, 출출출출출출 널찌고 이래 가몬, 저 건네 저저 저저저 사람 안 가는데 덤 밑에 저,

"토째비 불이다. 저기."

이래 쌌대. 비가 올라 쿠고 꾸무리하이 이렇고. 일일 장 저녁으로 토째비 불이 난다 이래 쌌더만.

[이후 몽당 빗자루가 도깨비가 된다는 이야기, 도깨비를 이기려면 내려다보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도깨비가 술 취한 사람을 홀려 가시밭으로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주고 받는 대화로 이어졌다. 이후 제보자가 다시 이어서 말함.]

요새는 전부 길이 좋고 전부 불도 훤하고 이래 쌓지만은, 우리 쪼깨난(작은) 애릴 적만 해도 둑 넘에, 재 넘에, 이이 거석 재 넘에 어데이고 막 그랬거던. 그래 놔논께네, 참 모랭이(모퉁이) 돌아가몬 촌사람들 시장에 갔다 오몬 마 등불로 들고 이래갖고 막 마중나가고 이랬거든. 쪼깨날 쩌(적). 그런 데도 오몬 토깨비도 나고 귀신도 나고 불도 나고 막 무섭아서 그래 혼도 빼이고 이래 싸.

누도(누군가도) 그래 쌌대. 우 그집 늙은이가 시장 갔다 오다 혼이 빼이갖고, 그것도 그래 갖고 누우가 있다 쌌다 그질로 죽었다 이래 쌌고. [청중: 혼 빼이몬 못 산다.]

요즘 사람은 또 그 뭐꼬, 그리 토째비들이 밤새도록 끄고 댕기다 끄고 댕기다 사람들 끄고 댕기다, 어이 돌무더기 그런 데 꽉 찡가(끼워) 놓고 날 새고 사람 찾아보몬 거가(그곳에) 콕 찡기 있다 안 카더나.

옛날에는, 요새는 이리 복 받고 고마 시끄럽고 이란께네 고마 그런 기 없어짔삤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 귀신도 나고 토째비도 나고 그래 그랬는 갑다. 그래 그랬는가 봐. [청중: 애장터 그런 데 마이 나오고.] [조사자: 애장터. 애, 어린애 무덤터.] [청중: 무섭아예. 들에 가다가 논에 물 대러가다 집에 뛰 드갔다 카이 겁이 나갖고. 불이 추럭거리 싸이.] 산이 있고 이런 데, 산 밑에 거 보몬 캄캄하이 비 올라 그거 하몬, 어둡고 사람도 거 가도 안 하는 데거든. 우리 이리 저 건니다(건너다) 보몬, 불이 그기 보이. 철철철철철 흘리가고 쭈밋쭈밋 쭈밋 이래갖고 마 그래 쌌고, 이래 쌌는데, 그기 토째비 불이라 이래 쌌대. 우리 나는 토째비 바로 보지는 안 했어.

[부산진구 설화 239]

저승 갔다 온 사람

진주댁(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거 해갖고 초상 났는데, 나중에 널이 뚜끄더마 살았는데 물은께네, 저승을 가는데, 저승을 간다 갔는데, 뭐뭐,

"올 때가 안 됐다."

칸다 카더나? 뭐 우쨌다고,

"나가라."

캄서 재릅(겨릅)[27]을(겨릅을) 하나 주더라 카대예. [조사자: 뭘요?] 재릅, 재릅. 옛날에는 삼 삶으먼 삼 빼끼면 저릎이, 재릅이 한 줌서는, 요고를 딱 강에 건디(건너) 놔놓고, 고거를 건니가라 칸다 커대.

"요리 건니가라."

칸다 캐. 건니 오라 카몬, 건니가라 카몬 건니가야 될 거 아이가. 근데 건니오다가 고마 그기 똑 뿌질러짔빈다 카대. 그람 바짝 살아나삔다 하대. 깜짝 놀래가 사는가 봐.

그 이야기지 그쟈. 우리는 안 봤어예.

[조사자: 저릅대를 강에 걸어놨네.] 야. [청중: 저릅 거기 힘이 있나?] 저릅 그거 가몬 뿌질러지지 안 뿌러질 것가.]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똑 뿌러진께네 깜짝 놀래갖고 이승으로 와삤어.

[부산진구 설화 240]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진주댁(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메느리 봐놔 놓고 난께, 메느리 얼굴이 노-래해고 집이 있어. 시아바이가 하도 답답해서,

"야야, 니 얼굴이 와, 와 그렇노?"

이러 쿤께네, 그래,

"방구를 몬 끼서, 방구를 몬 끼서 참은께네 그래 그렇다."

카거던.

"그라먼 방구 끼라. 방구 끼라."

메느리 얼굴이 노래가 있으니 기가 찬다 아이가. 방구 끼라 항께,

"아버님 저저 한 지동 좀 잡으소." [웃음]

그래 잡고 있은께노 마 빵구로 낑께네, 거 집이 마 쒸 넘어 떠덕하이 넘어가더라 쌌대. [일

27) 겨릅대. 껍질을 벗긴 삼대.

동 웃음] 누 봤을까? 진짜가 그기. 이야긴 전부 거짓말이다. 아이고 그래 쌌대.

[부산진구 설화 241]

내 방귀 고시지요?

진주댁(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그 저저 그석 방구를 그래가 신랑 따라 온다고 방구를 퉁! 끼놔논께네, 암말도 안 하거든. 암말도 안 하니께네, 저저 그석,

"내 방구 꼬시지요? 꼬신내 나지요?"

이러 쿤께, 그러 쿤께네, 뒤에 오다 뭐라 쿤다 쿠더노? [조사자: 니 빵구 뭐뭐.] 뭐 뭐라 쿤다 쿠더만은, 자꾸 무슨 소리가 마이 있기는 있어도 다 모리겄고,

"볶안 방구가?"

쿤다 쿠더나? 뭐뭐 뭐 우짠다 칸다고 말이 있대. 그 소리도, 그 소리도 들어서 있어. 그런 소리도. 늙어놘께 듣기는 많이 들었구만은 옳기 다 모르고 아득아득 그렇다.

[부산진구 설화 242]

개똥 보리쌀로 시어머니 봉양한 효부

천분생(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옛날에 하도 몬 살아갖고, 신랑을 어데 갔나 모르겠고, 메느리하고 시어머이하고 같이 사는데, 때 낄일 게 없어갖고, 아침에 뭐 넘어(남의) 모 숨구러 갈라 카이께네, 개가 보쌀(보리쌀) 묵어 똥을 노놘 거, 그거를 인자 내 밍가가 밥을 해가이고 시어머이 드리고 모 숨구러 갔는 기라.

논에 가니 모를 숨구는데 천둥번개가 막- 치는 기라. 하늘에 벼락 때릴라고. 그래가 지가 그게 내가, 두룸에 앉아갖고,

"죄를 때려 돌라고. 제가 아침에 보쌀로 개 똥 눈 거 씻어갖고 시어머이 밥을 해드리고 그

죄밲에 없다.”

하이께네, 복을 때려준다 카대. 복을, 복을. 복 뭐를 뭐 때려 놘께, 그거를 마 뚜드리싸 돈 나고 뚜드리싸 쌀 나고 이래 쌌더라.

그거 뭐뭐 뭣이라 카더노? [조사자: 복 방맹이를 줬는갑다.] 무슨 방맹이 줬는데 마, 뚜드리몬 다 나오는 기라. 입을 하몬 다 나온다 카대. [청중: 돈 나오이라 칸데 돈 나오고 쌀 나오리 카몬.] 맞다. 쌀 나오이라 카몬 쌀 나오고. [청중: 도깨비 방맹이다, 그기.] 인자 부모한테 너무 효도했다고. [조사자: 효부인데 하늘이 알고.] 하늘이 알고 인자. 뭣인 널짰, 복을 때맀는가 봐. 복을 줬는가 무슨 방맹이라 카든가, 복 방맹이라 카든가 뭐뭐, 때리몬 뭐 나온다 카더라. 나오라고.

그 이야기 인자 애릴 때 들어놔노이 모르겠다. [웃음] [박수]

[부산진구 설화 243]

무엇이든 갖다 주는 도깨비

천분생(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근화경로당]

이야기가 전에 저저 뭐고, 토짜비라 하는 상이는 토짜비 이기 뭐로 갖다 줘쌌든지, 아 온갖 걸 다 갖다 주더라 캐 고마. 그런 거 없이 토짜비가 자꾸 갖다 줘싸서. 토짜비 저거로 난주 파다파다 갖다 줄 게 없어 인제 영장을(죽은 시신을) 가 들오더라 캐. 아이고 그런께네, ‘저거로 우째 토짜비 저거로 우째야 내가 빼꼬(빠져나올까)?’ 싶어서 생각다(생각하다) 생각다, 그래 토짜비가 왔는데, 한 분은,

“인자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한께,

“아이고 소원 뭣이 다 들어주꺼마고. 말하라.”

커더란다. 말하라 캐서, 저저 촌에 여 마당 타작하는 타장마당 있다 아이가 이래,

“타장마당 그기 나는 없는데 그런 마당 널찐 마당을 하나 떼다 주면 나는 그기 좋겄다고. 그기 원이다.”

이래 쿤께는, 그래 토째비들이 그라지 뭐 쌈서는 말뚝을 쳐갖고 마당 뗀다고 고마 마 그 뗀다고 쳐쌌다 그기 안 되거든? 안 된께,

“아이고 그 쑨 독한 놈 그 모진 놈 거 인제 안 가끼다(갈 것이다).”

함서는 그거 뭐, 그 순 독한 놈이 그거를 우리가 몬 하는 거 해 오라 캤다고. 그라고 뗐따

고 또 말이 있대.

[조사자: 도깨비 보고 땅 띠 달라 하이께 땅 띠다가.] 예. 땅은 몬 떼가 오더라 캐. 나중 갖다 주다가 갖다 주다가 갖다 줄 게 없응께 영장도 다 끄고 들오더라 카대.

그런데 딴 거 갖다 줄 땐 좋아하는데, 영장 끄고 들올 장에는 기가 찬다 아이가. 그래 토째비를 떼야 될 것 아이가. 그래갖고 저 땅을 띠오라 쿤께네, 마 땅을 고마 꺼내갖고, 아이구, 그 순 지독한 놈이라고, 고마 그래가 뗐다 캐.

[부산진구 설화 24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류영자(여, 1943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자기 아부지가 자기 어머니를 지고 산골에 저 갖다 버리고, 인자 거서 자기 인자 아부지 그 아들이 쪼깨는 기 따라 갔다 말입니더. 그란께 버리고, 버리고 오니까,

"아부지, 그 지게를 왜 내주고(놓아두고) 오느냐?"

쿤께네, 그래,

"그 지게를 저 다음에 나도 아버지 갖다 저다 버리고로 가지고 오라."

쿠거든요. 그란께네, 자기 아부지가 생각을 해본께, '말이 옳것다.' 싶어서, 거 자기 어머니 갖다 버린 데에 다시 데리러 간게 저거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고 춥어갖고 벌벌 떨고 있다 카는 거까지는, 우리 효사관학교에서 들었어예.

[청중(이옥순, 여, 1944년생):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지고 오셨다고.] [조사자: 그래 다시 어머니 지고.] [청중: 예.] [조사자: 그때부터 안자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없어졌다 이야기네.] [청중: 아들이 보고 배우까 싶어 인제 그때부터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부산진구 설화 245]

공부만 하는 선비

서당내(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동백부인경로당]

옛날에 인자 공부만 매 하고 있는데, 마당에다 부테를 널어나도 비와도 걷을지를 모르는 거라. 그라고 내 물로 다 떠내려가고, 그런께 공부만 하고 있고 그란께, 인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예.

[조사자: 그래 어데 딴 데 못 살겠다고 어데 갔는가?] 그거까지는 몰라예.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예.

[부산진구 설화 24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최양락(남,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본동경로당]

고래장이 인자 없어진 동기가, 아 인자 그 고래장을 인자, 예를 들어서 인자 자기 아버지를 지고 가가지고 인자 고래장을 시기고, 그 지게를 버리고 오기가 됐거던. 버리고 오니까 고 애기가 하나 따라 갔는 기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업고 가는데, 따라 가가지고 고 없어진 동기가 그래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고 야서(野書), 야서 책에 보몬 고 구절이 있어요. 고건 내가 고거 읽어봤어.

그 옛날에 뭐 야서 보게 될 거 같으면, 뭐 뭐 매미가 뭐뭐뭐 저저저 개미 뭐 이런 거 야서 책에 보몬 그런 거 숱하게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다 읽어보고도 했는데.

[조사자: 그 지게를 도로.] 지게를 인자 버리고 오니까, 원래 고래장 해뻐리고 그 지게를 버리고 오는 게 원칙이지, 가지 오는 게 원칙이 아이다 커거든. 하이튼 간에 고 애기가 따라 가가지고,

“아버지 왜 지게를 안 가지고 왔냐? 지게로 가지고 갑시다.”

“아- 지게는 버리고 가는 거다.”

“아이고, 이 지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지게를 가지고 가야 내가 또 낸중에 아버지를 져다 버릴 거 아입니까.”

이렇게 말했는 기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 이것이 아이구나. 이기 내인테 도진한(도전한) 게다.’ 그래 그래 인자 번식이 돼가지고 고래장이 없어졌다고 야서 책에 보몬 고기 있습니다. 그래가 고래장이 없어졌다 그랍니다.

[부산진구 설화 247]

묘를 잘 써서 후손이 잘된 여강 이씨 집안

최양락(남,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본동경로당]

경주 강동면 달밭 커는 데에 가면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지금도 그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어떤 자리냐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어- 인자 그 손씨 집안하고, 경주 손씨, 손씨 집안하고 양동 여강 이씨 집안하고, 그 두 집안이 시누올케 간이라고.

시누올케 간인데 경주 강동면 그 가면 달밭이라 카는데, 우리 나도 우리 선산이 연해 그 인자 그 가면은 달밭이 있고, 말골이 있고, 아리비산이거든. 산인데, 우리는 인자 그 말골 너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밑에는 달밭 너렁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인자 손희재[28] 선생 묘도 거기 있고 이회재(李晦齋)[29] 선생 묘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손희재 선생 인자 그 하고 어 인자 회재 선생 하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거 인자 그 외삼촌이고 생질이고 그렇다고. 외삼촌이고 생질이고, 인자 그래 그렇는데. 그래 인자 그 안으로서 그 양가 안으로서로 보자면은, 시누올케 간에, 시누올케 간에서.

인자 손희재 선생이 죽으면은 묘로 씰라고 당태를 잡았다고. 당태로. 그거는 실지 풍수가 한 게 아입니다. 승지(承旨)가 했다고. 아주 명관이 했다고. 명관이 해가지고 어 거거다 하기 될 거는 삼정승 육판사가 난 자린게라. 삼정승 육판사가 날 자리가 돼가지고, 그거는 실지 있습니다.

실지 그 경주 일이거든. 경주 강동면 그 달밭 일인데. 그래가지고 어 인자 그 태를 잡고 인자 하관을 시킬라고 당태를 만들아가지고, 인자 구단 일을 해놓고, 구단 일을 해놓고 어 인자 이래가 당일 날 다 몬 하니까 전일 날 일을 마이 했어.

했는데, 그 밤에, 밤에 인자 여강 이씨 집에서, 그라면 시누이지. 시누가 어 그 태가 좋으이까네, 자기가 좋아야 되는 거라. [청중: 그렇지.] 자기가 좋아야 돼가지고 밤에 명지(명주) 세 필을 핐다(폈다) 캅니다. 명지를 세 필을, 명지 사십 자, 어 인자 양자를 가지고 사십 자가 한 필입니다. 한 필인데 명지를 세 필을 까니까, 거 그 어늘까지 깔아지는 기라. 그 당태에서러. 명지 세 필을 피고 발자죽 표 안 나도록 할라고. 발자죽 표 안 나도록 할라고, 명지를 깔고 명지를 피, 명지를 세 필을 펴놓고 그 안에 물을 여다 부었는 기라.

그래 물을 여다 부어가지고, 어 가가 익일 날이 가이까네, 물이 나가 있거던. 구단 일을 해놨는데 물이 꽉 차가 있단 말야. 그러이까네 그래 인자 황토 진토가 되다가 보이까네 물이 안 빠지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물 속에다가 안장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시체를. 안

28) 경주 손씨의 중시조로 고려 말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지낸 손경원(孫敬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29)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말함.

장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고 옆에, 옆에 너릉에다가 태를 잡아가 묘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인자 아 이 인자 그 시누가 그래 인자 친가에 가가지고,

"무원식(無援式)[30]이 되걸랑 이 태를 날로 도가. 날로 도가."

그래,

"물 났는데, 이 사람아."

"물 나기나 말기나 간에 날로 주몬, 쪼매 의지로 하길래 날로 도가."

이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낭중에(나중에) 에- 인자 거 회재, 이회재가 그라면 인자 생질이지. 생질이 하옥을 했습니다. 하옥이 됐거든. 원래 인자 국정 일을 보다가 역에 몰려가지고 인자 패앙(평양), 패앙 하옥이 됐다고. 패앙에 가가 하옥이 됐는데 하옥을 해서러 옥사를 했습니다.

옥사를 했는데, 에- 그래 인자 경주 양동 이씨는 친자가 없었다고. 없었고. 하옥이 돼가 있을 때에, 그기 인자 그 이름이 보자 뭐니라? 그 하나 여자를 하나, 알고 지낸 여자가 있었다고. 그 국사를 볼 때. 알고 지낸 여자 몸에서러 애기가 하나 났는 기라. 아들이 하나 났어. 그래 자기 아버지가 역적에 몰려가지고 패앙(평양) 하옥이 돼가 갈 때 거 따라 갔는 기라. 이 아들이. 따라가가지고 패앙에서러 그거 보면은 많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하옥이 돼가 있을 적에, 그거 내가 이얘기 할라 카몬 이야기가 많애요. 그 구절을 내가 전부 읽어봤거든. 내 사실이 읽어봤는데, 온캉 객지 살림 살면 이사를 마이 댕기다가 보니 그기 없어졌부렸다고. 워낙 이사를 마이 댕기다. 요런 학교에다가 그걸 전부 다 놔둬라 안 되거든. 그기 다 없어져뿌렸어요.

그래가 인자 그 하옥이 됐는데, 그래 인자 양동 인자 역에서로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가 인자 죽어버렸는 기라. 어머니가 죽어버려논가네 그 인자 옥중에 있는 사람이 그 인자 부고, 인자 부고 카는 것이 인자 글을 받았거든. 부음(訃音)을 받았지만은 가지는 못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자기가 글을 써가 보냈는 기라. 글을 써가 보냈는데, 그 글 귀절에 보게 되면, '성화유가 길은언해' 에- 인자 환을 뼈를 깎아도 다 못 한다는 그거를 하고, 그래 인자 "백수를 바랐는데, 팔십 청춘 당연이다." 마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단어가 읽어 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 댕기는 바람에 어에 없어졌는데, 한 구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자 그 글, 지 셀지 알고 지낸 사람이 그 몸에 난 사람이 반구(返柩)[31] 대가 왔다고. 반구 대가 왔는데, 그래 인자 양동 이씨에서는 문점당[32]팝니다. 문점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양동지'에 보면은 오파가 있거던. 옥산(玉山), 문점당, 설천정(雪川亭) 뭐뭐 커면서 이래가 인자 오파가 있는데, 그 문점당파지. 문점당파가 거 10대째, 10대째 상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귀절이.

왜 10대째 상주다 그라노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거 저저저 뭐야? 어- 그 인자 기생첩에,

30)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31)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이나 제집으로 보냄.
32) 무첨당파(無忝堂派)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참 아는 여자 몸에 낳는 그 아들이 펴양(평양)에서는 하옥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갖다 여 고향까지 반구를 해가 온단 말이야. 반구를 해 오는데 여게 인자 자기 대소한 사람들은 인자 양재(양자), 양재할라고. [조사자: 양자.] 어 양자 할라고 시티제 고 까지 가가 상주 했다고. 했는데, 그 시넘을 누가 닦았나 그라먼 퇴계(退溪)선생이 닦았습니다. 일(一) 퇴계(退溪), 이(二) 회재(晦齋)라 그럽니다. 고 야서에 보면은 일 퇴계 이 회재, 이 회재라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래 인자 퇴계 선생이 없어졌을 거 같으면, 회재가 없다 그랍니다. 무 회재. 그 무 퇴계는 무 회재라 그럽니다. 퇴계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회재 죽음이 있다. 그래 퇴계 선생의 신을 닦아줬어요. 닦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 반구를 해가지고 인자 그 강동면 달밭 고 자리에다가 갖다 묘를 썼다고. 묘를 썼는데, 그 참 베슬 자리가 마이 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 거는 인자 그 손씨 커면은 가당찮은 집인데, 거서러부터는 벼슬자리가 못 났다고. 그 이후로. 큰 벼슬이. 마 쪼고만 거 만거 뭐 [조사자: 아, 옮겨 쓰는 바람에.] 에. 그 쪼꼬만 거 뭐 도의원 하고 뭐 요론 건 다 했는데, 요새 말하자면 요론 거는 했는데 국회의원 못 했는 기라. 국회의원 못 하고 장관도 못 했는 기라. 못했는데 그 회재 선생은 고 자리에다 묘를 쓰고 장관도 나고 뭐도 나고 그 여강 이씨도 알아 줬다고. 여강 이씨 커면 알아줬거든. 알아줬는데 그래 인자 고 가면은 오파에 문선당파[33]가 있고 옥산파(玉山派)가 있는데 옥산파가 고 고 판기라.

[부산진구 설화 248]

화상 입은 어머니에게 자기 살을 떼어준 자식

최양락(남,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9일 채록
[전포1동 본동경로당]

인자 그거 어머니가 옛날에 전부 다 부엌 아궁이에 나무를 안 땠습니까. 나무를 땠는데, 요사이는 여자분들이 인자 자궁에 병이 있거든. 병이 안 많습니까. 옛날에는 자궁에 병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에- 이래 앉아가 불을 이래 때이까네, 그 홧김에 소독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없었다 이라지.

없었다 이라는데, 그래 인자 불을 때다가 뭐 좀 잘못 돼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인자 여거 막 도려내버렸는 기라. 도려내버렸는데, 그래 인자 자식이 자기 인자 그 엉덩이살을 비가지고 거다 붙여줬는 기라. 붙여줘가지고 그래 인자 잘 낫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33) 문순공파(文順公派)를 말한 것으로 보임.

잘 먹은 얼굴에 살따구[34]나 내 못 먹은 궁당이(엉덩이) 살따구나 그런 귀절이 있어요. 그래 '니 잘 먹은 놈의 얼굴 살따구보다 내 못 먹은 살이라도 엉덩이 살따구가 낫다.' 그래가 그 귀절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있다.

[부산진구 설화 24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영순(여, 1943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옛날에 저저 저 칠십 되면 고려장을 한다고 이랬는데, 그래 저거 엄마를 지게에 지고 고래장 한다고, 숲속을,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 할무이는 자기를,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지고 가는 자석을 위해서 나무 이파리를 따다가 하나썩 하나썩 인자 '길을 잃을까 싶어서. 자기 손주가 집에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싶어서.' 그래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줬는 기라.

준데, 자기가 인자 어머니를 내라 놓고 저 돌아올라 하이 지게를 놔놓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저저저 뭐꼬 지게를 도로 지고 가란께,

"야야, 그 지게를 놔놓고 가라."

하이,

"나도 칠십 되만 내가 어머이처럼 내 아들이 날 지고 오게끔 지게를 가지고 간다."

고 그카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예.

[조사자: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인자.] 응. 자기도 들면 내 자식이 이 지게에다 나를 지고 어머이처럼 날 그석 고래장을 시키로 오는 걸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자가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 이야기와 어머니를 고래장하고 지게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섞어서 잘 이야기했다고 말한 후,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전명수(여, 1936년생)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함]

[청중(전명수): 그래 와가지고 그 지게로 가(가져) 와가 뿌살라 칸께네, 아들이 그 손자아이가. 손자가 "아부지 와 뿌슬라 카노?" 컨께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도 갖다 내뻐리캔다." 컨께네, 가서 다부 지고 왔다 안 카더나. 어마이를 덱고(데리고) 왔다 안 카더나. 이야기 그래 들었어요. 그래가 고려장이 없어졌다. 그라더라. 우린 그래 들었는데.]

34) '살'을 속되게 말하는 방언.

[부산진구 설화 25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전명란(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메느리가, 아들이 군에를 가고, 저 시어머니가 이리 봉사로 해가지고 누벘는데, 매일 저저 지렁이예, 지렁이 그걸 잡아다가 삶아서 죴는 기라.

그런께 그기 억수로 맛있고 그래갖고 고걸 맛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껀디기를 만날 자기 자리 밑에다가 한 마리썩 옇어놔가지고, 근데 자기 아들이 턱 와서 보이, 저검마가 얼굴이 허-여이 이래 좋은께,

"아이고, 어무이 뭣을 그리 잡숫고 얼굴이 좋습니까?"

이래 카이, 거 저거 어마이가,

"아이고, 몰라. 저저저 우리 며느리가 만날 맛있는 고깃국을 이리 줘가지고 내가 이리 좋다. 이리 맛있는 거를."

"뭐요?"

하니까, 자리 밑을 들면서,

"이걸 맨날 해줘서 뭈다."

칸께, 지렁이 그걸 밑에다 여난 그걸 비(보여)주더랍니다.

"아이구! 어머이 이거 지렁이다."

칸께, 시어매가 놀래가지고, '으억!' 하고 눈을 퍼뜩 떴다고.

그래 그 이야기를 내가, 우리는 들었어예.

[부산진구 설화 251]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전명수(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얼굴이 노래서,

"며늘아 니 와 얼굴이 노랗노?"

이래 물은게네,

"방구로 몬 끼서 그렇다."
칸다 카대. 그런게네, 시아버지,
"방구 한 번 뀌 바라."
컨게네,
"그람 아버님 앞 지둥(기둥) 잡으이소."
방구 퉁 끼니 앞 지둥이 털썩하네. 또 뒷 지동 가서 한 번 뀌니 또 덜썩하고, 또 지동도 덜썩하고 그래 쌌대예. 그래 쌌더마는 줄방구 때방구로 낀다 안 카더나. 그래 쌌더만.

[부산진구 설화 252]

시어머니에게 지렁이국을 끓여 주었다 뱀이 된 며느리

전명수(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지렁이 됐다 카는 그거는, 밤을 인자 삶아주라고 저거 아들이 가면성, 저거 뭐 어더로 갔는고 어데 가면서 한 가마니를 사서 딱 줐는데, 밤만 까가 메느리가 다 무삐고, 우리는 말을 그리 들었거든.
다 무삐고 그래 만날 지렁이를 파가 끼리줐는 기라. 끼리가 준게네, 하도 맛있어서 할마이가 딱 하나썩 자리 무울 때마장 자리 밑에 하나썩 옇어 놨어. 그래가 인자 아들이 온게네, 그래 살이 찌가 통통하이 해가 있은게네,
"그래, 엄마 뭐를 묵고 이래 살이 찌가 좋노?"
쿤게네,
"야야 이기 뭔고 봐라. 이게 며느리가 만날 끼리조서 묵었다."
이래 캄서러 준게네 지렁이거든. 그러먼 놀래가,
"아이고 엄마, 지렁이네요."
이래 칸게네, 눈을 퍼뜩 떴는데, 이 메느리는 배미가 돼가 올라가삤더래요.
우리는 고래, 우리는 그래 들었거든. 그 와 그렇노 알리가 묵었으면, 자기 물어보고 했으면 되는데, 자기는 안 묵고 저거 할매만 줘노이, 지는 밤을 다 까묵고, 그래 죄가 돼가 뱀이가 돼가 올라가삐더라. 그래,
"메늘노(며느리는) 어데 갔노?"
쿤께네,
"저 뱀이 돼가 올라가삤어."

이러 쿠더란다. 눈 떠보이 엄마가 눈을 떠보이 없어서 물은게네 그라더라 카대. 우리는 그래 들었어.

[부산진구 설화 25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전명수(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스님 동냥하러 가이께네,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청중1: 봉덕이.]
"나는 우리 아무것이, 아무것이 우리 애기나 주몬 주까."
몰라 이름은 모르고 그때는. 그래 채이는 주몬 주까. [청중1: "우리 아나 주까. 아무것도 줄 거 없다." 이리 싸논게.] 고마 종을 만들어 놓고 천지를 댕기면서 놋쇠 걷은 걷애. 그래 놋쇠를 구해가 챘는데, 울리, 종을 만들었는데 종을 치이 종이 소리가 안 나거던.
안 나니까 [청중1: 그래가 그 아가.] 그래 인자 다 스님들 불러가지고 그래 물었는 기라.
"어디 동냥하러 간게 무슨 소리 없더냐? 무슨 말하는 사람이 없더나?"
물은게네,
"그래 한 군데 간게네, 이 아 이거나 주몬 주까 아무것도 없다."
캐서, [청중1: 귀한 아라고. 옛날에는.] 좋다고 지는 어른다고 그래 쌌는데, 그래,
"그 아를 덱고 오라."
캐가지고 그래 덱고 와서 녹캈다대. 그래 녹카가지고 그 아를 옇어가 녹카가지고 종을 만드니까 그래 에밀레~ 에미 에밀레. 에미로, 에미 원망으로 에밀레 에밀레 칸다 안 카던교? 그래 그 소리라. 에미가 들어서 지는 죽었다고 그래 에밀레~ 에밀레~, 종을 치몬 에밀레~.
[청중1: 옛날에는 아이고 내가 뭐 되몬 내가 우떻지(어떻지) 카몬 그 사람이 딱 딱 죄를 받더라 하대. 그래 오시는(요즘은) 우리가 막 아무따나 시부리쌌지만은(지껄이지마는), 옛날에는 마 내가 이거 하가 우짜면은 내가 우떻다 카몬 마 딱 딱 죄를 받더라.] [청중2: 그래 말이 입이 도치(도끼)라 안 카더나. 입이 도치라고. 그래 그 말이대. 옛날 말에.]

[부산진구 설화 254]

삼천갑자 동방삭이 붙잡힌 까닭

전명수(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쪼깨난 기 삼천갑자(三千甲子) 동방석(동방삭, 東方朔)을 살았다 아입니까. 옛날에 삼천갑자 동방삭이 있었다 아입니까.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삭 그거는 인자 그 잡을라고, 삼천갑자 동방삭 이거를 잡을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기라. 아무리 온 천지를 다 댕기도 몬 잡는 기라. 삼천갑자 동방삭을 살았는데 우째 지가 잡겠노. 몬 잡았어.

한 달은 탁 인자 이기 숯을, 숯을 가지고 내 씻고 이래 앉았거든. 동방삭 이기 숯을 씻어서 앉아싸이 질(길) 가는 사람이 딱 보더만,

"야야, 니 숯 그거는 뭐할라고 씻고 앉았노?"

이러 쿤가네, 삼천갑자 동방삭이 지나가면서,

"숯 그거는 와 그리 씻고 앉았노?"

이래 물으니까,

"이거 씻그면 내나 희이질란가 싶어서 씻는다."

이러 캐논게, 그래,

"내 삼천갑자 동방삭을 살아도 숯 씻거 흰 거 못 봤다."

이래 캤는 기라. [일동 웃음] 그래가 그 사람을 잡았어. 삼천갑자 동방삭을 잡았는 기라예. 숯 씻거 흰 거 되나. 흰 기 되나 그래. 삼천갑자 동방삭을 살아도 내 숯 씻거 흰 거 못 봤다 이러 카거든. 그래가 그 사람 잡아서 그래 삼천갑자 동방삭 잡았다 이러 카대.

그 이야기 우리 들었어예. [조사자: 맞아. 삼천갑자 동방삭이 잡힌 기 고 바로 거.] 명은 삼천갑자 동방삭을 마련하고 복은 석숭이 마련해라 이래 쌌대 옛날에. 어른들 비는 기 그래 쌌대. 아들 빈다고. 하몬 그래 싸서, 그래 우리 들은 이야기고.

[부산진구 설화 255]

작고 당돌한 삼천갑자 동방삭

전명수(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그래 인자 저 쪼깨난 무스마가 하나 데라진 기 와가지고,

“야야, 니 나이 멫 살고?”

이래 물은게네,

“나이는 스물 스물 세 스물 호부 일곱 접다섯 도로 셋을 더 묵소.”

이러 쿠거든. [조사자에게] 그럼 몇 살인고 세 보이소. 계산해보이소. [조사자: 다시 말해 보이소.] 스물 스물 세 스물 호부 일곱 접다섯 접 다섯 또 세 살 더 묵소. 그럼 멫 살이요? [조사자: 한 칠십 여섯 쯤 되는교?] 팔십이지 무슨 칠십 여덟. [조사자: 하하 팔십인교.] 스물 스물 세 스물, 육십 아이가. 그래. 저 호부 일곱, 호부 일곱. 접다섯, 접다섯, 접다섯은 저 다섯이 둘이 접다섯이거든? 그럼 열인게 칠십아이가. 칠십이거든. 또 도로 세 살 있고, 호부 일곱이 있고, 호부 일곱이 있고 도로 세 살이 있으니 팔십아이요. 그래 팔십이거든. 그런게네,

“그럼 니 나이, 성은 뭐고?”

이래 무거든(물었거든).

“성은, 성은 공가요.”

이렇커거든. 공가요 컨게,

“그럼 이름은 뭐꼬?”

컨께,

“이름은 짜뱅이라.”

카거든. 그럼 공짜배이 공짜배이 아이요. [조사자 웃음]

“니 그럼 니 생일 언제고?”

물으커네,

“윤동 접단 열 초사흩 날.”

윤동 접단 열 초사흩 날은 없는 기라요. 세 개를 대 [웃음] 어 윤동 접단이 없으니까. 그것도 열 초사흩 날이 어데 있노. 열 초사흩 날. 그래 대라진[35] 놈이 그래, 혹 그기 삼천갑자 동방석이라 그기.

[부산진구 설화 256]

쌍둥이 집에 시집간 신부

전명수(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1동 전포부녀경로당]

35) 당돌하고 예의가 없는.

쌍딩이(쌍둥이) 이야기 또 하나 하께요. 쌍딩이.

여자가, 아 [말을 바꾸어] 남자가 쌍딩인데, 인자 여자가 시집을 갔네. 쌍딩이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인자 형제간에 같이 사는 기라.

인자 시숙하고 시동생, 시숙하고 지하고 같이 이래 사는데, 한 날 자고 난게네, 자고 난 게 아이고 참 인자 화장을 싹 해가지고, 제수가이잉. 제수 화장을 싹 해가 이런다. 신랑인가 싶어서 신랑보고, 인자 신랑이라고,

"내 예쁘지요?"

이렇게 했는 기라. 예쁘지요 했는데, 그기 시숙이라. 똑같이 생기나이 모르는 기라. 한 집에 사니까. 모르는 기라. 그래 가지고 인자 대답을 안 하거든, 시숙이.

시숙이 제수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겠노. 대답을 몬 해서 인자 암말도 안 하고 들어가삤는 기라. 그래 이 여자가 고마 방에 딱 들앉아가지고 문을 탁 잠가놓고 안 나오는 기라 고마. '아 이게 신랑이 아이고 시숙이구나' 싶어서 기가 차가지고, 그래 마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 그 이튿날 아무리 나올란가 생각해도 안 나오고 이라니까, 그래 시숙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그 행(형)이 동상(동생)을 불러가지고,

"저 내가 어적에(어제) 아침에 화장을, 제수가 화장을 해가 나오는데 내보고 예쁘지요 카는 구로 내가 말로 안 했다. 그 낸 줄 아는갑다. 저 니가 가서."

동생보고, 가서,

"어 어지(어제) 화장해가 있다고, 예쁘다고 예쁜데, 예쁘지요 쿠는 거를 내가 대답 안했다고 그래가 있나?"

어 그러 캤는 기라. 그래가 인자,

"니가 그러 캐라."

이래 캐가, 인자 형이 시깄어(시켰어). 시기가 인자 지 드가가지고,

"아아 어지 예쁘다고 화장했는데, 내가 예쁘다 카는 거, 내 예쁘다 소리 안 해서 그래 삐낐나?"

이래 인제 그 카거든. 그란께네 고마 이래 치(쳐다)보더만 뭐 신랑을 안고 그래 울더랍니다. 그래 울어가지고 고마 당장 내보냈다 카대. 당장 내 안 보내겄나. 한 집에 살 수가 있나. 그래 몬 사지. 그래 그런 이야기 들었고.

[부산진구 설화 257]

구렁이가 된 며느리와 돌부처가 된 시어머니

김길자(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봉사가 있었다고 그라대예. 시어머이가 봉산데, 매일 집에 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그 염불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오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가리키(가르쳐) 주고 갔는데, 갔버리고 나니까 고마 잊어버렸어. '관세음보살' 잊어버렸어.

잊어부리가 메느리가, 메느리가 인자 봉사 엄마로 모신다고, 그래 인자,

"내가 그 저저 스님이 뭐라고 그 염불로 가르키?"

해준께네,

"뭐라 그랬어. 정침봉알이라 그랬지."

이래. 매일 같이 앉아갖고 '정침봉알' '봉알' 이래. 그래, 그래 하니까 인자 그 저 그 할아버지잔테 데리다 줄라 하니까 함-부래 안 갈라 커고, 계속 메느리가 그걸 하는 기라.

그러니까 그래 그런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비가 오더만 메느리는 시커면 구리가(구렁이가) 돼갖고 뒤에 가고, 그 할머니는 부처가 돼가지고, 돌부처가 돼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산진구 설화 258]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길자(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거 인자 그 남자가 과거보러 간다고 항시 방에 들아서 글공부만 하니까, 여자가 항시 쟁피(강피) 그거로 뜯어다가 이래 쩌어가지 그걸 밥을 해줬는데.

그래 그 살다가 살다가 하도 못 살아서 남자는 과거 보러 가지도 않고 방에 들앉아서 공부만 하고, 그래서 여자는 떠나버렸어예.

떠나버렸는데, 그 남자는 공부를 해가지고 저 서울 가서 그 저 [조사자: 장원급제를 했네.] 예. 장원급제를 해갖고 말로 타고 내려오니까, 저 건너 논에서 또 쟁피를 훑어 자기 마누라가. 그래 지나오면서 그 남자가,

"저기 있는 저 여자는 여기 가도 쟁피 훑고 저기 가도 쟁피 훑는다."

고. [일동 웃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들었어예.

[부산진구 설화 259]

여우가 된 여동생

김길자(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아주 옛날에 한 마을에 그리 살았, 저거 오빠하고 저거 동생 여동생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그 동네 사람이 다 떠나고.

인자 그 오빠도 인자 출세할라고 저 서울로 갔는데, 오빠가 출세를 해가지고 몇 십년만에 돌아오니까, 저거 동생은 여우가 돼갖고예, 여우가 여우가 돼가지고 오래비 말 타고 오니까,

"말 한 때, 자기 오빠 한 때. 오빠 한 때 저저 말 한 때, 두 땟거리 생겼다."

고, 여우가 야시가 돼갖고, 그래가 다 잡아먹더랍니다.

[조사자: 오빠도 자아믹힜든가(잡아먹혔든가)?] 오빠하고 말하고 다 잡아먹히. 그러니 오빠 한 때 말 한 때.

[부산진구 설화 260]

구렁이가 되어 쌀독을 지키는 시어머니

정형순(여,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

밥을 쌀로 내 주몬, 어른들이 다 쌀로 내 주거든요. 내 주는데 그거 가지고 푹 뜨지를 못해요. 그래 인자 쌀로 내 주는데 시어매가 만날 쌀로 내 주다 돌아가싰는데, 시어매 죽고 나서 쌀을 뜨러 강게 만날 뒤에서 뭔 소리가 나더라 카대.

소리 나(나서), '찍찍' 소리 나 디다(들여다) 봉께노 구렁이가 돼가지고 쌀 도가지(독) 뒤에 와서 탁- 사리를 치고 있더라 카대. 그래가이고 죽어도 살 도가지 그거 몬 잊어서, 몬 떠나서, 메느리 쌀 퍼가 밥 마이 해묵까(해먹을까) 싶어서.

[조사자: 아, 거 구렁이가 돼가 그래 있거만.] 구렁이 돼가 '짹짹짹짹' 그 쌀 뜨러만 가몬 구렁이가 뒤에서 '짹짹'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오이 가고 없이몬, 진짜 우리는 밥 그거로 참 한 분 떠다 해먹고져도(해먹고 싶어도) 시어마이 어데 가몬 요래 딱 따독여놓고 우리는 아예 그거 그거 쌀 도가지 디다 보지 못했어요. 우리 살 작에도. 그래 인자 어른들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부산진구 설화 261]

친정어머니를 푸대접하다 벼락 맞은 딸

정형순(여,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우리는 우리 시어머이가 절에로 다니시는데 그라대요.

친정어마이가 와가,

“쌀로 좀 주라.”

칸께노, 쌀로 몬 주고 그래가 자꾸 얻으러 왔겠지. 한두 번이 아니고 온께노, 난중 어쨓노 코몬, 저 모래로 자리에(자루에) 담아가이고 친정어마이 줐대요.

“가 가라고.”

어서 가라고 고마. 그래 모래 그거를 이고 갔는데, 이고 가는데 베락을(벼락을) 쳐가이고, 베락을 때리가 그 시어머니가 딱 벼락을 맞았는데, 그 손에다 모래를 들고 뱀이가 돼가 세가(혀가) ‘나불나불 나불’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우리 어무이 하시더라고. 그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인자 친정어마이가, 저저저 친정어마이가 딸한테 얻으러 갔는데, 그런께는 딸로 그래 벼락을 때렸는 기라. 딸로 벼락을 때렸지. 내가 말을 바까(바꾸어) 해서 그렇지.

그래가 인자 친정어마이가 왔는데, 그거로 갖다 쌀로 안 주고 모래로 자리에 줘노이, 이고 나가는데, 대문 밖에 난 데, 막 하늘이 천둥을 해가지고 마 베락을 친께노 손에다 모래로 딱 쥐고 뱀이가 돼가이고 세로(혀로) ‘나불나불’ 하더라고.

그래 인자 [조사자: 메느리가 벌 받았다.] 네. 그런 이야기 해쌌대요.

[부산진구 설화 262]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정형순(여,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그런데 여 뒷산에 황령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카대.

그래가이고 나물로 뜯으러 갔는데, 바구리(바구니) 이리 돌겉을(돌려서) 그래 걸차고 있은께

노 호랭이 새끼가 마 거 있더라요. 그래서러 디다(들여다) 본다.

디다 보고,

"호랭이 새끼."

이란께노, 고마 옆에서 뭔가 소리가 나더라 커대. 소리가. 호랭이는 보지는 몬 해. 소리가 나서 얼-마나 놀랬는지, 그 사람이 새가빠지게(혀가 빠지도록 급하게) 집에 쫓아 왔는데.

그래 집에 와가 있인께노 그 안날(다음 날) 자고 난께노 소구리하고 신발하고 다 갖다 놨더라요.

뒷산에도 그랬다. [조사자: 황령산에?] 우리 언니가 그래 얘기를 함서 만날,

"여 혼차 가지 마라. 여도(여기도) 호랭이 있다. 호랭이 있다."

카거든. 나는 보지는 안 했는데.

[부산진구 설화 263]

영험이 있는 제삿밥

정형순(여, 1940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그래 제삿밥을 해가이고 솥도바를(솥뚜껑을) 탁 열면은 머리커리가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안 되고 또 제삿밥을 해가 소도바를(솥뚜껑을) 딱 열면은 새가 된 집에는 새 발작(발자국)이 딱 있어요. 그렇고 저 구렁이가 된 사람 집에는 소두바 딱 열면은 이리 실-하이 이리 돼가 있어요. 똥그라미가 돼가 있어예.

근디 우리 조상은 새가 됐는가, 밥을 해 소두바를 딱 열면 딱 새 발작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뫼 질(지을) 때는 정성드리(정성들여서) 써야 되는데, 요새는 까스레인지로 밥 하고, 아궁이 아이고, 전부 다 냄비다 하고 전기밥솥에 이래 한다 아입니껴. 전기밥솥에 한께네 그래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지. 옛날에 우리 들시(들어서) 봤어.

옛날에 우리 떨셔봤어. [조사자: 그래 그래 그 이야기 있다. 제삿밥을 하면은 조상이 뭣이 됐는지 새가 되면은 새 발자국이 생기고, 아까 어머니 구렁이.] 말이 되면 말 발자국이 생기고, 들시(들어) 보면 딱 돼 있어예. 우리 조상은 새가 됐는가 새 발자국이 딱 있대.

[부산진구 설화 264]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왜 그렇냐 하이께네, 메느리가 저저, 메느리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래갖고 하도,
"야야, 메느리 와 그래 노랗노?"
이래 카이께네,
"아이고, 아부님 방구를 잘 몬 끼가지고 그래."
"그라먼 마 실컷 한 분 끼뿌라."
이래 카이께네, 실컷 낀께네, 방구를 마 붕붕 낀께, 이놈의 거 옛날 집 그 저저 쓰러질라 카거든. 원래 수수께(수숫단) 움막집 아이가. 그래 노이께네, 그 저저 기둥, 저 기둥, 그 저 기둥이 마 넘어갈라 카이께네,
"아이구, 야야야야 기둥 넘어간다." [웃음]
그래갖고,
"저 쪽 딴 데 나가서 또 뀌라."
카매 될긴데, 그런 이야기 나는 보진 안 했는데.

[부산진구 설화 265]

고깃국의 국물만 주는 며느리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또 또 메느리 밥을 안 주갖고 시집을 살리는데, 마 이 마마,
"무슨 고깃국을 좀 끼리라."
카몬, 부엌에서 메느리 지가 다 건지 무삐고(먹어버리고), 국물만 또 인자 갖다 주더라. 그런 메느리도 있더라 이라대예.
[조사자: 껀데기는 지가 다 묵고.] 지가 껀디기는 마마 저 끓이면성 지가 다 묵고. [조사자: 그래 벌을 안 받든가예?] 예? [조사자: 그래 벌을 안 받든가?] 그래가 인자 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메느리들이 있더라 그래도 그라고.

[부산진구 설화 266]

호랑이를 만나 소를 버렸다 죽은 주인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저저저 뭐꼬 집에서 소를 미갖고(먹여서) 소를 팔라, 내(내어) 팔러 갈라 카만, 옛날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재를 넘고, 재를 넘고 뺀도(도시락) 밥을 사고, 재를 넘고 그래 인자 갔는데, 그래 가다가 마 날이 저물어가지고 호랑이를 만냈어요.

호랑이를 만내갖고, 마 이놈의 마 황소하고 저 호랑이하고 마 싸움을 하는데, 마 이거 마 아무리 해도 마 그거 하잉께네 마, 지가 마마 저저 저 뭐꼬 잡아먹히겠거든 주인이.

잡아먹히겠으니께네 그래갖고 마 낸중에는 마 내삐리뿌고 저기 마 싸우기나 말았기나, 마 소 팔러 가다가 마 그래 내삐리뿌고, 호랑이가 싸우기나 말았기나 내삐리뿌고 집에 떡 와가, 안자 눕어잔다고, 잠은 안 오고 이래 집에 떡 있으이께네.

암 싸워가지고 소가 이기가지고 그래 집에 들어갖고 마 눈을 마 이래갖고 오가지고요, 이래갖고 마 어 인자 주인을 찾아요. 주인이 그래 내다보거든. 내다보이 마 주인을 떨받아(들이받아) 직이뿌더래요.

[조사자: 아이구.] 안 그라겠는교 그래. 지를 안 도와주고 그래 내삐리뿌고 갔으이께네. 마 땀을 뭐 겉이 팍- 적시가지고 오가지고 마 주인을 마마 직이뿌더래. 떨받아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 캐.

[부산진구 설화 267]

자식 죽여 부모 봉양한 효부[산삼동자]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는 또 효자도 있었답니다. 뭐뭐 자기 저저 부모가 그래 편찮으신데, 그래 편찮해가지고, 편찬해가지고 마 약을 써도 안 낫고 안 낫고 이래 하이께네, 도저히 부모를 나살(낫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어떤 걸에 인자 '우째 하면 낫겠노?' 싶어 우째 하다가 그래, 스님이 그래 와셨더래요. 스님이 와서가이고 그래, 야 카고 이야기를 하이께네,

"이 집에는 그 저저 집에 아들이 인자 저 손자가 그거로 저 학교 갔다오몬 고 놈을 잡아다

가 마 달랑 마 솥에다 안치가지고, 안치가지고 그래 그 물로 믹이만 부모가 낫는다.:

하더래요. 그래갖고 안자 그 말 듣고,

“아부지.”

카면서는, 저,

“엄마.”

카면서는 아들이 학교 갔다가 달랑달랑 오거든요. 그래 오이께네, 마 그놈을 마 뒤도 안 돌아보고 마 솥에다가 안치갖고 마 그래 물로 퍼밌대요.

그래갖고 부모는 낫고 소드바이(솥뚜껑) 열어보이 인삼이더래요. [웃으며] 인삼.

[조사자: 아하, 그래 하늘이 안자 그렇게 안자.] 응. 그기 그래 이런데, 그기 안자 인삼이 둔갑을 해갖고, 아들로 맨들, 아들이 돼갖고 인자 들어오는 기라.

들어오이께네. 워-낙 효심이 지극하이끼네, 삼이 안자 그렇게 변해뿠는 기라. 아로 변했부. 그 집 아들로 변해뿠는 기라. [조사자: 시험했다 그걸.] 예. 그래갖고 낸주에는(나중에는) 그 아들이 그래 저,

“엄마.” 카매 또 오더래요. 아이구 니가 직있는데 캐이, 시작하이까 소드배이 열어보인께네 인삼이더래. 인삼.

[부산진구 설화 268]

염소를 잡아먹으려던 늑대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우리 클 때 젂은(겪은) 일이라. 그때는 늑대가 많았어요. 산에 꼴짜기에. 우리 마 밀양 거 꼴짜기에 억수로 꼴짜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짜다라 짐승을 갖다가 염소 겉은 거 그런 걸 마이(많이) 믹있어요. 염소 겉은 거 마이 믹이놔노이께네, 염소 읍내, 그거를 갖다가 늑대가 댕긴다 카이, 염소를 차고(채서) 가사서로 염소를 갖다가 사랑방에 안자 안에 들라나나 놓고. 여름이나 되나 놓으께네, 그 장방 겉은 데 들라나나(넣어놓아) 놓고, 문을 열어 놓고 그 인자 청년들 몇이 인자 이래 사랑방에 눕어잤거든요.

눕어자이께네, 안자 여름이나 돼 웃통 탁 벗고, 촌에는 밀양 그 덥어요. 지금도 덥어요. 밀양도. 그래갖고 인제 문을 열어놓고 이래 자이께네, 뭣이 배를 살-살 까래비 쌌더래요. 안자 그기 늑대라. 그래 늑대가 배를 까래비싸서, 어이케 떠보이께네, 뭣이 마 훌쩍 뛰나가뿌더래

요.

염소를 안에 여놔. 염소 자아무울라고. 그래 배는 보이까네 까래피가지고. [웃음] 그거는 우리 클 때는 그 동네가 있은 일로 나는, 내가 젊었어 [조사자: 진짜 있었던 일이네.] 네. 진짜로 있었던 거요.

[부산진구 설화 269]

아이 간을 빼먹은 늑대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내 우리 시집 동네는 우째 됐는고 하이께, 안자 세 살 먹는 아로 갖다가, 그거 저 나락 논에 앉아 그래 새 훗는다고, 저 나락 이래 이래 고개 숙이가 있으몬 새가 달라 들거든. 새가 달라 드이께네, 새 훗는다고 놔두고 안자 '우여우여' 카고, 새 훗처러 댕니고 아를 놔두고 이래.

뭣이 개 건은 거 히딱 거는데, '에엥' 겉더라네. 에코 이거 마, 그래 마 아를 마마 늑대가 차고 갔뿠어.

그래 차고 가갖고 그 동네 사람이 북을 치고 산에 들어가이께네, 아로 갖다가 진짜로 그 간을 빼뿌고, 아로 팍 엎어놓고 마, 어느 북을 치고 막 징을 치고 이래 올라가싸이께네 다 못 묵고 달아났부.

그는 그것도 내가, 내가 그렇다 카는 이야기를 들어. 시집을 가이께네 고랬다 카는. 그래가 인자 아로 그래 놔노이께네, 온 군에 소문은 다 났지요. 그래 그 내가 그 동네 시집을 가이께네 그렇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보지는 안 해도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어.

옛날에 늑대 많았어요. 예, 지금은 늑대 없어도. 호랑이는 보지도, 늑대는 진짜로 개 겉은 기 많이 댕겼어요. 그래 늑대가 있으몬, 사람이 이래 서가 있으몬, 어데 우에 가다 혼차 대댕기몬 빵빵빵 돈대요. 돌아가지고 사람을 이래 엎인대요. 그래 사람이 어지럽어가 엎어지몬 그래 배에 막 새칠한다 하더라고. 아, 그런,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

[부산진구 설화 270]

제삿날에 가는 처녀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어느 집에 살다가 자기 집에 따다가 참 귀한 딸이 죽어뿠어요. 그래 딸이 죽어뿠는데, 딸이 죽어가지고 그 인자 제삿날이 닥칬는데. 요 머 저 그래도 옛날에는 딸 죽으몬 제사를 안 지냈거든.

그래 인자 정성껏 안자 어마이가 인자 그래 하이께네, 어느 택시를 떡 인자 그는 대신동이라 카더라고. 그래 인자 뭣이 소복을, 열두 시가 된께네, 소복을 입고 예쁜 색시가 하나 그래 택시를 잡더래요. 택시를 잡아갖고, 그래갖고 인자 택시를 잡아갖고, 그래 인자 택시 그래,

"잠깐 드갔다 나오께요."

어디 대 놓고,

"잠깐 드갔다 나오께요."

이래. 이래 하더래요. 그래서 저 돈도 받지도 안 하고, 인자 돈 받을 기라고 인자 이래 떡 있으이께네, 이쁜 여자가 대문에 들어가더니만 전혀 안 나오는 기라요. 여자가, 소복 입은 여자가.

그래하고는 택시가 인자 돈을 받아야 된께네, 그 집에 들어가이께네, 그래,

"이 집에 어떤 여인이 안 들옸던가요?"

"무슨 여인이 왔어요?"

이카이께네,

"이 집에 여인이, 이쁜 여인이 흰 옷을 소복을 해가이고 입고 있는데, 차비를 안 줘서러, 차비를 가지로 저저 돈 받을라고 이래 왔다."

카이께네, 그래 엄마이가 있다가,

"오늘 우리 딸이 죽은 제삿날이요."

카더란다. 그랜께네 귀신이 인자 왔던가 봐요. 그래 와가지고, 그라이께네, 엄마이가 차비를 줘서러 받아 갔대요. 자기 딸이라, 자기 딸이 그랬다고.

[부산진구 설화 271]

제삿밥을 먹지 못한 귀신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어느 무덤에, 에 안자 그거 저 소를 미갖고(먹여서), 소를 미러(먹이러) 산에 갔는데, 소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무덤에 가이께네, 소가 무덤에 있더래요.

소가 무덤에 있어서러, 그래갖고 인자 거기서 저물어갖고 참 깜빡 이래 자부렀는데(졸았는데), 그래가 인자 뭐라 하는가, 저거끼리 우시시 우시시 그래 쌌더마는,

"밥에다가 저저 오늘은 저저, 저저 아무개 집에 가이께네, 밥에다가 마 구리를(구렁이를) 갖다 잡아 옇어가지고."

그래 인자 머리카락을 잡아 옇었다 이기라.

"뱀을 잡아 옇어가지고 그래가이 어띠(어찌나) 부애가(부화가), 화가 나던지 아를 갖다가 부석에(부엌에) 쳐옇었다."

이카더만. 그 소리라 내나. [웃음]

"어띠 밉어서 아를 갖다가 쳐옇어뿌고 왔다."

카이, 그래 그 사람이 안자 내려오갖고 안자 그 집에 보이께네, 진짜로 아가 디있더래요(데었더래요). 그 소리라. [청중: 밥에 인자 머리꺼딕이가(머리카락이) 섞이노이.] 어. 그런께네 제사에는 조심시레 지내라 이카거든. 그칸다 아이가.

[부산진구 설화 272]

객귀물리기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에~ 새끼 천리 주난 천리 무슨 천리 저~ 부잣집에 가라고, 그것도 육자배기 다 몰라요. 부잣집에 가라고 발 크고 손 큰 놈은 물알로 쫓거라 험서러 칼로 가이고 마 목을 친다 캄서, 발 크고 손 큰 놈은. [청중: 머리 다가 막 해가지고 마 고춧가루 타고 콩나물 타고 밥 타고 이래갖고 마 층층이 해가지고 마.] 바가치로 엎어놓고 뚜드리는 기라.

그래가이고 썩 안 물러가몬 마 칼로가 목을 찌를 기라 카고, 그래가 쫓가내.

칼로 후~딱 떤지몬 저- 밖으로 나가몬 객구가 나가고, 싹 돌아 노면 자꾸 떤지대예. 그래가 칼이 밖으로 나가몬 춤(침) 세 번 받고, 구들막 가서 꺼꿀로 누우 있으라 카대. 그리 했어.

[부산진구 설화 273]

암탉과 수탉이 주고받는 대화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는 암탉이 알로 낳아나놓고 '꼬꼬댁 꼬꼬꼬 꼬꼬댁 꼬꼬꼬' 카몬, 장닭('수탉'의 방언)이 지붕 답에 날개를 흘를를를를~ 치면서는, 치면서는 그거 저 꼬끼오 해도,

그래도 내 자석
눈도 코도 안 생깄네
그래도 내 자석

카는 [웃음] [조사자: 장닭 소리가.] 암탉이 낳아나 놓고, 낳아나 놓고, '꼬꼬댁 꼬꼬' 하면,

눈도 코도 안 생깄네

이카이께네, 장닭이 지붕캐서(지붕에서) 활개를 이래 치매,

그래도 내 자석

칸다. [웃음]

[부산진구 설화 274]

말의 간과 시신을 파내 먹는 여우

하영조(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대동할머니경로당]

옛날에는 말을 타고 안 갑니까. 말을 미는데, 저녁마중 말 한 바리씩 없어지는 기라. 말키(말이) 한 바리 없어지서로, '아이고, 이상하다. 이 우예서(어떻게 해서) 저녁마중 이 말키 없어지노?' 싶어가, 엄마 저녁마다 말을 갖다가 뭣이 간을 쑥 빼먹고 직이놔놓고(죽여 놓고) 또 갔부고, 직이낳고 갔부고.

그래 한 문은 인자 '그 이기 뭣이 그라는고?' 살-살 따라가 보이, 어느 공동묘지 가이끼네, 야시가 돼갖고 거서 마 밥 묵고 공동묘지 새로 묻어놘(묻어 놓은) 데 가서, 거 가서 마 야시가 또 마 공동묘지를 파는 거라요.

그래 야시가 저저저 둔갑을 해가지고, 어 그래 여우가 돼가지고, 그래가 인자 파고 댕긴다 카는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가 안자 자기 말 하나썩 자아묵고, 또 따라가이께네, 공동묘지 간께, 또 뫼를 파갖고 막 거서 마 벌거이 파내갖고 '허허' 카매 흔들어 쌌더래요.

[부산진구 설화 275]

무조건 존댓말을 쓰는 며느리

권태순(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소도 위해고 개도 위해라 캐. [조사자: 그래그래. 그 이야기.] 개씨가 보씨가 됐답니다.

[조사자: 그 이야기 뭐 아시는 거 있는교?] 아니 나 잘 몰라요. 아니 시집가몬 예를 해가 가이까네, 개씨가 오씨시니 소씨를. [청중: 개씨가 상추씨를 덮어씨고.] 아이다. 손님이 오셨으니 개씨가 보시시고 멍멍 짖으시니 [웃음] 그렇더라고.

멍멍 짖으시니 뭐. [청중: 소씨가 상추씨를 덮어씨고 뭐 모르것다 그 뒤에. 다 까묵고 없다.] 개도 씨고. [조사자: 개씨가 거적대기씨를 덮어씨시고, 그래 뭐 하이튼 우습은 이야기가 있어예.] 그래 속담이 있었어예. [조사자: 아, 옛날에. 그래 무조건 가서 말 높이라 하이께네.] 음.

[부산진구 설화 276]

시집 살기 싫은 딸의 거짓말

박부임(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배고프다고 천날 만날, 만날 친정 오몬,

“배가 고파 몬 살겠다.”

캐. 딸로 시집을 보내노이.

“그럼 배가 고프면 니가 하루 변소 몇 번 가노?”

캐이,

“화장실이 세 번 간다.”

카이,

“에 이년, 니가 순 거짓말 하구나. 화장실이 세 번이나 가는 기 니가 굶었는 기 아이다. 시집 살기 싫어 그렇다.”

고. 그래 시아바시가, [말을 바꾸어] 친정아바이가 그래서,

"니는 당장 그거 죽어도 그 집에 가 죽어라."
그래가 옛날에는 진짜로 소박맞으면 친정으로 몬 왔어요. 우리들 클 때는.
"여자가 어디 앞문을, 문을 히떡(활짝) 열고 오노."
크고,
"히떡 바리(바로) 눕노."
크고, 우리는 그래. 오빠는 너이들 속에 커놔노이, 큰 문을 한 번 들와보도 몬 해요. 여자는 똑 뒷문을 둘러서 화장실도 밖에 나가 앉아 몬 했어요. [조사자: 어무이 살기 힘들 때.] 예-. 그 말로 몬 해요.

[부산진구 설화 277]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안수자(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시집을 가갖고 얼굴이 노래. 시아바이가,
"방구를 참, 거여 니가 와 얼굴이, 방구를 참아 그러몬 방구로 끼라."
쿠이,
"지동 잡으라."
캐고, 시아바지가,
"제대로 실력 한 번 보자."
하이, 한 번 팅~ 하고 날리 저짝에 지동에 휘떡 날라가고, 팅~ 날리 이쪽 지동 휘떡 날라가고 그랬다 쌌디예.
[청중: 아니 방구쟁이하고 시합을 해갖고, 이 쪽 동네하고 퐁~ 하니께네, 풍~ 하고 그랬다 해쌌더라.] [조사자: 방구쟁이가 어데 방구쟁이 서로 방구시합을 하는데.] [청중: 그렇지예. 자기 메느리가 잘하는가 하이께, 이쪽에서 팡 날라오고 저 쪽에서 팡 날라오고, 방구시합을 하고. 방구 그래 끼고나이 노란 기 없어지더라 하대. 얼굴이 노란 기. 대변 못 누고 노-래지는 거캉 같잖아 그제. 대충 그건 기라.]

[부산진구 설화 278]

베 짜는 시늉만 한 게으른 아내

안수자(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옛날에 여자가 장개를 갔는데 억수로 깨대요. 게을러갖고 인자 옷도 단벌신산데, 인자 만날 인자 저 물레를 이거 미영을 잣는 거는 가락을, 여 물레를 이래 짜몬, 신랑만 남애가(남편이) 오몬 물래 짜는 이래 쌌타가, 신랑 가고나몬 가락 끝에 떼갖고 농안에 주우 옇고, 또 돌아댕기면서 놀다가, 또 신랑 오몬 젓고.

그래가 인자 그래 여자가 죽었어. 죽어갖고 옷을 갈아입힐라 쿤께네 없는 기라. 빈 가락, 가락 그거마 동구리하는 거라. 그렇게 하이께네, 여 여다가 사발이 한 개 엎어가 그래갖고, 인자 남편이 사발이 엎어가 음을 하고,

"에이 요년, 사발이도 아깝다."

하매 사발이 주우 차삤다 카대. [웃음]

[조사자: 죽었는데?] 예. 너무 께을러갖고 어던 것이 없어갖고, 이것도 인자 몬 개리갖고(가려서) 사바리를 엎어가 간께네, 에 이년, 사발이도 아깝다 컴서 사발을 주 차삐더라.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

[조사자: 그래 인자 일부러 베 짜는 시늉만 하고 놀러다니고.] 명 잡는 시늉만, 명 자슨 시늉만 요-래 또 가고 나몬 농 안에 살짝 주우 옇어놓고, 또 놀러 대니다 신랑 오몬 또 내가 놓고 또 이-리 하고. [청중: 여자는 머리가 좋아서.] 가락 만든 도올하든가, 옷을 갈아입힐라 쿤께네 [청중: 옛날 사람들은 어데 쌀이나 밥을 무웄습니까. 부엌에서로 먹고 바가치 담아 놓고 묵고 그래 살안 세월 사람들을 좀 요 세월에는 좀 없을 거다 그지요?]

[부산진구 설화 27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안수자(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지 어마이가 저저 눈이 봉사라서 참 효자라. 해 미일(먹일) 게 없어갖고 할매로 참 지렁이를 잡아갖고 국을 끼리준니 맛있어서, 그기 너무 맛있어갖고 인자 그 따다가 자리 밑에다 여놨다.

메느리, 아들이 와서 그래,

"아이고, 어머이 뭘 잡숴?"

이래싸자,
"모르겠다. 애미가 이걸 해주는데 함 봐라."
"아이고! 어무이 지렁이요."
근께, '이잉!' 하면서 눈을 퍼뜩 떴다 커대.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280]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안수자(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아가 눈에 예뻐갖고 얼레쌈서(어르면서), 저 저 얼레가 이래쌌는데, 예쁘다 얼러 쌌는데, 스님이 와갖고,
"시주하시오."
근께,
"아이고! 내사 아무것도 줄 거 없고 우리 아빼이(아이밖에) 없다."
고 이래 논께, 고마 스님이,
"그 애 도라."
쿠는 기라. 도라 쿠이 그거로가 해논께, 오데 절에, [청중: 에밀레종.] 아! 에밀레. 그래갖고 에밀레~, 애미 땜에 그래 됐다고 그런 말이 있대예.
[청중: 그거는 책에 마이 있다.] 책에 그래. 나는 줏어 들은께. [조사자: 유명한 이야기다.] 유명한 이야기지.

[부산진구 설화 281]

손님이 끊겨 망한 집

안수자(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그래 옛날에 저 너무 이 참 옛날에 정승 집에, 이런 종부 종가댁은 손님 마이 온다 아입니

까. 손님이 너무 와싸갖고 스님이 인자 시주하러 왔는데, 그래,

"하이고이 스님요. 내 손님이 너무 와싸서 못 살겄습니다. 우리 집 손님좀 안 오고로 해주이소."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대요. 저 그 초하룻날마다 머리를 깜아 빗고, 저저 재 치는 거이 뭣이니라? [청중: 당그래.] 조금마당(조금마다) 재로 치고, [청중: 당그래, 당그래.] 조금마당 재로 치고, 초하룻날 머리 깜아 빗고, 그라고 나몬 손님이, 참 그라고 난께네 팍-싹 망해니까 손님 하나도 안 오더라고예.

손님 가면예 그 집은 잘 되는 집입니다. 부자 되는 집입니다. 손님 안 그라먼 사람 안 가면 안 되는 집이고.

[부산진구 설화 282]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안수자(여, 1944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전포2동 부흥경로당]

옛날에 그래 저저 남자가 머리는 좋는데, 천잰데, 과게(과거) 급제를 하몬 절대로 안 되고 떨어지는 기라요. 떨어져 그래, 이 여자가 그 남자 따라서 몬 살겄는 거라. 그런께네 인자 고마 이 여자가 남자를 내삐리고 딴 데 서방을 얻어 갔어.

가갖고 갔는데, 고마 이 남자는 고마 과거 급제해갖고, 급제해갖고 이래가 마패를 보이고 이래가 떠들거리고 오이까네, 그 여자가 살러간 그 집에도 갱피를 훑어갖고 원래 피를 훑어갖고, 피죽을 끓이묵고 사는데, 또 피를 훑거든. 훑어께네,

"저기 있는 저 부인은 간 데 족족 피만 훑네."

인자 그러 쿠면서, 인자 대가 나온께네, 인자 알고 뒤에 매달리갖고,

"통시깐이라도(화장실이라도) 좋은께네 날 좀 덕고(데리고) 가자고."

그래갖고 본처가, 그래갖고 따라가가 살았다 쿠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예. 이거 맞지예? [일동 웃음]

[부산진구 설화 283]

양산복과 수양대

김종희(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옛날 옛적에 모두 다 오월 단옷날 머릿물에 머리 감은 적 있지요? [청중: 그래.] 그래 인자 김정승 이정승이 있었는데, 친했는데 두 분이 애를 배었어. 그래나놓이께네,

"김정승 니가 아들 놓든지 내가 딸을 놓든지 하면 남 주지 말고 우리는 사돈을 삼자."

캤는 기라. 그래 약속을 해놓고 두 분이 애를 뱄는데, 이 마 김정승이 딸을 낳았는데 이정승이 살림이 구부러졌어. 주기가 싫은 기라. 그래서 마 아들을 낳고 남복을 낐는 기라.

옛날에는 학교 안가고 서당에 공부를 하러 갔거든. 그래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아무리 봐도 서가 가는 게, 복이가 말하자면 여자 그거 거든.

"복아, 내일이 오줌쪽에 마을 가면은 상중을 하자."

했는 기라.

"그래."

캐가, 걱정을 하는 기라. 야도 인제 남자로 끼미놔놓이(꾸며놓으니),

"옴마, 옴마. 수양대가 내일 오줌쪽에 마을 가면 상중을 한데 엄마, 우야꼬?"

칸께,

"걱정 없다."

하며 홀때기를 하나 해가 딱 주거든.

[음부를 가르키며] "요 끼야놔라(끼워놓아라)."

카이, 산만디(산꼭대기) 앉아가 홀때기 풀고 오줌을 저 마이 가뿌더라. 그 또 살았는 기라. 그래하다가 복이가 시집을 갔는 거라. 시집을 가이 수양대가 너무너무 억울하거든. 감나무 이파리를 훑어가,

"복아 복아 남산복아, 대야 대야 수양대야. 한 서당에 거늘어야 남자 여자를 몰랐더라. 님이 죽어 근개이 되고 나는 죽어 전브 돼서 오월날 단오날에 머리 머리 만나보자."

카고. 그걸 쓰가지고, 그걸 그래 던졌답니다.

[부산진구 설화 284]

세 선비들의 내기

김종희(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옛날에 아주 옛날 옛적에 호랭이 담배 푸고, 그래 그 시절에 김정승, 이정승, 박정승이 둘도 없이 친구였는데, 옛날에는 먼 데, 등 넘에(등 넘어) 등 넘에 사이(사니) 김정승이 하는 말이,

"내일이면 자네들 우리 집에 와가 바둑을 한 번 뜨자. 우리 집에서 점심 묵고."

"좋다."

카이, 왔거든. 그래 인자 아침에 자기 부인 보고,

"우리 친구가 둘이 올라카이 대접할 끼 없으니 촌에 그거 하이까네, 그거 뭐고? 그거를 홍두깨를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시를(국수를) 해가 뒤에 애중 호박을 따가 끼미를 해가 대접을 해라."

부인한테 시킸는 기라.

"알았습니다."

카고, 인자 두 정승이 왔는 기라. 근데 세 정승이 앉아가 바둑 두고 놀다가,

"이정승, 오늘 우리 점심이 뭐가 주어졌는가?"

카이,

"허, 오늘 마 홍두깨를 밀어가 국시를 잘~ 해가지고 말하자면, 애중 호박을 탁~ 일로 옇어가 국시가 될 낀데."

하거든. 그래 니는 언가이(어지간히) 작다 카고,

"자네는?"

카이, 박정승이,

"나도 홍두깨를 밀어가 국시를 하는데 나는 수제비를 해가지고 동동 떠가지고 호박을 해가 두루겠다."

카거든. 자기 부인한텐 국수를 하라 캤는데. 그라자 점심이 들어왔는데 수제비가 들어왔는 기라. 그래서 자기 부인보고,

"이 사람아, 내가 국시 하라고 시킸는데 우째서 이거를 그래 수제빈고?"

카이.

"아이고, 반죽을 하다보이 추지가지고 마 수제비를 떴습니다."

캤거든. 그래 이 둘이가 다 맞았다 이거라. 그래 손뼉을 치고 그랬답니다.

[부산진구 설화 285]

못생겨도 재주가 좋은 부인

김종희(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선을 안보고 장가를 갔잖아. 탁~ 이도령이 구름겉은 말을 타고 말하자면 백살같이 날라가지고 처갓집에 갔는데, 첫날밤에 이놈 부인이라 카는 게 팍팍 얽은 곰보가 말이지 주리상을[36] 채리논께 쿨쿨 자고 하거든 기가 차거든.

"저걸 뎃고 내가 우예 사노? 가야되겠다."

카며, 갓을 탁 벗고 도복 딱 걸치이, 여자가, 가면서로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두껍 두껍 움두껍아, 오늘같이 좋은 날에 무슨 잠이 그래 오노?"

카고, 옷을 척~ 입으이 모간지를(목을) 떡 들디 하는 말이,

"두 때 양식 함께 먹고 배가 불러서 잠이 오요. 동네 산 낭게(나무) 좋아 방이 덥어 잠이 오요. 물 밑에는 이끼 끼고 물 위에는 00[37]끼나. 이 내 가슴 이래도 내 속에는 금옥이요."

카거든. 그 소리를 듣고나이 갈 수가 없는 기라. 저 여자가 비록 곰보지마는 속이 갈맀다 카면서로. 그날 저녁에 잤는 기라.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부인은 가메를(가마를) 타고 자기는 말로 타고 옛날에 삐딱나발 불고 안 가는 가배. 그래 가가 첫날밤 내려가야 과게를(과거를) 갈 낀데. 옛날에는 화로를 확 이래 나 났잖아. 붓을 써가 해가지고 빼앗가, 마 이 부인이 보다 안 돼가 붓을 빼앗아가 마 자기가 글로 척척척 쓰가, 척척 잡아가 주거든. 그래 그 이튿날 가가지고 장원급제를 했는 기라. 그래 아들 삼 형제를 해가 다 참 곱게도 잘 살았답니다.

[부산진구 설화 286]

주인이 자기를 버린 줄 아는 소

김종희(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다정경로당]

옛날에는 촌에 살면은 한 일주일에 시장을 가면은 밤 늦게 오이까네 큰 소를 뎃고 가거든. 소를 뎃고 가가 한 움큼 싣고 오면 범이 내려온다.

"우~."

카미 내려오면, 이 범이 말하자면은 주인은 나놓고, 마 범하고 그거 뭐고? 싸우는 기라 이 소하고. 싸우면 백발백중 다 지는 기라. 범이 이기는 기라. 그래가 한 사람은,

"하, 이래가 안 되겠다. 오늘 내가 일부러 장에 가야되겠다."

카면서, 가가(가서) 장을 봐가 떡~ 오이께네, 범이 이리 길 내려오거든. 길 내려오더마는

36) 주안상을 말함.
37) 녹음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음.

싸우는데, 주인을 갖다가 배에다 탁 차고 앞발로다가 차가지고, 서가지고 범을 이겨냈는 기라, 소가.

그래가 그 사람이 상을 탔는데, 다른 사람은 가면 마 소하고 범하고 싸우면은 겁을 내가 마 쫓아와가지고 집에 와가 마 죽을까 싶어서 단지 땠가리(뚜껑으로) 여게 있으면 [단지 뚜껑을 쓰고 숨어 있는 모습을 흉내내며.] 소가 내려와가 '자기 놔 놓고 갔다.' 꼬, 딱가리로(뚜껑을) 뿔로 차가 주인을 죽이는 기라. 죽이는데 '이 사람으는 참말로 안 죽이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 소가 상으로 많이 탔답니다.

[부산진구 설화 287]

개똥 보리쌀과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박달막(여, 1935년생), 박월출(여,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박달막]

아무것도 없어 놓으니께네, 이 며느리가 그 저 소똥 내논 그거로 씻거갖고. 그런께 보리쌀이가 나오더란다. 보리쌀 그거를 싹~ 씻거갖고 시어마이로, 봉사 시어마이로 주고 글타고(그렇다고) 그래 쌌대. 그런데 머 우쨌는고 뭐.

[청중: 그거로 밥해주고 모숨구로 갔다 안 카던교?] [박월출: 자리 밑에 옇었다가 믹였다가.] [조사자: 할머니 이야기 좀 해주이소.] [박달막: 거싱이로 잡아다가 그래갖고 믹이고.]

[박월출]

거싱이, 거싱이로 주는 거를 시어마시가 쪼맨큼 띠가(떼어) 자리 밑에 옇놨다가 아들 과게하고 오는데 엄마가 마 살이쪄가 이래가 있거든. 봉사가 눈도 뜨고. 눈은 봉산데. 그래가지고,

"엄마, 뭐로 묵었노?"

"야야야야, 며느리 뭐로 이로 만날 이거로 해가지고 내가 이래 살이쪘다."

커이,

"꺼시이 말란 거, 꺼시이 말룬다."

커이, 놀래이 눈을 퍼뜩 떠뿠더라 하던데 뭐.

[부산진구 설화 288]

팔자가 센 여자

박달막(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하도 신랑이 죽어쌌어, 이 놈의 남자가 하나 오면, 그것도 고마 한 번 하고 나면 히떡 죽고,히떡 죽고 그런 기 있다 카대. 세상 여자가 얼마나 어신지[38]. 남자가,

"내가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카면서로, 간께네 하고나면 고마 죽어삔다 캐. 남자가. 그런 일이 있다 카더라꼬. 예전에.

[부산진구 설화 289]

흰쥐로 변한 사람의 영혼

박월출(여,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옛날에 그렇다하데예. 여자가 바느질하고 남자가 자는데, 이래 떡~ 보이까네 남자 코 사이로 흰 쥐가 나와가지고 그기 영혼이라네예. 자는 새에(사이에) 나와가지고.]

쥐가 나와가 [조사자: 처음부터 해 주이소.]

비가 오이께네, 여자가 바느질 하다가 자로 갖다가 축걸이에 나놓이 고거를 졸~ 타고 가가, 그 따라가 본께네 동삼이 뭣이 산메이로(산처럼) 그래. 얘기가 그렇더라.

그래 있어서, 여자가 보고 와가지고 아무 데도 안 카고, 그래가 정신이 들이가 장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만을 지냈다 카대. 지내이 그게 전부 동삼이더라 카대 옛날에. 처무이는(처음에는) 산중이디마는 낸중에는 그렇지 그게 전부 동삼이 되가 부자가 되가 어짜고 캐쌌대.

그기 쥐가 사람 혼이란다. 고기 나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보고.

[부산진구 설화 290]

정성을 드려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

38) 드세다는 의미.

박월출(여,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조사자: 손자를, 지 손자를 불구덩이에 떠넣고.] 그래. 여자가 똥 묻은, 알라(아기) 똥 묻은 옷을 입고 밥을 했놓이. [조사자: 고 아야기 처음부터 해주이소.] 그래 마 니 어찌 보골나이(화가나) 영감할마이 그래. 옛날에 와 장기 탄 사람[39]이 뫼에서 들으니께네, 옛날에는 와 정기 탄 사람 있거든. 인자 들으이,

"아이, 뭐뭐 어찌 더럽고 더러워서 불에 차옇었다."

카이,

"그거를 와 그라노?"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약을 가르쳐주고 올 거로."

영감이 이 카이,

"그래, 찰밥을 해가지고 부석에다 불에 꿉어가지고 가리(가루) 그거를 치마놨으면(처매었으면) 났을 낀데."

"아, 그거 내가 알았으면 약이나 가르쳐줐제."

이 칸다 카대. 그래 그런 사람 있고, 뭐 많데 그런 거.

[부산진구 설화 291]

누이를 마음에 품다 죽은 오빠[달래강 전설]

박월출(여,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달래고개 달래강 이런 거 있지예? 동생하고 누나하고 가다가 비가 추룩 내려가지고 옷이 탁~ 젖으니까, 뒤따르는 남동생이 누나가 여자로 보이가지고. 그지 할머니?]

그래 마음이 마 달라져가지고. [조사자: 그 이야기 처음 해주보이소.] 달라져갖고 [처음부터 어디를 가는데예?] 모르지. 처음에 그런 거는 없고. [청중 웃음]

누나캉 가이(가니), 비가 맞아가지고 누나 궁디가 탁 옷이 붙어가지고 있으이, 남자 마음으로 좀 달랐던 모냉이지. 그래 가가 남자가 그 지 그 꼬치를 마 쪼았다 카더나? 찧었다 카드더? [청중: 맞다. 찧었다.] 찧었다 카이.

"니 알고 내 알고 마 와 그랬더노?"

39) 신기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이 카고, 저 누부가(누나가). 그래 했다 하대. 그래 딱~ 옷이 살에 붙어가지고 있으이, 궁디 딱 내려오이. [청중: 그 거짓말이지 뭐. 다 거짓말이지.] [청중 웃음] 그래,

"말 한 마디만 해보지."

그러 쿤다꼬. 그래갖고 지 뭐 꼬치를 갖고 돌로 콩콩 찧어갖고 그러먼 죽어뿔 거 아이가? [청중: 그래 죽었지.] 그래갖고 저그 누부가 그러 쿴다(그렇게 했다고) 안 카나. 전설 보면 그 있어. [청중: 그래, "니 알고 내 알고. 뭐할라꼬 그런 마음 무읐나?" 하고]

[부산진구 설화 292]

눈물을 먹고 사는 상사뱀

김옥순(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상사 되면 상사뱀 되는 이야기. 상사병 얘기도 좀 해주이소. 꼬랑지 여게 넣고. 어떻게 되는데예 상사 이야기?] [청중1: 뱀이 그런 거 딱~ 텍받침(턱받침) 해가 있는 거. 있다 하는 거 그것만 들어봤지 모린다. 몰라.]

봤다 카대. 꼬랑대기는 밑에 딱~ 요래 얹어. 나는 이야기도 아이고. [조사자: 실제로?] 응. 샛바닥을(혓바닥) 새에(혀에), 자기 새를 타닥타닥 해가지고 춤을(침을) 다 빨아먹더다 카대. 춤을. [조사자: 사람 눈에 보이는가예?] 야. 다 봤다 캐요. 내 거짓말이다 싶어. 그래,

"아줌매, 봤어요?"

카이,

"봤다."

카대. [청중1: "텍받침 해가 있으면 그 우짜노 그래가?" 그렇다 하대.] [조사자: 화장실 간다하면 삭 풀어주고.] 춤을, 여자 춤을 다 빨아뭈대. 다 빨아뭈대. [조사자: 그 어짭니꺼?] 죽지 뭐 여자가. 말러 말러 죽는다 카더라. 말라 말라 죽은다 카대. [청중2: 어째가 상사에 걸릴 꼬?] [청중1: 그기 참 상사다.]

[부산진구 설화 293]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박월출(여, 1923년생) 구술

2018년 2월 10일 채록
[초읍동 초연경로당]

토깨비, 그래 토깨비 되고. 그기 뭐 저런 빗자루 그기 토깨비 되어가지고 뭐 끼미놓고(꾸며 놓고) 나이께네, 그거 빗자리더라 카대. 몽자리 빗자리(몽당 빗자루).

2. 연제구 설화

[연제구 설화 1]

황새알마을의 유래

김삼자(여, 미상[40])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이 동네를 '황새알'이라꼬 이름을 지았다요. 그기 요렇게 된 게, 알 낳는 그런 형태로 해놨거든. 요렇게 한 게 그게 알이에요. 알, 황새알이라고. 그래서 우리 국제신문에도 한 번 실렸었거든. 그러니까 요기 내려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고게 있어.

그 우물이 한 백 년은 됐을 거여. [조사자: 맞아예. 유명하지요.] 지금 거학 국민학교 자리가 옛날에 동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산인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소나무가 이래 있었거든? 그 소나무에 황새가 환-하게 앉았었어. 나도 그걸 알거든. 그래 가지구 그 밑에 풀이 못 자랐어, 황새 똥 땜에. 그래서 여기가 '황새알' 마을인 거라. [청중: 황새알도, 그냥 사투리로 항새알이고 표준말로는 대조부라.]

[연제구 설화 2]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삼자(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애기를 갖다가 그 해가지구 종을 만들어서 그 종이 그렇게 운다 아입니까. [조사자: 맨 처음에 애를 왜 넣게 되었는가예? 스님이 시주 왔지예?] 종이 소리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서 생각다 못해서 아기를, 백일 안쪽의 애기를 넣어가지고 종을 만들었다 아입니까.

[청중: 종, 애기를 종 만들었다는 유래도 있더라. 뭐 아를 가지고 뭐 놓을까 어쩔까?] [조사자: 할머니, 시주를 왔는데, 중이 시주를 왔는데, 시주 줄 께 없고.] [청중: "너를 줄까? 뭐를 줄까?" 이카니까네, 마 그 사람이 그 말이 잘못 돼가 어쩔 수 없이 애기를 빼낐다 카더라.

40) 제보자가 한사코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음.

그 애를 가아가(가져가) 종을 만들고.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종을 땅! 치면 '에밀레-에잉, 에밀레' 이러더라 카대. 엄마한테 조금 들었다.]

그 스님이 종을 만들다가, 처음에 종을 아무리 만들어도 완성이 안 되는 기라. 응, 완성이 안 돼가지구 시주를 나가야 되것다고 시주를 다니다 보니까 머시마가 이쁘게 생겼어. 그런데 그 엄마가 애기를 안고 나와서 시주를 할 건 없고 스님한테,

"스님, 줄 거는 없고. 스님, 뭐를 드릴까? 우리 애기를 줄까? 뭐를 줄까?"

이라다보니까 스님이,

"보살님, 그 아기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주시겠습니까?"

이란께, 그 부모가 참 안 주지도 못 하고 울면서 줬어. 근데 그 스님이 그 아기를 갖다 놓고 기도를 했잖아. 백일기도를 했는가? 며칠 기도를 했는가? 기도를 했어. 그 책에서 나도 봤는데, 기도를 해가지구 선몽을 받았어.

이 기도를 하는데, 아이를 쇳물에, 쇳물부터 녹카가지고 그 쇳물에다 이 애를 그냥 넣으라 캤어. 설명을 했어. 근데 스님이 그거를 못 하겠어서 종을 안 만들고 기도를 해가지구 그 아를 넣고 종을 만들었어. 울면서 만들었어. 그 종을 만들 때 정말 스님이, 스님의 그 종 만들 때 눈물하고 종하고 같이 만들어졌다고 해 그랴. 내가 책에서는 그렇게 봤어. 책 읽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책에서 조금 봤어. 그런데 기억이 다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종소리가 그렇게 좋았고, 종소리 할 때마다 그래 에밀레종이라고 했는데 그기 지금까지 유래가 되잖아요. 그러고 종소리도 맑고. 스님이 그래서 그 부모한테 뭐를 했다 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 그 보답을 좀 했어. 스님이 기도를 하면서.

[연제구 설화 3]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정갑순(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대조경로당]

옛날에 애기가 어찌 어찌 우는지 엄마가,

"꽂감 줄게. 울지 마라."

커이, 아가 울음을 뚝 그치니까네, 밖에서 호랑이가 듣다가 '와! 곶감이 내캉(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구나.' 싶어가 호랑이가 돌아가더란다.

[연제구 설화 4]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그래 애가 하도 울어쌌어로 달개다가 달개다 안 돼가지고, 아유! 그 저저 뭐꼬?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캐싸이께네, 가만히 호랑이가 집 밖에 앉아가 딱 앉아있다가, 바겉에(밖에) 마당에 앉아있다가 그러싸이,
"아유! 곶감 온다. 곶감 온다."
카이, 아가 그치더라 카는 그런 전설을 들었어요. [청중: 호랑이가 인제, "아유, 곶감이 내 카마 더 무섭는 갑다." 아가 떨꺽 끈치니께네, 그래이께네 인자 호랑이가 그랬대.]

[연제구 설화 5]

마누라를 먼저 구한 남편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벼랑 끝에 마 인자 우째 머리를 감았던가? 우째던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저거 올케하고 시누바(시누이) 하고 그래 떠내려가는데, 인자 신랑 되는 사람이 딱 보이끼네, 세상 저거 마누라를 건져 올렸다 카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연제구 설화 6]

혀가 짧아 우습게 된 말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옛날에 인자 쌔 짜르기(혀 짧은) 그 하던 사람이 도리깨를 두드리고 있으니,
“앞집에 지수씨도(제수씨도) 내 손만 바래고.”
하는데,
“뒷집에 내 손주도 내 손만 바래고.”
막 어째 어째 캐샀다가 쌔가 짤라놓으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 잊아뿠어.

[연제구 설화 7]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스님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옛날에, 옛날에는 저 소가 들에서 일로 하몬 소죽을 낋이가지고, 낋이가지고 옛날 뭐 우리 실지로 보지는 안 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이고 가는데 오줌은 매립고(마렵고) 또 보따리 들었제. 그 할라 하이 엉거주춤 하이 오줌을 누이께네, 스님이 지내가다가, 지내가다가 봔(본) 모양이라. 눈다고 누이 마 끼 구녕(게 구멍) 마 그다(그곳에) 누뿠어. [웃음] 그래가지고 끼가 그다 마 물어띠뿠어.

그러고 있으이 앉지도 몬 하고 서지도 몬 하고 그라이께네, 스님이 가다가 기가 차서라 나 발로가 부니께네 떨어지더라 카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조사자: 그래가 내가 중 생활 십 년 만에 뭔 나발 불기는 처음이다.] [조사자 웃음]

“중생 짓 십 년만 해도, 따른 거는 다 불어도 씹나발 불기는 처음이다.”

카대. 그런 문제는 있어.

[연제구 설화 8]

방귀를 잘 끼는 며느리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이 메느리가 하도 방구를 잘 끼쌌어로 시아바이는 옛날에 밥상을 떠받챠 갔다 아이가. 그

래 우째가 저, 저 가다 가다 마, 마 상을 놓다 뽁 끼뿠어. 그래 시아바시가 한다는 소리가,

"조년도 똑똑이 년은 아이고 시아바이 앞에 방귀 낀다."

꼬,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연제구 설화 9]

시아버지 머리에 똥을 눈 며느리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옛날에 인자 논에 고동이 많앴거든. 이 많앴는데, 인자 딸로 치아놓고(치워놓고) 인자 딸집에, 사돈집에 간다고 가이, 고동을 이래 그거를 끓이가지고 그거 뭐꼬? 찜을 해가지고 마이(많이) 주더랍니더.

옛날에 재래 변소 아이가? 그런데 해필 이 할마이도 뒷심이가 없었던가 시아바이도 앉아 있는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것고 그것도 모르고 마 똥을 싸가, 시아바이 마 대가리에 그거를 해가 [웃음]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연제구 설화 10]

콩쥐 팥쥐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옛날에 콩쥐 팥쥐도 엄마가 서모. [조사자: 콩쥐 팥쥐 이야기 좀 해주이소. 처음부터. 옛날에.] 나도 다 잊아뿌고 그 다음 못한다.

콩쥐 팥쥐 서모가 살러 왔는데, 이 본처 딸이라. 콩쥔가? 팥쥔가? 그긴데. 어데 갈라 카이끼네,

"밑 빠진 독에다가 물로 항거(가득) 채와놓고 가라."

카거든. 그래 들다 보이끼네 또 둘러빠지고 없고. 물이 채이나 그? 밑이 둘로 빠지놓으이. 그래 한 번은 우째우째, 우째우째 그걸 하이 뚜꺼비가, 그 전설이건데 그렇지. 물독 빠진 데

다가 딱 엎드리가, 콩쥐 그 살릴라고 그랬겠지. 딱 엎드리가지고 그래 물을 항거 채워놓고. 그만치 서모가 별나다 하는 그런 전설이라.

[조사자: 그래 나중에 어찌 됐는데예?] 그래 뭐 자꾸 잘 돼가 그 했다 캤지. 지 자석은 가만히 놀라 놓고(놀게 하고) 이 본 마누라 난 거는 만날 밑꾸정 빠진 데다 부어놓이끼네, 둘러빠지놓이, 밑 없는가 물 길어 부놓으니까 한 가지라. 그래 인자 어느날 보이끼네, 뚜꺼비가 나와가 밑을 발라가('막아서'의 뜻) 그래 채아놓코(채워놓고) 이래. 그런 전설을 내가 들었어.

[연제구 설화 11]

영험 했던 영동할매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영동할미 쌀을 떠놓으면은, 고게 와서 새가, 참새가 와서 묵으면은 고기가 고서 구부러지더라 카는 영검은(영험은) 있었어요. [조사자: 바람 불면 딸 데리고 오고.] [청중: 그만큼 영검했다.] 비오는 날은 며느리 데꼬(데리고) 올라가고.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인자 다 잊아뿌고 모른다. 다 들었구만은.

[청중: 시아마이가 용심이 있어가 비 오는 날은 저 며느리 델꼬 오고, 또 뭐꼬? 그거 한 날은 딸 데꼬 내려온다꼬. 딸은 바람 부는 날 팔랑팔랑하이 올라가고, 다홍치마 팔랑팔랑 하라꼬 그래 딸 데꼬.]

[연제구 설화 12]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책만 보고 그라고. 그래 마 남자가 과거 하러 간 녁에 마 엉글이 나서 마 이래 훑다가, 나도 이제 뒷전에서 들었지 뭐뭐. [조사자: 그렇지. 그 이야기.] 그거로 내삐리고 딴 데 살러 갔는데, 이 남자가 과거를 해가 내려오이끼네, 말로 타고 내려오는데, 흥! 뭐라 카는고? 또 잊

아뿠다. [청중: “저기 저기 저 여자는 또 다시 훑네.” 카더란다.]

그런 문제는 있었고. [조사자: 그래가 우째 됐는데예?] 그래가지고 과거를 해가지고 말로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거 하이끼네 남자는 다시 재출발을 했다 이래 카대.

그래 인자 지가 그서 그 자리에 살았으면 과거를 해가 출세를 해가 참 부귀영화하고 살았을 낀데, [청중: 죽이라도 낋이주고 할라 카이 남편이.] 그랬으면 될 낀데, 그 미리 가뿌놓이까네 그런 허사가 돼뿠다.

[연제구 설화 13]

도깨비에 홀려서 고생한 사람(1)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옛날에 우리 저저 외갓집이 주촌 골짝이거든. [조사자: 주촌?] 아주 진진한 산만 그리 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그거로, 소로, 이래 산을 넘어서 넘어서러 인자 진영장에 소로 팔러갔어. 팔러갔는데 거는 높은 지대가 돼놓으니까네 항상 우산을 이래 들고 댕기는 갑대. [우산을 쓰는 시늉을 하면서] 옛날에 기담한(긴) 거로 이래 들고 댕기.

소로 팔았는데 밤중이 되도 안 오는 기라. 안 옸어로 인제 우리 외삼촌들이,

“아부지요-.”

카면서로, 꼴짜기로 꼴짜기로 넘어가 보이께네, 마 마 하늘에서 ‘우지지직’하고 마 비가 올 겉이(올 것 같이) 그러는데, 이 우리 할배가 정신을 잃은 기라. 술로 먹고 돈 보따리는 얖구리(옆구리) 차고 이래 오는데, 뒤에서로 이리 우산 이리 울러메고 오이까네,

“영차. 영차.”

카고, 이라는데 뭣이 그랬는지? 그래 막 혼을, 신발로 해가, 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리 갔던 질로(길을)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밤새도록 밤중이 되서 우리 인자 외삼촌이 찾아 올라가니 그 모양이더랍니다.

그래 집에 데꼬 와가(데리고 와서), 돈 보따리는 뭉치가지고 배에다 차놓으니 잃어뿌지는 안 했고 그래 집에. [청중: 토깨비다.] 예. 토깨비 뒤에서,

“영차. 영차.”

카고 이라더랍니다. 귀에 듣기더랍니다. 술이 깨가 그리 말로 하는데.

옛날에 그런 문제가 마이 있어가지고. 그래 돈은 우째 영감쟁이가 뺏기지는 안 하고 그리 왔는지, 그래 호깨비한테 홀치가 한 삼 년 살디만은 죽어뿠어요. 그래 돼뿠어. [조사자: 도깨

비한테 홀리면 죽는다는데예?] 예. 삼 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 그기 있었어요. 우리 엄마 인자 아부지 아인교?

[연제구 설화 14]

도깨비에 홀려서 고생한 사람(2)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밤새도록, 저저 술로 묵는 사람을 밤새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촌에 우리 그서도 그런.

젊은 사람 한 그때 한 40대 먹은 사람을 갖다가 저거 집에 간다고 가이께네, 또 먼데다 끄다주고(끌어주고) 밤새도록 왔다가 갔다가. 그런 거는 실제로 들었어요. [조사자: 마을에?] 마을에.

밤새도록 논에서 처박히고, 그하고 일났다가 갔다가 그래가 새벽나절이라서 그래 저거 집에 찾아갔다 안 카나.

[연제구 설화 15]

칠월칠석 기도

김금이(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옛날에는 자녀를 못 낳아서로 칠석날에 공을 들이면 그기 착- 이루고, 이루면 그기 몇 십 년 만에도 놓을 수 있긴 있었다고 하대.

[연제구 설화 1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덕선(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아바씨가 인자 저 뭐꼬? 저거 아바지를 지업아서러(지겨워), 그래 아들보고,
“지고 가라.”
꼬,
“지다 내삐리라.”
카이까네, 그 사람은 놔놓코 지게를 다부(다시) 지고 옸어 지게를.
“왜 지게를 안 내삐리고 와 지고 오노?”
카이, 그래,
“아부지도 후제(나중에) 나낳면 지다 내삐린다.”
고, 그래 아들이 그랬어. [청중: 그랬다고 하대.]

[연제구 설화 17]

누이를 마음에 품다 죽은 오빠

김덕선(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인자 누나를 델꼬 가는데, 뒤에서 동생이 보이까네 그기 생각이 나서러, 인자 누나를 차마 몬 건드리고, 돌캐다(돌에다) 내놓고 찧으니까네, 그 누나가 돌아보이께네, 그 얼마나 말이라도 할 꺼로, 인자 그래 그래 무슨 이야기가 있다 아이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연제구 설화 18]

손님을 귀찮아했다가 망한 집

김덕선(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인자 부잣집에 손님이 오는 거로 하도 구찮아여기고 그래싸이까네 그래,

"손님이 안 오도록 우째 할 수 없나?"

카이까네, 그 인자 도사가 그래 얘기를 해놓으이, 그래 하라 캐놓이, 그기 건드려 놓으이 손님이 안 오거든. 그래가 쫄딱 망허구 그랬다고 그래.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할매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연제구 설화 19]

도깨비에 홀려서 고생한 사람

김덕선(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그 뭐꼬? 시삼촌도 그래 술로 마이 자시고 [조사자: 그래갖고?] 그래 오는데 그래갖고 도깨비가 꼬랑창에다(고랑에다) 딱- 그거 해갖고 그래 그 질로 돌아가싰다 아이가. 연세가 많고 이래.

그래 초상집에 가갖고 술 자시고 오다 밤에 그래갖고 고마 돌아가싰다. [청중: 그런 기 많앴어요. 와 그렇노 카면? 그기가 이래 옛날에는 머슴을 이래 많이 살았다 아입니꺼. 가다가 술로 묵고, 겨울 되면 고 앉았다 카면 죽는 갑대. 그래 우리 핵교(학교) 가면서 이래 보면 언덕인데 밑에는 논이고. 딱 요래 그래가 있으니까, 그래 인자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 갱찰이(경찰이) 와서 그거를 델고 가는 거를 봤어요. 그런 것들이 혼신이 돼가지고 재수가 없으면 붙는 기라.]

[연제구 설화 20]

도깨비불

장삼선(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거제1동 한새경로당]

토깨비가 있어요. 옛날에 저저 막- 터가 이래 거한데, 거대한 데는요, 비가 올라 카면 구름이 꽉- 찌가(끼어) 있는데 우째 저저저 하다가 마, 그래가 불이 한 군데 탁 커져가 있다 여갔다 저 갔다 마 온 데를 쪼까댕기며(쫓아다니다) 마, 그 다음 되면 비가 악수로[41] 오는 기

라. 그런 문제가 있었어.

[연제구 설화 2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기후(남, 1942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고려장이라 카면 고려시대에 장사지낸 걸 고려장이라 캤거든. 그때는 어? 사람도 귀했고, 그곳에 뭐 사람들이 흔한 것도 아이고 이러니까네, 뭐 부모나 뭐 누가 죽으면 가까운 뒤에 산에 같은 데 가서, 지게 짊어지고 가서 내삐리고 뭐, 땅을 쪼깨 파가 묻어삐고. 전부 다 뭐 묏자리도 올캐(올바르게) 안 만들고 다 그리 핸 기라. 조금 전에 저 이야기 하다시피, 그 지게 짊어지고 묻고 난 뒤에 가(가져) 오이끼네,

"아부지요, 지게 가져갑시다요."

"와?"

카이까네, 저거 할아버지 묻고 지게 짊어질라 하이께네,

"저 지게 가(가지고) 가야 아부지 돌아가시면 또 내가 또 짊어지고 갈 것 아닌교?"

이라이께네, 그 다음부터 지게 짊어지고 가 내뻐리는 기 없어졌다. 이런 말이 있다고.

[연제구 설화 22]

수수께기(1)

김도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저- 뒷밭에 아 업고 있는 게 뭐인데? [조사자: 뒷밭에 아?] 아 업고 있는 거. 아나? 모르나? 그것도 모르나? 만날 좋아하면서. [청중 웃음] [조사자: 뒷밭에 아 업고 있는 기?] [청중: 지도 모르는 기.]

옥수수 아이가 답. [웃음] 뒷밭에 아 업고 있는, 옥수수가 아를 업고 있잖아. 뒤에 만날.

41) '억수로'(굉장히의 방언)를 잘못 말함.

[조사자: 아하, 그지예.]

[연제구 설화 23]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김도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마 빗자루 몽댕이 묶음 해놨어. 아침에 자고나서 가보면 그게 인제 무슨 꼬장빼이[42]에 피가 묻었다나? 뭐. [조사자: 고쟁이, 여자들 밑에.] 밤에 불이 뻔쩍 거려 잡아가 실컷 묶어놓으면 그 뒷날 아침 보면 빗자리나 뭐, 꼬장쟁이나 뭐 [청중: 토깨비다.] 도깨비가 눈에 뭐.

[연제구 설화 24]

수수께기(2)

김도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암만 무도(먹어도) 무도 배가 안 부른 기 뭐고? [조사자: 공기.] 아이다. 암만 무도 무도 배가 안 부르다. [청중: 뭣이?] 나이 아이가.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25]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스님

김도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42) 고쟁이(단속곳 밑에 입는 여자 속옷 중 하나) 의 방언.

스님이,

“나발 불어도 씹나발 부는 거는 처음이다.”

카더란다. 나발 푹- 부니 게가 그래 톡 떨어지든. 꼬치를 물았는데 게가. 그래 스님 지나가다가 나팔을 푹 부이, [청중: 어.]

“저 나팔 암만 불어도 씹나팔 불기는 처음이라.”

커더라 안 카나.

[연제구 설화 26]

개와 고양이

김도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할매가, 들었는데, 구슬이 저 마이(많이) 있어갖고 저따가(저곳에) 딱 옇놨는데. 이놈의 거 뭐, 주인하고 개하고 물을 건너다가 등거리에(등에) 첨벙첨벙 이란다. 아! 그 구슬을 내보면 뭐 어쩐다던가? 뭐 했는데. 물을 건너다가 개가 입에다가 그 구슬을 물고 가는데 등거리에 고양이가 업히갖고,

“물었나?”

“물었다.”

[웃음] 첨벙첨벙 가는 기라. [웃음] 첨벙첨벙 가면, 물에 첨벙첨벙 가는데 또 등거리에서,

“물었나?”

쿠먼,

“물었다.”

커이, 말로 하다보이 널쪄(떨어져) 떠내려가삤는 기라. 떠내려가삐이 [웃음] 저 다 건너가서 본께, 금마(그만) 입에 물은 게 없는 기라. 그래갖고 물 따라서 싹- 간께 그 놈의 구슬을 갔다가 고기가 잡아묵고 고기 한 마리 죽었더래. 그 놈 잡아 갈라터니께(갈라놓으니) 그 구슬이 있더라 카대.

구녕 안 뚫힌(뚫린) 구슬, 옛날에 이바구가 그렇더라꼬, 구녕 안 뚫힌 구슬이 뭐 그기 좋은 기라 카더나? 나쁜 기라 카더나? [청중: 구슬이 그래 또 뚫힌 게 오데 있노?] 그러께 그기 복구슬이지. 좋은 기지. 어쨌다더라? 할머니가 딱 옇놨는데, 밤새도록 쥐가 구멍을 뚫어갖고.

“저걸 갖다 가(가져) 오라.”

카이. 쥐가. 고양이가. 꼬양이가 쥐를 불러놓고. 이제 생각이 나네.

쥐를 불러놓고 할매집에 가면은, 저저 창고에 저게 구슬이 있는데, 그 궤짝 안에 있는데, 그 가서 뚫어가, 쥐가 구녕을 뚫어갖고 마 구슬을 내 왔는 기라. 그래 인자 그걸 갖고 강을 건너는데, 그래 요놈의 고양이가 등거리에 업히고 강아지는 첨벙첨벙 건너가는데 고양이가,

"물었나?"

카면,

"물었다."

쿠고, 말하다 보니 떠내려 가삤는 기라. 그래 울 어머이 그래 이바구 해샀더라꼬. 그기 이야기라.

[연제구 설화 27]

도둑을 보이게 하는 아주까리 기름 불

김도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우리 동네는 반장을 했는데, 반장하고 이장하고 그리 있었는데, 이 반장집에서 이장집에 있는 비료를 갖다가 마이 타다놨거든. 타다놨는데, 내 클 때다 그는. 타다놨는데 하룻밤은 인제 동네 인제 자고나서 다 배급을 주는데, 자고난께 비료가 없어졌어.

비료가 없어지이 인제 그 집을 갖다가, 우리 친구집 그 집을 갖다가 모두 다 지명을 하더라고. 근께(그러니) 그 바로 본 게 없은께로 가갔다(가져갔다) 소리 몬 하고.

아주까리 기름을 짜갖고 아홉 살짜리를, 아홉 명을, 각성받이를, 그 나이 아홉 살짜리 철없다 아이요? 각성받이를 이리 아들을 모아놓고, 아주까리기름을 딱- 이리 큰 독 안에다 옇어다놓고, 요런 그릇에 담아놔놓고 불을 키는 기라. 그냥 껌은 보재기 둘러씨아놓고(둘러씌우고) 지녁에(저녁에). 난 현실을 본 기라.

동네사람 다 모아놓고, 탁 하나썩 들이보네. 꺼먼 보재기 둘러씨고. 그 뭐 보이는고? 그런께 철이 없은께 뭐이 가는 게 비이는 갑더라고(보이는가 보더라).

"뭐이 간다."

쿠고,

"뭐이 간다."

쿠고. 그래 그 집에 가 디비더라꼬(뒤지더라고). 그래 디빘는데, 뭐 근게 비료를 갖다가 뭐 흙을 파고 묻어놨더이, 거름자리에 묻어놨더이 막 난리를 치고, 창대로가 디비고(뒤지고) 난리데.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꼬. 안 나오는데도 그 집을 이상하게 보대.

긍게(그러니) 아홉 살짜리는 그짓말(거짓말) 안 하는 기라. 뭣이 '저거 아버지가 지게에다 얹어 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꼬. 그런 걸 내가 봤다. 잔치하고 나면 잊어삐면 그런 거 하는 기라.

[연제구 설화 28]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

김도자(여, 1941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꼬꾸랑 할매가 꼬꾸랑 작대기 집고 꼬꾸랑 길을 가다가 꼬꾸랑 강아지를 봐서 꼬꾸랑 작대기 갖고 꼬꾸랑 탁 때리이 꼬꾸랑 개가,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연제구 설화 29]

용에게 판 아이

박영수(남,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내 이름이 어릴 때 아명이 일용이라. 하나의 용. '와 그리 됐느냐?' 라고 얘기를 할라 하는 기라 지금. 내 형제가 사형젠데 우에 둘이가 돌아가싰어. 저 젊은 때 죽은 거는 '돌아갔다.' 카노? 뭐라노?. 젊어서 때 죽은 걸 뭐라 그래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죽은 걸 뭐라 카노? [조사자: 요절했다.] 요절? [조사자: 요절. 요절.] 요절은 잘못 돼 죽은 거잖아? [조사자: 아니요. 요절은 어릴 때 죽은 걸 요절.] 그 카는가? [조사자: 예, 하늘이 무너진다고 '요' 자를 이렇게 하늘 천 자의 하나가 무너진다고.] 그래 요절인가? [조사자: 예, 요절.]

그래서 어른들이 인자 세 번째는 용한테 팔아야 된다. 옆에 금호강이 있었거든. 금호가 큰 - 언덕 밑인데. 낙화, 낙화암 비슷하게 마, 그래 인자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대로 낙화암 연상을 하면서 그래가 팔았어.

그래 그 용한테 팔았다 이기라. 그래서 일용인데, 어른들은 저저 그래 생각한다고. 우에 죽

으면 이름을 나쁘게 짓든지 그래 했잖아.

[연제구 설화 3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영수(남,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지게를, 그 지게를 놓두고 가거든. 지게를.
"와 지게를 놓두고 갑니까?"
카이,
"다음에 또 와가지고 모시고 갈라꼬, 쓸라 칸다."
이기라.

[연제구 설화 31]

꼬부랑 할머니

신말필(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제2동복지센터경로당]

꼬꾸랑 할마이가 꼬꾸랑 짝대기를 들고 꼬꾸랑 나무에 올라가려다,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연제구 설화 3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강판순(여, 미상[43]) 구술

43) 제보자가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음.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현경로당]

애기가 하도 울고 울고 해서 아무리 뭘 줘도 안 끄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꽂감을 하나 꺼내가지고서는

“아나 꽂감 먹어라.”

이러니까는 딱 그치더래. 그래 그때 고양이가 와서 보니까 ‘아, 꽂감이 젤로 맛있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런 전설 이야기.

[청중: 아이(아니), 꽂감이 내보다도 더, “꽂감 하나 주면 안 잡아 묵제.” 이래 됐다 카더나? 그래갖고 호랑이가 생각을 하기로 ‘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꽂감이 내보다 더 무섭구나.’ 이랬다 쌌던대.]

[연제구 설화 33]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

노선자(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현경로당]

옛날에 저 저 저, 그러면 내 이야기 한 자리 할께. 어떤 호자(효자)가 살았어. 저거 엄마를 짊어지고 고래장 하러 갔는 기라. 산으로 저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자석은 부모를 갖다가 인자 업어다가 고래장하는 시댄께네 고래장 할라고 갔는데, 부모는 자식이 내려가는 것도 아깝어가지고, 다칠까 싶어가지고 솔잎을 똑똑 떼가 흩더라 쿠대. 그런 이야기 할라 쿠이 목이 메인다. 그래 솔잎을 흩이니까, 저 저 아들이 영문도 모리고,

“왜, 엄마 솔잎을 왜 훑냐?”

고 이라이까네,

“니 내리갈 때 길 잊어삘까 싶어서 그래 한다.”

고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런께네 부모는 자석을 그만큼 위하는 기라. 자석은 부모를 갖다가 고마 시대 따라서 업어다 저 산에 갖다 놔버리라(내버리라) 쿠면 놓고 하는데. 그만큼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 들어본 적이 있다.

[연제구 설화 3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노선자(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현경로당]

지게는? 그래 그런 소리는 하더라 참. 지게를 내빌고(내버리고) 갈라 쿤께네,
"가 가자."
꼬.
"와 가 가노?"
아들이 이라이까네
"아부지도 난주(나중) 다시 저 저 저 연세 많으면 내 또 지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고, 그런 말 하더라 쌌대.

[연제구 설화 35]

견우와 직녀

노선자(여, 미상)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거현경로당]

[청중: 칠월 칠석날 다리를 놓아주면 그기를 밟고 가다가서는 응? 머리가 이래 헤어졌다고 안하나. 빠졌다고.]

견우와 직녀가 서로 헤어져가 있는데 이 다리를, 다리가 없어가지고 만나지를 몬 하는 기라.

"그리 칠월 칠석날 되면은 함(한 번) 만나자."

이래갖고 그 까치가 다리를 놔줘갖고, 그래 견우 직녀가 이쪽서도 오고 이쪽서도 와가 이 까치 머리를 밟아가지고 그래 까치 머리가 벗겨졌다 카대. [청중: 머리가 빠졌다고 하대.] 머리가 빠졌다 카대.

[연제구 설화 36]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강녀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아가 자꾸 울어샀는데
"꽂감 주꾸마."
긍께, 아가 딱 그쳐가 호랭이가 마 '뭣이 이리 무서운 게 있나?' 싶어서 마 달려가더란다. 놀래서.
"꽂감 주꾸마."
이러니, 아가 달칵 끈치놓은께.

[연제구 설화 37]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강녀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조사자: 이 애를 줄까? 저 애를 줄까? 하다가 결국은 그 말 때문에. 그 이야기 좀 해주이소.] [청중1: 그래갖고 에밀레종 됐다.]
나는 들었는 얘기 있다. 그 아를 갖다가 자꾸 억지로 내싼끼네(내보이니까), 해필 또 그때 시님이(스님이) 시주하러 왔어.
"우리 아를 가주면(가지면) 할까? 아무 것도 시주할 끼 없다."
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가 시주로 가야 되는 기라. [청중1: 시주를 준다 캐놓이.] 아들 자꾸 울어쌌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달가지이끼네(안 달래지니), 시님이 그 집 시주를 하러 오이께네 그리 쿠더란다. 나도 잘 모르겠다 오래됐어.
"우리 아무개를 줄까? 뭐로 줄꼬? 줄 끼 없다."
이렇게 했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논께네 그 아로 바쳐야 되는 기라.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청중1: 중이 안 가고 있으이까네 바쳐야 돼.] 하모. [조사자: 그래서 받쳤습니까? 할머니.] 그래 받칬단다. 우짤 끼고? [청중2: 바쳐갖고 그게 에밀레종이 됐는 갑대.] [청중1: 그래 맞다.] 응. 그래가이고 종을 치면 와? 절에,
"에밀레, 에밀레, 에밀레."
애미, '우리 애미가 들어서 낼로(나를) 이래 했다.' 이런 소리란다. '에밀레' 하는 그기. '우리 엄마가 들어서 낼로 이리 했다.' 쿠는 그 소리란다. [웃음] 그래 에밀레종이라 쿠대.
그래 이기 종을 탁- 치몬,

"에밀레, 에밀레."
그리 한다. 인자 듣기를 그리 듣기요.

[연제구 설화 3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강녀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인자 할배로 갖다가 오래 돼서 인자 세상을 베맀는데(버렸는데), 그래 인자 손자를 지아가 이고 갔, 가서 참 고래장을 했어. [청중: 지고 가는데 솔이파리를 때갖고 하나 하나 끊는다 한다.] 그는 모르것고. 그리 했는데, 그래 그 지게를 갖다가 버릴라 쿤께네 아들이 한사코 지고 오는 기라. [청중: 지게 가가야(가져가야) 된다고.]
"이 지게를 내뻐리라."
쿤께네,
"안됩니더. 집에 가가야 됩니더."
그래,
"내삐리놔라."
캐도, 똑- 그래 가오면서,
"뒷구멍 얹어놨다가 아부지 세상 버리면 이 지게 갖고(가져가) 지고 가야지요."
그렇게 해논께 참 놀래서 가서 파가 왔단다. [청중: 지게를 갖고가 그래 엄마를 덱고(데록) 왔다. 그 말이 있다.] 어마이를 파가 왔단다. 아들이 그러 쿠니, 자기도 그래 하면 그래 하겠거든? 응.
"아부지 세상 베리면(버리면) 이 지게가 지고 가야 될 것 아입니꺼?"
뒷구멍에 딱- 얹어 놓으면서로 그러 쿠더란다.
그래 아바이도 ' 아, 그런 갑다.' 싶어가 놀래서 갔어.
"가자. 할미 파가 오자."
그래 파가 왔단다.

[연제구 설화 39]

눈물을 받아먹고 사는 상사뱀

강녀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뱀이가 상사가 붙어가 와갖고 꼬랭이를 새까리 사이에[44] 요래 딱 붙이가 요래가 따앙(땅), 그래 세수하러 간다꼬,

"내리시오,"

하몬, 따앙 내리오고, 또 갔다 오면 따라 올라 붙고,

"밥 묵는다."

고, 밥 묵을라 쿠면 또 내리고. 그래가 그기 상사뱀 오면 상사라 해.

[조사자: 그라면 어떻게 뗍니꺼? 상사뱀.] 나는 모르고, 우짜는고 그는 모린다. 그래가지고 인자 이래 딱 붙이가지고 눈물 흐르몬 눈물 빨아묵고 그런단다. 그리 했단다.

[연제구 설화 40]

죽어 뱀이 된 시어머니

강녀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시아마이가 세상을 베맀는데 한 사나흘 되서, 한 사나흘 되서 인제 쌀 뜨러 간께 뭣이,

"째끼째끼, 째끼째끼, 째끼째끼."

그래 쌋더란다. 쌀 째끼(조금) 내가라꼬(내어가라고). 며느리 쌀 내러온께,

"째끼째끼, 째끼째끼."

해샀어 '뭣이 이라는고?' 싶어서 넘어다 보니까, 창창 감아가 뱀이 돼가 왔어. 그래 쌀통 지킨다꼬.

"째끼째끼."

하더란다. 그래 놀래가이고 [웃음] 인제 며느리가 아들한테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그래 놔두고 안 되거든. 그래 인자 뚜꾸러미다 인제 담아가지고 지고 귀경(구경)을 몬 하고 했다꼬 귀경 시킨다꼬 온 천지로 절마다 댕기면서로 귀경 시키고,

"어머이, 여 귀경하이소."

쿠고. 귀경 시키고, 지고 댕기면서 그래 실큰(실컷) 해가지고 인자 우쨌다 쿠던가? 모르겠다.

44) 사타구니 사이를 말함.

[연제구 설화 41]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강녀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 경로당]

그래 지랭이를 인자, 아무 것도 해 볼 거 없고, 신랑은 인자 배 타러 가뿌고 없고, 그래가 인자 해줄 거는 없어서 지랭이를 참, 그것도 정신 아이가? 하는 거로 생각하면. 잡아다가 꾸우가이고(구워서) 저그 어메(엄마) 주니까,

"하이고, 이게 뭣이 이래 참 맛있다."

쿰서로,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마 뭣을 안 하고, 자리 밑에 하나 옇코 하나 묵꼬. 그래 난중 본께네 누가 온께네,

"아유, 이 얼매나 메늘로(며느리가) 맛있구로 해줘서 잘 묵었다고 이거 뭔고 보라."

쿤께네, 그 인자 보는 사람이 놀래갖고,

"이 지렁이, 거시기."

라 쿠면서 그랬는데. 그래 그 놀래서 눈을 퍼뜩 떴는 기라. 이 할마이,

"거시기라."

꼬, 그런께 눈을 막 퍼떡 그래,

"으잉!"

떴더라.

[연제구 설화 42]

저승 갔다 온 시어머니

강녀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저승 간께네 시어마이도 있고 시아바이도 다 있는데 시어매가, 내나 옛날에 촌에 하는 거메이로(처럼) 베 메고 그라더라 쿠대. 베로 메고 하는데, 그래가 있다가 마 고마 노올라(나오려고) 쿤께네, 노올라 쿤께네 노올 길이 있나? 길이 없어가지고 앉아있으게네, 그 강에다가 재롭(저릎)을 동동 띄아주면서,

"가라."

쿠더란다. 그 재롭 고거를 탁 디디께네 마 톡 널찌게네(떨어지니) 이승이라. 그런 것도 있더라. [조사자: 재룩이 뭔데예?]) 재룩된 거. 그 전에 자네들은 모른다. [조사자: 재롭이 뭔데예?] 삼. 삼 삶는 거, 할매들 이 삶아가지고 이 베 짜고 안 하던가 가배. 그기 벳기(벗겨) 낸 기 재롭이라. 재롭이 하얗이, 젓가락마이(젓가락처럼) 기담하이(길고) 안 하나? 길쭉하이.

그래 갈라 쿤께네 그거로 갖다가 물에다 당당 띄아주민서로,

"가라."

쿠더라 카네. 그래 그걸 딛고 일라선께(일어서니) 그건 뿔라진다(부서진다) 아이가? 그래 물에 빠진께(빠지니) 고마 이승이라.

[연제구 설화 43]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강녀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옛날에 총각이, 참 신랑이 일은 안 하고 공부도 한다꼬 공부를 하는데. 각시가 묵고 살 끼 없으니끼네 논에 온 천지 댕기면서 갱피를 훑어. 갱피가 뭔고 쿠면? 피, 피. 피 이래 모당모당 하이 올라오고 안 하던가배.

그래 그거로 인자 훑어가지고 저 마당에다 늘어놓코 또 훑으러 갔는데, 소내기 와갖고 이 공부한다고 들다 보고 그걸 안 주우 나 떠내려가도. 안 주놔놓은께, 갔다 온께는 마누라가 올매나 성이 나노? 성이 나가지고 막 뭐라 쿠다가 안 된께네(안 되니) 마 딴 데 고마 가삤어. 신랑은 놔두고. 가삐가(가버려), 그래가 인자 참 우째 해가지고 신랑은 서울에 가 감사가 돼가 서울 갔어. 시험을 쳐가 감사가 돼가 말로 타고 내려오니, 저 또 본께네 저거 마누라가 논에서 갱피를 훑어.

그래 인자 신랑이 노래를 그래 부르더란다.

"이내네는 뭣이가 복이 없어."

저저,

"나는 경상감사 내 나간다."

고, 그래 노래를 부름서(부르면서),

"저 여인네는 복이 많아 간 데쩍(간 데마다) 갱피로 훑으네."

그런 노래를 부르더란다. 그래서 돌아본께 신랑이라. 고마 따라갈라꼬 마 올라붙으니 오구

로(오게) 하나? 오구로 안 하는 데도 자-꾸 갈라 쿤께네 하는 소리가,

"니가 정 내한데 올라 쿠커든, 말로, 말 발자국 쫑가가(쫓아서) 오라."

쿠거든. 말 발자국 우찌 쫑가갈 꺼고? 말은 발이 네갠데. 이마친서(이만큼) 굵기도 꽤 나온다 아이가? 그 재죽을(자국을). [청중: 말 다리를 쫓가오라 한다. 말 재죽을 딛고 오라 말 맞제?] 응.

"말 재죽을 쫑가가(쫓아서) 오라."

카더란다. 그래도 내 못하라 쿤께네,

"말 물이나 찔러주마, 소 물이나 찔라주마 내 따라갈란다. 그래도 따라갈란다."

고 한께네, 그래도,

"말 재죽을 쫑가가 오라."

쿠거든. 쫑가가니까 사나? 쫑가가나? 그래 참 쫑가가다가 다리가 째지가(찢어져) 죽었단다.

[연제구 설화 44]

소 행세를 한 아버지

강녀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그래 참- 엄마도 죽고 인자 없고 형제간들 하고, 딸이, 가년찮은[45] 딸이 있는데, 자꾸 저 그 아베가 딸로 손을 댈라 쿠는 기라. 그런다 쿤게, 그래 인제 그란께 딸이 인자 꾀를 냈는 기라.

"아부지, 정 그래 할라 쿠거든, 내가 아무도 산 끝에, 산마루에 앉았으니끼네, '음메, 음메' 하고 오라."

꼬, 그러께네 그 소리 듣고 그,

"음메, 음메."

하고 올라오더란다.

"음메, 음메 하고 올라오라."

고. [청중: "음메, 음메" 하면서 소 행사를(행세를) 했어.] 어. 아버지가 소다 그기라. '소니까나(소이니) 소 소리를 하고 나인데(나한테) 올라오면은 들어준다.' 이기라. 그래 참 올라오더란다. 그래 이마치 올라오는 걸 고마 치매(치마)를 두르고 마 탁- 널찌서 고마 즉사를 해 죽었어. 저거 아버지 보는 앞에. [청중: 딸이.]

45) 딸이 성숙했다는 의미.

[연제구 설화 45]

산 사람을 천도하는 예수재

이차임(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절에 이제 예수재 하는 데를 가놓이, 이제 예수재 마당에, 예수재 마당에 가니까 예수재 하는 거 다 산 사람 올리놓고 예수재 하는, 그런 비는 게 있거든. 그래갖고 그 마당을 다들 돌고 그 예수재가 다 끝나고 나이까네, 뒤에 있는 마 히꼽아서 돌아보이까네, 엄마가 그 뱀이, 뱀이가 돼가 그랬다더만. 뱀이가 허물을 딱 벗고 갔부고 없더란다.

그마이(그렇게) 예수재가 좋다는 기라. 절에 예수제가 참 좋거든. 우리 산 사람 죄진 거 이런 기 마이 땎으몬 사라지고.

[연제구 설화 46]

상사바위

이차임(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옛날에 저 장수골이라 카는 데 그 우리가 살았는데, 개골산 밑에. 근데 그는 상사방우(상사바위)라꼬 있어. 있는데 처녀하고 총각하고 이래 그 했는데, 총각이 너무 그 처녀를 좋아했는데, 시방 요량하면 연애를 했으면 될 낀데 안 하고.

처녀는 인자 총각이 그렇게 그래 좋아하는 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총각이 마 죽었는 기라. 죽었는데 배암이(뱀이) 돼갖고 처녀한테 창창 감아갖고 있었어. 아무리 그 배암을 뗄라 캐도 몬 떼서, 저 나무에 걸고 이쪽 나무에 걸고. 이래갖고 인자 배를 걸어놓고, 그래갖고 마 줄을 팍 끊은께 그 밑에 소(沼)라. 그래 인자 둘이 한테(함께) 죽으라고 줄을 팍 끊었어. 근데 그기 상사방우라.

[연제구 설화 47]

달래강의 내력

이차임(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달래강. 물을 건너 인자, 또 왔나? [웃음] 오빠야가 업어야 되는 기라. 안 업고 여자는 못 건네. 못 건네니까 할 수 없이 인자 오빠가 업었는 기라. 오빠가 업으니까 이 인자 젖하고 아랫도리 이기 고마 마음이 싹 바끼삤어(바뀌었어) 오빠가. 마음이 싹 바끼가지고는 마 도저히 안 되는 기라.

안 돼가 딱 내라 건지놔두고는, 오빠가 '내가 이래갖곤 안 된다. 오데 형제간한테 이런 짓을 해가 되겠노?' 싶어가지고 그래 그 물에, 그 바우에다가 언져놔놓고(얹어놓고) 그걸 쪼사뿠는 기라. 그래난께네 이 동생이 한이 돼가지고,

"말이나 해 보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청중1: 참말 그랬는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기 노래가 있다. 1절, 2절 다 있거든. [청중2: 말이나 해보고 죽지. 대나보고 죽지 쿤다 안 하나.] 그래가지고 그거 한이 맺힌 노래가 있어 마. 오빠가 마 그래 건너가다가 그래가지고 그랬다 카는 그 노래가 있다.

[연제구 설화 48]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스님

이차임(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옛날에 그 일꾼 대갖고 모심기를 하는데, 그 집 아지매가 소죽을 낋이가지고 이고 가는 거라. 이고 가이 난데없이 마 오줌이 되게 누럽아가지고(마려워서), 그거로 몬 참아가지고 내루면은(내리면) 몬 이니까, 인체로 인자 앉아서 이래 누니까네, 그거 뭐 끼가(게가) 나와갖고 뭐 밑에를 물어뜯삤는 기라. 물어뜯삐난께네(물어뜯기니),

"아야코!"

가암을(고함을) 지르니 스님이 오거든. 스님이.

"사람 살리라."

꼬 가암을 질렀는 기라.

"사람 살리라."

꼬, 가암을 질러가지고 스님이 와서 보이, 들다보이끼네 그 모양이거든. 사람도 살려야 될 끼고 마 들다보이끼네 그 모양인께네,

"내 나이로 이리 댕기도 끼가 뭣이 날랑가리 물고 흔드는 건 처음 봤다."
카더라. [일동 웃음]
"보지 날개 물고 흔드는 건 처음 봤다."
카더란다.

[연제구 설화 49]

곶감 소리에 울음을 그친 아이

조영자(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호랑이 여 아가 울먼은 호랑이가 오가,
"꽂감 준다."
하면, 아가 덜컥 그친다 안 하더나.

[연제구 설화 50]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

조영자(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할무이가 인자 고래장을 가시는데, 그래 아부지가 그라몬 지고 가나? 아들이 지고 가나? [청중: 아들이 지고 간다.] 그래 가면서 솔이파리를(솔잎을) 하나 떼갖고(뜯어) 땅에 훑고, 또 가다가 이 손에 대댕기면(닿으면) 따갖고 훑고 그란다. 그래,
"할머니, 와 그라냐?"
카이까네,
"솔이파리 이거 보고 니가 찾아가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훑는다."
카더란다.

[연제구 설화 51]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줄 아는 호랑이

조영자(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거제2동 청포경로당]

밥을 묵우면서(먹으면서) 마 호랑이 새끼 막 예쁘다고, 호랭이 새낀 줄 몰랐겄지. 그래 예쁘다고 밥을 주고 뭐 하고 이란께, 만지고. 저게서 애미가 보고 좋다고, 지 새끼 좋구로 한다꼬,
"허흥."
하더란다. 그래 치다본께 호랭이라. 우리는 놀래서 칼이고 뭐 뭐 바구니고 신이고 뭐 버신 뭐 벗어삐고 왔어. [청중: 호랭이도 지 새끼 좋아하면은.] 하모. 그걸 해꼬지를 했으면 큰일 난다 캐. [청중: 잡아묵을 낀데.]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신이니 벗은 거 칼이니 내삐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 자고난께 하나도 안 바뀌고 샅 밖[46] 딱딱 갖다놨더란다. 바구니도 탁탁 갖다놓코, 칼이고 뭐 말건(모두) 다마 딱딱 지끔이(제각각) 하나 배끼도(바뀌지도) 안 하고 딱 딱 그래 놨단다.

[연제구 설화 52]

애장터

석말식(남, 194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 경로당]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애가 죽으면은 가가지고 소쿠리 한 개가 있어요. 이 푸는 소쿠리, 그 산에 저저 싸리빗자루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파가지고 고거를 인자 애, 약간 인자 파가지고 고거로 딱 덮어가 돌 가지고 이래.
그런 기 우리는 숱하게 봤어요. 옛날에는 애들 잘 죽는다 아입니까. 뭐 병 걸리먼. [청중: 옛날 못 같은 데, 그런 데 그냥 이래 싸가(싸서) 버리고 그렇게 많이 했다.]

[연제구 설화 53]

46) 대문 밖을 말함.

산에서 돌을 던지는 귀신

석말식(남, 194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귀신이 옛날에 이 강을, 부부간에 인자 저 강에 갔는데, 강에 인자 옛날에 지금은 다슬기라 합니다. 다슬기 주우러 갔는데, 부부가 이쪽저쪽에서 인자 다슬기를 줍고 있는데, 저쪽서 산에서 무슨, 뭐를 돌을 던지는 그런 기운이 있더래요.

돌을 던지는 게. 돌을 던지면 물에 풍덩풍덩 하거든요. 그서 몇 번을 그래서 아무리 봐도 사람은 없는 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카냐면,

"옛날 어른들이 귀신이 있다 카더만은 저 산에 귀신이 있구나."

이래 결론을 냈는 기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동네에 내려가 인자 나 많은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 기 있었대요. 그 귀신이라는 게 있는데.

[연제구 설화 54]

산에서 돌을 던지는 짐승

석말식(남, 194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실제로 내가 겪은 긴데, 초등학교 내 고향에서, 저 경주 산내 아주 골짜긴데, 그 내가 그 십리 길을 4킬로를 걸어서 내 육 년 동안에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옛날에 국민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자 졸업하고 인자, 옛날에도 동생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윗동네하고 한 열 키로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는데, 윗동네도 있고 우리 인자, 내 인자, 우리 밑에 동네에서 새 친구가 인자 윗동네 동기들을 만나러 간 기라. 그기 밤이라. 낮에는 못 다닙니다. 옛날에 전부 일 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적어도.

그래 밤에 내려오는데 그 높은, 큰 높은 바래산에서 돌을 던지는 기라. 그래 캄캄하니까 사람은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나중에 들어보이, 뭐 귀신은 아이고 뭐 늑대라든가 뭐가, 뭐가 돌을 던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연제구 설화 55]

비녀로 호식을 면한 효부

석말식(남, 194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그래 효부가, 효부가 길을 가다가 잡아 먹을라는데, 옛날에는 비녀를 다 꼽고 있었거든. 시아바씨하고 가는데 호랭이가 물라꼬 입을 벌리는데, 뭐 할 게 있어? 할 게 없어가 마 탁 빼가지고 입에 탁, 호랭이가 입을 딱 벌리니까 딱 바칬다대. 이래 딱 바치니까 호랭이가 못 잡아 묵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연제구 설화 56]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현정수(여, 1955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인자 한 십 리 길이 되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가 인제 술을 잡숫고 이래 오시는데, 도깨비가 막 홀려갖고 마, 늘 진짜 마 헤매다가, 밤새도록 헤매다가 어떻게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일나서 도깨비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자고 일나서 보니까 그게 빗자루란다.

옛날에 그 빗자루로 쓰던 거 있잖아? 그거더래. 그거를 마 껴안고 그거하고 그렇게 싸웠대. [웃음]

[연제구 설화 57]

불길한 여우 울음

현정수(여, 1955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거제4동경로당]

옛날에는 시골에 그 보면 이런 것도. 우리도 앞산에 산에 이래 이래 있는데, 그 우리 동네에 무슨 큰일이 딱 생기면 그 산에서 야시가(여우가) 울어. 야시가 딱 울고나면은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큰- 불이 나거나 그런 기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참 그 야시가 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랬다꼬, 우리 동네 그도. 그런 게 많았어. 그래 꼭- 큰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 야시가 와서,

"깽, 깽."

[연제구 설화 58]

지렁이국으로 시아버지를 봉양한 며느리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인자 호부시아바시(홀시아버지)로 이래 모시고 있다가, 인자 아들이 인자 저 한양을 과게(과거) 하러 가뿠는 기라. 가면서,

"임자, 임자. 어떻게 아부지를 모시겠노?"

카이까네, 그래,

"서방님,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나는 뭐를 하더라도 내가 할끼니까 가라."

이래 보내놓고 나이, 참 들에 가가 풀로 뜯어가서 삶아묵고 이래도 안 되고 이래가 하도 묵을 게 없으니까네, 이래 밭을 메이까네 지랭이가 누래이 이리 굵은 기 나오거든. '하이고, 그 하겠다.' 싶어 그 놈을 인자 가와가(가져와) 매 씻어가 탕에다 끓이가지고 한 그릇을 주이까네,

"아이구 야야, 애미야."

눈이 어둡어. 봉사라 시아바시가. 봉사라 놓으니까네,

"야야, 이거 뭣이 이래 구수하이까네 영양탕을 주노?"

카고. 그래 인자 그거로 묵꼬. 인제 옛날에는 자리가 아이고 샅자리 아이가? 그 대로가 잇은 자리. 한 바리(한 마이) 인자 고거를 딱 해가 메느리 몰래 샅자리 밑에 옇어놓고, 또 줄 때 마정 고놈을 샅자리 밑에 옇어놓는 기라.

그래 여놓고 인자 그래가 만날 그러니까네, 참 시아바지가 마 지렁이를 믹이놓으니(먹여놓으니) 살이 찌가 허옇이 이래가지고, 메느리 인자 짭질받아놓이[47] 옷도 잘 입히고 이래 놓으니 허얘(하얗다). 자꾸 떨은(떨어진) 옷이라도 자꾸 갈아입히고 해놓이, 그래 아들이 참 과게

47) 살림살이를 야무지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

를 해가 오 보이(와서 보이) 저거 아버지가 막 허옇이 살이 쪄가 마 참 좋거든.

"아이구 아버지, 아버지, 임자가 뭐로 해줬는데 이래 살이 쪄가 아부지 참 보기 좋다."

이라면서로 그래,

"임자, 어떻게 해 믹있노?"

카이,

"서방님은 믹이는 기야 마, 아버님 믹이는 기야 마 알아서 믹있으니까네 걱정 하지 마라."

이래 놓고는, 메느리 인자 나가고나이까네, 야야 인자 눈이 어둡어 놓으니,

"야야, 니 오먼 비울라꼬(보이려고) 이래 딱딱 모아놨다."

인자 자리를 들시니까네 지렁이가 말라 붙어가 마 꼬들꼬들 해가지고 지렁이가 수북 있거든.

"아유 아부지, 이거 지렁이 아이가?"

카이, 온캉 눈을 번뜩 뜨더란다. 원캉 메느리가 효자 짓을 해놓으이, 그래 눈을 퍼떡(번쩍) 떠놓으니, 그래 메느리 인자 연구를 하다가 인자 밭에 참 나오니까네, 그래 믹이가 메느리가 시아바지 눈 뜨고, 그마이(그만큼) 메느리 효자 짓을 하이 시아바이 눈도 뜨고. 시아바지를 그 해가, 그래 그렇더라고 그래.

[연제구 설화 5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에밀레종, 그거는 그래 그것도 길음사(기림사) 우에 저저 그거 석굴암. 석굴암 이거든. 그게 절 이름이. 석굴암 그 가면 종이 있어. 아직 그 종이. 그래 우리도 석굴암 자주 가고 그랬지만은.

그래 인자 참 스님들이 그거로 하니까네, 인자 시주를 이래 인자 하러 댕기이, 종을 만들러 카니까네 그게 없어. 인자 종을 만들라꼬 시주로 스님들이 가이, 그래 이 집에도 인자 딸만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모두 다 마 숟가락이고 뭐고 쌀로 다 주니까네, 아를 또 어루고 여자 이기 방정시럽게 인자 어?

"아이고, 스님들 시주 하러 왔구만은 나는 아무것도 주 꺼 없고 내 딸베끼(딸밖에) 없다."

하면서로,

"아무것도 줄 거 없고 내 딸 하나밲에 없다."

이랬는 기라. 그래가 가가주고 참 인제 그 종을 만들어도 울리지를 안 하는 기라. 아무리

뚜디리(두드려) 맞차도. 그래 어느 인제 도사가 그래,

"그 아를 갖다 옇어야 인자 울린다."

하는 기라. 그러니까네 인자 이거를 누가 자슥을 줄라 하나? 그 불꾸디기(불 구덩이) 옇을라 하나? 그래 안 주고 있으이, 그래가지고 인자 얼마나 그거를 해가주고 참 그 아를 사가 갔는 기라.

"안 그라면 안 된다."

카고, 인자 이 우리 말하자면 요새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이 되나 놓으니 그래가 아로 갖다가 그걸 해놔놓으니까네, 갖다 옇어가 하이까네, 그래 천 명을 모아도 그 종이 안 돼가 그 아로 갖다 옇으니까네, 그래 인자 종을 치니,

"에밀레, 에밀레."

카며, 그 종이 저 일본 놈들이 갖고 가다가 바다에 빠쟈뿠다 아이가. 옛날에 일본놈이 뚱쳐(훔쳐) 가다가 석굴암서로. 그래 그 빠졌는데 그 종을 결국 몬 껀지고 대신에 그 종을 만들어 놨다 이라더라. 석굴암 가면 큰- 종을.

[연제구 설화 6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옛날에 그거는? 칠십에 고래장이라꼬 그거는 온 천지 다 아는 기고. [조사자: 그 이야기 좀 해주시소.] 그 이야기야 모두 다 알 낀데 뭐. [조사자: 그래도 좀 해주시소.]

그래 저저 옛날에 인자 노부모를 인자 자식이 데꼬(데리고) 사는데, 데꼬 사이까네, 인자 참 국가에서러 인자 칠십에 고래장이라. 칠십만 되면 무조건 산에 갖다 버려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네 인자 이 자석이 돼가 부모를 갖다 버릴라 카이 참 원통하다 아이가? 그래도 국가에서 그라이까네 할 수 없어가, 그래 인자 그 아들이 참 인자 지게에다가 인자 어마이를 안추고(앉히고),

"엄마, 저 바람 쐬러 갑시더."

카면서, 지게를 가가(가져가) 한 달 무울(먹을) 꺼로, 인자 한 달 무울 꺼로 인자 준비, 석 달 열흘 무울 꺼, 그라면 인자 백일이지. 석달 열흘 무울 꺼로 준비로 하는 기라. 그 안에다 옇고 인자 전부 다 인자 쌀이고 뭐고 인자. 그래 낋이묵지는(끓여먹지는), 굴 안에 들어가는데 낋이 묵을 수는 없고 생 거를(날 것을) 묵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네 전신에(전부) 준비를

해가 미숫가린둥 뭐 이래가 보냈는데, 굴로 파러 가 옇어놓고 그래 돌아서가 자꾸 오이까네, 손지(손주)란 놈이 따라갔는 기라. 손지가 따라가가 지게를 인자 그 놔놓코 인자 빈 몸으로 오이까네,

"아부지, 아부지. 지게를 갖고 갑시더. 와 지게를 내뻐리고 가네요."

카이까네,

"야야, 이거는 안 갖고 가고 여 난중에 할머니 모시러 올 때 여 놔나야 할매를 모시러 온다."

카이,

"어어 참, 지게를 가고 가야 아부지도 난중 늙으먼 내가 져다 내삐릴 것 아닌교? 그 지게에 져다 내삐릴 것 아닌교?"

이라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그 지게를 놔놓코 가이까네. 이 인자 손지가 핸 말이 인자 퍼졌는 기라. 그래가 칠십에 고래장을 없앴는 기라. 그 손지 따문에(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칠십에 고래장이라 옛날에는.

[연제구 설화 61]

여자로 태어난 구미호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그게 굼여우(구미호)다. 굼여우. 굼여우라 그거는. 그래 굼여우 그거는 어찌 됐나 하면, 인자 어느 대감 집에서로 참 자석을 못 낳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인자 오빠가 있고 이렇는데.

그래가 이 굼여우라 카는 거 와 굼여우라 카면? 이 인자 말하자면 저 집에는 부자고, 대감 집이고 이러이까네 사람을 인자 무시하고 깔보는 기 지금도 그 하지만은 사람이 무시하고 깔보는, 없는 머슴들이가 이 종들이고 너무 그거로 했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거로 인자 저거 인자 엄마로 갖다가 참 이 대감이 강탈로 해뿠는 기라. 강탈로 해가지고 그서 자석이 태어났는데, 이 자석을 떳떳하이 내 자석이라꼬 몬 내놓는 기라 인자. 종의 자석이 돼놔놓이. 그래가 인자 이 그거를 해가지고 포부가 져가 딱 있는데, 그래가 인자 이 그거로 했는데, 이 자석이 인자 그해가지고 와 그러냐면은? 거서 포부가 져가지고 자석이 그 해놓으이, 그기 인자 매구가 돼뿠는 기라. 말하자면 인자 산에 가서 그거 하고 이라이까네.

그래가지고 인자 매구가 되어가지고, 참 클 때는 이리 잘 커놓고는 동네 댕기면,

"소가 죽었다. 또 어는(어느) 집에 소가 죽었다. 어는 집에 소가 죽었다."

이라거든. 그래 아무리 봐도 참 이상한 일이라. 똑 간만 빼 묵고 소가 턱 자빠져가 있고. 간만 빼 묵꼬 또 소가 떡 자빠져가 있고.

그러니까 하루는 인자 그 집 머슴이 딱 보이까네, 밤중 되이까네 풀- 날라가 가뿌리거든. 그래가 뒤따라 가보이까네 참 묘가 돼가 마 눈에 불로 캐가 미, 그 해가 마 소를 턱! 소가 그 한데(그렇게 하는데) 턱 자빠져뿌고 그렇더라.

그래 해가지고 인자 오면 인자 이 치마까랭이고 뭣이고 마 흙덩이라. 버선이고. 근데 그를 또 농에다 쑤시(쑤셔) 옇어놓고 인자 밤마중(밤마다) 그라이. 그래 인자 그거를 갖다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이까네,

"아무개 집 딸이 그렇다."

카이까네,

"절대 안 그렇다."

고 그라거든. 밀끔하이, 뭐 낮에는 뭐 밀끔하이 있으니까네 뭐, 그래 결국은 인자 그기 인자 그 해가 그 동네에서로 전신(모두) 망해져뿌는 기라. 이사 갔부고, 인자 자꾸 사람이 죽으이 이사를 갔부지. 소가 죽고 하이.

그래 인자 그거로 하이까, 그래 어떤 스님이 인자 캐가, 아들이, 그러니까네 인자 스님이 내려와가,

"아들로다 집밖으로 내 보내라."

카는 기라. 그래,

"아들 하나 있는 걸 우째서 내보내라 카노?"

이라이까네,

"암 말도(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 절에다가, 인자 삼 년만 우리 절에 줄라."

카는 기라. 절에다가 인자 자기가 동자로 삼으니까. 그래가 참 인자 그 집에서 눈물로 매고 인자, 공부도 하고 그런다 카이 삼 년을 인자 보내니까네, 그리 인자 그거 하이 마 하인들도 다 자아무뿌리고(잡아먹어버리고) 결국 저거 인자 저 부모도 다 잡아무우뿌고. 마 집이 인자 가이까네 또깨비 집이 돼가 있거든. 그래 인자 삼 년 만에 이 아들이 스님 보고,

"스님, 인제 내가 하산하겠습니다."

이라이까네,

"그래. 니도 인자 갈 때가 됐는데 아직 끝으는 멀었는데."

그래가 그 하면서로,

"하산하겠습니다."

카이, 참 하산해 내려오보이(내려오니) 마 집도 문이고 다 때리 뿌아지고(부서지고) 그때 그 가시나가 막,

"오빠야."

하고, 가암을(고함을) 지르고 반갑다고 이라거든. 그래가 마 인자 동네도 마 풍파가 와 있

고 얄궂고 그라는데, 그래가지고 이 가시나가 마 인자 저거 오빠까지 노리는 기라. 그래 저 오빠가 공부도 하고 그 하고 하이까네, 인자 그 하고.

자꾸 따라가지고 그라니까네 오빠가 인자 할 수 없으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이라면서로 인자 옛날에 인자 자기 머슴 살던 집에 찾아갔는 기라. 가이 그래 인자,

"동생이 그렇다."

고,

"굼여우가 돼가 지녁마중(저녁마다) 그라고, 온 동네를 그 하고, 그래 이사를 가고 그렇다."

면서로,

"그래 가마(가만히) 봐바라."

그라이, 막 참 가마이 문 새로 내어다보이(내다보니), 마 마 휘떡 넘어갔다가 피가 불거이 해가 기 들어오고 그렇거든. 마 무덤도 파 묵고 마 이라거든.

그래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면서, 인자 그때는 인자 가시나가 저그 오빠꺼정 죽일라는 기라. 인자 서로가 다투는 기라. 인자 오빠하고. 그래가지고 인자 서로가 다타가지고(다투어).

그래 인자 그 스님이 보낼 적에,

"되게 우급(위급)할 때는 이거로 써라."

인자 뭐로 하나 주면서로,

"이거로 써라."

인자 스님이 그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 병은 인자 까시밭을 만들어라."

이래. 병이를(병이) 세 개로 주는 거로, 이기 참 오이까네 막 물이 돼뿌고, 물로 헤엄쳐가 오고. 또 떤지이뿌이(던져버리니) 불이 돼고 불도 헤엄쳐가 오고. 난중에는 인자 막 까시밭이(가시밭이) 돼가 까시 속에 베기가 몬 오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자 결국은 그래 잡아가지고. 그래 굼여우라 카는 이야기는 그래.

[연제구 설화 62]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옛날에 선비가 탁 있는데, 선비 집에 시집을 가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근데 이 선비가 참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일이라고는 모르는 기라.

그래가 한 번으는(한 번은) 참 밭에, 저 논에 가가 피를 훑어가 오이, 비가 와서로 쫓아오이, 이래 덕시기에 피 널어놘 그기 물에 둥-둥- 뜨는 기라. 둥둥 떠도 서방이라 하는 사람으는 청에서(마루에서) 공부만 하지 물에 떠가 다 떠내리가도 그를 모르는 기라. 그래 그때 인자 누구든지 그때는 마 자기가 쎄가(혀가) 빠지게 해놓은 기 물에 떠내려가니 보골이(화가) 나잖아.

"아이고, 지기미 씨발 꺼. 인자 내가 이래가 못 살겠다."

인자 말하자면 인자 응? 그래이까네 내가 마, 그라면서로,

"내가 이래가 못 살겠다."

이라면서, 그래가 마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한 가지다.' 싶어서 보따리 싸가 가뿠는 기라. 보따리 싸가지고 떡 딴 데 가가지고(가서) 참, 딴 데 시집을 가 사는데, 그래 이 남자는 인자를 공부를 해가, 과거를 해가 암행어사가 돼가 말을 타고 오는데, 이 아낙네는 다시 인자 그 논에가 저저 그거로 훑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서방이 하는 소리가 쎄로(혀로) 껄껄 차면서로,

"하이고. 이게 가나 저게 가나 훑던 쟁피 다시 훑나?"

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인자 말로 세아라(멈추게 해라) 해가 내리가 그래,

"임자."

그라면서로, 그래,

"또 그러나."

카면서로, 그래 마누라가 서방이 내리도 반갑다 소리도 몬 하지. 자기가 재가로 했으니까. 그래 돌아서면서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는 길이나 다시, 선비가 가는 길이나 다시 가이소."

캄서, 그래가 그를 보냈는데. 그래 서방이,

"어데 가도 쟁피 훑든 다시 훑나?"

카는, 그기 그런 말이라. 그래.

[연제구 설화 63]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세상구경 시킨 아들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조사자: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유람을 시키는 기라예.]

그기, 그기 어째 되냐면. 한 번도 그 사람이 관광을 한 번 못 갔는 기라. 돈이 아깝아서 찔꿈이가 돼가 집에 마, 집만 짓고 집에만 그하고 마, 들도 모르고 마, 천날만날 집에서 일만 하고 있으이까네, 그래가지고 참 인자 돌아가싰는데, 그래 돌아가싰는데, 인자 게가주고(그래가지고) 인자 이래 장에 가가지고 제사 지낼라꼬 인자 이래 고기로 사다가 이래 널어놔놓으니, 장독간에 이래 널어놓고 들에 일하고 오이까네, 마 젤 크고 좋은 고기를 한 바리 마 뜯아 묵어뿠거든. 마루 밑에 있던 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 며느리가 와가지고 마 이 놈의 개를 까내가(꺼내어) 마 주디를(주둥이를) 얼마나 쥐 팼는고,

"이거 어떠한 조군데(조기인데)."

이카고. 마,

"자반인데."

카고, 해놓으이, 피투성이가 됐는 기라. 그래 마루 밑에 딱 눕어있는데, 그래가 그날 밤 꿈에, 인자 남자 꿈에,

"아이고 야야이, 내가 자반을 널어놨는데 어찌 묵고 싶어서러 내가 그거로, 애미가 나를 이마이 패가 내가 꼼짝을, 밥도 몬 먹고 꼼짝을 몬 한다."

카거든. 그래 이상해서로 눈이 퍼뜩 떠보이까네, 퍼뜩 떠보이까네 참 꿈이고 그래서로, 그래 아침에 날이 새가 들바다보이 마 피투성이 돼가 마 고개만 처박아 있거든.

그래 마 작은 아들은 인자 꿈에도 인자,

"아이고, 너거 형수가 나를 패가 내가 꿈쩍을 몬 하고 있다."

이라거든. 그래가 작은아들도 이상해서러 그래 떡 오보이까네, 들다보이까네, 참 마루 밑에 들바다보이까네 인자 요 등너머 있고, 와가 보이까네 참 그래가 떡-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참 이 저저 보이,

"형수요, 형수요. 이 개로 와 이랬는교?"

이라이까,

"하이고, 서방님 말도 마소. 저 자반을 널어놓으니까네 다 뜯어 무우뿠어러."

그래,

"그기 암만 해도 우리 엄마 겉는데."

이라면서러, 그래 인자 그라거든.

"엄마, 기는 무슨 엄마가?"

그라면서로, 그래 인자 그라기(그렇게 하기) 전에 인자 그 하이까네, 어느 그거 하이까네 누가 와가 그래.

"장에 가거든 제일 첫 눈에 보는 개로 사라. 뱅이 들었기나(병이 들었거나) 뭣이 어떻기나, 말랐기나 어떻기나 내가 딱 들어가면 제일 첫눈에 딱 '이거다' 카거든 그 개로 사가 온나."

인자 어느 도사가 그라는 기라. 그래 참 딱 장에 들가보이 개도 좋은 거 천진데, 얄궂이게 시지부리한(시원찮은) 게 한 바리(한 마리) 있는데, 그기 딱 내 맘에 드는 기라. 그래 개로,

그 개로 사다가 인자 집에 놔놨는 기라. 놔놓으니 그래 그기 인자 자기 엄마가 죽어 영혼이 개가 되가 그 집을 몬 잊어서러 또 그 집에 들어왔는 기라.

놀러도 안 가고 마, 한 번도 배껕도(바깥에도) 안 가고 하이. 그 원이 맺히가 그 집에 또 들어옸는 기라. 그래가 개가 인자 아들이 참 '우리 엄마가 너무 집만 지키고 이래 참 그 했다.' 싶어서로 참 인자 망태기로, 인자 요새 겉으면 뭐 가방이지만은 옛날에는 짚을 꼬아가, 새끼를 꼬아가 망태기로 만들어가 그 놈을 짊아지고 인자,

"엄마, 우리가 인자 팔도 유람을 한 번 가자. 인자 엄마도 너무 우리 집에 그 했으니까네 그 한다."

하면서로, 그래 인자 개로 인자 망태기 하나 해가 짊어지고 인자 팔도 유람을 가는 기라.

"엄마, 말하자면 여는 부산입니더. 엄마, 여는 서울입니다. 어뎁니더."

카고, 인자 석 달 열흘로 인자 댕기는 기라. 그래 석 달 열흘로 댕기다가 마지막 판에 와 가지고 참,

"정자 좋고 경치 좋은 데가 없다."

하면서로, 어데 보이까 참 그 팬팬한(편편한) 인자 바위 우에 그늘이 져가 있어.

"엄마, 인자 마지막으로 다 돌았는데, 인제 집에 가는데 여게서 인자 담배나 한 대 픘고 갑시더."

인자 이라면서, 망태기를 옆불떼기(옆에) 내라놓고 인자 부챗돌로 붙이가, 인자 부챗돌로 붙이가 담배를 한 대 물고,

"인자 집에 갑시더."

카고, 돌아보이 간 곳이 없는 기라. 개가, 개가 그래가 간 곳이 없어 고 자리서 간 곳이 없어. 그래 인자 걸로(그것을) 몬 찾고. 그래 인자 효자 노릇을 그래 놓으이,

"내가 인자 이마이(이만큼) 구경을 했으이 인자 내 갈 데로 간다."

하면서로, 그어서(그곳에서) 온가 간다 말도 없이 마 사그라졌뿠는 기라. 그래 그런 효자라 그래.

[연제구 설화 64]

뱀으로 환생한 조상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이거는 실환데, 우리 저 아홉 발 대(代) 저 우에 있는데, 저 울산 정자 거 산소가 있는 기라. 울산 산소에 정자가 있는데 이는 벌초 때만 가면, 제일 웃대 정 간데 그 성이. 제일 웃대

인자 가면은, 벌초 하러 가면은, 인자 제일 웃대 할배가 인자 묘가 요래요래 네모가 있으면, 인자 묘는 요래 있으면, 이래 벌판에 인자 밑에 그 땅이 이래 있으면, 딱 이래 가면은 저 한 쪽 구석에, 모서리에 뱀이가 있는 기라.

뱀이가 뚤-뚤- 말아, 커다란 기 뚤-뚤- 말아가지고. 가면은, 인자 사람이 가면은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기라. 쑤그리고(숙이고) 안 하고 인자 온다고.

그래 뭐뭐 그어만(거기만) 가면 남자들은 그한데, 시어무이는 갈 때마다 있어놓으이 그거로 하는데, 여자들은 기절을 할 것 아이가? 그래가 그래 인자 한 번은 내인데(나한테) 와서로,

"형님아, 형님아. 우리 웃대 산소에 가면 참 무섭어 죽겠다. 징글밪고(징그럽고)."

그래가,

"거어는(거기는) 가고 온다."

이러더만.

"야야, 그기 너거 웃대 그 조상인 갑다."

내가 하는 소리가.

"조상인 갑다. 조상을 만데(뭣 하러) 그래 놔놓노?"

그러니까네,

"형님아, 몰라. 우리 시어마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우짜노?"

이래.

"그라지 마라."

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인자 참 요새는 몸이 아파가 안 가지만, 우리 자비암이라는 데.

"야, 니 돈 오십만원만 장만해라. 그래 오십만원만 장만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참 오십만원 몽치가 절에 가 천도제를 하고 나이, 다음에 가이까네 그기 간 곳이 없는 기라. 원이 맺히가 고 있었는 기라.

"형님아, 올게는(올해는) 가이 없더라."

이라는 기라.

"잘했다. 천도제 해놓이까네 갈 데로 갔다."

이거는 실화라. 이거는.

[연제구 설화 65]

사람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이유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욕심이 많아가, 너무 그래 욕심이 많으면 실물로 감한다고. 사람이 너무 그래 욕심을 지기도 안 되고, 베풀을 건 베풀고, 갈라묵을 거는 갈라 묵고, 씰 거는(쓸 것은) 씨고 이라지. 돈 돈 하면은 그기 업이 돼가지고 다 그리 되는 기라. [조사자: 뱀 되는 거는 다 욕심 많은 사람이다 그지예?] 절에 스님도 죽으면 뱀 된단다. 욕심이 많애가.

[연제구 설화 66]

순박한 마음으로 복 받은 할머니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스님이 인자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저 산중에 절이 많이 있었다 아이가. 그래 이 할매가 인자 다 모두 다 마 돈을 가지고 절을 간다고 시주로 가 가는데, 이 할매가 인자 밥을 하면서 한 숟가락 보리쌀이나 쌀이나 그거 해놓고, 단지를 놔 놓코 한 숟가락씩 떠옇었는 기라. 떠옇가 그거를 인자 참 모아가 단지가 인자 차가지고.

그래가 4월 초파일이 됐는데 모두 절에 간다고 마 올라가고 이라는데, 그래 이 할매가 인자 단지로 쌀로 이고 올라가면서 이것 저 저 오줌이 누릅은데, 저 절에 부처님테 갖다 바칠낀데 땅에 내루치도(내리지도) 몬 하고, 그것도 하지도 몬 하고, 그래가 인자 이놈을 잡고 한쭉 가랑이로 이래가지고 누고 있으니 까네, 앞에 뭐시 팔락 팔락 팔락 팔락 온캉 정성을 들이놓이, 그래가지고 이리 보이까네 산삼이 한 뿌러지가(뿌리가) 있는 기라.

그래 이 놈을 이 짝 손으로 잡고 파가지고, 인자 또 옆에도 있어. 인자 세 뿌러지를(뿌리를) 파가 치마 인자 한 쪼가리를 쭉- 잡아 째가지고 인자 둘러맸는 기라. 누가 뺏들어 간다고. 허리 둘러매고 절에 떡 가가지고 인자 앉아있으니께, 그거로 그래 시주로 쌀 그거로 시주를 해놓코 있으이 스님이,

"삼 봐라. 삼 봐라. 삼 봐라. 삼 봐라."

우리 그거 염불을 있는 기라. 그래,

"삼 봐라. 삼 봐라. 삼 봐라."

그기 있거든.

"오 수리수리 사마카라 삼 봐라. 삼 봐라."

"하이고, 저 스님 참 용키는 용타. [일동 웃음] 내가 이 삼을 가진 거를 우째 알고 삼 봐라. 삼 봐라. 삼 봐라 카노?"

싶어서,

"하이고이! 오다 삼을 캤으이."

인제 한 뿌러지를 갖다가 턱 갖다 놓으이 또 인자,

"삼 봐라. 삼 봐라. 삼 봐라."

그 세 번을 가거든. 그래,

"삼 봐라. 삼 봐라. 삼 봐라."

세 번을. 또,

"하유, 이 세상 이렇지나 용한 스님이 오데 있나."

또 갖다 언지놓다(얹어놓았다.). 그래가 또 인자 또 있다가 세 번을 인자,

"삼 봐라. 삼 봐라."

하이, '내가 세 뿌러지 가진 줄 우째 저리 아노? 응? 내가 세 뿌러지를 가짔는 거로, 우째 저리 용케 세 뿌러지 가졌다 카노?' 싶어 얹이 마지막 갖다 언지뿠는 기라, 부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인자 떡 갖다 얹고 자기는 인자 그거로 했다. 그래가 인자 떡 스님이 인자 그 날 인자 예불을 다 마치고 그래 인자 밑에 그거로 보고,

"아무댁 그 보살로 모시라."

이라거든.

"인자 아무댁 그 보살로 모시라."

이라면서, 스님 방으로 인자, 스님 방은, 큰스님 방은 항상 따로 있거든. 그래 우리도 가면 큰스님 방에 있다. 인자 그래 모시가,

"보살님, 거 산삼이 어데서 그래 그리 나와서 그리 내 놓습니까?"

이카이까네,

"하이고, 스님이 '삼 봐라' '삼 봐라'. 안 캤소? 내 세 뿌러지 있는데, 세 뿌러지 '삼 봐라' '삼 봐라.' 안 캣소?"

이러거든.

"그래, 그거는 우리 염불에서 나오는 긴데."

그래

"오다가 내가 이래 이래 해가지고 내 밥 안 묵고, 내 묵는 밥을 한 숟가락서로 거 떠옇다."

이기라. 인자 식구들은 주고. 인자 바보 겉은 아들도 있었고 영감도 있는데, 영감만 밥을 채리주고 자기는 인자 누룽지나 마시고 물만 마시고.

"내 묵는 거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내가 부처님 봬서 내가 공양을 할라고. 시주를 할라고 내가, 내가 참 안 묵꼬 이래 참 석 달 열흘로 모아가 오늘 이래 내가 갖고 왔다."

이라거든.

"그래요?"

하면서,

"참 복 받게 됐심더."

하면서로,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집에 내리가시면. 음- 아무 며칠날 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라면서러 스님이 인자. 그래. 그래가지고 인자 이기 나라에 알아뿠는 기라. 이 인자 산삼을 인자 절에 갖다 그 했다고. 그 나라에 앉아가 임금님이 인자 그 호출로 내랐는 기라. 그래 바보겉은 아들도 가가 과게(과거) 자리로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 잘 살도록 하는데, 그래 본 마음만, 청심만 가지면 그래 도와주는 기라.

자기 안 묵꼬 그만큼 모아가 그리 하이, 내 마음을 갖다가 본심을 이래 하이까네 그 인자 다 도와주는 기라.

[연제구 설화 67]

쌀이 나오는 바위가 있던 절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조사자: 꼭 하나씩만 이렇게 나왔는데, 한 웅큼씩만 나왔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래. 그기 미태암이 아이고. 그기 절이 오데고? 그 절이 미태암 아니다. 미태암은 언양 미태암인데, 그 절이 저저 강원도, 강원도 어덴데.

그래가지고 인자 쌀이 또닥또닥 널찌는 거로, [조사자: 바위에서?] 인자 바위에서. 바위에서 쌀 구멍에서 또닥 널찌는 거를 갖다가, 그 어느 인자 그기 가가지고, 인자 참 고양주(공양주)가 가가,

“아이, 애가 터져 죽겠다.”

하면서로,

“줄- 좀 쏟아지라.”

카면서로, 뚜뜨리고 나이 물만 퍽 쏟아지고 쌀은 안 나온다 안 카나. 그래 쌀바위라 있고.

[연제구 설화 68]

쌀이 나오는 바위가 있었던 보리암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저 진해? 아니 저 남해 가면 어느 보리암에는 아니, 남해 저 가몬, 어느 절에 가몬 그기도 가면은 그기 있는데. 전설이 있는데. 그거는 저 확실한, 내가 가도 잊어뿌고 모르겠다. 그도 가도 전설이 있어. 우리 가가지고 갔는데.

이 큰 바위에다가, 바위에다가 그 하는데 거서도 그기 있어. [조사자: 쌀이?] 거서도 쌀이, 쌀이 널찌는 거 있고 옆에는 물이 흐르는 바위가 있고. 이 글로 써놨는데, 양쪽에 파놨는데 요새는 안 나온대.

가면 진짜 집채만 한다. 그래 가가지고 그 가 이 돈을 갖다가 이 돌에 갖다 붙이몬 딱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 바위에 가가지고. 응. [조사자: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라지는 게 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붙고.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열 번을 붙이도 열 번은 다 떨어지는 기라. 우리 그런 바위도 보고 그래.

[연제구 설화 69]

늘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부처님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동래 범어사 저 가면은, 바로 딱 들가면은 고게 저 부처님 이래 보면은, 사람이 고 딱 보면, 가는 데로 눈이, 가는 데로 눈이 따라 오는 기라. 고 딱 보면. 입구에 보먼 요래 가면 요리 오고, 요리 가면 요래 가고. 우리 몸 움쩍거리는 대로 이 머리가 돌아가는 기라. 그렇고. 저 가면, 전라도 저 송광사 가면, 송광사 가면은 앞에 딱 들가는(들어가는) 입구 하고 부처님 하고 딱 요래 마주치거든. 그 부처님이 그래.

송광사 그 가면 그렇고.

[연제구 설화 70]

두 아들을 버렸던 어머니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옛날에는 이래 과부 되면은 자식들로 그거로 해가 살어야 되고 이래가. 머시마로(아들을) 둘이 놔놓고 어마이가 참 인자 마 아가 생길라 그랬는가? 시집가고 싶어 환장을 하는 기라. 그래가 아 둘이를 재워놓고 나가이까네 이 놈은 그하고 이래가. 이놈의 엄마얏고! 아 둘이가 막 따라가니까네, 이래 돌아가면은, 경주 저 노새라 카는데 돌아가면은 큰 못이 있는데, 그래 인자 작은놈으는 세 살이고 큰놈은 다섯 살이고 이렇는데, 그래가 작은놈이 막 엄마야 따라가.

"온나, 온나."

이라면서로 쟡에(옆에) 가이까네, 아로 보따리로 얖풀떼기에(옆에) 놓아놓고 아로 질질 끌고 가가지고 물로 끌고 들어가는 기라. 연못에다가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못에다가 아를 빠쟈놓고(빠뜨리고) 돌멩이 하나를 지아놓고, 아를 돌멩이로 누지러놓고(눌러놓고), 지는 와가지고 보따리 들고 가뿠는 기라.

그래가 인자 다섯 살 묵는 기가, 물에 그 밀어뿌면 된다 아이가? 인자 물에 돌멩이 같은 거. 그래가 다섯 살 묵은 게 들어가가지고 이래 하이까 돌멩이가 인자 이래 빠져뿠는 기라. 그래가 아로 끄집고 나와가지고, 둘이서로 어마이는 가뿌리고 둘이서 울고 있으이, 그 동네 이장이 인자 떡 오면서로,

"너거 와 이래 울고 있노?"

칸께. 그래,

"인자 우리 엄마가 동생을 물에 빠쟈놓고 가뿠다."

이기라. 그래 가뿠어. 그래가,

"그라면 가자."

그래 인자 이장이 와가지고 아들을 집에 델고 와가 옷을 갈아입히가, 딱딱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가 아 둘이 못 놔놓고 인제 집을 철창 해놓고 이장 집에다 델고 갔는 기라. 델고 가가 인자 머슴방에다 인자 아들로 보냈는 기라. 그래,

"아들 밥 주고 따죽거리라."

이라면서. 그래 인자 아들로 이장 집에 인자 머슴방에, 인자 사랑방을 하나 주고 아 둘이 형제간으로 둘이로 보내놓고, 그리 인자 참 그 집에서 키와가지고(키워서), 인자 그 재산이 있으니까 논하고 인자 집하고 있으이 이 이장이 논을 자꾸 장내로 놔놓는 기라.

농사를 지가 자기 무울 꺼만(먹을 것만) 그기 인자 하고, 또 장내[48]로 놔놓으니까네 또 살이 몇 섬이 불고 또 돈이 불고 이래가, 그래가 인자 큰아들로 장가를 보내가 인자 집을 지아가 그 돌떵이 집을 지아가 내보내놓고. 인자 작은아들 또 인자 또 참 집을 지아가지고 장가를 보내가지고 인자 또 내놓고. 그리 인자 살림을 내놓고.

근데 마 이장 생일만 되면 마 참 마 광으로 체인짝 같은 거로 짊어지고 장에 가 사가오고

48)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돈 장사를 말함.

인자 '아부지, 엄마' 카면서로 인자 이래 잘하는 기라. 아들들도 참 잘하는 기라. 친아들카마(친아들보다) 잘 하는 기라.

그래가 그 하는데, 인자 가을이 돼가지고 인자 큰아들이 이래 인자 자기 논에 이래 가가지고 나락을 비고 이래 있으니까네, 허연 할매가 하나가 논뚝에 떡 하니 올라서고 새로(혀로) 껄껄 차면서로,

"아이고, 이기 옛날 우리 논인데 누가 붙히는공?"

카면, 자기 아들도 모르는 기라. 다섯 살 묵어서 가가지고 뭐, 그마이 장차가 자석 놓고 사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자 이래 그해가지고 인자 휘떡 돌아보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논뚝에 서 그래 샀거든. 허연 할마이가. 그러니까네 그래가지고 다시 나락을 비다가 인자 낫을 놔놓고 그래 인자 나와가 택호로,

"아무 댁이 아닙니꺼?"

그라니까네,

"그렇다."

이라먼서로 그라거든.

"그런데 이 동네는 뭐 하러 왔는교?"

인자 자석이 어마이를 보고 그라는 기라.

"그래도 고향이라고 한 번 와봤다."

하면서로, 그래 시집간 집에서도 별 수도 없던 모양이지. 시집가가 살어도. 그래 영감도 죽고. 그래가 그래,

"고향이라 한 번 와봤다."

"그래요?"

카이,

"아무개씨 아요?"

이라면서로, 자기 이름을 댔는 기라.

"하이고 알고 말고. 내 새낀데 와 내가 몰라요."

이캄서 그라거든.

"그래요?"

이러면서로,

"그래, 그 자식들 버릴 때는 무슨 마음을 버리고 갔는교?"

카이까네,

"아유, 그때는 내 마음이 아이라서(아니라서) 가뿠다."

인자 이라거든.

"그래요?"

그래.

"내가 아무것이다."

카이까네, 깜짝 놀래거든. 그래 인자 딱 자기 집에 모시고 왔다. 모시고 와가 동생 있는 데 딱 연락을 해가,

"야야, 그래 이래 이렇다. 오봐라."

이러이까네, 동생이 벌렁 왔거든. 그래 와가지고 그래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 인자 마누라, 그 날 저녁에 인자 마누라를 보고 인자,

"당신, 내일 장에 가가주고 옷을 한 벌 떠가 온나. 제일 좋은 거로 떠라. 헐은(싼) 거 하지 말고. 그래가 밤에 지아라."

이래. 그래 인자 참 자앙(장에) 가 옷을 지아가, 그날 저녁에 인자 하루 인자 자기 집에서 쉈지. 인자 저녁에 델고 가서 하룻밤 자고. 인자 그 이튿날 인자 옷 지있 딴아(지을 동안). 그래 마 옷을 인자 지아가지고, 밤새도록 지아가 그 이튿날,

"인자 우리 집에서 하루 쉈으니까 동생집에 갑시더."

이라거든. 그래 인자 자기 동생집에 델꼬 가가 동생에게도,

"야야. 니도 가가 장에 가가 제수 보고 옷 한 벌 해가지고 너거 집에 하루 쉬도록 해라."

이라이,

"형님, 그라지요."

인자 형제간에도 정이 있는 기라. 어마이 없이, 부모 없이. 그래,

"그라지요."

이라이, 그래가 인자 참 저거 제수도 가가, 작은메느리도 가가 옷을 떠가 와가 지아가, 그서 인자 지을 딴아(지을 동안) 하루 또 쉈다. 인자 이틀밤서 잤는 기라 말하자면. 그래 인자 떡 큰아들이,

"집에 가입시다. 우리집에 인자 가입시다."

와가지고 보따리를 전신에(모두), 어마이로 보따리를 사가지고,

"엄마. 동생집에서도 하루 쉈고 우리집에서 하루 쉈으니 인자 조왕에 솥 걸어 논 데 가야지요?"

아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도 엄마도 조왕에 솥 걸고 살림집이 안 있는교? 인자 가야지요."

그라더래요. 그래 아들이 어마이로 가라 이 소리를.

"조왕 인자 걸어놓고, 솥 걸고 짓고 밥 해 먹는 집이 있으니 가야지요."

카이, 안 가겠다 카겠나? 가겠다 카겠나? 그래 눈물을 머금고 그래 쫓기나가는 기라. 자석을 버리고 간 죄로.

[연제구 설화 71]

할미꽃의 내력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할미꽃이 와 할미꽃이고? 할미꽃이 왜 할미꽃이고 하면, 딸로 그 해가 키우면서 이 고개 저 고개 시집을 보내놓고 가이까네, 이 딸집으로 가도 몬 살아라 그 하고. 저 딸집으로 가도 몬 살아라 그 하고.

그래가지고 한 겨울에 가다가, 이 할매가 고개를 넘어가다가 눈 속에 파묻혀 죽어뿠는 기라. 눈 속에 파묻히 죽어뻰 게 해동이 되니까 그 할매 죽은 자리에 할미꽃이 피더란다. 그래 할미꽃이란다.

[연제구 설화 72]

손톱 발톱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이유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손톱 발톱 깎아가 아무데나 몬 버리라고 안 하나? 그래 옛날에 짐승들이 자아 묵으면 그거로 둔갑을 한다고.

[연제구 설화 73]

동래 정씨 묘

박말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옛날에 저 동래 정씨 여 묘가 우예(어떻게) 그 했나 하면? 저 역사에 다 그 한데. 이 동래 정씨가 옛날에 참 이런 말하면은, 이씨네 집에 머슴이란다. 옛날에 머슴인데 그래 인자 이래 그거를 하는데, 저 이씨네 집에 묘를 갖다가 씨아놓으이(쓰니), 그래가지고 인자 파내뿌리고 파내뿌리고 자꾸 그라는 기라. 그래가 '이 와 자꾸 인자 이 묘를 갖다가 써놓이 파내뿌노 파내뿌노?' 싶어서, 토깨비들이 인자 파내는 기라 그 묘로.

아, 그 전에 뭐 계랄로(계란을) 어느 도사가 지내가면서,

“계랄로 묻어가 계랄이 닭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 묘를 씨고 안 태어나면 묘를 못 씬다.”

이래가, 참 하룻밤 자고 나이 그 묘에서 병아리가 참 나오가지고 참 댕기더란다. 그래 그기다 묘를 섰는데, 몰라 역사 이야기가 그렇더라. 묘로 섰는데, 그 묘로 쓰고 나이 자꾸 파내뿌리고, 자고 나면 파내뿌고 자꾸 파내뿌고 이라는 기라.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서로, 그래 떡- 머슴이 가서 보이까네,

“여게는 금궤가 들어갈 자리, 금궤가 드갈, 누불 자린데, 왜 나무 그기 그 했노? 나무곽이 들었노? 금궤가 누불 자린데 나무곽이 들었노?”

이라며 그라거든. 그래가 인자 이 머슴이 가만히 들어보니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로 그래 인자 파내고 자꾸 파내놓으니까네, 이 인자 파낸 거로 딴 데 갖다 묻을 수밲에 없다 아이가. 자꾸 파내니까네 이 이 씨네 집은 딴 데 갖다 묻고.

이 정씨네 집에 인자 불러가지고, 집에 가가 이 밀대 있제? 밀대. 밀대 그걸로 갖다가 다 추리뿌리고 이리 반짝반짝한 속 고기만 빼는 기라 밀대로. 그거로 가지고 인자 돗자리로 만들었는 기라. 돗자리를 만들어가 인자 그 나무곽을 갖다가 전신에(전부) 인자 나무곽을 우다 쌌는 기라. 그러니까네 전신에 번쩍번쩍 하이 금빛이 난다 아입니꺼? 그 밀대를 빼놓으면 금빛이 난다 아입니꺼? [청중: 보릿대가 그렇다 이기제.] 응. 보릿대 말고 밀대. 밀대는 더 노랗이 더 좋다 아입니꺼? 그래 놓으이 인자 싸가지고 탁- 그래가 포장을 해가 갖다 묻으이까네, 그래 토깨비가 오더만은,

“아, 인자 누불 놈이 눕었다.”

하면서로,

“누불 자리 눕었다. 금궤가 들었구나.”

하면서로, 그 질로 그 해가, 이 그기 마 정 씨 네들이 마 막 벼락부자가 돼가, 그래 인자 그래 됐다고. 그래 전설이 그래 있대.

[연제구 설화 7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며느리

박분조(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거제4동 해맞이경로당]

옛날에 눈 어둡은 시어머니를 지렁이를 내- 해먹인 기라. 그래놓이 마 아들이 오니 살이 찌서 요렇더래. 살이 쪄서.

"아이구 어머니, 뭘 해줘서 그래 잘 잡숩고 얼굴이 좋냐?"

이카니까,

"그래, 내가, 며느리가 잘해줘서 잘 묵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할마이가 인제 지렁이 해줄 때마다 자리 밑에다 한 마리씩 넣어뒀어. [청중: 할매가 아니고 할배. 호부시아바씨.] 그래가지고 인제 아들이 오니까 그래 그 인자 내보있어.

"엄마, 지렁이네요."

이러니까, 눈을 반짝 떴는 기라. 그래 눈을 떴대요.

[연제구 설화 75]

명당 묏자리를 가로챈 종갓집 딸

손수호(남, 1945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저 내 고향은 어디고 하몬 지금 유네스코 지정 됐는 하회마을하고, [조사자: 아, 하회. 안동.] 하회하고 같이 됐는 경주 양동마을. [조사자: 양동마을. 예.]

양동마을에 내가 지금도 마 우리 고향이지만 삼촌하고 종제들이 그 살고 있고, [조사자: 아 거기 계시고?] 우리 종갓집이 그 있고 한데, 종갓집 얘기로 내가 한먼(한 번) 할게요. 선생님은 이리 저리 이런 거 를 다 접했으이까 알겠지마는, 우리 종갓집 이름이 송침입니다. [조사자: 아, 송침.]

저 경주(慶州) 손가(孫可)[49]지만은, 그 저 손가, 이가 성이 두 가지가 성씨가 살았어요. 그 여강 이씨(驪江 李氏)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송침이라는 우리 그 종갓집에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는데, 그래도 입 구(口)자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 저 해산할 때 거기서 애 낳는 방이 별도 산실이 별도로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저기 사람이, 어른이 집안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염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인제 외부사람은 물리치고, 딸도 시집간 사람은 남이라고, 시집가면 남이라고 그랬을 때, 딸도 부모가 아프니까 편찮으시니까네 인자 시 친정집에 와봤는데도, 딸도 나가라고. 그래 인제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리,

"어디어디에 그 내가 죽으면 묻힐 묘터가 그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가 봐. 그렀는데 딸이 문 밖에서

49) 월성 손씨(月城 孫氏)라고도 한다.

그놈을 듣고 그 뭐 초상을 치게 되면은, 종갓집에는 좀 그 초상이 요즘 3일, 5일, 7일이 있지만, 예전엔 한 10일 이상은 됐어. 종갓집에서 할 때는. 근데 저기 그 산소가 지금도 뭐 종갓집 우리 산소가 포항 뒤편에 달전이라는 곳에 거 있는데, 근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딸이 인자 그 소리를 듣고 누구를 시키가 밤에 그 저기 산소를 쓸 찰에 미리 그 저기 상두꾼들이 가가지고 미리 [조사자: 땅을 파 놓죠.] 그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리 갔다 물을 부었다 이래요. [조사자: 아 물을 들이부어.]

그리 그 다음날 그 저거를 해보니까네, 산소를 쓸라니께, 물이 있어가지고 그래 쪼금 옮겨 썼다 하는강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인자 그쪽을 썼는가 봐요. [조사자: 아 그 딸네 집에서. 시집간 딸이.] 그래가 그 후손들이 잘 됐다는 그런 얘, 얘기도 있어요.

[연제구 설화 76]

무서운 도깨비불

이정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몽땅 빗자리(몽당 빗자루) 있는 거는 나가 내가 당했어요. 그거는 예 한 번 예 촌에 이래 밤중 돼가지고 밖으테 그 전에는 화장실이 쫌 거해가(그래서) 화장실 온다고 나오인까네, 저게서 불이 이만한 게 오디마는 그 우리 동네 밑에 큰 정지나무가(정자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게서 오디마는, 이만한 게 오디마는, 거 오디마는 마 툭 꺼지뿌는 기라. 그래 인자 도로 오가지고,

"엄마 마 이만한 게 오디만은 마 여 오데 꺼지뿌더라."

이카이,

"야아 그기 토캐비다. 그서 질리가 딸리가뿌면 마 죽어뿐다."

이카는 기라. 왓다 그 소리 들으니 무섭아가지고 지녁(저녁)으로 몬 나갔어예.

[조사자: 그래 그 우에 옛날 할아버지들이 도깨비하고 씨름하고 그런 얘기 없습디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그 자신, 내 자신으로 바로 봤어예.

[연제구 설화 77]

곶감 소리에 울음을 그친 아이

이정선(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알라가 울만 자꾸 울어싸서
“뭐로 주꼬? 뭐로 주꼬?”
카이,
“뭐 주꼬? 뭐 주꼬?”
고개를 흔들어.
“또 뭐 주꼬?”
이리 흔드이까네,
“꽂감 주꼬?”
카이까네 마 떨꺽 그치뿌거든. 그치뿐다 그 소리는 많이 들었어예. 꽂감을 주인께 마 그기 제일 좋았는가 봐.

[연제구 설화 78]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황보승(남, 1947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전라도에서 그랬어. 전라도 김제에서 인자 그 참- 이 사람이 공부만 이리 하는 사람이라. 그래 뭐 인자 하도 몬 사니, 공부만 한께 묵을 게 어딨소.

공부만 하고 일을 안 하는데, 그런께네 언자 마누래는 그 갱피라고 있어. 피, 핀데, [조사자: 있지.] 그 갱피를 훑어가지고, 그 무으면 돼요, 그래가 그걸 훑어가 인자 널어놨는데, 마당에. 소나기가 와서, 또 그 늘어놓고 갱피 훑으러 가고 없는데, 소내기가 왔는데 다 떠내려가도 나 놓고 공부만 하고 책만 보고 있은게네, 갔다 온 새(사이) 떠내려가고 없거든.

얼매나 부애가(부화가) 나겄노. 자기는 들에가 뜯어 와도 그 떠내려가는 걸 안 들여다 놓고 나놨거든. 그래가 마 뒀다고 마 마 신을 바까(바꾸어) 신어뿠어.

신을 바까 신어뿠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급제를 했어. 말을 타고 인자 그 김제 들판을 간께네, 자기 본마누래가 또 갱피를 훑거든. 그 저,

“징개 맹지 넓은 들에 갱피 훑는 저 마누라 간 디 족족 갱피 훑네.”

쿠더라요. 그리 그 안 갔이몬 팔자 고쳤을 긴데, 가놔노이 [조사자: 아-, 팔자가 그것밖에

안 되네.]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만 해도 되요.

[연제구 설화 79]

엄마 방귀 뀌라 내가 뀌었다 할게

황상열(남, 1938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안자 얼라를(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이 그마 시아바이 앞에서 방구를 끼면서 메느리가, 그러이니 인자 무안하니까,

"요놈우 새끼가 방구를 낀다요."

"에이, 엄마 지가 끼놓고." [일동 웃음]

[조사자: 아하, 자기가 끼나 놓고.] 그래 아아가,

"그만 저 아무 말도 안 하모 될 긴데."

지가 안 끼있는데 말이야 뭐뭐 안 낐다 이기라.

"엄마 지가 끼놓고 나를 낐다 칸다."

그래 인자 고 뒤에는 뭐라 캤냐 하몬, 안고 있은께네,

"엄마 방구 끼라. 내가 낐다 쿠게."

인자 그 저검마로(자기 엄마로) 보고 시키더라고요.

"엄마 인자 방구 끼라. 내가 낐다 쿠게."

[연제구 설화 80]

개똥 보리쌀을 갖다 먹은 사람

황상열(남, 1938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거연경로당]

보리고개 안 있었나. 보리쌀 그거 물 옇고 방아를 찌가, 옛날에는 물을 붓고 방아를 찧있어. 보리방아를. 그래가 그 말룬다고(말린다고) 늘어놓는다 아이요 보리쌀을. 말라가 떼끼야(껍질을 벗겨야) 되거든.

그라먼 인자 그 개가 묵을 게 없는데 그걸 묵어 무으면은, 저 어데 똥을 싸놓은 데,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면 씰리가몬 보리쌀이 허여이 뒤비진다고. 그라몬 하도 인자 묵을 기 귀하고 그런께 그걸 갖다가 무은(먹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걸 묵었단 말이 있어.

[연제구 설화 81]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김기순(여, 1939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얼굴이가 와 노랗노?"
카이, 저게 메느리,
"아부이요,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몬 해가 그렇다."
키이,
"뭐에고? 뭐? 뭐고 해라."
이라이까네, 저게 메느리,
"방구를 그래 몬 끼갖고 그래 그렇다."
카몬,
"그머(그러면) 한 번 해 봐라. 사람이 살고 봐야 되잖아."
키이, 그래가 이쪽 편에 가가 방구로 탕! 끼이까 집이 실-렁 넘어,
"아이고 야야, 이 짝에 와가 또 끼라."
이 짝에 왔어. 그래가,
"아이고 안 됐다. 뒤에 가 봐라. 뒤에."
집이 넘어지고 그렇더라고. 클 때 우리 애릴 때 그래 쌌대. 그 할매들이 그래 얘기해 쌌대예.

[연제구 설화 82]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옛날에 아들이 몬 살아가지고 넘우집 머슴 살러 갔는데, 우리가 듣기는 그래가 아들이 한 일 년을 냄기(넘게) 떡 있다 오이까네, 엄마가 살이 찌가 뽈록하게 있다 카는 기라. 그래,

"어무이를 뭐로 해드리서를 이래 엄마가 살이 쪄 이리 얼굴이 좋노?"

카이까네, 할머이가,

"야야, 쟈가 해주는 거를 내가 한 마리썩 딱 요 밑에 내가 나났다(놓아두었다)."

그래 자기 자리 밑에 나난(놓아둔) 걸 내주는데 보이 거성거리더라 하네. 내나 지거리, 지거리. [청중: 지렁이.] 그래 그거를 인자 고기를 할매로 몬 해드리니까네, 메느리가 그래 그 지거리를 참 삶아가지고 그래 국물로 할매 드리고,

"이거는 할매 건데깁니다."

카고, 또 건데기도 또 잡숫게 씹게 해드리고. 그 눈이 인자 안 좋아 그래 있어도, 그래 얼굴이 그리 확 젊어져가 있더라 카는데. 아들이 오이까네.

그만탕(그만큼) 그게 좋다는 이야기라. 지금도 고기 잡으면은 저 저 그것 가(가지고) 안 잡습디까. [조사자: 지렁이, 지렁이를 예.] [청중: 개구리도 묵고.]

[조사자: 그래 그 가가지고 이거 어무이인데 아들이 뭐 뭐 뭈는지 물었던 모양이죠? 그죠?] 그래 어무이가 얼굴이 좋으니까네,

"어무이가 얼굴이 좋는데 뭐를 해주서 어무이가 잡사(잡수셔서) 얼굴이 좋습니꺼?"

카고, 만날 마누라한테도 물으이까네, 그래 어무니가 잡순 거를 내놓더라 카는 기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사자: 그래 어무이가 눈이 뭐 안 보이였던가요? 봉산데 어째 눈을 떴는공?] 근데 내가 듣기는 봉사라는 이야기는 나는 못 들었고, 그래 잘 잡숫고 얼굴이 좋아졌다 그 이야기는 있습니더.

[연제구 설화 83]

겨울에 딸기를 구해준 효자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어무니가 아파 누우가지고, 지금이사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지.

"그래 내가 묵고시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로 무우몬 내가 일날 거 겄다."

카이까네,

"어무이 뭐가 묵겠습니까."

물으니까, 딸기라 카거든. '이 한겨울에 딸기가 어디서 있겠노?' 싶어갖고 호자가(효자가)

산 별때기(꼭대기) 가가지고 산 이래 볕 바른 데 엎드려가 울었다 카네.

"우리 어무이가 딸기를 잡수고 싶어 저래 아파 일라도 몬 하고 있는데, 그래 산시 딸기 좀 그거 나구로 해달라고."

거거서 절을 백 세 번을 했답니다. 백 세 번을 하이까네, 그 양지에 딸기밭이 싸악 생기더라. '효자는 하늘이 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조사자: 그래 그 딸기를 구해줬던 갑네.] 구해가 엄마를 살맀지.

[연제구 설화 84]

넘어지는 자리가 명당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옛날에는 또 있는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시몬, 그 모터(묘 터) 보는 사람을 데려가 이래 보고 하는데, 너무 돈이 없는데 저거 아버지가 돌아가시나노이 그 사람 부를 수가 없는 기라. 모터 보는 사람을. [청중: 풍수 보는 사람. 풍수.] 그래 그 집 앞에 얼쩡얼쩡하고 있으이까네, 그 어른이 나오다가,

"자네 부모님 편찮타 카는데 여서 와 이래 얼쩡거리고 있노?"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싰는데, 모터를 바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 어르신한테 몬 가고 내가 야 문 앞에 안 서가 있습니꺼."

이러 카이까네,

"아 그래? 그러먼 니가 내 시히는(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안 가도 그 저저 송장을 인자, 엄마를 짊어지고 무조건 산으로 니가 헤메라. 헤메먼 탁 자빠지먼 고 자리가 좋다." [일동 웃음]

그래 그 참 넘어져가 그 자리 썼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네 돈은 없고, 볼 수는 없고, 그라먼 머 옛날서 이 호자들은(효자들은) 지금 어데 찾아볼 수 있는, 있습니꺼? 없지.

[연제구 설화 85]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호랭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아아가 울고불고 해사이까네 어마이가,

"호랭이 온다이. 근치라(그쳐라). 니가 몇 시간 지금 우노? 호랭이 온다이. 으쌰 으쌰 호랭이 인자 온다."

카이까네, 옆에서러 할아버지가,

"아나 꽂감(곶감)."

카이까네, 아가 떨컥 근치뿌거든. 호랭이가 '아이구야, 내보다 더 무섭은 놈이 있는 갑다.' 싶어가지고 새가(혀가) 빠지게 달아 뺐다 안 캅니까. [일동 웃음]

[조사자: 호랭이가 마 꽂감이 있다 카이까네 근치고, 호랑이 온다 캐도 안 근치고.] 호랑이 온다 캐도 안 근치지. 그래 알라가 저 저 애를 미고(먹이고) 울어서러 순경이 저저 오는데,

"이놈의 새끼 니 안 근칠래? 저 저 저짜(저쪽에) 순경 온다."

카이께, 순경이 지나가다가,

"순경이 뭐 겁나서요. 깡패가 겁나지." [일동 웃음]

칸다 카는 기라. [웃음] 한 가진 기라. 꽂감이 그래그래 호랭이가 겁을 갔자이('가져서'의 뜻으로 한 말인 듯) 말, '나도 잡아 믹이겠다' 싶어 달아뺐다(달아나버렸다) 안 캅니까.

[연제구 설화 86]

도망가도 따라가는 죄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마음대로 안 되고 기가 차고 해가지고 마 도망을 갔다 카네. 밤에. 마 도망을 밤에 가는데, 아무도 없는 컴컴한데 도망을 가는데, 자꾸 발자국 소리가 나더라 카네. 저그 저 또 돌아보이 또 아무것도 없고. 그래,

"발자국 소리 나는데 와 뒤에 아무것도 없노?"

이러 카이까네,

"애[50]다. 애다."

카더란다. 애가 따러간다고.

[조사자: 아 애가. 자기 애가.] 자기 죄가 따라간다고. [조사자: 죄가, 죄가 따라간다고.] 그

50) 초조한 마음속.

런께네, 도망간다고 죄가 어디 간다, 가는 기 아이다 그 말이라.

[조사자: 아하, 아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진짜 처음 듣는다.] 예, 처음 듣지예.

[연제구 설화 87]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산을 넘어가는데, 도깨비하고 씨름을 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했더만은, 그 안날(다음날) 그 산에 그 자리에 떡 가보이께 뭐 피 묻은 그 빗자리가 있더라 이런 말도 있고.

[조사자: 그라 와 피 묻는 빗자리가 도깨비 됐는가?] 누가 인자 머 피를 묻었다고 거 떤져 뿠던가 봐. 그런께 밤에 되몬 그게 밤에 도깨비 된다 카네.

[조사자: 그래 옛날에 저 어무이들 부엌에서 이래 거할 때 "몽땅 빗자리 깔고 앉지 마라" 하고, 어 그지예? 그 "부지깨이나 그런 거 깔고 앉지 마라" 하고 고 인자 여자들 피가 묻으면은 기이(그것이) 도깨비 된다고.] 그렇게. 그래 "피 묻히가 아무 때나 떤지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

[연제구 설화 88]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줄 아는 호랑이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높은데 있는데, 밑에 그 저저 호랭이 새끼가 '으르릉'하이, 또 지금 고양이 새끼매로(새끼처럼) 있은까네,

"아유! 귀엽다."

고 이래 몬치까네(만지니까), 우에 나무에서러 '으허~우' 카는데, 그기 나쁘게 하는 말이 아이고 지 새끼 귀엽다 칸다고 좋다고. 내러 안 오고 기분 좋다고. '어허우 어허우' 이더라 카대.

[연제구 설화 89]

호식할 팔자의 사람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그라고 인자 호랑이가 옛날에 배가 고프몬 사람을 자아(잡아)묵거든. 사람을 자아묵는데, 사람이 너이서러 인자 가는데, 호랭이가 저저저 남게서(나무에서) 쳐다보고, '어허~허' 자아묵을라고 이래 미룰 덕에(때에), 그 너이 가는 사람이 옷을 하나씩 떤졌다 카대.

벗어가지고. '내가 조고를 자아묵고 짚다' 싶으몬 딴 사람 떤진 옷 도로 떤지 준다 카대. 그러니 조고를 자아묵고 싶을, 인자 결정이 난 사람 옷이 딱 오몬, 딱 겁잡더라(붙잡더라) 카대.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그 사람은 그 호랭이한테 갔다가 [조사자: 잡아믹히뿌고.] 잡아믹히러 갔다. 마 그래 '지 밥에 쥐이야 묵지 아무나 안 잡아 묵는다.' 인자 이 뜻이라. 그 안 봐나이(보아서) 믿을 거 뭐 있겠습니까?

[연제구 설화 90]

시아버지가 최고다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시어마이도 별라고(별나고), 시누도 별라고, 시아부지도 다 계시고 했는데, 하도 시어마이하고 시누부가 둘이가 자기를 괴롭히이까네, 그래 인제 그 뭐 저저 시누 보는데, 머 황새라 카는가 새가 떡 날아가는데,

"니는 입은 띠서러(떼어서) 우리 시누 주고 싶고, 머리는 띠가지고, 인자 그 머 딸하고 의논한다고, 우리 시어마이 주고 싶고, 또 인자 이 가슴, 생각하는 가슴은 시아버지 주고 싶다 한다."

고, 시아버지가 최고다 이 말이라. 그런 말이 있었어.

[연제구 설화 91]

어미 소의 애정을 보고 반성한 불효자

오혜석(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불휸데. 어마이가 농사 지이 너무 대가지고(힘들어서) 인자 아들 와서,

"니 무슨 그 인자 논 그거 일로 하라."

캐나 놓고, 이 점섬(점심)으로, 인자 그때는 중참도 있고 이럴 때에, [청중: 참 올 때까지.] 참은 빨리 여다(이다) 줘야 되는데, 시간이 마 바쁘이 어마이가,

"참으로 와야, 이놈의 새끼 내한테 또 생 지랄을 하겠다."

하고 가서러 참을 또 내루이(내리니), 아들이 어마이를 떡 말도 안 하고, '아이구 어짠 일로 오늘 이 말로 안 하는고?' 싶어가,

"그래 배가 많이 고팠제?"

이래 하이까네, 소가 저 새끼하고 엄마하고 애정이 억수로 짐승도 강하다 아인가배. 그래 소 인자 누가 와가지고 인자 그 새끼를 사가(사서) 가는데, 어마이는 서가 있고, 산 사람이 송아치를 인자 몰고 가이까네, 그래 그 어마이가 이래 쳐다보고 '으어- '울더라 카네. 그 인자 지 새끼 몰고 간다고. 그거를 그 불효자식이 봤는 기라. 보인까네,

"아이구, 짐승도 저런데 나도 이 엄마한테 이래가 되는 기 아니다."

고서(그곳에서) 반성을 했다 카는 기라. 그래 어마이가 밥을 늦게 해가 오도(와도) 부르지도 안 하고 쳐뮜던가 보지. [일동 웃음] [청중: 인간이 됐네 마.] 그래 좀 반성을 했다 카는 말이 있다. [청중: 눈물 난대이.]

[연제구 설화 92]

도깨비불

이순례(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조사자1: 어무이 어데 허깨비 봤는교?] 젊을 때, 내가 그때 한창 힘 부릴 때거든. 이십 칠 요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자 그때 우리 신랑 되는 사람이 보재는 남자간에 돈을 막 쳐옇어버맀거

든. 쳐옇어삣는데, 집이도 없고 왔다갔다 이라구로 하는데, 내가 참 단단한 줄 알았대. 우리 막내이를 안고 잠을 딱 자는데 자꾸 부르는 소리가 난다 내 귀에.

그래코롬 아를 곱게 재워놓골랑 쫓아 나가이까네, 그 불이 자꾸 자꾸 가이 멀리 가지는 기라. 우리 동네에서. 가이까(가니까) 불이 가고, 또 가이까 불이 가고, 그카고 어디까지 갔나 카몬 한 5메타 10메타꺼지 저까지 갔어요. 어지(제법) 멀리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런 하천에 있는데, 옛날에 거게 인자 6.25가 날 적에 사램이 마이 죽고, 말도 죽고 마 이랬거던요. [조사자2: 고향이 집이?] 그거 인자 안간(안강) 난간서로(난강에서) 고 다성이라 카는데, [조사자1: 다성?] 달성, 달성. [조사자1: 달성.] 달성 있고, 치받아 보몬 내당이라 카는 데가 있거든. [조사자2: 내당.]

[연제구 설화 93]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이순례(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하 그거 잠을 자는데, 아로 고 띠놓고 큰아들은 없고 자꾸 자꾸 불렀다 나갔단교(나갔다 아닌가요). 그 큰 하천에. 하천에 거 있는데, 내가 씨름을 해쌌거든 도깨비하고. [조사자2: 했다고?] 직접. [조사자2: 할머니가?] 직접. 직접 씨름을 하는 대요, 내 아닌게,

"니 도깨비다. 니자테(너한테) 내 이긴다."

씨름을 해가 그 쳐박아버맀어요. [조사자2: 스물 몇 살 때?] 어. 마 와글와글 얘기하는 기라. 하나도, 얘기는 사람 소리 애이고(아니고). 쳐박아뿌걸라 마 내가 마마 눈을 몬 뜨는 거라. 마마마마 땀이 비 오듯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걸 쳐박아 인자 그거 내가 이깄거던. 이기고 처박아.

이리 우리 동네를 치받아 한추(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불이 환하거든 그거는. 산중이라 불을 켜노이 불이 환한데, 불로 찾아가명 내가 과함을, 올라가가주여,

그래 그거 우리 아제라 카는 사람 통장 지냈는데, 이런 불이 올라가이까네, 마 쌀이 마마마 물이 빠져가지고 오이까네,

"와 그라노? 와 그라노?"

"도깨비하고 씨름해가 왔다."

내 입으로 그랬어요.

"도깨비는 죽이고 내가 씨름해가 왔다."

그래 우리 집에 데리다 주가지고 갔어요. [조사자2: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갔는데, 그리 우리 신랑이 왔는데 얘기하니까네 거짓말이라 카는 기라. [조사자2: 싸우고 왔는데?] 나는 싸우고 이기고 왔는데, 거짓말이라 카더라.

그래 그 이튿날에 날 새가지고 그 자리에 내 찾아가봤어요. 찾아가 이래 들라다 봤어. 요거 들바다 보니, 그 무신 빗자리 몽다린동, 하여튼 얄구진 게 하나 있긴 있더라. 그런 거 봤디.

[조사자2: 그런데 왜 싸울라 그랬었어요? 거 안 무서웠어요? 도망을 가야지.] 도망가가고,

"니 도깨빈데 나는 니 죽이고 간다."

씨름을 했다 카요. 이래가 붙잡고 씨름을 해가 쳐박아뿌고 갔다 카이까네. [조사자: 씨름을 할 때 위로 쳐다보고 하면은 한참 높아가 지고, 무조건 씨름을 할 때 밑으로 보고 해야.] 그래 우옜는지 그놈 찾아가 이깄부렀어. 쳐박아 챘고 둘고 차뿌고, 밟아뿌고, 우로 올라갔거든. 올라가면 마 이름을 부르고 올라가이 다른 사람 나왔어.

"와 그라노?"

카이,

"저그 도깨비가 있는데 도깨비 내가 때리 죽이고 왔다."

카매, 벌벌벌벌 사람이 희한하거든. 물에 빠져가 아노이(와 놓으니), 그래 우리 집에 데리다 주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거짓말이라 카이까네.

[연제구 설화 94]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이순례(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그거는 확실히 모르고. 뭐 저기 내가 똑같은데, 그 외동으로, 안 귀한 동(童)으로 낳는데 하도 울고, 울고 해싸이까네,

"그래 머를 주꼬?"

이래 하이까네, 그 스님이 아를 줄라 캐가, 아 던지가 그래서 그 종이 됐다. 그거밖에 몰래.

[조사자: 그래 아를 달라 해서 그래가.] 예 아를 주고, 그래가 에밀레- 커는 동이 그래 소리가 난다 이 카대. 때리먼.

[연제구 설화 95]

사랑도 못 나누는 단칸방 살림

정자희(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왜 그런고 카먼, 단칸방에 사는데, 방이 저쪽 하나가 이쪽 하나 있는데, 이 복판에 이거 벽이 있다 아입니꺼. 옛날에 우리 클 때도 그랬지예. 거 봉창을 딱 뚤버(뚫어) 놓고, 그 후로 나아 놓고 양 방을 썼단 말이다.

이래 쓰는데, 그래 참 아들이 있어가지고 장개(장가)를 떡 들었어예. 그래 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메늘하고 아들하고 저 한 방 주고, 자기 혼차 이쪽 방에 자는데, 무 우째끼나 마 아들을 그 방에 마 보내가 쌤을 해가지고, 그 봉창에서러 들받아(들여다) 보기도 하고, 귀를 대가지고 마 숨을 천둥겉이 쉬는 기라. 한숨을 쉬는 기라. 마 그 아들 뺏깄다고.

그라고 저녁마다 [작은 소리로] 부부간에 잠도 몬 자구로 지키는 기라. 몰래 그래 봉창에 듣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 아들이 인자 연구를 냈어예. '도저히 이래가는 우리 몬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마 자다가 있으니까 엉금엉금 또 할마시가 올라오네.

옛날에는 축담도 이리 마당서 높은 축담이 돼가지고, 예 그리 오는데, 그래 그릴 때는 달밤이라서러 할마시가 떡 오디마는 마 문앞에 거 서 있으이 얼릉얼릉얼릉하디 그 메늘하고 아들하고 또 장 같이 봐가지고 신경이 써가 그라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하루는 마음을 달리 먹고 그래 그 그늘이 있고, 문을 떨거덕떨거덕 해가지고 문을 확 밀어뿌이, 이 할마이가 마 밑에 똑 떨어져뻐맀어. 치고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인자 아침에 자고 일라가지고 어무이젙에 문안 간다고 갔어. 가이까네, 눕어 계시더라 카는 기라. 마 얼굴도 상했기나 넘어 전신에 마. [일동 웃음]

예 그런데, 그래,

"어무이요, 어무이요. 어무이 와 오늘은 와 안 일어났습니꺼? 안 일어났습니꺼?"

이래 하니까네,

"야야, 내가 밤에 변소가다가."

그때는 우리는 변소를 정나 치간이라 칸다.

"치간에, 치간에 가다가 내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가지고 내가 몬 일난다."

[조사자: 말로 둘러대가.] 예. 둘러대가 그라고는 다시 안 오더랍니더. 그래가 질로(길을) 드릿뿠는 기라.

[연제구 설화 96]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사리암

진정자(여, 1943년생) 구술
2018년 1월 29일 채록
[연산1동 일심부녀경로당]

경북 청돈대예. 사리암이라 하는 데가 있어예. 운문사 우에 그 사리암 있습니다.

그리 사리암 있는데, 그기에 올로 가면은 거 쌀이 이렇게 계속 파석파석파석 나왔다 하대예.

[조사자: 구멍에서 어데? 바위에서?] 예. 바위 구멍에서 이래 떠듬떠듬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그걸로 가지고 밥을 해무이께네, 또 없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안자, '구멍을 크게 떫으면은(뚫으면) 살이 많이 나오겠지' 싶어가주고 고마 구멍을 이래 뗄다고 깍 해뿌이까, 고마 쌀이 안 나오더라 그런 전설이 있대예. [청중: 전설이지 뭐.]

그래가지고 전에 운문사 가니까 사리암 카먼서 이, 이렇게 바위가 있대예. 여기가 사리암이라 하는, 우리도 거 함(한 번) 가봤어예.

[연제구 설화 97]

도깨비와 싸운 사람

김숙자(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그거 본 사람 있어가. 밤새도록 싸움을 했는데 [조사자: 응.] 막 때리고 막 같이 주먹질하고 싸움을 했는데, 막- 그 틀림없이 자기가 때리가 인자 직있다고(죽였다고)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무섭아서 오기는 왔는데, 아측 날 새고 가이까 빗자리더라 하더라. [조사자: 빗자루몽댕이더라.] 그런 말이 있더라.

[연제구 설화 98]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노숙자(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인 채록
[연산2동 연산2동 경로당]

그거는? 쟁피 그거는?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만날 공부만 하는 거라. [조사자: 그렇지.] 공부만 하고 이 색시가 너무 없어가지고 들판에 가서 그 쟁피를 만날 뜯어갖고 인자 그거를 덕석이에 말라가 묵고 사는데, 한번을 쟁피를 뜯가(뜯어서) 온까네 비가 와가 덕석이 떠내러가도 신랑이라 카는 기 바앙(방에) 들어앉아가 공부한다고 그 떠내려간 그거도 딜라도(들이지도) 안 하고. 그런께 어째 부아(부화)가 나서 마누래가 마 가삣는 기라 신랑 놔두고.

가삤는데, 이 신랑은 공부를 해가지고 참 저 인자 과게(과거) 보러 가가 과게를 잘 해가지고 오가지고 마 인자 잘 사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등실등실하고 오이, 과거 해가 온께네 마누래가 인자 그냥 쟁피 뽑고 있어. 그 사람은. 그 신랑 내삐리고 가도 쟁피를 그냥 훑어. [조사자: 그렇지.] 마 복이 없으니께 안 되는 기라. [조사자: 그러니까 자기 복이다 이기지.]

그런게 신랑이 뭐,

"저 무슨 들에 쟁피 끊는 저 마누래 간데 쪽쪽 쟁피 꺾나?"

그런 노래가 있더라 쿠대. [조사자: 그렇지, 옛날에도 쟁피 꺾더만.] 그래갖고 그 마누래가 신랑이 그래 온께네,

"따라갈까? 말죽이라도 낋이주고 소죽이라도 낋이주고, 내가 참 그래 그리 해주꺼마."

하고,

"따라갈까?"

물은께,

"오지 말라."

카더란다. 오지 마라 카겠지. 그래갖고 인자 그 사람은 잘 살고. 공부해가 잘 살고. 이 사람은 마 그냥 [조사자: 그냥 갱피 훑고.] 평상 내 쟁피만 훑어가 묵는 기라. 복이 그뿐인 기라 고마.

[연제구 설화 99]

방귀 뀌고 아들에게 덮어씌운 어머니

노숙자(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시아버지, 시아버지를 갖다가 뭐를 했다나? 상을 들고 갔다나? 뭐를 어째가지고 그래 방구

가 나와서 낐는데, 그래 어찌 무안해갖고, 손자가 있어가, 저거 아, 그런께네 마 메느리 손자 다 그지? [조사자: 응.] 손자가.

"아 이놈우 새끼가 방구를 낐다."

우짜 이래이까는.

"엄마가 끼놓고 와 내보고 낐다 하노?"

[일동 웃음] [청중: 아가. 애는 바른 소리 하니까.]

애를 보고 인자 무안해가지고, 애를 보고 인자 낐다고. 인제 '니가 낐다 캐라.' 인제 이 뜻이 돼갖고.

"이놈우 새끼가 방귀를 끼고 뭐 어짜고."

이라이까,

"엄마가 뀌놓고 와 내보고 낐다고 덮어씌울라 카노?"

[일동 웃음] [청중: 아이고.] 나 이거밲에 모른다.

[연제구 설화 100]

조상의 환생을 보여주는 제삿밥

노숙자(여, 1938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그도 또 그렇네. 전에 누가 또 밥을, 제사 지낼라고 밥을 솥에다 지나놓으면, [조사자: 네.] 솥뚜껑 우에다가 [조사자: 맞아요. 맞아요.] 아, 포(표시), 포가 있다 하대. [조사자: 그러니까 표시가 난다고. 예. 고 밥에. 메밥에.] 멧밥 지을라고 밥을 해나모, 그 위에 이래 표시가 있다 하더라. [조사자: 그지 그지예.]

[청중: 쌀도 이래 꺼내갖고 깨끗이 해가 이래 딱 덮어놓으면, 또 보면 이래 체로 흔들어놔도 표시가 있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 [조사자: 그래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윤회를 하면 좋은데 그지예? 보통은 다 마 짐승이나 그런 걸로 하게 되면은 아 우리 조상님이 인자 뭐 저걸 했구나. 새가 됐구나 하면 이제 새 발자국, 개 같으면 뭐 개 발자국이 난다든가 뭐 그래 얘길 하시더라고 그지예?]

[연제구 설화 10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영화(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칠십에 고래장이(고려장이) 있었거든. [조사자: 네. 요고.] 그런데 칠십에 고래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자 어머니로 갖다가, 인제 전에는 이 촌 집에는 뒤에 또 마당이 널러예(넓어요) [조사자: 응. 뒷마당.] 되-게 깊이 파가지고 어머이로 인자 그 살짹이(살짝) 인자 모시놓고(모셔놓고) 인자 식사로 갖다 드리기도 하고, 표없이(표가 나지 않도록) 이래갖고 고래장 만들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인자 한 번은 아들이 인자 좀 원님네 그 밑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 원님이 이거 나무, 뿌래(나무뿌리) 없는 구시를 주면서러,

"아래 우에(위에), 저 우에 끼고(위에 것이고) 밑에 끼고, 뿌리고 우에 머리고 인제 그거를 인제 알아가 오라."

카거든. 그러이까는 어머이 곁에서 물었어. 칠십 넘었는데 어머님한테 가서 물으이까네, 그래 어머이가,

"이 버지기[51]에다 물을 팍 떠놓고 고걸 딱 담가라. 담구면 우로 올라오는 거는 우에 머리고, 밑으로 내리가는 거는 인자 그기 인자 뿌리다."

이래. 그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인자 원님한테 고렇게 딱 말을 하이까,

"그러면 어떻기 이걸 알았느냐?"

[조사자: 맞아예.] 그래, 뭐 그래서,

"어마이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이를 고래장을 몬 해서러, [조사자 :그렇지.] 그래그래 해가지고 이래. 어머이 가르키줬다."

그때부터서 고려장이 없어졌답니다.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일동 웃음] [조사자: 아! 잘하셨어요. 어머님.] [청중: 그래 옛날 말이 그리 있다고.]

[연제구 설화 10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영화(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51)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넙적한 질그릇을 지칭하는 '자배기'의 방언.

그러고 인제, 애기가 인자 또 인자 고래장에 어머이를 져다 내뻐렀다 아입니까? [조사자: 맞아요.] 어머이는 내려올 때 아들이 이 집을, 질로 몬 찾을까봐 솔잎을 딱- 딱- 떨어뜨리면서, 딱- 딱- 떨어뜨리고 인자 찾아오라고.

그래나니까네 인자 아버지는 지게를, 또 손주가 따라갔단다. [조사자: 그렇지.] 그 손주가 따라가니까 지게를 갖다 탁 내뻐리고 인자 되돌아오이까네,

"아버지, 그 지게를 와 버리고 옵니까?"

카이까는,

"이는 버리야 된다."

그래,

"나도 아버지가, [웃음] 칠십 되몬 고래장을 할 끼라고 거 가(가지고) 가자."

하더란다. [조사자: 맞아. "지게 도로 들고 가입시더."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지예? 맞아, 맞아. 고래장 이야기.]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103]

내 방귀 고소하지요?

이영화(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메느리가, 옛날에는 밭도 고마 이래 평평한데 있는 지역이 많거든예. 그러몬 인제 저 오줌똥으로 마 똥, 똥으로. 옛날에는 [조사자: 거름을 하니까.] 여자도 이고 가서 퍼붓고.

또 인자 남편하고 인자 시아버이하고 인자 메느리하고 그래 인제 똥을 퍼가지고 인자 똥장군이를 인자 지고 가다가, 첨 번째는(첫 번째는) 마누라가 인자 신랑 뒤에 따라왔는데, 이놈우 어찌 마 담배 한 대 풉는다꼬 마 신랑이 자리를 비키갖고(비켜서) 시아버이가 따라왔는데, 그놈을 이고 가서러 따라가면서러 하는 말이, 이고 가면서 방구를 끼놓고는 신랑 보고,

"내 방구 달제요? 달제요?" [조사자 웃음]

고마 두 번 세 번 해삤단다. 그래이까는 신랑이 [조사자: 뒤에 오는 줄 알고.] 응. 가서 보이까는 마 담배 푼다고 어디 피해삐리고 시아버이하고 오줌을, 똥을.

고마 그 자리다 탁 내삐리뿌고 얼마나 민망시러울 꺼고? 집으로 와가지고 방문 출입도 안 하고 방에 탁- 들어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 삼일이 돼도 안 나와서러 인제 '저 메느리를 어떻게 하면은 밖을 나올꼬?' 싶어가지고 할배가 인자 꾀로 냈어.

"나무를 인자 모판에다가 갖다놓고는, 날로 마 사랑방에 있거든 가암을(고함을) 질러라."

[조사자 :불러라, 세게 불러라.] 그러이까네 꾀를 내갖고,
"귀 먹었다고 가암을(고함을) 질러라."
마-
"나무 캐러 나오라."
카면서,
"나무 짜개(잘라) 달라."
하면서, 꾀를 내가지고,
"저놈우 영감쟁이가 귀가 먹어가지고, 마 옛날사람은 이래 막 귀가 먹어가 얼른 안 듣기면 명 잣는 가락을 가지고 구녕을 탁- 뚫어삐면 좋겄다."
카고. [조사자: 뭐를 갖고?] 명 잣는 저 저 꾸리, 꾸리 이래 하는 가락이 있어. 가락 그걸 가지고 막-,
"저 영감쟁이 저 귀가 너무 먹어갖고. 가락을 가지고 귓구멍을 마 쑤씨삔다." [조사자 웃음]
고, 마 가암 가암을 치이까네, [조사자: 아이고야.] 인제 '참말로 '시아버님이 내 말로 못 알아들으셨는 갑다.' 싶어 그래서 털고 나와가지고 그래 밖으로 나왔단다. 그래 꾀로 부리갖고.
지는 인제 마 남펜(남편)이라고, 만만타고(만만하다고) 그래 얘기했는데 시아버지가 따라와 뿌맀어. [조사자: 그러니까.] 오금 뭇다 겁을 내가 뭇던 거 내삐리고 집으로 와갖고 딱 문 닫고 안에 들어앉았어.

[연제구 설화 104]

귀신이 보이는 질경이 기름 불

이영화(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그거는 열매로 갖고 저 기름을 짜나면 지름을 짜가, [청중1: 그 열매라 쿠나?]] 그 열매로 가 짜야 되지 그런 거를. [청중1: 뿌리라던데.] [청중2: 열매가 열거든.] 예. 열매가 열거든예. [청중1: 열매갖고 할라면 어렵은데.] 그걸 가지고 해나모(해놓으면) 이 장종지에다 심지를 인자 그거를 해가 댕기갖고 참종우를(참종이를)[52] 가 비비갖고 보면, 인자 하도 구신이(귀신이) 그 와서 잡숬는 거 보인다 카대. [조사자: 보인다고?] 그 말이 있대. 그 말 있대.

52)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한지'라고도 함.

[연제구 설화 105]

도깨비와 싸운 사람

이영화(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우리 저저 뭐꼬? 고숙[53]도 그리 됐다 하대. 그 공동묘지 산을 넘어오면 가깝고, 저 한 질로 오면은 [조사자: 돌아와야 되고.] 좀 멀고 이래이까네. 장에 갔다가 그거를 내로 건네고 공동묘지 산을 넘어오면 한참시리 가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움했다 하대예. 그래놓이,

"빗자루 몽댕이를 매 놨다."

그렇다 하대. 그런 말을 들었어.

[연제구 설화 106]

귀신이 실제로 있는 이유

이영화(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2일 채록
[연산2동 연산2동경로당]

옛날에는 너무너무 몬 살아가지고, [조사자: 맞아.] 인자 아버지 제산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인자 아버님이 인자 너무 인자 애동(외동) 아들하고 그래 살면서러 개로 한 마리 키웠는데, 그기라도 인자 잡아갖고. 개고기는 요런 거 안 쓰거든요 제사. 그래도 그 놈을 장만해가지고 개를 삶아가지고 인자 해놓고. 앞집에 인제 친구, 인자 아버지 친구분을 데불러(데리러) 가는데,

"저, 오늘 제산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개를."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들이 내 좋아하는 개로 해놨다고 같이 가 묵자."

카더라요. 꿈이 꾸이더랍니다. [조사자: 그기 실제로.] 그러니까는 귀신이 있어. [조사자: 있어.]

[연제구 설화 107]

53) 고숙(姑叔), 고모의 남편을 이르는 호칭.

도깨비로 변하는 빗자루

윤정수(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청운경로당]

그래가 아침에 고는 성냥이제? 아침에 보이께네 이게 마당 같은 거 씨는(쓰는) 거 빗자리(빗자루) 있제? 빗자리 고 딱 서가 있더란다. 빗자리. [조사자: 아, 어어. 그 도깨비다 도깨비] 아, 그기가. 성냥이 아이고 빗자리더란다. [조사자: 빗자리가 마당에.] 빗자리. 마당에 고 서가 구석에 딱. [조사자: 따라 왔다. 따라온 게 그기 도깨비네.] 따라 온 기 마당에.

[연제구 설화 108]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윤정수(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청운경로당]

저 시골에는 아주 몬 살았어. 방이 작았거든. 이런 데 아파트겉이 그리 크게 안 살고. [조사자: 그치, 그치.] 방이 작으니까. 그런께 그서 마 방이 쪼맨한(작음) 하나 해가지고 부부간에도 같이 몬 자요. [조사자: 응. 그럼 우째 잤어?] 부부간에도 자나? 아도 많고 뭐 이래 하면. 부부 간에 같이 요래 여 신랑각시 같이 자고, 아 쭉- 이래 자는 사람 있고. 또 여 집안끼리 달라서 이것도 아버지 여 자고 엄마는 이짝서(이쪽에서) 자요.

그래 되면 속담도 있거든. 아들이. 아버지 인자 생각 있으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간다 아이가? 가게 되면 아들 눕어자면 마 이래 줄줄줄. [웃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속담이 여러 가지 있어. [조사자: 어쨌다고? 엄마한테 갈라면 우째 해야 된다꼬?] 그래가지고 인자 그 생각은 있지. 그래 저 지내갈라(지나가려) 카이 힘들고 하이께,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눕어자면 괜찮은데 집안끼리 달라요. [조사자: 그렇지.] 그래 같이 안 자고 아버지 여 자고 엄마는 여 자고.

건네가야 될 것 아이가. 아들한테 들키는 기라. 들키면 아버지가, [웃음] 들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조사자: 아버지 뭐라 카는데? 그래.]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 엄마한테 가고, 그래 졸졸졸 흘리면시, [조사자: 가더라고.] 아들 이마에 흘리가지고 그래 그런 말도 있었어.

[연제구 설화 10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이순남(여, 1930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2동 청운경로당]

옛날에는 칠십 고래장(고려장)이라 안 카나? [조사자: 그렇지.] 칠십 고래장인데, 인자 아버지가 인자 저그 엄마로 업고, [조사자: 그렇지.] 고래장을 하러 갔거든. 가나놓이께네 그래 인자 고래장을 하고 지게를 인자 지고 오는 기라. [조사자: 그렇지.] 아, 지게를 놔두고 오는 기라. [조사자: 응, 원래 놔둬야 돼.]

아가, 따라간 아가,

"저 지게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기라.

"지게를 놔둬라."

저 아버지가,

"놔두라."

카이,

"아버지도 후제(나중) 되면 지고 가야지."

이카미, [조사자: 그렇지.] 그래가 그래놓이께, 저 아버지가 가마 생각하이까네, 그래 저거 엄마를 다부(다시) 파가지고 오더란다.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11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금조(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연산3동경로당]

[조사자: 그래 어떻게? 옛날에 어째 아들이 어떻게?] [청중; 아들 몸이 안 좋고 그걸 자아(잡아) 믹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할매가 그랬다 안 하더나. [조사자: 할매, 할매. 응.]

시어마시가 아파가 있으이께네, 아들이 오데 출장가고 없는데, 오이끼네 저 시어무이로 어띠키(어떻게나) 만날 맛도 없는 지렁이를 잡아가 주건대, 할매가 만날 쪼깨서(조금씩) 먹고 여나(넣어서) 놓고, 여나 놓고 이래가 있다가, 아들이 출장 갔다 오이께네,

"야야, 메느리가 아무거시 어마이가 날로 만날 맛있는 거로 해주건대, 이거를 주더라, 이기

뭐꼬?”

이라면서로, 자기가 숨카났던(숨겨두었던) 거로 이래 내보이께네, 지렁이로 한거(가득) 잡아 갖고 그래 할매를 믹이나노이(먹여놓으니), 그 아들이 깜짝 놀래가,

“엄마요, 이기 지렁이네요.”

커이께네, 할매가 깜짝 놀래가 눈을 떠드라고 그 소리 해쌌대.

[연제구 설화 11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금조(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연산3동경로당]

자기 아부지가 자기 옴마를(엄마를) 갖다가 데루고(데리고) 산골로 갔는 거라. 산골에 가갖고 참 밥하고 뭐 물(먹을) 거로(것을) 갖다가 여나(넣어) 놓고, 그래 지게하고 그다가(그곳에다가) 다 놓고,

“옴마, 여 잘 있으라.”

하고, 인자 자기 아들이 돌아나왔다 하대예? 돌아나오이께네, 손자가, 따러 갔는 아들네미 그기 하는 말에,

“아부지요.”

그래가 아부지가 부르이께네,

“와?”

이라이께네,

“아부지, 저 지게를 가지고 가야지요,”

이라이께네,

“그 지게는 뭐할라고? 고마 그 놔두라.”

이라이께네,

“다음에 아부지요, 아부지도 늙으몬 여 할무이매쿠로(할머니처럼) 내가 저 아부지를 지고 여게 올 것 아입니꺼. 내가 파묻으로 올 건데 아부지 저 지게 가 가입시더.”

이라더라 입니더. 모르지, 그래 설명을 하더란다. 뭐 우리 눈으로 어데 봤나. 우리는, 그런 말은 있지예. 그치예(그렇지요).

[조사자: 그래가 인자 고래장이 없어짔뿠는 갑네.] 그러자 안자 이 그라이께네 저그 아부지가 놀래갖고, ‘아-, 이 자석 본다. 내가 늙으몬 이 자석이 나를 고래장을 시키겠다.’ 이 지게

를 다부 가지고 가고, 내가 그래 해야 되겠담서 그 질(길)로부터 이 사회가 고래장이 없어짔단다.

[연제구 설화 112]

본처 딸을 도와준 두꺼비

김금조(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3동 연산3동경로당]

[조사자: 저저 두꺼비가 나중에 은혜를 갚는 이야기.]

은혜를 갚는 기 아이라 서모엄마가 저 뭐꼬, 여 그 아가씨로 쪼깬 거 열 멫 살 묵는 거로 갖다가, 만날 저그 엄마가 그,

"물을 떠가 이고 오라."

하더라대. 물로 오데 가가 이고 오는데, 물로 들어다가 또 도오(동이)다가 부으몬, 물도오(물동이) 밑이 미자바리가[54] 빠지뿌고 없는 거라.

그래 없으이께네, 뚜께비가(두꺼비가) 보더마는 그 보이 안타까우께네, 그 짐승도 지가 인자 이 바닥에 드러누우갖고, 팍 눕으갖고, 인자 있는 거라. 있으이께네, 물들을 막카(막아) 나(놓아) 놓이께네. 그래 이 아가씨가 만날 물로 인자 갖다 놓으니, 뚜께비가 물을 자다 …….

그래 저그 서모 엄마가, '이상하다. 저 물을, 물단지기 밑에 미끼가 없는데, 저거 우째서 저래 물을 갖다가 부우몬 물이 안 없어지고 물이 한거(가득) 차노?' 서모들이 옛날에 독했다 아입니꺼? 서모들 독했다 하대예.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없었지마는.

그래 그라이께네 그 서모가, '이상하다.' 저 뚜끼비가 그랬는 그것도 모르고, '저거 와 저래 물이 저래 차는고?' 싶어서 담아 보니까, 한 분은 딱 보이께네, 뚜끼비가 그 단지 밑에 들어가갖고 탁- 마 굽어있더랍니더.

[연제구 설화 113]

시집 못갈 사주의 여자

김금조(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54) '미자바리'는 미주알(항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 부분)의 방언. 여기서는 '밑'의 뜻.

[연산3동 연산3동경로당]

사주가, 그 여자가 사주가 되게(매우) 신(센) 여자라. 사주가 신 여자가, 그래가 자석을 오데가 놓으몬 자석이 죽었부는 거라. 죽으이께네, 또 이 여자가 참 시집을 못 가고 죽고나이께네, '나는 와 이래 자석이 잘 죽노?' 이래갖고, 또 딴 남자를 하나 얻어갔다 하대예.

얻어가이께네 또 그 가이께네 그 아로, 또 하나 낳아이 또 죽었부는 거라. 그래 이 아를 너이를(넷이나) 죽었어. 그래 이 여자가 오데가 묻기로,

"나는 와 이래 시집을 갔다 하면은 내 자석이 와 이래 마이 죽노? 나는 와 이렇노?"

이래갖고, 어는 절에로 가갖고 절에 시님(스님)한테 물으이니께네,

"당신은 사주에 시접을(시집을) 안 가야 되는 사주가 있는데, 자꾸 시집을 가기 때민에 그래 당신을 자석을 놓으몬 당신 자석은 자꾸 죽는다. 또 죽고 또 죽고 하이께네, 시접을 가지 말고 혼차 살아라이."

이래 했답니다. 어느 시님이.

[연제구 설화 114]

본처와 첩이 다른 점

서영순(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그래 인자 처캉 이래 앉아가 안자, 아저씨 이래는, 본처캉 이래 첩캉 앉아가 있으이까네, 남자가 방구로 '뽀~옹' 끼거든요. 하이고 첩으는,

"하이고 당신 방구 다네. 고시하네요."

이래 카거든. 본처는 떡 앉아가,

"사리기 몬 살기 꾸렁내야(구린내야)." [일동 웃음]

그래이까네, 본처하고 첩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첩으는 인자 남자들도 어데로 강수로 가지고 남자잔테 우짜든동 그거로 할라 카고, 본처는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조사자: 표현하네.] 그래 표현을 하니까네,

"살기 몬 살기 꾸렁내야."

[연제구 설화 115]

첩에게 가지 않는 본처 자식의 기운

서영순(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그러니까네 인자 본처캉 그래 아로 갖다가 인자 첩이 인자, 첩을, [말을 바꾸어] 본처에 자석을 갖다가 자기가 아무리 인자 이래 품고 안아도 그것이 인자 그 엄마잩에(엄마 곁에) 안 가고, 그것이 인자 본 여자들한테 간다는 기라. 거 인자 기(氣)가. 아아(아이의) 그거한 기가.
그러니까네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기지.

[연제구 설화 116]

가랑비와 이슬비

서영순(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그 저게 뭐꼬? 하도 안 가고 인자 있으니까네, 장모가 한단 말이,
"아이고 이 사람아 가라고 갈방비(가랑비)가 오네."
이래 카거든요. [조사자: 응. 가라고 갈방비가.]
"가라고 갈방비가 오네."
이래 카이까네, 또 사우는 뭐라 카는 줄 아능교?
"허이고 장모님요. 있시라고 이슬비가 오네요."
고래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이까네 쫓도 몬 하더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연제구 설화 117]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미타암

서영순(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그거는 우리 동네 옛날에, 우리 동네 이쪽 비알에(비탈에), 아 저 그거 미태암[55] 절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옛날에 인자 그 시방도 보몬 그 큰 굴이 있어요. 그도 그 안에다가 부처님 모셨는데, 시방 인자 그래 고 쌀이 하나썩 하나썩 떨어졌어요. 이거 저게 뭐꼬? 스님, 스님이 인자 그거, 인자 그래 되면은 밑에 스님이지. 그래 인자 그 쌀 더 나오라고, 부지깨이를(부지깽이를) 가지고 고거로 갖다가 마 고 물 흐리는, 그 쌀 흐리는 그다 콕 쑤시뿠어요.

그래가 시방도 물이 한 빵울썩 토닥토닥 한다요. [조사자: 쌀은 안 나오고 물이 나옸구나.] 예. 그래가 쌀은 안 나오고 그 물이 나오, 시방도 그 절이 있어요. 미태암 절이라고 있거든.

[조사자: 그 미태암 절이 어디 있는데?] 미태암 절 저 저 덕계. [조사자: 덕계.] 덕계 그 우로 가면은. [청중: 산 넘어 가야 돼.] 그게 가면은 미태암 절이 있었는,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이쪽에 살았고, 인제 이쪽에 산에 그거 절이 있거든요. 안죽(아직) 그게 절은 별로 그거 하도 안 하는데, 유명한 절입니다.

[연제구 설화 118]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서영순(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이놈우 것 시접을(시집을) 가나나이까네 남자는 공부만, 글만 한다고 탁- 그래가, 한날에는 인자 저게 뭐꼬 쟁피를 훑어가 오니까네, 덕석을 널어나났나 나락에, 마당에 덕석은, 비가 와도 그 공부한다고 그 나락을 함(한 번) 안 걷더래요.

그래 그 남자캉 몬 살고 와뿠어. 그래 이 남자는 인자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를 해가지고 인자 그거를 했어. 어디 뭐 [조사자: 장원급제.]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어데 참 그거로 가는데, 그 여자가 다시 그 쟁피를 그 논에다가 훑고 있시이, 그 언자 남자가 한단 말이,

"훑던 쟁피 다시 훑구나."

카는, 그래 그런 기 그 소리라요. [조사자: 그래 복이 그것밖에.] 예. 그것밲에 안 된다 이 말이죠.

55) 절의 정확한 명칭은 '미타암'이다. 미타암은 양산시 천성산에 있는 작은 절로, 정확한 주소지는 양산시 웅상읍 소주동 산 171번지(주진로 379-61)이다.

[연제구 설화 11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서영순(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저 뭐꼬 이기 만날 그 시어마시를 눈을 그래, 묵을 맛이 있어서러 인자 고 고거를 하나썩 내아가 요래 자리 밑에다가 옇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만(아무리) 봐도 뭐 이상하거든예. '고 우째서러 엄마가 저렇게, 저게 뭐꼬, 저렇게 건강하고 얼굴이 좋는고?' 싶어사서러 그래 조사를 해보이까네, 꺼시가(지렁이가) 요래 말라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인자 아마 메느리 효부상을 받았을 거예요. [조사자: 아아, 그래가지고.] 야. [조사자: 응응. 그래 그거라도 해가지고 그래 어무이를.] 예. 어무를 봉양해서러 무을(먹을) 거는 없고, 그래가지고 보양을 해서러 그래 마 효부상을 받았을 거야.

[연제구 설화 120]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서영순(여, 193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4동 대리부녀경로당]

옛날에 애기가 하도 울어, 산중에 사는데, 애기가 하도 울어싸서러 아만(아무리) 달개도(달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인자 엄마가 한단 말이,

"내 꽂감 주꾸마. 울지 마라."

이러 카이까네 근칬거든요(그쳤거든요).

그때 해필 산에서 내려온 호랭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아잉교. 애도 물고 가고 사람도 뭐 해쳤는 그기 있었는데, 인자 그러 카이까네 애 잡어, 저거 사람 잡으러 오는 호랑이가 꽂감 주꾸마 카몬 애가 안 우니까, '아이고 저거 꼭 내보다 더 무섭은 놈이 있는구나.' 그래가 호랑이가 물러갔다는 그런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제구 설화 12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윤환(남, 1935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4동 연산4동경로당]

고래장, 옛날에 사모(시묘), 그 부모 늙으면은 지게로 지어다가 굴 파가지고 여 놓고, 자식은 그냥 돌아오고. 지 부모는 땅속에 고래장에 들어가고 안 했슴니까.

[조사자: 그래, 이 지게는 가지고 오는 이야기야.] 지게는, 저이 저이가 부모를 지게로 지고, 인자 아들로, 부자까지 같이 간 거야. 같이 가가 저이 아버지가 인자 지 부모를 갖다가 땅에다가 그렇게 해놓고서 지게를 나 놓고 오니까,

"아버지, 왜 지게는 안 가져 갑니까?"

지게, 그렇께,

"지게는 나 놓고 가지, 뭘로 가져 갈라 하노?"

인께,

"나도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몬 이렇게 할 거 아입니까."

인자 고렇게 어어 말이 우리도 알고 있지. [조사자: 그래가지고 고래장이 없어졌는 모양이지예.] [청중: 고때부터 인자 그기 없어졌다 그래.]

[연제구 설화 122]

도깨비불

김윤환(남, 1935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4동 연산4동경로당]

도깨비라는 거는 옛날에가 우리도, 그래 요런 소리를 하몬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갈 거요. 우리는 도깨비라는 걸 참말로 진짜 봤어요.

도깨비라는 게 언제 발전을 많이 하느냐? 여름에 저 장마 지고 이래 비가 줄줄 올 때, 그러면은 이 저 바닷가에, 바닷가에 저 이 바다 집 강이 있잖아요. 냇가라 그라지요. 냇가가 흐르는데, 그러며는 나는 내가 어려서, 그렇게 어려서도 아니야. 열 살 냄기서 먹어서 내가 실상 우리 친구들과 봤는데, 그 발전이 오서(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저 이 바닷가 냇가에서 이

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그거 인자 도깨비가 불이 거기서 생겨가지고, 도깨비불이라 그러잖아요.

불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이게 싹- 와요. 올 때 싸- 하는 바람이, 바람기겉은 지는 이 저 바람이 납니다. 그럼 그기에 와가지고 도깨비불이 막 싹- 갈라져요. 막 갈라져갖고 수십 막 백 개가 갈라져가지고서 쫙 와갖고서는 막 쏴-한 소리가 나요.

그라고 동네 앞에 이렇게 무슨 나무가 큰 정자나무가 있으몬 거기로 탁 모이 있다가, 그리고 또 발전해갖고서 쫙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 촌에 이 저 사람이 죽으면은 생애(상여)라고 있잖아요. 생애를 동네 한 젙에다가(옆에다가) 놓는 게 아니고, 저기 들, 산모퉁이가 따로 있습니다. [청중: 집이 있어.] 예, 생애 그거 장사 치르고서 끝나면은 그 놈을 다 저기하고 저 보관하는 데가 있어. 거기다 옇는데 싹- 와가지고서 도깨비불이 그리 막 싹 다 들어가버려.

내가 그걸 직접 봤어요. 보고서 야들 보고서,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이러이까네, 그리 마 그 많은 게 와가지고 싹- 이리 들어가는데, 그 도깨비불이란, 도깨비라는 게 그게 없는 게 아입니다.

그잖으면은(그렇지 않으면) 바닷가에 이런 사람 피가 인저 나고 이러면요, 빗자루하고 이렇게 쓸잖아요. 대나무 빗자리하고. 그게 그 이튿날 그 도깨비가 지나고 장난치고 하면은 그 빗자루가 있어. 그 빗자루가.

[조사자: 그래 옛날에 할무이들이, 저 여자들이 와 저저.] [청중: 맨스.] [조사자: 저게 빗자리 깔고 앉지 마라.] [청중: 맞어. 맞어.]

[연제구 설화 123]

왼다리를 감아야 도깨비를 이긴다

김윤환(남, 1935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4동 연산4동경로당]

도깨비를 이길라면은 왼다리를 감으라 하거든. 그게요, 오디 사랑방에서 놀다가 지냈던 데 집에 갈라고 하면은, 그 한 동네서 참 막 무서운 데가 있어. 거가 선녀 집이라고 그기만 지나면 안 무서운디, 거기 길 건너기가 이 동네 살며 밤이 어두우면 거기를 어떻게 갈까 신경을 써요.

그러면은 어떤 아들은 거기 가다가 어디 저 나무 밑에나 이 무슨 막 안 좋은 데가 있어.

거기 도깨비가 잘 나타난다고. 체할 구석 나오고 도토리 나온다고 그러면 항상 거기 무서워 가지고, 같이 몰려가고 혼자 갈 때는 막 쳐다보고 이라면서 막 가는디, 막 쫓아올 것 같애.

그래가 사람이 정신을 잃어가지고서는 도깨비하고 싸운다고 이라컴서 시도 모르고 왼다리를 감아가지고서 그놈을 이기고서 아침에 가보면 빗자루가 있는 기라. [청중: 도깨비한테는 왼다리가 최고라.] 도깨비 이길라몬 왼다리 감아야 돼.

[연제구 설화 124]

애장 때 단지에 넣거나 돌로 쌓는 까닭

이석충(남, 1940년생) 구술
2018년 1월 30일 채록
[연산4동 연산4동경로당]

그라고 애장이라고 있어. 애장. 애장을 애들이 어려서 옛날에는, 이 어른 얘기하듯이, 옛날에는 병이 들면은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하니까, 애들이 어려서 마이 죽었어요. 열 살 미만에 마이 죽거든.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버리면 산에 짐승들이 참 많았어요. 많고 또 지금 말하는 여우가 옛날에는 예수라 그랬어. [청중: 예수.] 예수. 여우를 예수라 캤어, 옛날에. 우리 경상도에서는. 예수들이 가가지고 애들 어설프게 묻어노몬 파가지고 그걸 뜯어묵는다고, 시신을. 그래서 그걸 못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뭘 했나 카몬 단지에다가, 쪼만한 단지에다가 애들을 넣어가지고 여우가 못 파먹도록 묻었어요. 그거를 애장이라 그래. 애장. 애기의 무덤이란 얘기지. 애기의 무덤이란 뜻에서 애장이라 그러고 그래 마이 썼어.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조사자: 다 애장터 있어.] 산에, 이거 뭐 근래 와서라도 뭐 일하다 보만 유리, 저기 뭐야 그 도기(토기)같은 거 나온다고. 이래 뚜껑 열어보고 하모 하면은. 지금은 삭아버려. 세월이 오래 가니까 다 삭고, 애기 시신은 금방 물이 되어 사라져 없어진다고. 어른도 세월이 가몬 빼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는데. 애들은 그래 없어지거든.

그럼 없어진 뒤에는 여우가 와 봐야, 예수가 와 봐야 뜯어묵지를 못하니까, 그래 마이 쓴 기 애장이야. 애장. 그럼 부모들도 몰래 마이 썼지. [청중: 여우가 와도 못 파구로 애를 묻어 놓고서 돌 줏어가지고, 돌을 이렇게 해논 것이 애장이다.] 돌무덤도 했고, 단지에 넣어가지고 해 묻었는 기 애장이다.

[연제구 설화 125]

자기 새끼를 예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고순자(여, 1916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그래 호랭이가 새끼를 낳아논께네, 그 우리들은 인제 우리들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갔던가? 간께네, 소꿀 소꿀해서 새꼴시럽아서(귀엽고 예뻐서), 이래갖고 이란까네, 건들고 또 담아다 갈까 싶어서 우서(위에서),

"어흥."

하면, 마 사람이 놀래서를 도망을 가고 그랬다고. 그런 이바구는 들어봤지. [조사자: 그럼 그 다음날 소쿠리 같은 거 다 집집마다 갖다준다 하대예.] [웃음] 몰라. 그런것까정 몰라도,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쌌구만.

[연제구 설화 126]

은혜 갚는 두꺼비

김덕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뚜깨비(두꺼비) 그란게, 몇 년 전에 우리 아저씨 계실 때, 그때 한 십 년, 십오 년 전인가 그런데 낚시를 갔다가, 낚시 하고 오시다가 뚜깨비를 한 마리를 잡아왔는 거라. 어법(제법), 어법 크더라고.

"하이고 이거 요왕님(용왕님) 그 할낀데. 아들인강 딸인강. 가만 있어라."

그래,

"이런 거 잡아오면 안 돼요."

칸까네,

"귀엽어가 잡아왔다."

카고. 아침에 일나이까, 저저 요런 다라이(대야), 쪼깬 다라이에다 물로 담아가지고 축담에 놔낳다가 아침에 일나이까네, 비는 부실부실 오는데 띠 나가뿌고(뛰어 나가버리고) 없어.

"하이고 우얏거나(어쩌나) 이 세상에. 엊저녁에 어덥어도(어두워도) 바다에 그 떤지줄 낀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데로 갔는고? 누가 잡아갔나? 어데 수채 쳐백히가 죽었시면 우짜꼬."

이래쌌디만은, 내중 보이까 수채 옆에 가마(가만히) 있는 기라. 그래 그거를 잡아가지고,

"저 빨리 아침식사하고 가서러 고 자리에 바다에 갖다 넣어라."

캤디만은, 참 고 자리에, 바다에 갖다 옇이까네, 막- 날개로 헤엄을 치고 담바라(달려서) 가디만은.

그라고 우리 아저씨가 인자 그거 이제 저저 낚시로 갖다가 옇이까네 생전에 고기도 잡아오도 안 하는데, 그랬는데 세상에나 고기를 이만한 큰 도다리로, 큰 거. 큰 납새미(넙치)겉은 도다리 안 있나? 그거로 한 마리 잡아와서러 그거로 해 먹는데, 되게 싱싱한 거는 잡아놓이까네, 잡아가지고 솎구이까네 살이 탁탁탁탁 터지더라고. 너무 너무 싱싱해가지고.

그래 그 국을 끓여가지고 그때 아들하고 참 국 낋이가, 한 솥 낋이가지고 잘 뭈다. 달아. 달아. 그래 그거를,

"여왕님이 그 엄마가 저저 자기 자녀 인자 살랴줐다고 이래 은혜하는 갑다. 보소, 내 말이 안 맞나?"

이랬다. 그래 잘 뭈어예. 그래 그래이깐에 걸대로 그거 저 건드리가(건드려서) 안 된다는 커는 거는 안 건드리야 돼. 거북이 겉은 거 뭐. 그제?

[연제구 설화 127]

뱀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이유

김덕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기(기어) 댕기는 거 벌로(예사로) 보면 안돼. 절에 가서러, 절에 가서 스님하고 그 절 옆에 그 잠깐 앉아가주고(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니까네, 그 보살들하고 앉아가지고, 멫이 앉아가 얘기하고 있으니까네, 지네가 이만한 기 산에서러 내려와가지고 막 이래이래 하더라고. 그래가 우리가 있으니까네 보고 우데로(어디로) 갈꼬 갈 바를 몬 잡는 거라. 그래가지고 스님이 보디만은, 보살 하네이가(한 명이),

"아이고, 지네 저거 잡아가지고 약 하면, 저런 큰 지네 저거는 참 약 된대이. 약 된대이."

이래싸이까네, 마 스님이,

"어허, 손대지 마라고 손대면, 그 산에서 내려온 짐승 그런 거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니 갈 데로 가라. 니 갈 데로 가라. 가라."

커며, 손도 안 대고,

"니 갈 데로 가라."

컨께네, 그래 참 이래저래 하더만은 고리(그곳으로) 마 올라가서 흔적도 없더라.

[연제구 설화 128]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나팔수

김덕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시골에서러 참이나 뭐, 논에 일하는데 그거로 농주로 이고, 밥을 이고 갔다나? 뭐 이고 가다가 오줌이 매렵우니까네, 옛날에는 옷도 뭐 이 땅쭈 아이가? 이 떡 벌어진 땅쭈.[56] 내라줄 사람도 없고, 무겁은 거를 이고 떡 논두렁 옆에 앉아가지고, 떡 벌씨(벌리고) 앉아가지고 앉으면 마 그기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소변을 보고. 본다고 싸아- 하이까네, 저저 그기 뭐꼬? [조사자: 끼(게).] 으응. [조사자: 개미?] 그 아주 그거 뭐고? 그거? 아 기(게). 아주 큰 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로, 안에 참 공알 그거로 물고 뒤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죽는다."

고,

"내 죽는다."

고, 고함을 지르니까네 저 질을 가다가, 도사가 옛날 도사 나발, 나발로 가져고 질에 가다가 떡 보고 있으니까네. 그래 하도,

"날 살려줄라."

캐서, 가이까네, 그래 이 세상에는 커다란 기가 물고 안 놓거든. 그래놓이 그래,

"도사님요, 이거 좀 날 좀 살랴주소."

쿠이까네,

"살랴주소."

쿠이까네,

"내가 나이가 팔십 되도록 이적꺼지(이때까지) 살았는데, 안죽꺼정 나발로 이렇게 불고, 방방곡곡을 나발을 불고 댕기도 씹나발 불기는, [웃음] 씹나발 불기는 처음이다."

쿠면서러, [청중: 처음 듣는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저저 끼로 잡아가지고 [청중: 그걸 어떻게 잡았노? (웃음)] 그 찌구댕이(작대기) 집어가지고 들고 때리가지고 잡고나이까네 그래 그 여자는 살아가지고.

56) 단속곳 밑에 입는 여자 속옷 중 하나인 고쟁이를 말함.

[연제구 설화 129]

황진이를 사모했던 총각

김덕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황진이, 황진이가 [조사자: 이야기해 보이소.] 황진이가 제일 처음부터 기생이 아이라. 그 동네에서러 인물이 참 너무 좋았는데, 그 동네 총각이 또 황진이를 억수로(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다- 참 구식으로 착실했다 아이가? 그래 암만(아무리) 만나줄라 캐도 안 만나주고. 만내줄라 해도 안 만나주고. 그래 결국은 인자 책에 그래 났더라고.

결국은 인자 황진이가 벵(병)이 나가지고. 황진이가 아니고 황진이 사랑하는 그 총각이 인자 죽기가 돼가지고. 그래 인자 죽어가지고 생이를(상여를) 밀고 황진이 그거 삽작대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대문 앞을 지내가는데, 대문 앞에 그 환경이, 그이 송장, 영구차가 지내갔는데, 거서러(그곳에서) 마 일꾼들이, 담장군들이[57] 발로 몬 걸어가는 거라. 발이 붙어가지고. 황진이 그거.

[조사자: 그래가지구예?] 그래가지고 그래가 인자 술로 한 대 사가지고 한 병 붓고 나이까네, 그래 그거 일꾼들, 싣고 간 담쟁군들이 인자 발이 떨어져가지고 그래 싣고 갔다 커대.

그래가,

"나는 간다, 나는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나는 간다."

그기 노래가 안 있나 그제? 그 책이 억수로 슬프더라고 그기. [조사자: 그이께 그 상사병이 걸려가지구 못 가가지구 황진이가 치마를, 치마나 저고리를 탁- 덮어주이까네 그때서야 움직이더라구.] 응. 그래 황진이 그기 노래가 좋다꼬.

[연제구 설화 130]

지킴이 뱀이 보이면 안 좋은 이유

김덕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쌀 낸다고 쌀 내러 가면서러 입을 이리 집고, [손으로 입술을 잡으며] 집고 이리 쌀로 내이

57) 상여를 메는 상두꾼을 말함.

까네, 찹아(차가워) 찹아. 구레이가(구렁이가) 그래 찹더라고. [청중: 구레이가 찹다.] 그래가 그래가지고,

'어!"

이래 보이까네, 지 몸을 이래가 건드리가 누지르고 있는데, 빙빙 돌리가지고 머리는 날로 떡 보고 이-래 [고개를 치켜들며] 있더라고. 그랬더마는 결국에는 그 우리집, 그 집이 마 우옛기나 좀 망한 택이지. 친정부친도 그러고 얼마 있다가 밸안간에(별안간) 돌아가셨제.

집에 그래 구랭이가 자꾸 들와(들어와). 그래가 또 방에 누우 자는데도 떠덕떠덕 해쌌어러, 우리 친정 조모님하고 인제 우리는 여동생 하나하고 서이가 자는데,

"떠더떠더."

해싸이까네, 조모가 내가 눕어가지고, 클 때는 잠도 마이 안 오나? 이래 잠티[58]겉이 자이께네,

"이 짐승아, 니 곳으로 가라. 여 들어오면 안 된다. 니 곳으로 가라. 가라. 니 곳으로 가라."

캐싸도, 그래 가마(가만히) 그래 쌌는데, 가마 들으이까네,

"떠덕 떠덕 떠덕"

구레이 자죽(발자국) 소리가,

"떠덕 떠덕."

이렇게 나대. 그라디마는 그라고 그기 저 지붕, 오래 돼놓으니까네, 아주 고적집[59]이 돼놓이니까네, 지붕케서(지붕에서), 용두 밑에서 그기 나오는 갑더라고.

그래 자꾸 사람이 보이고 보이고, 그래 인자 쌀 독아지에 아까맨키로(아까처럼) 그래 칭칭 감아가지고 있다가 내가 쌀 내러가면 떡- 철보다보고(쳐다보고) 있대이. 철봐다보고 있으면 내가 찹어가지고 이라면 구리.

그래가지고 들에 어른들 일하러 가고나서러 인자 그 애기 하나 업고, 동생 하나 업고 담바라(담박질해서, 달려서) 나오다가, 마 청마루에 담바라 나오다가 마 뒤로 넘어지고 이랬다. 놀래가지고. [청중: 아를 업고 마 그랬다더라.] 어, 어. [조사자: 지끼미가 자주 눈에 보이면 안 좋다대예.] 어. 그래가지고 [청중: 자주 보이면 안 좋다 안 하나. 안 좋으니께네 그러지.] 어. 그랬는데 그 구리가 그래 눈에 보이고 자꾸 그래 와가 그래 쌌어.

[연제구 설화 131]

쌀 나오는 바위가 있었던 산

58) 잠꾸러기의 방언.
59) 오래된 집이라는 의미.

김덕순(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저 울산 대운산이라고 쿠는 데, 그 되게 층대 위에 높으거든. 그 바위 속에 돌멩이, 참 저 쌀이 똑- 흐르고 또 몇 분 있다가 똑- 흐르고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쌀이 참 얼마나 좋았노?

그래가지고 그걸 짝대이 가지고, 짝대이 가지고 콕 찌르이까네 거서 물이 나오더라 쿠대. 그래서 그 쌀이 안 나온다 이라더라. 응. 그가. [조사자: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네예?] 응. [청중: 욕심 부리지 마라 하는 거지.]

[연제구 설화 132]

산 지킴이 뱀

류덕연(여, 1948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저 산에 저 관광 가면서러 얘기 들으니까네, 그 인자 그 기사가 강의를,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 질도(길도) 너무 잘 닦아놨다. 대운산에 그 올라가는데. 대운산이 아이고 저 저거 어데고? 저저 그 올라가는데 그 어데고? 어옛거나(어쨌든) 저 높은 산에 그 올라가면서러,

"이 질을 우예(어떻게) 이리 잘 닦아놨노?"

커이까네,

"이 질요? 닦아가지고요 이거 비극입니더. 이 길이."

"와 그리 비극이요?"

컨께네, 저 그 돈 벌라고 인자 일하는 업자가 그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날 인자 개업한다꼬, 아 땅 그 개시한다고 그래 가가지고 인자 그거로 삽으로 가지고 한 번 턱, 인제 이제 돈, 계약했는 그 사람이 해야 된다네.

한 번 쫓으니까네, 마 구레이(구렁이)가 큰- 기, 독새가(독사가) 큰- 기 이 한 방을 따개가지고,[60] 짜개가 그래가 그래 축 늘어지더란다. 그래가지고 그 술로 갖다놓고 고사로 지내고 참 마 간단하게 마 절로 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 그거 저 산에 어데고? 그 저 산이 어데고? 대운사 말고 지리산. 지리산 질 그거 새로 닦아가 잘 안 해놨나? 그게.

60) '짜개다'의 방언.

그래가 그랬디만은, 그라고 그 사람들이, 업자가 그 질로 마치고, 공사를 마치고 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수금을 하러 갔다가 무단히 마 그서 마 늘어져가지고 죽더란다. 그래가 그 공사했는 돈도 한 번, 한 푼 씨도(쓰지도) 몬 하고 그래 마 목이 꽉 잼기가지고(잠겨서) 무단히 그래 떨어져 죽었다 쿠대. 그래 그랬다고.

"이 비극, 그래 이 길이 비극입니더."

이라더라고. [조사자: 뱀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네예.] 응. 그기 낸중에 알고보이 그게 산찔꺼미(지킴이)라 쿠더래. 독새(독사) 그기 크-더라.

[연제구 설화 133]

죽어 뱀 된 시어머니

류덕연(여, 1948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아니 우리 저 동네 그 저 집안 언니도 그 옆 동네로 시집갔는데 시어마이가 그래 독하더라카네. 마앰이(마음이) 야물고, 쌀도 마 메느리 저녁 할라 하몬 떠내주고 이랬는데, 시어마이 죽었는데, 한날은 죽고 나서 메칠 안 돼서 가보이께네, 쌀독에 구랭이가 챙-챙- 감고 있더라카네.

"그 죽어가, 시어마이가 죽어가 그 구랭이가 됐는 갑다."

그라더라고. 그 몬 푸고 놀래가 나왔다 안 하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

[연제구 설화 134]

호랑이를 구한 유(柳) 씨

류덕연(여, 1948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세화경로당]

우리 버들 유(柳)가는 그기 뭣이고? 그기 있다. 유래가 있다. 그거 호랑이, 옛날에 와 이런 담요, 호랑이 그리진(그려진) 담요 안 있나? 그거 몬 덮구로 하거든 우리는.

우리 뭣이고? 옛날에 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비네(비녀) 쫏았잖아. 비네 쫏고 그 가잖아. 옛날에 산에 가는데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인자 여자가 가니까 입을 쫙- 벌리고 있

더란다. 그래,

"내를 자아물라(잡아먹으려) 하면 자아먹어라."

카이께네, 고개를 흔들고 앉아가지고 자꾸 입만 벌리고 있더란다. 그래,

"내는, 내를 자아무라 하이 니가 와 안 자아묵고 이래가 있노?"

이라이께네,

"입만 벌리고 있노?"

카이께네, 자꾸 입만 이래 자꾸 보이까네 여자를 자아묵고 비네가 가로질려가지고 목에 걸리가 있으이, 그거 빼돌라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 기라.

그래가 호랑이를 빼줬는데, 그 여자를, 호랑이를, 호랑이가 업고 그 어던(어떤) 산골 산에 가가지고 거기다 턱 내려놨더란다. 그래가 자기가 생각을 했다네. '아 여기가 진짜 좋은 자린 갑다. 그런께네 내를 지를 그거 해 줬으이께네 이래 여 갖다다 엎어놨는 갑다.' 하고. '업어다 놨는 갑다' 하고. 어. 그래 자기가, 자기가 죽고 나면 거기에다 묻어라 했는 갑대.

그래 우리 호랑이 이불 몬 덮구로 해요. 유가들은, 버들 유가들은 옛날에.

[연제구 설화 135]

당산나무 제당 담을 헐어 망한 집

하명순(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산5동경로당]

옛날에는 당산나무 밑에 그 제로 지내잖아. 그 뭐 부정탄다꼬 얼마나. 당산나무로 큰 신으로 모싰다 아이가. [조사자: 그는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 꺾어갖고 뭐 죽은 사람.] [청중: 나무 꺾으면 안 되지.] 어. 그 못 건드리구로 했어. [조사자: 그런 일이 실제론 없었습니꺼?] 모르지 뭐. 우쨌든지 뭐.

[박순자 할머니] 내가 알아. 냉정 그 당산나무 있었거든. 그 집 다 들어섰어 그게. 그 집에는 그래가지고 그 당산나무 손자가 하나 저저 학교서, 동의대학 학교서 저 제주도로 놀러가가지고 큰 배가 바람이 부니까 이 아가 작은 배로 띠 내맀는 기라. 그래 죽었다 아이요. 죽었어요.

그 집에 하나는 또, 하나는 그 집에서 저 사우, 딸이 다섯이라. 사우를 보는데 뭐꼬, 딸은 시집을 갈라하고 아버지는 시집을 가지마라 하고. 사우가 키가 작다 맘에 안 든다고 가지마라 했어.

그래 부부 간에 싸움을 했는데, 그래 우리 여동생하고 잘 친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제부

가 하는 소리가 뭐꼬, 두 부부를 뭐꼬 화해 붙일라고 저저 노리[61] 타는 거 안 있는교? 저 저 금강산에. 그 가가지고 노를 타다가 그 아가, 손자가 널찌(떨어져) 죽었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거 보상을 백만 원 받고.

그 저 뭐꼬 딸은 다섯인데 인자 아들은 씨 다 말랐어. 하나는 배에 떨어져가. 제주도 배에 떨어져서, 신혼, 학교서 제주도까지 놀러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하나는 떨어져 죽어뿠어. [조사자: 그게 다 당산나무 때문에.] 그기 둘 다 죽어뿌고 씨가 말랐어.

[조사자: 그거 왜 그런데? 당산나무 때문에?] 그렇지. [조사자: 당산나무를 어쨌는데예?] 그 시어마이가 되게, 되게 모싰는 갑대. 그래가지고 뭐 우째 됐는지 그래. 그래가지고 그 터가 부자거든. 부잔데 그 집에 뭐꼬 원래 집을 지을 때 담을 뜯어가 담을 내가지고 막 저저 세로, 점방 세로 냈는 기라. 그서 달세 받아묵는다고. 그래, 그래 하다가 뭣이 안 되는가, 안 되는 갑대. [조사자: 아, 당산 터를 갖다가 썼구나. 집을. 자기가.] 되게 셌거든.

그 아줌마가 남편 군대 갔는데. 그 아지마가 저그 집 친정이 강원도라. 인물 좋거든. 강원도서 남편이 연애해가지고 데꼬 와 살았는데 그래 됐어. 지금 아직 살고 있을 끼구만은.

[연제구 설화 136]

묵을 주고도 호식당한 가족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할머니가 집에서라 묵을 만들어가지고 팔라갔다 아이가. 장에, 장에 팔라 가이까네, 그래 인자 묵은 인자 덜 팔고 또 남가가 이고 왔는 모양이지. 그래 오다가이까는 호랑이가 앞으로 와 떡- 그라더란다. 그래가,

"묵 하나 주면 내 안 잡아묵지."

이래이까는, 인제 쪼매이(조금) 끊어가지구 떤지줄 딴아(던져줄 동안) 빨리 집에 올라고(오려고) 오이까네, 또 다 묵고 또 달라들어가 또,

"좀 주면 안 잡아묵지."

이라이까네, 그래 또 인자 끈어주고 나이까네 이젠 묵이 없단 말이다. 그래 '묵이 없는데 이제 뭐를 줄라면 뭐로 주노?' 있으이께네,

"그래 마 날 팔 흔들고 가는 거를 그걸 끈어가 날로 주면 안 잡아묵지"

하이께는, 그래 하나를 또 끈어가지고 마 줬단다.

61) 노를 젓는 배를 말함.

그 옛날얘기 그래 거짓말 아이가? [조사자: 그래가지구예?] 그래가 또 그래가 팔도 다 끊아주고(끊어주고). 그래가지고 인자 마 이거 마 몸띠이도(몸도) 다리도 다 끊어주고나니까 인자 마 죽는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인제 이래가 저거 집에 몬 가고 있으니께네, 고놈우 범이 할매가 돼가지고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 아 둘이는 엄마 올 딴아까지(올 때까지) 요-래가 기다리고 있고. 있는데 찾으러 와가지고 옛날에 문꾸녕(문구멍)이 요래, 그거가지고 참종우가(참종이로) 발랐는 문을 보고 그래,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이러이까네,

"우리 엄마 소리 아인데요."

이라거든. 그래가지고,

"맞다, 너거 엄마 묵 팔러 갔다가 내가 안 왔나. 문 열어라."

그 카이까네,

"우리 엄마 소리 아입니더."

이러더라.

"그럼 손을 한 번 내 보소."

그래 손을 내주니까네 털이가 있거든.

"아이고, 엄마 손에는 털이 없는데 이거는 전신에(전부) 털이네."

이래이까네,

"그래도 맞다."

이래이까네. 그래도 안 열어줬어.

그래가 난중 마 호래이가 달려들어가지고 마, 문을 끌라가지고(열어서) 마 뜯어가 아 둘이를 마 안고 마 저 산 달려가 묵어뿠다 카대. [웃음] 나 그래밖에 모린다. [웃음]

[연제구 설화 137]

선녀와 나무꾼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나무를 하러, 일꾼이 가가지고 나무를 하다 가이까네 옹달샘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물이 그래 좋더라 카대. 그래 가이까네 선녀들이 서이가 내려와가지고 요래-가 목욕을 하더라 카대.

그래가 '하이고 우얏고!' 저 총각이 보이까네, 참 그 목욕하는 처녀를 보이까네 참말로 이상하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덮치기를 좀 할깡 싶어가, 우예가(어떻게 해서) 옷을 감아 해삤어. 이 나무꾼이 옷을 감아 해뿌이. 딸아들이 나와가지고 인자 그 외인 남자가 나오이까네, 인자 옷 입고 인자 달래갈라(달려가려) 올라갈라 이라고 있는데, 보이까네 옷이 없더란다. 그래 '옷이 없어가 우얏고' 그 마 서이가 옹겨있으니까네 하늘에서 줄이 이래 내려오더라 카대. 그래 줄이 내려와가지고 하나 올래가고(올려가고) 하나 올래가고 그래 다 올래가더란다.

[연제구 설화 13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아들도 살다가 아들이 어데 갔어. 어데메(어디로) 절로(저리로) 멀리 마 뭐 묵고 살라고 뭐 하러 갔는가? 그런데 그 동안에 묵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할매가, 봉사 할매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밥만 기다리고 있는데, 해줄 게 없어가지고 지랭이를 파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국을 낋이주이까네,

"하이고, 무슨 고긴동 그래 맛있다. 맛있다."

카며, 이라면서 그래 그 지렁이를 할매가 한 마리 이래가 고기라고 자리 밑에다 옇놨어. 옇어가 말라놓고. 그래 아들이 멫 달 있다 오이까 엄마가 살이 쪄 가 뽀-얗게 있거든.

"하이고 엄마가 뭐를 잡사가(잡숫고) 이래 살이 쪄가 이래 있노? 내 갈 적에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갔는데."

카이까네.

"야야, 이거 봐라. 니가 뭔둥(무엇인가). 난 눈이 어둡아 모르겠다."

자리 밑에 말려놨는 거를 이래 보이까네.

"아, 예 알았심더."

지렁이라 하면 엄마가 안 좋아할까봐.

"예. 알았심더."

이라고. 그러고 인자 지랭이를 뭉개가지고 그래 했다고. 그 메느리 복 받았어요. 그래 요새는 시어머니 싫다 하기만은 옛날에는 시어마이를 이렇게. [조사자: 그래갖고예?] 그래가지고 마 그래 살았다대.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연제구 설화 139]

일본의 복숭아 동자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그 인자 영감 할매이가 아도 없이 집에서 살았는데, 그래 인자 할매는 빨래하러 가고 할배는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래가 인자 영감이 산에 가 나무를 하고 오는데, 할매가 저 개울에서러 그거를 하이까네, 빨래를 하이까네 우에서러 복숭이(복숭아가) 하나 동동동동 떠내려오더란다. 그래가 '이거를 와 주아야(주워야) 안 되겠나?' 싶어가 주아가지고 집에 가서 딱 깨보이까네, 그 그거 애기가 나오더란다. 애기가, 머스마가, 애기가 나오더란다. 복숭(복숭아) 안에서러.

그래 애기가 나와가지고 참 키우이까네 어찌 용감하게 잘 크는지. 그래가 할매가 그 아를 잘 키아가지고 있으이까네, 그래 산에 사냥을 하러 댕기더란다. 내 모모타로상[62] 얘기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아들로 인자 마 모모타로상 그 사람이 인자 장해가지고 마 활도 잘 쏘고 산을 타고 댕기까네, 저거 쭐래를 데꼬 그 하는 기 누고(누구인가) 쿠면, 쭐래가 뭐 쿠면? 친구들. 친구들로 인자 멫 맹(몇 명) 해가지고 델고 가가지고, 산으로 가가지고 인자 꿩도 잡고 뭐도 잡아가지고 오고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묵고 살았다 하는데, 근데 내가 옳게 모린다.

[연제구 설화 14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인간 칠십에 고래장을 하이까네 좋기는 좋은데, 저 중국에서라 문제를 내보냈는 기라. 우리나라를 보고. 말로 똑-같은 거로 두 필로 보내면서,

"어는 기 어마이고(어떤 것이 엄마고)? 어는 기 저저 아, 저저 새끼고? 이거를 알아오라."

62) 모모타로(桃太郎)는 복숭아에서 태어나 귀신을 물리쳤다는 인물로, 모모타로 이야기는 일본에 널리 퍼져있는 설화임.

고, 떡- 중국에서 두 필을 보냈는 기라. 아무리 봐도 어마이캉 마 키도 똑같고 하이까네 마 어마이를 몬 찾아내고 자석을 몬 찾아내는 거라.

그래 와가지고 어마이쟏에 물었단다.

"저 중국에서라 문제가 왔는데 저 도저히, 말로 똑같은 거를 두 필로 내놓고 '어는 게 어마인동 아바인동 그거를 좀 알아오라,' 칸데 도저히 알 수가 없심니더."

그 카이까네.

"응, 그래. 어마이 말으는 골-골이(고르게) 뜯어묵고 가고 풀을. 아 말은 암만 똑같다 캐도 펄떡펄떡 뛰댕기며 무우몬(먹으면) 그게 자식이고 어마이다."

그래 갈치(가르쳐) 주더란다. 그래 알고.

또 인자 뭐로 문제를 내냐 하면, 중국에서 자꾸 우리나라로 자꾸 문제를 내 보낸다. 똑-같은 참나무 방맹이 요런 거를 딱 하나 내보내며,

"어데가 아리고(아래고) 어데가 우고(위이고)?"

그래 내보내니까네. 암만 봐도 이거를 우로 알우(아래로) 마 모린다(모른다) 아이가? 똑같은, 맨질맨질하니 요런 방맹이 요만한 걸 가지고. 그걸 또 몰리가(몰라서) 어마이쟏에 물으이까네,

"그래 물에다 담그몬 뿌러지(뿌리) 쪽으로는 좀 가라앉고, 우에 이파리 붙았던 쪽은 뜬다."

이래이까네, 이래 되겠지. 그래가지고 인제 그걸 알아가 그래 그때부터 어마이 아바이를 고래장을 안 시켰단다. 어른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 그런 거밖에 없다.

[연제구 설화 141]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그래 인자 스님이 인자 동냥을 하러 댕겼어. 동냥을 하러 댕기면서 인자 에밀레종을 만들라꼬, 놋그릇을 줄라고 댕깄어. 그래 댕기까네 저거 안가(아인가) 손자인가는 모르지. 이래 이래 어루며,

"뭣이 시주는 할 끼 없어도, 우리 봉덕이나 가가라."

이래 됐어.

"우리 봉덕이나 가가라."

이래 돼놔놓이께는, 그래 참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시주를 몇 년을 해가지고, 인자 한테 옇어가지고 인자 종을 만드는데 이놈의 종이 암만해도 안 붙는 기라. 자꾸 어그라지고 안 붙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이 스님이 가마이 생각을 하이까네,

"너거 시주하러 가서 무슨 소리 들았는(들었는) 거 없나?"

이래이까네, 그래 한 스님이 있다가,

"들았는 기 있심니더."

"뭐로 들았노?"

이래이까네.

"그래 한 집에 가이까네 아무 것도 줄 건 없고, 우리 봉덕이나 가가면 가가지(가져가지) 없다."

이래더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이까, 아가 이마이(이만큼) 커가지고 세 살 돼가 있더란다. 그래 그걸 갖다가 한데 옇어가지고 찍어가 하이까네 떡 붙어가지고, 그래 종을 치고 나면 후 끝에,

"에밀레- 에밀레-."

그래 한다 아이가. 그래 했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여자라 카는 거는 입이 방정맞단다.

[연제구 설화 142]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조사자: 할머니, 호랑이 꽂감 이야기 좀 해주이소.] 호랑이 꽂감?

어른들으는(어른들은) 다 나가뿌고 없고, 아 하나하고 어마이하고 메느리겠지(며느리겠지) 인자 메느리 택이지. 그래가 인자 둘이서 자다가 하이까네, 마 아가 자꾸 우는 기라. 달개도(달래도) 안 되고,

"뭐 주꾸마."

캐도 울고.

"뭐 주꾸마."

캐도 울고 이래가. '이래가 우야노?' 싶어가지고 업고 흔들다가 안 돼가지고.

"꽂감 주까?"

카이까네, 그마(그만) 아가 안 우더란다. 이놈 문 앞에 이만-한 산덩이겉은 호랭이가 와가

지고 떡 아 잡아물라고 와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답답해라 호랭이가 보이까네, '꽂감은 내카마 더 무서운 갑다.' 싶어가 꽂감이. 그 마 헛간에 그 마 드가가(들어가) 있었어. 있으이까네 그 집도 마침 도둑놈이, 소 도둑질 하러 왔어 소 도둑질 하러 와가지고 다 만지봐도 마캉[63] 애비빠졌는데(야위었는데) 이것만 번드리한 기 마 살이 쪘더란다. 그놈을 타고 마,

"빨리 가자."

고, 쫓아가이까네 이 범이 달리가며,

"아이고, 내 등다리(등에) 꽂감 붙었다. 꽂감 붙었다." [일동 웃음]

꽂감이 더 무섭다고.

[연제구 설화 143]

비행기가 무서웠던 아이들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한국 사람을 갖다다가 아들로. 이 저고리는 겉으로는 검은데 이 안으로는 하얀 거를 넣거던. 우리 그치(그때) 한 삼학년 됐을 끼다. 그래,

"집에 갈 적에 비행기 소리가, 비행기 소리가 '웅-' 나거들랑. 저고리를 벗어가 디비가(뒤집어) 입고. 그래 인자 허연(하얀) 거 입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껌은 거 입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 말이다. 그래 논둑에 요-래 엎드려가 있다가 지내가걸랑 가라. 안 그러면 폭탄 널쭌다."

하내이(하나) 둘이 보고 폭탄을 널쭈겠나? 겁이 나가지고 저 비행기는 하얀 기 떠가 있고, 저고리를 벗어가 디비가 입고 논둑 밑에다 요래가 딱- 숨어 있다가, 그 소리 다 지내고 나면 노-래가지고 겁을 묵고 신일랑 집어들고 집에 쫓아간다 아이가. 그래가 우리 할매가,

"와 이래가 아가 노라노(노랗노)? 와 이래 오노?"

이래.

"아이고, 우리 오다가 비행기 떠가지고 우리 폭탄 널쭐까봐 논둑 밑에 숨어있다가 그래 왔다."

이라이까네, 할매가,

"아이구 이 새끼들아. 아 저 시근도 벨도(배알도) 없다. 그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폭탄 하

63) 조금도 남김이 없다는 의미인 '말끔'의 방언.

나를 너거, 하나를 보고 떤지겠나? 그래 안 떤진다. 많은 데 가가 큰 도회지에 떤지지. 하나 보고 안 떤진다. 그래 겁내지 마라."

쿠며, 그러더라.

[연제구 설화 144]

자기 새끼 예뻐하는 줄 아는 호랑이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그래 아가씨들이 어불라가지고(어울려서) 나물을 캐러 갔다 카대. 가이까네, 그래 참 바윗돌이 있는데 그 인자 보이까네 범이 새끼로 낳아가, 새끼 놔놓으면 이쁘지. 우리가 와 다섯 시에, 다섯 시에 그거 동물 그거 안 하나? 보면.

그래 그 하도 이뻐가지고 만지고 만지고,

"이건 내 가간다(가져간다). 이건 니 가가라."

쿠고 이러이까네, 좋다꼬,

"어흐응."

카미, 낼봐다보는 거를 그걸 모리고(모르고), 그래 난중에 마 그거를 마 바굼지에다 담아가지고 가 왔어. 집에 가올라꼬. [조사자: 호랭이 새끼를?] 호래이 새끼를. 그걸 호래이 새끼를 모리고 강아지로 알았다 말이야.

그래 가 와가지고 마 나놨디만은, 나놓지도 안 하고 가오다가 가이까네, 마 가간다고 마,

"으화아앙."

내려오더라 칸다. 무섭아 그만 딸 아들이 마 가 바굼지 내비리고 집 달려갔더만은, 이튿날 아침에 가이까네, 삽작간에 말깡 지 바굼지를 물어다 놨더라 카대. 그 호랑이가.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린다.

[연제구 설화 145]

꾀 많은 토끼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토끼가 꾀가 얼매나 많노? 토끼가 하루는 턱- 이래 가이까네,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토끼 자아물라(잡아먹으려) 카더란다. 그래가지고 '저놈 토끼한테 내가 이기지는 몬 하고 꾀를 부려야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인자 토끼, 토끼 그 여 범을 보고, 아 토끼가 잡힜다 카던가? 이래가지고, 마마 빈다꼬 마마마 빌면서,

"우애던둥(어떻게 하든지) 살려줄라."

이라이까네, 턱 놨는데 그래,

"범 아저씨, 범 아저씨, 여여 그물을 내놨는데 저거 한 번 덮어 써봐라."

이래이까네, 아 지 딴에는 인자 토끼 말 듣는다고 덮어씨고 있으니까네, 막 그거로 갖다가 딱 잠가뿌이까네 마 범이 다부(다시) 잡힜어. 그래가 토끼가 꾀가 그마이(그만큼) 많단다. 그렇다. 그것밖에 없다 인자.

[연제구 설화 146]

도깨비가 되는 빗자루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도깨비불이라고. [조사자: 그래갖고예?] 도깨비불이라고 자꾸 따라와가지고, 남자가 하내이(한 명이) 길 가다가 자꾸 뒤에 따라오며 그래가지고 마, 자기 칼로 내가지고 탁 꼽아놓고 마 달려왔던 모양이라. 이튿날 아측에(아침에) '우예 됐노?' 싶어가이고 가이까네 빗자루를 갖다 다 꼽아놨다 카대. 그 여자들, 여자들 몸엣 기, 맨스 있는 거를 깔고 앉으면 그이까넨 그기 인자.

옛날에 고기 이래 달아가지고 이래 놔나 봐라 밤에 되면 시거리불[64]이 나가지고 번쩍번쩍하지. [조사자: 그게 도깨비불이다. 그죠?] 아이. 그게 아이고. 고기에도 시거리불이 난다. [조사자: 시거리불이 뭔데예?] 시거리불이라 카는 거는 고기나 사람이나 [조사자: 인?] 기름이 있기 때문에 밤에 깜깜 어둡운 데 불이 난다.

우리는 옛날에 고모집에서 이맘때 되면 대구로 한- 가마썩 갖다 주면 두 마리 서 마리 되거든. 이래 타가지고 치앙(처마) 밑에다 이래 달아놓으면 이쪽 바앙서러(방에서) 큰바앙(큰방)

64) '시거리불'은 반딧불이의 방언임. 이야기에서는 동물 뼈에서 나는 빛을 반딧불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임.

갈라 카면 저 마 불이 시퍼렇다.

“하이고, 마 저기 뭐고?”

쿤께네,

“아, 저 대구에서러 그렇지만 사람은 안 잡아묵는다.”

카더라. 그래가 이짜 바앙서러 큰바앙 가는데 탁- 날아가 그래가 우옛다.

그 시거리불이 나고, 사람 빼에도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 빼에서도 시거리불이 난다 커대.

[연제구 설화 147]

여자 음부를 문 게를 떼어준 나팔수

김정출(여, 1933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5동 연우부녀경로당]

그 인자 사또가, 신간 사또가 인자 저 들로 집 근처로 함 유람을 가거든. 가면은 나발로 불고 뒤에는 하인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인자 나발로 불고 가고. 인자 그 다음에 인자 말도 타고 인자 사또가 지나가다 가이까네.

뭐가 논둑에서, 논둑에서러 여자는 방티[65]를 이고 남자는 중인데 이래 낼봐다보고(내려보고) 있고 이러더란다. 그래 암만 봐도 이상, 수상해서 사또가,

“저 가봐라, 뭔고 함 가봐라.”

이라더란다. 그래 가이까네 여자가 이거를 이고, 방티를 이고 인자 이(이고) 가는데, 논에 밥을 이고 가다가 오짐(오줌)이 누룹아 오짐을 누다 가이까네, 그 이상하다 싶어가 중이 그를 들봐다봤어. 들봐다보이께네 이놈우 기가가(게가) 나와가지고 마 중이 손하고 여자 그거하고를 이래 물고 있었어.

이래가 중으는 여가 아파가 몬 일나고(못 일어나고) 여자는 그 일날라 카이(일어나려고 하니) 그가 떨어질라 캐 몬 일나고 그랬거든.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 인자 갔다오니까,

“우예 됐더노?”

카이까, 그래 인자 하인이 그래 임금쟡에 그래 얘기를 했어. 하이까네 그가(그기에) 나발 부는 사람이 하나 또 따라갔던 모양이라.

“떼- 떼- 떼-.”

65) ‘다라’ 또는 ‘큰대야’를 뜻하는 방언.

불미 인제 왕 간다꼬 이래가.
“그가 나발을 함 불아삐라.”
나발을,
“떼-.”
부이깐, 막 기(게) 놀래가 달라고(달아나고) 둘이가 떨어지더라대. 그것뿐이다 인자. [웃음]

[연제구 설화 148]

딸 덕분에 우사를 면한 친정아버지

고재규(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부녀장수경로당]

[조사자: 아버지가 어데 가서, 저 내 저 시집가가 나가지고 남인테 한 분 우사서러운 일을 하면 내가.] 맞아. [조사자: 잘 산다 그래가지고.] 맞아. [조사자: 그래 “울 아버지 이거 일부로 우사스러운 일을 했네요.” 하면서 그래 말을 돌리가 하는 바람에 덜 우사스럽고 인자.]
그래 인제 요 두루매기는 요래 벌어졌잖아요. [조사자: 옛날에는.] 그니까 이자 [조사자: 꼬장주(고쟁이) 같은 거.] 어어. 그거를 인자 똥을 싸서 빼놨거든.
빼놨는 데다가.
“언제든지 [바지를 오무는 동작을 하며] 요렇게, 요렇게 하고 앉으라.”
카는데, 마 이렇게 해가지고 붕알 다 내놓고 망신을 당할 때에, 그래 [조사자: 그래 그 집 딸이 안자.] 딸이 말을 그래 해서 인자 잘 지나갔는가?
그 소리는 나는 들었다. 다 모르겠어. [청중: 딸이 그 머리가 좋은 택이다.]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 우사를 피했다.

[연제구 설화 149]

오래 참다 뀌는 며느리의 방귀 힘

고재규(여, 1935년생), 황경녀(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부녀장수경로당]

[고재규]
메느리가 자꼬(자꾸) 시집와가 말라가는 거라. 그래,
"왜 그렇기 니가 아파서 말라가냐?"
고 그라니까, 그러니까 인자 인자,
"빵구(방귀) 그걸 못 끼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부 식구들 전붓대 잡고 돌 잡고 그렇께 인자, 그러 카고 방구를 탁 끼고 나이끼네요, 그렇게 인제 살이 찌고 시원하이 마 마 마음대로 낐다. [일동 웃음]

[황경녀]
그걸 시숙, 나무를 잡으라고 했잖아.
"내가 방구 끼면 날라강게롱 큰 지둥나무 있응께 다 잡아라."
이랬는디,
"무신놈 방구를 끼몬 커서 사람이 다 달아날 방구가 있어?"
이 안 잡았죠. 잡으란 놈은 잡고, 그러니까 안 잡으란 놈은 인자, 그거 인자 말을 안 듣고 시도를 했지. 그러니까 안 잡고, 지둥나무,
"어잉 그려?"
말 잘 듣고 순진한 놈은 지둥나무를 꽉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방구 나간다."
안자 그러고는 [큰소리로] '팡' 낑게롱 말 안 듣는 아, '씽-!' 날라가고, 말 잘 들은 놈은 꽉 그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웃음]

[연제구 설화 150]

상객으로 갔다 실수한 바깥사돈

황경녀(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부녀장수경로당]

하도 일을 시켜 싸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누가(누워서) 쉬어라."
"예."

옛날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자로 잘 살았는데, 어떻게 아부지가 술을 좋아하는가, 큰아들이 여웠는데(장가가게 되었는데), 인자 옛날에는 신랑이 먼데서 오만 그 신부 집에 가 자고도, 예식을 하고 간 집도 있어요. 신부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아바니 될 사람이 인자 거어 가서 인자 술을 잔뜩 먹고는,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안사돈 방으로 들어갔어. [조사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사돈 방으로 들어가서 가만 자다가 새복에(새벽에) 이렇게 생각을 헝께, 자기 집 남자들 소리가 아니여. 여자들 소리여.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갖구 인자 옷도 벗었을 거 아니여. 상각(상객) 간께(갔으니까) 두루매기랑 다 입었응께, 인자 속옷만 입고 잘 것이 아녀. 그래사,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겄다."

그래갖고는 막 '요- 튄다.' 그래갖고는 문을 차이고 그냥 팍! 뛰갖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속옷을 이고 갔거든. 신도 안 신고. 자기 집 식구가 놀래 자빠졌어. 놀래 자빠져갖고는, 아버지가, [말을 바꾸어] 안자 신랑이 보니께, 자기 아버지 옷이여. 신발이랑 자기 아버지 옷이여.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인자 망신 샀다. 우리 아부지 옷이구나. 이제 어찌 하오리꺼나."

인자 술 먹고 이 양반이 염치 없은게, 인자 고 수군수군 수군수군 난리가 났을 거 아녀. 그래도 기냥 입을 탁 다무르고 몰르는 식고(것처럼) 장가를 가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 두채 아들도 여울 거 아니여. 여우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여기다 상각 거기 간 것보단 더 잘- 차리갖고 상, 한 상을 차리갖고 이렇게 아버지를 디리텅께, 여거 앉어서 잡수시먼 잡수시고 상각을 가조(가지) 마쇼. 작은아들 여우는 디는(데는)."

그러니까,

"오냐. 내가 그러마."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인자 다 인자 인자 떠났을 거 아니예요? 자기 혼차 딱 앉어서 먹을라곤께, 권허는 사람이 없네. '사돈 한 잔 잡수시오. 잡수시오.' 털컥 그러니 자기 혼차 따라서 먹을라니 아 심심허거든요. '예이 내 이럴 게 아니라 늦어도 아적(아직) 시간 있다.' 막 갔대.

갔더니 갤혼식을(결혼식을) 아직 안 했더래. 그래가 딱- 하니 앉았었더래. 거 인자 상각 가는 데다 딱 앉았었더래. [청중: 붕알 나오는 거 아니가? 거 붕알.] 아니여. 앉았었더니 인자 갤혼식을 다 허고, 옛날에는 이케 하면은 다 갤혼식허고 이 질을(길을) 떠날라는 덕에 안순사들이 있어요 인자. 그 백가 사돈 안사돈 축 이렇게 있고, 상을 채리놓고 '이게는(여기는) 작은아버지요. 이게는 뭣이오.' 다 소개를 해요. 해고 잔을 다 널으고, 사돈은 큰 사돈 안자 작은 사돈 다 알거 아니에요. 여자들 안 가고 남자들만 가니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인자 자 아버지 인자 그렇게 해가 가고, 그러면 그렇게 허면 인자 큰아들이 만날 그럴 때,

"아버지는 그러면은 혹시 그런 데로 참석하거든 딱 여거를, 말 한마디를 허질(하지) 말고 딱 입을 봉하라고."

하더래. 봉을 하고 그러더랴. 그래서 그러는게롱 가서 그 생각이 딱 머리에 떠올라, 그런게로 사람들인께 술을 권하잖아요. [웃음] 그러더래. 그 안순사 될라먼 절 그 여자들이 딱, 어떻게

"어떻게 백가 사돈, 어떤 게 남자 사돈이여? 얼매나 잘 생겼어?"

다 구경혀요. 구경.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구경혀요. 그러니께,

"하이고, 조거 신랑 아버지가 버버린가(벙어리인가) 봐. 버버린가 봐."

[조사자: 저거 아부지, 어- 말을 안 하이카네.] 말을 안니까.

"벙어린가 봐."

인자 고기 쑥덕쑥덕 인자 귀는 밝은께 들을 게 아니여. 속으로 화가 나네. 멀쩡한 입 두고 말을 못허고 벙어리 소린게오. [청중: 부애(부화)가 난다.]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라 뭘 하고 내가 말을 하꺼나?' 그냥 화가 이렇게 났어. 화가 이렇게 나갖고는, 고서 수군수군수근,

"있게는 뭣인디?"

[웃으며] 있게나 말을 하는 이유지.

"니미 똥 머가 아니다." [웃음]

[조사자: 욕을 하이.] 화가 나갖고, 화가 나갖고. 그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팔십이 넘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몇 살에 들었냐면 열네 살에. 열네 살에 들었어요.

[연제구 설화 15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윤경현(남, 1940년 생) 구술
2017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연산6동경로당]

고래장 시기러 가는데, 인자 저거 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나라서 뭐 때미러(때문에) 걱정하나, 중국에서 어떤 저저 문제를 좄는데, 그래서 인자,

"그기 뭣이 어립냐?"

뭣이다 갈치좄는데, 그래 인자 그 저 시골 촌부가 임금한테 고하니까, 답이 맞이,

"이기 니가 니 머릿 속 나왔나? 어디서 나옸노?"

이라인께네,

"우리 어머님 고래장 하는데, 차마 그서 밥을 굶고 있어서, 밥을 남몰래 갖다 주더라도, 우

리 어머님 알았다.”

‘아하! 나이 든 사람도 경험이 마니(많이) 쓸 때가 있구나’ 이랬어. 인제 그인데 주이(주요) 요점 다 잊어먹었어.

[연제구 설화 152]

살인사건을 해결한 박문수

윤경현(남, 1940년 생) 구술
2017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연산6동경로당]

옛날에 인자 어느, 그때 어사로 암행을 할 때, 어느 동네 간게 살인사건이 났는 기라. 그래서 인자 현장조사를 한게, 딱 이 울타리가 첩첩 대이, 대밭만 쪼끔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대를 쪄내고 범인이 들와서 사람을 죽있다 이랬는데.

그래 인자 어사 박문수 딱 보니, 바껕에만 대를 이래 칠 거 아입니까? 이 안으로 돼가 있는 기라. [조사자: 아하.] 그 이기 그래서 인자,

“내부자다.”

조사해가지고 밝혀냈다 카는. 그런 거는 뭐 간단한 지혜지 뭐.

[연제구 설화 153]

아랑의 원한을 풀어준 밀양부사

윤경현(남, 1940년 생) 구술
2017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연산6동경로당]

그래 인자 그 부사, 부사 따님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그래 그 뭐 인자 달밤에 부사 따님이 인자 그 산책을 나왔는데 없어져서 찾은게네 인자 대밭에 사체가 있어.

그러거러 조상이 인자 알 길이 없어갖고, 이 부사님은 외동딸 잃었으니까 마 상심이 커서 돌아가셨고. 그 뒤에 인자 밀양부사로 오며는 그날 저녁에 사람이 죽어버리는 기라. 부사가. [조사자: 부사들이.] 예예.

그거는 멫 명이 죽었는데, 한 시골 선비가 그 당시에도 부정이 좀 안 많앴습니까? 뭐 돈

안 써 빽길 없으면 비슬 하기 싫으데, 인자 밀양부사로 갈 사람이 없어. 그래,

"내가 가겠다."

그래갖고 인자 와가지고 그날 저녁 딱 이 정장, 요 정장이지 요즘 겉으몬 갓 딱 쓰고 도포 입고 딱 촛불 켜놓고 딱 앉아있은게네, 그래 인자 저 밤 한 시가 넘어서 온게네, 마 딱 문이 열리는 소리 나 바람이 희끔 이 촛불이 꺼져뿌는 기라. 그래 돌와서 본게네, 이 참 머리 산발에 아리따운 처녀가 와서 그래 나뿟이 인자 절을 하면서,

"부사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래 쿠는 기라. 고 전에 부사들은 귀신이 올 때 놀래서 전부 다 죽었는데. 간이 약해가. 그래 사연을 들어본 적 여 밑에, 에 이 인자 이 그 밑에, 인자 이방 밑에 서리들 아입니까? 요즘 겉으몬 뭐 팔급 구급 이 짜리가(자리가) 전부, 뭐 사무관 밑에는 전부 다 이방들 아입니까. 그래,

"아무 것이가 그래 그랬다. 그 대신 그 증표는 그날 내가 흰나비가 돼서 그 사람."

여 저저, 그때는 쫍은 갓, 양반은 큰 갓 쓰고, 이 중인들은 갓 태가 쫍은 거 썼거든.

"갓 우에 앉을 것이다."

그래가 안자 있는데, 그래 듣고 나왔는데, 세 분에는 밑에 이방들하고 저기 와가지고 장사 칠 기라고 머 와서 보이, 문을 허떡 열어본게네, 부사가 당당하게 딱 앉아있거던. 깜짝 놀래 가지고 인자 그래가,

"전부 이 이속들 전부 집합시키라."

됐는 기라. 관리들. 밀양 부사 관할. 그래 인자 요 사해를 받는데 탁 과연 어 저저 나비가 폴폴 나서 한 그 내나, 저저저 형방인가 머 호방인가 그건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 사람 우에, 머리 우에 가서 딱 앉는 기라. 그래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인자 딱,

"니 저저."

그석해 놓고 인자, 그 형장을 딱 차리 놓고, 그래 고문을 하니까 바른대로 얘기했어.

"너무 좋아가지고 할라 커다 안 되니까 안자 강제로 그래가지고, 아랑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인자 시체를 버맀다."

는 그 말은, 그거는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그런 얘기는 마니 알아주는 얘기 아입니까?

[연제구 설화 154]

개를 물고 간 호랑이

윤경현(남, 1940년 생) 구술
2017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연산6동경로당]

이런 거는 설화도 아이고 뭐 거의 실화에 가까운 얘긴데. 옛날에 나 이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우리 내가 고향이 합천입니다. 합천 이래 오면은 그 저 이 노리라 카는 동네하고, 그 넘에는 그래 고 오데고 도리 도골이라 커는 덴데.

옛날에 이 둘러댕기기 싫어서 재를 마이 넘어댕깄어(넘어다녔어). 근데 그 사람이 간이 대기(매우) 큰 사람이라, 베짱도 있고 그런데, 그래 인자 염재치 카는 굉장히 무서운 뎁니다. 지금도 인가가 마이 떨어진 데.

넘어오는데 무슨 인기척이 나는 기라. 가마 보이 뒤에 쫄쫄쫄쫄 따라 오는데, 또 돌아보몬 없고, 쉽게 말하지 호랑이가 뒤에 따라오는 기라. '아! 이 큰일 났다.' 싶어서,

"호랑아, 호랑아. 날 자묵지 말고, 나를 잡아먹지 말고, 마 더 늙은 날 자묵지 마고, 우리 동네 누가 아무 집에 가몬 살찐 암개가 있으니 그거 물고 가거라."

그래 뚝뚝 하는데 사라지삐는 기라. 그래 그 이튿날 자고나이, 그 집 개가 물리갔다 카는 말이 있대예.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155]

고려장 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

이호야(남, 1939년 생) 구술
2017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연산6동경로당]

또 어떤 때는 보먼 나만(나이 많은) 자기 엄마를 고래장을 싣고 갔는데, 이 지게 짊어지고 갔는데, 가면서 엄마가 자꾸 이파리 따다 널쭈는 기라.

[조사자: 어. 입사귀를.] 마른 입사귀 자꾸 널쭈니까, 그래 거 가가지고 인제 앉아나 놓고,

"어무이, 와 나무이파리 와 자꾸 널쭙니까? 가지를 끊어 널쭈이."

카이께네,

"야야, 니가 이 산속에 와가지고 길을 몬 찾으니까, 니 길 찾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나무 입사귀 그걸 끊어 널짰다. 고고만 따라가몬 집에 간다."

이래 됐거던예. 그래가지고 그, '하! 나만 사람 역시 그 머리가 젊은 사람카만도 낫다.' 이래가 그래 도로 업고 왔다 안 캅니까?

[조사자: 나 들어도 자식생각 하는 거는 그지예.] 예.

[연제구 설화 156]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강헌순(여, 1942년생) 구술
2018년 1월 31일 채록
[연산6동 한마음부녀경로당]

아들이, 아들이 인자 어디 멀리 어데 갔는가 봐요. 그런데 시어마이가 인자 뭐 병이 들어서 눕었는가 어쨌는가 이런께, 약을 써도 안 된께네노, 지렁이를 잡아다가 그래 인제 고아가지고 물이 보하이 그렇는 거를, 시어마이만 믹일라 카이 내가 죄 많을까 싶어서, 내부터 함 좀 무어보고, 그래 시어머이를 믹이난께(먹여놓으니까), 하여시(하얗게) 고거 잡숩고 마 살이 올라가지고 시어마이가 얼굴이 좋더라대요. 낫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아들이 옹께. 옹께네로 인자 엄마가 인자 얼굴도 좋고 마 괜찮은께네,

"우리 엄마가 우째서 이래 마 뭐 이래 얼굴이 좋고 이래 참 괜찮느냐?"

이칸다 카대요. 그러니 그런 거도 있어.

[연제구 설화 157]

쌀 나오는 구멍이 있던 미타암

강명숙(여, 1943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쌀바위라 하대. 웅상읍 사모리[66] 미태암(미타암) 절이라고 있어요. [조사자: 미태암 절요. 들어보이 그 얘기다. 미태암 절, 어.] 미태암 절에서러 그거를 인자 말했는데, 스님이 구멍을 뚤버가지고(뚫어서) 더 많이 나오도록 할라 카다가 망했다 하는 그 전설이 있어요.

[조사자: 그래 미태암. 미태암 절 이야기다.] 미태암 절에. [조사자: 그러모 그 어디 미태암 절 어데 어느 고 바위틈에 뭣이 있던가예? 바위틈에.] 쌀이 그래 안 떨어지더랍니더. 쌀이 안 떨어져서 인자 거해가지고 [청중: 욕심 안 부리고 받아 묵었이몬.] 절은 자그마 하거든요. 지금. 지금도 자그마한데, 어느 바위틈에 그런데 있어요.

[조사자: 바위틈에 뭣이 나와요?] 근데 거서 인자 스님이 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댕깁니더. 그 절에.

[조사자: 고기 쌀 나오는 머 구멍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옛날 그 구멍 있었다 카는 그

66) 미타암의 지번은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소주동 171번지'이다.

전설이 있습디더.

[연제구 설화 15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심계순(여, 1949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제일 처음에는 며느리, 안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마시하고 사는데 참 어른이 앞을 몬 봐서 있는데, 신랑이 군대로 가뿠는데, 시어마시가 하도 고기를 노래를 해 싸서, 참 지렁이를 잡아 자리 밑에 말라가, 물(먹을) 때마중 한 마리썩 거다(그곳에다) 말랐어요.

[조사자: 자리 밑에 넣어 놨네.] 예. 그래 인자 있으이까네, 그러구로 하다 나이까네, 시어마시는 살이 쪄가 얼굴이 부허이 좋고, 아들이 메늘, 인자 제대를 해가 집에 오이, 참 엄마가 허여이 억수로 좋은 기라요.

"엄마, 뭐로 잡솼길래 얼굴이 이래 좋은교?"

카이카네, 시어마시가 자라를 확 들시더마는(들어 올리더니만) 자리 밑에 거시이는 시어마시 옇었어. 물 때마저. 자리를 확 들시더마는,

"야야, 내 이거로 묵고 이래 살이 졌다."

카이,

"어머이, 그기 지렁입니더."

카이, '으응?' 카며 눈을 퍼뜩 뜨더라. 그 말을 하대요. [일동 웃음] 그래가 고매 그 며느리 효자라고 그래 하대. [조사자: 그래가 어데 가서 효부상 받았다 그라대요.]

[연제구 설화 159]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심계순(여, 1949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고래장하러 아버지를 짊어지고 인자 갔는데, 인자 손자를 덱고(데리고) 갔던 갑디예? 그래

가 인자 거 딱 고래장하는 터에 여놔(넣어놓아) 놓고 지게를 지고 오다 버렸다 쿠대예? 지게를 버리께, 그러니 손자가,

"아부지, 와 저거 내삐고 가요?"

이러 쿤께네,

"저 인자 할아버지 갖다 버려서 버려도 된다."

쿤께, 손자가 하는 말이,

"난중에 아버지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지고 가자."

쿤다고 이런 말이 있대예.

[연제구 설화 160]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심계순(여, 1949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만날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인자 공부만 하니까, 막 덕석이 떠내려가도, 그 갱피 그 뜯어난 덕석이 떠내려가도 그것도 안 쳐다보고 맨날 공부만 해싸서, 그 사람이 인자 다른 데로 갔는갑대.

딴 남자 만내로 갔는데, 그래 강께네 그도(그곳도) 그렇더라 쿠네예. 그래 그도 갱피를 가뜯으니까, 그 본남편이 지나감서로, 뭐,

"간 곳마다 뭐뭐 갱피 뜯고."

뭐라 쿤다 카더라?

"간 데 쪽쪽 갱피 뜯고."

뭐 그렇다고. 다른 데 가도 인자 별 수 없다는 식으로, 그 본남편이, [조사자: 공부해가 어찌 되었는가?] 그건 잘 몰라. [웃음]

[연제구 설화 161]

마시면 젊어지는 옹달샘 물

신동저(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옛날에 어른들이 참 물(먹을) 것도 없고, 영감 할마이 둘이 인자 사는데, 그래 한 날에는 뭐 제비가 다리를 뿌자고(부러져서) 왔는 그거로, 참 요래 처매가지고 날리(날려) 보내 줬어요. 날리 보내 주니, 그게 어느 날은 자꾸 짖어싸서, 그래 뭐 실로 매놨다 하던가, 그래 올찌기 싸서, 그래 가이까네 또 안 짖다가, 안 가고 서 있으몬 또 짖고, 그거 인자 새 따라 갔어요.

새 따라 어데 먼 데로 갔는데, 어데로 가이까네 요런 옹당새미가(옹달샘이) 있더래요. 요런 옹당새미가. 새가 거 풀 앉디마는 마 안 가거든요. 그래가 그래 인자 목도 마르고, 목도 마르고 거 인자 바가지로 떠서 그 물로 쫌 마싰어.

떠마시인카네 젊어지더래요. [조사자: 오, 그 물을 마시이카네.] 응, 그래가 인자 서너 번 떠먹고 젊어지는 기분에 그래 인자 집으로 와가지고 할마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 저만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잩에(곁에) 대감이 살았다 하던가 사다가, 그 옛날 높은 사람 집을 뭐라 합니까? 대감이라 합니까? 예예. 그 사는데, 심술도 많고, 욕심 많은 사람. 거가 엿들었어. 엿들으이까네,

"그래그래. 그렇다."

그래, 이 영감이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참 인자 새로 인자 부로(일부로) 탁 다리로 뿌질러 가지고 당사실로 뚜들 매가 날려보내고, 그래가 새가 와가 한 번 짖더래요.

그래가 따라가이까네 옹당샘에 거 앉거든요. 물로 무이카네 탁 젊어지거든. 물로 계속 거기서 마이 무었어요. 계속 마. [청중: 그거 욕심이다.] 계속 마이 뭈는데, 집을 몬 오고 거 누워가 까늘라가(갓난아기가) 돼뿌더래요. [청중: 아이고.] 까늘라가 돼가 그래 인자 영감이 할마이 델고 인자,

"자네도 함 가보자."

젊어지러 같이 가이까네, 물도 물 시간도 없이 까날라가 하도 울어싸서, 불쌍해서 가를 덱고 와가 집에 가 키우까네, 연해 그 영감이더래. 욕심 많은 영감. 알라가 됐더래. 그래, 욕심 많으면 안 된대요. [웃음]

[연제구 설화 162]

자식 죽여 부모 봉양한 효자[산삼동자]

신동저(여, 1934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손자하고 안시어른하고 신랑하고 너이가 사는데, 시어른이 아파가 만날 누워가지고 있으이카네, '참 뭐로 해가 드려야 저 병을 낫을고?' 싶어가 메느리하고 인자 만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리는(하루는) 신랑은 나무를 하러 가고, 그래 인자 집에 있으이까네, 옛날에는 중이라 카든가, 그래 뭐 오디만은, 그래 메느리 물었어요.

"우리 어른이 저래가 있는데 뭐로 해가 무면 낫겠노?"

카이까네,

"참 애럽은대요(어려운대요)."

카이,

"뭐가 애럽은대요?"

카이,

"여 손지가 하나 있지요? 할매 손지가 있지요?"

"응. 학교 갔다."

카이,

"그 손지가 들어오거들랑 찬찬디가 묶아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물로 좀 푹 삶어라."

하더래요. [조사자: 아이고야.]

"그래가 그 물로 묵으면 틀림없이 나을 거라."

하더래. 그래 참 이래가 있으이까네, 인자 신랑이 나무를 해가 오더래요. 그래 나무를 해가 왔는데, 그래 인자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잔테,

"이만저만 하이 그렇더라."

카이,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할라노."

카이,

"놓으면 자석 아인교."

하매, 각시가,

"하자."

이라거던요. 그래 신랑이 가만 생각하이, '그것도 참 놓으면 자석인데 마 괜찮다' 싶어서, 참 학교 갔다 오는 거로 붙잡아가, 탁 묶어가 가마솥에 옇어가지고 물로 부어가 삶았어요. 그래 인자 푹 삶아가 그 물로 한 그릇 떠다가 드리이까네, 그걸로 잡숫디만은, 참 마 살아났는 매로(것처럼) 그렇더래요.

마이 잊어뿌, 마이 잊어뿠어요. 그래 그렇더라 카매, 그라다가 인자 한 마 안에 있으이카네,

"엄마."

카면서로 손지가, 아가 오더래요. 그래 그기 산신령이 시깄는데, 그기 삶았는 기 인삼이더래요. [청중: 인삼이다. 맞아 신령님.] 그래가 그 사람이 효자라고, 효자상을 타고 살았대요.

그랬더래요. [청중: 맞아.]

[연제구 설화 163]

제삿밥을 먹지 못한 귀신의 심술

심계순(여, 1949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아니, 옛날에 만날 울 엄마가 누워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인자 제삿날이 되어서 인자 제삿밥 얻어무러 갔어예. 가다가 길이 멀어갖고 저 묘가 양쪽으로 있는데 가서 인자 쉬니까, 그 묘에서,

"자네는 뭐 하러 가는교?"

항께,

"오늘 내가 간 날이라서 내가 아들 집에 밥 얻어무러 가네."

쿤께, [조사자: 제삿날이라서.]

"내 가네."

쿤께네, 그래 인자,

"갔다 오라."

카고 인자 갔어. 간께네, 그것도 간단해예, 오래는 몬해. 가께네 막 싸우고 난리더라 캐. 싸워서 난리더라 해. 그래서 고마 밉어서 손자로 고마 불에 차옇, 뒤눙지라 쿠대예? 불에 차옇어삤다 캐.

그래 인자 오다가 인자 또 그 묘 속에 거 인자 가서 쉼서러 이야기를,

"내가 싸워싸서 아를 불에 밀어삐고 왔다."

이러쿤다고. 간단하게뿌이 몬 해. [조사자: 그래, 그 아는 나중에 불에 딘 자국이 있는가 배.] 디있어. 디있는 줄 하모. 조상이 그라는 기라. 자빠지는 것도 조상이 그란다.

[연제구 설화 164]

개똥을 먼저 먹은 사람

심계순(여, 1949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옛날에 삼 형제가 이래 길을 가는데예, 그런께 못 먹고 살 시절이제. 개똥도 무야 될 형편 시절이제.

그래 인자 길을 가는데, 어데를 갔는가는 모르겠고, 길을 가는데 저 뭍에 개똥이 한 무더기 있더라 쿠대예? 그래가 앞에 가는 행님은,

"걸러 묵자."

쿠고, 둘채는,

"씻거 묵자."

카고, 셋채는,

"고만 묵자."

카는 기라. 그래 씻고 물 구하러 가고, 걸러 체 구하러 가고난께, 고마 묵자 쿤 놈이 다 무삤다 카대.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165]

호식 당한 아이들

심계순(여, 1949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연천부녀경로당]

옛날에 저게 옴마(엄마)하고 이래 살았는데, 옴마가 만날 넘의집에 베 짜러 갔다 쿠대. 베 짜러 가가 저 베 이래 매면은 풀이 묻거든예. 배가 고프니까 그걸 만날 오면 아로 뜯어가 믹이고 이래 했는 갑디예.

그래가지고 인자 한 문을 그걸 또 베 매러 넘의집에 베 매러 갔는데, 하루는 그걸 호랑이가 알았는갑서. 그래가 호랑이가 여따가 발라가가 저 엄마 오기 전에, 저게,

"옴마 왔다."

고 이래 한께, 아가 문고리에서 엄마 왔다고, 문구녕에서 이래 내다본께, 옴마하고 좀 틀리더라 쿠네. 그래,

"옴마 손 함 보자."

쿤께, 이래 옇은께 풀이 묻었는 기라.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 자아믹힜다 카는 것더라. 아가. 문을 열어주가지고.

[연제구 설화 166]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김옥선(여, 1960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저는 도깨비를, 근데 그 어릴 때는 그게 도깨빈 줄 몰랐어요. 커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동네가 이쪽에 큰 길가에 동네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들판이 있고, 이쭉에 또 동네가 있어요. 한 동넨데 떨어져가 있는데, 요쪽 건너는 산이라요. 산인데 인자 밑에 묏등 요렇게 많이 있었어, 밑에.

그런데 거기 그때 그럴 거라면, 모내기가 할라고 이렇게 못자리를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 우리 집에서 보면 저 논이 보여요. 그쪽 편에.

근데 확-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논에서 혼자서 막- 혼자서 뭔 이래 하는 그거지. '술에 취해서 그러는 갑다.'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들은 얘기로는, 그 사람이 도깨비랑 싸움을 했다 이런 말씀. 자기 말로는. 거기서 도깨비하고 씨름을 핸 거래요, 씨름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연제구 설화 167]

도깨비에 홀렸다가 살아온 아이

김옥선(여, 1960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고러고 인자 우리가 거게가 저 저기 창녕 가는 부곡 거기 옹기굴이 우리 동네였거던요. [조사자: 아, 부곡 쪽에.] 옹기, 옹기. 우리 큰집이 옹기굴을 했거던요. 그러니까 고 인자 옹기를 만들면 마당에서 말려가지고 또 재무를 해가 말려가지고,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다가 요렇게 딱딱 재아갖고, 옹기굴이 그러면 굴이 커다나면, 들어가는 구멍이 한 열 개 정도 돼요. 그기 이빠이 하나 만들어져야지 그 굴에 넣어가 불을 때면은 한 한달시리 불을 때가지고 옹기를 익후거던요. 그럼 그거를 재워놓으면 그 창고가 있잖아요.

근데 애기가 놀다가, 저 뭐라 하노, 저 마당이라고 그러지요. 말래 마당이 애들 놀기에 너무 좋아요, 그게. 거게서 애가 놀았는데, 인자 애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고 누구 놀았노 카

이, 똑같이 놀았는 기억은 하는데, 애들은 다 지저금(각자의) 집에 가지. 누구 압니꺼. 근데 걔만 집에를 안 오는 거에요. 그럴 때 한 일주일 지나도 애가 집에를 안 오니까, 온 산을 들로 찾아도 애를 못 찾았는데, 걔가 초등학생이랬어요.

그랬는데 인자 옹기를 인자 구울라고 하면은, 그것도 다 갖다 놓아야 되잖아요. 글(그럴) 때 그 창고를 열고 옹기를 갖다 옇고 나는데 막 신음 소리가 나더래요. 어디서. 사람 소리 비슷한 게. 그래서 보니까는, 그 칡넝굴 있잖아요, 칡넝굴을 가지고 애를 총-총 묶어가지고 그 옹기굴 쌓아논 중간에다가 딱 [조사자: 안차(앉혀) 놨어?] 애를 앉아가 있더래요. 애가. 그래서,

"너 왜 이러구,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 바로 길 우에 묏동(묏등)이 있는데, 묏동이서 누가 씨름을 하자 하더래요. 그래서 씨름을 했는데 이겼대요, 지가.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 그러니께네 도깨비가 진짜 있다는 거를, 아, 긍께 그 일주일을 넘게 애가 이렇게 칡에 묶어가,

"칡줄로 가지고 탁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났다."

하더라고. 그러께 우리 큰집에 그렇게 그게 실화로 있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도깨비가 진짜, [조사자: 창녕에 부곡 쪽에.] 예, 진짜 도깨비가 있었구나.

[연제구 설화 168]

제삿날에 가는 귀신을 태워준 택시기사

김옥선(여, 1960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서창에 요기, 요기서 택시기사 분이, 어떤 이렇게 하얀 요렇게 [청중: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손을 딱 들어. 여자가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태웠대요.

자기도 섬뜻한 생각이 들어서, [청중: 옷을 그래 입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거울을 이렇게 탁 보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돌아보니까 있더래요.

그런데서 인자 일단은 태았으니까, 어디를 가자 해갖고 어디를 가니까 이래 집 앞에 가니까, 불을 환하이 캐놨더랍니다. 제삿집이니까 당연히 불을 캐놓겠지.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라꼬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인자 기사분도 들어본 이야기가 있어서 들어갔어.

"사실은 이런 이러 이렇다."

하이까네,

"아, 우리 어머님이 오셨는 갑다."

하면서 차비를 주더라. 그래서 받아왔다 하더라고예.

[연제구 설화 169]

귀신이 따라오는 소리

김옥선(여, 1960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그러고 인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인자 어렸을 때 영산장에 소를 팔러 가셨대요. 소를 몰고. 거 걸어서 갔다가 소를 팔고 걸어오다 보니까 깜깜해졌잖아요. 이쪽은 까재골이고, 이쪽은 팔닥고개잖아요. 그때도 인제 남잔데도 까재골 딱 거게 오니깐, 벌써 머리가 빳빳해지더랍니더. 무서워서. 그래서 인자 고기서부터 인자 무서우니까 뛰었대요.

뛰니까노 이게 찰칵찰칵 소리가 나니까노, 또 길에 돌이 받치면은 내 발에 받힌 돌이 꼭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이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시골에 가몬 그 돌이. 그래서 또 뛰니까노 따라오는 게 들리는데다가 이 또 찰칵찰칵 소리가 나니까, 고 인자 고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십리에요. 십리를 한 번도 안 쉬고 뛰었대요. [조사자: 아이고야.]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대문 앞에 딱 서니까는 찰칵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러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또 한숨 탁 내쉬고, 담배를 한 개 딱 꺼잡아 내갖고 탁 성냥을 탁 붙여노이까, 성냥곽이 딱 보니까 이거 소리였는 거라. [조사자: 아, 성냥곽 소리.] [청중: 성냥곽 소리.]

담배를 딱 보니까 불 캐 딱 그 소리 나케, 본인 뛰니까는 주머니에 든 성냥곽이 찰칵찰칵 소리. [청중: 차각차각.] [일동 웃음] 집에 다온다 이 발에는 돌이. 자갈이 내 발에 받힌 자갈이 사람 따라오는 것 같이 그래서 십리를 [웃으며] 내가 죽어라고 ○하고 뛰어왔다.

[연제구 설화 170]

당산나무를 질러가게 묘를 써서 망한 집안

김옥선(여, 1960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저 인제 시골에 살 때, 담벼락이 함께 하는 옆집에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 당산나무가 마을 들어가는 입구 그 우에 이래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밭이 당산나무 밑에 있었어요. 고기다 인자 묘를 쓰겠다는, 할머니 묘를.

동네서 인자 말이 부명한 거라. [청중: 그건 좀 아니지.] 아니 쓰는 거는 괜찮은데, 아니 당산나무 밑에 쓰는 거는 괜찮는데, 어떤 사람들은,

"뒤를 돌아서 이렇게 가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바로 가면 빠르지 그지예?

"바로 가야 된다."

이래갖고 인자, 이래가지고 저 어릴 때 시절엔 세상이 좀 그거 될 시절인께네, 막 그냥 질렀어. 바로 가버렸는 거라. 묘 거 한 바쿠 두를라면(돌아보려면) 얼마나 힘들답니까. 그러께 바로 가버렸는가 봐.

근데 초장을 딱 치고 나니까네, 3일 딱 되이 아들이 딱 죽어삐는 거라. 아들 초상을 딱 치고 나니까는 손자가 딱 드러누우. [조사자: 아이고야.] 그러니까는 저희 집은 이렇게 깨울이(개울이) 있고, 이런 길이 있고 집이 있었거든요. 어떤 스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저 집에 큰일 났다."

함서러, 큰일 났다 함서러, [청중: 묘를 안 쓰야 되는데.] 아니 묘를 써도 괜찮은데, 당산나무 질러갔는 거여, 이게. 그러이까네,

"빨리 저 집에 그걸 안 하면 삼대가 멸망을 한다."

고. 그래 손자 가면은 인자 끝나는 그거 그래. 애들 그래싸노이. 그래가지고 인자 그 스님한테,

"우리가 우째 해졌냐?"

고 해갖고 손자는 드러누웠다 일어났는데, 스님이 아니었으면은 그 집은 완전히 문을 닫아. 그만큼 당산나무가 [청중: 당산나무는, 그래 동네에 들어가는, 신적인 존재야.] 당산나무는 자기 밭이니까 가는 건 괜찮은데, 이래 둘러가지고 요리 가야 되는데, 바로 가로질러가 앞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진짜로 굉장히 당산나무 무섭더라고예.

[연제구 설화 17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김옥선(여, 1960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엄마가 아이들 둘이 키우면서, 먹고 살면서 남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그 인자 그러먼 옛날에는 돈 같은 거 안 줬잖아요 그지예. 떡 같은 걸 이런 걸 주니까, 그 떡을 인자 이고 아를 줄라고 오니까, 호랑이가 나오가지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묵지."

하나 또 줬다. 또 따라와,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또 하나 줬다. 자꾸 쳐다보니까 인제 줄 기 없어,

"줄 기 없다고 인제. 없다."

하니까네, 그러몬 인자 엄마를 잡아먹어버린 거라.

엄마를 잡아묵고 인자 호랑이가 집에 가몬 애가 둘 있다는 거 아니까는, 호랑이가 인자 엄마 옷을 싹 입고, 엄마가 가면서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깐, 인자 호랑이가 딱 엄마 옷을 입고 왔어도,

"엄마 왔다."

고 그라니까는 애들이,

"손을, 손을 내밀어 보라."

고. 이란께,

"울 엄마 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요고도 인자 호랑이가 본께, 애들이 눈치가 챘다 싶으니까, 어찌 할 수 없기 인자 애들은 뒷문을 열고 도망가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인자 동생데리고 올라갔는데. 또 호랑이가 나무를 못 올라가잖아예. 그러니까 인자 호랑이가 꾀를 써갖고,

"너거들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이라니까, 오빠는 시근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동생이 이게,

"오빠는 참기를 발라갖고 올라왔지."

이라이, 지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이 못 올라가겠거든. 쫄딱 미끄러지이께네, 동생이,

"바보야, 도끼로 콕콕 쪼사서 올라와야지." [일동 웃음]

그러니까, 그 가마 핸 말이 맞거든. 도끼로 쪼스니 바로 올라가지거든. 그럼 얘들은 도망갈 데가 없잔아예. 그러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못하는 거라.

"하느님, 저희들을 살려주실라면은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일라면은 헌 동아줄."

[청중: 해님 달님 얘기네.] 예. 기도를 하니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요렇게 인자 내려와가지고 애들은 올라갔는데.

가마 보니 호랑이가 그렇게 하니까는 줄이 내려오거든. 지도 인자 하느님한테 그렇게 하니

까는 줄이 싹 내려왔는데 썩은 줄이 내려왔는데 잡았는데, 호랑이가 톡 떨어져가지고. [웃음]
[조사자: 어, 아들은 올라가가지고 어찌 됐노?] [청중: 해님 되고 달님 됐다 하잖아요. 해님 달님 얘기 아입니까 그거.]

[연제구 설화 172]

제삿날 조상 혼령을 점치는 밀가루와 메밥 지을 쌀[67]

김옥선(여, 1960년생), 왕영순(여, 1951년생), 이오순(여, 1952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김옥선]
옛날에는 와 밀가루 갖고 실험도 했다 안 하대요. 왜, 제사상 밑에 밀가루를 이렇게 판판하이 해가 딱 옇고,
"진짜 요셔가지고 드시고 가시면은 표를 해놓고 가시라."
고 했더만은 표가 있더라 안 하나.

[왕영순]
긍까네, 밀가루나 여 잿가루나 말하자몬 그런 기 그런 기라.

[이오순]
인자 시골에는 제사를 모실라 하니까, 시골에 옛날, [말을 바꾸어] 지금은, 뭐 돈을 지금은 주지만은, 옛날에는 쌀, 쌀을 한 되 가져온 사람, 두 되 가져온 사람 전부 쌀을 갖고 오면은, 그 집 쌀 한 오큼씩(움큼씩), 한 오큼씩 해가지고 메밥을 짓잖아요. 멧밥을 짓는디.
우리도 우리 아버지랑 우리 제사 모실려고 보면은 외숙모랑 모두 쌀을 갖고 오몬, 웃목에다 쭈루루 갖고 온 대로 그대로 쪼로록 놔 놓대요. 놔 놓고, 쌀을 그대로 놔 놓더라고. 놔 놓고, 한참 놔 놓고는, 인자 저녁 메밥 지을 때는 고놈을 갖고 가서 메밥을 짓더라고.
메밥을 짓는디, 이미 그 쌀을 놔 놓으면 그 놔 놓은 쌀에도 그기, [조사자: 표시가 나는가?] 표시가 다 있다대요. 예, 그기 표시가 난다더라고.

[연제구 설화 173]

67) 이희대(남, 1941년생)가 구술한 '제삿날 조상의 환생을 점보는 재' 이야기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이다.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왕영순(여, 1951년생), 이오순(여, 1952년생), 이희대(남,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이희대]

옛날에 저저 고려시대 땐강 뭐 그때, 이 저 자기 엄마 인자 그 고래장 할 때가 다 됐는데, 그 자기 자식이 인자 부모를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기를 그거해서 인자 데리고 인자 올라가면서, [청중: 지게를.] 밤에 인자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서, 여 인자 엄마가 올라가면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중간 중간에 이래 꺾어놓는 기라.

꺾어나놓고 인자 그 산 우에 버려나놓고 집에 왔는가 봐요. 그 집에 올 때 자기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이 나뭇가지를 꺾어놔야 자기 아들이 혼자 내려갈 때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 인자, [청중: 표시를 해놘 기라.] 응, 표시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해난 기라. 그래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야야, 니 집에 갈 때는 나뭇가지 요래 뿌아져 있는 고거, 고 길로 찾아가지고 가거래. 그래야 니 집에 간다."

인자 이래 되는 거라.

[이오순]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 그 얘기, 고려장 얘기가 이 얘기가 있었다.

엄마를 지고, 지게다 지고, 언자 갖다가 산에다 내버리러 가는데, 자기 아들을 덱고 갔어. 아들을 덱고 가서, 인자 덱고 갔어. 덱고 갔는데, 지고 가서 안자 부모를 내리놓고는 인자 지게를 내삐리고 올라니깐 인자 아들이 지게를 탁 짊어지더라는 거여.

"야 이놈아, 그거 내버리고 가지, 와 짊어지노?"

헌께네,

"나중에 아버지도 갖다 버리야지요. 지게를 져다 버리야지요. 그럴라몬 지게를 갖고 가야 될 것 아이요."

이러 하더라는 거라.

[왕영순]

손자가 말하자면은, 아들이 지게에 엄마를 업고 갔으니까 그지예? 그러이께네 나 놓고 가면은 그 손자가 따라갔겠지. 그 아부지, 그께네, 지가 가(가져) 가이께네,

"난중에 이 아부지가 늙으면, [웃으며] 고래장 되몬."

하든가, [조사자: 야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고래장이.] 그때부터 고래장

이 없어졌다 하더라고.

[이희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그거, 집에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모를 버려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도시(다시) 데리고 왔대요.

[청중: 부모가 자식을 그래 생각하니까.] 집에 데리고 오면은 인제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자 잡히갔는 거라. 이놈을 마을 고을에 있는 사또가 뭐, 그 사람한테 인자 잡히갔는 거라, 법을 위반했으니까.

"니가 왜 그렇게 부모를 그렇게 버렸, 저저 대, [청중: 다부 덱고 왔냐고?] 그 고래장을 해야 되는데, 니가 와 법을 위반하고 데려 왔나?"

해가지고, 그래서 인자 자기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기 인자 임금한테까지 가가지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가 고래장이 그때부터 인자 없어졌다고.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

[연제구 설화 17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이오순(여, 1952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옛날 시골서 어른들이 헌 얘기를 들었는데, 외아들하고 메느리하고 저 엄마하고 서이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가고 나이까네, 어머니하고, 시어머이하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시어머이가 봉사라. 시어머이가 봉산데, 며느리가 거처널랑께[68] 옛날엔 시골이라서 뭐 해줄 기 없어. 없다 보이까네, 메느리가 그 땅을 파몬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그 지렁이 나온 걸 삶아갖고 믹이고 믹이고, 시어머이를 믹있더래요.

그런데, 그래 믹있는데, 시어머이는 지렁이인 줄도 모르고 인자 그것을 받아서 묵고는 메느리 몰래 몰래, 이 옛날엔 초석, 그 대나무로 만든 초석 있잖아요? [조사자: 삽자리.] 예, 삽자리 요 방바닥 밑에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할매가 감찼어. 왜냐 한께네 나중에 군대 갔다 온 아들 오면 줄거라고. 자기가 먹어봉께 맛있어서, 군대 갔다 온 아들 줄기라고 이 장판 밑에다가 감췄는데, 아들이 군대 갔다 제대를 하고 와서 보이까네, 앞을 못본 어머이 걱정을 많이

68) "먹고 살려고 하니까"의 뜻으로 말한 듯함.

했는데, 와서 보니까네 어머이가 얼굴이 참 좋더래요. 그래서,

"어무이, 어무이, 어째서 얼굴이 이렇게 좋습니까."

한께,

"너거 마누라가 나를 이케 고기 국을 낋이줘서 내가 잘 묵어서 이렇게 얼굴이 좋다고, 좋은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야, 니 오몬 줄라고 내가 한 마리씩 한 바리씩 요요요 모아서 장판 밑에다 모아놨응께 끄집어내갖고 먹어라."

캐서 장판 밑을 떠들어본께네 지렁이가 소복하더랍니다. 그래 그 지렁이 국이 그래 옛날 사람들이 지렁이 국이 사람한테 그래 그리 좋았던 갑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들은 얘기라요, 그 얘기.

[연제구 설화 175]

귀신 소리를 엿들은 소금장사

이오순(여, 1952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아,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소금 장사가 지게다 소금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금을 팔러 다녔대요. 이 동네 가서 팔고, 저 동네 가서 팔고 하다보면 산도 넘어가고 산길도 가고 그랬는데, 산길 넘어가다 봉께 밤이 되어버렸대요.

밤이 되어서 그러니까 잘라니 마땅치 않아서 그양 못등에(묏등에), 못동에 하나 판파이 하나 못등이 있더래요. 못등 옆에다 지게를 받차놓고, '올 저역에(저녁에) 마 여기 신세를 지고 가야 되겠다.' 함서,

"신세를 하루 좀 지고 갑시다."

그러고 못동 옆에 두러누서(드러누워서) 인자 자고 갈 끼라고 드러누워 있으이까네, 밤중쯤 되이까네 막 웅성 웅성 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이, 오늘 내 생일인데, 내 따라서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묵으러 가세."

그래 못등에서 그래 쌌더래요. 그래서 그런께, 인제 이 소금장사가 들으니까, 그렇께네 이 소금장사가 들어누우 있는 묏등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이, 나는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나는 못 가겠응께, 자네 혼자 가서 맛있게 묵고

오소. 나 우리 집에 오늘 손님이 와서 있네."

그러더랍니다. 인자 소금장사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쌌대. 그래쌌더만은 한참 조용하디만은 인자 얼마나 되니까 다시 또 시끌시끌하더래요.

"잘 갔다 왔는가?"

그렇께,

"어이, 갔다 왔는디. 내 마 속이 상해서 내가 우리 손주놈을 갖다가."

옛날에는 아궁이를 갖다 부삭이라 캤어. 부삭.

"내가 그 아궁이에다가 부석에다가 손자놈을 갖다가 확 밀어여뿌고 왔네. 밀어뿌리고 왔네 내가. 뭐 메느리라는 것이 밥을 하면서 아주 마 그양 마 험담을 허고 짜증을 내고 허고, 정신을 안 써서,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그냥 손주놈 갖다 아궁이에다 확 밀어여뻐리고 내가 왔네. 속이 상하서(상해서) 죽겄네."

그래서 가만히 소금장사가 들응께, 그런께 구신들 얘기하는 소리가 소금장사 귀에다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소금장사가 숨도 안 쉬고 가만히 듣고 잤대요. 자고 인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인자 소금장사가 소금을 가마니를 짊어지고 인자, '참말로 그 동네가. 참말로 제삿집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그 동네로 소금을 팔러 갔대요.

그 동네로 소금을 팔러 가갖고 인자 동네 사람들을 소금을 팔면서,

"혹시 요 동네 오늘 엊저녁에 제사지낸 집이 있는교?"

하고 물응게, 제사 지낸 집이 있다더랍니다.

"제사 지낸 집이 있다."

해서 인자 그 집으로 갔대요. 그 집으로 가갖고 인자,

"아이고, 소금 좀 사소. 소금 팔러 왔니더. 소금 좀 사라."

하면서 가서, 갔더마는 아를 아궁이에다, 진짜로 아궁이에다 밀어여뿠다 했는데, 아를 갖다 밀어뿌갖고 아가 손이 다 디였더랍니다. [청중: 아하.]

그게 거짓말 아니고 실화랍니다. 그렇께네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을 들여서 지내라는 기 있는 거에요. 그런 게. 제사를 모실 때는. [조사자: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밥을 안 묵고 아를 갖다 아궁이에다 밀어뿌고 왔다 하더래요. 이래서 참말로 소금장사는 생각을 했는 기라. '진짜로 참말로 귀신이 밀어서 아가 디였는가 안 디였는가 내가 가봐야겠다.' 싶어서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그 동네를 들어가서 보이까네 진짜로 아가 디였더라 안 합니까. 한 쪽이. 한 쪽을 다 디였더래요.

[연제구 설화 176]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이오순(여, 1952년생)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우리 그 건너 마을에 아저씨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아저씨가 있어갖고, 술을 실-컷 먹고 밤 열두 시가 넘어갖고 오는데, 도깨비하고 둘이 씨름을 했대요. 도깨빈 줄 모르고 씨름을 했다 취해갖고. [청중: 그렇지.]

씨름을 했는데, 옛날에는 인자 허리끈을 묶고 다니잖아요. 거- 씨름을 허다하다 안 돼서 허리끈을 풀어가지고 그 도깨비를 갖다가, 그 가로수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나무에다가 막 자기 허리띠를 해가 묶어놓고, 묶어놓고 술김에 바지 요놈을 치켜들고 집에 가서 잤대요. 자고 아침에 인자,

"내가 인자 그 싸운 놈을 갖다가 묶어놨으니까 어찌 돼가 있는고 가보자."

한게네, 빗자루를 갖다 묶어놨더랍니다. 빗자루를. 묶이갖고 있는 게 빗자루더래요. 그런께네 그기 아마 도깨비하고 싸웠던 모양이라. [청중: 도깨비가 뭔지는 모르는데 있기는 있는 거 같으마.]

[연제구 설화 177]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이오순(여, 1952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조사자: 호랑이가 '아이구 꽂감이 내보다 더 무서운 갑다' 하고 도망간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 우리 어르신 하나 하실랑교? 호랑이가 아 잡아무러 내려와가지고.] 아 잡아묵는 기 아이고, 아가 하-도 울어가지고, 안 그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하도하도 울어재끼니까네, 울어제끼만, 호랑이가 문앆에(문 앞에) 와 있는데,

"니 너무 울몬 호랑이가 니 잡아간대. 니 잡아묵는데이. 울지 마라."

고 달랠라 해도 안 달개지고, 하도 울고 허니까,

"야, 그럼 꽂감 주께. 그치라."

하이까네, 꽂감을 준당께 아가 뚝걱 그치는 거라. 그런게 호랑이가,

"꽂감이, 내보다 더 무서운 꽂감이 있는 갑다."

싶어가 호랑이가 도망갔다라는 말이 있더래요. [일동 웃음.] 그라더라니까.

[연제구 설화 178]

3일장 5일장을 하는 이유

이희대(남,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옛날에 그래 이 3일장, 5일장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 죽었다가, 안자 방금 선생님 하신 이야기[69]대로, 이렇게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3일이나 5일장을 하는 이유가 인자 그거 때문이 있는 거라. 혹시라도.

요즘은 마 뭐 돌아가시면은 바로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큰 방에다가, 큰방에다 병풍 이래 해놔놓고 뒤에다 이불 이래 덮어가지고 나 놓잖아요. 그러면 이틀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고, 삼일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는 거라.

그러이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때문에 지금 3일장, 5일장 하는 이유가 거 있는데 요즘은 냉동실에 바로 들어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옛날에는 그기 의미가 있었는데.

[청중1: 아침 저녁으로.] [청중2: 상석도 올리고.] [청중1: 상석 올리고 평풍 열어갖고 이렇게.] [청중2: 그라고 염도 빨리 안 했다 아입니까. 이불 덮어놓고.]

[연제구 설화 179]

성형수술을 하지 말라는 이유

이희대(남,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옛날 어른들이 이 성형수술 같은 거 하지 마라 하거던. 왜 하지 마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젊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에 갔어 인자. 저승에 갔어. 선생님 말씀대로 저승에 가니까, 염라대왕이 보고,

"니는 아직 저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그래 저승사자보고 그라는 거라.

"이 사람은 아직까지 여 지금 죽어가 올 사람이 아인데 니가 잘못 데려왔다."

고, 막 뭐라 하면서,

69) 조사자가 제보자의 구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이야기한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이야기를 말한다.

"도로 내려보내라."

하거던. 그래 도로 돌려보냈어. 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인제 '니는 멫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 왔느냐?"

면서 그러는 거라. 그래 인자 염라대왕한테 자기 갔다 왔으니까. 인제는 자기가 멫 십 년을 인자, 염라대왕이 인자 데려가는 그 기간이 인자, 자기는 인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몇 년까지는 내가 인제 안 죽고 살 거다.'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 성형수술을 아주 이쁘게 했는 거라.

그래가 얼마 있다가 또 죽었어. 그래가 갔는 거야, 그 저 저승사자한테. 가니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인자 자기 항의를 한 거라.

"어, 저승사자님이 내가 멫 년 동안 산다고, 니 잘못 왔다고 도로 가라 해가지고 했는데, 왜 또 데려 왔느냐."

그러니까,

"그래 니가 그대로 살았으면 니 살낀데, 얼굴이 달려져나 놓으니까, 이 저승사자가 모르고 니를 덱고(데리고) 왔다. 니 명이 그거빽에 안 되니까 인자 할 수 없다. 인자 들어가라."

하더란라. [청중: 성형수술 하지 마라고.]

[연제구 설화 180]

나무 묶은 끈을 뱀으로 오인한 아가씨

이희대(남,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시골에 저 아가씬데, 옛날에는 몬 살아가지고 전부 다 산에가 나무를 해가 와가지고 집에 불 때고 했잖아요. [조사자: 그렇지예.]

그 집에는 자기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엄마하고 인자 뭐 자기 여형제들만 살다보니까, 이 아가씨가 자기가 인자 나무를 하러 갔는 거라.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나무를 한 짐을 했는데, 해가지고 둘러씨고 내려오는데, 무엇이 뒤에 자꾸 따라오는 겉에 갖고 뒤를 돌아보이까네, 뭐가 뱀이 겉은 게 막 따라오는 거라.

그럼 막 죽자사자 마 이 도망을 가다가, 또 따라가도 또 뒤를 돌아보이 또 오고 또 오고, 집에 가가지고 뒤에 돌아보이께네, 이 나무 이래 다 하면 이렇게 와 그 저 끈 이래 해가지고 짜매는 거 있잖아. [청중: 그기 벌렁 풀어졌나?] 그기 계속 따라, [일동 웃음] 돌아보이 또 따라오고, 돌아보이 또 따라오고. 집에까지 갈 동안 계속 따라와.

그 사람은 신경 거이 해가지고 얼마 몬 살고 죽었어요. [조사자: 아이고, 아이고.] 아가씬데. 스물 멫 살인가 아가씬데. 그래가지고 그 신경 그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들시들하더만 죽더라고. 우리 동네 직접 있는 사람이라.

[연제구 설화 181]

제삿날 조상의 환생을 점보는 재

이희대(남,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삼촌들 하고 집에 제사 지낼 때 보만은, 앞에 상 놓고 앞에 고 인제 [청중: 작은 상.] 작은 상 요렇게 놓잖아요. 향 피우고 술잔 놓고 하는 데.

그럼 고 밑에다가 인자 모래 같은 거는 좀 뚜껍고 하니까, 짚 겉은 거 태우고 나몬 이 재가 [청중: 보드랍지.] 되게(매우) 보드라와. 그럼 고거를 요런 종이에다가 싹- 깔아가지고 상 밑에 요래 딱 밀어 놓는대요.

그러몬 제사를 다 지내고 난중에 보면은 인자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분이 새가 되면은 새 발자국이 있고, 또 뭐 개가 되면은 개 발자국이 나오고, 그 자기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뭐로 환생했다는 게 거기 나온다 하대요.

뭐 그리 삼촌들 그래 이야기 하대. 그래 그거 보몬 안다 하대. [청중: 근데 그거 요새는 안 놓잖아요.] 요새는 안 놓는데.

[연제구 설화 182]

고양이를 영물이라고 하는 이유

이희대(남, 1941년생) 구술
2018년 2월 1일 채록
[연산8동 오성경로당]

옛날 어른들이 고양이 그거를 아주 집에서 귀연(귀여운) 동물로 키우긴 키우는데, 그 동물을 영물이라 이야기를 하거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옛날에 그 인자 시골에서 거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대요. 그래도 저 옛날에는 어른 밥상 따로 채리고, 그 다음 또 여자들도 밥상을 따로 채리고 하잖

아요. 그라몬 밥상을 밥을, 아침에 밥상 해가지고 방에다 딱 갖다 놓으면은 고양이가 옆에 와 가지고 내 인자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라. 딱 앉아가지고. 오몬 인제 주인이 한 숟가락 먹고 쫌 주고 인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내 기다리는 거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오니까 기다리던 이 고양이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이 지업으니까(지겨우니까), 이기 주인이 오기 전에 먼저 우에 있는 생선을 하나 집어무뿠는 기라. 그래 어른이 딱 들아와보니까 고양이가 자기 생선을 묵었거든. 그래갖고 고양이 이 목덜미를 [자신의 목 뒤를 잡는 시늉을 하고] 이렇게 딱 이래 잡고 마당에다 던졌는 거라. 보통 보몬 고양이들이 던져도 잘 서거든. 근데 이기 고양이가 죽어뿠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가 죽었는 거를 저수지에 갖다 버려뿠는데, 그라고 며칠 있다가 인자 논에 물 대러 그 저수지에 물이, 그 저수지에서 이래 물 나가는 구멍이 있다 아입니까. 그래 거기 인자 물 그 빼러 갈 때, 그 물 댈라고 물 빼러 가니까, 거기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퉁-퉁 불어가지고 죽어가 있는 거라.

그래갖고 인자 자기가 삽으로 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를, 인자 그거를 들어내야 거 하니, 그래가 그 뱀을 이렇게 쓱 이라니까, 그 물이 탁 터져갖고 물이 자기 얼굴에 다 덮어썼뿠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기 독이라, 독. 그 덮어씨고 그 영감이 그 길로 죽었다잖아. 그니까 그래서 이 고양이가 영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라.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마.

[연제구 설화 183]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김인재(여, 1948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과정경로당]

[신순자 씨의 '곶감 먹으려다 호식당한 아이' 이야기를 듣고] 또 또 그렇게 말 안 하고 또 내가 또 알기로는, 애가 자꾸 우니까네, 할무니가 애를 달개도 안 끄치는 기라. 호랑이가 그 집에 사람 자아무로(잡아먹으러) 왔는데, 아아가 울어쌌거든.

"우는 거 저 잡아무야지."

하고 있는데, 할매가 저 저 아아 보고,

"호랑이 온다. 울지 마라."

해도 아가 자꾸 울거든. 자꾸 우이까네, '아 저 호랑이를 겁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갑다.' 생각, 생각했는 기라. 할머니 그래 아 보고,

"꽂감 주께 울지 마라."

아가 뚝 그치뿠는 기라. 그래 요 호랑이가,

“아! 내보다 더 무섭운 사람이 꽂감이구나.”

그래. 그래가이고 호랑이가 도망을 가뿠대. [청중: 그기 더, 그기 더 멋있다.] 도망을 가뿠대. 그래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 [청중: 그기 더 멋있다.]

[연제구 설화 18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신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과정경로당]

옛날에 옛날에 칠순이 엄마가 넘어서로 그래서로 인자 고래장을, 니시 옛날에는 나라에서 고래장을 안 하몬 안 된다 하대. 잡아간다 하대. 그 저 그 칠순이 넘는 엄마로 안 하모.

그래 이 칠순이 넘은 엄마가 인자 있인께, 고래장을 할라고 자기 엄마를 지게다 짊어지고 저거 아들로 덱고(데리고) 그래가 갔어. 가면서 그래도 그 어머니의 모성이라 가다가 저 저거를 [청중: 표식을 했어. 나무에다가.] 나무를 똑 똑 띠가이고 가면서 자꾸자꾸 이래 떨어트리 났는 기라.

그래 놓고 인자 고래장 하는 자리에 자기가 저 정해놨던 자리를, 그래 고래장을 가갖고 니라갖고(내려서), 엄마를 삼일 동안만 먹을 거를 딱 안에 옇고, 그래갖고 고래장을 시킨다고 엄마를 그따(그곳에) 내라놓은께라, 인자 고래장을 해놓고 그 아들하고 인자,

“야야, 가자.”

그럼서로, 그람서 그 지게를 내삐맀어. 내삥께 저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부지 왜 지게를 내삐립니꺼? 가져갑시다.”

이랑께나, 아 아부지가 하는 말이,

“그거는 필요없는데 말라(뭐하려고) 가(가져) 갖고?”

“아 아부지도 칠순 무으모 내가 아부지를 짊어지고 요 갖다가 버리야 된께나, 그래 고 지게를 가지고 가입시다.”

이러 쿤께나, 아들이 가만 생각헌게, 지도 쪼깨만 있으면 칠십인데 여 고래장 하겠거든. 그래롱께나 고마 그 길로 와가이고 그래도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나뭇가지를 끊어서 그래 내삤싱게네, 그래 손주하고 같이 가면서 끊어버린 그 자리를 잘 보고 집을 찾아가라.”

잘몬 찾아가모 고마 잠 집을 안 가고 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오면서

요래 요래 끊어갖고 버맀싱께.

[청중: 아들이 짤란 기 아니고, 지고 간 할무니가.] 할무니가. 지고 가는 할무니가 엄마가, 그래 요리 요리 그래가 버맀인게 그거를 잘 버리, 보고 걸어갖고 가제, 그러 아니고 무작정으로 가몬 집을 몬 찾아가니까.

"그거를 가다가 그 소나무 가지 끊어가 버린 거를 잘 보고 가라."

고 아들이 그리 가르키 주대. 엄마가 죽어, [말을 바꾸어] 그 고래장 한 엄마가 그렇기 아들을 가리켜주더래. 져다가 내삤는대도.

그래 그런 옛날에 전설이 있더라고. [조사자: 와이구, 맞아 맞아. 그래 참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식 생각하는 기 안자 엄마라고.] [청중: 모성이지.]

그래갖고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아차, 그래가이고, 그리 하니까 그 아들이 그 지게로 그리 하니까 도로 엄마를 끄집어 내갖고, 지게다 담아갖고, 짊어지고 [청중: 다시 챙겨 왔어.] 집을 도로 왔는 기라. 인자 자기가 죽을낑게 앞으로. 그런께네 오면서, [말을 바꾸어] 감서(가면서) 하는 말이,

"야야, 그 나뭇가지를 잘 보고 가자. 내가 오면서 오는 길에다 나뭇가지를 끊어가 버맀으니까 그거를 보고 잘 보고 집으로 가자. 그래 안 하몬 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 하더랍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연제구 설화 185]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서열을 바꿔버린 머슴

신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과정경로당]

옛날에 또 큰 비가 왔어. 큰 비가 와서 또랑에 물이 많이 내리가니까, 물이 많이 내가 비가 와서로 내리가니까, 저짝에서는 요리 못 건너오는 기라. 못 건너오는데 인자 건너올 수가 엄싱께(없으니까), 건너와야 살 건데 못 건너옹께나.

그래 인자 그 집에도 신랑이 죽고 없고 메늘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살아. 저짝 동네. 그래가 인자 머슴이 있고 이라는데, 머심이, 할매가 폴딱폴딱 뛰서,

"내 좀 업어다가 저리 건너도라."

쿤께나, 머슴이 가만 보더만은 고마 그 각시를, 색시를 업고 왔어. 색시를 업고 요리 또랑을 건너다가 건너다 놓고, 인자 또 할매가 막 내 더불러(데리러) 오라 싼께네, 할매가 또 그 인자 그 더불러 갔어. 머심이 가가 갤국(결국) 그 할매를 업고 왔어. 와갖고 인자 그날 저녁

에 저녁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배가 고파서,

"밥 해라."

메늘 보고 그랑께나

"아이구, 저 작은메늘 밥하는 거 봐서 큰메늘이 해야지."

이라든. 할매를 몬저 업고 왔인께나 그거 큰며느리 되삐고, 낸중에 업고 온 메늘은 작은메느리 되삐리. [말을 바꾸어] 아, 작은메느리, 메늘로 먼저 업고 와농께 큰메느리 되삐리고, 할매는 내중에 업고 왔응께 작은메느리 되삐리. 그런게,

"작은메느리 밥하지, 내가 만다고 큰메느리 밥할 기고?"

그라고 안 하더라요. [청중: 그 머심이 마 머심이 할맘을 삼아뿠네.] 으응. 고마 덕고(데리고) 와서 고마 삶아뿠어. [청중: 큰할매, 작은할매 만들었뿠네.] 어어. 그래논께나,

"손위게 사람이 누가 밥하냐고. 아랫사람이 밥하지."

이람서로 작은메느리 밥하라 캤다. [청중: 먼지(먼저) 만난 사람이 늙으나 젊으나 먼지 만난 사람이 좋은 거다.] 응. 그랬은게, 또랑을 건니가 그라더라 캐.

[연제구 설화 186]

도깨비가 많이 나타난 시시골

신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과정경로당]

또 저 동래 그게 야시골 있지요? [조사자: 야시골 어.] 야시골 거기 [청중; 시시골.]아, 시시골.

시시골 거기는 옛날에 도깨비가 그리 많이 나더라 카대. 그래갖고 그 마을 이름이 시시골이 됐다 카대. 그 도깨비가 난께. 도깨비가 난다 그 말이라. 그래 시시골이라 카대.

그래 우리는 시시골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

"그 왜 그렇느냐?"

쿤께나,

"그게 옛날에 도깨비가 많이 나사서 그래서로 그 이름이 시시골이 됐다고."

이라더라고. 조사자: 아 야시 야시 해서 시시?] 어어 시시골이 됐어. 그래 그런 소리도, 우리 옛날에 누가 그리 하더라고.

[연제구 설화 187]

지렁이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신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과정경로당]

또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자꾸,
"고기가 먹고 싶다."
상께나, 인자 고기가 살 행핀이(형편이) 못 되는 기라. 그래농께 이 집에 메느리 맨날 같이 거시 안 있습니까? 거시 그거를, 지렁이 그거를 줏어가이고, 파몬 어디 나오먼 밭 매다가도 파도 나오먼 줍고 줍고, 줏어갖고 인자 단지다 대고 딱 담아놨어. 담아농께 지 그 지렁이 오래 지내농께 삭아가지고 그래가 그기 인자 액이, 액 그거로 인자 엄마로 고기 묵고 싶다 카몬 떠주는 기라.
그라면 그기 인자 떠준 기 지렁이 맛이 똑 생선같이 맛있더라요. 그래 그거를 먹고 그 할매가 백수를 했다 쿠는 기라. 지렁이 그기 약이 되가가.
[조사자: 토롱탕 가지고.] [청중: 토롱탕.]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옛날에.

[연제구 설화 188]

곶감 먹으려다 호식 당한 아이

신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과정경로당]

호랑이가 그 그 옛날에 꽂, 그 뭣을 무 무울 기 없으니까, 시골에 옛날에 문은 전부다 요렇게 해갖고 그거 창호지를 해가 발랐다 아입니까? 그래 그거를 호랑이가 손을 탁 뜯어뻐리고, 인자 안에 엄마가 장에 가면서 문을 딱 잠가놓고 가논께나, 그걸 그리 쑥 요리 옇은께나(넣으니까), 아가 본께로 호랑이 손이거든. 그래서 무섭아갖고 아 문을 안 열어준께,
"꽂감 주께 문 열어라. 꽂감 주께 문 열어라."
아를 보고 그란께네, 아가 꽂감 얻어물라고 문을 열었다 고마 아가 마 제 자아묵힜다고(잡아먹혔다고).
그에 옛날에 그런 말로 많이 들었지. [조사자: 아따 그런 이야기가.]

"엄마 올 때까정 문 열어주지 마라."
캤는데, 자꾸 그걸 호랑이가 손을 옇어갖고,
"꽂감 주께 문 열어라. 꽂감 주께 문 열어라."
이라인께나, 문을 열어가이고 꽂감 얻어물(얻어먹을) 기라고 문 열어갖고 고마 마 [조사자: 자아묵히뿠네.] 어 자아묵히뿠다 캐.

[연제구 설화 189]

시신을 먹여 부모 병을 낫게 한 효자

신순자(여, 193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과정경로당]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엄마가 대기(매우) 아파갖고 자기 엄마가 죽기가 돼 있는데, 오만 갖(오만 가지) 짓을 해도 안 낫는 거라. 안 낫는데, 이 엄마가 인자 그 메느리에 아들한테고, 스님이 왔어. 와가지고 딱 보더만은,
"나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 시히는 대로 할라요?"
이래 물어보거든.
"아유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
고 이라이께네, 그래 인제,
"오늘 저녁에 열두 시 밤 되거들랑, 밤에 당신 대문 앞에 딱 파모 사람이 죽어서 누가 갖다 묻어놨인께, 다리를 띠가지고 와서, 그래갖고 할매를 꼬아갖고 미이몬(먹이면) 산다."
이라더랍니다. 그래서 인자 그날 저녁 열두 시 되도록 탁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서 대문 앞에 딱 대문 발 나디딘 데 그게 요리 팡께나 사람이 죽은 거, 시체를 묻어놨는 기라.
그래갖 다리를 한 개 뚝 띠가 아서 고아가이고, 그래갖고 할매를 미이놓게네, 엄마가 살았는데, 그라고 난 뒤에 또 인저 그기 신기해서로 또 다 가서 파봉께네 아무것도 없거던. 그래,
"왜 그렇냐?"
했더만,
"거 부처님이 그거를 해가지고."
인자 그 공부 마이 하는 사람은 그거 뭐 한다 카노?
"그거를 해가지고 그 그짓말로 그리 시체를 묻은 것 겉이 시험을 해본다고 그래 놨다."
카더라. [조사자: 하늘이 인자 그 그 효자를 알고.] 응. 그러니까 얼마만큼 효자는냐 그거 시험한다고.

그래갖고 딱 묻었놨다가 파가가 가서 그래갖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파봉게네 시체가 없는 기라. 고거 파가지고 인자 좋은 데 묻어줄라고. 그래 파봉께로 없어서로 그래 가만히 알고본게네, 그 스님이 도술로 [조사자: 도술로 어 어.] 도술로 가이고 그 앞에다 대고 딱 시체로 묻어놓은 것겉이 그래 하고.

그래 인자 엄마가 낫고 난 뒤에 파봉께나 없어서로 그게 자기들이 자식이 가만히 느끼본게, '아! 스님의 도술이구나.' 그걸 느낐다고.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

[연제구 설화 190]

불심이 없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개구리

문경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곡부녀경로당]

또 뭐 어데 절에는 개구리가 이래 불심이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개구리가 안 나오고, 또 뭐 이리 그냥 평민이 가서 보면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믿어라'고 말하고, 뭐 캐샀는 절. [조사자: 어데 개구리가?] 저 양산 가면 왜 양산 통도사, 말사일 기다, 쭉 양산서 저 뭐고 그 저 서운암 쪽으로 쭉 들어가면 거 짜그만한 절이 있는데, 거 가니까 요리 새미가(샘이) 있더라고.

새미가 있는데, 그 새미에 개구리가, 그거는 우리가 절에 가도 설명해주더라고,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아침 되면 때 되면 나오는데, 불심이 강한 사람은 그기 안 보이고, 불심이 없고 그냥 뭐 이런 사람들, 우리 평민이 가서 보면 나와서,

"저 부처님한테 기도하라."

고, 그래 나와서 뭐 이리 입으로 이래 꼼작꼼작 한다고 그런 유래가 있대요.

거 와 서운암 가는 길 안 있습니까? 통도사에서. 서운암 겆도(그것도) 내나 우리 승파스님이 옛날에 양산통도사 주지하시다가 주지 인자 임기가 끝나서 암자를 만들어 간 기 그 서운암이거든요. 그 서운암 절 가는 길에 보면은 이리 가다보면, 찻길로 가다보면 왼쪽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 그게 그기 무슨 절 이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는 매냥 뭐 그런 거 좀 알아볼라고, 좀 다 우리도 그런 거 알아볼려고 한달에 한 문씩(한 번씩) 우리도 새 절을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조사자: 불심이 많은 사람은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예. 말이 그렇대예. 불심이 없으면, 그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아 '요렇게 요래 해서 부처님을 믿으면 거 좋은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 아니라 입, 입을 뭐 뭐뭐 움직인다고 그래 하대예. [조사자: 아, 개구리가 입을 움직인다고.] 그런 말이 있대예. 마 그런 얘기는 좀 들어

봤습니다. [웃음]

[연제구 설화 19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문경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곡부녀경로당]

인자 이래 부자가 한 집에 이리 살았는데, 인자 아버지를, 아버지를, 아버지를 인자 지게다 실고 가서 고래장을 하고, 그래 아버지가 지게를 버릴랑가,

"아버지 이걸 집에 가져 가자."

그라더라대. 아들이. 그래,

"이걸 왜 가져 가노? 이거는 인자 엄, 할머니 버렸으니까 이거는 이것도 필요 없고, 마 나(놓아), 버리고 가자."

이러니,

"집에 갖다놔야 난주게(나중에) 내가 늙으몬, 아버지가 늙으몬, 나도 지게로 갖다가 아버지를 묻지."

그런 이야기는 있대요. [웃음] [조사자: 맞아.]

그래가 '아들 듣는 데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교육을 잘 시키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 설화 192]

달래강 유래

문경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곡부녀경로당]

그라고 내가 한 가지 내가 더 이야기해주까예.

달래강에 대해서 [조사자: 아, 달래강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 해드릴까예. 그래 그 달래강이, 달래강에 대한 그런 유랜데 [조사자: 아,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예.

오누이가 한 집에 살았는데, 오누이가 어느 날 인자 그 강을 건너갈라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대. 그래갖고 인자 오누이가 이래 둘이서 강을 건너가는데, 누나가 옷이 이리 싸아 이 비에 맞아 젖으니까, 이 모든 기 들날(드러날) 거 아닙니까? 주요 부분도 들나고 이리 들나니까, [갑자기 조사보조 학생들을 보고] 이런 아가씨들도 이런 얘기 들어도 되는가.

그래가지고 동생이 자꾸 그거를 쳐다보니까 그 밑 주요 부분에서 자꾸 이래 그거를 하는 거라. 발동을 하는 거라. 그래서 건너다가 그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싹이 트면. 오누이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머 그 동생이 그 길로 가가지고, 그래 쪼사가지고 그래 죽었, 자기 거를 쪼사가지고 죽었는데, 그 노래가 내나 달래강이라. 그래,

"말이나 한 번 해보지." [조사자: 달래나 보지.]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이나 함 해봤으만."

둘이서 귀향을 가든지, 우리가 생각은, 우리 생각인데.

"그래 말이라도 하먼 해보지."

그래서 뭐 물새도 울고 가고, 바람도 울고 가는 곳이 달래강이다. 와서 거 인자 그 사연을, 너무 그 짙은 사연이기 때문에 물새도 울고 가고, 바람도 거기서 울고 간다고 그런 유래가 있더라구요.

[연제구 설화 193]

밤에 세수를 못하게 하는 이유

문경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곡부녀경로당]

엄마들이 밤에 세수를 몬 하거로 하더라고. 우리가 학교를 초등학교는 한 오, 한 오리, 한 십리는 안 되도 한 칠, 오리 정도 쪼금 넘고 한데 다니고, 중학교는 이십리 길을 다녔기 때문에, 학교 갔다 씻글라고, 어떤 데는 늦에 오면 어둑어둑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세수를 하면 엄마들이 뭐라 하더라고. 늙은 신랑 만난다고. 해가 져서 세수를 하면은 곰보신랑 만난다고. 그래 세수를 못하게 하더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연제구 설화 194]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

문경자(여, 1947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곡부녀경로당]

그 또 애기를 안고 젖을 멕이면은, 엄마 요 애기한테서, 뭐가 이래 놀러 다니다가 엄마 품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그게 애기한테로 가더라대. 그만큼 엄마의 품이 그 애기한테로 간다.

엄마의 그 좋은 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기운이랄까, 그런 게 나왔다가 애기한테로 간다고. 그래서 엄마가 애기를 키아야(키워야) 애기가 잘 큰다라고 그런 또 뭐 속담이.

[연제구 설화 195]

떡을 주고 호식 면한 할머니

정정숙(여, 1931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곡부녀경로당]

옛날에 할매가 딸네 집서 떡 해갖고 메느리집 간다고 밤에 떡 갖고 간다고 호랭이가 나와서,

"떡 하나 주만 안 잡아먹지."

한께, 떡 한나 내 땡개 주이까 훌떡 받아먹고,

"한 개 더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갖고, 가다가다 본께, 턱 집에 가서 보니 떡이 몇 개 안 남았더래. [조사자: 아, 호랑이한테 다 주뿌고.] 야. 잡아무근다고(잡아먹는다고) 항게. [조사자: 근데 그래서 안 잡아믹힜네. 떡 주고 난 다음에.) 안 잡어묵었지.

[연제구 설화 196]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조재남(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고래장이 옛날에 있었다 아이가. 있는 거는 인자 고래장을, 안자 엄마를 고래장을 시킬라니

까, 아들이 가슴이 아프니까, 산에다가 굴에다가 옇어 놓고 밥을 인자 엄마를 자꾸 갖다 죘어.

그런데 인자 나랏님이 나무 통박을 크게 짤라갖고,

"이거 아래 우로 맞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를 맞차 오너라."

이래 영이 내맀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아들이 가서,

"엄니 이거 나무 통박을 그로 아래 우로 맞추라 쿠는디, 똑 같은디 어떤 기 우에고 민고 압니까?"

그란께,

"얘야, 물에다가 띄워라. 띄워갖고 까라앉는 거이 머리다."

그러더란다. 그래 인자 이 아들이 가서 임금한테 보고를 했는 기라. 하니까,

"니 인자 어찌 알았노?"

그란께,

"실은 우리 엄마를 고래장을 몬 시키고 굴에다 옇어 놓고 밥을 죘는데, 엄마한테 물으니까 엄마가 그러라 하더라."

그래 고래장이 없어졌답니다. [조사자: 그런게 나 많다고 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현명하네.] 하모. 경험이 인자 있는 사램이 살아야 된다고 그 질로 고래장이 없어졌대요.

[연제구 설화 197]

닭으로 착각해서 손주를 삶은 치매 노인

조재남(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옛날에 할매 놔 놓고, 전부 다 안자 들에 일하러 가야 안 되나. [조사자: 그렇지.] 그래갖고 인자 일 갔다 오니까,

"얘들아, 내 솥에 닭 삶아 놨다. 묵어라."

그러더란다. 열어본께, 애기를 갖다 삶아 놨는 기라. 그 할매가. 그래 얼마나 기절 했겄노. 치매가 인자 그마이(그만큼) 무섭다는 기고.

[연제구 설화 19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조재남(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옛날에 하도 가난하니까 인자 엄마를 인자, 요새는 뭐 부모를 갖다가 개똥 취급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부모가 그 한다 아입니까.

그래 인자 속 정이 났어. 고기를 몬 먹어서 이래 아프니까 이제 꼬라(도랑에. 개울에) 가서 지렁이를 잡아갖고 그걸 삶아갖고 인자 줬는데, 못 묵으몬 마 영양 부족, 눈이 간다 아입니까. 그랬더만 눈을 뜨더랍니다. 지렁이를 삶아 믹이서.

그래 인자 그기 있다. 우리 아들도 젖이 일찍 떨어져갖고 아들이 마 젖을 못 무우갖고 이래 꼬대기 같이 말라갖고 있을 때는 쥐하고 지렁이를 인자 잡아갖고 단지에다 옇어갖고 보글보글 해가 그 물을 이래 믹이고.

[연제구 설화 199]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조재남(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그래 인자 그 하먼 옛날에는 인자 밤에 아가, 인자 그 호랭이가 인자 집이 인자 자아묵으러(잡아먹으려) 들어 왔는데, 인자 아가 하도 울어 싼께로, 인자 호랭이가 가마- 들으니까, 아가 울어 싼께로 인자 저거 엄마가,

"야야, 우지 마라. 꽂감 주꺼마."

그런께, 아가 떡걱 그칬는 기라. 그런께 호랑이가, '나보다 더 무서운 꽂감이 있는 갑다.' 싶어 도망을 가뿠어.

[조사자: 그러이까 호랑이, 호랭이 온다 해도 울고. 꽂감 주께 하이까 뚝 그치이까네.] 아, 그런께, 옛날 아들 울면,

"순경 온대이. 순경 잡으러 온다."

마 그랬다 아이가. 우리 집 아들이 요새. [청중: 왜정 때.] 순경이 온다 그카고. 순사가 칼을 차고 뭐 그런 거 안 있나.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그러기도 하고.

[연제구 설화 200]

벙어리와 봉사 부부의 사랑 나누기

조재남(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화투 치러 댕깄거든. 그런데 저거 저 국제신문 논설 위원하던 아저씨가 참 그런 소리 점잖하이 잘해.

그러는데, 또 나 이야기하 꺼 까묵어버맀다. [조사자: 뭐 벙어리하고 봉사.] 그런데 봉사가 인자 이래 그거 해갖고 마누래를 이래,

"저 건네 집에 불이 났다네. 저 동네에."

그러니까,

"뭔 불이 나?"

만짐시로(만지면서),

"뭐 어떤 동네에 불이 났다고?" [웃음]

그런께, 그래 한께, 또,

"아이, 그 저 동네에 불이 나놘께 오야(어서) 오라고. 오야 오라고." [웃음]

[조사자: 얼른?] 올라오라고. 직접 쥐면서 불났다고.

"가마 있으라."

쿵께,

"올라오라고. 오야 오라고." [웃음]

그러다 하고 그래 쌌대. [조사자: 불이 타서 뭐 저저저 다 "집 어째 됐노?" 하이케네, 기둥만 남았다고 인자.] [웃음] [조사자: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제 그지예?] 있어요.

[연제구 설화 201]

황당한 이야기

조재남(여, 1935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또 옛날에 인자 저 남해에서 미역장수가 많이 오더이야. 거는 많이 없응께. 그래 하면 우리 집이가 안자 그런 사람을 마이 재와(재워) 줐어. [청중: 명태장사야. 명태장사. (웃음)] 문어하고 갖고 오먼 나는 문어까락 그기 마 그기 묵고 싶어서 그리 항께, 자몬 문어까락 그거

는 안 줘. 그 장사가 피곤해. 다 사야 되지.

그래 그라고 만날 이야기하라고,

“할매 이야기 좀 해보소.”

그래.

“이 얘기가 저 얘기를 업고 배릉박(벽) 삼십 리로 올라가더란다.” [일동 웃음]

그런 이야걸 해주고 그러디라. [조사자: 어- 이야기를 하라 카이까네, 이야기가.]

내가 그런 거 묵고 싶든가 우리 엄마가 날 남해로 시집가라 안 하나.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202]

시숙을 신랑으로 착각했다 자살한 부인

홍종숙(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시숙이라서 날이 새몬 우야꼬(어떻게 할까) 해서 자살했잖아요.

그 여자가. [웃음] [조사자: 그래요? 그 어째 무슨?]

한 번은 또 동네 농사 다 지만 사랑에 만날 논다. 노름하고 화투 치고 이래 노는데, 술을 얼매나 묵고 실컷 묵고 와가지고 [조사자: 술을 실컷 묵고.] 실컷 묵고 신랑을 바아(방에) 누(누워) 자는데, 화장실을 간다고 이래 앉았으이께네, 시숙이 밖에 갔다 실컷 놀다 오디만은 화장실에, 문이 있나 뭐 그제? [조사자: 응, 옛날에는.] 엉덩이 이래 들치가지고 쉬~ 카면은, 이 양반 아이몬 흉내를 낼긴데, [웃으며] 흉내를 이래가 내는 기라. 오줌을 시키. 신랑인 줄 알고 지 나온대로 어데.

“이 지랄한다.” [웃음]

하고 이래 보니께네, 시숙이 지수한테다 오줌을 놨네. 그것도 자살했다이. 요새 세월 겉지 않고 죽을 지경이다 미안해서. [청중: 부끄랍아 죽어뿌맀다.] 응. 죽어뿐다 카이. [청중: 물에 빠져 죽어뿌고 그란다.] 그런 것도 죽었지예.

[연제구 설화 203]

단칸방에서 몰래 나누는 사랑

홍종숙(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단칸방에 남매를 놔 놓고 잘라 카이, 방 하나고. 옛날 방 하나이 더 때나.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자는데 영감이 할마이 생각이 나 죽겠는 기라. 그래 큰기 딸이라.

"방이 이래 춥다. 저 가서 불 짚단 한 단만 여코, 군불 좀 옇고 온나."

카이, 그래 부시시 일나가이 갔거든. 가가지고 성냥 찾아가 불을 이렇게, 작은 기, 작은 건 여 자잖아. 얼른 큰건 알고 얜 모르지 싶어가지고 얼른 볼일을 봤다 둘이가. 이불 밑에 포개 갖고, 엄마 우에 아버지가 덜렁 올라가이케네, 이 아가 뭐카는고 하몬,

"누나야! 고만 불 때라. 저거 아버지가 방이 뜨거워 엄마 우에 올라간다."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204]

용한 점쟁이

홍종숙(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베 이래 짜는 것만 해도, 참 그 요새로 말하면, 베 또 힘드는 일이라 그거. [조사자: 베 짜는 게.] 하루 종일 하만. 그런데 하납(한 합. 한 뭉치) 남았어 하납. 하납이 요만한 거 왜 [청중: 응 요만한 거.] 하나 짜고 나면 디리(달아서) 이래 하고 하는데. '하이고 몸서리, 요거 오늘은 다 짜겠지' 싶어 점 하러 갔는 기라. [조사자: 어 점을 하러.] 점 하러 딱 가이,

"하이고 우리 베틀에 남았는 기 얼마맨큼 나겠노?"

하이,

"하이고 한 삼개월 걸리겠네요."

카거든.

"이기 지랄, 점쟁이 저거 미친년이다. 저거. 하루도 안 걸릴 거를, 삼십 분도 안 걸릴 거를 석 달 간단다. 저거 보래."

카매, 그래 오다가,

"저거 아무거도 아니다."

카매, 니러오다가 또랑에(도랑에) 오줌을 쌌어. 쌌디마는, 뱀한테, 뱀한테 물리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데를 물리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물리가지고 얘기도 몬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그때는 안 가고 삼개월 걸리는 기라.

"아이고, 점쟁이 그거 되기 맞히네." [일동 웃음]

거 물리가지고 삼개월만에 나았거든. [조사자: 삼개월만에 나았거든.] [청중: 독이 올랐겄다.] 그래 병원에 도착하고 이거 할 때 몰랄(모를) 때라. 그래 그래갖고 삼개월 걸맀다 카이. [조사자: 독 빠지고 안자 베를 마지막 미이카네.] 그거는 그기고.[70]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205]

돈 욕심에 방귀 뀐 것을 고백한 며느리

홍종숙(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시집을 갔는데, 처먼(처음) 가면은 시아버지 절 하잖아. 절을 하는데 모르고 빵~ 했어. 빵구를 뿡- 뀌이 얼마나 부끄럽노. 그래 하인이 그자,

"아이고, 어르신 제가 낐습니다."

이 카거든. 하인이 그 카이께, 그 시아바이가 무안하다고,

"아 그래? 그럼 니는 상을 주께."

카먼, 열 한 푼 줬어. 고맙다 캄시(하면서). [웃으며] 아이고 지랄. 요고 상을 주이께네, 아깝거든.

"하이고 아버님, 지가 낐는대요." [일동 웃음]

그래 한단다. [청중: 그래 폭로가 나뿠네.] 그래 폭로가 나뿠다 하이께네. [조사자: 그 돈 욕심에 그냥.] 돈을 주이께네 그래.

"아나, 니 용돈 한 푼 주께."

카매 하인이라고 주는데,

"하이고 그 제가 낐다고." [일동 웃음]

[청중: 감싸줬다고.] 밝히는 기라. 지 돈 지가 받을라고 저도. [청중: 그런데 시아바지는 하인이 그거 인자 감싸줬다고, 고맙다고 준 거 아이가.] 감싸줄라고 그랬거던. [조사자: 그런 빵구 이야기가 많아.] 그래 희생정신이 있는디 요새는 뭐.

[연제구 설화 206]

무조건 존댓말을 쓰는 며느리

70) 제보자가 이어서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이야기를 했다.

홍종숙(여, 1936년생) 구술
2018년 2월 2일 채록
[연산9동 토현주공경로당]

딸을 키우는 어마이가 교육을 시기야(시켜야) 되거든. 시집 가가 요서 아무따나 컸는데, 혹시나 쫓기오까 봐.

"가서 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어른, 아 말도 다르고 다 다르다. 항상 존경하고 이래야지."

그래 시집을 떡 갔디, 시아바이, [웃으며] 시아바이가 지사 한다고 나물을 한 짐 지고 마당에 턱 집어놓으께네, 이런 일도 막 붙었거든. [조사자: 뭣이 붙었다고?] 검부래기(검부러기), 문지(먼지). 검부래기. 산에 문지가 붙으이,

"아이고! 아버님 대갈림에 거불님이 [웃음] 붙었습니다." [웃음]

그 카고,

"아버님 대갈림에 검불님이." [웃음]

[조사자: 시집가면 높임말 쓰라고.] 높임말 씨라고 하도 부탁을 하인께 잘 한다고 그러이께. 방에서 시어마이가 문을 열고,

"야야, 뭐라 캤노?"

카이께네,

"[웃으며] 송치씨가 거치씨를 뿌섰으니. 송아지가 이래 뿌수니, 개씨가 웃으시고 짖있습니다."

[조사자: 지씨가?] 개씨가 웃으시고 짖있습니다. [조사자: 아, 아아. 그래 말을 하더라고.] 개가 웃었다 소리. 개가 웃고 짖는다 이 말이지. 개가 웃고 짖었다 이 말이지.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 박경수·황경숙의 현장조사 설화

1. 부산진구 설화

[부산진구 설화 1]

풍수 아버지 덕분에 부자 된 아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KB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김병호, 남, 91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설화를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해 보았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풍수 일을 하는 아버지와 머슴살이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남들은 부자로 만들어 주면서, 자식은 가난하게 두는 것이 불만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 아들에게 유언으로 수수께끼를 내었다. 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버지의 묏자리를 찾아 삼 년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여자의 소를 구해 주었다. 아들은 그 자리가 아버지가 말한 자리임을 알고 묘를 썼다. 그 후 아들은 자식을 낳고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옛날에 다 몬 살았거든. 그런데, 한 영감이 풍수라. 넘의 집에 대사 있으면 날 받아 주고, 또 좋은 묫자리 잡아주고.

이래 하는데, 딴 사람 다 좋게 해주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 딱 하나 남아 있는데, 가만히야 처머이(처음엔) 작을 때는 괜찮은데, 열 대여섯 살 여, 수무 남(넘는) 살 되니까네, 만날 넘의 집에 가서 마 머슴살이만 이래 하고 있으이, 저거 아부지는 딴 사람 다 잘 사도록 맹글아 주는데, 와 나는 이리 못하노 하고, 한날 비가 오는데, 저거 아부지잔테 가서 물었어. 그러이 저거 아부지가 하는 말이,

"니가 때가 있을 끼다. 내가 죽을 때 니가 둘온나라(들어 오너라)."

그래 기다리다 있으이 아버지가 나 보자 캐서 가이,

"그래 내가 죽거든 삼두, 머리가 세낱이고 육목, 눈이 여섯낱이고, 다리가 여덟낱인 그 설을 찾아가 써라."

이랬거든. 삼두육목팔족설에.

그리 애가,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몬 채봉을 하는 기라. 볕에다가 삶자리 해놓고 물로 빠자 가지고 자리 좋은 데 있으몬 잡아가 그래 씨는 기라.

그래 삼 년 동안을 돌아가 댕기면서 해도 그런 데가 없는 기라. 그래서 신체를 매고, 저게 하루는 해넘산 매로 저 몬대이(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 내라 놓고 마 통곡해 운다.

우연히 인자 어떤 사람이 뒤에 와가 등더리를 탁탁 투드리거든.

"그래 당신 와 이리 우느냐꼬?"

그래 사실을 얘기하이까네,

"당신보다 내가 급한 기(것이) 있으까 날로 좀 도와주라."

이라거든. 그래 인자 보이 여자라, 여자. 부인이 와가지고 그래 하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자 말은 남자가 잘 듣거든.

그래 인자 어째 됐노 하이카네, 여자가 촌 여자가 들에 나오다가 옛날에는 도랑가에 외나무 다리가 많는 기라, 외나무 다리. 지는 건닐 수가 있지만, 소를 끌고 저, 저 외나무 다리 오다가 배를 탁 걸치가 마 못 나오는거든. 그래서 인자,

"이거 좀 도와줄래."

해서, 그래 근근히 그 여자하고 같이 인자 소를 구해가지고 아까 오둠자리 산 몬대이 거 떡 왔단 말이야. 와이까네,

"나는 당신 은혜를 입었다. 당신 뭐 때문에 우느냐?"

카이께네, 사실 얘기해서 그이까네,

"아부지가 돌아가시서 삼 년 동안은 찾아댕기는데 설이 없다."

까이께, 여자가 가마히 생각하거던.

"그 자리 씨라. 요 자리."

그러카네 삼두를 마, 머리가 세낱이고, 눈이 여섯, 소도 눈이 두낱이고 사람도 둘이카네 여섯낱이거던. 사람은 발이 두낱이고, 소는 발이 네낱이거든.

삼두육목팔족설에, 거서 써가지고 그래 자석(자식) 잘 놓고 부자가 되여 사더라 이래.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52~254쪽에 「아버지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일부 각색되어 전재됨.

[부산진구 설화 2]

하마정과 정묘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KB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김병호, 남, 91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제보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기억력이 좋아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동래부사가 오면 하마정에서 말을 갈아 타고 정묘사에 도착하면 말에서 내려서 들어갔다.

정묘절 이거는 옛날에 부사, 동래부사가 이건희 부사다. 이건희 부사가 와가지고, 하마정이라 카는 저게는 뭣인고 하이카네, 지금 옛날에 동래부사가 그리 오가 하단참사가나 부산참사가 내리오면 말을 내리가 거서 교환해 타고, 그라고 그것도 하고, 정묘절이 있어서 정묘절꺼지 그리 돌아갔는데.

옛날에는 모노은고개 놔놓고 바로 저 삐딱하게 범정대를 돌아갔는데, 거 거 내리가 언제든지 정묘절 앞에 말을 타고 내리가 갔는 기라.

저 지내가서 인자 그라는데, 그래 인자 그 정묘절은 거기고.

[부산진구 설화 3]

초읍의 우보골과 모노은골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KBH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김병호, 남, 9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동네에 전해오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구술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제보자가 흔쾌히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초읍의 우보골은 소가 많이 먹어 배가 불러서 앉아 있는 모습의 골짜기이고, 모노은골은 일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요게 인자, 초읍에 여게는 제일 서당골이라 카는 거는 요 요게 삼광사 절, 저게 서당골이고, 또 저게, '우보골'은 이, 이 안이 전부 우보골이라. 배가, 소가 마이 묵고 배를 떡 내가이래, 배 부르게 앉아가 있는데 그게 우보골이고.

그래 초읍 여는 부자가 마이 살고. 원당골은 저 저게 초읍에 저 그게 인자 옛날에 생인골이고 생이인데 골이고.

그래 이 모노은골 저거는 못 넘어 고개라 하는 거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일본 가가지고 항복 받다가 임피 삼백 장 벳겨 올라 카이, 구형 없이 벳길려니 벳길 수가 없거든. 일 년에 삼백 명썩 한국에 여어 가가 벳겨가 사람을 내보내. 그 사람 삼백 명, 요즘 부산 초량에다가 가 있다, 초량.

고관 거 거게 거 일 년에 삼백 명이 자꾸 십 년 되모 삼천 명이 되고, 마이 해카네 사람이

마이 되카네, 자꾸 이제 동네 고을로 올러 왔어. 그래 인자, 그 선을 끌어가 애들 잡아논 거 몬 넘어 오라고. 그래 모노은고개, 거 도둑놈이 아이고.

[부산진구 설화 4]

횃불을 들고 회의를 한 해받이고개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KBH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김병호, 남, 91세
구연상황 : 제보자에게 마을의 유래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해받이고개는 부사들이 횃불을 들고 회의를 한 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게는 횃불, 부사들이나 참사들이나 저 밤에 회의하러 들오면, 거서 횃불로 이래 들고 거서 횃불 드는 데 자리라. 횃불.

오새 겉으몬 전등 캐가 밝히가, 동네 안에는 고을이다, 고을로 드가는 길이다.

[부산진구 설화 5]

두루마기를 도깨비로 본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KBH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김병호, 남, 9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흔쾌히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술에 취한 영감이 밤늦게 까지 오지 않자 할멈이 찾아 갔다. 영감이 도깨비가 자신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해서 “이놈아 놔라”고 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알고 보니 두루마기가 막대기에 걸려 있었다.

옛날에 거제리 그 안동네, 영감이 술을 어찌 좋아하는지 밤에 동네에서 술을 탁 묵고, 그래 인자 만날 늦게 오이 자기 할마이가 내보다 저 보이, 들에서 자꾸,

"이놈아 놔라. 이놈아 놔라."

카이, 저거 할마이는 허치이가 그러는 줄 알고.

"놔라."

잩에(곁에) 가보이 마, 말대기 오다가 두루막 고랑이 이놈이 풀어가 안 늘러지이카네, 그놈을 잡고,

"이놈아 놔라 놔라."

한 멫 시간 그래가 할매가 덕고(데리고) 갔다.

그런 유래가 거제리에 있대.

[부산진구 설화 6]

비를 맞지 않는 스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KBH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김병호, 남, 91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동래부사가 산에 올라가 무제를 지냈다. 그러자 어느 날 귀한 비가 내렸다. 사또는 비를 맞는데 중은 비를 맞지 않았다. 화가 난 사또가 중을 벌하려고 하자, 중은 모든 생물이 귀한 비를 기다리는데, 천한 신분인 자신은 비를 맞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였다.

칠년 대한에 말이야 말이야, 비가 안 오이, 동래부사가 저 상삼산에 가서 저 무제를 지내요, 무제를.

"비야, 비야."

그 뭐 이래 지내고 오니까, 내려오이, 속내기가(소나기가) 확 오거든.

오는데, 그 도복을 전부 다 맞고 걸어온다. 걸어오는데, 땡땡이 중이 버랑을 탁 잡했고(잡아서) 탁 다말아(달려서) 가거든. 그래 '사또도 비를 맞는데 저는 와 비를 안 맞고 조래 하겄노?' 잡아가 엎쳐가,

"이놈. 너 와 이런 귀한 비가 나오는데 안 맞고 니는 우째 들어왔노?"

"아이고 원님요. 이런 귀한 비를 만물 우중에 생물이 기다리는데 내가 맞아가 되겠냐고. 천인에 몸은 안 맞아서 조리 내가 피해간다고."

옛날에도 말이라도 한 마디 잘 하몬, 고개 숙이고 이라몬, 죄를 지아도 다 사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7]

당감동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PYR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3동 박용래씨 댁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용래, 남,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당감동의 유래에 대해 묻자 제보자는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당감이라는 지명은 옛날 왜구가 와서 '당리'와 '감촌'이라고 나뉜 동네를 앞 글자만 따서 '당감'이라고 고쳤다. 그래서 현재 '당감동'으로 불리고 있다.

이 당감동이 어째서 당감동이 됐노 카는 이야기를 말이지. 그 저 옛날에 어, 당리 우에 저 지금 당감4동인 기라. 그거를 당리라 카고, 요 밑 동네를 감촌이라 카고 말이지.

당리에는 그 당산이 하나 있었거든. 그거 뭐 엄애장군 무슨 당산인가 거 하나 있었는데, 그래가 당리라 카고 이랬는데, 그 외놈이 여 오고 나서 당리하고 감촌하고 마 이래가, 웃 구자를 따가지고 당감동이다고 그래 했다 카는 그 말만 들었는데.

(조사자 : 요 '감'자는 감리에 '감'자는 무슨 뜻인가예? 당리야 당산이 있어서 당리고.) 당산이 있어가지고 당리라 캤고. (조사자 : 감리는?) 밑에는 감촌은 어째서 감촌이라 캤노? '달 감'자 내나(결국) 지금 당감동하는 그 '감'자거든.

그거 감, 감촌이라 캤는데, 그거 두나 보태가지고 그래 당감동이다. 그래,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곤칬다.

[부산진구 설화 8]

조개껍질이 붙은 바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PYR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3동 박용래씨 댁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용래, 남,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전설같은 역사라면서, 약간 부끄러운 듯 멋쩍게 웃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없는 듯 말끝을 흐리면서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 천지개벽을 해서 바다가 산으로 바뀌었다. 선암사 뒤 바위에 지금도 조개껍질이 붙어 있다.

선암사 그 절 뒤에 가몬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음, 바다에서 잡는 조개 그 껍질이 말이지 그 붙어가 있는 바위가 있다 말이지.

그러몬, 거기 뭐 그때 이야기로는 천지개벽을 해가 뭐, 그게 옛날에 바다랐는데 저기 말이지, 뒤집어지는 바람에 저기 뭐 산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거 아이가.

바위에 보몬 조개껍질이 붙어가 있거든, 이런 게.

[부산진구 설화 9]

새마이골짜기와 애기성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PYR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3동 박용래씨 댁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박용래, 남,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마을 주변의 지명에 대한 유래를 묻자 제보자는 두 개의 골짜기 이름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며, 짤막하게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구연해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새마이 골짜기는 쇠가 많이 나와서 붙여진 지명이고, 애기성은 애장터가 있던 자리에서 어떤 장군이 처형을 당한 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인자 요 우에 가몬, (조사자 : 무슨 골이라고?) 새마이 골짜기라 카거든.

새마이라 카는 거는 인자 옛날에 새가(쇠가) 거서 많이 나옸논(나왔는) 모양이야. 그 뭐 들은 이야기로는. 새마이 골짜기 있고.

또 이쪽에 가몬 뭐 그릉에(개울에) 애기성 카는 기 있는데, (조사자 : 아, 고게 아장터같은.) 그릉이 있는데, 거 그릉에 뭐 그 뭐 장군이 뭐, 거서 뭐, 뭐. 근데 그 뭐. 뭐, 뭐, 뭐 처형을 당한 그런 이야기 같은 기 있더라고. (조사자 : 그거 이름이 뭐라고요 어르신?) 근데 무슨 장군인가 모르겠고. (조사자 : 아기장군예?) 예? (조사자 : 아기장군인가봐예.) 거 잘 모르겠네. 무슨 장군인고.

그때에 그래 핸 자리가 거기 애기성이다, 애기성 카는. 거 저 그릉에 이래 그거 우물 이래고 말, 아이 모 아들 목도(멱도) 깜고(감고) 말이지 이라는, 요래요래 있는 기 있었는데.

고 애기성 카는 기 거 있고, 그거 이외에는 뭐 잘 모르겠네 인자.

[부산진구 설화 10]

호식 팔자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S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서정순,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호실팔자 이야기가 있다며 구연을 시작했다. 아직 녹음기를 켜지 않은 상태여서 처음부터 다시 구연을 부탁하여 이야기를 채록하게 되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호식팔자인 사람은 산 속을 지날 때면 산신령이 길을 막고 선다. 그때 사람들은 옷을 벗어 던지게 되는데, 호실팔자인 사람의 옷은 호랑이가 깔고 앉는다. 그때 호식팔자인 사람을 호랑이굴에 넣어주어야 길을 갈 수가 있다.

옛날에는 문디 촌이 없어논께, 문디가 보통 아를 잡아무. 잡아무야 지 병을 곤치거든.

그래가이고 호성에 갈 팔자는 산에 어데 먼 길을 가마, 산신령이 와서 딱 질을 막아.

막으마, 딴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 다 떤지도 호성 안 가는 사람은 옷을 뒤로 물어 떤지고, 호성에 갈 팔자는 호랭이가 딱 깔고 앉아.

그러면 그 사람을 주어 넣어야 딴 사람이 가는 거야, 옛날에는.

[부산진구 설화 11]

바다의 제물로 바치는 고기 먹은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SJ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서정순, 여,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끝낸 후 바로 이어서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일본을 가려면 먼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데, 어느 날 큰 고래가 나타나서 배를 못 가게 길을 막았다. 그때 선장이 제비고기와 고래고기를 먹은 사람이 있는지 묻자 모두 발뺌을 하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자 선장이 옷을 모두 벗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 모두 다 옷을 던졌는데 고기를 먹은 사람의 옷만 고래가 물고 놓지 않았다. 그 고기 먹은 사람을 바다에 제물로 바쳐야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옛날에는 제비고기겉은 거, 고양이(고양이) 고기겉은 거 마 무모 연락선을 못 타.

일본 가는 연락선을 탈라 카몬 바다 거서 큰 마, 고래가 나와가이고, 구리가(구렁이가) 나와가이고 산신령에, 배를 탁 가로 막아.

그라마 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선장이,

"그래 여 누가 우리 저 저 제비고기, 고양이 고기 먹은 사람 나온나."

캐도 아무도 안 나오거든.

그도 인제 옷을 벗어가 바다에 다 떤지는 기라. 떤지면 옷이 다 뜨는데, 그거 문(먹은) 사람 옷을 딱 자기가 입에 물고 안 놓는 기라. 그 사람을 집어 떤지야 일본가는 연락선이 가는 거야. 안 그러면 못 가.

[부산진구 설화 12]

사람을 홀리는 도깨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SJ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서정순, 여,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한 제보자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아낙네들이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빗자루가 그 기를 흡수해서 밤에 도깨비가 되어 나타났다. 그 도깨비는 기가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물에 가면 옷을 내리라 하고, 밭에 가면 옷을 올리라면서 사람들을 희롱했다.

도깨비 그기, 술이 첸 사람을 깔장밭에 가만 물이라 카며 옷을 걷어라 카고, 또 인제 물에 가만 까시라 카민서 옷을 또 니루라 카고.

그래 밤새도록 술이 취해가이고, 그카고 댕기서 인제 첫바퀴 턱턱 울만 도깨비는 가고 없고. 그래 자기는 집으로 히맨서(헤매면서) 오마, 술이 취해가이고 두루매기 이런 기 마 젖었다가 깔치(긁혀서) 뜯기가 맹지(명주) 두루매기가 마 쪼가리가 다 나가고, 까시밭에 얽히가이고.

우리 사촌 시아주바이가 술이 하나 마이 취해가이고 삼십 리 장을 갔다가 게 혼차 오마, 만날 그런데 날 그까이고.

그기 인자 왜 그러냐 하모, 여자들이 뒤에 날에 디딜방을 찧거든. 디딜방을 찌마 빗자루 그거를 깔고 앉는 기라.

빗자루 그거를 깔고 앉아있으신카 여자들이 몸에 끼 있다 아이가. 그기 인제 빗자루에 묻

어가이고 빗자루가 빨아물래 내 떤지거던. 거기 인제 도깨비라 캐, 옛날 어른들이.

거기 인제 어데 장마장이 져가지에 깔장밭에 떠내리 가가이고 술이 취해가몬 담기가(담력이) 심한 사람은 괜찮은데, 담기가 약한 사람은 토째비잔테 헐키가이고 막 시퍼런 불이 개똥벌개이겉이 얼룩얼룩하고 댕기다 마 끌고 댕기매, 물에는 가마 까시라 카매 옷을 내루라 카고, 깔장밭에 가만 물이라 카매 거도(걷어) 올리라 카고, 밤새도록 그래 긁히 댕기 첫 닭이 울면 도깨비는 어두로 가고 없고, 자기마 그래 집에 오맨 마 밍기 두루매기고 뭐고 마 개꾸녕에(개구멍에) 빠지가 엉망진척이라. 우리 시아주바이 한날도 안나와가주고.

그런데 공동묘지겉은 데 옛날에는 이래 산에 재를 넘으만 서당이 있어, 서당이. 돌무디기 해놘 데. 우리가 시집을 가도 그런데 뭐 소금하고 팥하고 떤지고 이러거던. 그런 데서 그런 기 나와. 나온대요. 우리야 얘기만 들었지만은. 그러카더라고.

옛날에 우리 가매 타고 시집가몬 소금하고 팥하고 뭐 세 봉다리 싸가 어데 가서 가면은,

"한 봉다리 떤지라. 어데 민사람이 돌라 카마, 또 어데 가몬 한 봉다리 떤지라."

그라고 싸주거던.

그래 인제 옛날에 고개겉은 데 넘으만 서당이 있어. 돌무더기 해놘 데. 그런 데겉은 데, 어데 공동묘지같은 데, 그런 데도 도깨비가 나온대. 술 췬 사람을 막 시퍼런 불을 해가이고 밤새도록 끌고 댕기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13]

용두산공원의 거인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SS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손성학, 남, 79세
구연상황 : 경로당 안이 시끄러운 분위기였지만, 제보자는 개의치 않고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녹음기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아는 이야기를 가능한 제공하려고 했다.
줄 거 리 : 용두산공원에 큰 거인이 있었다. 부산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오면 한 상자씩 크게 묶었다. 그런데 바다에서 요물이 나와서 거인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싸움으로 인해 거인이 죽고 말았다.

용두산공원에 거인이, 큰- 거인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 거 거인이 얼매 우에 됐나 겉으만 그 부산 앞바다에 고기를 잡아가 오만, 한 상자썩 묶는 기라, 한 상자썩. 그러이 큰 거인 아이가.

그래, 그래가지고 거 요물이 나오가지고(나와서) 말이야, 그 거인하고 말이지, 갤국 안 좋아

가 말이지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들었는데 고마 잊아뿠다.

용두산공원에 그 만댕이 그래, 거 거게(거기에) 살았단다. 거 이부지에(이웃에) 우리 이래 자갈치시장에서 그 참 고기 한 상자썩 뭐 주고, 먹고 있었는데, 그 참 어떤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무슨 그 앞바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그 사람 그하고 싸워가지고, 갤국 그 사람이, 거인이 죽었어. 죽었단다.

[부산진구 설화 14]

정묘사를 지킨 도깨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SS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손성학, 남,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동래 정씨의 시조에 대해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이야기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직접 봤다는 말까지 곁들여서, 자세히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어떤 정승이 묘터를 정해두고 계란을 세 개 묻어보라고 했다. 정승의 종이 그 묘터를 탐내어 계란 세 개를 삶아서 묻었다. 그러자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터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며 화를 내면서 벼락으로 바위를 깨서 묘터를 지켰다. 그 묘터가 지금의 동래 정씨 시조의 무덤인 정묘사이다.

그이 동래 정씨 저저 시조가 여와 여여 고 뭐꼬? (조사자 : 정묘사.) 정묘사. 정묘사 거 거 묘가 안 있던교?

근데, 그때 당시에, 옛날에, 그 참 그 정승이 그 저 부산에 여 내려왔다 이기라. 내려오니끼네 그 사람, 그 사람이 정, 종이라. 묻히가 있는 사람이. 그 저 시조가 종인데 그 말로 몰고 가다가 이래, 근데 그 정승이 저 계란을 세 개를 주먼서,

"거 갖다 함 묻어보라 이거 갖다."

이리 하는 거야. 거, 지가 정묘를 한 묘에 안 있나. 묻어 보이끼네, 그래 마 요기 마 삶아가 갖다 묻어뿠다 말이야. 이 정승이, 정승이 하도 터가 좋다 싶어서 고걸 마 자기가 할라꼬 마 삶아가지고 딱 갖다 여 묻어뿠는 기라.

그라이 뭐 아무 소리가 없거던. 그래가 그래가지고 인자 그, 그래가 인자 결국 그 사람이 자기 부모가 안 있겠나. 목을 갖다가 그 갖다가 묻어 났는 기라.

묻어나이, 그래 인자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린 따문에, 토째비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여게 이 사람, 이 사람 자리가 아니다."

이기라. 막 화낼라 카거든. 화낼라 카이, 여 마 그래 가만히 막 지키고 있으이키네 그래가 인자 이제 화낼라 카이 그래 거 저 저 그때 당시에 그래가 인자, '첫 바우만 없으만 거 안 파내도 된다' 이기라. 근데 그라이끼네 마 각중에(갑자기) 고, 마, 마 마, 베락을 때리가 마, 바우를 탁 깨뿠어.

거 지금 그때 내, 내가 거 봤어. 직접, 직접 거 가보이 정묘사 가보이. 바위가, 바위가 거 바우가 깨져가 말이야 내리가 와 있는 기라. 그래갖고 나무라 카는 거는 전부 다 그 묘를 보고 다 이래 서가 있더만은. 굉장히 그 좋은 데라.

그런 따문에 천신만신 금티 토째비들이 다 나오가지고 그런 기라.

[부산진구 설화 15]

은혜 갚은 까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SKO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심경옥, 여, 81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더 이야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자 제보자는 생각해 둔 이야기가 있었던 듯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길 가던 사람이 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고 돌을 던져 구렁이를 쫓고 까치 새끼를 살려 주었다. 구렁이는 원수를 갚고자 도술로 인간으로 변신하여 그 사람을 집에 재운 뒤 새벽종이 세 번 치면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러나 까치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미리 종에 부딪쳐 죽으면서 위험을 알려 그 사람이 살도록 했다.

정자 우에 까치가 집을 지 놓고 있는데, 큰 구리가(구렁이가) 막 가치, 까치 새끼 내 물라꼬 올라가더래.

올라 강게네, 그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까치가 불쌍해서 안 되겠는 기라. 큰 돌을 갖다 쌔리 떤지서 마 그 구리에 중간 몸티를 마 쌔리 논께네 널찌뿌대.

그래 널찌뿌고 그래, 질을 건너, 그래 놓고 질을 갔다. 좀 가는데, 가니까 마 각중에 밤이 되가 컴컴, 생각에는 해가 안 졌다 싶은데 해가 지고 컴컴한 기라. 그 컴컴해가 질을 간다꼬 가는데, 산길을 가지는 기라.

그래 인자 그 인자 배암한테 인자, 배암이 인자 그 사람을 그거 저 뭐꼬 인도를 하는 기라. 배암이 안 죽고 가가지고, 안 죽고 가가지고. 그냥 마 상처만 내갖고 떨어졌거던.

그래 인자 산에 산질로 강끼네, 오데 저 중간에 쪼만(조그만) 오두막이 집이 불이 빤하이(밝게) 써 있는 기라. '아이고 아무도 갈 때 없고, 불 씌인 집 드가 봐야 되겠다.' 싶어 강께,

"주인 계시오. 계시오."

싼게네 각시가 하나 새댁이 나오민서,

"들오라."

카더라네. 그래 드가는데, 그 배암, 죽은 상처 낸 배암 암놈이라. 그래 숫놈이 인자 그래 올라갔다가 상처 나가지고 밤에 인자 그거 해 오만 인자 거 한다꼬 저거 고리(그 쪽으로) 댕기는 기라 밤에.

응칸(워낙) 오래 되나노이 구리가 오래 돼가이고 탁 그걸 하는 기라. 그래가 방에 인자 작은 방에 드가라 캐가이고 밥이라고 얄궂은 갖다주는 걸 먹고 이라고 있는데, 가만히 잠이 안 와서 내다 보니께, 뭐도 칼로 갈고 막 이래샀고 막 이렇는 기라.

사람들 둘이서, 칼로 갈고 이렇는데, '거 이상하다. 이 산중 집에 사람이 둘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 잠이 안 오가 잠을 안 자고 있응께, 그리 저거 둘이가 이야기하는 기 이라는 기라.

"우리 한 자시가 넘어 가가이고, 종이 세 번 울리고 나거들랑 자(잡아) 묵자."

카는 키라.

"울리기 전엔 안 된다. 종이 세 번 울리기 전엔 안 된다고."

"그래 세 번 울리고 나이."

자는데, 그래 한밤중이 되께네 종이 어데서 쿵 하며 소리가 나더래요. 긍께 한 문(한 번) 울리고 또 쫌 있다가 한 문 울리고, 인자 세 번 울리뿌고 난게, 울리고 난데(났는데) 좀 있디만도 그 바위틈이라. 다 없어져뿌리고 바위틈에 눕어가 있더래. 그래 누었는데 그 까치가 새끼를 갖다가 못내 먹구로 인자 해죘으니 은혜를 해가지고 그 사람 살리 주는 거야요.

그래 까치가 종을 갖다가 까치가 쳤는 기라. 두 마리가 암놈 수놈이. 들어가서 인제 뭘 칵 주디이(주둥이) 그걸 가이고 모디 치고 치고. 까치 두 마리는 죽었어. 새끼만 살았지.

그런데 종 치고 사람 살리놓고 지는 인자 죽을 요랑하고 종을 가 쳤는 거라. 그래 치고 그 사람은 살리고, 까치가 사람을.

'해를 주만 앙물을 하고, 짐승을 도우면 은혜를 한다' 카는 거 거서 났는 기라. 그 까치를 살리 주노이 까치가 사람을 은혜를 하는 기라.

[부산진구 설화 16]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JD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장덕이, 여, 7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도깨비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제보자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자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늦은 밤에 술을 한 잔 하고 짐을 지고 오는데 갑자기 키가 큰 도깨비가 씨름을 하자고 제안했다. 씨름을 하다가 칼로 도깨비를 죽이고 지게에 싣고 집으로 왔는데, 불을 켜서 보니 도깨비가 아니고 도리깨였다.

우리 동네사람이 저 저 토째비한테 홀킸는데, 저 저 어데 인자 옛날에는 양석을, 지대로 돈이 있어도 못 팔아뭈다 아이가, 왜정 때.

그래 밤에 술로 한 잔 먹고 그놈을 팔아갖고 짐을 지고 오이께, 그래 안자 저 통영 벌판이라고 있거만은. 거 오이꺼네, 키가 팔대장사 같은 기,

"저 지캉 씨름 한 문 하고 가라."

카더란다. 그래 이 사람 간담이 억시기(매우) 크고 좋거든. 그래노이까네,

"그래 씨름 한 문, 그라면 한 문 하자."

이카미서러 깨주머이(호주머니) 있는 찌께칼로 딱 내가지고 멕안지를(목을) 마 팍 찔러가지고 지게다가 탁 걸치가지고 지고 옸는 기라, 저거 집에.

내나 거 길곡 사람. 그래가지고 그래 지고 오가지고,

"그래 뭣이야. 요 불 키갖고 온나."

카더래. 그래 불로 키갖고 나온끼네, 옷으로 본꺼네 도루깨(도리깨)더란다.

도루깨로 깔고 앉아가지고 몸에 뭐 묻은 걸 깔고 앉아가 그기 또째비가 돼. 키가 팔대장성 같애서 보인꺼네 거기 도루깨더란다, 타작하는 거.

[부산진구 설화 17]

호식할 총각을 살려준 은인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09_PKS_JH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제1경로당
조사일시 : 2010.4.9
조 사 자 : 박경수, 황경숙, 서정매, 황영태
제 보 자 : 정흥섭, 남, 6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호랑이 이야기를 부탁하자, 제보자가 이야기 하나 하겠다고 하면서 긴 내용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 어떤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인물은 좋지만 열 살 때 호식할 팔자라며 스님이 예언을 했다. 그래서 총각은 그 스님을 따라 가서 살길을 구하자, 스님은 세 정승의 딸과 만나면 살 것이라고 했다. 스님의 손에서 자란 총각은 우연히 팥죽장사 딸을 만나고, 그 딸을 따라 세 정승의 딸들을 만나게 되었다. 결국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총각은 팥죽장사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옛날에 이래 인자 외톨이집에 살았는데, 어떤 할마이가 저 할무이하고 안자, 할머이하고 안자 아들 이래 저, 빨리 말하자면 안자, 엄마하고 아들 사는데 아주 가난한 거라.

그래가지고 하루 어는 스님이 이래, 지금 옛날에는 중이라, 중. 스님이라 오면서 그래 인자 애가 마당에 뛰 댕기매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하는 말이, 그. 동료 죽인 애 아, 멋도 모르고 쌀을 한거(많이) 퍼줬어요, 마이 없으면서. 그러 보더니 인자 스님 하는 말이,

"아도 좋고, 인심도 좋건만은."

새를(혀를) 꺽꺽 차면서 가거든.

"그래 어머이 어머이. 스님이 오던만은 낼로 보더만 아는 좋고 인물도 좋더만은, 그래 새를 툭툭 차면서 가더라."

캐. 그래 안자 가는 데다가 저거 아 보고 그 중을 데꼬 오이라 이래 됐거든요. 그래 아가 인자 뭐 시근이 없다 아입니까. 그래 인자,

"저가는 땡땡 중놈아~."

이래 불렀는 기라 애기가. 애기가. 땡땡 중 부르니까 다부 온는 기라.

오가지고 저거 엄마가,

"무슨 그, 금방 우리 애가 동냥을 줬는데 왜 아도 좋고 인물도 좋건만은 새로 차고 갔냐?"

한끼네, 그래,

"갈차 줄 수 없다."

카는 기라. 그러니끼네 그래,

"내가 아 이것만 보고 사는데 갈차 돌라."

한끼네, 그래 인자 하는 말이,

"열 살 묵는 해 호성에 간다."

카는 기라. 열 살 묵는 해, 인자 호성에 간다 카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살라는 방법이 없나?"

칸거네,

"한 가지 있다."

카는 거라.

"그래 이 애를 갖다가 내 따라 보내라."

카는 기라, 내 때로. 지 따라 보내라 카는 거래요. 그래 인자 참 물(먹을) 거 좀 싸갖고, 돈도 많이 싸가, 외동자식이다 보이 따라 보냈는 기라.

그래 보내고 인자 이럭저럭 댕기고 이래가 오 년이 지나고 십 년, 다 돼, 열 살 다 돼 가는 거라. 그래가 인자 애가 온 천지 데리고 다니면서 인자 스님이 갈차(가르쳐) 주는 기라.

"그래 열 살 묵는 해 저녁에, 니 생일 날 열 달 되면 분명히 호랑이 물고 간다."

이래 됐거든요. 그래 인자 인자 어릴 적 생일이 다 됐는 기라. 됐는데, 이 애가 인자 애가 중이 하는 말이, 중이 하는 말이,

"니는 살라 카모 니는 이때까지 다 컸으니께 살라 카면 세 정승 딸로 만내야 산다."

이런 기라. 세 정승 딸로. 정승 딸로 서이 만나야 산다 이래 되거든.

"예를 들면 우떻게 만내야 되노?"

"니가 알아 만나라. 나는 안주까지('지금까지'의 뜻으로 말함) 다 키워 죘으니 니가 그 사람은 못 만내는 것 같으몬 니는 죽는다."

이랬거든요. 그래 인자 어느 날 생일이 떡 닥쳐 왔는 기라. 안자 안자 한 열흘 남았어. 그래 이 사람이 안자 이냥 죽는 기고, 돈 가이 있는 걸로 있다가 마 배는 고프고 인자 돈은 한 주먹 쥐고 댕깄어.

스님도 따라 댕기가 벌이가 쥐고 댕기는데, 어느 시장에 떡 가니께, 어떤 할무니가 폳죽을 팔고 있는 기라, 팥죽을. 팥죽. 팥죽. 옛날에 폳죽이라 캤거든.

그래 그걸 팔고 있으면성, 폳죽을 한 그릇 사 묵었어. 사 묵고 그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지가 아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

돈을, 지(자기가) 쥐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주는 기라. 돈을 전부 다 주면서,

"나는 돈이 없으니 할머니 다 가져 가세요. 나는 내리(내일) 모레 죽을 끼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인자 이래 됐거든. 돈을 다주고 한게네, 이넘우 할무니가 고맙아가지고 저거 집에 하루 저녁 덱고 왔는 기라.

델고 와가지고 인자 떡 있으이끼네, 안자 저거 딸이, 팥죽 장사 할매 딸이지, 한 열 시 되가 오거든. 온끼네 그래, 그래 인자 그때 마 열 살 무면 옛날에 총각이라 캤거든요. 옛날에는. 그래 인자 처녀가 떡 오디만은 총각이 있다고 팍 나가는 기라.

그래 저거 엄마 하는 말이,

"야야. 너거 오빠다."

이래 됐비거든. 저거 엄마 하는 말이. 그래 너거 오빠가,

"그래 엄마는 오빠가 없다 카더만은 왜 오빠가 있노?"

이런끼네,

"하도 쪼맨할 때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서 그래 죽었다 안 캤나. 그래 이 돈을 너무 마이 벌어와가지고 니 안자 거 오데 안 가도 된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께 인자 그 딸이 어디 있었는고 같으몬, 세 정승 딸 몸집 종,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기라, 그 딸이. 그래 인자 김 정승, 이 정승, 판 정승 이래 인자 정승이 서이

있는데, 그 서이 집에 딸로 이래 딸로 심바람을(심부름을) 찾거든 갖다 주고 인자 그거 하는 인자 심바람꾼이라, 딸이.

그래 인자 그날 저녁 인자 저거 할매가 하는 말이,

"저 야야. 너거 오빠가 돈을 마이 벌어 오도 낼 모레 이런 걱정이 있다. 그래 니가 그 정승 딸 서이 만나야 된다 카는데, 니가 좀 만나게 해줘라."

해께네,

"아. 어머이 마 그거는 내가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래 되거던. 그래 안자 한 삼 일이나 놔뚜고, 치매로 진 거 입고 정승을 요 방에 저 방에 세 방을 거쳐 나가야 저 내딴에(자기 생각에) 가서 저거 딸로 만날 끼라. 정승 딸로 만날 끼라.

그래 안자 갔는데, 안자 이 치마 밑에 여가(넣어서) 싹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기라, 저거 딸이. 저거 오빠를 갖다가. 안 그런 거 같으몬 그 건너가지를 못하는 기라.

그래가 연습을 해가지고 참 이래 인자 했어.하고, 저거 엄마한테,

"주먹밥을 그 한 무데기 마이 싸돌라."

카는 기라. 그래 왜 싸돌라 카는 겉으몬, 정승 방 세 개 건너 가도 그 별당이 있어요. 거 가몬, 거 거 이름 뭐야? 오리 같은 기 이런 기 낯선 사람 오몬, 사람을 쫓아가 못 건너게 하는 거라.

그래 거 밥을 떤지주가 그 물(먹을) 딴에(동안에) 건너가야 되는 기라, 빨리 말하자면. 그래, 그래가지고 안자 참 연습을 해가 갔어. 안자 오늘 저녁 생일이몬 안자 갔는 기라.

간게네, 한 열 한 시 쯤 돼야 안자 열 한 시 쯤 넘어서 참 안 돼서 갔는 기라. 간게네, 정승을 떡 방이 안자 배 정승이 떡 있거든. 있으이께네 이 치마를 입고 가가지고 일부로 불로 이래 앉이면서 싹 끄는 척 했뿠는 기라. 아들 그 안 비(안 보여) 줄라고. 그래가 인자 엎어 놔놓고,

"아이고 정승님. 내가 불로 꺼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리……."

용서를 빌었어. 그래가 한 방을 거치는데, 또 두 방을 거쳐야 될 거 아입니까. 그래 이 정승 방에 가가는 또 이제 애들 책 보는 거 책을 들고 가민서 또 불로, 촛불을 껐빘는 기라. 그래 끄이네 그래 또 막 멀(뭐라) 카거든.

"아가씨 책 고를라 카다가 그 책이 맞는가 싶어서 그거 보다가 불로 껐다."

또 변명을 했는 거라. 그래가 또 세 번째 가서는 안자, 안자 그도 또 불로 꺼야 되거든요. 그래가 안자 세 번째 가니끼네 불로 끌라 카이꺼네 정승님이 자고, 주무시고 있는 거라. 아 그 정승은 밤이 좀 되다 본끼네. 그래가 마 썩 지나가이끼네,

"누고?"

묻대.

"뭣이다."

칸끼네,

"가라."

카데요. 그래 인자 지나갔어. 지나가 강을 인자 줄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오리들이 진짜 마 확 떼지어 날라 오고 몬 건너오도록 막 쫓을라 카는 거라. 그때 안자 주먹밥 주는 그걸 떤졌어. 무라꼬.

그래 무라꼬 주고 방에는 갔어요. 안자 처녀 방에까지 델라 주고. 그래 안자 거 가면성 가니께 저거 언니하고 이래 막 서이가 있는 기라. 그래 있으면서, 그래 물었어.

"그래 언니야, 언니야. 사실 내가 우리 오빠 이래 이래 오가지고 왔는데, 왔는데, 그래 서이 만내야 산다 카는데, 그래 어떻게 할래?"

카이꺼네 그 제일 큰 언니 혼자뿌이(혼자밖에) 없는 거라. 혼자뿌이. 둘이 다 말로 해야 되는데, 그래 혼자 또 얘기 했네.

"그럼 내가 동생들한테 물어가지고 이래 해주께."

이래 됐거든. 그래 쪼매 있으끼네 저거 동생들이 왔어요. 그 인자 정승 딸 서이, 둘이가. 그래 오가지고, 그래 아로 그냥 한 쪽 마 이불 밑에 숨카(숨겨) 놓고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요서 좋은 총각이 이쁜 총각이 나오몬 살려줄래, 직일래?"

이러인끼네,

"아이고 그거는 마 너그 언니 농담이라도 살리주께."

이래 되거든. 그래가 참 그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박이 있다, 이래가 사실 있다 카민서 인자 이야기를 했어.

"그래 얘가, 이 얘 저거 오빤데, 그 종 우리 일하는 오빤데 이래가지고 이걸 살라주자."

이래가 그래 인자 얘기가 됐는 기라. 됐는지 오늘 열 두 시에 인자… 호성에 간다 케노이꺼네,

"그래 우떻게 살라꼬?"

물으이 인자 상자를 갖다가 이래 안자, 상자 이런 상자 크게 인자 만들어갖고 그따다가 있는 속에다가 책은 내삐고 그 다음 여놨는 기라. 여 놓고 책은 우에 얹어 놓고, 그래 열 두 시 되도록 기다리는 기라.

기다리끼네 진짜 별땅에 이래 마마 쿵 쿵 거면서 마 소리가 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텅 책을 서이다 내가지고 궤짝에 깔고 앉아 서이다 아들, 딸이 깔고 앉아가이고 그 정을 이르는 기라. 호랭이 정을(주문을) 이르는 기라.

막 이르고 이라고 한끼네 호랭이가 막 물음을 확 이래 오더만은 마 쎄리 궤짝을 땡길라 카는 기라. 그래도 마 그 아가씨들 서이서 그냥 궤짝을 안고 마 정을 치고 한끼네, 그래 막 하고 있은끼네 난중에는 닭이 꼬꼬꼬 울고 호랭이 가삐대. 가삐리면성,

"에- 지독한 년."

카며 가삐더래요. 가삐고 안자 그래가지고 살기는 살았는데, 서로서로 인자 저거 신랑 맨들라 카는 기라. 서로. 저거 남편을 맨들라 카는 기라.

그래 안자 서이다 가마이 생각하니 원인(은인)이거든. 원인이고 또 저거 동생도 원인이라.

동생 저거 첨에. 그래 이거를 서이다 해야 되는데, 인자 처음보다 저거 다 할라 카는 기라. 너무 인물도 좋고 이러논께네.

그래가 안자 젤 처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뿐이다. 내 사는 원인은 할매 딸뿐이다. 인자 할매 딸한테 가겄다."

이런께네 저거 언니가,

"나는 두채로(두 번째로) 가겠다."

그래가 둘이 덕고(데리고) 잘 살더래요.

고기 끝이라. [웃음]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54~257쪽에 「호식(虎食)할 운명의 총각과 이를 구한 세 정승의 딸」이란 제목으로 일부 각색되어 전재됨.

[부산진구 설화 18]

정승 가족을 살려낸 노비 칠성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JSK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조성교, 여, 8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예전에 들었던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다며 차분하게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 정승의 첫 부인이 아들 하나 놓고 죽자 후처를 들였다. 후처는 친자와 서자를 차등 없이 키웠다. 그런데 본부인의 아들이 장가를 가자 첫날밤 노비 칠성이를 시켜 친자를 죽여서 그 목을 가죽단지에 넣게 했다. 그러자 신부가 신랑을 죽인 것처럼 되고 말았다. 억울한 새 신부는 남장을 하고 옆집에 머물면서 옆집 노인에게 모든 것을 듣고 억울함을 밝혀냈다. 결국 진상이 다 밝혀지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정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이 싫어서 집을 나갔다. 그때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임신이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고 해서 어머니는 먼저 할아버지를 만나도록 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강원도 어느 절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원님이 된 친척을 만나 아버지를 죽인 노비 칠성이를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를 죽인 노비를 벌하려고 하자 노비 칠성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알고 보니 노비 칠성이가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서울로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잘 보살펴주고 있었다. 오히려 노비 칠성이 덕에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와 상봉을 하게 되어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후 노비 칠성이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되었고 집까지 한 채를 받아 형제처럼 잘 살게 되었다.

옛날에 사람이 정승인데, 아들 하나 나놓고 할마이가 죽어가지고 안제 또 후처가 들어왔거든요. 들왔는데, 그 아들 차등 없이 키우더래. 자기도 하나 나아가지골랑.

옛날에 모두 장개 갈 때 줄라고 홑청 떠 놓거든요. 근데 떠놔도 자기 아들 낸주(나중) 딸하고 큰놈아이 아들 먼지 떠놓고 이러더라네.

그래띠(그랬더니) 그래가이고 열 여섯에 장개를 가는데, 가마를 엄마가 문을 닫아 주는데, 엄마가 나와 가마문을 아들 탔는데 닫아 주민성, 돌아서면서 씨익 웃더래요. 종 할마이가 보니께. 종, 종으로 있는 할매가 보니께 웃으면서 문을 닫아주더라네. 아만 해도 이상한 기라. 차등 없이 그래 키왔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그 집이 상전의 집은 여게 있고, 여 종 할마이 집은 여 담, 담 여기 어데요래 담 새에다가 집을 지놨는데, 담으로 인제, 담에서 요래 내다 보맨, 그 집에 마당이 다 보이는 기라요. 마당이 보이는데, 그래 인자 그래 되고 앉았어요, 할마이가. 거 웃는 걸 보걸랑 수상쩍어가지고.

귀를 대고 앉아서 보이께 한밤중 된께, 그 사랑방에 그 청지기가 할마이 아들이라. 종이, 그런데 이름이 칠성인데.

"칠성아. 칠성아."

부르더라네, 한밤중 된께. 부르디만은 뭘 떨어가 올라서라 카디 마리(마루) 서가지고 뭘 속닥속닥 시킨께, 자기 아들이 손을 흔들며 나가더라네요. 나가디 곧 쪼금 있다 또 부르더래요. 또 불러이 또 손짓을 하고 나가디, 세 번째 부르니께 들아가지고 응답을 하고 고만 나가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요 할매가 고만 속이 타는 기라. 상전 아들 장개 갔는데 그래 인자 그래, 뭐라 카는가 하만,

"내가 돈 천 냥을 줄끼인께 오늘 새서방님 목을 쳐 오너라."

이랬는 기라요. 그러니께, 그래 그놈의 속이 타가지고 거들대고 있는데, 한참 있다이께 목을 쳐가지고 왔는데, 도장에다가, 큰 도장이 있는데 거 가죽단지, 부잣집이라노이 단지가 세 개라.

"단지 안에다가 목을 갖다 주 여라."

카더라네. 그래 거따(거기다가) 갖다 주 옇는데, 이 집에서 인자 신부가 그런 중 알지 누가 뭐, 뭐 여서 그랜 줄 알아요?

신부집에서는 그래가지고 인제 그만 그 이튿날 거 안자 요객하고, 요객은 그만 아들 시체만 실고 집에 왔지 뭐. 왔는데, 신부는 고만 우사, 동네 우사잖아, 신부가 그랬다고.

그렇께 자기는 안 그랬는데 그랬다 캐가지골랑 하도 억울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곤 구멍에다 여 가지고 시집에다 찾아갔어.

시집엘 찾아가가지골랑 인제 가만히 그석을 어데 돌아다니면 잘라고 보니께, 그 옆에 할매집이 있어가지고 그 할매집에 드가서,

"좀 자고 가자."

카니께, 할매가,

“이런 누추한 늙은이 집에 저런 도련님이 우째 자겠습니까?”

남자 인제 치온 옷 해입고 상토 쪼지고 이래가지골랑 하재. 남자 행색을 하고 갔거든.

“저런 도련님이 우째 여 여 누추한데 자겠습니꺼?”

이런께,

“괜찮다.”

카미 자고 가자 캤는 기라. 그 자고 가인께 그 허락을 받골랑 이제 나가가지고 나무 사고 쌀 사고 해가지고는, 반찬 사고 해가지고 집에 왔어.

할마이집에 와서 인제 머슴아는 불을 때고 총각은. 할마이는 밥을 하고 이래가지고, 할매가 거 아무것도 못 얻어먹고 있다가 상전이 그래 거 들앉았으이, 있다갈랑 아주 거시기가 고기하고 밥하고, 그래 뭐 뭐 뜨신 방에 자고 한께 좋아가지고, 가란 소릴 안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항상 그 인제 그 집에 있어요. 있는데, 그래 한 날은 있다걸랑 그 할매한테 물었는 기라. 물으인께 이야길 했어요.

“내가 일하고 오는 조선 방방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별 일 때가 다 있대요.”

그래 인제 이 집 이야기를 했는 기라.

“작은 어마이가 큰 할마이 아들 장가를 보내놓고 밤에 목 쳐논 데도 있대요.”

이래 한께, 뭐라 카는 기 아이라. ‘아이고’ 껌쩍 놀래며,

“그런 데가 있냐고?”

“우리 여 안댁이도 그렇습니다.”

목을 쳐 왔다 카더라네.

“쳐다가 그래 우쨌는가?”

물으인께,

“도장에 가죽단지에 지금 들었다.”

카더래이. 그래가지고 편지 끄트머리에다가 그걸 썼는 기라. 거 가죽단지에 목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 집을 찾아 드가인께 시아바님이 아들 하날 그래놓고 기가 차가지고, 그 집 문도 띠 내뻐리고 그 꺼적대기를 문에 달고 그래가지고 고만 조석도 자시도 안 하고, 그래 죽을라고 누웠는 기라.

그래가 드가가지고 두 분 소릴 해도 암말도 안 하고, 세 분째 소리를 하이께, 모구가(모기가) 모구 소리만첨 소리가 났더라네.

그래가지고 꺼적대기를 들고 인제 드간께 일나 앉더래요. 일나 앉는데 그 편지를 들고 자기가 읽었는 기라. 고만키 우는 체 해가 퍼뜩 일라가지고 종들을 부르디,

“도장 가서 가죽단지 갖다 마당에 쳐라.”

이러니께 가죽단지 내다가 마당에 두르며 칭께 머리가 두굴두굴 구불어 내려오네요. 그래 노이 기가 차잖아. 그래가 작은 어마이 고만, 옛날에는 성틀을(형틀을) 내가지고 사람을 죄 있는 사람 쥑이기 때문에, 그래 인자 성틀에다 다 올리나서 죽이삐리고. 그래 인자 이 영감님

은,

"인제는 니가 내 며느리다. 내 며느린께 니가 내 집 지키고 있어라. 난 조선팔도 구경이나 하다 죽을란다."

이러며 나간께, 그래 인제 옷을 천지 드렸는 기라. 옷이나 가져가라고 인자 챙기주골랑 그래 이 사람은 그 집에 있고, 그 종들한테,

"색시 잘 모시라, 너거가."

이래 하면서 부탁을 해 놓고, 저 강원도 어느 골짜기로 절을, 절로 드갔대요.

근데 이 어마이가 우째 임신이 됐더라네. 그래가지고 열 달 거슬러 나인께 아들을 낳는 기라요. 아들을 나서 옛날에는 학방에 모두 보내거든. 그래논께 한 여덟 살이나 아홉 살인데 학방 가는데,

"엄마 엄마. 난 아부지가 왜 없어요?"

학방에 가인께 아버지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말큼 골른다 카민 아부지 없다고 그러더라네. 그래,

"너거 아버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자꾸 그래 또 말을 안 듣디, 한 열두 살이나 된께,

"난 아버지 찾아간다."

카매 나가더라네요. 그런께 요 어마이가 옷을 챙기주고,

"니가 할아버질 보만 알겠나? 할아버지가 널 보만 알겠나? 그리니께 인자 할아버지 화상을 가져가라."

캤다. 지금은 사진이지만 그땐 화상이라. 화상을 하나 해서 옷 보따리에 딱 꼽아은께, 아들을 내 보냈는 기라.

온 조선팔도 다 돌아다니도 없디, 강원도 어느 골짜기 드간께 물이 먹고 싶어서, 도랑에 물을 먹을라 카다이께, 그 우에 할아버지가 하나 앉아서 발을 씻더라네. 발 씻는 밑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인제 글로 올라 갔는 기라. 할아버지 있는 데 올라가보인께, 할아버지가 똑 자길 닮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래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도로 내려와가지골랑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내려와가지고 화상을 빼가지고, 그 할아버지도 자꾸 가를 치 다보더래요.

손자 있을 기 만문데 그 아가 자길 하도 닮았인께, 그래도 그걸 가져 와가지골랑 화상을 가져 와가지고 보인께 자기 화상이거든. 와이구 그만 끌어안고, 손자를 끌어안고 실컷 울고는 절에 드가가지고,

"난 인제 내 손자가 왔으인께 집으로 갈랍니다."

이래 하이, 그래 절을 파일 하고 인제 집으로 왔는 기라. 집으로 오는데, 한 십리 밖에 오디,

"할아버진 집으로 가시소. 저는 아버지 찾아가지고 갈랍니다."

"야 이놈아. 애비가 죽은 애비를 니가 어디가 찾노? 그러니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해도 말 안 듣고 간다 카더래요. 가니께, 죽은 것인게,

"애비 죽은 칠성이는 니가 만낼랑가 몰라도 애비는 못 만낸다. 그러니 우쩌겠노? 니가 칠성이를 보면 알겠나? 칠성이 너를 보면 알겠나? 내가 가야지."

이러매 조선이 서울로 올라갔으이.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에 생질이 하나, 그 할아버지 생질이 하나 고을 원으로 있어. 서울에.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 드간께, 와이고 외삼촌 온다 카이 막 버선발로 쫓아 나오더라네. 및 해만에 가인께. 그래가지고 노인이 드간께 아가 따라 들온께,

"자는 누구냐?"

"내 손자다."

카더래.

"외삼촌. 니 우째 손자가 있냐?"

카인께,

"내가 손자가 있다."

커니, 그래 드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걸랑,

"그래 이 고을에 칠성이라 카는 사람이 있나?"

이런께,

"있다."

카더라네.

"있는데, 신, 신방을 신전을 한다."

카대. 신장사. 그래가진 고을 원이라노이 금시 잡아 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좀 잡아 온나."

카인께, 그래 인제 칠성이를 잡아왔는데, 칠성이, 진짜 칠성이라. 종 거기라. 그래가지골랑 성틀을 꾸미 놓고 죽일라고 거 인제 하는데, 샌님이,

"인제 죽어도 전 이야기 한 마디 하고 죽을랍니다."

이러인께,

"그 얼렁(얼른) 이야기 해라."

죽일라고 얼렁 이야기 해라 카이께,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샌님 새서방님하고 나간 뒤에 안액시가(안색시가), 작은 어마이는 안액시라 캐요 옛날에는. 그냥 액시라 소리 안 하고.

"안액시가 새서방은 돈 천 냥을 준께 새서방님 목을 쳐 오너라 이래 한께, 그래 지금 두 분이나 뿌리고 나와도 자꾸 그래서러, 두 번만에 나와가 생각을 하인께, 우리 새서방님은 언제라도 인제 안액시한테 죽겠다. 그래이 내가 가야지 싶어가지고 인제 거겔 장개 가는데 그겔 간께 중이 하나 여자를 하나 데리고, 밤인데 대나무 밭으로 드가더라네. '저놈은 죽어도 괜찮다. 중이라 카는 기 어찌 여자를 저래 들고 드가는고?' 그래 중을 목을 쳐다가 안액시를 갖다 주고 돈 천 냥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골랑 새 서방님 장개 가는데 가인께, 새서방님이 화장실에 나왔더라네. 그래가지고 고만 불러가 담 넘으로 불러내가지고 새서방님 옷은 그 중을 입히고, 대가리가 없으인께 중인 줄 알아요? 옷을 입히고, 그 새서방님 딴 옷을 입히가지고

열 다섯 살 먹었으이 업고 오잖아 실컷. 업골랑 고만 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신전 채리가지고, 지금 새서방님은 공부시킨 죄빾에 없습니다."

이랬더라네. 와이고 그러니 기가 차잖아.

"그게 뭔 소린가? 그럼 새서방님 덜고(데리고) 온나."

이런께 불러가 들고 오는데, 아이 아들을 들고 왔는 기라요. 그래 기가 차잖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 들고, 종하고 거 인제 손자하고 자기하고 서이가 와가지곤, 집을 거 부잣집에서 똑같이 지가지고 한 챈 칠성이 주고 한 채는 자기 손자 주고, 그래가지고 종 문서 없애주고 그래 형제간겉이 그래 고만 살더래요. 앞뒤집에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네, 옛날에.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45~248쪽에 위의 자료가 「주인 목숨을 구한 칠성이」란 제목으로 일부 각색되어 전재됨.

[부산진구 설화 19]

선비와 장기를 두다 도망간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JSK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조성교, 여, 8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이야기를 더 부탁하자 제보자는 짧은 이야기와 긴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것부터 할까 물었다. 조사자가 짧은 이야기부터 먼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선비가 일을 하지 않고 장기만 두자 부인이 화가 나서 선비를 쫓아내어 버렸다. 집에서 쫓겨난 선비는 장기판을 짊어지고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다. 어느 날 나무 아래서 혼자 장기를 두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내기장기를 두자며 다가왔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잡아먹는 내기를 했다. 그런데 그 노인은 호랑이가 둔갑한 노인이었다.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수작을 건 것이었고, 결국 선비는 노인에게 장기를 질 판이었다. 장기에 질 것 같아서 선비는 옷을 벗고 일어섰다. 노인이 선비의 남근을 보며 무엇인지 물으니 총이라고 말했다. 노인은 너무 무서워서 호랑이로 변해서 산으로 도망쳐버렸다.

옛날에 사람이요 선비라노이, 일은 못하고 만날 장기만 두는 기라요, 장기만. 장기엔 선수라. 그래노이 먹을 기가 있어야지. 남자가 장기만 두고 보이질 안 하이,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쫓아 내뻐맀어요.

신랑을 쫓아 냈디만은 이거 장기판을 짊어지고 어디 가다 보니께, 아무 데도 갈 데는 없고, 동서나무 밑에 가서 이래 앉아서 혼자 인자 장기판을 놓고 장기를 뚱땅뚱땅 두싼께(두고 있으니까), 허연 노인이 내려오디,

"노형, 노형. 나하고 같이 장기 둡시다."

그런께,

"그래 여 오라."

카이께, 둘이 인제 장기를 두는데, 이 노인이 뭐라 카는 기 아이라,

"내기를 하고 둡시다. 그냥 두지 말고. 장기를."

"그래 뭔 내기를 할까요?"

이런께,

"당신이 이기마 당신이 날 잡아 먹고, 내가 이기만 내가 당신을 잡아먹고 그래 하자."

카더라네.

"그럽시다."

이 양반이 장기엔 그만 수단이 없거던. 그러자 캤는 기라 노인한테다. 그러자 카고 보인께, 아이 장기를 두고 보인께 암만 해도 지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만 자기가 잡아먹힐 판이거던.

일라 서서 옛날에는 팬티도 안 입고 중의만 입으니께, 훌렁 벗골랑 종을 치고 이래가지고 앉아서 장기를 탕탕 좀,

"장기다."

그런께 영감님이 보인께 그 사람을 보인께 밑에 뭐가 달리 있거던.

"노형. 그기 뭐요?"

"총이오." [청중 웃음]

그래 겁이 나는데,

"거 총 뒤엔 뭐요?"

"총알이오."

이랬는 기라. [청중 웃음] 아이고 고만 총 있제, 총알 있제 자기가 죽겠는 기라. 고만 백호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뿌리더라네. 총에 맞아 죽을까봐.

그기 호랑이가 둔갑을 해가지고 사람 잡아먹을라고 내리왔다가, [웃음] 그래가지고 올라가더래요.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49~250쪽에 「노인으로 둔갑한 호랑이와 장기 둔 선비」란 제목으로 일부 각색되어 전재됨.

[부산진구 설화 20]

꾀로 재물을 얻은 가난한 선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4_PKS_JSK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경로당
조사일시 : 2010.2.4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조성교, 여, 88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기억력도 좋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했다. 짧은 이야기를 끝내고 긴 이야기를 한다며 시작하였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선비가 너무 가난하자 집에서 일하던 종이 그만 도망치고 말았다. 소문에 종이 집을 나와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선비는 그 종을 찾아가기로 하고 산을 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다리미 장사꾼이 같이 와서 쉬게 되었는데, 선비는 나무에 끼어있는 호랑이를 잡아놓았다고 했다. 그러자 실제 나무에 끼어 있는 호랑이를 보고 영감이 힘이 세어 자신을 해칠까 겁을 내어 그 장사꾼이 도망쳐버렸다. 이후 선비는 종의 집을 찾아 갔는데, 이번에는 종의 아들 삼형제가 선비를 죽이려고 다리미 장사꾼을 불렀다. 다리미 장사꾼은 선비를 보더니, 그저께 호랑이를 잡은 사람이라며 못 죽이겠다고 했다. 세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빌고 선비에게 대접을 잘 해주어서 선비는 그것으로 넉넉하게 잘 먹고 살았다.

옛날 사람이요, 옛날엔 모도 선비잖아. 선빈데, 너무너무 가난한 기라요. 너무 가난해서 이 종이 고만 도망을 가뿌맀어요.

도망을 가골랑, 이 노인이 그래, 그래 억지로 연명을 하고 살다 보인께, 그래 종이 산 너매 어데 가가지곤 큰 부자가 되어 산다 카드래이.

'내가 찾아가몬 괄시는 안 하겠지.' 싶어가지고 인자 거기 찾아 갔는 기라요. 산 넘에 넘어가 다인께, 산에 돌맹이 앉아 담배를 피우다닌께, 산을 넘어가가지고 종 집은 저 앞에 있는데, 그걸 보걸랑 담배 피우고 앉았당께, 담뱃대로 가지고. 허연 노인이 오더니만은,

"노형, 노형."

아이 다리비(다리미) 장사가, 다리비 장사가 옛날에는 다리비 장사는 힘이 시야(세야) 다리비를 한대요. 찍고 쉬다 논께, 한 짐 짊어지고 오민서 그 노인한테다,

"노형. 노형. 여 나 좀 쉬 갑시다."

"여 앉아 쉬이소."

이러고 앉아 쉬는데, 둘이 앉아 쉬는데, 이 거시기가 보더만은 다리비 장사 뒤에 돌아보니 돌아보인께 호랑이가 하나, 소나무가 요래, 요래 산에 가면 요래 있는 소나무가 있잖아. 여 붙었고, 여 벌어진 거. 거게 호랑이가 하나 굽히가 있더라네. 끔쩍 놀래가지고,

"저게 뭐여?"

호랑이가 거 할아버지가 앉았응께 지 밥 위에 있으니끼네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다가 그

나무 새에 꼭 끼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캔 기 아이라,

"그게 날 보고 하도 잡아 먹을라고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집어 끼왔소."

들깨 서말도 못 드는 영감인데, 그런 기운이 없는 영감인데, 그러니께 고만 그 다리비 장사가 겁이 나가지고 '여 앉았다 저 영감한테 내 죽겠다' 싶어가지고 실실 고만 다리비 짊어지고 집으로 내리왔는데 그 동네라. 그 동네에서 쪼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은 거 앉아 담배 실컷 피우고 호랑이는 거 놔 두고. 고래가지고 인자 종 집에 찾아 드갔더이, 종 집에 찾아 드갔더이, 하이고 옛날에 참 상전으로 부르디이 고 온께 종이 반가워가지고 방에 들앉히 놓고 절을 하고 밖에서 절을 하고 이런께, 그 아들네가 말캉 건장같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도 노인인데 그 노인한테다 절을 하고, 하순하고 그 노인은 해랄하고 이런께, 그만 뿔따구 났는 기라요. 아들네 삼형제가.

그래가지고 영감을 이제 죽일라고 작정을 하골랑, 서이 짜고 아바이는 안 갈치주고. 아바이 갈치주면 못 그라라고 하거던.

갈치주도 안 하고 그래 앉아가지골 저거꺼정 짜고 그래 뭐 쑥떡거리는 소리를 들은께, 노인이 가만히 들은께,

"저 밑에 다리비 장사를 불러야지. 다리비 장사가 힘이 신께 영감을 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있다 보이께 여 다리비, 문틈으로 내다 보인께, 낫을 갈고, 칼을 갈고 뭐 뭐 그렇게 갈더래요.

그랬디이만은 그 다리비 장사를 불른께 와서 이래 문을 열고 들다보디, 어제 방구에 앉았던 노인이거던. 와이고 고만 문을 탁 닫고 나가면서 거 인제 그 아들이한테다가,

"와이고, 저 저 노인이 힘이 신 노인이라서 난 못 죽인다."

카더라네.

"왜 그렇는가?"

물으이,

"어지 저 앉아 쉈는데, 호랑이를 잡아서 낭태다 끼워 났더라." [청중 웃음]

그래 거짓말이라 칸께 가보자 캤는 기라. 가봉께 참, 글 때까지 문 앞에 넓은 데 호랑이 요를 딜이가지고 번들번들 이래가 왔더라네. 그래가지고 니러 왔어. 니러 와가지고는, 아이고 문을 열어놓고,

"샌님. 지가 죽을 때가 되서 그랬다고." [웃음]

샌님한테다가 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서 옷을 좋은 걸 해 입히고 비단을 또 마이 사고 해가지고 말을 하나 해가지고, 실리가지고 돈도 싣고 부자라논께.

그래가지고 집이나 줘서 영감이 그걸 먹고 살았대요.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50~252쪽에 「가난한 선비가 꾀를 이용해 재물을 얻은 이야기」로 일부 각색되어 전재됨.

** 이상 박경수 · 정규식 · 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 - 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5, 498~535쪽.

2. 연제구 설화

[연제구 설화 1]

혼령의 원한을 풀어주고 부자 된 과객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DC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대창, 남,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도깨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구술 하였다. 귀신 얘기를 해도 되느냐며 재차 확인한 뒤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사람이 포목 장사를 잘하는 사람과 같이 강원도로 포목을 팔러 갔다. 어느 산골 쉼터에서 쉬는 도중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판 다음 집으로 왔다. 어느 날 한 과객이 그 사람이 죽은 곳을 지나가는데 슬픈 소리가 나서 가보니 해골이 풀숲에 놓여 있었다. 그 해골을 묻어준 후, 혼령이 자신을 따라와 범인을 잡아줄 것을 부탁했다. 그 혼령의 제삿날에 범인이 와서 거짓으로 울자 혼령이 시키는 대로 그 범인을 잡았다. 자식들이 자초지종을 알고 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집과 농토를 주는 바람에 그 사람은 잘 살게 되었다.

옛날에는 인제 이 장사꾼이, 그 저 등짐을 짊어지고 장사를 했단 말이요. 그 경상도 사람이 강원도로 가 팔고, 강원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팔고. 그래 한 포목장사가 있었는데, 포목은 뭐냐 하몬 광목, 비단 이런 걸.

경상도에서 한 짐 해가 짊어지고 저 강원도 준령 태산을 넘어서 거 가서 인제, 팔아가지고 오고 하니깐, 그 이웃사람이 하나 가만히 보니깐 참 돈을 잘 버는 것 겉거든,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아, 자네 요번에 뭐 얼매나 냄깄는고?"

하니깐,

"아 그 뭐, 뭐 얼마 얼마가 남았다."

"그럼 나도 좀 할 수 없는가?"

이래도,

"왜 할 수 없어."

"그럼 밑천이 얼매나 하몬 되는가? 우리 집에 저 송아지 한 마리 팔면은 밑천 되는가?"

이랬다. 하니깐,

"암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경상도에서 명주, 광목, 뭐 이런 뭐시기 한 짐을 사 짊어졌어요. 짊어지고, 강원도 어느 산을 넘어가는데 보통 인제 그 옛날에 걸어가니깐 굉장히 되거든(힘들거든). 그 저 말랭이(꼭대기) 가면은 쉼터가 있단 말이야. 요새 같으면 쉼터지. 그 뭐 서낭당도 있고, 그 밑에 쉼터에 쉬는데, 이 먼저 하던 사람이 속에 컴컴한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내준 그 송아지 팔아 준 물건 해온 사람을 고만 고서 죽여뿠어. 죽여가지고 그 어디 끌어다가 산태 난 데다가 파고 슬쩍 묻어놓고, 자기가 그 사람꺼정 다 가져 가서 강원도 가서 팔아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요. 내려오니까 그, 그, 같이 간 아주머이가 물을 거 아니요.

"아이고 우리 집에도 같이 갔는데 왜 안 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 나는 어디로 가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데 아마 곧 올 겁니다."

이래 대답했단 말이야. 오긴 뭘 와. 죽이긴 지가 죽여놓고. 그래, (청중 : 요새 같으면 찾을 긴데.) 응.

그래 인자, 참, 이 사람은 죽고 말았는데, 이 사람은 그 장사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죽은 사람이 나간 날에 안 들어오니깐, 그 집이 제사를 지낸기라.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낸다.

옛날 같으면 소상, 대상 지내잖아요, 그제? 제사를 지내, 나간 날로 소상이 다 왔다, 소상.

그래 소상 날인데 그때 마침 어느 가객이(과객이) 개나리봇짐을(괴나리봇짐을) 짊어지고, 어디 참 경기도에서 이 경상도로 오다가 그 재에서 쉬자니깐, 그 재에서 쉬자니까 아이, 자꾸 슬픈 소리가 슬픈 소리가, 그 뭐 참 우는 소리 겉기도 하고 슬픈 소리가 나서, 한참 머리 그 방향을 찾아가보니깐, 사람 해골이 있는데, 해골이 있는데, 그 해골 보통 썩으면 [얼굴의 눈을 가리키면서] 여기 눈 있는 데 뻐끔뻐끔 다 이렇거든, 빽다구만 남고.

그 글로 풀이 이래 시방 풀. 풀이 올라와서 바람이 불어 흔들리기만 하몬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고 이래하거든. '야, 이거 이것도 참 사람의 두골인데, 이래 그양 두고 보고 보고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 뭐 도구는 없지만은, 그래도 파고, 그래 저 묻어주고.

그러곤 인자 그 과객이 어데마침(어디까지) 오다니깐 어 왠 사람이 뒤를 따라온다고요, 뒤를 따라와. 과객이니깐 뭐 가는 데마다 저 집이고 가는 데마다 고만 자야 되거든. 그런데 따라오니깐 같이 좀 얘기도 하고 같이 갈라고, 앉아서 쉬려고 앉아 있으몬 또 안 오네.

또 그런가 고 또 앉아 있으니깐 또 안 온다 이기요. (청중 : 그 혼령인갑다.)예. 그래 그게, 그기 인제 알고 보몬 죽은 사람의 귀신이라, 뒤에 따라온 사람이. 귀신인데, 그래 인제 이 사람이 안 되겠어서 그 앉아서 쉬다가,

"여보, 여보."

오라고 불렀어요, 그 뒤에 오던 사람을. 안 오던 사람을 불렀어요. 부르니깐 왔더라는 기라. 거 와가지고 얘기 서로 하는데,

"그 어떻게 언, 당신 어디꺼정 가느냐?"

"뭐, 뭐, 난 어디꺼지 간다."

인제 이런 얘기 서로 얘기하며, 과객, 개나리봇짐 진 가객하고, 그 인제 해골 묻어준 귀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음, 난 경상도 어디 아무 데 아무 데 있는데, 사실 오늘이 우리 집에 가면은 내가 나간 날로 내가 죽었다고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날이니까 가객이니깐 어디 가도 자도 맨 가객, 누구 사랑방을 빌려 잘 거 아닙니까? 이러니깐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귀신이, 불러온 귀신이 그런 말 하거든.

"그래, 하이구 좋다."

고 과객이.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사람 경상도 가만히 어디 가서 생각하는데 몇 백 리 되는데 길이, 도저히 올 수가 없는 형편이라, 그 가객 생각에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귀신은, 귀신은 하는 말이,

"이 손님이 인젠 내가 앞에 설 테니깐, 내 걸은, 디딘 자국만 디디고 따라 와라. 따라 오면 내랑 같이 갈 수 있다."

이거요. '아 그래 뭐' 이 사람은 귀신이 앞에 서고, 개나리봇짐 진 그 가객은 뒤에 서고 해 가지고, 거 거 가는 발자국만 가니깐 저 어느 마을이 탁 나오는 기라. 나오는데, 들다보니깐 그 안에 거 차일, 왜 저 이런 일광을 가르는 그 차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그걸 쥐고 사람이 막 욱신욱신하고.

"아 그래 저게 뭐냐?"

하니깐,

"저게 바로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인데, 우리 아들이 내 죽은 날이라고 지금 소상, 제살 지낸다고 문상, 상주 모르는 문상객도 있고, 그렇다."

"우째야 되느냐? 당신은 귀신이니깐 들어가지만, 나는 우째야 되느냐?"

"날만 따라 들어오몬 딴 사람은 안 보일 테니깐 따라 들어오라."

이거야.

"들와가지고 내 앉아 있는 옆에서 자기 자시고 싶은 대로 자시라."

이거여. 실컷 차려 놨을테니깐, 제사 제삿상에 가객이니깐 출출하고 뭐 얼매나 좋언노.

그래 아 그래 이 사람 드가맨 보니깐, 손님들 다 보이는데 딴 사람들이 모두 말도 안 하고, 자기는 보는데 딴 사람은 안 보이는 기라 인제.

그래 그 귀신 앉은 옆에 같이 쭈구려 앉았어. 앉아가지고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같이 가서 거 어떤 사람한테 내가 죽어서 이렇게 됐는데, 내한테 와서 문상한다고 하면서 구부리고 절하고 하는 놈이 있을 테니깐, 그때 내가 저 놈 끌어 엎어라 하거든 바로 그놈이니깐 해 다오."

이기야. 그 가객보고. 그래, 실컷 먹으니깐, 자꾸 보통 제사에는 이 사람들이 자꾸 준다 이거야. 보통 제사에는 음식이 안 줄거든. 안 주는데, 제삿상에 음식이 자꾸 주네 이거, 술 부어 놓으몬 술도 없어져, 고기도 없어져.

그래, 자손이 가만히 생각하니깐, '우리 아버지 혼이 와서 자싰는가 보다.'고. 없어지몬 또

갖다놓고, 없어지몬 또 갖다놓고, 실컷 먹었다. 먹고 있는 순간에 어떤 놈이 하나 썩 꺼무둑한 놈이 도둑놈 같이 생긴 놈이 하나 오디만은,

"아이고, 이 친구 내가 참 아무적게(어느 때) 내하고 같이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인데, 이거 참 안 됐다."

하면서 잔을 한 잔 부우가지고 올리는 순간에,

"저 놈이다, 끌어 엎어라."

그러며 이 과객이 그만 허벅지를 들고 탁 끌어 엎었다.

"이놈우 자석, 니가 이놈우 자석, 이 사람 죽였지?"

하고 끌어 엎은 기라. 아이고, 그러니깐 제삿집이 그만 난리가 난 거지 뭐 뭐. 안 보이던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 엎고,

"이놈 니가 죽였지?"

하니깐 난리 나는 거지 뭐. 아 그럼 뭐 이거 여럿이 상주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참 여기 우쩐 내력이냐?"

가객한테 개나리봇짐 가객한테 물을 거 아니야.

"우쩐 내력이냐?"

그래 사실은 내가 얘기를 똑바로 했어.

"강원도서 경상도로 넘어오는 아무 재 거 와서 쉬자니깐, 그 참 슬픈 소리가 나서 거 가보니깐, 해골에 살은 다 썩고, 해골에 저 풀 해귀가 이래 나와가지고, 바람이 불어 이래 이래 건드리니깐, 자꾸 슬픈 소리가 나더라."

그 내가 끌어 묻어 줬는데, 거 어디만큼 오다 보니깐 사람이 따라와서 인제 고 얘길 쪼옥 했어. 쪼옥 하니깐 과연 맞거든. 그래 고만, 요새 같으몬 경찰서겠지, 옛날에 관가에, 관가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 고만 관가에서 잡아다가, 그 놈은 잡아갔버리고. 그래, 그 뒤에 상주들이,

"우리 아버지 백골을 좀 찾아주시오."

하고 그 가객한테 매달렸어. 그러니까,

"한 분 그래마."

고. 그래 인제 상주들하고, 뭐 그땐 뭐 뭘로 갔는지 모르지, 말로 탔는가 걸어갔는가 며칠을 걸어갔겠지, 뭐 뭐. 경상도 강원도 어디 저 잿만리(산꼭대기) 가자면 한참 걸어갔을 기구만. 암. 그래 가서 거 해골을 찾아줬어요. 자기가 손을 들어 산태 밑에다 끌어 묻어 줬으니깐, 찾을 수 있거든.

그래 이 자손들이 그 참 개나리봇짐 진 가객을 할멍까지 하나 얻어주고, 집 하나, 농토를 사줘가지고, 그래 고서 우리 아버지 은공을 가려준 은인이라고. 그래 해서 참 잘 살은 이야기랄까.

[연제구 설화 2]

화가 나서 하는 소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DC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강대창, 남, 79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상스러운 소리가 섞인 얘기도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고는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시아버지는 가랫장구를 치고 아들 내외는 가랫줄을 당기는데, 아들은 힘이 세고 며느리는 힘이 약하니까 가래가 자꾸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무심코 며느리에게 욕을 해 버렸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말도 아니고 좆도 아니다."라고 핀잔을 주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좀 두메산골에 살았는데, 살았는데, 아이, 보통 가는 산골 논다랭이, 논두렁은 높고, 그 논바닥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 형편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 인제, 모심기를 할라고 가래질을 하는데, 가래질. 시아버지는 가랫장구를 치고 대고, 인제 아들이 줄을 하나 땡기고, 며느리가 하나 줄을 땡기고. 보통 줄, 둘이 줄을 땡기고, 하나는 가래 빼거든.

아 그래 하는데, 이놈의 아들놈은 힘이 좋으니까 뿔뚝뿔뚝 땡기는데, 며느리는 약하다. 약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 그 쎈 사람이 있으면, 가래가 삥삥 돌아 가는게 손바닥이 아파 죽을 지경이라.

부화가 날 대로 났단 말이야, 시아버지가. 그렇다고 약한 사람이 보통 쭉쭉 딸라 들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무심쩍으로 한 소리지 그게. 욕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들어오긴 뭐 좆 빨러 들어와."

며느리보고. 힘이 약해 쭉 따라 들어오니깐. (청중 : 쎄게 땡기니까네.) 그러니깐 아들놈이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깐,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하니깐 그 참 안되는 거 아이래. 그래서,

"거기사 말도 아니고 좆도 아니다."

이랬단 말이야.

[연제구 설화 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G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옛날 전설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조사자의 부탁에 제보자는 다음 고려장 이야기를 해 주겠다며 자신 있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 고려장이 있던 시절에 아버지가 할머니를 지게에 지고 가서 산에 버리고 내려오려고 했다. 아버지를 뒤따라 간 아들이 지게를 주워서 가져 오려고 했다. 아버지가 지게를 그냥 두고 가자고 하니, 아들이 아버지도 나이가 들면 지게에 지고 갖다 버리려면 지게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를 산에서 모시고 내려왔다.

옛날에 저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할매가 칠십 고려장, 옛날에는 칠십 고려장이라 했거든.

오래 사니까 인자 칠십 고려장 한다꼬. 그래가 지게에다 담아지고 할매로 산에 저 가서 인자, 산에 인자 가서로 묻을라꼬 이래 토굴 해가지고 묻어놓으모, 거 쌀 쪼깨 하고, 쌀 쪼깨하고 거 무덤에다 딜라 주몬, 거 쌀 떨어지몬 인자 돌아가시거던.

그래가 지고 가이끼네 손자가 뒤로 살살 따라가서 봤는 기라.

'할매로 어데 가서 아버지가 지고 가는가?' 싶어가 따라가이끼네, 참 저거 아버지가 산골산골 가가지고 저거 할매로 갖다 거(거기) 니라놓고 오거던. 오니까 그래,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게 저거."

지게를 마 내삐리고 오더란다. 내삐리고 오는데 그래 인자 그 아 손자가, 지게로 조아가(주워서) 오는 기라.

조아 오니끼네 저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게 거 니 말라 가지가노 버리라."

이러카이께네,

"아부지요, 아부지요. 나도 훗날에 저 후제 커가지고 아버지 연세 많으마 나도 아버지 담아다 갖다 버릴라꼬 내 가져가야 된다."

이라더란다. 그라이께네 저거 할매로, 저거 엄마로 가서 다부(다시) 지고 오더란다. 다부 지고 오더란다.

[연제구 설화 4]

토끼에게 속아 아기를 삶아 먹은 노부부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G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는지 앞에서 구술한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해주었다.
줄 거 리 : 농사를 망치는 토끼를 잡기 위해 할아버지는 죽은 척 하고 있다가 토끼를 잡았다.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솥에 넣어 두었는데, 토끼가 몰래 빠져나와 방 안에 있던 아기를 솥에 넣고 숨었다. 노부부는 아기가 토끼인 줄 알고 솥에 삶아먹게 되었다. 토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리며 산으로 도망쳤다.

영감하고 할마이하고 둘이 사는데, 저 산 밑에서러 밭에, 밭을 쪼사가지고 팥도 숨구고 콩도 숨구고 녹두도 숨구고 이래가지고, 그래 인자 그거 뚜드리가 그래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놈 토끼가 니러 와가지고 말쭘다(모두 다) 저 저 뭐꼬 짐승이 내리와가지고 다 저저 뭐꼬 녹두도 따먹고 콩도 따먹고, 이래가 농사가 안 되거든.

이라이께네 주인이, 할배 영감이 콩밭에 딱 눕어가 죽인 치로(죽은 체로) 딱 눕어가 있거든.

눕어가 있으이 토끼가 한 마리 톡딱톡딱 띠(뛰어) 내려오더만은 할배가, 주인 할배가 떡 죽어가 있거든. 이라니끼네,

[토끼가 노래를 부르듯이]
"양달음달 토깐아
녹디영감 죽었다
칠기한상 해온나."

칠기줄(칡 넝쿨 줄) 그걸로 와 묶으거던. 그거 묶아가지고 인자 할배 인자 갖다 버릴라꼬. 그라이끼네 할배가 고라자(그렇게 하자) 마 할배가 토끼를 탁 잡아뿟는 기라.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 와서러 솥 안에다 딱 여놓고 삶아 물라꼬, 솥 안에 딱 여놓고 할배는 마 칼로 갈고 할매는 인자 물 이러 갔는 기라. 인자 토끼 잡아 물라꼬.

이래가지고 방에 알라를 닙피(눕혀) 낳는데, 토끼가 탁 문을 열고 나오가 알라를 갖다 솥에 여놓고, 토까이는 딱 지붕 우에 올라가 딱 숨어가 있거던. 있으이께네 할마이하고 영감할마이 알라 그거를 삶아가 묵고 이라이.

"영감 영감, 이거 똑 우리 아, 알라 손겉다."

이라이께네,

"요새 토까이 온(본래) 그렇다."

또,

"영감 영감, 요거 또 우리, 우리 저 알라 발 겉다."

카이,

“요새 토까이 온 그렇다.”

그래가 그래 둘이서 먹고 있으이께네 토끼가 폴짝폴짝 뛰 가면서러 뭐라 카노 하면,

“지 자석 지 잡아묵는데 어느 놈이 뭐라 칼까?”

카며 막 뛰가 산에 올라 갔부더란다.

[연제구 설화 5]

좆총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GS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호랑이에 관한 우스개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포수가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갔다.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포수는, 너무 놀라서 순간 바지가 벗겨져 버렸다. 그런데 마침 속옷을 안 입은 터라 호랑이는 남자의 남근을 무서운 총인 줄 알고 오히려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 다행히 포수는 살아서 숲속을 나오게 되었다.

포수가 인자 깊은 산중에 인자 옛날에, 호랑이 잡으러 인자 사냥을 가는데. 그래 인자 그 곳, 그곳에는 포수가 들어가마 드가는 포수는 봐도 나오는 포수는 없는 기라. 호랑이한테 다 잡아믹히고. 마 살아 나오질 못 하는 기라.

그래가 어떤 사람한테 그래,

“호랑이 잡으러 갈라 카면 이리 갈 수 있느냐?”

카이께네,

“아이고 가지 마라.”

카거던. 그 사람이,

“드가는 포수는 봐도 나오는 포수 없으니이께네 절대로 거 가면 안 돼. 잡아먹힌다. 가지 마라.”

카이께네, 이 사람 지가 자신 있게 드가라 카네.

드가이께네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가 어흥- 하며 잡아물라 달려드이께네 영감, 이 남자 포수가 마 놀래가지고 마 허리끈이 터지가(터져서) 주우가(바지가) 싹 벗기뿠는 기라.

주우가 탁 벗기이께네, 꼬치하고 불알하고. 불알이 이래 있고 꼬치가 이래 있거던. 이라이

께네 호랑이가 하는 생각이, '야. 나는 포수 저 총 봐도 저런 총은 첨 봤다.' 한다. 꼬치 그거를 총인 줄 알고. 그 양쪽에 마 돌띠 겉은 기 하나 달리가 있고, 총이 저,

"저런 총은 첨 봤는데."

카매 마 호랑이가 도망을 갔는 기라. 호랑이가 도망을 가 그 포수가 안 잡아먹히고 살아나 왔단다. [일동 웃음]

그래가 인자 나온다. 나오니끼네 어떤 할매가 밭에 무슨 일을 하고 있거던. 그래,

"할매요 할매요. 내가."

아, 호랑이가,

"할매요 할매요. 내 오늘 희안한 총을 봤어요."

"무슨 총을 봤노?"

카이께네,

"총이요 이거만 한데요. 가에 뭣이 막 달리가지고 총이 그래가 내가 무섭아 도망 왔소."

카이께네,

"그래 봐라. 그 총이 얼매나 무섭은 줄 아노?"

할매가 꼬치를 내민서러,

"우리가 그 총 맞고 이리 이래 돼가 안 있나."

[웃으며] 그라더란다.

[연제구 설화 6]

봉사와 벙어리 부부의 대화법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GS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지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자, 제보자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봉사와 벙어리 노부부가 있었다. 어떤 집에서 불이 나자 벙어리 할머니가 그 상황을 보고 왔다. 봉사 할아버지가 어떤 상황이냐고 묻자 할머니는 말하는 것 대신 봉사의 신체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봉사 남편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였다.

봉사하고 버부리하고(벙어리하고) 둘이 부부간에 사는데, 사는데, 저 만댕이(꼭대기) 집에서 불이 났는 기라.

그래 인자 봉사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귀는 듣기고, 버부리는 인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눈은 보이거든.

그래가 인자 영감이, 저 저, 봉사 영감이,

"저 불났단다. 가봐라 구경하고 온나."

카며 보냈는 기라. 할마이를 보내이께네, 그래 가보이께네 저 만대이 집에서 불이 났거던.

"그래 마 이것 저거 다 타고 마 도리 지붕만 남아 있고."

이러카이, 그래 니리 와가지고 영감이 하는 말이,

"불이 어데 났더노?"

카이께네, 영감쟁이 이마를 탁 때리끼네,

"옳다. 저 만당(꼭대기) 집에서러 만대이 집에서 났구나."

이카거던. 그래 났다.

"그래 뭐 하다 불났더노?"

카이께네, 영감 불알로 탁 탱가이꺼네,

"옳다. 감자 꿉아 먹다 났구나."

이카거던.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얼마나 탔더노?"

카이끼네, 영감쟁이 꼬치를 탁 팅가이,

"아! 이것 저것 다 타고 도리지둥만 남았구나."

이래 카더란다.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7]

똥을 싸고 날아간 제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GS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입담이 좋은 제보자는 하나의 이야기를 마치면 또 생각해 둔 다른 이야기를 구연했다.
줄 거 리 : 제비가 날라 가면서 똥을 쌌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행인의 어깨에 똥이 묻었다. 행인이 화가 나서 제비에게 속옷을 입으라고 항의하자, 제비가 속옷 입고 어떻게 똥을 싸냐고 하며 오히려 대꾸하였다.

제비가 한 마리 날라 가면서 내 옷에다 똥을 딱 싸고 날라가뿠거든.

그래 이리 찾아보고, 제비를 보고,
"야 이 새끼야. 저 저 뭐꼬 니는 팬티도 안 입고 댕기나?"
이카거던. 팬티를 입으몬 여어 안 쌀낀데.
"니는 팬티도 안 입고 댕기나?"
카이께네, 제비가 하는 말이 뭐라 캤겠노?
"니는 팬티 입고 똥 누나?"
카더란다. [일동 웃음]

[연제구 설화 8]

앉은뱅이, 귀머거리, 봉사의 어긋난 대화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GS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앞의 청중이 봉사 이야기를 했던 것이 실 없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제보자는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난다며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앉은뱅이, 귀머거리, 봉사가 살았다. 앉은뱅이가 구경하러 가자고 하자, 귀머거리는 종소리가 들린다 하고, 봉사는 태극기가 보인다고 했다.

앉는뱅이하고 봉사하고 귀머거리하고 사는데, 귀머거리는 아무리 징 장구 뚜디러도 안 듣기고, 봉사는 아무리 태극기가 날리도 안 보이고, 앉은뱅이는 아무리 구경하러 가고 싶어도 걸음을 못 걸으이 몬 가거던. 그래 인자 봉사가 하는 말이,
"태극기가 펄펄 날린다."
이카거든. 지한테 안 맞은데, 지 봉산데 태극기가 보이나?
"태극기가 펄펄 날린다."
이카거든.
그래 앉은뱅이가 저 저 뭐꼬, 그 귀머거리가 있다가
"아따. 어데서 굿 하는가 굿 소리가 막 징 소리가 막 난다."
이카거든. 지 귀에 안 듣기는데, 징 소리가 난다 카이, 그라이께네 앉은뱅이가 있다가,
"그라면 구경하러 가까?"
이카거던.
"우리 굿 구경 가자."

아카이께네, 지가 앉은뱅이가 굿 구경 어예 가노? 못 가지. 전부 저거 서이서(세 명이서)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기라. [웃음]

태극기가 날리, 봉사라서 보이나? 또 귀머거리는 아무리 징 장구를 치도 안 듣기는 기,

"아따 어디서 징 장구를 막 치고 굿, 어디 굿 하는갑다."

이카고. 앉은뱅이는 다리가 앉아가 못 일라이께네 구경하러 갈 수가 있나? 그렇는 기.

"아따, 굿 구경하러 갈래?"

카거던. 그러니께 전부 지한테 안 맞는 걸로 말로 하는 기라.

[연제구 설화 9]

동래온천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GS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동래 온천에 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 설명해 보겠다며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다리가 부러진 학이 동래온천 물에 다리를 담그자 아픈 다리가 저절로 치료가 되어 다시 날아갈 수 있었다.

옛날에 제일 그 온천물 날 때, 뜨신 물이 나오가지고, 학이 다리를 뿌러가지고, 다리가 뿌러지가 그 온천물에 그 댕기면서러, 온천물에 그 신경통 겉은 거 이런 거 온천물에 인자 마이 간다 아이가.

그래 그 학이 그 온천물 거게 걸어 댕기면서러 뜨겁운 물에 댕기다가, 그 학이 다리가 낫아가 날라가더라 카대.

거기 전설에 인자. 옛날에.

[연제구 설화 10]

혀 짧은 일본 순사의 말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GS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산 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고계순, 여, 80세
구연상황 : 민요 구연이 멈추어 잠시 조용한 분위기가 되자, 제보자가 문득 다음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일제 강점기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불을 끄고 다투고 있었다. 그러자 혀가 짧은 일본 순사가 와서 짧은 소리로 집의 시비가 말의 시비, 말의 시비가 나라의 시비가 된다고 했다.

옛날 일본 제국시대에 일본놈 순사 앞잽이가 있거던.

그래 순사 앞잽이가 있는데, 어는 집에 전기세 나간다고 불로 끄고 콩을 영감, 할마이 둘이서 까민서러, 둘이서 영감 할마이 둘이서 콩을 까면서 시비를 하고 있거던.

시비가 있으이, 그 순사 앞잽이, 순사 앞잽이 그 사람이 그 무슨 인자 말 전달 해 줄게 있어서 그 집에 떡 가니까, 불로 꺼놓고 콩을 까고 있으면서 둘이서 영감 할마이 시비를 하고 있거던.

이라이께네 일본 앞잽이 순사 그 사람이 해가 짤라가지고(짭아서),

“긴상 긴상. 불이로 꺼놓고 공아르로 까마 콩아르로 까지, 시비노 무슨 시비노데스까? 집안의 시비노가 말의 시비노데스. 말의 시비노가 나라의 시비노데스.”

(청중 : 그런 거 욕한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시비라 카는 기 무신 날 로 저 저. (청중 : 노래나 부르고 하지. 거기 뭣인고.) 시비, 인자 말의 시비가, 집안의 시비가 말의 시비 되고, 말의 시비가 나라의 시비가 된다꼬. 그래 인자 해가 짤라 놔놓이끼네 인자 그래 인자 그 카더라.

[연제구 설화 11]

도깨비에게 홀린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NJ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남진, 남, 72세
구연상황 :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자신이 들은 도깨비 이야기가 있다며 웃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늦은 밤에 도깨비에게 홀려, 여기저기 끌려 다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려서 집으로 들어왔다.

술을 마이 자싰는데, 촌에 가면 장이 멀다 아입니꺼 형님. 20리 길에, 20리 이래 거리가 장이 멀어. 먼데, 인자 장이, 인자 파장 때까지 있다가 오다가 술을 마이 먹고 오다가 밤새도록 산으로, 마마 까시밭으로, 마 물로.

밤새도록 고게는 달(닭) 울 때 집에 들어왔다 카는 소리 내가 들었다. 닭 울 때 인제 그때 정신을 재리가지고 집에 들왔다.

[연제구 설화 12]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NJ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남진, 남, 72세
구연상황 : 도깨비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도깨비와 씨름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칼로 찔러버렸다. 그 이튿날 가보니 도깨비는 없고 사람들이 쓰다 버린 빗자루에 칼이 꽂혀 있었다.

옛날에, 좀 똑똑한 사람이라. 칼 가지고 그걸 찔러뿠는 기라. 그 이튿날 아침에 가이께네, 그, 거기다 칼이 꼽히가 있고.

(조사자 : 어디?) 거 거 인자, 홍두깨 홍두깨. (조사자 : 홍두깨에 칼이 꽂혀있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빗자루에도 그린 기 있고, 홍두깨에도 그런 기 있고.

씨름을, 씨름을 자꾸 하자 카더라네, 술에 취했는데. 그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마 머리에 든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인자 얘기도 어데 들었든가, 인자 칼을 빼가지고 꽂으이께네, 꽂고 그 이튿날 가보이께네, 빗자루 몽둥이 있지요. 빗자루 몽, 몽디. 촌에 쓰다가 못 쓰는 거 길가 버린다 아이가. 거다(거기에) 칼이 꽂혀가 있더래요.

[연제구 설화 13]

멧돼지를 피해서 나무에 올라간 약초꾼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N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남진, 남, 72세
구연상황 : 지리산 이야기를 제보자들끼리 하는 도중에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며 조심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어느 사람이 약초를 캐러 갔다. 약초를 캐고 있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 약초꾼은 급한 마음에 나무에 올라갔다. 멧돼지가 나무 밑에서 약초꾼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약초꾼은, 두 시간동안이나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약초를 캐러 갔는데, 약초 캐다이니까네, 멧돼지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발병을 그 할거고. 나무가, 마침 또 큰 기 있어가지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두 시간 동안에 나무에 있었대.

그 나무 던지고, (조사자 : 나뭇가지를?) 나뭇가지 던지고, 던지고 이래가지고, 두 시간까지 나무에 있다가 내려왔대.

그래 거는 멧돼지가 많아요. (조사자 :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두 시간 마 있다가 그래 내려왔다는 소리만 들었지.

(조사자 : 왜 두 시간 있었냐 하면, 계속 지키고 있으니깐?) 거 거 앉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네, 못 내려오지. (조사자 :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깐?) (청중 : 내려 오면 잡히는데.) (조사자 : 두 시간 동안이나?) 두 시간 동안이나.

[연제구 설화 14]

고무신을 신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문칠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PO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옥순, 여, 84세
구연상황 : 청중들 사이에서 문출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자, 제보자가 재미난 이야기라며 청중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문출네라는 사람이 어렵게 장사한 돈으로 비싼 고무신을 하나 샀다. 문출네는 신을 너무 아끼느라 신지도 못하고 안고 가다가 그만 기차에 두고 내렸다.

함안 읍네 문출네가, 진짜 문출네라 거기.

그래 인자, 소금장사하면 비 오고,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우찌우찌 해가

지고 벌이갖고 고무신을 한 켤레 샀는데.

이래갖고 인자 신고 가다가, 이거 아깝다고 기차에 살 벗어 이래 놨는데, 모르고 그냥 내리삤거던. 그러니께,

“아이고! 어짜꼬이. 많이나 신었나 반나잘. 문수나 작나 이십 오문. 고무나 나쁘나 신라고무.”

이라면서 탄식을 하고 가더란다.

[연제구 설화 15]

고무신을 신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문칠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LSG_0001
조사장소 : 부산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수금, 여, 77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제보자에게 고무신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웃으면서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문칠이가 귀한 고무신을 하나 구입했다. 고무신을 가지고 놀다가 얼마 안 가서 잃어버렸다.

옛날에 문칠이가, 문칠이가 그래 저 저 저 신을, 신을 하나 샀는데, 구포 뚝에서 인자 내-이래 가 놀다가 신을 잃어뿠는 기라.

잃어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고무나 나쁘나 신라고무. 저 저 문수나 작나 25문. 저 저 저 신기나 많이 신었나 딱 반나잘.”

그래가 신 잃어뿠다고 그래. (청중 : 아까바 죽겠다.) 그래가 아깝에서 인자 거 한다꼬.

[연제구 설화 16]

도깨비와 싸운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LJK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거송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종기, 남,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그런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며 자꾸 말하기를 꺼리다가 결국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술을 마신 선비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어두운 산 속에 불빛이 있어 찾아가보니, 도깨비가 불을 번쩍 거리며 달려들었다. 한참 싸운 뒤 다음날 확인해 보니, 도깨비가 아니라 빗자루였다.

옛날에 그 선비가 어 주막집에 인제 술을 그 먹었어. 이래 먹고 인자 그 자기 집이 산을 넘어 가야되니깐, 산을 가는데 그 인제 어데 불이 빤한 거야. 산에 밤, 밤, 밤이니깐.

거기 찾아 가는데, 어느 놈이 인자, 술이 되니깐 천지도 모르지. 공동산을(공동묘지가 있는 산을) 이제 지내가야 돼.

공동산을 지내, 참 아닌 말로 뭐, 불이 번쩍번쩍 것더니마는 달려드는 기, 기 아마 싸움했어, 토째빈가(도깨비인가) 봐 그게.

그래, 한참 싸우보니 하도 뭐 문 닫고 집에 왔다 보이 그 이튿날 가보이, 이제 그게 토째비라 카는 기 빗자루라, 빗자루.

빗자루랑 밤새도록 싸웠는데, 땀이나 죽겠네, 토째비가 결과적으로 인제 사람이 요는 거 혼을, 그 인자 사람의 혼을 인자 빼버린 거지, 그게 인자. 그게 토째비라, 그기.

[연제구 설화 17]

개보다 못한 부모 신세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LJK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거송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종기, 남, 75세
구연상황 : 한 쪽에서는 화투판이 벌어졌지만, 제보자는 조사자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줄 거 리 : 부잣집 아들이 공부해서 서울로 가서 잘 살고 있었다. 부모님께 땅을 다 팔고 돈을 가지고와서 같이 살자고 했다. 아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자식들이 부모보다 손자와 집에 키우는 개를 더 귀하게 여겼다. 화가 난 아버지는 일부러 개집에 들어가서 개보다 못한 신세라고 한탄하며 다시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다. 노부모는 다시 재산을 받아 나와서 살게 되었다.

거 옛날에 참 거 아들이 참 아인 말로 공부를 해가 서울 갔어요. 서울 가서 인자, 참 잘 살아.

부부간에 잘 사는데, 인자 집에 딱 촌에 그 영감 할마이, 논이 많이 있었어. 이 아들내미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 고생하지 말고 논 다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올라오시오. 그라몬 내가 호강을 시키 주께."

인자, 할 수 없이 카는 중에 갔어. 갔는데, 가만히 보니 손자하고 개하고 여럿이 있어. 그 자기가 몇 챈고 하니깐, 개 다음에 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자기 할마이고, 그렇더래. 그래 젤(제일) 끝이라.

맨날 이놈우 자석, 뭐 아침에 출근하몬 영감 할마이는 집에 있는 거야. 돈도 인자 다 뺏기 뿌고 없지. 그래, 한 번은 저그 출근하는데 개집에 드갔어. 옛날에 개집 드가가, 아이, 퇴근해가 오이 아이 이놈의 개집에 들앉았거든.

"왜 개집에 있느냐?"

"임마, 내 돈도 다 내놔라. 임마 너거 개카마(개보다) 못하나? 내가 뭐하는 짓이냐?"

그래가 전부 인자 돈, 개카마 못 한다 캐서, 그 부부가 돈을 다 청산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좋은 데로 왔대.

[연제구 설화 18]

멧돼지를 피해서 나무에 올라간 약초꾼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KNJ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남문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김남진, 남, 72세
구연상황 : 지리산 이야기를 제보자들끼리 하는 도중에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며 조심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어느 사람이 약초를 캐러 갔다. 약초를 캐고 있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 약초꾼은 급한 마음에 나무에 올라갔다. 멧돼지가 나무 밑에서 약초꾼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약초꾼은, 두 시간동안이나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약초를 캐러 갔는데, 약초 캐다이니까네, 멧돼지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발병을 그 할거고. 나무가, 마침 또 큰 기 있어가지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두 시간 동안에 나무에 있었대.

그 나무 던지고, (조사자 : 나뭇가지를?) 나뭇가지 던지고, 던지고 이래가지고, 두 시간까지 나무에 있다가 내려왔대.

그래 거는 멧돼지가 많아요. (조사자 :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두 시간 마 있다가 그래 내려왔다는 소리만 들었지.

(조사자 : 왜 두 시간 있었냐 하면, 계속 지키고 있으니깐?) 거 거 앉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네, 못 내려오지. (조사자 :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깐?) (청중 : 내려 오면 잡히는데.) (조사자 : 두 시간 동안이나?) 두 시간 동안이나.

[연제구 설화 19]

고무신을 신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문칠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PO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박옥순, 여, 84세
구연상황 : 청중들 사이에서 문출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자, 제보자가 재미난 이야기라며 청중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문출네라는 사람이 어렵게 장사한 돈으로 비싼 고무신을 하나 샀다. 문출네는 신을 너무 아끼느라 신지도 못하고 안고 가다가 그만 기차에 두고 내렸다.

함안 읍네 문출네가, 진짜 문출네라 거기.

그래 인자, 소금장사하면 비 오고,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우찌우찌 해가지고 벌이갖고 고무신을 한 켤레 샀는데.

이래갖고 인자 신고 가다가, 이거 아깝다고 기차에 살 벗어 이래 놨는데, 모르고 그냥 내리삤거던. 그러니께,

“아이고! 어짜꼬이. 많이나 신었나 반나잘. 문수나 작나 이십 오문. 고무나 나쁘나 신라고 무.”

이라면서 탄식을 하고 가더란다.

[연제구 설화 20]

고무신을 신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문칠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LSG_0001
조사장소 : 부산시 연제구 연산6동 양지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수금, 여, 77세
구연상황 : 다른 제보자가 제보자에게 고무신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하자 제보자가 웃으면서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문칠이가 귀한 고무신을 하나 구입했다. 고무신을 가지고 놀다가 얼마 안 가서 잃어버렸다.

옛날에 문칠이가, 문칠이가 그래 저 저 저 신을, 신을 하나 샀는데, 구포 뚝에서 인자 내- 이래 가 놀다가 신을 잃어뿠는 기라.

잃어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고무나 나쁘나 신라고무. 저 저 문수나 작나 25문. 저 저 저 신기나 많이 신었나 딱 반나잘."

그래가 신 잃어뿠다고 그래. (청중 : 아까바 죽겠다.) 그래가 아깝에서 인자 거 한다꼬.

[연제구 설화 21]

도깨비와 싸운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LJK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거송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종기, 남, 75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그런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며 자꾸 말하기를 꺼리다가 결국 다음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에 술을 마신 선비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어두운 산 속에 불빛이 있어 찾아가보니, 도깨비가 불을 번쩍 거리며 달려들었다. 한참 싸운 뒤 다음날 확인해 보니, 도깨비가 아니라 빗자루였다.

옛날에 그 선비가 어 주막집에 인제 술을 그 먹었어. 이래 먹고 인자 그 자기 집이 산을 넘어 가야되니깐, 산을 가는데 그 인제 어데 불이 빤한 거야. 산에 밤, 밤, 밤이니깐.

거기 찾아 가는데, 어느 놈이 인자, 술이 되니깐 천지도 모르지. 공동산을(공동묘지가 있는 산을) 이제 지내가야 돼.

공동산을 지내, 참 아닌 말로 뭐, 불이 번쩍번쩍 것더니마는 달려드는 기, 기 아마 싸움했어, 토째빈가(도깨비인가) 봐 그게.

그래, 한참 싸우보니 하도 뭐 문 닫고 집에 왔다 보이 그 이튿날 가보이, 이제 그게 토째비라 카는 기 빗자루라, 빗자루.

빗자루랑 밤새도록 싸웠는데, 땀이나 죽겠네, 토째비가 결과적으로 인제 사람이 요는 거 혼을, 그 인자 사람의 혼을 인자 빼버린 거지, 그게 인자. 그게 토째비라, 그기.

[연제구 설화 22]

개보다 못한 부모 신세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2_PKS_LJK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거송경로당
조사일시 : 2010.2.2
조 사 자 : 박경수, 서정매, 황영태, 최수정
제 보 자 : 이종기, 남, 75세
구연상황 : 한 쪽에서는 화투판이 벌어졌지만, 제보자는 조사자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줄 거 리 : 부잣집 아들이 공부해서 서울로 가서 잘 살고 있었다. 부모님께 땅을 다 팔고 돈을 가지고와서 같이 살자고 했다. 아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자식들이 부모보다 손자와 집에 키우는 개를 더 귀하게 여겼다. 화가 난 아버지는 일부러 개집에 들어가서 개보다 못한 신세라고 한탄하며 다시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다. 노부모는 다시 재산을 받아 나와서 살게 되었다.

거 옛날에 참 거 아들이 참 아인 말로 공부를 해가 서울 갔어요. 서울 가서 인자, 참 잘 살아.

부부간에 잘 사는데, 인자 집에 딱 촌에 그 영감 할마이, 논이 많이 있었어. 이 아들내미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 고생하지 말고 논 다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올라오시오. 그라몬 내가 호강을 시키 주께.”

인자, 할 수 없이 카는 중에 갔어. 갔는데, 가만히 보니 손자하고 개하고 여럿이 있어. 그 자기가 몇 챈고 하니깐, 개 다음에 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자기 할마이고, 그렇더래. 그래 젤(제일) 끝이라.

맨날 이놈우 자석, 뭐 아침에 출근하몬 영감 할마이는 집에 있는 거야. 돈도 인자 다 뺏기 뿌고 없지. 그래, 한 번은 저그 출근하는데 개집에 드갔어. 옛날에 개집 드가가, 아이, 퇴근해

가 오이 아이 이놈의 개집에 들앉았거든.

“왜 개집에 있느냐?”

“임마, 내 돈도 다 내놔라. 임마 너거 개카마(개보다) 못하나? 내가 뭐하는 짓이냐?”

그래가 전부 인자 돈, 개카마 못 한다 캐서, 그 부부가 돈을 다 청산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좋은 데로 왔대.

* 이상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 - 중부산권)』, 2015, 606~629쪽.

Ⅲ. 문헌 소재 설화

1. 부산진구 설화

2. 연제구 설화

1. 부산진구 설화

[부산진구 설화 1]

華池山과 鄭氏 墓[71]

지금 楊亭洞에 있는 東萊 鄭氏 墓 는 약 九백년 전에 시조 鄭文道 공이 묻힌 곳인데 풍수설에 의하면 이 묘지를 잘 뒀기 때문에 그 후손들 중에 많은 정승이 났고 그밖에도 출세한 자손들이 많아 종중이 번영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조 때 東萊府使 高益鎬가 부산 쪽을 순시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鄭氏 墓가 있는 華池山 기슭에 이르자,

「좋기는 하나…」라고 입속말을 하면서 무엇인가 쓴 표정을 짓는 것을 수행하던 鄭公의 큰아들인 戶長이 들었다. 그 후도 여러 차례 부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戶長은 귀담아 들었다.

몇 해가 지난 후 高府使는 경상도백으로 승진하고 鄭公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때 戶長은 어버이의 묘지 때문에 걱정하다가 문득 高府使의 말이 생각나서 선산을 華池山으로 정했다. 다음날 戶長은 동생과 함께 무덤에 가보니 누구의 소행인지 묘지가 파헤쳐져 棺이 땅위에 보일 지경이었다. 두 상주는 다시 묘를 봉하고 그날 밤은 묘 옆에 숨어 지키기로 했다.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깨비 같은 괴물이 모여들더니「여기가 어디라고 누가 이따위 나무관을 묻었어! 적어도 金棺을 묻어야지……」하면서 묘를 파헤쳐 놓고 사라졌다. 가난한 두 형제는 金棺이란 말에 어이가 없어 마주보고 울기만 했다. 그때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밤중에 웬 사람들인고?」라고 사연을 묻기에 상주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노인은「그것은 도깨비들의 장난임에 틀림없네. 도깨비 눈에는 보리짚이 금빛으로 보인다고 하니 보리짚으로 관을 잘 싸두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날이 새자 두 형제는 보리짚으로 알뜰히 관을 싸서 다시 묻고 밤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밤중에 도깨비가 또 나타나서 무덤을 파헤쳤으나 마침 달밝은 밤이라 보리짚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떠올랐다. 도깨비들은「금관이야, 이젠 됐어 어서 가자」하며 그 행적을 감추었다.

그 후부터 생계가 유복해진 戶長은 대감이 된 高府使를 찾아 상경하였다. 오래간만에 인사

71) 정묘(鄭廟)가 위치한 화지산이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쳐 있어 각각 부산진구와 연제구 설화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런데 정묘의 현재 주소지가 부산진구 양정동으로 되어 있어 '부산진구 설화'로 수록했음을 밝혀둔다. -편자 주.

를 받은 대감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에 작고한 사연부터 선산을 華池山에 모실 때 범이 나타나서 울더라는 말까지 했다.

갑자기 안색이 돌변한 高大監은 크게 노하면서 불문곡절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戶長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대감은 하인을 시켜 그를 다시 집안으로 불러 들였다.

「그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느냐?」 캐어묻는 대감의 물음에 戶長은 기억을 더듬다가 그해 여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뇌성벼락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華池山 건너편 산중턱에 있는 怪視岩이란 큰 바위가 조각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소를 띤 고대감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동래에 있을 때 그 산세가 뛰어나 先山 자리로선 명당이라고 보았지만 자손에 逆賊이 나올 우려가 있어 지나기만 했지, 그런데 자네가 그곳에 선산을 썼다니 나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인연이라 축출한 것이니 양해하게. 그리고 天變으로 怪視岩이 깨어졌으니 이제 화근은 없어졌네」라고 말했다.

다음 날 고대감은 자기 딸을 정문도의 큰아들 대신 과거에 응시케 하여 及第의 영광을 입히더니 이어서 큰 벼슬자리까지 주었다. 이리하여 정씨 문중에 인물들이 속출하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눈이 내리면서 이 墓 자리만은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64~166쪽.

[부산진구 설화 2]

화지산(華池山)과 정씨(鄭氏)의 무덤

부산 양정동에 있는 동래 정씨 무덤은 시조 정문도(鄭文道)가 묻힌 곳인데 묘지를 잘 썼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 중에 많은 정승이 나왔고 그 밖에도 출세한 자손들이 많아 종중이 번영했다고 전해 오고 있다.

고려 때 동래부사 고익호(高益鎬)가 부산 쪽을 순시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정씨 부인이 있는 화지산(華池山) 기슭에 이르렀다. 고익호는 산기슭에서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좋기는 좋은데……」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무엇인가 쓴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이때 그를 수행하던 정문도의 큰 아들인 호장(戶長)이 고익호 부사의 말을 얼핏 들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고익호 부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호장은

귀담아 듣고 궁금하게 여겼다.

몇 해가 지난 후 고익호 부사는 경상도백으로 영전하고, 정문도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 호장이 아버지의 묘비 때문에 걱정하다가 문득 고익호 부사의 말이 생각나서 선산을 화지산으로 정했다.

다음날 호장은 동생과 함께 묘지에 가 보니 누구의 소행인지 묘지가 파헤쳐서 관이 땅 위에 보일 지경이었다.

두 형제는 다시 묘를 봉하고 그날 밤에 묘 옆에 숨어서 지키기로 했다.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깨비 같은 괴물이 모여들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누가 이따위 나무관을 묻었어! 적어도 금관을 묻어야지....」

가난한 두 형제는 금관이란 말에 어이가 없어 마주보고 울기만 했다.

「이 밤중에 웬 사람들인고?」

그때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 사연을 묻는 것이었다. 형제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것은 도깨비들의 장난에 틀림없네. 도깨비 눈에는 보리짚이 금빛으로 보이니 보리짚으로 관을 잘 싸두게.」

날이 새자 두 형제는 보리짚으로 알뜰히 관을 싸서 다시 묻고 밤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밤중에 도깨비가 또 나타나서 무덤을 파헤쳤으나 마침 밤이라 달빛은 보리짚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떠올랐다.

도깨비들은,

「금관이야, 이젠 됐어. 어서 가자.」하며 사라졌다.

그 후부터는 생계가 유복해진 호장은 대감이 된 고익호 부사를 찾아 상경하였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받은 대감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에 작고한 사연부터 선산을 화지산에 모실 때 범이 나타나서 울더라는 말까지 했다.

갑자기 안색이 돌변한 고대감은 대노하면서 불문곡절하고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호장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대감은 하인을 시켜 그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느냐?」

캐어묻는 대감의 물음에 호장은 기억을 더듬다가 그해 여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화지산 건너편 산 중턱에 있는 괴시암(怪視岩)이란 큰 바위가 조각조각으로 무너졌습니다.」

미소를 띤 고대감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지었다.

「그래! 내가 동래에 있을 때 산세가 뛰어나 선산으로선 명당이라고 보았지만 자손에 역적이 나올 우려가 있어 지나기만 했지. 그런데 자네가 그곳에 선산을 썼다니 나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인연이라 내쫓은 것이니 양해하게. 그리고 천변으로 괴시암이 깨어졌으니 이제 화근은 없어졌네.」

다음 날 고대감은 정문도의 큰아들 대신 과거에 응시케 하여 급제시키고 이어서 큰 벼슬까지 주었다.

이리하여 정씨 문중에 인물들이 속출하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눈이 내려도 이 정씨 무덤만은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동래지」 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39쪽.

[부산진구 설화 3]

명당 화지산(和池山)과 동래시조 정문도(鄭文道) 묘터

화지산(和池山 또는 華池山)은 연제구 거제4동과 부산진구 양정1동 일대에 걸쳐있는 해발 142.4m의 명당 지세의 산이다.

이 화지산은 동래 정씨 시조 정문도(鄭文道)의 묘소를 안치한 곳으로 속설에 묘터가 좋아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제3장 연제구를 빛낸 인물 중 고려 중기 문신 정서(鄭敍)도 바로 동래 정씨이다.

신라 유리왕 9년(32)사이에 지금의 경주 일대에 6부족장들에게 이(李) 최(崔) 정(鄭) 손(孫) 배(裵) 설(薛)의 6성을 내렸다고 하니 정씨의 기원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시대의 정씨 본관은 경주 정씨의 하나였는데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은 무려 210본(또는 247본)으로 늘어났다. 그중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경주 정씨의 원조 본관을 비롯하여 동래, 연일, 하동, 초계, 봉화, 나주 등의 정씨 본관들이 대표적인 본관이다.

지금 부산의 동래 정씨 계보를 보면 신라시대의 경주 정씨 시조 지백호의 후손 중 한 가계를 이룬 신라 말 정회문(鄭繪文)이 원조이고 고려 초 정지원(鄭之遠)이 동래 정씨 문중의 시조이다. 그러나 문중에서는 정지원을 이은 정문도가 동래 정씨 시조라 하여 지금 화지산 묘소에 그를 시조로 인정하여 모시고 있다. 고려 초 동래의 호장(戶長)이었다고 하는 정문도의 세 아들 중 정목(鄭穆)은 동래에서 고려 수도 개경에 상경하여 과거시험에 등제하여 중앙관직을 거치고 이로 인하여 고익공(高益恭)의 딸과의 사이에서 네 아들을 두게 되고 막내아들 정항(鄭沆)과 정항의 아들 정서(鄭敍)에 이르기까지 고려중기의 관계에서 동래 정씨 후손들이 매우 명망을 날리게 되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서의 아내와 17대 인종(仁宗)의 왕비 공예왕비(恭睿王妃) 임씨는 친자매간이어서 정서와 인종은 동서간이었다.

화지산 설화는 고려 초기 동래 정씨 정문도와 그의 아들 정목과 후에 정목의 장인이 된 고익공 간의 이야기가 되겠다. 고익공은 광릉 고씨 시조로 정문도가 동래지역 호장으로 있을 때 중앙에서 파견된 이곳 지방관이었던 모양이다. 당시 정문도는 동래지역을 통괄하는 호장이었기에 두 사람은 공무로 만나 업무를 처리하고 대화를 하던 사이였다.

어느 날 중앙관 고익공이 지금의 화지산 풍수를 보고 탄복하면서도 “좋기는 하나…”라고 하면서 뒷말을 잇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몇 차례 들은 호장 정문도와 그의 아들 정목은 궁금했지만 그 사유를 끝내 듣지 못했다. 그 후 중앙관 고익공이 경상도 안찰사를 거쳐 중앙관계로 전출하고 정문도도 유명을 달리하자 아들 정목이 아버지 묘소를 어디에 쓸까 망설이다가 중앙관 고익공의 말이 생각나 화지산에 묘소를 쓰고 뜻한 바 있어 개경으로 상경하고 고익공을 찾아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이에 고익공이 깜짝 놀라면서 정목을 자기 집에서 내쫓았다. 이는 그곳에 산소를 쓰면 역적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정목이 알지 못하고 부친 산소를 썼기 때문에 역적이 될 가문의 사람과 한자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고익공이 한참 생각하다가 정목을 다시 불러 묘소를 쓰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였다. 이에 정목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부친(정문도)을 화지산에 묻을 때 호랑이가 걸터앉아 울었던 그 자리가 명당지리라 생각되어 그곳에 묻고 그 다음날 동생과 같이 묘소에 가 보니 누구의 소행인지 몰라도 묘를 파헤쳐 목관이 드러나 있었기에 다시 목관을 묻고 밤에 이곳에 와서 상황을 감시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 3경에 이르자 도깨비같은 괴물들이 나타나 말하기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나무관을 묻느냐. 적어도 금관(金棺)을 묻어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묘를 파헤치고 사라졌다. 두 형제는 금관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고 울고 있는데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밤중에 웬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사연을 물었다. 이에 묘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노인은 ‘그것은 도깨비의 장난임에 틀림없네. 도깨비 눈에는 보리짚이 금빛으로 보인다고 하니 보리짚으로 목관을 잘 싸두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날이 새자 두 형제는 보리짚으로 목관을 싸서 묻고 밤이 되자 무덤 주위에 숨어 무덤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또 살피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또 무덤을 파헤치더니 달빛에 비치는 보리짚으로 싼 목관을 보고 ‘금관이야. 이제 됐어. 어서 가자’라고 하면서 행적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또 묘소를 쓴 그 해 여름 어느 날 뇌성 벼락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황령산 괴시암의 바위(연산전화국 위쪽에 있는 바위로 정문도의 거처 뒷산이라 함)를 산산이 부셔버렸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고익공은 그제사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황령산의 괴시암이 깨어졌으니 이제 그 묘소와 동래 정씨 가문의 화근이 없어졌네”라고 하면서 정목을 거두어 과거시험에 합격시켜 관직에 출사하게 하고 자기 딸과 혼인시켰다. 이후 부산의 동래 정씨가 중앙무대에 진출 하게 되고 번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 연제문화원, 『연제구의 유래』, 으뜸출판사, 1999, 179~180쪽.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지』, 신흥인쇄사, 2005, 418~419쪽.

[부산진구 설화 4]

화지산(華池山)과 정씨묘(鄭氏墓)

지금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화지산(華池山)의 동래 정씨묘(鄭氏墓)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고려조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천 년 전, 문종(文宗)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고익공(高益恭)이란 분이 동래부사로 와 있었는데, 어느 날 부산 쪽을 순시(巡視)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정씨묘가 있는 화지산 기슭에 이르자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는,

"좋기는 하나 ……."

하거, 입속말을 하면서 무엇인가 쓴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사를 가까이에서 수행하던 호장(戶長)[72] 정문도(鄭文道)가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부사는 여러 차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꼭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장은 이를 귀담아 듣고 무언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호장은 늦게야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이름을 목(穆)이라고 하였고, 작은아들은 선조(先祚)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장은 집에 돌아와 이 같은 사실을 두 아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곤 하였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부사는 경상도 관찰사로 승진하여 동래를 떠나게 되었고, 부사가 떠난 후 호장도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호장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묘지 때문에 걱정하다가 문득 고익공 부사의 말이 생각나서 선산(先山)[73]을 화지산으로 정하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무덤에 가보니 누구의 소행인지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관(棺)이 땅위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형제 상주(喪主)는 너무도 놀라고 또 남이 알까봐 걱정을 하면서 다시 무덤을 봉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두 형제는 다시 아버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소행인지 …… 사람의 짓인지, 귀신의 짓인지 ……."

어린 두 형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기 걱정을 하면서 다시 무덤을 봉하고 해가 저물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날 밤을 형제는 꼬박 뜬눈으로 지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다시 형제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어

72) 고려 성종(成宗) 2년에 제정한 지방관직의 하나로서 세력 있는 성주(城主)나 호족(豪族) 가운데서 뽑아 지방의 자치적인 행정을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조에 와서는 고을 아전 중에서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73)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찌해야 좋을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형제는 여태까지 동네사람들과 원수 진 일도 없는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런 일에는 연세가 많은 노인 분을 찾아가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형제가 산을 넘어서 얼마쯤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파른 고개 위에 이르자 어디선가 난데없이 백발노인이 나타나더니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잠시 상복(喪服) 입은 두 형제를 내려다보더니,

"이 깊은 산중에 웬 상주(喪主)들인고?"

하며, 울고 있는 사연을 물었습니다.

형제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그 자리는 정승 판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니까 그렇지. 금관(金棺)을 묻어야 하는 곳이란 말이야. 관복(官服)을 입은 사람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서민이 들어가 있으니 그것이 탈이지."

하면서 무척이나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두 형제는 금관이란 말에 어이가 없어 마주 보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

"그것은 귀신 도깨비들의 장난임에 틀림없네. 귀신 도깨비도 속는 수가 있으니 어디 한 번 속여 볼 수밖에는…… 도깨비 눈에는 보릿짚이 금빛으로 보인다고 하니 보릿짚으로 관을 잘 싸두게."

하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에 두 형제는 보릿짚으로 알뜰히 관을 싸서 다시 묻고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중쯤 되니까 도깨비가 또 나타나서 무덤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섣달 보름날 달 밝은 밤이라 보릿짚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들은

"금관이다, 이젠 됐어. 어서 가자!"

하며, 그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후부터 두 형제는 차츰 형편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에 형은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동생한테 집안일을 모두 맡기고 대감이 된 고익공 부사를 찾아 상경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호장의 아들을 만나게 된 대감은 먼저 아버지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래서 호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작고한 사연부터 선산을 화지산에 모실 때, 범이 나타나서 울더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안색이 돌변한 대감은 크게 노하면서 불문곡절(不問曲折)[74], 집사(執事)[75]를 불러

74)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묻지 아니함.
75) 주인집에 고용되어 그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를 밖으로 내쫓게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쫓겨난 호장의 아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을 뿐, 달리 어디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감의 행랑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집사를 시켜 그를 다시 불러 들였습니다.

"그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느냐?"

하고 캐어 묻는 대감의 물음에 호장의 아들은 기억을 더듬다가 그 해 여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화지산 건너편 산 중턱에 있는 괴시암(怪視岩)이란 큰 바위가 조각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내가 동래에 있을 때 그 산세가 너무 뛰어나 선산 자리로선 명당이라고 보았지만 자손 중에 역적이 나올까 염려가 되어 지나치기만 했지. 그런데 자네가 그 곳에 선산을 썼다니, 나와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인연이라 내쫓았던 것이니 양해하게. 그리고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괴시암(怪視岩)이 깨어진 것이니 이제 화근(禍根)은 깨끗이 없어졌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대감은 호장의 아들에게 공부를 하도록 주선해 주었고, 또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여 급제의 영광을 입히더니, 마침내 자기의 딸로 배필을 삼게 하여 사위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동래 정씨 문중에는 인물들이 속출하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더라도 이 묘자리만은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오고 있습니다.

*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165~171쪽.

[부산진구 설화 5]

효심으로 얻은 명당 정묘

지금으로부터 900여 년 전 동래부에 고공익(高恭益) 부사가 부임했을 당시 정문도 공은 군장(軍將)의 위치에서 부사를 보좌하고 있었다. 산세를 보는 데 일가견이 있는 부사는 공무가 끝나면 군장을 대동하고 부산 전역을 순회하며 명당 혈을 찾곤 했는데, 마지막으로 화지산(和池山)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며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참 훌륭한 명당인데, 괴석(怪石)이 있는 게 흠이라면 흠이야."

하며 탄식하는 말을 들은 정문도 공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 형제들을 불러놓고 ㄱ 이야기를 잊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얼마 후 부사는 개경 내직(內職)으로 영전해 가고, 군장은 퇴임한

뒤에 안일호장이 되었다가 세상을 떠났다. 상(喪)을 준비하던 아들들은 부친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장지(葬地)를 화지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운상(運喪)을 하다보니 기이한 일이 생겼다. 백설로 뒤덮인 산 한가운데에 호랑이가 누워 있다가 상여꾼 소리를 듣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만 눈이 녹아 있었는데, 거기가 상서로운 자리라 생각하여 땅을 파고 시신을 안장했다. 장례를 마치고 다음날 가보았더니 시신이 무덤 위로 튀어나와 연 사흘간을 그대로 있었다.

이틀간 다시 봉분하였으나 소용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의 짓이 아님을 깨닫고는 연유를 알고자 길을 나섰다. 도중에 한 고갯마루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노인에게 정중히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리고 황당한 사연을 고하였더니

"그 자리는 고관대작이 들어갈 명당이지 서민이 누울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상을 당한 형제는 눈물로 애원하면서

"탈이 난 이유를 아시니 고치는 방법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어여삐 여기사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랬더니, 효심에 감화되었는지 노인이 혀를 쯧쯧 차며 하는 말이

"고관대작의 관직을 영정에 함부로 써도 역적 행위이고, 금관조복을 입혀도 대역죄가 되는 것인데, 모두 용납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를 어쩐담?"

하고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넘어갈 수 있을까? 어디 한번 해 보세나."라고 하면서

"귀신도 속는 수가 있으니 시도해 보게나. 보릿짚을 가져다 두껍게 관을 싸서 묻게."라고 하였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노인은 이미 간곳이 없었다. 지시대로 봉분한 뒤에 숲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켜보기로 했다. 삼경이 넘었을까 여기저기에서 도깨비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또 묻었구나."

하며 봉분을 헤치는데, 관이 드러나자 보릿짚이 달빛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솟구쳤다. 도깨비들이 일제히 환호를 울리며

"이제 주인이 드셨구나. 우리 할 일을 다 했으니 빨리 묻고 다른 데로 가봐야지."라고 하더니 흙을 덮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로 인해 안일호장 공의 안장이 비로소 마무리되었다.

그 이듬해 늦봄, 구름 한 점 없던 밤하늘이 별안간 시커멓게 변하더니 먹장구름이 몰려들고 뇌성벽력이 휘몰아친 끝에 괴석, 즉 역적 바위가 괴멸되고 말았다.

묘를 잡은 자리는 괴석으로 인해 자손 중에 역적이 나올 자리였지만 정문도 공의 충효와 신의, 청백함이 명당을 내려 조선 오백년 동안 상국(相國) 17명, 대제학 2명, 문과 급제자 198명을 배출한 보기 드문 명벌이 되었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27~228쪽.

[부산진구 설화 6]

지략으로 얻은 명당 정묘

옛날에 동래 정씨 시조되는 사람이 동래부사의 몸종으로 있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 부사가 밤만 되면 남몰래 바깥으로 잠행하는 것이었다. 이상타 싶어 며칠을 지켜보다 하루는 그 행적이 더욱 궁금하여 몰래 뒤를 밟아보았다.

그런데 부사는 지금의 동래 정씨 시조(始祖) 산인 화지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몸종이 뒤에서 몰래 지켜보는데 부사가 혼잣말로

"참 묏자리는 명당이지만 역적 바위가 보이니…."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숨어서 지켜보던 몸종이 그 말을 듣고는 부사보다 먼저 돌아와 깊은 잠에 빠진 척하고 누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사가 몸종을 불러 이르기를

"지금 가서 계란 세 개를 구해 오너라."라 하였다.

부사의 명을 따라 계란 세 개를 구해 와서는 쇠죽을 끓이는 데 몰래 담가둔 뒤에 부사에게 주었다. 부사는 그 계란을 받아두었다가 그날 밤 다시 길을 나섰다. 몸종이 숨죽이며 따라가 보니, 지난 날 갔던 곳에 가서 계란을 땅에 묻고 있었다. 다음날 밤 그 시간이 되니 부사는 또 그곳으로 가서 묻어두었던 계란을 꺼내려 하였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계란이 부화되어 닭으로 변하였다. 닭이 목을 빼고 울어대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다. 계란을 쇠죽물에 담근 것 때문에 생긴 변고를 모르는 부사는

"아니, 내가 본 것이 틀렸단 말인가? 저 닭이 꼬꼬 하고 울 터인데, 왜 목만 빼고 울지를 않는가? 아니, 분명 명당자리로 봤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냥 보는 것 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야. 역적 바위 때문에 그런 건가? 하여간 이 묏자리는 안 되겠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돌아왔다. 부사가 돌아오자 몸종이 부사를 뒤따라 간 사실을 고백하며

"제가 숨어서 보니, 명당자리를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라 하였다.

부사가 어찌 자신을 미행했는지를 묻자, 부사님의 행적이 이상하여 뒤를 밟아본 것이라고 실토하며 청하기를

"대감, 그 묏자리를 쓰지 않으실 요량이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부사는 그렇게도 원한다면 주겠노라고 약속했고 묏자리를 얻은 몸종은 곧 바로 자신의 부친을 그곳으로 모셨다. 그런데 시신을 묻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묘소가 파헤쳐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일이 세 번 연속 반복되자 그 변고가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려니 으스름달밤에 도깨비들이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여기에 함부로 묘를 써놨나! 여기는 금관(금으로 된 관)으로 묘를 써야 할 자린데 거

적으로 묘를 쓰다니, 참으로 고얀 놈이네."라고 하고는 묘를 파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을 지켜본 몸종은 도깨비들이 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부사가 이르기를

"그러면 거적 대신 보릿짚으로 시신을 곱게 싸서 묻어보아라. 아마 괜찮을 것이다."하고 방도를 일러 주었다.

그 방식대로 시신을 곱게 싸서 묻고는 또다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윽고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나 묘를 파다가

"야! 여기 금관이 들어 있다."고 소리쳤다.

도깨비 대장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는

"필시 귀한 분이 모셔져 있는 것 같으니 그대로 묻어두고 가세."라고 했다. 도깨비들은 대장의 명령에 따라 파헤친 묘를 재깍 원상으로 돌려놓고는 슬금슬금 줄행랑을 치고 말았다.

명당자리를 얻어 부친의 묘를 쓰게 된 몸종은 감사의 표시로 매일 저녁 부사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런데, 하루는 부사의 발바닥을 씻어주다 보니 발바닥에 사마귀 하나가 돋아 있었다. 사마귀를 때어낼 요량으로 돋은 살을 파내려고 하자 부사가 이르기를

"그냥 두어라."라고 하였다. 몸종이 이상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물으니, 부사가

"이것은 복사마귀니 긁어내면 안 되느니."하고 이르자, 몸종이 자신의 발바닥을 보이며

"대감, 소인의 발바닥에는 사마귀가 세 개나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귀한 것입니까?"하고 되물었다.

부사가 몸종의 발바닥을 보니 과연 사마귀 세 개가 돋아 있는지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분명했다. 묘를 쓴 뒤 사나흘이 지나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묘를 마주보고 있던 역적 바위를 깨트렸다. 그러자 부사가 하는 말이

"필시 그 묏자리는 네놈 몫인 게 틀림없는가 보다. 그러니 앞으로는 신경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무덤의 주인임을 인정해 주었다. 몸종은 행실이 반듯하여 흠잡을 데가 없어 예사 사람이 아님을 간파한 부사는 그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사위로 삼았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28~230쪽.

[부산진구 설화 7]

용이 만들어준 동래 정씨 묘터

한 옛날 서울에서 안동 김씨가 동래부사로 내려왔다. 그 때 화지산 근처에 살고 있던 동래 정씨가 부사를 모시는 이방(吏房)으로 있었다. 어느 날 부사와 이방이 함께 화지산에 놀러가게 되었다. 부사가 화지산 중턱에 앉아서 하는 말이

"뭣자리로는 대단히 좋은 자린데, 저 절영도에 바위 하나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 바위 때문에 여기다 묘를 쓰면 대대로 역적이 날 터인데, 아깝다 아까워!"라고 탄식하였다.

그러고 나서 안동 김씨는 몇 해 동안 근무하다 한양으로 전근되어 떠나버렸다. 이후 어느 날 이방이 들에 나가다보니 들판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날름하며 똬리를 틀고 있었다. 이방이 구렁이에게 이르기를

"아이코! 용왕님. 귀중한 몸을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승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가만히 생각하니, 구렁이가 하늘로 승천하려면 구름이 필요한데 구름이 없으니 어찌할까 싶었다.

둘러보니 구렁이 옆에 타작하고 남은 보릿대 무더기가 보였다. 번쩍 눈이 뜨인 이방이 보릿대를 모아다 불을 붙이니 연기가 구름처럼 자욱이 일었다. 그러자 구렁이는 구름 대신 연기를 타고서 용으로 변신하여 승천하였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어느 날, 이방의 꿈에 용이 나타나

"임자의 도움으로 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였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간절히 소원하는 걸 말해 보아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방이 소원을 말하기를

"절영도에 있는 저 돌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용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하였다.

용이 현몽한 뒤 며칠이 흘러 갑자기 마른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한참 뒤에 벼락이 절영도를 때리자 그 바위가 와르르 무너져버렸다. 소원을 이룬 이방이 자신의 아버지 묘를 동래부사가 일러준 명당으로 이장해 모셨는데, 이후로 동래 정씨 가문에서 정승 판서가 줄줄이 배출되며 명문대가를 이루었다고 한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31~232쪽.

[부산진구 설화 8]

화지산의 정묘(鄭墓)

- 고관대작이 묻힐 명당에 밀짚으로 관을 싸니… -

- 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지금으로부터 900여년 전 동래현에 고공익 현령이 부임했을 당시 정문도(鄭文道)는 이방으로서 현령을 보좌하고 있었다.

고 현령은 풍수지리학에 밝아 공무가 끝나면 이방을 대동하고 동래 전역을 답사하다가 마지막에는 화지산에 올라 명당혈을 찾다가 사방을 둘러보면서 혼잣말로 "참 좋은 명당인데, 앞에 보이는 절영도 봉래산에 괴암(怪岩)이 보여서 역적이 날 자리야"라는 장탄식을 정 이방이 엿듣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일러두었다.

얼마 후 고 현령은 개경의 내직으로 영전하였고, 정 이방은 퇴임하고 안일호장(安逸戶長 · 고려 때 나이가 일흔 살이 돼 퇴직한 호장, 퇴직 후 봉록을 주어 안일하게 살도록 하였음)이 되었다가 죽었다.

아들들은 흠(봉래산의 괴암)이 있음을 알면서도 장지를 화지산(華池山 · 199m)으로 정했다. 운구를 할 때 기이한 일이 생겼다. 배걸이 뒤덮인 가운데 호랑이가 누웠다가 상여꾼 소리에 떠나갔다. 그 자리에는 눈이 없어 그 곳을 파고 장례를 마쳤다. 삼우제 때 가 보았더니 기괴한 일이 또 생겼다. 시신을 누가 파냈던 것이다. 두 번째 다시 매장하였으나 또 시신이 무덤 구덩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아들들은 사람의 짓이 아님을 깨닫고 그 연유를 알고자 논의할 때, 백발 노인이 나타나 "그 자리는 고관대작이 묻힐 명당이다. 아전이 묻힐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괴변을 당한 아들들이 애원하면서 "괴변이 난 것을 아시니 고치는 방도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발 불쌍하게 생각하여 그 방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호소했다. 백발 노인이 "영정에 고관대작의 명칭을 붙여도 역적 행위이고 금관조복을 시신에 입혀도 역적이 되는 것이니 밀짚을 엮어 관을 싸 묻어보게나"라고 충고했다. 그제서야 아들들은 백발 노인에게 감사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데 일순간 노인은 간 곳 없이 사라졌다.

아들들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관을 밀짚으로 싸서 묻고 밤을 지새우며 숲속에 숨어 아버지의 무덤을 지켜보았다. 보름날 삼경 때 여기저기에서 도깨비가 나타나더니 "또 묻었구나"하면서 봉분을 헤치고 관이 드러날 때 달빛에 밀짚이 황금빛으로 보이니 도깨비들이 속아 "이제서야 주인이 들었구먼, 우리가 할 일은 다하였다. 빨리 원상복구하고 가자"라고 하더니 재빨리 원상복구하고 사라졌다.

그 이듬해 늦봄에 구름 한 점 없던 밤하늘에 난데없이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면서 거대한 뇌성벽력이 절영도 봉래산의 괴암(역적암)을 부숴버렸다. 이후 정문도의 후손들은 잘 돼 정승이 17명, 대제학이 2명, 문과급제자가 198명이 난 보기 드문 향호세족이 되었다.

현재 동래 정씨의 시조 정문도의 무덤인 정묘가 화지산 경내에 있다. 이 앞을 지나갈 때 승마자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배례한 후 경내를 벗어나 말을 탔다. 해서, 지금까지 이곳은 하마정(下馬停)으로 불리고 있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70~72쪽.

[부산진구 설화 9]

양정동 화지산(華池山)의 정묘(鄭墓) 이야기

[줄거리]

부산진구 양정동의 화지산(華池山)에는 동래 정씨(東萊 鄭氏)의 2세조인 정문도(鄭文道)의 묘(墓)가 안치되어 있다. 이 묘를 정묘(鄭墓)라고 부르는데, 도깨비에게서 얻은 명당(明堂)이라 하여 유명하다.

부산진구 양정동의 화지산(華池山)에 위치한 '정묘(鄭墓)'는 대체로 민간에 동래 정씨(東萊鄭氏)의 시조묘(始祖墓)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묘에 세워져 있는 추원사기(追遠祠記)를 보면, 고려 때 안일호장(安逸戶長)을 지낸 정회문(鄭繪文)이 시조로, 보윤호장(甫尹戶長)을 지낸 정지원(鄭之遠)이 1세조로, 안일호장을 지낸 정문도(鄭文道)가 2세조로 적혀 있다. 그리고 화지산의 정묘에는 2세조인 정문도가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정묘가 동래정씨 시조묘라고 하는 이야기는 민간에서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와전된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이 정묘와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구비전설(口碑傳說) 역시도 정문도와 그의 아들 이야기로 엮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보건대, 정묘의 이야기는 2세조인 정문도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묘 전설을 시대순에 따라 모티프를 중심으로 제목을 붙여가며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흉년에 이웃을 구휼해 공덕(功德)을 쌓은 '동래 정씨 2세조 정문도(鄭文道)의 공덕', 그 다음으로는 그 공덕으로 인해 사후(死後)에 명당인 도깨비터에 묻히게 되는 '명당(明堂) 정묘와 도깨비' 이야기 2편을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문도의 아들이 구렁이를 승천시키고 그 보답으로 근심거리를 제거한 '구렁이의 승천(昇天)을 도와 없앤 정묘의 재앙(災殃)'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덧붙여 정묘 앞에는 수령 800년을 자랑하며 묘지를 지키고 있는 목백일홍(木百日紅), 일명 '배롱나무'가 있다. 간혹 향토지에서 이 목백일홍에 얽힌 이야기도 수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묘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민담(民譚)인 관계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23~24쪽.

[부산진구 설화 10]

양정동 화지산의 정묘 이야기 1

동래 정씨 2세조 정문도(鄭文道)의 공덕

[줄거리]

동래 정씨의 2세조인 정문도(鄭文道)는 안일호장(安逸戶長)을 지냈는데, 그 전에 동평현(東平縣)의 현감 밑에서 아전(衙前)으로 있었다. 정문도는 양정에 무밭을 만들어 기근에 굶주리는 이웃들을 구휼했다.

사람들은 정문도가 배고픈 이웃을 구휼한 공덕으로 명당(明堂)에 묻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래 정씨의 2세조인 정문도(鄭文道)는 안일호장(安逸戶長) 되기 전에 동평현(東平縣)의 현감 밑에 아전으로 있었다고 한다. 동평현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부산진구 당감동과 영도구 일대에 있던 지방통치구역이다.

정문도가 안일호장 되기 전에 동평현에, 거기에 인제 동평현감 밑에 있으면서 양정 거기에다가 무밭을 만들었는 기라. 그런데 한 해에 기근이 들었어. 그래 사람들이 죽게 됐는 기라. 막…. 무가 그기 인삼만큼 효력이 있거든.

무가 인삼만큼 효력이 있다는 말에 필자가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했더니, 생각난 듯 무와 관련하여 민담 한편을 들려주었다.

내가 이야기 듣기를,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한 남자가 상처(喪妻)를 했는데 아들이 하나 있고, 그래 상처했으니까 새로 부인을 맞이할 거 아이라? 맞이했는데, 거기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 기라. 그러니까 본처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취(再娶)에, 다시 들어온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는 기라.

그런데 그 여자가 본처아-(본처아이)는 명태를 주고, 자기아들은 무를 주거든.

계모로 온 여자가 본처아들에게는 명태를 주고, 자기아들에게는 무를 주자 동네에서는,

"야!~, 전처소생을 저렇게 잘 대접하는구나. 그 여자 참 지극한 사람이다."

하며 칭찬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전처소생의 아들이 계모의 친정에 인사를 가게 되었다. 그러자 계모의 아버지가 그 전처소생의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뭐 먹노?"

"예. 나는 아!~ 잘 해줘서 명태를 먹고, 그리고 내 동생은 무밖에 안 줍니다. 그래 내가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러자 계모의 아버지 되는 영감이 한학(漢學)을 해서 유식했던지,

"내가 약을 지어줄 테니까, 그걸 갖다가 너거 엄마한테 가서 끓여먹도록 해라."

하면서 약봉지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사약이었다.

'이기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전처자식을 죽일라고 명태를 먹이는구나. 이런 독한 년이 어데 있노 말이야. 지(자기)아들은 무를 믹이고….'

하면서 비록 자기딸이지만 그 소행을 괘씸히 여겨 사약을 지어준 것이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전처소생의 아들은,

"이거, 외할아버지가 약을 지어주며 엄마 먹으랍디다."

하며 약봉지를 내밀었다. 그러자 그 사실을 모르는 계모는 그 약을 달여 먹고 죽었다고 한다. 이야기 끝에 필자가 "무는 좋은 줄 알겠는데, 명태가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명태는, 옛날에는 명태를 제사상에나 올렸지, 그렇게 많이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명태만 계속 먹으면 아-(아이)가 삐쩍 마르고,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 기라.

그런데 무는 하여간 땅, 지력(地力)을 받아가지고 땅 속에서 자라니까, 뿌리의 열매는 그러니까 고구마라든가 감자, 당근 이런 거는 전부 다 좋은 기라. 무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거든.

하면서 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는 다시 정문도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 정문도가 무를 심어놓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였다 말이라. 마, 비가 안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무를 심어가지고 놔두니까 이놈이 퍼렇거든. 그래 무를 뽑아가지고 그 배고픈 데, 허기진 데 먹으라고 줬는 기라.

그리 인심을 썼다는 거지. 그래 인심을 쓰니까 그 공덕(功德)에 의해가지고 그래 그 좋은 묫자리를 안 얻었겠는가? 그런 이야기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묘터에 갔다고 하기도 하고….

이야기인즉 동래 정씨의 2세조인 정문도가 무로 배고픈 이웃을 구휼하는 공덕(功德)을 베풀었기 때문에 좋은 묫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때문에 민간에서도 그 공덕 때문에 정문도가 명당(明堂)에 묻힌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제보자: 김OO(남, 81세[76]), 전포1동, 2015년 8월 21일 채록(자택)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25~29쪽.

76) '김OO'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인 '김승찬'임. 이하 '김OO'는 동일한 제보자임. - 편자 주.

[부산진구 설화 11]

양정동 화지산의 정묘 이야기 2

명당(明堂) 정묘와 도깨비 (1)

[줄거리]

동래 정씨의 2세조 정문도(鄭文道)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중 한명이 동래부사(東萊府使) 밑에서 이방(吏房)을 지냈다. 동래부사로 온 사람이 풍수지리에 밝아 집무시간이 끝나면 늘상 명지를 찾아 산천을 둘러보았다. 어느 날 동래부사가 화지산(華池山)의 한 곳에 이르러 "묏자리는 좋은데, 역적이 날 바위가 보여서 쓸 수 없다." 하고는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섰다.

동래부사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자 정문도의 아들은 동래부사가 점찍었던 자리에 자기 아버지인 정문도의 묘를 썼다. 그런데 밤중에 도깨비들이 나타나더니 고관대작(高官大爵)의 자리에 이방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묘를 파내버렸다. 도깨비터였던 것이다. 정문도의 아들이 예전 동래부사를 찾아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 금빛이 나는 보릿짚으로 시신을 싸서 묻으라고 했다. 보릿짚으로 시신을 싸서 묻었더니 도깨비들이 인정하고 물러났다.

정묘(鄭墓)와 연관하여 전하는 도깨비 이야기는 두 종류가 있다. 그 중 민간에 널리 전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다. 필자가 정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자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고려 초기에 말이야, 고려 초기에 동평현(東平縣), 동평현 거기에 정문도(鄭文道)라는 사람이 아전(衙前)으로서 일을 봤는 기라. 그래 봤다가 뒷날 나이가 칠십이 되면 퇴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안일호장(安逸戶長)으로 퇴직을 했는 기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문도(鄭文道)에게는 아들이 두 명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한 명이 동래부사 밑에서 이방(吏房)을 지냈다.

동래부(東萊府)는 종3품(從三品) 벼슬하는 사람들이 부사를 했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종3품이 했는데, 임진왜란 뒤에 이걸 더 승격시켜가지고 정3품(正三品)이 동래부사를 했거든.

그래 저 동평현에는, 그 동평현은 관할지역이 어데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부산진구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초량, 저기 왜관 있는 그 지역을 동평현 현감이 지배를 할 수 있었지. 그리고 이쪽에 인제 동래부사는 동래 저기를 갖다가 장악했는데….

거기 인제 정문도라는 사람이 안일호장이 돼가지고 있고, 인제 그 아들이 동래부사 밑에 그 육방(六房) 중에 하나인 이방, 아전이라.

하면서 당시의 관직 현황에 대해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 묘를 갖다가 화지산(華池山)에 쓰고 난 뒤에 조선조에, 그러니까 고려 때는 그 묘 써도 효력이 안 나타났다가 조선조에 정승(政丞)이 열일곱 명이나 났거든.

그 다음에 지금 그 뭐고? 대학총장, 국립대학총장 격인 그걸 뭐라 하노? 음- 홍문관 대제학(弘文館 大提學), 홍문관 대제학이 정2품(正二品)인데 그기 둘이나 났어.

하면서 먼저 정묘의 발복(發福)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정묘 전설에 대해 들려주었다.

이야기는 고려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현종(顯宗) 때 동래부사로 온 사람이 풍수지리에 밝아 집무시간 외에는 늘 여기저기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명지(明地)를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으로 있던 정문도의 아들이 이 동래부사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렇게 명지를 찾아 돌아다니던 동래부사가 마침내 찾아낸 곳이 태백산 줄기의 마지막 지점에 자리 잡은 양정동의 화지산(華池山)이었다.

"아!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여기 조산(祖山)도 있고, 또 안산(案山)도 있고…."

하면서 풍수지리에 대해 짚어가길래, "선생님, 조산(祖山)은 무엇이고, 안산(案山)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조상 조(祖)자, 저 풍수에서는 조산(祖山)이라고 해. 그 밑에 인제, 조산 밑에 그 지리적으로 말하면 명당(明堂)이 있거든. 그 다음에 앞에는 안산이 있어야 돼. 산은 보통 안산이 있고, 안산 밖에 외안산(外案山)이 있는 기라. 그기 인제 안산이 있어야 명당이 되는 기라.

그리고 저,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라는 기 있지? 그 '우'라는 것은 서쪽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쪽은 백호고, 동쪽은 좌청룡이거든.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 정문도의 묘에서 보면, 앞에 안산이 황령산(荒嶺山), 그 다음에 밖에 외안산은 절영도(絶影島)라.

하면서 풍수지리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필자가 "그러면 화지산이 조산(祖山)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조산 밑이지. 조산 밑에 여자의 음부(陰部)처럼 생긴 그 지점, 거기 음핵(陰核) 부분에다 묘를 써야 되는 기라. 그리고 조산은 금정산(金井山)이지. 그러니까 금정산에서부터 빠져 내려오는 기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끝인 기라. 그래서 이제 그 끝이 태백산맥(太白山脈)의 마지막 지점이라.

하며 화지산의 풍수지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태백산의 마지막 지점인 화지산에 있는 명당을 발견한 동래부사가 이리저리 둘러보더니만, 저 멀리 외안산(外案山)인 절영도(絶影島)의 바위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본 동래부사가,

"묫자리는 좋은데, 역적(逆賊)이 날 바위가 보이니까 여기에는 쓸 수 없다."

하며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기를 마친 동래부사는 영달하여 개경(開京)으로 떠나게 된다. 동래부사가 개경으로 떠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방의 아버지인 정문도가 죽었다.

그러자 정문도의 아들은 동래부사가 점찍었던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썼다. 그런데 아버지의 시신을 묻어놓고 난 그 이튿날 어찌된 일인지 묘가 파헤쳐져 있는 것이었다.

> 도채비들이, 도깨비라 하지. 묘를 파헤치는 기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시신을 목관에 넣어가지고 그래 묻었는 기라. 묻으니까 아이! 도깨비들이 모여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서 도깨비들이 노는 터라.

하는 말에 필자가 "아! 도깨비터였구나!" 했더니, 그렇노라고 하면서 자기들 노는 터에다가 묘를 쓰니까 해코지를 한 것이라고 했다.

> "아이! 누가 여기다 묘 썼노? 파 보라!"

도깨비대장의 명이 떨어지자 도깨비들이 묘를 팠는데 목관(木棺)이 나온 것이었다. 그러자 도깨비대장이,

> "이런 놈! 이런 놈이 어찌 여(여기) 들어왔노!"

하고는 시신을 들어내버린 것이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정문도의 아들은 다시 시신을 묻었는데, 묻고 나면 파헤치고, 또 묻고 나면 파헤치는 것이었다. 자꾸 묘를 파헤치자,

> '이거는 필시 사람의 소행이 아닐 것이다….'

하고 생각한 정문도의 아들은 밤에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도깨비들의 소행을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을 본 정문도의 아들은 곧바로 예전의 동래부사를 찾아 개경으로 갔다. 그리고는 부사를 만나,

> "내가 이렇게 묫자리를 갖다가 부사님께서 좋다 해서 잡기는 잡았는데, 역적이 난다 하는 말을 듣고도 내가 거기다 묘를 썼는데, 아이! 도깨비들이 곧 파냅니다."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부사가,

> "아! 거기는 고관대작(高官大爵)들이 들어가는 자린데, 고관대작 아니고는 거기 안 된다. 너는 아전이니까, 이방 노릇밖에 안했으니 거기는 안 된다. 그 자리에는 금관(金棺)을 넣어야 된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들은 정문도의 아들이,

"제 형편에 금관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자,

"그래?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목관 대신에 보리짚단에, 그 줄기가 금빛이 나니까 그 보릿대를 잘 엮어가지고, 그래 너거 아버지를 싸가지고 목관 대신에 거기 묻어라."

하고 가르쳐 주었다. 정문도의 아들인 이방은 동래부사가 알려준 대로 보리짚단에 아버지의 시신을 싸서 다시 묻었다. 그리고는 밤중에 그 자리에 가서 지켜봤더니, 도깨비들이 우~ 몰려오더니 묘를 파보고는,

"야!~, 여기 금관(金棺)이 들어왔다! 우리 이제 놀이는 딴 데 가서 하자!"

하고는 모두 되돌아가버리는 것이었다. 결국 도깨비들은 보리짚단을 금관으로 착각한 것이었는데, 도깨비들이 보리짚단을 금관으로 착각했던 이유는 보리짚단이 달빛을 받아 노랗게 빛났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리짚단을 금관으로 여긴 도깨비들은 팠던 자리를 다시 말끔히 정리한 후, 봉분까지 만들어주고는 떠났다는 것이다.

제보자: 김OO(남, 81세), 전포1동, 2015년 8월 21일 채록(자택)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30~36쪽.

[부산진구 설화 12]

양정동 화지산의 정묘 이야기 3

명당(明堂) 정묘와 도깨비 (2)

[줄거리]

동래 정씨의 시조(始祖)가 동래부사(東萊府使)의 몸종으로 있었는데, 부사가 밤중만 되면 야행(夜行)을 했다. 몸종이 뒤를 밟아서 따라갔는데, 화지산(華池山)의 한 자리에 앉더니 "참 명당이건만 맞은편에 역적바위가 비춰서…." 하면서 탄식을 하고는 돌아왔다. 하루는 부사가 계란 세 개를 가져오라고 했다. 몸종은 계란을 뜨거운 쇠죽솥에 살짝 담갔다가 갖다 주었다. 부사는 명당자리에 그 계란을 묻었다. 다음날 계란이 부화해 닭이 홰를 치고 나왔는데, "꼬꼬댁!~" 하고 울지를 못했다. 그러자 부사가 실망을 하고는 돌아섰다.

몸종은 그 자리를 얻어 아버지의 묘를 썼는데, 묘만 다듬어놓으면 다음날 파헤쳐져 있었다. 밤중에 몰래 숨어 지켜봤더니, 도깨비들이 몰려와서는 금관(金棺)이 들어올 자리에 거적때기가 들어왔다며 파헤쳐버리는 것이었다. 동래부사에게 조언을 얻어 시신을 보릿짚에 싸서 묻었더니 도깨비들이 물러났다. 묘를 써놓고 사흘이 지나자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맞은편의 역적바위를 깨뜨려버렸다. 화지산의 명당에 묘를 쓴 동래 정씨는 후손에 크게 발복(發福)하게 되었다.

명당 정묘(鄭墓)와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의 또 다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이 이야기는『경남지방의 민담』(김승찬 편저, 제일문화사, 1986)에 실려 있는데, 1985년 경상북도 울주군 상북면에서 채록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정리한다.

동래 정씨(東萊鄭氏)의 시조(始祖)되는 사람이 동래부사의 몸종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 동래부사가 밤중만 되면 늘 어디론가 야행(夜行)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룻밤, 이틀밤 지켜보다가 하루는 동래부사의 뒤를 밟아 따라갔다. 그랬더니 지금의 동래정씨 분묘(墳墓)가 있는 화지산(華池山)의 묘터 앞에 떡 앉아서는,

"참 자리는 명당이구마는, 역적 방구(바위)가 저(저기) 비치가 있어서러…."

하는 말과 함께 탄식을 하며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뒤따라간 몸종은 몰래 숨어서 그 소리를 듣곤 했는데, 하루는 부사가 부르더니,

"계란을 시(세) 개를 어디서 구해 오라."

하는 것이었다. 몸종은 계란 세 개를 구해 왔다. 그 계란을 부사에게 바치려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계란 세 개를 쇠죽 끓이는 뜨거운 쇠죽솥에 살짝 담갔다가 볏짚 사이에 끼워서는 부사에게 주었다. 부사는 그 계란을 받아들더니, 밤중이 되자 또 화지산의 그 묘터로 찾아갔다. 이 몸종도 부사의 뒤를 밟아 그곳에 따라가 보았다. 그랬더니 부사가 가지고 간 계란 세 개를 그 자리에 묻고는, 다음날 밤 그 시간쯤 되자 또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몸종도 부지런히 부사의 뒤를 밟아 따라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보니, 묻어두었던 계란이 하루 사이에 부화를 해서는 닭이 되어 홰를 치며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닭이 "꼬꼬댁!~" 하고 울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동래부사가,

"아이, 보는 카만(보기보다) 틀렸구나. 저 닭이 꼬꼬 울낀데, 왜 홰만 치노?"

하더니 실망을 하고는,

"아이, 그 자리가 보는 카만 좀 다르구나. 역적 방구 때민에 그 자리는 파이다(좋지 않다)."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런데 닭이 홰만 치고 울지 못한 까닭은 계란을 끓는 쇠죽솥에 살짝 담갔다가 건진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명당자리를 포기하고 돌아온 부사에게 동래 정씨인 몸종이 말했다.

"지가(제가) 따라가 보이 글태요(그렇데요)."
"그래 니가 와 그래 왔디노(왔더냐)?"
"대감님이 이상해가 지가 따라가 봤입니더. 그러믄 대감님 그 뭐 못씰 거 절로(저에게) 주이소."
"정 그렇거든, 그래 해라."

그렇게 동래부사를 속여 명당(明堂)을 얻은 몸종은 자기 아버지의 묘를 화지산에 있는 그 명당자리에 쓰게 되었다.

그런데 묘를 써놓고 그 이튿날 가보니 누군가 묘를 파헤쳐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잘 정돈해서 봉분을 돋워 놓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돈해서 돋워 놓으면 파헤치고, 돋워 놓으면 파헤치기를 세 번이나 거듭했다.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동래부사의 몸종은 아버지의 묘를 지켜보기로 작정을 했다. 밤중에 묘 옆에 숨어 몰래 지키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도깨비들이 우~ 몰려오더니,

"눈데(누군데), 여(여기) 누가 미로(묘를) 이리 써놨노! 이거는 금곽(金槨)을 해가 씰(쓸) 자린데, 꺼적때기로 해가 여 미로 썼으이 이놈 고~얀 놈이다."

하고는 우~ 달려들더니 묘를 파헤쳐 놓고는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온 몸종은 동래부사에게 도깨비의 소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미로(묘를) 시(세) 번 파길래 내가 지킨까네, 밤중쯤 도채비들이 우우 와가지고, '금곽을 해가 씰 자리에다 꺼적때기로 어디 여거다가 미로 씼노!' 카고, 파뿌고(파버리고) 가뿌는데 우예야(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꺼?"

하고 물었더니 동래부사가,

"그래, 거게다 꺼적때기를 하지 말고, 보릿짚을 딱 추리가 뻣떡뻣떡한(반짝반짝하는) 거로 실로 가(가지고) 곱게 엮어가 그 딱 싸가 옇어라. 그라믄 그기 괘않을 끼다."

하면서 방법을 일러주었다. 몸종은 보릿짚을 곱게 엮어 아버지의 시신을 싼 후 다시 묻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또 묘를 지켰다. 그날 밤에도 도깨비들이 우~ 몰려와서는 전과 다름없이 묘를 파보더니 도깨비대장이,

"아, 여기 금곽(金槨)이 들었다. 이 사람은 그래가 안 된다."

하자, 도깨비들이 다시 우~ 달려들더니 묘를 말끔히 정돈해놓고는 되돌아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동래 정씨인 동래부사의 몸종은 명당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동래부사의 몸종은 항상 동래부사의 발을 씻기곤 했는데, 하루는 발을 씻기다가 동래부사의 발바닥에 나 있는 사마귀를 발견했다. 그것을 본 몸종이 사마귀를 긁어내려고 하자 동래부사가 말렸다.

"그라지 마라."
"이기 뭣입니꺼?"
"그기 아주 직분(職分)이 높우다. 까래비가(긁어내서는) 안 된다."
"대감, 그러믄요 지(제) 발바닥에는 시 낱이(세 개가) 있습니더."

하면서 발바닥을 들어 보이는데, 몸종의 발바닥에는 아니나 다를까 사마귀 세 개가 있었다. 그것을 본 동래부사는 이 몸종이 위인(偉人)임을 직감하게 된다. 그런데 몸종인 이 동래 정씨가 화지산의 명당에 묘를 써놓고 한 사흘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절영도(絶影島)의 그 역적바위를 깨뜨려버렸다. 그것을 본 동래부사가,

"천상 미(묘) 자리는 니 자리다."

하더니 몸종의 명석함을 알아보고는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 사위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화지산의 명당에 묘를 쓴 동래 정씨는 후손에 크게 발복(發福)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출전: 김승찬 편저, 『경남지방의 민담』, 제일문화사, 1986.[77]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37~42쪽.

[부산진구 설화 13]

양정동 화지산의 정묘 이야기 4

구렁이의 승천(昇天)을 도와 없앤 정묘의 재앙(災殃)

[줄거리]

도깨비를 속여 묫자리를 획득한 정문도(鄭文道)의 아들이 어느날 양정의 들판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 커다란 구렁이 한마리가 똬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본 정문도의 아들은 "용이 될 짐승이 왜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연기를 피워 구렁이를 승천(昇天)시켜 주었다.

77) 이 책에 수록된 <동래 정씨 시조 묘터(Ⅰ)>(232~235쪽)와 <용이 만들어 준 동래 정씨 묘터(Ⅱ)>(235~236쪽)의 글이 위의 설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편자 주.

그 후 꿈에 용이 나타나 보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원을 물었다. 정문도의 아들은 묘의 맞은편에 비치는 절영도(絶影島)의 역적바위를 부숴주면 좋겠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자 천둥 벼락이 치더니 그 역적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 동래 정씨 가문에서 정승(政丞)이 나기 시작했는데, 정광필(鄭光弼)을 위시해 17명이나 나왔다.

정문도(鄭文道)의 아들이 도깨비를 속여 묫자리를 획득하고 난 뒤, 어느 날 양정의 들판을 따라 길을 가고 있었다.

정문도 아들이, 이방(吏房) 했던 아들이 그 양정에, 거기 양정이 지금은 저기 개발됐지마는 옛날에는 형편없었거든. 그 양정 여게 저 모너머고개, 그 왼쪽에 거기가 공동묘지 아이라? 거기가 공동묘지라. 전부…. 내가 그 중학교 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필자가 "'모너머고개'는 지금의 어디쯤 됩니까?" 하고 물었다.

모너머고개는 여기 저, 양정에서 이리로 서면(西面) 오는 데가 좀 넓잖아. 지금 송상현동상 있는 데, 거기가 모너머고개라.

그래 인자 그 들판에 떡 나갔는 기라. 그 양정 앞에…. 양정 앞에 거기가 옛날에는, 아! 거기가 완전히 들판이고 논판이고 이랬어. 그래 거기서 조그만한 길을 따라 이래 가는데, 아이! 구렁이가 커다란 게 한 놈이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혀를 갖다가, 양갈래거든 뱀은…. 그래 혀를 내밀고….

이야기인즉 정문도의 아들이 양정의 모너머고개가 있는 들판을 따라 길을 가고 있는데,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똬리를 틀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본 정문도의 아들이 구렁이에게,

"아! 이거, 용(龍)이 될 짐승이 어찌해서 여게(여기에) 뱀으로 있느냐!"

하고는,

'아! 구름이 없으니까 하늘로 못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논바닥에 거두어들이고 남은 보릿단이 보였다. 그래서 그 보릿단에다 불을 붙여 연기를 피웠더니, 구렁이가 연기를 구름삼아 타고는 용(龍)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昇天)한 사흘쯤 뒤, 정문도 아들의 꿈에 그 용이 나타나,

"너 때문에 내가 용이 됐다.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보답을 해야 안 되겠느냐? 보답을 할 텐데, 그래

무얼 갖다가 너는 원하고 있노?”

하고 물었다. 정문도의 아들은 역적이 날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써놓고는 건너편 절영도(絶影島)의 바위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늘 근심이 있었다. 그래서 용에게,

“저~ 절영도(絶影島) 바위, 그 바위를 갖다가 부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 용이,

“그래? 알겠다.”

하면서 현몽(現夢)을 하고는 사라졌다. 그 뒤 한 사흘이 지나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땅에 떨어지고 하더니,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그 역적 날 바위, 그 절영도의 바위가 무너져 내리고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당은 됐지. 그런데 그 집안이 아전(衙前)이기 때문에 고려조에는 크게 출세를 못했어.

못했다가 조선조에 들어 와가지고 그래 이제 정승이 나기 시작했지? 정광필(鄭光弼)이를 위시로 해가지고 정승이 열일곱이나 났는 기라. 그래 나가지고 그래 이제 정씨가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이렇듯 다양한 이야기를 지닌 정묘(鄭墓) 전설도 지금은 도시민들 사이에서 그 전승의 맥이 끊겼다. 그러나 오늘날보다 조금 앞선 시기, 즉 설화가 위력을 발휘하던 시절에는 이 이야기들이 활발한 전승력을 지니고 민간에 널리 회자(膾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김OO(남, 81세), 전포1동, 2015년 8월 21일 채록(자택)[78]

* 이 이야기는『재미있는 부산진구 숨은 이야기,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16, “6. 뭐라카노, 참말이가?” 편에 수록(일부 삭제)되어 있음.[79]
* 류경자,『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43~46쪽.

78) 제보자가 제공한 이야기는 김승찬 편저,『경남지방의 민담』, 제일문화사, 1986, 235~236쪽의 <용이 만들어 준 동래 정씨 묘터(Ⅱ)>에 수록되어 있다. -편자 주.

79) [부산진구 설화 5]부터 [부산진구 설화 8]까지의 내용이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재미있는 부산진구 숨은 이야기,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16, 327~337쪽에 <도깨비와 한 판, 정묘 이야기>로 수록되어 있음. 단, 위 설화의 일부 내용은 삭제되어 있음. -편자 주.

[부산진구 설화 14]

남과 적을 삼지 않는다. 동래 정씨

동래 정씨 중에서 조선시대 최초의 정승 반열에 오른 최초의 인물은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이다. 오늘날의 서울 퇴계로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회현동 부근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뜰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광필이 자택에 머무르고 있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뜰 안의 나무에 13개의 서대(犀帶, 정승만이 두르는 물소 뿔 허리 관대)를 걸어놓고 가버렸다 한다.

그 뒤 조선 중종 때의 정광필로부터 순종 때의 정범조(鄭範朝, 1833~1898)에 이르기까지 동래 정씨 중에서도 한 집안에서만 13명의 정승이 배출되었다. (이는 『한경지략(漢京識略, 조선시대 한성의 역사를 서술한 한성부의 기록』에 전한다)

그런데, 정작 동래 정씨가 천년 세월을 번성했던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그것은 가문에 이어오는 "온화하고 불편부당하며 남과 적을 삼지 않는다."는 가훈 때문이다. 조선시대 극심한 사화와 당쟁 속에서도 벼슬같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후손들이 가훈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 한다.

(출처: 『숨겨진 이야기 부산』 이양훈 저)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32쪽.

[부산진구 설화 15]

정묘사 부처의 영험

양정동의 화지산에는 정묘사(鄭廟寺)가 있는데, 지금은 화지사(華池寺)로 이름이 바뀌었다. 어느 해 법당 안에 정씨 문중 사람이 여럿 모여 놀다가 술을 마시고 담배을 피워대는 통에 당내가 자못 시끄러웠다.

그 와중에 당내에서 놀던 사람 모두가 갑자기 두통이 일고 온몸이 쑤셔오기 시작했으므로 동네 의원을 불러 치료를 했으나 차도가 없었다. 그때 몇 사람이,

"우리가 부처 앞에서 불손하게 놀아 이런 모양이니 정성으로 불공을 한번 드려보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성껏 불공을 올렸더니 아픈 곳이 순식간에 나았다고 한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32쪽.

[부산진구 설화 16]

하마비(下馬碑)의 유래

하마비란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에는 “말에서 내려라(下馬)”라는 뜻을 새긴 네모난 표지석이다. 구전설화에 의하면, 고려 때 동래 정씨 2세조 묘소가 화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분묘(墳墓) 입구인 이곳에서 경의를 표하고 가라는 표식으로 하마비를 세웠고, 이 때문에 하마정(下馬停)이라고 하는 지명도 생겼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왜장(倭將)이 말을 타고 하마비 앞을 지나려 하는데 갑자기 말이 요동쳐 낙마를 했다. 다시 말을 타려고 하자 또 요동을 쳤다. 통역관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니 이곳에 정문도 공의 묘소가 있으니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왜장이 예의를 갖추고는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한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33쪽.

[부산진구 설화 17]

정묘의 하마비가 있어 하마정

동래 정씨는 동래지방의 향호 세족으로 그 시조 정문도의 무덤은 현재 거제동 뒷산 화지산 송림간에 위치한다. 이곳을 정묘라 부르고 있다. 정묘 입구를 지나갈 때 경의를 표하고 가라는 뜻에서 ‘하마비’를 세웠고 사람들은 예를 표하기 위해 말에서 내렸다. 이로 인해 ‘하마정’이라는 이름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 팔도의 가는 곳마다 관아, 궁궐, 향교, 사찰, 왕릉, 사당, 봉산(封山: 나라에서 소나무를 기르던 산) 등의 문 앞에는 반드시 ‘각대소인원개하마(各大小人員皆下馬)’ 또는 ‘하마(下馬)’라고 새긴 비석이 서 있다. 하마비는 존경의 대상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예를 차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인 셈이다. 이 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곳을 지나갈 때에는 ‘모두 말에서 내리시오.’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동래군지》에 ‘정문도(鄭文道)는 고려 현종 때 동평현 안일호장(安逸戶長: 고려 때 나이가 일흔 살이 돼 퇴직한 호장으로 퇴직 후 봉록을 주어 안일하게 살도록 하였음)으로, 공은 흑암리(黑岩里, 지금의 양정동 동쪽)에 살고 있었다. 그는 늙어서 있던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대평소 부는 소리를 듣고 문득 하정(下庭)에 배복(拜伏: 절하여 엎드림)했다. 그리고 손으로 가꾼 청근(菁根: 무)을 노방(路傍: 길가)에 적치(積置: 쌓아 두다)하여 행인의 굶주린 자를 먹임으로써 사람이 감동하여 진청사(賑菁詞)를 지었더니 후손이 다 현명하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조

정에서는 대대로 왕가를 섬기는 신하가 되고, 마을에서는 대대로 벼슬을 하는 집안이 되었다' 고 동래 정씨의 시조 정문도의 이야기에 나온다.

동래 정씨는 동래지방의 향호 세족으로 그 시조 정문도의 무덤이 오늘날 거제동 뒷산 화지산(和地山) 울창한 송림(松林)간에 있는데 이가 정묘(鄭墓)이다. 이 정묘 입구인 이곳에서 경의를 표하고 가라는 뜻에서 '하마비(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를 세우게 되었다.

이 앞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절하며 예를 표하기 위해 말에서 내렸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마정(下馬停)이라는 땅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한다.

임진왜란(1592년) 당시 왜군의 한 장수가 하마정 앞을 말을 타고 지나가려 하자 말이 갑자기 요동쳐 멈추는 바람에 그가 말에서 떨어졌다. 그가 다시 말을 타려고 하자, 또 말이 고개를 치켜들고 요동쳤다. 통역관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여기는 정문도공 묘소가 있는 곳으로 하마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가야 한다."

고 설명했다. 왜장도 할 수 없이 하마비 앞에서 말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고 걸어갔다고 한다.

조선 말 상인 일본인 후쿠다 모라는 자가 상용으로 경성에서 충청도 읍성으로 갔을 때, 말을 타고 하마비 앞을 지나쳤다고 하여 조선 사람들은 크게 화를 냈다. 이것은 우리 관원을 모욕한 것이라고 하여 한바탕 난리를 일으켰다.

후쿠다는 약간의 재주와 학문이 있었다. 한어에도 익숙한 자였지만, 큰 길을 걷는 데 가마를 타는 것도, 말에 타는 것도 제멋대로 했다. 그리고 한일조약에는 하마비 앞에서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여 크게 논쟁을 했다. 완고한 조선 사람들은 끝내 들어주지 않고 죽이라, 혹은 사죄하라고, 욕을 하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돌을 던졌다.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 매우 심했다.

후쿠다는 그러면 나도 무서운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호신용으로 휴대하고 온 단총을 꺼내들고 하나하나 사살해 버리겠다는 태세를 취했다. 조선 사람들은 크게 놀라, 소리를 질렀다. 한 발도 당기지 않았는데도 모두 어딘가로 흩어져 버렸다.

후쿠다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 음성의 관아를 찾아가 현감을 면회하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다. 그 후 일본인에 대하여 무례함이 없도록 훈령을 내렸다. 원근의 조선 사람들도 이 일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 부르르 떨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례한 거둥을 삼가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5~26쪽.

[부산진구 설화 18]

하마정(下馬停)의 지명 유래

[줄거리]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의 경계 일대에는 '하마정(下馬停)'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다. 이 지명은 화지산(華池山)에 동래 정씨(東萊鄭氏) 2세조인 정문도의 분묘(墳墓)가 있음으로 인해 생겨난 것인데, 그 앞을 지날 때면 아무리 지체 높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만 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마(下馬)'라는 푯말이 세워지고, '하마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때 왜구가 쳐들어와서는 "이까짓 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말을 탄 채로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말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내려서 걸어갔다고 한다.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의 경계 일대에는 '하마정(下馬停)'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다. 지금의 부산진구 거제로 일대로, 동해남부선 철로가 지나가는 부근이다. 이 하마정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하마비(下馬碑)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마비'는 존경할만한 유명한 인물을 모셨거나, 그 인물이 기거했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그 앞에 세워진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 즉 '하마(下馬)'라는 표지석(標識石)을 세워둔 것이다.

이러한 하마비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유명인물이 있었던 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주로 분묘(墳墓)나 사당(祠堂), 혹은 정자(亭子) 앞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그 하마비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데, 만약 말을 탄 채로 지나갈 경우에는 말굽이 땅에 붙거나 말이 날뛴다고 한다. 이러한 하마비 관련 전설들은 전국 어디를 가나 대동소이함을 보인다.

부산진구 양정동의 화지산(華池山) 인근에 위치한 이 하마정이라는 지역도 그곳의 유명인물과 연관이 있다. 이는 화지산에 동래 정씨(東萊 鄭氏) 2세조인 정문도의 분묘가 있음으로 인해 그곳에 하마비가 세워진 까닭이다.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는 고을의 현감이라 할지라도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

하마정은 본래부터 높은 사람의 묘나 혹은 사당이나 그 앞을 말을 타고 이래(이렇게), 현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만 말굽이 땅에 붙어버려. 그래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야 돼. 말은 몰고 지나가야 되는 기라. 그만큼 그 사람이 위엄이 있고…. 그러니까 정문도의 묘 앞에 그리 지나갈라 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되는 기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하마비에 얽혀 전해 내려오는 왜구 이야기 한편을 들려주었다.

그래 이야기인즉 일본놈이 거기다 대고,

"이까짓 게 도대체 뭐냐!"

하며 말을 타고 지나가려고 했지. 그랬더니 그만 말굽이 땅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 일본놈도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그래 갔다 하는 거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 양정동의 하마비 앞을 지날 때면 아무리 지체 높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려서 걸어야 하며, 말은 몸종이 조용히 끌고 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 김OO(남, 81세), 전포1동, 2015년 8월 21일 채록(자택)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20~22쪽.

[부산진구 설화 19]

선암사 혜월스님의 일화

혜월(慧月)스님은 근세 대강백(大講伯) 경허(鏡虛)선사의 수제자 가운데 한 분이다. 1861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으며 속성은 신(申)씨이다. 11살 때 예산 정혜사에서 득도하였고, 1884년 천장암에서 깨달음을 얻어 경허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그대는 남방에 인연이 있으니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는 스승의 분부에 따라 선산의 도리사, 팔공산의 파계사, 울산의 마타암, 통도사의 극락암, 천성산 내원사, 부산 선암사에서 선풍을 크게 드날리다 1937년 금정산 안양암에서 세수 77세, 법랍 66세로 입적하였다.

혜월스님은 남다른 근면과 보살행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 세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스님의 배짱

우리나라를 지배 통치하던 총수인 미나미 지로(南次郎, 1920년대 민족 말살정책에 앞장선 조선 총독)가 남방 선지식에 대한 명성이 대단한 것을 알고 하루는 혜월선사를 찾았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총독이 물었다.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진리입니까?"

혜월 선사가 대뜸 말하기를

"불법의 진리? 귀신 방구(방귀)니라."

라고 하니 총독이 어리둥절하며 알아듣지 못하고 가벼렸다. 그런 뒤로 미나미 총독이 혜월선사에게 말로써 한방 얻어맞고 갔다는 소문이 일본국까지 분분하니 퍼져갔는데, 한 일본 군

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한국에 가서 선사를 혼내 주리라."

하고, 한국에 와서 선사가 계시는 방 앞에 이르러서는 인기척도 없이 구둣발로 들어가 혜월선사 목에 장검을 뽑아대거늘, 선사가 손으로 곧장 일본 병사 뒤편을 가리켰다. 뒤를 돌아보니, 선사가 벼락같이 일어나서 일본 병사의 등을 치며

"내 칼을 받아라."

하니, 그 일본 병사가 장검을 거두고 큰 절을 하며

"과연, 큰스님이십니다." 하고 돌아갔다.

(2) 스님의 억지

선사가 선암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 손수 황무지를 개간하여 2천 평의 논을 만든 적이 있었다. 이 옥토를 마을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노리고 있었다. 그는 혜월스님의 천진함을 이용하여 논을 싸게 사기 위해서 밤마다 절에 찾아가 스님에게 논을 팔라고 졸라댔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스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다.

"도대체 뭘 하려고, 논을 산다고 그러시나?"

"농사를 지어 밥술이라도 먹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스님, 시세대로 쳐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파십시오."

마음 약한 혜월스님은 그 부탁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주막으로 따라가 술과 고기가 잔뜩 차려진 술상을 앞에 놓고 계약을 하고 말았다. 교활한 마을 사람의 꾐에 빠져 세 마지기 논을 두 마지기 값으로 팔아넘긴 스님은 현금을 챙겨서 밤늦게야 절로 돌아왔다. 챙겨온 논 값을 제자들에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옜다, 여기 돈이 있다."

스님이 갑자기 엄청난 액수의 돈을 내놓으니 앞뒤 사정을 모르는 대중들이 깜짝 놀라며 여쭙기를

"이게 웬 돈입니까?"

그러자, 혜월스님이 대답하였다.

"내가 논을 팔았다. 마을 사람 박 아무개가 논을 부쳐서 밥술이라도 먹겠다고 졸라대는 통에 팔아버렸다,"

느닷없는 스님의 말에 제자들은 논 값을 헤아려 셈을 해보았다. 돈을 세어본 후에 비로소 그 사람이 스님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저런, 스님이 속으셨습니다. 논은 세 마지기인데 받은 돈은 두 마지기 값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일제히 따지고 들자 묵묵히 앉아 있던 스님이 듣다못해 벌컥 목청을 돋우어 일갈했다.

"이놈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저 논 세 마지기는 아직 그대로 절 앞에 있고 여기에는 두

마지기 논 값이 있으니 다섯 마지기 논으로 불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고난 스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또 이렇게 말하였다.

"이놈들아, 장사는 나처럼 해야 한다. 이런 머저리들."

(3) 스님의 인정

어느 날 마을에 볼일을 보기 위해 산을 내려가던 혜월스님이 지친 몸을 쉬어가기 위해 산밑 오두막에 들렀다. 절 아래에 있는 오막살이에는 과부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절에 딸린 밭을 빌려 부쳐 먹고 살면서 이따금 절의 허드렛일도 돌봐주곤 했기 때문에 절 식구들과는 무관하지 않은 사이였다.

툇마루에 앉아 쉬던 스님이 무심코 방문을 열어보니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대낮인데도 방안에는 이불이 깔려 있고 벌거벗은 부목(負木, 절에 땔나무를 하는 사람)과 과부가 나란히 누워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 부목은 선암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꾼으로 몸이 건장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스님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는 장에서 요긴한 물건을 사기 위해 소를 끌고 일찌감치 절을 나섰는데, 새벽 일짝 나간 사람이 과붓집 안방에서 남녀가 벌거벗고 뒹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 모습을 목도하고 놀란 스님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자네는 소를 끌고 장을 보러 나갔는데 장에는 안 가고 왜 여기에 있는고?"

그러자 벌거벗은 부목이 기겁을 하며 일어나서는 엉겁결에 거짓말로 둘러댔다.

"장을 보러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이 집에 들렀습니다. 스님, 너무나 배가 아파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 자네는 배가 아파 그럴 수 있다지만 과부댁은 왜 밭에 나가지 않고 대낮에 방문을 닫고 누워 있는고?"

과부도 어쩔 수 없이 둘러댔다.

"저도 배가 아파 누워 있는 것입니다. 큰스님."

"참 야단났군."

방문을 닫아준 혜월스님은 마을에 가서 봐야 할 일을 제쳐놓고 헐레벌떡 산중의 절로 돌아오면서 연신 중얼거렸다.

"야단났다. 두 사람이 다 배가 아파 야단났다. 야단났다 야단났어."

절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공양주를 불렀다. 공양주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자 다급히 소리쳤다.

"빨리 죽을 쒀, 죽을 쑤란 말이야."

영문을 모르는 공양주가 스님에게 물었다.

"갑자기 죽을 쑤라니요. 스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대답하였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부목이 아파 죽을 쒀 갖다 주어야겠어."

"부목이 배가 아프다니요.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요?"

공양주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하자 스님이 걱정스런 얼굴로 답했다.

"부목만 아픈 게 아니다. 아랫마을 과부댁도 몹시 배가 아프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고 같이 누워 있다. 빨리 두 사람에게 죽을 쒀서 갖다 줘야 해,"

그제야 대중들은 혜월 큰스님이 아랫마을 과부 집에서 무엇을 보고 왔으며, 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를 헤아리고 모두들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건장한 부목과 과부댁 간의 심상치 않은 관계는 이미 소문이 날대로 나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의 말을 들은 대중들은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큰스님의 순진무구함을 비웃는 것 같아 오만상을 찌푸리며 웃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 어쩔 수가 없게 된 공양주는 서둘러 죽을 쑤었다.

곁에서 죽이 될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던 스님은 죽이 다 끓기도 전에 냉큼 죽통을 챙겨서는 몸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행자를 시켜도 되지만 배가 아파 벌거벗고 누워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날라주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산길을 반쯤 내려가고 있는데 배를 움켜쥐고 있던 부목이 소를 몰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얼굴에는 언제 배가 아팠냐는 듯 전혀 아픈 기색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부목이 오히려 혜월스님에게 물었다.

"큰스님, 어딜 가십니까?"

"자네한테 가는 중이네."

"아니, 왜요?"

"자네와 그 젊은 과부가 배가 아프다고 하기에 죽을 쑤어가지고 가네."

그 순간 부목은 할 말을 잊었다.

"자네는 배가 다 나았는가? 그럼 과부댁은 어떤가? 배가 아프면 죽을 먹어야지. 그래서 죽을 쑤어 왔어. 여기서라도 훌훌 마셔두게. 너무 급히 마시지는 말고."

혜월스님을 속인 부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 그리고는 추가하여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가 29세 되던 해의 봄, 스승 경허는 법호 '혜월'과 함께 전법게(傳法揭)를 내렸다.

"일체 법을 알려고 한다면(了知一切法) / 자기 마음속에 아무 것도 가지려 하지 마라(自性無所有) /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깨치면(如是解法性) / 곧 노사나 부처를 보게 되리라(卽見盧舍那) / 세상의 법을 버리고 생사 초월한 도리 부르짖으니(休世諦倒提唱無生印) / 청산 다리 한 관문으로 서로 발라 부치노라(靑山脚一關以相塗糊)"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20~224쪽.

[부산진구 설화 20]

仙岩寺의 꿈

지금 堂甘洞의 북쪽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는 仙岩寺는 新羅 때의 古刹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四세기 초 부산지방에 거칠산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북에서 남으로 뻗어 나온 新羅의 세력에 의하여 신라 제四대 脫解王 때 정복된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는 五〇五년에 지금의 부산시 堂甘洞에 東平縣을 두었으니 東萊邑誌에 仙岩寺가 동평현에 소속되어 있다.

그 당시 불교의 독실한 신자였던 한 관리가 동평현의 縣令으로 부임해 왔는데, 어느날 그는 일본배가 그곳으로 표류해온 것을 보고 갖은 힘을 다하여 그네들을 구출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여 잘 대접도 해주었더니 며칠 뒤 선장이 찾아와서,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영감님께서 도와주셨던 덕분으로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감님께 보답할 아무것도 없아옵니다마는 배에 약간의 약주가 있느니 한 잔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간곡히 청했다.

縣令으로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이때 선장은,

「저희들은 여러분을 모시고 싶사오나 배가 작아 부득이 현령 영감님 한 분만 모시게 되었아오니 혼자 오셔서 놀다 가시옵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마음씨가 고운 현령은 그들을 따라 배까지 갔더니 뱃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됐어. 인질로 납치해 가자」라고 하면서 그만 현령을 가두곤 닻줄을 올려 일본으로 향했다.

현령은 어처구니 없는 왜구들의 처사에 어쩔 수 없이 반항도 못하고 일본까지 끌려가서 포로의 몸이 되었다. 이래서 현령은 너무나 이외의 참변을 당하여 참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었다.

붙잡혀 간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수심과 피로 끝에 잠든 현령은 꿈속에서 그리웠던 고국의 仙岩寺 주지를 만났다.

「스님, 이 일이 웬 일이옵니까? 저는 일본 뱃사람을 구출해준 덕분에 영어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옵소서」라고 두 손 모아 빌었다.

「가히 염려 마오. 죄 짓지 않았으니 돌아갈 길도 있겠지요」라고 정좌를 하면서,

「옷을 바로 입고 바닷가로 나갑시다」 하면서 길 앞에 섰다.

바닷가엔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었다. 스님은 「빨리 배에 오르시오」라고 손짓을 했다.

현령은 같이 가길 원했으나 스님은 고개를 흔들며,

「혼자 가오」라고 하면서 배를 왈칵 밀었다.

현령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우리나라 동평현 자기 집에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

*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69~171쪽.

[부산진구 설화 21]

선암사의 꿈

신라는 505년에 지금의 당감동 일대에 동평현을 두었는데, 『동래부읍지(1832년)』에 선암사가 동평현 영역에 속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금의 선암사는 백양산 산기슭에 있지만, 옛날에는 절 가까운 곳까지 파도가 밀려드는 바닷가에 있었던 모양이다. (자성대에 있던 건강사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시절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관리가 동평현의 현령으로 부임해 왔는데, 어느 날 일본 배가 그곳으로 표류해온 것을 보고 갖은 힘을 다하여 선원들을 구출해 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동안 후하게 대접을 했더니 며칠 뒤 선장이 찾아와서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영감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감님께 보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배에 약간의 약주가 있느니 한 잔이라도 올리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했다.

그래서 현령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이때 선장이

"저희들이 여러분을 다 모시고 싶사오나, 배가 작아 부득이 현령 영감님 한 분만 모실 수 밖에 없으니 혼자 오셔서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음씨 너그러운 현령은 그들을 따라 배에 올랐는데, 뱃사람들이 그만 태도를 돌변하여

"이제 됐어. 인질로 납치해 가자."라 하면서 그를 가두고는 닻줄을 올려 일본으로 향했다. 갑작스런 왜구들의 처사에 어쩔 수 없이 일본까지 끌려간 현령은 포로의 몸이 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붙잡혀 간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수심과 피로에 지쳐 설핏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선암사 주지 스님이 나타났다.

"스님, 이 일이 웬일이옵니까? 저가 일본 뱃사람을 구출해 준 것이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영어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하며 두 손 모아 빌었다.

"가히 염려 마오. 죄 짓지 않았으니 돌아갈 길도 있겠지요."라고 말한 스님은 정좌를 하면서

"옷을 입고 바로 바닷가로 나갑시다."라며 앞장서 길을 안내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매여 있었다. 스님은

"빨리 배에 오르시오," 하며 손짓으로 재촉했다.

현령이 같이 가길 원했으나 스님은 고개를 흔들며

"혼자 가오."라고 하면서 배를 왈칵 밀었다.

화들짝 놀라 깨어보니 모든 게 꿈이었다. 그런데 고국의 동평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24~225쪽.

[부산진구 설화 22]

선암사(仙岩寺)의 꿈

지금 부산진구 부암동(釜岩洞)의 북쪽 백양산(白羊山) 기슭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선암사(仙岩寺)는 신라 때의 고찰(古刹)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라 때 선암사는 동평현(東平縣)에 속해 있었는데, 그 때는 동평현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서 절 가까이까지 파도가 밀려 왔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느 관리가 동평현의 현령(縣令)으로 부임해 왔는데, 그는 매우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령은 바닷가에 나갔다가 일본배가 표류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그들을 구출해 주었고, 또 그들을 안내해서 융숭하게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일본배의 선장이 찾아와서는,

"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영감님께서 그간 잘 도와주신 덕분으로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감님께 보답할 아무 것도 없사옵니다마는 배에 약간의 약주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술 한 잔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하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현령은 그들의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때 선장은 다시,

"저희들은 여러분을 모시고 싶사오나 배가 작아서 부득이 현령 영감님 한 분만을 모시게 되었사오니, 혼자 오셔서 놀다 가시옵기를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선량하기 그지없는 현령이 그들을 따라서 뱃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뱃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됐어. 인질로 납치해 가자."

고 하면서, 그만 현령을 배에 가두고는 닻줄을 올려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현령은 이 어처구니없는 왜구들의 처사에 어쩔 수 없이 일본에까지 끌려가서 포로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허기가 겹치고 피로가 쌓여서 현령은 깜빡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그리웠던 고국의 선암사 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이 일이 웬 일이옵니까? 저는 일본 뱃사람을 구출해 준 덕분에 포로가 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구해 주옵소서."

현령은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가히 염려 마오. 죄 짓지 않았으니 돌아갈 길도 있겠지요."

그리고는 다시 정좌(正坐)를 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옷을 바로 입고 바닷가로 나갑시다."

스님이 앞에서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바닷가엔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빨리 배에 오르시오."

하고 손짓을 했습니다. 현령은 뱃전에 서서 아직 배에 오르지 않고 서 있는 스님에게 같이 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고개를 흔들며,

"혼자 가오."

하면서, 망망대해(茫茫大海)를 향해 배를 왈칵 밀었습니다.

그때 현령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그 사이 자신은 동평현의 자기 집에 돌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119~122쪽.

[부산진구 설화 23]

선암사 주지와 동평 현령

- 표류 왜선 구해주고 되레 납치된 현령 -

- 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부산진구 부암3동 선암사(仙岩寺)는 백양산(642m) 동쪽 산록 아래 아담하게 터잡고 있는 천년고찰이다.

신라 때 지은 절로 그때는 동평현(東平縣 · 지금의 부산진구, 동구, 영도구 지역을 다스린 치소)에 속해 있었고 동시에 바닷가에 인접해 있었다. 당시 불교 신자인 한 관리가 동평현의 현령으로 부임해 왔다, 어느 날 그는 왜선이 사찰 인근에 표류해 온 것을 보고 그들을 구출해 잘 대접해 주었다.

며칠 뒤 선장이 현령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현령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령님께 보답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배에 약간의 약주가 있으니 술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현령은 선장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현령이 부하들을 데리고 왜선에 오르려고 하자 선장은 "저희는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싶으나 배가 작아 현령님만 모시고자 하오니 혼자 오셔서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마음씨가 올곧은 현령이 그들을 믿고 배에 오르

자 그들은 갑자기 “이제 됐어. 인질로 납치해 가자”고 하면서 그만 현령을 가두고 닻줄을 올려 일본으로 향했다.

어처구니없는 왜구들의 처사에 현령은 반항도 못하고 일본으로 끌려가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의외의 참변을 당한 현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깊은 수심으로 고뇌하던 현령은 꿈속에서 선암사의 주지를 만났다. “스님, 이 일이 웬일이옵니까? 저는 왜구를 구출해주고도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시옵소서”라고 두 손 모아 빌었다. 스님은 “가히 염려마오. 죄짓지 않았으니 돌아갈 길도 있겠지요”라고 말한 후 “옷을 바로 입고 바닷가로 나갑시다”라며 갈 길을 재촉했다.

스님을 따라 바닷가로 나오니 작은 배 한 척이 있었다. “현령님, 빨리 배에 오르시오”라는 스님의 손짓에 현령은 스님과 함께 가길 원했으나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혼자 가시오”라고 하면서 배를 왈칵 밀었다.

현령이 깜짝 놀라 깨어 보니 우리나라 동평현 자기 집에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

‘선암사기’에 따르면 조선 초기 선암사 불상을 왜구가 빼앗아 왜나라에 모셨더니 흉한 일이 잇따라 생기며 죽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해서, 점을 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조선의 불상을 약탈해 와서 무덤 아래 부정한 곳에 모셔서 그런 화를 입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말을 들은 왜나라 사람들은 곧바로 불상을 배에 실어 진해 웅천에 보내 웅포(제포)의 성덕사(聖德寺)에 모시게 했다.

이후 동평현 사람 송성민이 감영에 호소, 그 불상을 되돌려 받을 것을 청했다. 마침내 그 청이 받아들여져 선암사 승려들이 그 불상을 모셔왔다.

다시 모셔온 불상은 그 생김새가 덕이 있어 보여 불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월지국(옛 서역 나라)에서 만든 것이라 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 불상의 소재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고려 때 크게 창궐한 왜구에 이해 사람, 불상, 식량 등을 약탈당한 동래지역이 왜구의 침탈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22~124쪽.

[부산진구 설화 24]

선암사(仙巖寺) 관음보살(觀音菩薩)의 영험

[줄거리]

부산진구 부암3동에 위치한 선암사(仙巖寺)는 관음보살의 영험(靈驗)으로 유명한 곳이다. 어느 때인가 왜구가 배를 타고 선암사가 있는 동평현으로 흘러들어 왔다. 동평현감은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 잘

대접해 주었다. 후한 대접을 받은 왜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답례를 하겠다며 동평현감을 자기들의 배에다 태웠다. 그리고는 동평현감을 납치해 일본으로 가버렸다.

왜구에게 끌려간 동평현감은 시간만 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선암사의 주지가 나타나더니 자신을 따라 조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따라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배 한척이 대여 있었다. 선암사 주지는 동평현감을 태우더니, 먼저 가라고 하면서 떠밀어버렸다. 동평현감이 꿈에서 깨자 자기집에 돌아와 있었다.

선암사(仙巖寺)는 부산진구 부암3동에 위치한 고찰(古刹)로, 백양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선암사는 해양도시(海洋都市)인 부산에 위치해 있는 만큼 그와 연관된 전설 또한 바다를 근간으로 왜구와 연결되고 있어 해양사찰설화(海洋寺刹說話)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원로교수님을 만나 먼저 부산진구 일대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 물었다.

옛날에 이기 전포동이 '전'자가 '밭 전(田)'자지. 그러니까 이게 밭, 또 '개 포(浦)', 그러니까 '밭개마을'이라. 여기가 밭개마을이라.

하면서 전포동의 옛 지명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현재의 모습밖에 모르는 필자가 "전포동에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기가 전부 바다였다 말이라. 이 밑이…. 이기 전부 다 밑이 바다라. 이걸 일본놈이 매립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가 이 밑에까지도 다 왔어요. 저 밑에….

지금 서면(西面)이 사실은 바다였어. 그래서 바다였기 때문에 그 견강사(見江寺) 설화가 생깄는 기지. 선암사(仙巖寺) 이야기가 생긴 거지.

하면서 선암사 이야기를 꺼내길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사 하고 요청했다.

선암사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암자로 썼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여간 그 '선(仙)'자 그거는 여기에 신선사상(神仙思想)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저기 신선대(神仙臺) 있지. 구포에 가면 또 신선이 하강했다는 강신대(降神臺)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배정고등학교 거기도 옛날에 그리로 신선이 지나갔다 해가지고 거기에도 푯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면서 선암사가 어쩌면 신선사상(神仙思想)과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 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선암사와 견강사의 관계에 대해 물었더니,

그래 선암사는 저게 인제 견강사 하고 결부돼. 저게 다른 절인데, 견강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

재 범내골 이쪽에 내[川]가 큰 기 흘렀거든. 그래서 거기 '범이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범내골이라 한다.' 그러니까 거기가 모두 산 밑이 바다, 강이라. 거기에 인제 견강사가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암사는 지금 현재 백양산(白楊山) 거기에 있는데, 그 자리를 갖다가 저~ 신라 말기에 애장왕(哀莊王) 때 그걸 지었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원효대사가 거기서 수련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 견강사는 조금 격이 높았던 모양이라.

하길래 필자가 "지금도 견강사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 견강사의 위치는 대략 어디쯤이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은 모르지. 모르는데, 거기 동평현에 선암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견강사도 동평현에 있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절이 있었기는 있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두 개가 있던 것이 하나가 됐는 기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하면서 선암사의 관음보살(觀音菩薩)과 연관된 동평현 현감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왜구가 배를 타고 동평현으로 흘러들어 왔다고 한다. 그래서 동평현의 현감이,

"아! 그놈들 불쌍타. 파선이 돼가 와가지고…."

하면서 대접을 잘 해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왜구들이 대접을 잘 받고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감을 부르더니,

"아!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았는데, 우리도 대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배에 타라고 했다. 그래서 동평현 현감이 배에 오르고, 현감을 따르는 수행원들도 함께 타려고 하자,

"우리가 현감한테 감사로써 술대접을 할라 하니까 현감만 타도록 하시오."

하고는 현감만 태운 채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 현감이 타니까 그만 이놈들이 납치를 했는 기라. 납치를 해서 일본으로 갔는 기라. 그런데 그 현감이 독실한 불교신자라. 그래 일본에, 아마 대마도(對馬島)일 거야. 거기 가가지고, 내처(계속) 인제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래 했는 기라.

왜구에게 끌려간 동평현의 현감은 시간만 나면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읊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동평현 현감의 꿈에 선암사의 주지스님이 나타나더니,

"빨리 날 따라오라. 날 따라오면 조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었다. 현감은 그 주지스님을 따라갔는데,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 바닷가에는 배가 한 척이 대여 있는데, 선암사 주지스님이 동평현 현감을 보고 그 배에 타라고 했다. 현감이 배에 오르자,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은 먼저 가라."

하면서 배를 확~ 밀어버렸다. 그런데 동평현 현감이 꿈에서 깨어보니 동평현의 자기집에 와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힘이라는 거지. 관음보살의 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제보자: 김OO(남, 81세), 전포1동, 2015년 8월 21일 채록(자택)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47~52쪽.

[부산진구 설화 25]

의승장 사명대사의 도술(道術)

- 부산진성을 쌓고 신통력으로 일본의 간계(奸計)를 물리 친 사명대사 -

- 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사명대사(四溟大師, 1544~1610)는 조선 선조 때 고승으로 속성은 임(任)씨, 수성(守城)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명은 응규(應奎)이고 법명은 유정(惟政)이며 법호는 송운(松雲) 또는 사명당이다.

1558년 황악산 직지사로 들어가 신묵화상의 강론을 듣고 선지(禪旨)를 깨달았다.

1561년에 선과(禪科)에 급제하고, 당시 학사 시인과 교유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 금강산 유점사에서 왜군을 맞는다. 이때 사명대사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먹고 쉬고 놀면서 여러 해 동안 지나온 것이 모두가 임금의 덕인 것이다. 그러하니 이런 어렵고, 위태로운 때를 당해서 어찌 앉아서 구경만 한단 말인가"하고선 승명을 모아 순안(巡案)으로 향하니 그 동안 의승(義僧)들이 각처에서 일어나 그 수가 수천 명

이 되었다.

왜군은 사명대사가 있는 유점사에 침입하여 우리 쪽을 모두 결박해 놓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사는 10여명의 문도를 거느리고 사문을 나서 왜장을 맞는다.

대사는 3명의 왜장을 사문으로 안내한다.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수고많았소, 대사가 손수 달인 차 한 잔을 왜장에게 권하며 사람을 살려주라는 권계(勸戒)를 설한다. 대사의 차를 받아 마시는 왜장은 감탄 아닌 감복하여 교화당하여 결박한 사람들을 모두 풀어 주었다. 왜장은 모두 손을 모아 대사의 설법을 받아들었으며 대사는 3일 동안 왜장의 대접을 하는 동안 강원도 고성 9여 개 군이 왜군의 화를 면하게 됨은 대사와 왜장간의 차 한 잔 나눔이라 하겠고 호국 차승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왜군 병사들에게 무차별 살생과 진격을 부추긴 것은 전리품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린 것이다. 병사들에게 사기 양양을 위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병사들이 갖게 하였다. 그들은 조선에 가면 보물이 많다. 이 보물을 손에 넣는 자는 자기 것이 된다는 유언비어가 있었다.

사명대사는 혼자서 왜군 장수 카토오 키요마사(가등청정)를 찾아가 회담 대화에서 “너희들이 조선을 침범하여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되겠느냐?”하며 호통을 쳤다. 왜장이 깜짝 놀라 물었다. “조선에 보물이 있다는데 무엇이 보물이요” 대사는 “조선에 보물이 없고 오직 너의 그 머리가 우리 보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카토오 키요마사가 그만 얼굴색이 파랗게 변하였다고 한다.

사명대사는 백산 백산사(옥련서원, 수영구 민락동)에 거처하면서 1601년 일본 재침 대비책으로 지정학적 요충지인 부산진성을 2년간 수축할 때 총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때 승당에 집을 지어 부역으로 나온 승병들을 재우고 먹이는 거처지가 승당 마을(지금의 동부올림픽 아파트 일대)이었다.

부산에서 활동한 사명대사의 호국업적을 기리기 위해 부산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초읍동) 사명대사 동상과 유정대사 충의비가 있다. 부산시불교연합회에서는 매년 사명대사의 열반일인 음력 8월 26일 이 곳 호국광장 동상 앞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추모대법회를 봉행해오고 있다.

1605년 사명대사는 선조대왕의 왕명을 받들어 통신사로 부산포를 떠나 일본에 건너갔다. 그때 사명이 가는 길가에 설보화상(設寶和尙) 즉 보물 이야기로 유명해진 사명을 보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군중이 모였다고 한다.

왜놈들은 사명대사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다. 사명대사가 오는 길 양쪽 십리에 걸쳐 병풍을 쫙 펴났다.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병풍의 글을 다 외우라고 하였다. 못 외우면 목이 달아나는 줄 알라고 엄포를 놓았다. 사명대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본 것을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왜놈들이 중간에 한 폭의 글자를 빼먹었다고 트집을 잡으니, “거기에는 병풍이 접혀 있었다.”고 하였다. 왜놈들이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병풍이 접혀 있었다.

이번에는 사명대사를 쇠로 만든 방에 들어가게 해서는 불을 떼었다. 왜놈들이 사명대사를 태워 죽일 작정이었다. 사명대사는 그걸 미리 알았다. 영사(수은과 유황을 가열하여 만든 약재)를 갈아서 벽에다 눈 설(雪)자, 서리 상(霜)자를 써 붙이고 밤새 주문을 외었다.

이튿날 아침 왜놈들은 사명대사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세상에 죽기는 뭘 죽어?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게다가 수염에 고드름이 꽁꽁 얼어 있었다.

사명대사가, "이 놈들아! 일본은 따뜻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간밤에 추워서 얼마나 떨었는지 아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거야. 또 이번에는 왜놈들이 일본천황을 만나러 가는 궁궐 앞에 쇠로 된 말 다섯 마리를 뜨거운 불로 벌겋게 달구어 놓고는, "저 말을 타야 우리 천황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사명대사가 벌겋게 단 말 앞에 서더니 북쪽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주문을 외는 거야. 그랬더니 금세 소나기가 좌르르 쏟아져서 벌겋게 단 말이 식어버렸지 뭐야? "너희들 재주가 이것뿐이냐?" 사명대사가 호통을 치니 왜놈들이 꼼짝없이 항복하고 말았다.

사명대사가 국명을 무사히 수행하고 부산으로 돌아올 때, 왜란 때 잡혀간 포로 3,500여명을 데리고 돌아왔느니, 당시 백성으로서는 대상의 외교적 성과에 큰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242~246쪽.

[부산진구 설화 26]

성지곡의 아름다운 이야기

부산의 유원지 성지곡은 지금은 수원지가 되어 그 계곡의 깊은 부분을 알 수 없지만, 일찍이 계곡으로 있을 때 그 경치는 천하절경이었습니다. 조선 중기까지 백양사 큰 사찰이 여기에 있었고 백양사 12암자 중 하나인 정수암精修庵이 가장 아름다운 계곡 화도곡化挑谷에 있었습니다. 화도곡은 봄철 복사꽃이 만발하면 그 떨어지는 꽃잎이 계곡에 흘러 이태백의 싯귀처럼 도화유수묘연거桃花流水杳然去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의 선경을 연출했습니다.

수량 풍부한 성지계곡에 석연지石燕池라는 큰 소沼가 있어 가을에 단풍이 붉은 홍장을 이뤘는데 석연지는 언제부턴가 가기소歌妓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기소는 한자로 노래 歌, 기생 妓, 못 沼로 노래하는 기생이 물에 빠져 죽은 뒤 그를 추모해 가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동평현 시대 어느 봄날 동평현감이 서생과 기생들을 거느리고 성지곡에 놀러와 석연지 위의 큰 나무에 그네를 매고 그네 타기 대회를 펼쳤습니다. 흥겨운 노래가락과 함께 누가 더 그네를 잘 타나 기생들은 경쟁하여 대회는 무르익었는데, 아뿔싸! 그네를 구르던 한 기생이 발이 미끄러져 추락해 아래 석연지 소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기생이 빠져죽자 이로부터 석연지는 가기소가 되었습니다. (1970년[80]) 발간된 동래부지는 동

래에 여기담女妓潭이 있다고 했으니 여기담이 가기소입니다)

지난 세기 초까지 수원지가 들어서기 전 부산과 동래사람들이 봄을 찾던 화전花煎놀이 장소가 여기 성지곡이었습니다. 계곡에 날리는 복사꽃처럼 소에 떨어져 숨진 가기가 있기에 더욱 아름다워진 성지곡입니다. 가기의 동상이라도 하나쯤 세운다면 성지곡이 더욱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이 가기를 주제로 뮤지컬을 만든다면 불후의 명작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양훈, 『숨겨진 이야기 부산』, 다인커뮤니케이션즈, 2006, 266~267쪽.

[부산진구 설화 27]

성지곡의 아름다운 이야기

성지곡(聖知谷)은 1907년 수원지 공사 착공 이후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그 이전의 계곡 풍경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천연계곡으로 있을 때의 경치는 천하절경이었다. 조선 중기까지 백양사 큰 도량이 여기에 있었고 백양사 12암자 중 하나인 정수암(精修庵)과 빼어나게 아름다운 계곡인 화도곡(化挑谷)을 품고 있었다.

봄철 화도곡에 복사꽃이 만발하면 그 떨어지는 꽃잎이 계곡에 흘러 이태백의 시구(詩句)처럼 도화유수묘연거(桃花流水杳然去)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의 선경을 연출했다.

수량이 풍부한 성지계곡에 '석연지(石燕池)'라는 큰 소(沼)가 있어 가을에는 진홍빛 단풍이 홍장(紅帳)을 둘렀는데, 언제부턴가 선역지가 '가기소(歌妓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가기소는 한자로 '노래 가(歌), 기생 기(妓), 못 소(沼)'를 써서, 노래하던 기생이 물에 빠져 죽은 사실을 추모하여 가기소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지명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동평현 시대 어느 봄날 동평현감(東平縣監)이 서생과 기생들을 거느리고 성지곡에 놀이를 와서는 석연지 위의 거목에 그네를 매고 그네타기 대회를 열었다. 흥겨운 노랫가락 장단 속에 대회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한 기생이 '아뿔사!' 그만 발을 헛디뎌 소(沼)로 익사하고 말았다.

아름다운 기생이 빠져 죽자 그때부터 석연지를 가기소라 불렀다고 한다. 1740년 편찬된 『동래부지』에 "동래에 여기담(女妓潭)이 있다."라고 했으니, 그곳이 바로 가기소이다. 이 이야기는 1900년대 초에 기록된 부산지역의 구전을 채집·수록한 한문서지(漢文書誌)에 전한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16~217쪽. 이 글은 이양훈, 『숨겨진 이야기 부산』을 참고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80) '1970년'은 다른 설화의 기록을 참고하면 '1740년'의 잘못으로 보임. -편자 주.

[부산진구 설화 28]

성지곡 성지대사의 탄식과 죽음

부산의 대표적 공원 초읍 성지곡聖知谷 공원은 조선시대 명풍수인 성지性智대사가 천하 제일의 명당이라고 하여 성지곡으로 전해옵니다.

성지대사는 광해군 때의 인물로 광해군의 각별한 신임을 얻어 임진왜란 때 불탄 한양의 궁궐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경복궁에 흡수된 자수궁과 인경궁, 그리고 경희궁터에 있었던 경덕궁을 성지대사가 복원하였으니 뛰어난 능력의 스님이었습니다. 성지대사는 조정 유신들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승병들을 동원하여 어렵게 궁궐 복원을 이뤄냅니다. 대사는 서자庶子출신이었기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성지대사는 용궁현감을 지낸 홍석구의 서얼입니다)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보호했듯 신분을 뛰어넘는 광해군의 각별한 신임이 있어 궁궐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나자 대사는 반정공신들에 의해 가장 먼저 처형되었습니다. 성지대사는 일찍이 자신의 참수 될 것을 예언한 적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9년 6월 11일조에 성지대사의 탄식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나를 미워하므로 이 중놈의 모가지는 조만간에 짤려서 도랑에 내던져 질 것이다. 나는 인왕산의 새 궁궐 터를 정하였을 뿐, 지금 세 곳의 대궐역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본래 나의 뜻이 아니라 임금의 뜻이다. 그런데 조신들은 어찌하여 임금에게 ‘중지시켜 달라’는 한 마디 간언도 올리지 않으면서 왜 나만을 탓하는지 모르겠다.”고 성지가 탄식하자, 조신朝臣들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다고 실록의 사관은 기록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비명에 사라져 간 그 성지대사를 우리 부산시민들이 나서 기렸으면 합니다.

* 이양훈, 『숨겨진 이야기 부산』, 다인커뮤니케이션즈, 2006, 270~271쪽.

[부산진구 설화 29]

성지곡 성지대사의 탄식과 죽음

부산의 대표적 공원이었던 초읍의 성지곡(聖知谷)은 조선시대 이름난 풍수인 성지(性智)대사가 천하제일의 명당이라고 점찍었다 하여 이곳을 성지곡이라 칭하였다고 전해온다.

성지대사는 경북 군위분 소보면 봉황리 출생으로 본관이 남양이며 용궁현감을 진낸 홍석귀(洪錫龜, 광해군 13~숙종 5)의 서얼(庶孼)이다. 15세에 군위 월영사에 입산 출가하여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대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광해군 때의 인물로 임금의 각별한 신임을

얻어 임진왜란때 불탄 한양의 궁궐을 재건한 이로도 유명하다.

지금은 경복궁에 흡수된 자수궁과 인경궁, 그리고 경희궁터에 있었던 경덕궁을 성지대사가 복원했는데, 조정 유신(儒臣)들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승병들을 동원하여 어렵게 이루어낸 역사(役事)이다.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보호한 것과 같이 신분을 초월한 광해군의 각별한 신임이 있었던 것이다.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자 대사는 반정공신들에 의해 가장 먼저 처형되었다 한다. 성지대사는 일찍이 자신이 참수될 것을 예언한 적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9년 6월 11일 조(條)에 성지대사의 탄식이 실려 있다.

"여러 신하들이 나를 미워하므로 이 중놈의 모가지는 조만간에 잘려서 도랑에 내던져질 것이다. 나는 인왕산의 새 궁궐터를 정하였을 뿐, 지금 세 곳의 대궐 역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본래 나의 뜻이 아니고 임금의 뜻이다. 그런데 조신들은 어찌하여 임금에게 '중지시켜 달라'는 한 마디 간언도 올리지 않으면서 왜 나만을 탓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듣고 조정대신들이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을 사관이 기록해 놓았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15~216쪽에 이양훈, 『숨겨진 이야기 부산』을 참고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부산진구 설화 30]

초읍 성지곡과 성지대사

성지곡은 성지대사가 경상도에서 산수와 풍수가 빼어난 명당으로 점찍었다 하여 이름 붙였다 전해진다. 성지곡에 있는 '석연지'라는 큰 못은 한 사건으로 인해 '가기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옛날 동편현감이 석연지에 그네타기 대회를 열었는데 한 기생이 못에 떨어져 죽었고, 그 기생을 추모하고자 가기소라 부르게 됐다.

초읍 성지곡(聖知谷)은 천연 계곡으로 경치가 천하제일 절경이었다. 조선시대 백양사 12암자 중의 하나인 정수암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계곡인 화도곡을 품고 있었다.

봄철 화도곡에 복사꽃이 만발하여 그 떨어지는 꽃잎이 계곡에 흐르는 장관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빼어났다. 동평현이 생긴 후 읍지를 물색하기 위해 명사들이 음양에 맞아 이곳을 후보지로 점쳐놓기도 했다.

성지대사는 조선시대 이름난 풍수지리 지관(地官: 집터나 묏자리 등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인데, 경북 군위군 소보면 봉황리 출생으로 본관이 남양이며 용궁 현감을 지낸 홍석귀(1621~1679)의 서얼이다.

성지곡은 성지대사가 전국의 명산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경상도에서 산수와 풍수가 가장

빼어난 명당으로 점찍었다 하여 이름 붙였다고 전해온다.

성지곡은 수량이 풍부하고 '석연지'라는 큰 못이 있어 가을에는 주변이 진홍빛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석연지는 '가기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가기소라는 이름은 노래하던 기생이 물에 빠져 죽은 사실을 추모하기 위해 붙여졌다고 한다.

동평현 시대 어느 봄날, 동편 현감이 서생과 기생들을 거느리고 성지곡에 놀러 와서는 석연지 위의 큰 나무에 그네를 메고 그네타기 대회를 열었다. 흥겨운 노랫가락 속에 대회가 무르익어 가던 중 한 기생이 '아뿔싸!' 그만 발을 헛디뎌 못에 떨어져 익사하고 말았다. 아리따운 기생이 물에 빠져 죽자 그때부터 석연지를 가기소라 불렀다고 한다. 《동래부지》(1740년)에 '동래에 여기담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곳이 바로 가기소로 추정된다.

1909년 성지곡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용 수원지를 만들었다. 당시 부산 인구가 4만여 명이었는데 성지곡 수원지는 30만 명의 식수용 댐으로 사용되었으며, 1978년에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어린이대공원'으로 개칭되었다.

오늘날 이 공원은 등산객들과 산책, 삼림욕을 위한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또한 각종 운동시설을 갖춘 건강센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19~20쪽.

[부산진구 설화 31]

성지곡(聖知谷)과 초읍동(草邑洞)의 지명 유래

[줄거리]

성지곡(聖知谷)은 조선 중기 풍수지리에 밝았던 성지대사(性智大師)와 연관이 깊은 곳이다. 성지대사가 명지(明地)를 찾아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다가 이 곳 부산에 이르게 되었다.

동래현청을 잡기 위해 살피던 중 성지곡에 이르러 "여기가 참 좋구나." 하고는 지도에 표시[抄]를 해두었다. 그리고 두구동에 가서는 "여기도 괜찮은데, 한번 두고 보자." 했다. 거기서 다시 내려와 지금의 동래현청 자리에 터를 잡아주었다. 그래서 성지대사가 초(抄) 해두었던 곳은 초읍이 되었고, 두고 보자고 했던 곳은 두구동이 되었다.

그리고 성지곡(聖知谷)은 성지대사가 내려온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성지곡은 수원지로도 유명하지만, 그 이름의 유래와 연관된 이야기가 있어 부산진구민들에게는 더욱 의미를 지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성지곡(聖知谷)이라는 지명은 조선 중기 풍수지리에 밝아 궁궐터까지 잡았던 성지대사(性智大師, ?~1623년)라는 인물과 연관이 있다.

성지대사의 출생과 가계(家系)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

(仁祖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조불교(李朝佛敎) 등의 문헌을 통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 그는 풍수지리에 밝았으며, 그로 인해 광해군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왕에게 인경궁(仁慶宮)、경덕궁(慶德宮)、자수궁(慈壽宮) 등을 짓게 했고, 1618년(광해군 10년)에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라는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벼슬을 받았다. 그는 새로 지은 궁궐 옆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인조반정(1623년) 후 사형을 당했다.

간혹 책자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성지대사에 대해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자 반정공신들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하면서도, 그의 가계를 밝힘에 있어 "경북 군위군 소보면 봉황리 출생으로 본관이 남양이며 용궁현감을 지낸 홍석귀(洪錫龜, 광해군 13년~숙종 5년)의 서얼(庶孼)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은 조금만 눈여겨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성지대사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기록대로라면 광해군 13년(1621년)에 태어난 홍석귀는 성지대사가 죽음을 맞은 인조반정 당시 3살이 된다. 그러니 홍석귀가 성지대사의 아들이라면 모를까 아버지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쯤 해두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성지대사가, 그 양반이 인제 조선팔도로 명지(明地)를 찾아서 헤맸는데 성지곡에 왔어. 그래 와가지고 동래현청을 잡는데,

"아!~, 여기가 참 좋구나!"

해가지고 일단 점을 이리, 지도에다가 표를 했는 기라. 초(抄)했다는 기지. 초한 기 그 다음에 초읍(草邑)으로 변했지.

그런데 두 글자의 한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은 필자가, "선생님, 초읍은 지금 풀 초(草)자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은 풀 초자지. 그런데 그때는 이 초(抄)자를 했다는 기라. 그래가지고 초하고 난 뒤에, 또 저 위에 올라가서 두구동에 갔거든. 거기를 보고는,

"여기도 괜찮은데 한 번 두고 보자."

하고는 내려왔는 기라. 슬슬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윤산(輪山, 구월산이라고도 함) 줄기가 죽~ 내려왔거든. 내려와가지고 그 끝이 거기잖아. 저저 동래부사 거처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거기 오니까 탁! 좋거든.

해서 "거기 위치가 지금의 어딥니까?" 하고 물었다.

거기가 지금 동래시장 옆이잖아. 거기 요새 복원한다대. 거기가 좋아서 거기다가…. 송상현이 있던 거기에 인제 자리를 갖다 정했는 기라.

[필자: 초읍은 초만 해놓고 가버린 겁니까?]

그래 가버렸으니까 거기가 초읍이 되었고, 두구동은 두고 보자 했으니까 두구동이고…. 그러니까 성지가 돌아다니면서 그래 했다는 거지.

그 말에 “지금 성지곡 있는 데가 초읍동입니다.” 했더니,

그렇지. 그러니까 성지가 그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지곡(聖知谷)이라고 한 거지.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성지는 광해군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반대파로부터 궁중의 건축과 관련하여 “터를 잘못 잡아줘서 왕이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라는 미명 아래 탄핵을 받았다. 결국 당파싸움에 밀려 처형을 당했던 것이다.

성지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성지곡에 있다는 ‘가기소(歌妓沼)’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아마도 잘못 끌어댄 이야기 같아요.”

하면서 필자에게 자료 하나를 건네주었다. 원로교수님(남, 81세)이 가기소 이야기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이었는데,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모구지(某區誌)에 성지곡의 가기소(歌妓沼)에 대하여, “수량이 풍부한 성지 계곡에 ‘석연지(石燕池)’라는 큰 소(沼)가 있어 가을에는 진홍빛 단풍이 홍장(紅帳)을 둘렀는데, 언제부턴가 석연지가 ‘가기소(歌妓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가기소는 한자로 ‘노래 가(歌), 기생 기(妓), 못 소(沼)’를 써서, 노래하던 기생이 물에 빠져 죽은 사실을 추모하여 가기소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중략)… 아리따운 기생이 물에 빠져 죽자 그때부터 석연지를 가기소로 불렀다고 한다. 1740년 편찬된 『동래부지』에 ‘동래에 여기담(女妓潭)이 있다.’라고 했으니, 그곳이 바로 가기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래부지』 산천조에 여기담(女妓潭)은 부(府)의 동쪽 15리에 있다고 하였고, 상산(上山=萇山)은 부의 동쪽 15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장산에 있는 여기담은 ‘애기소(애기폭포 밑의 감태소)’를 가리킴인데, 이를 잘못 파악하여 가기소를 여기담이라 하였다. 여기담은 예기담으로, 다시 애기담으로 음운변천을 한 것이다. 현전하는 애기소의 전설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여 이웃의 눈총을 받자 이 소에 투신자살하였다는 것에서 애기소라 한다고 전한다.

지적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산진구에서 발간한 책자 중에는 성지곡에 있다는 ‘가기소’가 바로 『동래부지』에서 말하는 ‘여기담’이라 이야기하는 곳도 있으나, 『동래부지』 ‘산천조’에서 가리키는 거리와 위치를 따져보건대 ‘여기담’은 장산(萇山)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가기소’ 전설에 대해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제보자: 김OO(남, 81세), 전포1동, 2015년 8월 21일 채록(자택)

* 이 이야기는 『재미있는 부산진구 숨은 이야기,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16, “6. 뭐라카노, 참말이가?” 편(324~326쪽)에 수록(일부 삭제)되어 있음.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15~19쪽.

[부산진구 설화 32]

개미마을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의 일이다. 그 때의 가야는 순수한 농촌지역으로 우마실, 말이, 늠매의 세 마을이 있었는데 이 세 마을에 100호 가량의 주민이 논밭을 일구며 살았다.

그런데 현재 가야 공원 위의 단부산(單夫山, 지금의 엄광산 일부 지역) 등 너머 계곡에는 불개미가 집단으로 서식하여 그 일대를 '불개미밭'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로 인해 주변의 푸른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죽어 붉은 숲으로 변했고, 심지어 밤중에는 떼를 지어 마을을 습격함으로써 5월 모심기철의 바쁜 일손을 방해하였다.

또 점심 때가 되면 선반 위에 개미 떼가 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등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부산 전역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가야동이 '개미마을'이란 별명을 갖게 되었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36~237쪽.

[부산진구 설화 33]

초읍동과 두구동

부산지방에 동평현(지금의 당감동 일대)이 생긴 뒤 읍지(邑地)를 물색하기 위해 명사들이 오늘날의 초읍동을 둘러보았더니 산세가 좋고 지리가 음양(陰陽)의 이치에 맞았다. 일단 이곳을 읍지로 '초(抄, 낙점을 해놓음)'해놓고, 더 좋은 곳을 찾던 중에 현 금정구 두구동(杜邱洞)으로 가보니 그 또한 산천경개가 좋았다. 이곳 또한 '두고'보자고 한 후 동래성으로 향했다.

동래성(東萊城)에 들러 확인해보니, 동쪽에 학소대(鶴巢臺)가 있고 남쪽 지형이 대조포란형(大鳥抱卵形, 큰 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이는 서울(당시 한양)의 산세와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 쪽에 읍(邑)을 정하였다.

이리하여 '두고' 온 곳을 두구동으로, '초(抄)' 해놓은 곳을 '초읍(抄邑=草邑)'으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37쪽.

[부산진구 설화 34]

가야석탑에 얽힌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그러니까 1903년(계묘년)의 일이다. 그해는 전국적으로 대흉년이 들어 쪽박 찬 거지들이 수도 없이 들끓었다고 한다. 당시 '가야마을' 또한 다를 바가 없었다. 시도 때도 없이 거지 떼가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대니 동네 사람들은 마음놓고 식사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부엌에까지 쳐들어와 밥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잠시 부엌을 비울 양이면 가마솥의 밥까지 빡빡 긁어 가니 보통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거지들에게 대들고 싸울 수도 없는 처지여서 가야마을 사람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당시 가야마을에는 달성 서씨 일족인 '서기호'라는 사람이 지금의 가야공원 아래(옛 건설화학 주변)에서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밭 가운데에 오래된 포구나무가 정자를 이루고 있었다. 이 고목(古木)은 큰 그늘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음은 물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랑방이 되기도 했다.

마침내 동네 주민들이 포구나무 그늘에서 대책을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중에 웬 거지 도사가 불쑥 나타나서는

"이곳에 거지 떼가 출몰하지 못하게 하려면 '구거뚝(옛 가야3파출소 자리로 추정)'에 탑을 두 개 세우시오. 그러면 큰 효험을 볼 것이오."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땅에 곧장 석탑을 세웠다. 그런데 웬걸? 거지 떼는 점차 줄어드는데, 해가 갈수록 오히려 흉년이 잦아지고 화재가 이어지는 등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궁핍해져 갔다. 급기야는 생계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으니 큰일 치고도 보통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마을에 무슨 부정이 탄 거라고 쑥덕대기 시작했다. 굿이라도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때 어느 도사가 한마디를 거들었다.

"가야는 원래 지형이 배가 지나는 행선지형(行船地形)인데, 탑이 들어서서 닻줄을 매달고 있는 격이라 그 배는 오가지도 못하고 화를 입을 형세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탑을 철거하였고, 마을은 '탑골'로 불리게 되었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37~238쪽.

[부산진구 설화 35]

가야동의 탑골

전국적인 흉년으로 인해 가야마을에도 거지 떼가 득실거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마음 놓고 식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주민들은 어느 도사의 말을 듣고 옛 가야3파출소 자리에 두 개의 탑을 세운다. 하지만 이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자 다시 탑을 철거하게 된다. 이곳을 가야동의 '탑골'이라 부르고 있다.

1903년(계묘년)의 일이다. 그 해는 전국적으로 대흉년이 들어 쪽박 찬 거지들이 수도 없이 들끓었다고 한다. 당시 '가야마을' 또한 이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시도 때도 없이 거지 떼가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구걸을 하니 동네 사람들은 마음 놓고 식사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부엌에까지 쳐들어와 밥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잠시 부엌을 비울 때면 가마솥의 밥까지 빡빡 긁어 가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거지들에게 대들고 싸울 수도 없는 처지여서 가야마을 사람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을 끓이고 있었다.

당시 가야마을에는 달성 서 씨 일족인 '서기호'라는 사람이 지금의 가야공원 아래(옛 건설화학 주변)에서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밭 가운데에 오래된 포구나무가 정자를 이루고 있었다. 이 고목(古木)은 큰 그늘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음은 물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랑방이 되기도 했다.

마침내 동네 주민들이 포구나무 그늘에서 대책을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중에 웬 거지 도사가 불쑥 나타나서는

"이곳에 거지 떼가 출몰하지 못하게 하려면 '구거뚝(옛 가야3파출소 자리로 추정)'에 탑을 두 개 세우시오. 그러면 큰 효험을 볼 것이오."

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땅에 곧장 석탑을 세웠다. 그런데 웬걸? 거지 떼는 점차 줄어드는데, 해가 갈수록 오히려 흉년이 잦아지고 화재가 이어지는 등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생계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으니 큰일 치고도 보통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마을에 무슨 부정이 탄 거라고 쑥떡대기 시작했다. 굿이라도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때 어느 도사가 한 마디를 거들었다.

"가야는 원래 지형이 배가 지나는 행선지형(行船地形)인데, 탑이 들어서서 닻줄을 매달고 있는 격이라 그 배는 오가지도 못하고 화를 입을 형세입니다."

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탑을 철거하였고, 마을은 이후 '탑골'로 불리게 되었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1~22쪽.

[부산진구 설화 36]

배롱나무 꽃말의 전설

아득한 옛날 남쪽 바닷가에 아리따운 자태를 지닌 규수가 살고 있었다. 혼기가 찼을 때 그녀를 사랑하는 두 명의 정인(情人)이 생겼다. 하나는 물에 사는 '사룡(蛇龍)'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다. 다른 하나는 섬에 사는 '이무기'인데 규수에게는 매우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다.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양보라는 것이 없어, 급기야는 결투로 상대방을 차지하기로 약조하고 물과 섬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싸우기로 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룡'이 깃발을 세우고는 배 위에 오르며 하는 말이

"내가 만약 싸움에서 지면 이 깃발이 붉은 색으로 변할 것이고, 이기면 흰 깃발을 날리며 돌아오겠소."라고 일러주며 싸움터로 떠났다.

이제나저제나 사랑하는 그이가 이기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규수의 눈에 배 한 척이 들어왔다. 가물가물 햇빛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그녀는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다. 승전의 배가 아니라 패자의 배였기 때문이었다. 낙담한 규수는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의기양양 배를 대고 육지에 올라온 '샤롱'이 기다리는 규수를 발견하였을 때, 이 일이 웬일인가? 웃으며 반겨줄 여인이 피를 흘리며 죽어있지 않은가?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통곡하며 그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는 또 어찌된 일인가? 흰 깃발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무기를 칼로 찔렀을 때 솟구친 피가 깃발을 적셨으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한 것이다. 여인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더니 이듬해 봄 무덤 위에서 낯선 나무 한 그루가 싹을 틔워 꽃을 피웠다. 이 나무가 잡귀를 쫓는 목(木) 백일홍(일명 배롱나무)이 되었다고 한다.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35~236쪽.

[부산진구 설화 37]

정묘를 지키는 백일홍

청년이 장사를 위해 떠나면서 처녀에게 '살아있으면 배에 흰 깃발이, 죽어서 돌아오면 빨간 깃발이 꽂혀 있을 것'이라 했다. 청년이 해룡의 목을 베어 그 피가 깃발을 물들인 것을 몰랐던 처녀는, 빨간 깃발만을 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그 후 청년은 처녀의 묘 옆에 나무를 심

었고 꽃이 피었다. 그 꽃이 백일 동안 피어 있었다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화지공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산 73-28)의 동래 정씨 정문도(鄭文道) 공의 묘소 양쪽에는 노거수 백일홍(800년생, 천연기념물 제168호)이 지키고 서 있다. 동쪽에 있는 백일홍 크기는 높이 8.9m, 폭은 남북 10.9m, 동서 11.2m로 모양은 원형이다. 서쪽에 있는 것은 높이 7.7m, 폭 남북이 9.4m, 동서 4.1m의 고목이다. 백일홍은 보통 무덤가에 심는데, 이는 묘지 주변의 음산한 분위기를 몰아내고 화사한 꽃으로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백일홍은 '귀신나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나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자손들의 부귀영화를 기원했던 정묘의 백일홍은 조선시대에 더욱 빛나 정승 17명, 대제학 2명, 호당(湖堂) 6명, 공신 4명, 판서 20여 명과 문과급제 198명을 배출하였다.

백일홍의 유래는 이렇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년과 처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다. 상인이었던 청년이 먼 나라로 장사를 떠나게 되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험한 바다를 오가야 하는 일이라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혼인 약속만 먼저 했던 것이다. 청년은 떠나기 전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살아 돌아오면 흰 깃발이, 만약에 죽어서 돌아오면 빨간 깃발이 꽂혀 잇을 겁니다."

청년은 장사하러 떠나고 처녀는 높은 언덕 위에서 매일매일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배가 돌아왔다. 그런데 저만치 보이는 배에는 빨간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걸 본 처녀는 청년이 돌아오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렸다.

하지만 청년은 살아 돌아왔다. 그렇다면 청년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빨간 깃발이 꽂혀 있었던 것일까? 돌아오는 길에 청년은 바다의 해룡을 만나 싸우게 되었다. 사투 끝에 청년은 해룡의 목을 베었는데, 그 피가 깃발을 빨갛게 물들였던 것을 청년은 몰랐던 것이다. 청년은 슬피 울며 처녀의 장례를 치룬 후에 묘 옆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런데 이 꽃이 백일 동안이나 피어 있었다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백일홍 꽃은 백일 동안 세 번을 피고 진다. 꽃이 세 번째 피고 지면 더운 여름이 가고, 옥수수가 여물면서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온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29~30쪽.

[부산진구 설화 38]

시대의 변천 따라 이름이 바뀐 송공삼거리

오늘날 부산진구의 서면과 양정동 길을 잇는 지난날의 고개가 평지가 되다시피 되면서 임진왜란 때 전사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공의 동상이 서고부터는 <송공삼거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 송공삼거리는 19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화지산和池山과 황령산荒嶺山이 이어지는 능선의 가파른 고개로 그 이름도 '마비을이현馬飛乙以峴', '신좌수영新左水營고개' '모너머고개'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이름도 다양하게 바뀌었다.

馬飛乙以峴 - '말 나는 고개' 이두식 표기

마비을이현馬飛乙以峴은 『동국제국기東國諸國紀』(1476년 출판)의 동래부산포지도東來富山浦地圖에 그렇게 적혀 있고 부산진지도釜山鎭地圖(1872년출간)에는 이 고개를 마비현馬飛峴이라 적었다.

이 마비을이현馬飛乙以峴은 그 당시는 "말 나는 고개"로 불리던 고개를 우리말 표기가 널리 퍼지지 않은 때가 되어 이두식吏讀式으로 한자의 음과 새김을 따서 말馬 날飛 이以 고개峴로 표기한 것이 후대의 지도 작성시때는 마비현馬飛峴으로 적은 것이다.

이 고개로 날아가듯 달아난 말은 석포목장石浦牧場의 말이었다. 1469년에 편찬된 『경기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는 석포목장에는 목마 2백32필匹이 있다고 했다. 이 석포목장은 오늘날의 남구 대연동을 석포라 했을 때 있었던 목장으로 나라에서 경영하는 국마장國馬場이었다.

이 국마장에서 방목하던 말이 황령산에서 풀을 뜯다가 주위에서는 가장 낮은 산등성이인 오늘날의 송공삼거리로 자주 달아나서 '말 나는 고개'라 한 것 같다.

신좌수영고개 · 개항 후에는 모너머고개

'신좌수영고개'라 한 것은 동래 쪽에서 '송공삼거리' 고개를 가리킬때 한 말이었다. 이는 울산 개운포에서 이전해온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좌수영)을 임진왜란 이후 오늘날의 동구 범일동에 있었던 부산진지성(자성대성)에서 재편성했다. 재편성을 마친 좌수영은 본래 있어야 할 지금의 수영으로 옮기고 옮긴 그 자리는 부산진첨사영(본래 좌천동에 있었음) 진영으로 삼았다.

그런데 좌수영을 재편성하는 과정이 제법 길었던 모양으로 재편 과정에 있었던 자성대성을 신좌수영이라 불렀고 동래지역에서 부산 쪽으로 가는 고개인 송공삼거리를 신좌수영 쪽으로 가는 고개라 해서 신좌수영고개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면에서 동래온천장으로 오가는 전차길이 있었을 때(1915~1968년 사이)는 지금의 송공삼거리의 송상현공 동상에서 거제로 쪽 약 10m 아래 '신좌수영역'이 있었다. 그 전차역 이름도 신좌수영고개의 이름을 따서 신좌수영역이라 한 것이다.

'모너머고개'라 한 것은 1876년 부산이 개항된 뒤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개항이 된 뒤 일본전관거류지(지금의 중구지역)에서 일본인이 다닐 수 있는 간행리정間行里程을 처음은 10리로 한정했다. 그렇다고 그 10리를 어디까지 표시하기도 곤란하고 보니 서면의 신좌수영고개는 넘지 못한다 하여 '못 넘어가는 고개'란 말이 일본인은 발음이 잘 되지 않아 '모너머고개'라 하고 우리 쪽에서 그들 말을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설에는 '마비을이현'은 고개 주위에 도적이 많아 말을 달리듯 빨리 올라

야 하는 고개라 해서 '말 나는 고개'라 하였다는 말도 있고 '신좌수영고개'는 좌수영이 한동안 이 고개에 있어서 그런 말이 생겼다고도 하고 '모너머고개'는 부산 갯가의 천민은 동래 양반곳으로 못 넘어간다 해서 그런 이름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 모두는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이다.

신좌수영고개 · 개항 후에는 모너머고개

그런데 이 고개가 지금처럼 낮아진 것은 일제강점기 국도國道를 개설 하느라 깎아 내려지고 1915년 부산과 동래 사이 경편철도를 부설하느라 최대한으로 깎여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1910년대 이전은 아주 가파른 고개인 데다 주위는 숲이 우거져 동래장과 부산장(당시의 부산장은 범일동에 있었음)으로 오가는 장꾼을 노리는 도둑떼가 많았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부산장을 보고 오는 동래의 어느 아주머니가 해가 져 어두운 이 고갯길을 오르자니 혼자서는 무서웠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도둑떼에 알리느라 "오빠 좀 천천히 가요!" 하면서 위를 향해 소리쳤다. 그런데 앞에 마침 장정이 고개를 오르면서 "야아, 싸게 싸게(빨리 빨리) 온나! 뭐 하노!" 하는 짜증 섞인 소리가 내려왔다.

이 아주머니는 또 아래를 향해 "형님, 싸게 싸게 와요!" 소리치니 아래에서도 도둑떼를 겁내며 올라오는 여자가 있어 "동생아 간다. 싸게 싸게 간다!"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고개를 올라 홰바지(오늘날의 거제리시장쯤의 자리)에서 한숨 쉬며 얼굴을 대하고 보니 오빠라 했던 사람은 집안의 시동생 뻘이었고, 형님이라 했던 사람은 친정 갈래 동생이었다.

아주머니는 "아이구마, 시동생이 오빠 되고 동생이 형님 됐네, 내 이 우짜고!" 하니 시동생이 "급한 판에 오빠고 동생이 어딨능기요"하며 한 바탕 웃었다고 한다.

* 최해군, 『부산이야기 62마당』, 도서출판 태성, 2009, 186~190쪽.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233~235쪽 재수록.

[부산진구 설화 39]

모너머 고개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서면으로 넘어가는 모너머 고개는 1910년대 이전만 해도 화지산과 황령산을 잇는 가파른 고개였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신작로를 만들기 위해 높은 고개를 서서히 깎아 내리면서 현재는 고개가 없어졌다.

모너머 고개는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서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동래읍성 안과 밖을 경계하

는 곳이다. 이 고개는 19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화지산과 황령산이 이어지는 능선의 가파른 고개였는데, 당시 이름도 마비을이현(馬飛乙以峴)→신좌수영(新左水營)고개→모너머 고개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다.

첫 번째 이름인 마비을이현은 '말 나는 고개'라는 의미다. 당시 남구 대연동 석포에는 석포목장이 있었는데, 석포목장은 나라에서 경영하는 국마장으로 목마 232필을 관리하고 있었다. 여기서 방목하던 말이 황령산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가장 낮은 산등성이인 오늘날 시민공원 쪽으로 자주 달아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가 하면 '신좌수영고개'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이후 울산 개운포에서 이전해온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양정동에 몇 년간에 있다가 수영으로 이전하면서 붙여졌다. 동래 온천장으로 오가는 전차역 역시 시민공원 주변에 신좌수영이 주둔하였기에 '신좌수영역'이라고 이름을 정하였다.

모너머 고개의 경우에는 1876년 부산포가 개항된 이후 일본전관거류지(지금의 광복동 지역)에서 일본인이 다닐 수 있는 간행이정(間行里程: 1883년(고종 20),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인천, 원산, 부산 세 항구에서의 일본인 활동범위에 대한 약정)을 처음에 10리로 한정하고 성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신좌수영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못 넘어가는 고개'라고 불렸으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너머 고개'로 불리게 되엇다.

당시 일본인 남자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호랑이탈을 쓰고 엎드려 기어서 고개를 넘다가 발각이 되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모너머 고개가 지금처럼 낮아진 것은 경술국치(1910년) 이후 신작로를 만들기 위해 높은 고개를 깎아 내리고, 부산에서 동래까지 경편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평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너머 고개는 1910년대 이전에는 아주 험하고 가파른 고개인 데다 숲이 우거져 동래장과 부산장(범일동)으로 오가는 장꾼을 노리는 도적떼가 많았다.

어느 날, 부산장에서 동래로 가기 위해 고개를 넘어가던 어느 아주머니가 해가 져 어두운이 고갯길을 오르는데 혼자서는 무서웠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도둑떼가 알리느라

"오빠, 좀 천천히 가요!"

하면서 위를 향해 소리쳤다.

그런데 앞에 마침 장정이 고개를 오르면서

"야아, 싸게 싸게(빨리 빨리) 온나! 뭐하노!"

하는 짜증 섞인 소리가 내려왔다.

이 아주머니는 또 아래를 향해

"형님, 싸게 싸게 와요!"

소리치니 아래에서도 올라오는 여자가 있어

"동생아 간다. 싸게 싸게 간다!"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고개를 올라 홰바지(오늘날의 거제리 시장 서쪽, 동해남부선 거제역 동쪽)에 한숨

쉬며 얼굴을 대하고 보니 오빠라 했던 사람은 집안의 시동생뻘이었고, 형님이라 했던 사람은 친정 동생이었다.

아주머니는

"아이구마, 시동생이 오빠 되고 동생이 형님 됐네. 내 이 우짜꼬!"

하니 시동생이

"급한 판에 오빠고 동생이 어딨능기요."

하며 한바탕 웃었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31~33쪽.

[부산진구 설화 40]

주인 목숨을 구한 칠성이

악랄한 후처의 속셈으로 죽을 뻔한 전처의 아들을 구한 하인 칠성이의 이야기가 부산진구 개금동에 전해지고 있다. 칠성이의 충정에 감동한 가족들은 그의 노비 문서를 불태운 뒤 재산을 나눠주고 이후로 한 식구처럼 살았다고 한다.

옛날 서면 개금마을에 한 정승이 살고 있었다. 그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아내가 병으로 죽고 새로 장가를 들어 또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

후처는 자신의 아들과 다름없이 전처의 아들을 보살폈다. 전처의 아들이 열여섯 살이 되어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후처가 이 아들을 장가보내며 묘한 웃음을 짓는 광경을 정승댁 종인 '칠성이'의 할머니 '칠성 할매'가 목격했다.

칠성 할매는 그 모습을 매우 이상하게 여겨 그날 밤 후처가 머무는 안채를 몰래 훔쳐보았다. 그러자 곧 칠성이가 안채로 드러와 후처와 귓속말을 하였다. 할매가 칠성이를 불러 다그치자 칠성이가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후처의 지시를 받고 첫날밤을 치르고 방 밖으로 잠시 나온 전처 아들을 죽여 그 목을 고방에 감춰 두었다는 것이다.

한편, 새신랑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신부가 간부와 짜고 신랑을 죽였다고 의심했다. 이에 신부는 누명을 벗고자 남장을 하고 신랑의 집 근처로 찾아왔다. 그러고는 돌아가는 사정을 알기 위해 칠성 할매의 집에 머물면서 할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식량과 나무 따위를 선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지나가는 식으로 칠성 할매에게 정승 댁의 일을 물어보니 칠성 할매가 알고 있는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에 신부가 시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렸고, 분노한 시아버지는 후처의 목을 베어 죽였다.

그 후에 시아버지는 집을 떠나 강원도 어느 산골의 절로 들어가 버렸고, 신부는 홀로 시댁을 지키며 첫날밤에 잉태한 아들을 낳아 길렀다. 성장한 아들은 할아버지를 찾으러 떠돌아다

녔고, 강원도 어느 절에서 드디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원수인 칠성이를 찾아 나섰다.

한양 근처인 한 고을에서 칠성이가 신발 장사를 하며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고을 원님에게 그간의 일을 알려주며 칠성이를 잡아 죽여줄 것을 청했다.

그런데 칠성이가 잡혀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사실은 그날 밤 신랑을 죽이지 않고 그를 대신할 목을 구해다 단지에 넣어 놓고 함께 도망쳐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들은 할아버지와 손자는 칠성이의 충정과 아들의 생존 소식에 감동하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칠성이의 노비 문서를 불태운 뒤,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한 식구처럼 대하며 잘 살았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37~38쪽.

[부산진구 설화 41]

아버지의 유산

묏자리나 길흉사에 대한 길일을 받아주는 일을 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머리가 세 개, 눈이 여섯 개, 다리가 여덟 개인 곳에 묻으라' 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 묏자리를 찾던 아들은 한 처녀를 만나 처녀의 황소가 외나무다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 준다. 처녀는 소까지 머리가 셋, 셋의 눈이 여섯, 다리가 여덟이니 이곳에 유골을 묻으라 하고 둘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

옛날 서면 초읍마을에 풍수를 잘 아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이웃들의 묏자리나 길흉사에 대한 길일을 받아주는 일을 하였다. 그런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스무 살이 넘도록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잘 살도록 하면서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해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고 나면,

"시체를 거두어 머리가 세 개고, 눈이 여섯 개고, 다리가 여덟 개인 곳을 찾아 묻으라."

는 말을 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죽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일러 준 자리에 묘를 쓰기 위해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보자기에 싸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묏자리가 없었다. 묏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지친 아들은 어느 산꼭대기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한 처녀가 찾아와서 아들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들이 처녀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처녀는 자기가 끌고 나온 황소가 외나무다리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도와주면 자신도 아들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아들이 처녀를 도와주자, 처녀

는 아버지가 일러 준 묏자리를 같이 찾아 주겠다며 어떤 자리인지를 물었다. 아들이 처녀에게 묏자리에 대해서 설명하자 처녀가 대뜸 이 자리에 묘를 쓰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들이 어째서 그러냐고 묻자 처녀는

"당신과 나와 소의 머리가 모두 셋이고, 그 셋의 눈이 여섯이고, 또한 셋의 다리를 합하면 여덟이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들은 처녀의 말대로 그 자리에 아버지의 유골을 묻었고, 이후에 그 처녀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39~40쪽.

[부산진구 설화 42]

부산진구 최고의 도시전설 '귀신집'

[줄거리]

개금삼거리에는 '귀신집'이라고 불리는 흉가(凶家)가 있었다. 사람은 살지 않고 나무만 무성한 빈집이었는데, 밤만 되면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쪽쪽 모두 죽어서 나왔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우물에 여자가 빠져 죽었는데 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하고, 또 열녀비를 훼손하고 집은 지어서 그렇다고도 한다. 이 흉가는 멀리까지 소문이 퍼져 구경을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세월이 흘러 일대가 발전하고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고 하면서 귀신집도 사라지게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귀신집에 있던 혼령을 포항에 있는 '대성사'라는 절에 모셨다고 한다.

부산진구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전설을 꼽으라면 단연 개금동의 '귀신집'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현대판 도시전설이지만 다양한 각편(各篇, version)을 가지고 전승되면서 구비전승 설화의 전승 과정과 변이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어쩌면 이 이야기는 부산에서도 가장 유명한 도시전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귀신집'은 민간에 널리 알려진 흉가(凶家)로 개금삼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위치도 좋고 부잣집이었다고 한다. 이 귀신집과 관련된 이야기는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모라동, 엄궁동 등 북구에까지도 널리 퍼져 있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제보자마다 각양각색으로 전승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도 그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귀신집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을 통해 학원가에서도 회자되던 유명한 이야기이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맨 처음 접한 곳은 범전동으로, 채록 첫날의 일이다. 범전동에서 들었

던 이야기는 가야우체국을 지나 큰 도롯가 어디에 귀신집이라고 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곳에는 사람이 들어가 살기만 하면 모두 죽어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여기까지는 이후 다른 곳에서 듣게 된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야기의 생성 요인은 다른 곳에서 들었던 것과 판이했다.

내용인즉 그 일대를 모두 뜯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귀신집의 주인은 끝까지 그 집을 뜯지 않으려고 버텼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주인은 죽었는데, 주인이 죽고 나자 그 집은 팔리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들어가 살려고만 하면 모두 죽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제보자 권미자(여, 75세) 할머니는,

"거기도 여기마냥 안 뜯을라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여기도 지금 세 집, 네 집이 안 뜯고…."

하면서 범전동 마을의 형편을 귀신집 이야기에 접목시켜 설명했다. 아마도 자신들이 겪었던 상황에 빗대어 이야기의 생성 요인을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필자는 가야동과 개금동에서 귀신집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개금동과 가야동을 비롯해 그 일대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귀신집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보다 '사람은 살지 않고 나무만 무성한 빈 집'이라는 것과, '그 집에 살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두고도 제보자마다 변이 내용이 각양각색이었다.

필자는 가야2동에서부터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무궁화 할머니 경로당을 찾았을 때, 조우임(여, 83세)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개금삼거리 새마을금고 우(위)에, 지금 바로 고게가 그 구신집(귀신집)이라. 바로 육교에서 고거덩(거기거든). 지금은 육교를 뜯어버맀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거는 몰라도, 누구든지 이사만 들어갔다 카면 그날 저녁에 죽어삐리사서 이사를 안 들어가는 기라. 안 들어가는데, 갠가 뭣인가 한 마리를 옇었더마는 그것도 죽더란다. 그래서 그 집은 안죽꺼정 빈터로 있고, 화장실 이래이래 해 놓은 거, 그거 있어. 두 개가 있더라꼬, 집은 없고….

[청중: 그 집 구경한다꼬 육교로 가고 이랬다.]

어떻게 해서 귀신집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 살기만 하면 다 죽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알기로도 벌써 한 40년쯤 되었는데, TV에도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그 집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관심을 끌었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묻고 답하고 있는데, 멀찍이 앉아서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그 전에 마을금고 지을 때에, 마을금고도 안 지을라 카더라꼬."

하자, 조우임 할머니도,

"마을금고도 안 지어! 그거는 그만 지었다 카면 안 돼!"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더니,

바로 도롯가라 놓은께, 그 집이 장소는 참 좋거덩. 그러니까 인자 그 집을 갖다 모두 위치 보고 사갖고 들어오는 기라. 사갖고 들어오는데, 이 동네사람은 안 사는 기라. 모르는 사람이 사갖고 오는 기라.
모르는 사람이 사갖고 오마, 이사를 갔다 카마 그날 저녁에 죽어뿌리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짐승을 한 마리 옇었더이마는 짐승도 그날 저녁에 죽더란다. 그러니까 집을 인자 비왔지.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들이 집을 다시 지었다느니, 공터로 그대로 있다느니 하면서 옥신각신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귀신집 우물에 사람이 빠져죽었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필자가 다시 물었더니 한 할머니가,

"샘이 안에 사람이 빠져죽었대요. 그래서 사람 우는 소리로 하고…."

하고 답했다. 그러자 좀 떨어져서 화투를 치고 있던 손○○(여, 84세)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그게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사 하고 요청했다. 그러자 손○○ 할머니는 그 귀신집 이웃에 살며 그 집 주인에게 들었노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 인자 죽는다 카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 집 주인캉 내캉 잘 그했거덩. 거짓말이고.
그 땅에다 열녀비를 세왔는데, 옛날에…. 그 땅에 열녀비를 세왔다 카이! 옛날에 열녀! 세와 놨는데, 그거를 확 뜯어 내삐리뿌고 집을 지었어. 그래 놓으이 그 여자가 비가 오고 날씨가 꾸르무리 하면 그리 청승스럽기 밤에 나와가 우는 기라. 울음소리가 나인께네 마, 구신이 있으이까네, 그래 놓으이….
그 집이 보면 숲이 꽉~ 이리가 있어. 그런데 개로 갖다 놓으면 개가 죽고, 개가 죽고, 사람은 안 죽어. 하도 모두 오몬 죽고, 오몬 죽는다 사서 우리가 막 물어본께네 사람이 죽는 거는 아이고, 그마이(그만큼) 무십다 이기지.

손○○ 할머니의 말인즉, 그 집에 귀신이 나오는 이유는 집을 지으면서 그 곳에 있던 열녀비를 훼손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며, 집주인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가 죽는다고 하니, 어쨌든 그 집에서 뭔가가 죽어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귀신 소문이 잇따르자 집주인은 아무도 모르게 그 열녀비를 찾아다녔는데, 집을 지을 때 도랑에다 버리고 땅을 골라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다. 손○○ 할머니는 그 귀신집의 울음소리는 열녀비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은 건물을 지었노라고 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할머니들이 제각각 한 마디씩 거들었다.

"구경꾼이 마, 다리빨(육교)에 마, 꽉~ 찼다꼬. 다리에 마, 육교 다리에…."

"공짜배기 있으라 캐도 안 오고, 남자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오고 마, 그런 소문이 났거덩."
"남자가 죽는다꼬, 남자만 죽는다 그랬다."

갖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 필자가 손○○ 할머니에게 "어무이, 그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우물도 있었고 참 부잣집이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물 때문이 아니라 열녀비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애기를 밴 임산부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사를 들어오면은 안개가, 이사를 들어오면은 여자는 괜찮는데, 남자는 누우면, 눈 감으면 집에 안개가 자~욱하니 끼는 기라. 그래가지고 남자가 죽고 한께 그만 이사를 나가고 그러는 기라.

하면서 임산부가 우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혼령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손○○ 할머니가,

"그거는 거짓말이라!"

하면서 역정을 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는 손○○ 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약간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필자가 "소문은 참 갖가지로 납니다. 그지예?" 했더니,

"그러인까네, 이야기는 가지각질이라니까…."

하면서 이름 밝히기를 꺼려하며 짤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전하는 귀신집 이야기에 대해 필자가 개금3동에서 들은 이야기는 또 달랐다. 개금3동의 오필분(여, 82세) 할머니는 예전에 신암에 살았다고 한다. 개금3동에 아들이 살고 있어 신암과 개금3동을 자주 오갔는데, 오가는 길에 귀신집이 있었노라고 했다.

그래 거(거기) 공터가 있었는데, 아~무도 집 지을 사람이 없는 기라. 귀신집이라고…. 그래 나는 그 때 신암에, 신암에 거 살 때, 내가 그리 지나올라 쿠몬 억~수로 무섭는 기라. 귀신집이라서….

그리 지나오는데, 그때는 공텁디더. 그래 저게, 딸아가 아-(아이)로 업고 머리로 산발로 하고 그 샘이에 빠져 죽었다 하는 기라. 그런께 거기 귀신이 있는 기라. 귀신이…. 그래서 그 아~무도, 집터로 안 팔리! 안 팔리! 안 팔리가 내-(내내) 이것매이로(이것처럼, 경로당을 두고 이른 말임) 이리 만날 놀고 있었어.

거만 지내오면 마마, 누든지 없이 무섭다 하는 기라. 거만 지나오면…. 그 또 육교가 있었다이. 사람들이 막, 그 집 구경하러….

오필분 할머니는 그 우물이 참 깊었노라고 하면서, 여자아이가 아기를 업고 우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났던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큰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곳에는 피자가게도 있고, 치과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더니 오필분 할머니는,

> 아~무라도 거기를 지나면 무섭다 쿠는 기라. 아~로 업고 그리 죽어놨시니, 처녀가 죽었시니….

하면서 그 여자아이의 혼령이 측은하다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귀신집을 둘러싸고 돌았던 학원가의 이야기는 또 달랐다. 1990년대 중반 모라동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박○○(여, 34세) 씨에 따르면, 귀신집 이야기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들었다고 한다.

귀신집 인근에는 개금중학교와 경원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들은 모라동까지도 같은 학군이었다. 그래서 모라의 학원가에서는 개금중학교와 경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학원가의 무서운 이야기'로 학생들 사이에 회자되었다고 한다.

> 학원에서 밤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쪽 개금에 사람 안 사는 흉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일제시대 때 원래는 일본사람들이 와서 살았대요.
>
> 일본 부부랑 일본 애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어린 여자애가 거기에 애기 봐 주러 들어갔대요. 그런데 인제 애가 힘이 없고 이러니까 애기를 업고 마당에서 뺑뺑뺑뺑 돌고 놀다가 우물에 빠져 죽었대요. 애기랑 같이….
>
> 그렇게 식모가 애기랑 같이 빠져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부부는 일본으로 건너갔대요. 애기가 죽었으니까 집 팔고 건너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집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소리를 듣거나 죽는대요.

이야기인즉,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던 우리나라의 한 어린 소녀가 일본인의 애기를 업고 놀다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집에서는 밤만 되면 애기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 애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결국 그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고, 나무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곳을 지날 때면 빨리 뛰어가곤 한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귀신집과 가장 인근에 있는 개금1동의 팔각정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 도시전설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었다. 도갑주(여, 76세) 할머니는 귀신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누가 살로(살러) 거(거기) 이사로 들어가마, 밤이 깊으마, 꼭 그 거실에 앉아서 울더라꼬 뭐이…. 그라몬 못 살고 나오고, 못 살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죽어 나갔다고 이런 말도 있고….
>
> 주인은 절대로 그런 거 없다 캐도 주위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거 들어갈 사람 누가 있노? 아무도 없지.
>
> 그 집이 난중(나중)에는 안 팔리고 이사도 안 들어갔는데, 근동이 다 탔어. 그 뭐 동네 한 마을이…. 저 건네(건너)…. 그때 많이 탔다 아이요. 그라고 거게(거기에) 집을 안 짓고.

[필자: 언제쯤에 불이?….]
그 불난 지는 오래 됐어. 한 20년 다 돼 갈 걸.

그러자 최재옥(여, 76세) 할머니도 이야기를 보탰는데, 처음에는 집주인도 비어 있는 것보다 나으니 공짜로 들어와 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꾸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자 차라리 비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그 집에 큰 개 한 마리만 매놓고,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주었다고 한다.

최재옥 할머니는 그 개가 크기도 크고 생기기도 참 잘 생겼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자 또 한 할머니가,

목사님이 살아도 안 되더라 카대. 목사님이 살아도 안 된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직접 못 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데는 건물을 크게 지어갖고 여러 가구가 살아야 돼. 그런 데는 큰 소리가 나야 된다 캐. 그런 데는….

하고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아!~, 그래서 개를 키웠구나." 했더니, "그렇지!"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김봉순(여, 77세)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지하의 땅 속에 시체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말로는,
"지하 거게(거기에) 시체가 있어서 거(거기) 사람이 드가마 죽어 나온다. 땅 밑에 그리 시체가 있어서 사람이 거 드가마 죽어 나온다."
그리가 개를, 큰~ 쎄파트를 거기서 내- 믹있어요. 주인이…. 주인이 거 살지도 안 하고, 개만 내- 있었어. 주인이 와가 밥 주고 가고 내- 그랬어요.

이야기인즉, 그 집의 땅 속에 시체가 있어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공짜로 들어와 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 근방에 있던 집들이 새로 건축되고 세도 놓고 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동안 유독 이 귀신집만은 빈 집으로 있으면서 나무만 무성한 채 늘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저기가 귀신터냐?"

하며 묻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구경 오는 사람들도 많아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흐르고, 인근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는,

"그 집 땅속에 있는 시체를 파내 옮기고 집을 지으면 괜찮을 기다."

라는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그리 가정주택이 딱 있는데, 감나무만 우거져가 있고 개만, 큰~ 개만 거기 믹있어. 그리 몇~ 년 그리 있었겄마는. 인제는 개금에 전부 몇 층 다 올리고 나서부터,

"그 집도 인자 지하 확 파고, 그 집 지을라마 지하 그거 시체 있으마 파가 옮기주고 지으면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 옮기주고 그리 지으마 괜찮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파가 옮기주고, 그래가지고 지하도 옇고, 그래 마 4층인가 5층인가 지었고, 지금은 세 줘가 인자 잘 되고 있어요.

그러자 멀리 앉아 있던 김갑례(여, 67세) 씨가 그 귀신집의 혼령을 '대성사'라는 절에 모셨노라고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필자가 가까이 와서 그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요청하자, 자신도 이 동네의 전매장(물건 거래하는 장소)에서 이○○ 씨로부터 들었노라고 했다.

그거를 대구 대성사에다가 모셨답니다. 지금은….

[청중: 집 지을라면서?]

응. 집 지을라면서…. 쪼끔만 참으라 했는데, 뭣이 안 참아갖고 그리 됐다는데….

하는 말에, 필자가 "뭘 조금만 참으라고 했답디까?" 하고 물었다.

아니, 그거를 모신다고 쪼끔만 참으라 했는데, 안 참고 파버렸다네. 파갖고 그 집을 지어버렸다나, 뭘 어쨌다나? 그런데 지금 저 대성사에, 지금 그 사람이 대성사에다 이리 모셔놨답니다.

[청중: 그 인자 신(神, 넋)을 갖다가 모셔 놨겠지. 절에다가….]

응. 절에다가….

[청중: 대성사에 가면 알겄네?]

응응. 대성사 가면 알어. 거기 모셔 놨대요. 지금은…. 그 우물에 빠져 죽었대. 그 말이 맞어.

[청중: 대성사가 어데 있노?]

대구. 아니, 포항인가?

김갑례 씨가 대구인지 포항인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필자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대구에는 대성사가 없고 포항에 있었다. 확인 후 필자가 "그걸 누가 모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모셨는가는 몰라도….

[청중 1: 그 주인이 모셨겠지.]

[청중 2: 집짓기 전에 아무 것도 없을 때, 집짓는 사람이 모셨겠지.]

하여튼 대성사에 가 있대요. 형님, 어무이, 이○○ 아요? 이○○. 고기(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인자 괜찮대요.

그래서 언제쯤 대성사에 모셨느냐고 물었더니 2, 3년 전쯤 건물 지을 때 모셨노라고 했다.

지금까지 부산진구민들에게서 들은 귀신집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금삼거리에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귀신집'이라고 불리는 흉가(凶家)가 있었다. 그 집은 도롯가에 있어 위치도 좋고 부잣집이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이사를 들어가기만 하면 남자가 죽어 나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밤만 되면 우물이나 집 어디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죽는다는 것이다.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유로는, 집을 지으면서 열녀비를 훼손한 까닭이라는 이야기, 임산부가 마당에 있는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아기를 업은 어린 여자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우물에 빠져 죽은 여자의 시체를 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전한다. 그래서 그 죽은 여인(또는 소녀)의 혼령 때문에 밤만 되면 울음소리가 들리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는 죽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들어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집에는 늘 큰 개만 한 마리 매여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 20년 전쯤에 큰 불이 나서 그 일대가 모두 탔는데, 귀신집도 함께 타서 없어지고 공터로 남아 주차장을 하다가 2, 3년 전쯤 큰 건물이 들어섰다고 한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곳에 있던 혼령은 포항에 있는 대성사라는 절에 모셔졌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은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귀신집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을 때쯤 동네의 한 아저씨가 칼을 들고 경로당에 찾아왔다. 그 칼을 경로당에서 쓰라고 하면서 주고 나가려는데, 할머니들이 일제히 조금만 기다리라고 소리치더니 급히 천 원짜리 하나를 구해 아저씨의 손에 쥐어 주었다. 아저씨는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극구 사양했지만, 할머니들은 기어코 그 아저씨의 손에 돈을 쥐어 보냈다.

그 모습을 보고 필자가 "아니 어무이들, 왜 그렇게 억지로 돈을 쥐어줍니까?"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칼은 공짜로 받으면 안 되는 기라 캤다."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알려주었다.

제보자: 권미자(여, 75세), 범전동, 2015년 7월 2일 채록(아름다운 경로당)
조우임(여, 83세), 가야2동, 2015년 7월 10일 채록(무궁화 할머니 경로당)
손○○(여, 84세), 가야2동, 2015년 7월 10일 채록(무궁화 할머니 경로당)
오필분(여, 82세), 개금3동, 2015년 7월 14일 채록(개금3동 주택가 도로변)
도갑주(여, 76세), 개금1동, 2015년 7월 14일 채록(팔각정 경로당)
최재옥(여, 76세), 개금1동, 2015년 7월 14일 채록(팔각정 경로당)
김봉순(여, 77세), 개금1동, 2015년 7월 14일 채록(팔각정 경로당)
김갑례(여, 67세), 개금1동, 2015년 7월 14일 채록(팔각정 경로당)

박○○(여, 34세), 모라동, 2015년 8월 20일 채록(부산대학교)

* 이 이야기는『재미있는 부산진구 숨은 이야기,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16, “6. 뭐라카노, 참말이가?” 편에 수록(일부 삭제)되어 있음.[81]
* 류경자,『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55~69쪽.

[부산진구 설화 43]

양정동 공동묘지의 지킴이

[줄거리]

부산에 한창 개발붐이 일어 공동묘지를 깎아내고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 양정동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장비를 이용해 공동묘지를 파내고 산을 깎아 터를 다지려는데, 트랙터 기사의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트랙터 기사는 공사를 의뢰받은 처지라 날짜를 연기할 수 없어 공사를 진척시켰다. 그랬더니 그만 커다란 구렁이가 트랙터에 걸려 두 동강이 나서 죽어버렸다. 트랙터 기사는 구렁이의 피를 뒤집어쓴 채 그 자리에서 즉사(卽死)했다.

그 구렁이는 귀가 달려 있었는데, 공동묘지의 지킴이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산에 한창 개발 붐이 일어 양정동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할 무렵의 이야기이다. 그 당시 부암2동에 살고 있던 이말남(여, 76세) 할머니는 부전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던 양정동의 한 할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부전시장에 장사를 나온 양정동의 할머니는 치를 떨면서,

“아이구~ 아지매, 우리는 문디(문둥이) 겉은 동네에 살아놓은께 더런(더러운) 꼴도 다 봐요.”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것이다. 이말남 할머니는 이 이야기에 대해 당시 양정동과 부전동, 부암동 일대에 파다하게 퍼졌던 누구나 다 아는 소문이었노라고 했다.

우리가 여서 보면 그 솔밭등이 환하이 뷔더라꼬. 양정이라. 우리가 여서 보면, 소나무가 많이 있고, 공동묘지가 많이 있더라꼬. 그래서 내 생각에,

‘공동묘지가 저리 많이 있이면은 저(저기를) 저리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없는데….’

내 생각에 그렇더란 말이요. 그렇더마는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이께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요.

하면서 양정동에서 공동묘지를 깎아 아파트를 건립하던 때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내놓

81) 해당 책의 367~375쪽에 수록되어 있으나, 위 설화의 일부 내용은 삭제되어 있음. -편자 주.

았다. 아파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는데, 알려주는 방향을 짐작건대 화지산(華池山) 앞의 나지막한 산 일대로 보였다.

공동묘진데, 억수로 묘가 많이 있는데, 그거로 인자 국가에서 이거로 밀고, 높으다 아이요? 소나무가 있인께 싹 밀고 것다 집을 지으라 하는데, 기사가 인자 집 지을라꼬 날로 받아 놨는데, 허~연 영감이 나와가지고, 이틀만 봐 주라 하더라요. 이틀만….

이야기인즉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해 공동묘지를 파내고 산을 깎아 터를 다지려고 하는데, 공사를 맡은 트랙터 기사의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틀만 참아주라. 이틀만 하면 내가 비키주꾸마(비켜주겠노라). 이틀만 봐 주면은 내가 당신한테 덕(德)이 되고로 해 주낀께, 이틀만 봐 줌세."

하고 부탁을 했으나, 트랙터 기사는 공사를 의뢰받은 처지라 날짜를 연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때문에 그 이틀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공사를 진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공사를 진척하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기 몸띵이가 너무 커서,
[청중: 용이 돼서 가낀데 인자….]
하아(응). 너무 몸띵이도 질고(길고) 크고 한께네 안 되는 기라. 그래 이틀만 참아주라 캤는데….

이야기인즉 기사의 꿈에 나타난 노인은 용(龍)이 되어 승천(昇天)할 이무기였는데, 몸뚱아리가 너무 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래 가서, 인자 차가 몇 대 가서 한께네, 그기 구리이(구렁이)가…. 구리이 그기 여게(여기에), 그 주위에 지큼이(지킴이)라.
[청중: 아이구!~, 그렇키! 맞다. 응.]
응. 지큼인데, 그 큰 도자(불도저) 가지고 밀은께너 구리이 그기 마, 팍!~ 나오는데 그만, 그 나오는 그기 커놓은께네…. 그 아지매가 봐가이 이야기를 하는 기라. 그 기사 얼굴에도 마, 피 칠로 하고 마, 차에도 피가 묻고 막 그랬다꼬…. 그래 척!~ 죽어삣다 아이가.
[청중: 아이구!~, 어짜꼬….]
갈라져 가지고…. 그래가 그 기사도 거서(거기서) 직사(直死)를 하고, 거 있는 사람들도 억수로 피해로 많이 봤어요. 그때….

이야기인즉 공사를 진척하자 큰 구렁이가 트랙터에 걸려 두 동강이 나서 죽은 것이다. 이 말남 할머니와 청중들은 그 구렁이를 공동묘지가 있던 산의 지킴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지

킴이를 죽인 트랙터 기사는 구렁이의 피를 뒤집어쓴 채 즉사(卽死)했다고 한다.

그래 그거로 마, 구리이(구렁이)가 너무 커 놓은께네 치아는(치우는) 것도 많이 욕봤다 이라더라. 그래 놓은께네 대번에 기사도 그 자리서 죽어뿠다 안 카나. 그 전설이, 요 부전시장에서 거가(거기가) 얼마 안 되거덩요. 거 사는 사람이 이야기로 그리 해샀더라꼬.

할머니는 죽은 구렁이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치우는 데도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트랙터 기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렁이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나무랐다.

그리 기사 그기 자기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핸 일인께네 꼼짝을 못한 기라. 허~연 영감이 저녁에 나와서 이틀만 기다리주라 카더란네.

[필자: 자리 옮길 거라고예?]

응.

"이틀만 기다리주면은 당신에게 덕(德)이 되고로 해주께. 이틀만 기다리주면 당신이 억수로 대로(보답을) 보끼라."

그리 캐도, 그 사람은…. 정부에서 하는 긴데…. 그리 정부에서 해도 그거는 자기가 잘 못했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기라! 그런데 큰~ 뱀이가 귀가 있고 이렇더라 카대.

하면서 이야기 끝에 그 지킴이에게 기이한 형상까지 보탰다.

이야기인즉 그 지킴이는 귀가 달려 있었다고 한다. 이말남 할머니는 그런 영물을 죽인 것에 대해 노여워하면서, 트랙터 기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공사를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래 그 아지매가 날로 보고,

"아지매, 아지매~, 내가 참 험한 꼴도 많이 봤소. 그 기사가요 억~수로 젊었는데…."

캄서러 말로 하는 기라. 이거는 내 생각이다. 잉!

'아이구~, 저리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가 저런데, 저리 밀고 나가면은 자슥(자식)들도, 그 공동묘지 임자들도 마음이 아프고, 귀신들도 어디로 가겄노?….'

내 생각이 그랬어요.

하며 그 당시의 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친정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부산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한번 들어나 보자고 했더니, 친정어머니가 시집오기 전 이말남 할머니의 외가에서 겪은 '집지킴이의 가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엄마가 외갓집에 2대에서 딸 하나라. 아들은 많이 있는데, 딸이 귀해가지고 2대에서 딸 하난데, 내가 8남매서 막냉인데, 외갓집 가몬 엄청 잘 살아요. 우리 할배가 발(어장)도 많고 잘 사는데….

잘 살몬 그 집이 평생에 잘 안살아지거덩. 그리 간께 우리 할매가 그러는데, 저 뱀이가 귀가 나가이고, 귀가 쭉~ 났는데, 고성 집에서 우리 친정엄마도 봤는데, 귀가 나가지고 억수로 큰 뱀이가 나가면서 그리 울더라 하대.

뱀이 울더라는 말에 필자가 놀라며, "아니! 뱀이 울어요?" 하고 되물었더니 이말남 할머니는,

"용(龍)이라 용! 집이 쩡~쩡! 울더라요."

하고 답했다. 그것을 본 이말남 할머니의 친정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엄마엄마, 뱀이가 귀가 난 기 나감시나(나가면서) 운께네, 이 집이 덜썩덜썩덜썩 하니 그렇더라."

하며 자신이 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외할머니도,

"응응. 나도 안다. 엄마도 안다. 아! 고만…."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던 이말남 할머니는 집이 안 되려니까 지킴이가 울면서 나갔다고 하면서, 외할머니도 이미 울음소리를 듣고 짐작을 하고 있었노라고 했다.

"그리 그기 나가고 난께 집구석이 그리 망해서, 터도 없이 망했다요."

하더니, 이야기는 갑자기 그 집을 사게 된 외가의 머슴 살던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샀나 쿠몬, 왜정시대에 우리 외갓집에 머슴 살던 사람이 일본으로 돈을 벌이러 갔는데….

집지킴이가 울면서 나간 뒤 망한 집을 이후에 외가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이 샀다고 한다. 그 사람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에 돈벌이를 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자 돈벌이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

마산에 도착해 어느 집 앞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일본인이 다가와서는 큰 가방을 맡기면서 화장실에 잠깐 다녀올 테니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가방을 지켰으나 가방 임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지자 배도 고프고 소변이 마려워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지하에 비단이 가득 재여 있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그 곳에서 며칠을 지내며 주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주인

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려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가방을 열어봤더니, 가방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그 사람은,

'아! 망해서 쫓겨 갔구나….'

하고 눈치를 채게 되었다고 한다.

알고 봤더니 그 집은 가방을 맡긴 일본인이 비단장사를 하던 집이었는데, 일본이 패망하자 집과 물건을 모두 버려둔 채 도망치듯 일본으로 되돌아간 것이었다. 이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그 당시는 부산에도 그런 집이 많았노라고 하면서 할머니의 말에 동조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집 지하에 있던 비단과 가방 속에 있던 돈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돈으로 이말남 할머니의 외가를 사서 살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마산에서 살고 있는데, 이말남 할머니의 외가 앞바다에서 양식업을 하며 큰 부자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앞서 소개한 양정동의 지킴이 이야기 외에도 양정동의 공동묘지를 깎아 아파트를 세울 때의 이야기는 인근에 사는 할머니들의 입을 통해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파트에 입주해 밤에 잠을 자면 꿈에,

"아이고, 뜨겁어라! 아이고, 뜨겁어라!"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건립 초창기에는 소문이 흉흉했으며, 결국 살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 사람들도 있었노라고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 소문들도 서서히 사그라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는데, 전포동에서 만난 강순덕(여, 79세) 할머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양정에 거게, ○○아파트 지은 그 짝에, 거게가 옛날에 공동묘지였거덩. 산 그거…. 목욕탕에 뭐, 밤에 목욕하러 가면 뭐, 뭣이 어짜고 저짜고 그런 말이 있었다.

[청중: 옛날에는 그리샀다.]

그렇다고 목욕탕에 아무도 안 오이(오니)…. 그리 우리 시외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새벽에 일찍 간께 혼차 헤엄치고 좋기만 좋더란다. 시외삼촌이 하내이(한 사람이) 그런다 아이가. 그런 소문이 난께 겁이 나서 아무도 안 오는 기라. 동네 그 공동탕에….

"공동묘지 우(위)에 해놓으인까네 귀신 나온다."

이래 놓으이까네…."

이야기인즉 공동묘지를 깎고 아파트를 세웠더니,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중목욕탕에까지도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목욕하러 가지 못했다고 한다. 목욕탕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그 시간대에는 돈을 받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담력이 좋은 제보자의 시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새벽에 목욕탕에 다녀와서는, 조용하고 깨끗해서 좋기만 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를 둘러싼 귀신 이야기는 묘지 훼손에 대한 민간의 공포가 응집되어 나타난 것으로, 그것이 하나의 도시전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한다.

제보자: 이말남(여, 76세), 부암2동, 2015년 7월 15일 채록(부암1동 장미 경로당)
강순덕(여, 79세), 전포1동, 2015년 7월 3일 채록(전포종합사회복지관)

* 이 이야기는『재미있는 부산진구 숨은 이야기,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16, “6. 뭐라카노, 참말이가?” 편에 수록(일부 삭제)되어 있음.[82]
* 류경자,『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70~79쪽.

[부산진구 설화 44]

당감동 공동샘의 지킴이들

[줄거리]

당감동에 화장장(火葬場)이 있었던 시절, 화장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의 극락다리 옆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어들지 않는 공동샘 겸 약수터가 하나 있었다.

화장장이 당감동에서 철수하고, 길을 넓혀 집들을 지으려고 할 때였다. 공동샘을 덮으려고 주변의 땅을 파니 뱀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다. 그것을 본 마을사람들은 그 뱀들이 화장장에서 죽은 사람들의 넋이라고 생각하여 파던 땅을 덮고 제사를 올렸다. 제사를 올리고 난 후 다시 땅을 파보니 뱀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뱀들은 공동샘을 지키는 지킴이였다고 한다.

개금1동의 김봉순(여, 77세) 할머니는 당감동에 시숙(媤叔)네가 살고 있어 제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때면 늘 당감동을 오가곤 했다. 그래서 당감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고 들은 것이 많노라고 했다.

옛날에 다리를, 돌다리를 이리 딱 놔놨거덩. 딱 놔놨는데, 그 다리가 ‘극락다리’라 캤는 기라. 동양고무 정문에서러 딱 모팅이로 돌아가몬 그 다리를 건네야만 그 화장막을 가는 기라. 그 화장막을 가기 때미 그 다리를….

이야기를 듣던 중 필자가 “동양고무가 있을 당시에도 당감동 화장장(火葬場)에 화장하러

82) 해당 책의 376~379쪽에 <극락다리 옹달샘, 극락다리 찬물샘>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위 설화의 일부 내용은 삭제되어 있음. -편자 주.

많이 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뭐, 억~수로 뭐, 내-(내내) 거(거기) 갔지. 딴 데 어디로 가노? 동양고무 있을 때도 그리 많이 갔지."

그러자 청중의 한 할머니가,

"동양고무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됐을까?"

하자, 청중의 할머니들이 모두 10년은 넘었노라고 했다. 그러던 중 또 한 할머니가,

"당감동 산다 카면 좀 안 알아줬어요. 화장막이 있어 가지고…. 말은 이랬다. 사람 태우면 인(燐) 그기 날라와가지고, 막 날라와가지고…."

하길래 필자가 "인(燐)이 날리면 밤에 도깨비불은 안 보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중에서,

"밤에는 도깨비불도 뷔지!"

그러자 김봉순 할머니가,

"우리 큰집에 가면, 제사지내러 가면 사람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난다꼬. 노리~한 내가(냄새가) 억수로 난다꼬…."

하더니 다시 구연을 이어갔는데, 화장장으로 가는 영구차가 극락다리를 지날 때면 항상 섰다고 한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망자(亡者)가 극락다리 건너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상주(喪主)들이 내려서 술 붓고, 절하고, 곡(哭)하고, 돈 깔고 했노라고 했다.

그렇게 간단한 의례가 끝나면, 영구차가 극락다리를 건너 오르막을 타고 화장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고게(거기) 인자 올라가몬 그 옆에, 길 밑에 인제 샘이 하나 있었거덩. 거기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이름이 있거덩. 그기 무신(무슨) 옹당샘이라 하던가? 하여튼 찬물샘이라 하던가? 뭔 샘인데…. 그기 약수터라꼬…. 그 물로 그 당감동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다가 그 물로 묵는데(먹는데)….

하면서, 당감동의 극락다리 옆에 있는 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니 불쑥,

거게로 인제 집을 지을라꼬 길로 인자 너르게 하고 마, 전체 막 때리파고 이러인께로 거게서 마, 뱀이가 그렇기 많이 나오더라 안하나. 뱀이 그렇기 많이 나오더래! 그렇게 거게서…. 거게서 인제 완전히

마, 어디서러 모이들었는가 마, 뱀이들이 마,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

그래 무섭아서 묻어놨다가 또 새로 그리 했다 안하나. 그리 그 샘이 지금 막했다 카든가, 그냥 안죽(아직) 있다 카든가 몰라 그래.

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인즉 당감동의 극락다리 건너 바로 길 밑에는 공동샘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아주 좋았다고 한다. 부암3동의 김복순(여, 77세) 할머니도,

극락다리 지나서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고, 암만 퍼내도 안 줄고, 우리도 거서 질어다 묵고…. 요쪽에 여(여기)도 샘이가 있었는데, 물이 작으면 거(거기) 가 이고 오고…. 여기는 물이 귀했거덩.

그 물이 참 좋았다. 암만 바가치로 가지고 퍼도 자꾸 물이 나와 거기는…. 화장막은 거서 한참 올라가야 돼.

하면서 극락다리 근처에 있던 우물에 대해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퍼내도 절대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감동뿐 아니라 그 인근 마을에서도 그 샘을 많이 이용했노라고 했다.

그런데 동양고무가 나가고 그 일대를 개발하면서 길을 넓히기 위해 샘 주위를 팠는데, 바로 그 샘 근처에서 뱀이 무리지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이 전신에(전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기 다 넋이…. 흐흐흐…."

하면서, 당시 나돌던 의외의 소문에 대해 들려주었다. 필자가 "화장장이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지예?"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뱀이 돼 가지고, 거(거기) 다 한테 모이가지고 있다가 그렇기 그런다 꼬…. 막, 파다가 덮어놓고 이랬단다. 그 뒤에 인자 막 거서 빌고, 막 저게 제(祭)를 지내고, 막 이런께로 그기 뒤에는 파인께로 없어져삐리. 어디로 다 가삐리.

하니, 청중의 한 할머니가,

"그기 참 전설이네."

하자 청중들도 "하아(응). 전설 맞아요. 전설!"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필자가 "하필이면 뱀이 거기 모여 있어가지고, 그게 넋이라고…. 흐흐흐." 했더니 김봉순 할머니가,

"그 물로 인제 손대지 말라꼬 그랬는 기지. 다…. 그 물 있는 데 손대지 마라꼬 다 그렇기 그런 일이 있는 거 겉더라꼬…."

하면서 뱀들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무리지어 모여 있었던 것 같았노라고 했다. 그리고는 또 다시 그 우물에 대해 설명하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필자가 "정말로 그곳에다 마을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 응. 제(祭)를 지내고 막, 그 인자 다~ 있는 사람들이 다~ 그했대.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그하인께로(다시 파니까) 그기 다 없어져 삤더래. 그렇기 많더래 거게(거기에)…. 그 주위에 그렇기 많더래.
> "그 샘이를 못 건드리라고 그랬는가?…."
> 그카면서러(그렇게 말하면서) 모두 그래 마…. 그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게 제를 지내고 막, 굉장히 많이 그했다 캐. 그러고 나서는 그 뒤에 그할 때는 어데로 다 가삐리고 하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물도 묵고 하는데, 그 샘을 건드릴라 카인께로 그렇지. 묻을라 카이(하니)!….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인즉 뱀의 무리를 발견한 마을주민들은 샘을 건드리지 말라는 일종의 계시(啓示)로 생각하여 파던 곳을 다시 묻고 그곳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제사를 지낸 후에 다시 파보니 뱀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민간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윤회사상과 지킴이 신앙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민담(民譚)에도 욕심이 많아 돈을 쓰지 않고 모아만 두고 죽은 사람은 주로 뱀으로 환생(還生)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그러나 사실 그 우물곁은 습한 곳이라 뱀이 동면(冬眠)하기에 좋은 장소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동면하는 뱀을 건드렸다면 흩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곳이 화장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환생(還生)과 연결되어 일종의 두려움으로 나타났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뱀은 용(龍)과 동일시되어 민간에서는 영물(靈物)로 통하는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마을의 공동샘과 맞물려 신령함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할머니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을 모아 '전설'이라고 맞장구를 쳤던 이유도 이 이야기가 여러모로 전설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제보자: 김봉순(여, 77세), 개금1동, 2015년 7월 14일 채록(팔각정 경로당)

* 이 이야기는『재미있는 부산진구 숨은 이야기,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16, "6. 뭐라카노, 참말이가?" 편에 수록(일부 삭제)되어 있음.[83]
* 류경자,『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80~86쪽.

83) 해당 책의 380~383쪽에 <큰 뱀이 귀가 있고, 이렇더라 카데>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위 설화의 일부 내용은 삭제되어 있음. -편자 주.

[부산진구 설화 45]

집지킴이 보고 망한 집

[줄거리]

어떤 사람이 전포동 쪽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집 둘레를 돌아보다가 굴뚝 옆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백사(白蛇)를 보게 되었다. 집지킴이라고 생각한 주인은 무당을 불러다가 길을 닦아주며 지킴이를 곳간으로 모시는 굿까지 했다.

그러나 굿의 효험도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남자는 아파서 죽고 집은 폭삭 망해버렸다. 집지킴이가 사람 눈에 뜨이면 아주 좋지 않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개금1동에 살고 있는 김봉순(여, 77세) 할머니가 신암에 살 때 직접 본 이야기이다. 김봉순 할머니는 11살에 경북 상주에서 서면에 있는 삼촌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후 부산진구에서 계속 살아왔다고 한다.

김봉순 할머니는 고향에서 6.25전쟁을 겪고, 힘든 시기에 고향의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삼촌집으로 올라왔다. 같이 올라온 친구들은 알음알음 동래나 온천장에 있는 가정집의 가정부로 가고, 할머니는 삼촌집에서 조카를 봐주면서 지내게 된다.

김봉순 할머니의 삼촌은 서면로타리 부근에서 '남성고무'라는 신발공장을 운영하며 잘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장 안에 살림집을 끼고 있어, 할머니는 시간만 나면 조카를 업고 그 공장 안을 기웃거렸다. 그때는 공장 안에서 신발 작업 하는 모습이 그렇게 재미있어 보여 그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삼촌이랑 숙모가 할머니에게는 공장 일을 못하게 했다. 이유인즉 배운 도둑질이라고, 여자가 한번 돈을 벌기 시작하면 결혼해서도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예 배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삼촌의 공장에서는 처음에 흰색, 까만색 고무신을 만들다가, 이후 어느 때부턴가는 고무신을 걷어치우고 목이 긴 군용운동화를 생산했다. 그러다가 어느 땐가 부도가 나서 공장 문을 닫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그 공장 자리에는 병원이 들어와 있는데, 서면에서도 요지라고 한다. 공장이 문을 닫고 난 후, 김봉순 할머니는 삼촌이 얻어놓은 서면 동보극장 옆의 부속골목 가게에서 한동안 장사를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어 보탰노라고 했다.

큰 길로 돌아가면, 그 옛날 손소아과 병원이 로타리에 있었거덩. 옆에, 그 밑으로는 부속장사가 쫙~ 있었거덩. 전체 부속가게가 있었거덩. 옛날에 동보극장이라 카면 모리끼다.

[필자: 압니다.]

동보극장, 그 자리가 태화쇼핑이 생깄다 아이가. 거기 전체 다 동보극장이 있었어. 그 주위에도 전체 부속가게가 있었는 기라. 그런데 나는 거기서러 옛날에 사탕 겉은 거 마, 단지에 이래 커다랗기 해놓고 착~착 이래 선반 내놓고, 그 착~착 과자 같은 거 놔놓고 가게 봤어. 그래 그때 돈 억~수로 벌었다 꼬. 얼마나 잘 됐는데…. 뒤에는 마 맥주, 소주, 탁주 이런 거로 진열 쫙 해놔놓으면 그런기 억수로 잘

팔리는 기라.

그리 그 뒤에는 또 차 맨드는 공장이 있었는 기라. 그래놔놓은께로 그래 그때 진~짜 돈 많이 벌었다 꼬. 그 돈은 우리 숙모집에 다 줬지. 이사 갈 끼라고 날 받아 놔놓고 내가 시집 먼저 나왔어.

그 당시 삼촌은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운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봉순 할머니를 시집보내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운수업을 하는 삼촌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결국 망해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가 "어무이 복으로 잘 됐던갑습니더." 했더니, 삼촌집에서 클 때도 할머니가 복이 있어서 잘 된다고 특별대우를 받았노라고 했다.

김봉순 할머니는 신암으로 시집을 갔다가 아이 둘을 낳고는 다시 서면으로 왔다고 했다. 그 밖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김봉순 할머니가 시집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겪은 일이라고 한다. 삼촌이 공장을 운영할 당시 공장에는 숙모집 형제나 친척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그 친척들 중 한 사람이 당한 일인 것 같다. 할머니가 결혼을 할 무렵 삼촌집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척 한 사람이 전포동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내 시집오고 몇 년 안 살고 그래 그 아저씨가 죽고…. 그 집 이사 가가지고 죽고, 그러고부터…. 그 때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뒤에 인제, 집 뒤에를 돌아가는 데에, 굴뚝이 있는 데에, 거(거기) 뽀~한 백새[백사(白蛇)], 뱀이 있더라카네. 뽀~한 백새….

이야기인즉 삼촌의 친척뻘 되는 사람이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우연히 집 모퉁이를 돌아 굴뚝 있는 곳을 들여다봤다가 백사(白蛇), 즉 흰뱀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집이 어디쯤 있었냐고 물었더니,

집을 저 짝으로, 전포동 쪽으로, 그 큰 도랑 있는 데 안 건네서러 이짝으로 집을 샀는데…. 이사를 갔는데, 뒤에 모팅이(모퉁이) 이리 돌아가는 데에 굴뚝이 있었거덩. 굴뚝이 있었는데, 거기에 뱀이, 뽀~한 뱀이 이리 똬배기(똬리)를 틀어가 있더라 카네. 그걸 봤는 기라.

그 집의 위치는 전포동 쪽인데, 이사 간 집 굴뚝 옆에 하얀뱀이 똬리를 틀고 앉아있더라는 것이다. 필자도 채록하면서 들은 바가 있어 "지킴인갑다!" 했더니,

"그래. 집지킴이라. 그래 어데든지 물으면 그 집지킴이는 눈에 띄가 안 되고, 그래 안 가 봤어야 되는데, 거(거기) 뭐하러 돌아가노? 거를…. 거 안 가도 되는데…."

하면서 못내 안타까워했다. 필자가 확인 차 "집지킴이는 눈에 띄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눈에 띄면 안 된다 캐. 눈에 띄면…."

하길래 필자가 다시 “죽이지 않아도예?” 하고 물었다.

“안 죽이도!….”
그래 집이 이래 있는 거 같으면, 이 고방(곳간)이 이짝으로, 따로 아랫채에 고방이 있는데, 거 오만 거 다 꽉 옇어(넣어)놨는데…. 하여튼 이 고방에서러 그기, 거서(거기서) 나와가지고 거 똬배기 틀어가지고 있다 이기라. 인제….

이야기인즉, 집지킴이는 죽이지 않더라도 눈에 띄기만 해도 좋지 않으며, 또한 그 집 굴뚝 옆에서 똬리를 틀고 있던 그 하얀뱀은 그 집 곳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마, 굿도 얼~마나 하고 마, 이 필(疋)로 사가지고 마, 거 줄로 매가지고 막막, 그해 딜인다꼬(들인다고) 막, 그하고 막, 얼~마나 그석하고 막, 그리그리 했는데….

말인즉 그 백사(白蛇)을 보고 난 주인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면서, 천을 뜨다가 길까지 닦아주는 의식(儀式)을 거행하는 등 그 집지킴이를 다시 곳간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는 것이다. 굿에 의식까지 행했다는 말에 필자가, “그 뱀을 보고 주인이 불안해서 어디 가서 물어봤던 모양이네예?” 했더니,

그렇지! 그때는 뭐뭐, 온통 저게, 주모(주인아주머니)가 억수로 막 절에 다니고, 만날 점(占) 같은 걸 잘하거덩. 그러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마,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만 마….
[필자: 그래서 그 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지! 제풀에…. 결국에 그렇기 굿을 하고 해도 그만 마 아파서, 아파서 결국은 죽었어. 그리 해도 안 되고….

결국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아저씨는 아파서 죽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어무이, 밖에 나와 있던 뱀을 곳간으로 불러들이면 괜찮아집니까?” 하고 물었더니,

응. 그래 불러 인제 막 굿을 하고, 불러옇으면 제일이거덩.
줄을 전신에(전부) 이래, 큰~ 마마마, 필(疋)로 사가지고,
[필자: 아!~, 베[布]를? 길을 깔아준다는 말이네예?]
응. 길을…. 길로 이래 피놔(펴놔) 놓고, 창고 앞에서 그리 피놔 놓고, 그리 마 굿을 그~리 했는 기라. 굿을 그렇기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마, 참 죽었어.

하고 대답했다. 주인집에서는 그 지킴이 뱀을 곳간을 불러들이기 위해 천을 뜨다가, 뱀이 똬리를 틀고 있던 곳부터 곳간 앞까지 깔아 길을 만들어주며 굿까지 했다. 그러나 공들인 효험 없이 결국 주인아저씨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 죽고 그러고 나인께로 마, 그 집이 망해뿌리는 기라. 망해. 살림이 가뿌리고(가버리고)…. 차가 마, 사고가 나고 마, 나갔다 카면 사고가 나고 마, 운전수로 들났다 카면 사고내고 가고 마, 결~국 사고를 내가지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는 기라. 사람들이 죽고 마….

이야기인즉, 그 주인아저씨가 죽고 난 후 여러 가지 악재(惡災)가 겹치면서 집이 망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필자가 그 사람과 삼촌은 어떻게 되는 관계냐고 물었다.

이 사람은 같은 형제 중에 삼촌이고 누나고 이리 되지. 되는데, 그 집에 같이 살았거덩. 그 공장 일하는 사람들 밥도 해 주고 그랬다 아이가. 그렇기 마, 망할라 카이 그렇기 마….

하면서 이야기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못내 안타까운 듯,

굴뚝 있는 데는 그 쫍거덩. 쫍는데…. 이 집에는 집을 바짝 그해가지고, 앞을 너르게 해가지고 그 뒤에는, 뒤에는 인제 굴뚝만 맨들아 놔놓고, 그리 별로 안 널렀는데, 그 들어갈 일도 없는데, 그 뭐 세와놓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그할 것도 없는데, 거 뭐할라 들어갔겠노? 집구석이 망할라 카이 그렇지.

그래가 뽀~한 뱀이 똬배기를 틀어가 있더라 카네. 그래 그걸 이야기로 했는 기라. 나와가지고…. 그래 굿도 하고 막, 지킴이가 눈에 띄이가지고 그렇다꼬….

하면서 다시 한 번 그때의 상황에 대해 짚어주더니, 옛날 초가집들의 부엌이나 서까래 같은 곳을 넘나들던 뱀은 지킴이가 아니라고 했다. 지킴이라는 것은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있는데, 절대 사람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지킴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는 구연을 마무리했다.

제보자: 김봉순(여, 77세), 개금1동, 2015년 7월 14일 채록(팔각정 경로당)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87~94쪽.

[부산진구 설화 46]

귀신소동,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마을

[줄거리]

범전동은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마을이다.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면서 공터만 있으면 공동묘지도 마다하지 않고 집을 지어 살던 시절이라, 어디든 새끼줄 치고 밤에 몰래 블록을 쌓아 올려 집을 짓고 살았다.

공동묘지를 대충 정리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다보니, 터가 세서 귀신소동도 잦았으며, 불을 때노라

면 아궁이에서 유골이 드러나기도 했다. 때문에 이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때에는 건축업자들이 마을의 귀신소동을 역이용해 주민들을 겁주기도 했다.

강제 철거가 추진될 때는 마을의 여인네들이 온 몸에 비닐을 감고는 인분(人糞)을 바른 채 철거하러 온 사람들에게 비벼대는 바람에 몇 차례 철거가 연기되기도 했었다고 한다.

필자는 범전동에서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며 만나는 어른들마다 붙들고, 이 마을에 전해내려 오는 전설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들려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다. 이야기인즉 이 마을은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귀신소동을 겪었으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격렬한 저항이 있었노라고 했다.

필자가 경로당을 찾다가 도로에서 택시를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던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여, 81세)에게 이 마을에 전해내려 오는 전설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여기 아래는 애기들 공동묘지였고, 응응. 내가 그때 젊은 시절이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23살 때 여기 들어왔어요. 피난 와가지고….

[필자: 어무이, 지금 연세가 어찌 됩니까?]

지금 팔십 한 살이거덩. 집 요거 밲이 없었어요. 그럭하고 여기 전부 뻘구딕(뻘구덩이)이고, 택시가 여기 올 때는 절대로 안 들어와요.

"계집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여기가 그런 곳이었어. 공동묘지가 총총히 있었어요. 나무가 없었어요. 전부 공동묘지가 총총 있고, 요 근처에는 애기들 산소 있고, 애기들 산소에는 돌만 눌리놓고, 막 꺼적때기도 갖다 덮어놓고 이랬어. 옛날에….

하면서 6.25전쟁 때문에 피난 와서 살던 당시의 주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당시는 범전동 일대가 공동묘지였으며, 온통 진흙투성이라 '계집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인까넌 식구들은 작제. 그래 놓으이, 인제 거기서 집터는 세고, 사는 사람은 약하고 하인까넌, "아이고!~ 아야!~. 날 살려라!~."

응응. 밤에 자면 꿈에 그러카더래. 그래 인자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자꾸 무섭다고 이사를 갔어. 거기다 인자 불 때면은, 불 때 가지고 이렇게 덜칙거리면은, 인자 뼈가 막 갓에(가장자리에) 들칬다가 뼈가 막 튀어나오니까 불로 땔라쿠면 인자 기절로 하고 도망을 가는 기라. 못 산다고…. 그리 인자 겁을 내가지고 못 살잖아. 음 그러카고….

이야기인즉 공동묘지를 정리해 집을 짓고 사는데, 집터가 세서 밤에 꿈을 꾸면 귀신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궁이에 불을 때노라면 유골(遺骨)들이 드러나곤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무서워서 못 살고 나간 사람도 많았노라고 했다. 이야기를 이어가려는데 호출한 택시가 도착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떠나는 바람에 이름도 확인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고 어디로 갈까 둘러보면서 서 있는데, 마침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오고 있던 50대 정도의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필자가 이 마을을 찾은 연유를 밝히고, 택시를 타고 떠난 할머니에 대해 아쉬워하자 자신도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 이곳에 산 세월이 50년이 넘었노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보태주었다.

철둑 저거 없앨라고, 한성주택 저거 지을라고, 뒤가 한성주택이거덩요. 저거 인제 지을라고, 땅을 살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몇 집이 있어요. 미장원도 하나 있었고, 탁구장 하고, 그 옆에도 또 하나 있었고….

인자 그때는 조금 지났었지. 내가 조금 컸으니까…. 그리 인자 저거 할 때 주위에서 귀신 나온다고…. 알고 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자작극이라. 저 땅을 싸게 살라고, 옛날 저 주위 땅을…. 다 자작극이지.

하면서 한성주택을 지을 당시의 귀신소동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이 마을에 전해오던 귀신 소문을 역이용해서 퍼뜨린 것이었노라고 했다. 그러더니 생각난 듯 자신이 어린시절 직접 목격했던 이 마을의 개발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여, 재개발사무실에 가면은 손정식 씨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내카마 나이가 조금 몇 살 많으니까 기억이 안 있겠나? 나는 너무 어려 가지고….

그때 막 인제 여자들이 그때, 남자들은 하나도 안 나서고, 집 철거될 때, 여자들이 전신에 눈만 요리 딱 내 놓고, 비니루로 다 감아가지고,

[필자: 얼굴을요?]

예. 인자 집집마다 화장실문 다 열어놓고, 화장실에 인분을 몸에 발라가지고, 철거하러 오지요? 철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막 가가 비비는 기라. 못 대잖아. 손을…. 그런께 철거를 못하고 몇 번을 인자 이래….

하면서 마을의 여인네들이 인분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철거하러 온 사람들에게 비벼대며 격렬하게 저항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의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 동네, 이 동네가 아니고 그때는 집이 몇 채 없었어. 고거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라고 동네를 개발할 당시…. 그때 한 열다섯 집이나 됐나? 이 동네 살 때는, 지금 여기는 동네가 아니고 밭이었어요. 밭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어리가지고….

특히 이기 인자 다 뜯기고 우리가 저 뒤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녔어. 성지국민학교를…. 학교가 거기밖에 없었잖아요.

하더니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를 타고는 떠나버렸다. 필자가 이름과 나이를 물었지만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재개발사무실에 가서 손정식 씨를 찾아 물어보라고 했다. 그 길로 재개발사무실을 찾았다. 재개발사무실에는 길을 묻다가 만난 적이 있는 권봉수 씨도 같

이 있었다. 길을 묻는 도중에 이 마을을 찾은 이유를 밝혔더니, 이 동네에는 귀신집도 있었노라고 했던 분이다. 찾아온 연유를 밝혔더니 권봉수(남, 61세) 씨가 먼저,

우리가 그때 한 60년 58년 전에다. 그때는 사람 얼마 안 살았지. 조랑말이 달리기 할 땐데, 측량은 필요 없고, 새끼줄 이리 쳐놔 놓고,

"얼마 됐나?"

"됐다!"

카면 마, 딱아치는 기라. 그래 지금 여기여기, 지금 길 낸다고 길옆으로 일로(이리로)…. 집 따까리 하고 땅하고 합해가 375만원….

[필자: 그러면 그 당시는 필지도 없고, 줄 쳐놓고 그러면 자기땅 됩니까?]

그렇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주었다. 그것이 언제쯤의 일이냐고 물었더니 손정식(남, 65세) 씨가,

그게 한 5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여기 거주를 하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바뀌기는 많이 바뀠지마는, 요 위로 욜로는 공동묘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주택지를 만들었는 거거든요. 요 위로는….

하더니 재개발사무실의 벽에 걸린 지도를 짚어가며 설명을 해주었다.

요기는 지금 우리가, 내가 옛날에는 여 우게(위에) 여기 살았어요. 이 친구는 여 밑에 여기, 여 부근에 여기 살고. 우리 여기가 인자 다 공동묘지였었는데, 큰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잔디가 잘돼 있어가지고 우리 놀이터였지. 그기 인자 이 주택지가 정리가 되면서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는, 나는 이쪽으로 이사 오고….

하길래 필자가 좀 전에 한 아주머니로부터 들었던 인분 뒤집어 쓴 이야기를 꺼냈다. 그랬더니 권봉수 씨가,

"요게 여 정묘사 넘어가는 데 있다 아인교? 현대아파튼가 지랄인가…. 그 동네 그기 우리땅이거덩. 그리 철거를 한다카이 똥바가치를…."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손정식 씨가 이어서 말을 받았다.

"그래 그분이 우리 모친이라. 우리 모친인데, 우리 모친이 똥바가지 퍼붓고 철거 못한다고 이리…. 그 당시에 우리가 12만원 받고 철거를 당해가지고…."

[필자: 아~ 그때 평당 12만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전체. 전체 12만원 받고, 여기 이제 12만원 주고 이 동네 와가지고 이때까지 살고 있는데, 그때는 50년대니까, 그러니까 50년대 말(末)이지. 아! 그때가 60년대 초(初)겠구나. 60년대 초…. 내가

여기 살다가, 이 동네 요 우(위)에 여기 살다가,

하면서 지도를 짚어가더니,

아! 처음에 여 살았구나. 300번지 여기 우리 어무니가 이사와가지고, 여기 살다가 이 동네가 창녀촌이라는 걸 알고는, 우리집에 딸래미가, 누나가 세이나 있으니까 누나들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사를 갔는데, 요 위로 왔어요.

요 위로 왔는데, 요기가 옛날에 철길이거덩. 철길이 있는데, 요 주변으로 다 아가씨들이, 창녀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 놓으이 여게 살다가, 이리로 와서 그래 여기 한참 살았죠.

한참 살다가 사하라 태풍 오고 이리로 올라왔지. 그래 인제 이기 철거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까지 와서 살아 왔는 게 58년 살았구나.

하면서 처음 300번지 근처에서 살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금 현재 위치까지 옮겨와 살게 된 내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필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십사 하고 청하자, 손정식 씨는 어릴 때 이 동네에 들어왔노라고 하면서,

"참, 이 동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리아카 것다(거기다) 한 짐 끌고 들어와가지고, 참 굶기도 부잣집 밥 먹듯이 굶었고, 어릴 때 참 많이 그했지. 옛날에, 초장에는 말뚝만 치면 됐다니까!"

했다. 그래서 필자가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친척 한 사람이 이 동네에 있으면서 이사 오라고 권했다고 한다. 그럴 때만 해도 손정식 씨네는 본동(4통)에 살고 있었는데 그럭저럭 살기가 괜찮았다고 한다. 때문에 손정식 씨의 아버지는,

"아이구~, 그 동네 거는(거기는) 안 들어간다."

하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김정식 씨가 헛웃음을 한 번 웃고는,

아버지가 사업을 한 몇 번 해가지고 쫄~딱 말아묵는 바람에 결국은 일로(이리로) 들어왔지. 들어오고 나니까 마, 내가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설움도 참 많이 받았고, 없다고 설움도 많이 받고 이래가, 그래서 내가 안 나가고 이래 살지.

하면서 또 한 번 웃더니, 처음 마을에 와서 살 당시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기는 뭐 먼저 와가지고, 전부 다 국유지니까 새끼 쳐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무허가로 짓는 거지요. 통장한테 인자 돈 몇 푼 주고 이리 하면 통장이 눈 감아 주면은 밤에, 밤에 보로쿠 쌓아올리가 집 지어뿐다 아입니까?

지금은 다 불하를 다 받아가지고 개인 소유가 돼 있지마는…. 그때는 뭐, 새끼 쳐놔 놓으면, 요 우

(위)로는 공동묘지니까 뭐, 사람들이 잘 안 살았지마는, 요리는 전부 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새끼줄 쳐놓고 밤에 몰래 블록 쌓아 집을 올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이 부근에 집들이 자그마한 이유도 대부분 그 때문이라고 했다.

밤새도록 땅을 파내 밭때기 만든다꼬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집 지을 만큼 땅을 골라 놔놓으면은 막, 밤에 보로쿠 쌓는 사람이 와갖고 탁 지어갖고, 금방 지어갖고 금방 스레트 올리뿌면은 되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면은 또 그걸 허물지는 안 했거덩. 그런데 짓다가 걸리면 뿌사뿐다 아입니까? 구청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왐마 갖고 와가지고 쌔리뿌사뿐다 아입니까. 뿌사 놓으면 다음에 또 짓고…. 그래가 형성이 된 마을입니다.

하더니 재개발사무실 벽에 걸린 지도의 한 곳을 가리키며,

"이게 옛날 공동묘지였다가 한성주택 아인교? 지금…. 아이구~…."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러더니 그 당시는 집을 지으려고 터를 조성할 때면 유골이 나왔다느니, 부엌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다가 두개골이 나왔다느니 하는 말들이 왕왕 있었으며, 귀신 이야기들도 간간이 들렸었노라고 했다. 그 말에 필자가 혹시 도깨비를 본 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도깨비는 여 우리집 올라가는 데, 저 옛날에 침례교회라고 있었어요. 교회…. 옛날에 동서지기라는 박스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저 동서지기 그 회사 들어오기 전에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가(거기가) 외졌어요.
그 교회 짓고 난 뒤에 밤에 술 먹고 누가 오다가 도깨비에 홀려 가지고 교회를 한 뭐, 밤새도록 돌다가 보니까 교회 앞에 자빠져가 있는 걸 사람들이 깨우고 오고 이랬다는 말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하고 답했다. 손정식 씨의 이야기가 끝난 후, 권봉수 씨에게 "다시 만난 김에 아까 길거리에서 했던 그 귀신집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다.

저 어디고? 목욕탕 맞은편에,
[손정식 씨: 세진빌라 자리?]
응. 그 자리에…. 옛날에 주택으로 있을 때, 그 방을, 결국은 그걸 비아 놨다 아이가? 그런데 나도 그 얘기만 들었지.

하고는, 들은 이야기라 신빙성이 없다면서 구연을 꺼리는 눈치였다. 그래서 필자가 웃으며, "저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모읍니다." 했더니,

"이야기를 하라 카이께네 도통 우떻기 해야 할 바를 모르겠네. 허허허."

하면서 너털웃음을 한 번 웃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걸 옛날, 오래 되기는 오래 됐지마는 거기 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집을 비우고, 창고로 썼다꼬. 거기를…. 지금은 다 뜯고 없고 빌라가 들어서가 있는데, 저 요넘에(여기 너머) 가면 동원탕 맞은편에, 도롯가에 그 집인데, 옛날에는 거(거기) 기와집이 있었다꼬. 안에 집이 있고, 밖에 인자 그 도롯가에 있는데, 도롯가에 집이 그리….

하면서 그 집의 옛 구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도롯가에 집이 그리, 사람들이 인자 복판에 이불을 펴고 이리 눕어자면, 새벽에 일나보면 전부 구석에 다 가가 있는 거라. 구석에 눕어 자고 있는 거라. 사람이…. 그 몸부림을 쳐도 한두 사람이 몸부림을 치는 거지. 네 사람이 전부 다 제각기 구석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

'이상하다….'

싶어갖고, 몇 번을 거기서 자도 그런께 나중에는 섬찟해갖고, 사람이 거기서 안 자고 창고로 썼다더라꼬.

이야기인즉 여러 사람이 복판에 모여 이부자리를 깔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모두가 뭔가에 쫓기기라도 한듯 네 귀퉁이에 처박힌 채 자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자 마을에서는 그 자리가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귀신이 있어서 그렇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한다.

실제로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몰라도 거게(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가 그렇더라꼬. 그 구석에 처백히가 있고, 아침에 일나면 구석에 있고 그러니 야튼 사람이 아무래도 좀 섬찟 안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창고로 쓰고, 사람은 안채에 거서 살고, 그래 고 방만 그랬다는 이런 소문이 있더라꼬.

하면서 유독 한 방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했다. 그러더니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래 이 동네, 이 공동묘지 깎고 난 뒤에 희한한 소문이 다 났어요. 마, 비가 부슬부슬 오면 귀신이 나와갖고, 길에 나와갖고 사람을 따라오고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실제로 본 거는 아니지마는 그 사람이 뭐…. 말은 인자 꼬리에 꼬리를 무인까네(무니까)….

하고는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범전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포3동에서 만난 손기섭(남, 81세) 할아버지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손기섭 할아버지는 피난 내려와 처음에는 범일동에 살다가, 부산진구로 와 부산진구에서 여기저기를 옮겨다녔노라고 했다. 범일동에 있을 때가 1953~1954년경이었는데, 범일동의 산꼭대기에서 영화 촬영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다고 한다.

옛날에, 그때에 내가 산에 올라가가 구경을 했는데, 그 만댕이(꼭대기)에 성이 있데. 범일동 그 뒷산 뭐이니라? 자성대 아니고 요쪽에 보면 범일동 뒤에, 삼일극장 맞은편에 그 앞에 보면 산, 그 산 이름이 뭐이니라?…. 그기 아주 옛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 보면은 산만댕이 거기 성이 돼 가 있고, 그때는 6.25때는 그 산 주변이 판자촌이 돼가 있었어. 올라가면….

우리는 그때 놀랬어요. 왜 그렇냐 하면 시체가 꽉~ 널어져가 있는데, 진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부 인형을 가지고, 사람을 요리 인형겉이 맨들아 가지고, 그래가 사다리 이래 올라가고, 전쟁하는 겉이 그랬는데, 인자 떨어트려도 안 죽고 진짜 똑 사람 같애요. 옷을 똑 사람겉이 입혔는데, 요즘이야 뭐 발달 돼 가지고 많이 그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처음 봤거덩예. 크기도 사람겉이 맨들아 갖고, 피 묻히가 이래가 떨어지는 장면, 우(위)에서 말이지 치는 장면 이런 걸 하는데, 영화 찍는 거 우리는 처음 봤어요.

[필자: 영화 제목이 뭔지는 생각 안 납니까?]

그거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오래 돼 갖고….

하더니, 그 당시 경마장에 놀러도 많이 다녔노라고 하면서 범전동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그 시민공원, 거기에 경마장이 있었어예. 경마장이 있었는데, 경마장에 우리가 놀로를 많이 갔어요. 가면 경마 구경도 하고….

그 뒤에는 조금 올라가면 집도 좀 있었지마는, 그 위에는, 저쪽 넘에는 전~부 공동묘지였어예. 공동묘지. 그래가 개발되고 이리 돼가 집 짓는다고 이리샀고 했는데, 내가 소문 들으이, 그 인자 집을 짓고 해필 그 집을 지어가 부엌자리에, 부엌자리에 시체, 그 묫자리 거기 딱 아다리 됐는 데는,

"아이구! 뜨겁아라~. 아이구! 뜨겁아라~. 와 이리 뜨겁노?"

캐샀고 말이지 그런 전설이 나오더라꼬.

하면서 범전동에서 공동묘지를 깎아 집을 지을 당시 나돌았던 소문에 대해 들려주었다. 집을 지었는데, 잘못해서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부엌 아궁이가 자리하게 되면, 꿈에 귀신들이 나타나 뜨겁다고 난리를 했다는 것이다. 손기섭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 끝에 또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자는데 꿈에 뜨겁다꼬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기 인자 소문이 자꾸 그런 소문이 나데. 그래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얘기가,

"딱 고런 자리에 그걸 하게 되면 부자 된다."

이런 얘기도 듣기고…. 인자,

"그 부엌자리에 그기 딱, 묫자리가 아다리 되면 부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헛소문이 자꾸 들리데. 그건 뭐, 우리가 이야기만 듣고 소문만 들어본 거지, 실제로 젂어본 거는 아니니까….

즉 계속되던 흉흉한 이야기 끝에 어느 날인가부터는 '가장 악재(惡災)가 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라는 말까지 만들어져 또 소문으로 퍼지게 되더라는 것이다. 그

러면서 손기섭 할아버지는 이러한 소문들에 대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러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민간에 나돌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민간에서 얼마만큼 묘지 훼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악재를 횡재(橫財)로 돌리는 이야기까지 생성되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에 대한 묘안을 찾고자 주민들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제보자: 권봉수(남, 61세), 범전동, 2015년 7월 2일 채록(재개발사무실)
손정식(남, 65세), 범전동, 2015년 7월 2일 채록(재개발사무실)
손기섭(남, 81세), 전포3동, 2015년 7월 7일 채록(영하 경로당)
OOO(여, 81세), 범전동, 2015년 7월 2일 채록(버스정류소)
OOO(여, 50대), 범전동, 2015년 7월 2일 채록(버스정류소)

* 이 이야기는『재미있는 부산진구 숨은 이야기,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16, “6. 뭐라카노, 참말이가?” 편에 수록(일부 삭제)되어 있음.[84]
* 류경자,『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95~109쪽.

[부산진구 설화 47]

묘지(墓地) 훼손했다가 낭패 본 사람들

[줄거리]

옛날 가야공원 인근에서는 묘지(墓地) 근처에 집을 지어 살기도 했다. 한 집에서는 묘를 앞뒤 좌우에 그대로 둔 채 집을 짓고 살았는데, 살면서 묘를 단장해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禮)도 갖추며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방을 빌려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이 집을 좀 넓게 쓰고자 하여 묘를 좀 깎아내고 그 터를 사용했다가 태어난 아이가 죽는 화(禍)를 당했다. 이웃집에서는 부엌을 만들면서 묘를 깎아 넣었는데, 유골(遺骨)이 나오더니, 가족 세 명이 연이어 죽는 화를 당했다고 한다.

이후 자손들이 와서 그 묘들을 이장(移葬)해 가고부터는 그 터를 사용해도 해(害)가 없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가야2동의 이태희(여, 84세)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이다. 당시 이태희 할머니의 집은 가야공원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곳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84) 해당 책의 389~395쪽에 <음택양택(陰宅陽宅),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마을>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위 설화의 일부 내용은 삭제되어 있음. -편자 주.

집 앞에 묘가 있었거덩요. 집 밑에도 있고…. 우리는 그리 묘를 놧두고, 마 꽃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고 이리 했는데, 작은방에 들어오는 아저씨가 고거를 탁! 깎아삐고 흙을 골라 삐더라꼬.

[필자: 묘를요?]

예. 그리 하더마는 애기를 낳아 놔놓은께 마, 죽어삐는 기라. 그래 마, 기분 나쁘다고 이사를 가는 거라.

이야기인즉 이태희 할머니의 집 앞에는 묘(墓)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묘를 건드리지 않고 주위에 꽃을 심어 단장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집의 작은방에 세를 들어오게 된 아저씨가 그 묘를 좀 깎아내고 흙을 골라 그곳을 사용했는데, 그 일 이후 태어난 아기가 죽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리 또 우리 옆집에서도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니까, 자기 부엌을 하면서 그 묘를 갖다 옇었는 기라. 평지가 되니까 안에 뼈가 있었는지 몰랐지.

그리 인자 부엌을 맨들았는데, 딸도 하나 중풍이, 초등학교 2학년이 중풍 걸리 죽고, 지금 살았으면 오십 너이(넷이)거덩. 중풍 걸리 죽고…. 또 아들도 하나 죽고, 자기 부인도 죽고, 서이(셋이) 죽었거덩요.

또 다른 사연인즉 이태희 할머니 옆집에서 부엌을 넓히기 위해 묘를 깎아 넣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 아들, 딸, 부인까지 세 명이 연이어 죽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던 청중의 한 할머니가, “아이고, 세상에!~” 하고 탄식을 했다. 필자가 “어무이집은 아무 탈이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그냥 꽃도 심고 이리 했는데, 작은방 사람이 그랬는데, 애기 죽으니까 그만 가삐고. 이사 가삐고…. 그리 나는 마, 꽃도 심고 놧두고…. 그 마마, 우리 아-(아이)들로 올라 못 가고로 하고 했거덩.

할머니는 묘에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꽃으로 단장을 하며, 아이들도 함부로 묘에 못 올라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다가 필자가 세 든 사람이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묘를 건드리냐고 물었다.

그래 건들어. 자기가 보기 싫다고…. 편편하이 한다꼬 흙을 깎아내라삐고 이라는데…. 그 묘가 있었는지는 그 사람도 알고 왔어. 보기 싫다고 깎아삤어.

[필자: 어무이, 그 묘가 누구 묘인지는 모릅니까?]

예. 누구 묘인지는 모르지. 그리 옛날에 있었는 묜데…. 그리 나는 건드릴 수가 없어서 놧듰거덩. 묘지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마, 해바라기도 심고, 꽃도 맨들아 놓고 마, 화단맨치(화단처럼) 그리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옆집에서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니까, 친정이 창원이거덩. 식구대로 다 갔거덩요. 어린 애들 뎃고 갔다 오니까, 부엌을 만들었어. 그거로….

[필자: 묘를 가지고요?]

예. 그리 사람이 서이 죽더라꼬. 부엌으로 널맀더라꼬. 여 꽃나무 심어 놘 그것도, 해바라기도 마큼(몽땅) 다 뭉개뿌고, 자기 터맨치로(터처럼) 해서….

그곳에 있던 묘는 할머니네가 집을 지어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것으로, 돌보는 사람도 없어 누구 묘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 묘를 건드릴 수가 없어서 흉물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꽃을 심어 단장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네 식구들이 모두 친정에 다녀온 사이, 옆집에서 부엌을 넓히기 위해 그 묘를 깎으면서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화단조차도 뭉개 놓았더라는 것이다. 필자가 놀라며, 어떻게 남의 물건을 그럴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옛날에는 무허가니까 막, 이우지서(이웃에서) 막, 대차면 막 왕이라. 옛날에는 법이 없어. 자기가 어른이라 그만…."

하고 답하길래, "그 일이 언제 적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지금 한 50년 넘었어. 그런 지가 51년 됐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람이 서이 죽고…. 지금은 깎아 옇어(넣어)가지고 부엌으로 돼가 있는데, 결국 세월이 흐르니까….

이태희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위력을 보이며 버티던 묘들도 결국 세월에 못 이겨 주택의 일부로 흡수되어 버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시금 말을 이어갔다.

우리집 밑에 묘가 또 하나 있었는데,
[필자: 아이고 어무이, 그렇게 묘가 둘러싸고 있으면 무섭지 않습디꺼?]
애나(정말, 여기에서는 '오히려'의 뜻으로 쓰임) 죽은 사람은 괜찮아요. 가만히 손도 안 대고 놧둤는데, 자기들이 파가 가더라꼬. 우리 아-들이 앞에 댕기고 한께, 보기 그러니까 파가지고 가더라꼬. 그래 우리가 대문도 널차(널려)갖고 마당도 좀 넓히고 이리 했거덩요.

말인즉 죽은 귀신은 오히려 산 사람보다 덜 무섭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집 앞에 있던 다른 한 묘는 어느 날인가 후손들이 와서 파간 덕분에 대문을 밀고 마당을 넓혔노라고 했다. 필자가 "그 당시는 니 땅 내 땅이 따로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있어요. 그래 그기 인자 국유지가 쪼끔 들어간 기지. 우리 그 묘 앞에…. 그리 인자 학교서러 그 운동장 하면서 그, 참~ 냇개울이 넓었어요. 이래~ 봐도 끝이 안 보이거덩. 끝이 넓었다꼬.
그 학교서 다 땎아 옇었삐더라꼬(넣어버리더라고) 학교서…. 그리 운동장이 됐어. 넓은 운동장이 되니까 길로 쪼끔 내주는 기라."

말인즉 개인 땅이 있기는 있었는데, 개인 땅 옆에 있던 국유지를 조금씩 활용했다는 것이

다. 그런데 학교를 지으면서 그 국유지를 모두 회수해 버리는 바람에 개울은 물론 할머니집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모두 집어넣어 통로가 아주 좁아져버렸다는 말이다.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고 물었더니 가야고등학교라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학교 공사를 시작할 때,

"그래, 우리가 불이 나면 개천에 가서 물도 퍼가 올 수 있고, 우리 신랑이 자전거 타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비킬 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다. 이리 하지 마라."

하면서 공사하는 사람과 싸움을 해서 이겼노라고 했다. 그 덕분에 할머니집 앞길이 조금 넓어졌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국유지를 마음대로 활용하기도 했노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이태희 할머니네는 집을 지을 때 터를 사서 지었는지, 그냥 무허가로 올렸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할머니네 집터는 원래 일본사람 소유였는데, 다른 사람이 산 것을 할머니네가 다시 샀노라고 했다.

그런데 일본사람 땅은 반드시 불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네도 다시 정식으로 불하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 한 40평 가까이 되는 평수 중 14평은 불하받고, 나머지는 그 당시 15만원을 주고 샀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노라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난 후, "어무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들려줄 이야기는 없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노라고 했다.

한 10년 됐어요. 추석이 돌아오는데, 내가 친구 제삿장 보러 가는데 따라갔거덩요. 그래 인자 제삿장 보러 따라갔는데, 밤에 자는데 꿈을 꾼께, 막 시어머이가 나타나더니마는,
"내 생일은 와 안 해주느냐!?"
꿈에…. '와 내 생일 안 해주느냐?'꼬….

이야기인즉 한 10년 전쯤에 이태희 할머니는 친구의 추석장 보는 데 따라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할머니네 추석장은 보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는 자신의 생일상은 왜 안 차려주느냐고 이태희 할머니에게 야단을 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구~, 어무이가 막 생일 안 채리준다꼬 악을 쓰고, 내한테 달려들고 하이 겁이 납디더. 가입시더. 맛있는 거 사 디릴께요(드릴게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가버리더라는 것이다. 이태희 할머니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 무거운 짐을 들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추석 제삿장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갈치시장에서 생선을 한보따리 사다가 풀어놓더라고 한다.

필자가 "돌아가신 분에게는 제사가 생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렇노라고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기제사는 6월인데, 추석제사 준비 안 한다고 그러더라는 것이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할머니는,

"아이구~, 조상이 없지도 안하는갑다. 할머니가 우예 그리 화를 내겠노. 꿈에 말을 하몬, 돌아가신 분이 말을 하몬 재수가 있다 카는데…."

하면서, 식구들과 추석 제사상을 마련했노라고 했다.
제보자: 이태희(여, 84세), 가야2동, 2015년 7월 10일 채록(무궁화 할머니 경로당)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110~117쪽.

[부산진구 설화 48]

성지초등학교의 느티나무 속 이무기

[줄거리]

성지초등학교는 운동회를 하거나 소풍을 가려고 하면 꼭 비가 왔다. 이유인즉 학교를 삥~ 둘러싸고 있는 느티나무 속의 이무기 때문인데, 아름드리 느티나무 중 한 그루 속에는 용(龍)이 되어 승천(昇天)하려고 수백 년을 기다려온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느티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이무기가 승천을 못해 그 앙갚음으로 행사 때마다 비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제보자인 손정식(남, 65세) 씨는 성지초등학교 37회 졸업생이다. 필자가 부산진구의 전설을 채록하기에 앞서 전포초등학교 출신인 필자의 동료로부터 '전포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속에 이무기가 살고 있어 운동회를 하거나, 소풍을 가려고 하면 꼭 비가 온다.'는 학교전설을 들었다.

그래서 첫날 범전동에서 채록을 하던 중 제보자가 성지초등학교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 전설을 꺼내놓았다. 그랬더니 제보자가 자신이 다닌 성지초등학교에도 그와 비슷한 전설이 있었노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정식 씨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 사이에는 학교를 삥~ 둘러싸고 있는 느티나무와 관련하여 전설이 전하고 있었다고 한다.

꼭 소풍갈라 하면 비가 오거덩. 그러인께네 인자 그, 학교에서 그런 말들이 있데. 느티나무 속에 뭐 용이 있었는데, 그걸 비(베어) 내는 바람에…. 꼭 소풍만 갈라 카면 비가 오고, 비가 오고 하인까네 인자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인즉, 성지초등학교는 소풍만 가려고 하면 꼭 비가 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를 삥~ 둘러싸고 있는 느티나무 속에 살던 이무기 때문이었다. 성지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드리 느티나무 한 그루 속에는 승천(昇天)을 하기 위해 수백 년을 기다려온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느티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이무기가 승천을 못해 그 앙갚음으로 소풍 때마다 비를 내린다는 것이다.

> 그 당시에 인자 학교가, 지금은 성지초등학교가 부산진중학교 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그때는 그 전체가 다 성지초등학교였어요. 지금은 반으로 똥글아(잘라) 가지고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중학교지만….
>
> 그리 컸었는데, 학교 주변에 느티나무가,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많았어요. 큰 나무가 많았는데, 쭉~ 가면서 가로수 형식으로 교실 주변으로 다 심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지. 소풍만 갈 때 되면 비 온다고….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하면서, 구연 끝에 전설 자체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해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를, 소풍갈 때는 비가 왔지만, 운동회 때는 비가 오지 않았노라고 했다.

제보자: 손정식(남, 65세), 범전동, 2015년 7월 2일 채록(재개발사무실)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118~120쪽.

[부산진구 설화 49]

연지초등학교의 땅속에 갇힌 이무기

[줄거리]

> 연지초등학교는 소풍이나 운동회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면 꼭 비가 왔다. 이유인즉 연못을 메워 학교를 지었는데, 그 연못 속에는 승천(昇天)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연못을 메우고 그 위에 학교가 세워진 것이다. 때문에 이무기는 용(龍)이 되어 승천하지 못한 채 갇혀 버렸다. 그래서 학교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심술을 부려 비를 내린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에서 60년을 살아온 손순연(여, 80세) 할머니는 범전동에 살다가 연지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면서, 범전동에 살 때 들었던 이야기 한편을 먼저 들려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필자가 일주일 전쯤에 범전동에도 다녀왔노라고 하면서, 범전동에서 들었던 성지초등학교의 이무기 전설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런 전설은 연지초등학교에도 있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운 지가 얼마 되지는 안 해요.

[필자: 연지초등학교요?]

응. 저 범전동에는 오래 돼도…. 그러니까네 그 못을 막하(메워)가지고 학교를 지었이니까네 학교에서 소풍을 갈라고, 큰 행사가 있으몬, 운동회를 한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비가 온대요. 그리 그 못자리를 막하가지고…. 그래서 거서러 뭐, 뭐가 있었던강 용(龍)이 뭐 어째….

[필자: 아~, 용이 승천(昇天)을 못해가지고….]

응! 용이 득천(得天)을 해가 하늘에 못 올라 가가지고, 그래서 밑에서 용심을 지긴다 이기라. 땅 속에서…. 그래가지고 큰 행사만 있으면 비가 온대요. 인자 그런데 거(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이야기인즉 연지초등학교는 원래 연못이었는데, 그 연못을 메워서 학교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연못 속에는 승천(昇天)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무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학교를 지으면서 그 연못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무기는 승천을 못한 채 그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이무기는 학교에 운동회나 소풍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심술을 부려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 끝에 손순연 할머니가 거기까지밖에는 모른다고 하길래 필자가 "어무이, 그게 답니다." 했더니, 자신의 막내아이가 연지초등학교에 다녔노라고 했다.

"막내이 하나는 여기 그 연지국민학교 나왔고, 언자 그 애 우(위)에 서이는(셋은) 성지국민학교 나왔어. 거(거기) 나온 애가 인자 육십 살이라. 몇 횐고 그거는 모르겠다. 몇 회 졸업생인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자, 듣고 있던 청중의 한 할머니가,

"우리 큰아들은 지금 육십 서(셋)인데, 그때 성지국민학교 입학 해가지고…. 그때 못이거덩요. 여기 연지가…. 그런데 이거 지아가(지어가지고) 그리 올라왔다꼬."

하며 연지초등학교 설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러주었다. 그래서 필자가 "연지가 못이라니요? 어디까지가 못이었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손순연 할머니가,

학교, 학교. 연지국민학교가 못이었어. 요게 쪼끔 올라가면 초읍시장이 있어요. 초읍시장이 있는데, 초읍시장이 옛날에 못이었어요. 초읍시장 자리가 전체로 이래 넓게 못이었어. 그래 우리가 지금 앉안 이것도 큰 내, 도랑이라. 이게….

[필자: 예?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 이 경로당 말입니까?]

응. 도랑인데, 그래 인자 초읍시장 그 못자리가, 그 옆에 가몬, 이 도랑 끝에 가면, 그때는 고기도 다녔어. 고기로 낚시로 해가 왔어. 그래 시장 그것도 못이었는데, 저~게 대신동, 대신동 사람인가 모리겄다. 아! 남포동! 남포동 사람이, 어느 부자가, 돈 있는 사람이 초읍시장 그거를 터를 샀어. 그래 사가지고 거게다가 초읍시장을 지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팔았어. 이걸 누

구에게 팔았는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 그 초읍시장 자리가 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지내는 것이 초읍시장이라. 그래 옛날에 그 옆에서 인자 고기 낚아 오고….

하며 초읍시장이 못이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고는 구연을 마무리했다.

필자가 당감4동에 가서 이곳에 혹시 학교전설은 없느냐고 하면서 앞서 들었던 연지초등학교의 이무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치더니, 자신의 아이들이 연지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소풍만 갈라하면 꼭 비가 오더라고 하면서 그 전설이 딱 맞다고 확신까지 시켜주었다.

제보자: 손순연(여, 80세), 연지동, 2015년 7월 8일 채록(연지 할머니 경로당)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121~124쪽.

[부산진구 설화 50]

백양산(白楊山) 호랑이

[줄거리]

부산진구의 선암사(仙巖寺) 뒷산인 백양산(白楊山)에는 그래 오래된 옛날이 아닌 시절에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 시절 어떤 할머니가 나물을 캐러 선암사 뒷산에 올랐는데,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강아지인 줄 알고 예쁘다고 쓰다듬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물소쿠리며 신발까지 던져두고는 부리나케 집으로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이튿날 자고 나서 보니 호랑이가 신발과 소쿠리를 물어다가 집 앞에 갖다 놓았다. 새끼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예쁘다고 쓰다듬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암사(仙巖寺)는 부산진구 부암3동에 위치한 사찰이며, 이 선암사의 뒷산은 백양산(白楊山)이다. 그런데 채록 도중 그리 오랜 옛날이 아닌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부산진구민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부암3동의 김복순(여, 77세)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할머니가 새색시 때 시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우리 아부님이 내가 시집오이 이야기를 하더라꼬. 인자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인데, 저~ 우(위)에 인자 할머니가 저~ 나물 캐러 인자 선암사 절 뒤에 올라갔는데, 강아지가 딱~ 요래 있더라네. 예~뿐 강아지가 딱 있더라네. 그래가,

[청중: 호랭이 새끼다.]
예. 선암사 뒤에 그 산에 나물 캐러갔는데, 예~뿐 강아지가 요래 있길래 진짜 강아진 줄 알고,
[필자: 어무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무이하고는?….]
"우리 우(위)에 우에지. 그렇지 아부지 우에지."
그래가 인자 갔는데, [청중을 보며] 용복이 저거 누가 그래 갔다 하대.

김복순 할머니는 그 동네의 누구네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하면서, 청중들에게 재차 확인까지 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물을 캐러갔던 할머니는 김복순 할머니 시아버지의 윗대 친척할머니라고 한다. 그 할머니는 산에서 만난 그 강아지가 하도 예뻐서,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한참을 쓰다듬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참을 쓰다듬다 보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이리 쓰담고 하다가 보이 뭐가 쪼끔 마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네. 그래가 마, 소쿠리고 뭣이고, 칼이고 뭣이고 다 떤져뿌고, 신발도 벗어뿌고, 떤지고 마 집에 왔는 기라.
집에 왔는데, 떡~ 자고 나인까네 신발하고, 세~상에 소쿠리하고 떡~ 갖다 놨더란다. 집에다가….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흐흐흐흐. 물어다 갖다 놓는다 안하나."

하면서 호응을 했다. 그러자 김복순 할머니가 더욱 힘차게 말을 이어갔다.

응! 그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진짜로 그랬데이 그거는…. 해꾸지(해코지)를 했으면 거서(거기서) 막 그 사람을 물든지 했을 긴데, 예뿌다꼬 막~ 요리 쓰담고 해 놓은께네 해꾸지를 안 했는 기라.

이야기를 듣다가 필자가 "어무이, 어떻게 호랑이가 그 집을 알고 갖다 놨을까예?" 했더니,

"그러니까!"

하며 새삼 그 영험함에 감탄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할머니가 또 다시 받아서 이야기를 보탰다.

막~ 이런단다. 호랭이가 지 새끼를 좋다 쿠면 이러칸다 카대.

"허흥~ 흥~"
좋다꼬 웃는단다. 호랭이가…. 지 새끼 좋다 쿤다꼬. 호랭이도 좋다꼬….

그러자 김복순 할머니가 다시 한 번 그 기이함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했다.

그래 자고 난께 신발캉 마큼(몽땅) 갖다 놨더라 안 카나! 그때는 신발도 억수로 귀했고, 그 옛날에는 뭐 신발도 귀했고 마마….

호랑이 이야기를 끝낸 김복순 할머니와 청중들은 그 뒷산이 그때는 참 깊었노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마을의 꼬마머슴이 산에 들어가 지초(芝草)를 캐먹고는, 사흘 동안 잠을 자느라 내려오지 않은 바람에 동네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지초를 캐먹은 꼬마머슴은 이 동네의 누구이며, 그 후 80살이 넘는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힘이 넘치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노라고 했다.

호랑이를 봤다는 이야기는 부암3동에서뿐만 아니라 초읍동에서도 나왔다. 초읍동에 사는 정옥엽(여, 86세) 할머니는 부암동에 살 때, 호랑이를 보고 놀라 도망치는 사람들을 보았노라고 했다.

우리가 부암동에 있일 때에, 여여 당감동 여 뭐슥 질(길)로 요리 넘어 댕김서로 나무 하로 댕깄십니다. 여여 어린이대공원 인자 이리…. 봄 되면 그리 나물 뜯으러 많이 댕기. 저~ 절 뒤로, 못(성지곡수원지를 말함) 우(위)로 저리…. 나물 뜯으러도 가고, 나무도 많이 하러 댕깄지요.

그래갖고 하리(하루)는 나물 뜯으러 온다꼬 사람이 저 선암사 절 뒤로 저리, 여자들 한 여덟이 되끼라. 거기서 마, 이리 가(이래 가지고) 막 호랭이가 자더라꼬, 그거로 보고 놀래가지고 제지 다 달아나삤다 아입니까?

[청중: 진짜 호랭이 있었나?]

"예. 호랭이 있었어요. 큰 기…."

한참 그거 있일 때는 그 여 뭐슥에, 저 넘에 구포 그 뭐슥에, 거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랭이 새끼 낳아가지고 건들고 헌께나가 막 뭐라 쿠고 그래샀던 거로. 그때….

정옥엽 할머니의 이야기에 청중들이 미심쩍어 하자 할머니는 답답해하며 더욱 소리를 높였다.

그리가 사람이 그날 여덟이서 나물 뜯으로 온다꼬, 봄에 그때 그래가 온께나가, 그리 이리 가 낮에 그 방우(바위)에서 호랭이가 잔다꼬, 코로 기리고(골고) 그래가 있인께나 그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때죽도(발자국도) 옳키 못 떼고 마, 살살 기이서 저 당감동 절 뒤 그리로 넘어간다꼬 막, 아-(아이)로 업고 막 그리가 달아나고 그랬어요!

필자가 호랑이를 본 위치는 어디쯤 되느냐고 물었더니, 성지곡수원지 저쪽 편이라고 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청중의 한 할머니가,

그런데 이 얘기에 곳을 물으니까 얘기 하는데, 이 할매가 지금 곳을 말하는 기 옛날에 저게 일본말로 '사부래'라 카는 골이 있습니다. 사부래라 카는 골에 호랑이가 나왔다 카는 얘기를 나도 듣기는 들었어.

사부래라꼬 어데고 카면 여기 성도암에서러 성지곡 하고 경계, 들어가는 경계, 거가 사부래라꼬.

"사부래에 호랑이 나온다. 범 나온다."

이 말은 나도 들었어요.

하고 청중이 편을 들자, 정옥엽 할머니는 그제야 웃으며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그래 그 방우(바위)에서…. 사람이 그날 여덟이 왔어요. 여자들이…. 나물 뜯으러 저 절 뒤 저리로…. 그리가 그 자는 거 보고 놀래가 제지 다…. ㅎㅎㅎㅎ."

제보자: 김복순(여, 77세), 부암3동, 2015년 7월 21일 채록(동원 부녀 노인정)
정옥엽(여, 86세), 초읍동, 2015, 7월, 6일 채록(초읍 제일 할머니 경로당)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125~131쪽.

[부산진구 설화 51]

화장장(火葬場) 야산(野山)에서 만난 도깨비

[줄거리]

당감동에 화장장이 있었을 때, 화장장 인근의 야산(野山)에는 주인 없는 묘(墓)들이 훼손되어 시신(屍身)의 뼈들이 드러나 있는 곳들이 있었다고 한다.

한 할머니가 화장장 근처를 지나는데, 키가 팔대장승 같고 흰옷을 입은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도깨비라고 직감한 할머니는 쳐다보면 더 커진다는 말을 들은지라 내려다보니 자그마해졌다. 할머니가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치자 뭔가를 부탁하려는 듯 보였다. 할머니는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길을 비키라고 재차 소리쳤다. 한참 승강이를 하다 보니 도깨비는 사라지고 없었다.

할머니는 관청에 이야기를 해 밖으로 드러난 시신의 뼈들을 거두어 묻게 했다고 한다.

당감4동의 김정자(여, 73세) 할머니는 28살에 이곳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새색시 때 이 마을의 한 할머니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한다.

그 사람이 인자 지금 여(여기) 안 살아. 이 동네 사람인데 이사 가고 없어. 어디 가 사는 것도 몰라.

그 사람이 요게 화장막 요리로, 오데 갔다 왔는고 갔다 오는데, 여 여가 공동무지(공동묘지)고 젙에 동넨께 그리 지내 왔던가, 그리 요리 지내오는데, 앞을 키가 팔대장승 겉은 사람이 탁 가라(가리고) 서더라 카대.

김정자 할머니가 도깨비 이야기를 꺼내길래 "그 당시 여기에 몇 가구 정도 살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경로당의 회장님이 대신 답을 해주었다. 지금의 개성고등학교(부산상고가 이름을 바꿈) 자리에 화장장(火葬場)이었고, 그 위로는 전부 산이었으며, 아래쪽으로 집들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집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김정자 할머니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 저 영장들(송장들), 그 저 주인 없는 영장들 묻어놨다 아입니까? 거(거기) 보면 널(관을 말함)이 막 삐끔삐끔 나오고 그랬거덩. 그 전에….

[필자: 어디에예?….]

[회장: 여(여기) 공동묘지 야산에….]

화장막 옆에 막 그래 묻어놨는데, 그리 우리 이우지(이웃)사람이 지내오니까 키가 팔대장승 겉은 사람이 길을 딱 가로막음성,

[필자: 남자가예? 여자가예?….]

"남자가."

[필자: 아니, 만난 사람이?….]

"만난 사람은 여자고."

그래 딱 가로막으면서 못 가고로 하더라 캐.

이야기인즉 화장장 옆 야산에는 주인 없는 주검들을 묻어놨는데, 가매장(假埋葬)을 한 곳도 있어서 비바람이 치거나 하면 관들이 드러나는 곳도 더러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마을의 한 할머니가 그 옆을 지나오는데, 키가 팔대장승 같은 한 남자가 흰옷을 입고 길을 가로막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쳐다보몬 더 커진다 카대. 근데 그 사람이 뭘 좀 알았던가 알로(아래로) 내려다본께 쪼깬해지더라 카대.

그 말을 들은 필자가 "도깨비였나 봅니다." 했더니 그렇노라고 했다. 예로부터 민간 속설에 "도깨비는 쳐다보면 한없이 커지고, 내려다보면 한없이 작아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도깨비를 만난 할머니는,

"길을 비키라!"

하고 호령을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오!~ 여자가예?" 했더니, 김정자 할머니는,

"그 사람이 장심(담력)이 쎘는갑더라. 뭘 좀 아는 사람인갑더라."

[청중: 보통 사람 겉으몬 기절한다.]

"응. 이런 사람 겉으몬 그 자리서 기절해 삐지. 어디서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절하지. 장심이 없어서…."

하면서 그 할머니의 담력에 대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도깨비를 만난 할머니가 길을 비키라고 호령을 했더니, 그 도깨비가 뭔가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 것이다. 그 할머니에 따르면 아마도 시체를 어디다 제대로 묻어달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 한다. 그래서 도깨비를 만난 할머니는,

"나는 못 들어준다. 니 말을, 내가 여 뭘 알고 내가 니 말을 들어 주겠노? 길을 열어라! 와 인간 세상에 나와서 이라노! 너는 인간이 아닌께 니 갈 데로 가거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깨비와 한참 승강이를 하다 보니 없어져 버리더라고 한다. 그 당시 김정자 할머니는 빨래하러 다니는 새댁이고, 그 할머니는 나이가 많았다면서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도 무신 연(인연)이 있인께 들었제. 귀신은 말을 못 한다 캐. 그리 무신 소원이 있다 카더라 캐. 그래 영장을 묻어도라 하더라 캐.

그래갖고 그 뒤에 해가지고, 어데 관청에 이얘기를 해가지고 묻어줬다 카던가 무신 말이 있는 거 같더라.

하면서 아마 그 도깨비의 소원은 이후에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할머니가 동네의 젊은 새댁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노라고 하면서 회사 다니고 하더라도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한다.

제보자: 김정자(여, 73세), 당감4동, 2015년 7월 27일 채록(백산아파트 경로당)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132~136쪽.

[부산진구 설화 52]

화장장(火葬場)의 울음소리

[줄거리]

예전 당감동에 화장장(火葬場)이 있을 당시, 화장장 밑에 논을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가 젊은 시절, 논에 물 보러 간 남편이 어두워도 돌아오지 않자 마중을 나갔다. 남편을 만나 돌아오는 길에 화장장에서 구슬프게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초상(初喪)이 났나보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근처에 사는 아저씨를 만났다. 울음소리에 대해 물었더니, 우기(雨氣)가 있는 날이면 원래 그곳에서는 울음소리가 난다고 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혼이 빠지도록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부암3동에 살고 있는 김복순(여, 77세) 할머니네는 예전에 당감동의 화장장 밑에 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40년 전쯤 어느 밤, 할머니가 그 논에 나갔다가 겪은 일을 옮겨 적은 것이다.

화장막 밑에 거(거기) 우리 논이 있어. 거 지금 상고학교(부산상고)가 들어가가 있거덩. 거 우리 논이 있었는데, 그래가 인자 하도 우리 영감쟁이가 가더마는 캄캄한데 안 오는 기라. 그래가 인자 내가 살~ 왔다. 오니까 수금포로(삽을) 들고 물 보고 이래 오는데, 막~ 화장막에서 우는데, 이거는 마마, 엄~청 슬프게 울어.

[청중: 귀에 듣깄는갑다.]

응. 내 귀에 마, 완전 슬프게 울어. 그래,

"아~, 여게 누가 초상(初喪)이 났는갑다."

이래 캄서(말하면서)….

김복순 할머니는 논에 물 보러 간 남편이 어두워도 돌아오지 않자 마중 겸 논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화장장에서 구슬프게 우는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어느 집에 초상이 났는갑네….'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쭈삣쭈삣한 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한다. 그 당시 김복순 할머니네 집에서는 논 근처에 집을 한 채 지어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아저씨를 기거하게 했다고 한다. 그 아저씨는 청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때마침 그 아저씨가 내려왔길래 김복순 할머니가,

"아저씨, 저 우(위)에 저 어데 초상났는가배예? 막 울음소리가 저래 나네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는 청도 사투리로,

"아~, 여(여기) 온(원래) 그렇쿠매."

하더라는 것이다. 그 아저씨는 여기가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하면서, 아이들도 밤에 혼자 화

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꼭 데리고 가고, 일하고 늦게 오면 반드시 마중을 간다고 하더란다. 김복순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여 살면서 우리 논이 거 있은까네 만날 가지. 내가 밥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밤에 인자 우리 영감쟁이가 안 와가지고, 그때는 신랑이지. 안 와가지고 인자,

'와 이리 안 오는고….'

싶어서 인자,

[청중: 마중을 갔구만.]

응. 갈 때만 해도 약간은 보일 때 갔거덩. 그런데 가놓고 보니 마 완전히 캄캄하는 기라. 그리가이 마 울음소리는 나샀제 마, 무섭기는 무섭제. 우리 영감쟁이 보고 내가 마, 오디(어디)에다가 손가락 꼭 찝어갖고, 빨리 가자고 흐흐.

[청중들: 하하하하….]

이야기를 듣다가 필자가, "아저씨는 안 들렸대요?"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 한다.

거게가 항상 밤에, 우기(雨氣) 낀 날이 특히나 그런 기라. 그리 슬프기 마 울더라고.

[청중: 비 올라 카면 그란다.]

그기 초상난 기 아이라! 그래가 마, 부이(부여)잡고 얼마나 무섭았던지 마, 따라오는데 내가 흐흐흐. 혼(魂)이 쉰발을 하고 따라왔다니까!

필자가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알아듣지 못해 "어무이, 혼이 뭘 하고 와요?" 하고 물었더니 청중의 할머니들이 일제히,

"혼(魂)이 쉰발을 하고 따라왔다고!"

하고 외쳤다. 그래서 "어무이 어무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중의 한 할머니가 다시,

"아~, 혼이 달아나도 모린다(모른다) 이 말이라. 무섭아가지고…."

하더니 그때 일을 짐작하며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한참 웃고 나더니 김복순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래가지고 또 인자 가을에 나락을 이래 비가(베어서) 개리놨는데 인자, 우리 영감이 그 밤에 지킸거덩.

[필자: 아! 그 들에서예?]

응. 들에서…. 그때는 신랑이지. 그래가 지킸는데, 그때가 아마 30댄가 40댄가 모리겠다.

[청중: 30대지.]

30대 안 됐겠나. 오래 됐다 아이가? 그래가 밤에 거기 인자 자는데, 막~ 우리 영감도 들리더라네. 울음소리가….

[청중: 그래 듣긴다.]

그리 무섭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인자 일하는 아저씨가 춥다고 가을이니까 이불을 가 와가 덮어주더라 안하나. 그래 또,

"여 온 그렇쿠매."

이라더라 안하나.

[청중: 하하하…. 저거는(자기네는) 여사(예사)로 듣는다.]

응. 저거는 여사라. 그래가 밤에 자는데 그래 무섭더라 하는 말을 하더라고.

하면서 그 울음소리는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혼이 쉰발을 하고 따라올 정도로 무서워서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 모르겠노라고 했다.

제보자: 김복순(여, 77세), 부암3동, 2015년 7월 21일 채록(동원 부녀 노인정)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137~141쪽.

[부산진구 설화 53]

형무소 터 위에 세워진 마을

[줄거리]

예전 전포4동에는 형무소가 있던 자리가 있었다. 그 곳에는 인가(人家)가 10채 정도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집집마다 남자들이 급사(急死)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독 할머니가 있는 집들에서는 그 화(禍)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할머니가 있는 집들도 재산의 손실을 입는 등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40여 년 전 지금의 전포2동에 살았던 필자의 지인(知人) 김○○(여, 76세)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할머니가 살 당시는 그곳이 전포4동이었는데 지금은 전포2동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전포4동에 살 때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보고 겪었노라고 했다.

예전에 그 전포4동에, 그 옛날에 형무소 자리거덩. 형무소 자린데, 거(거기) 집이 한 10채나 있었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 급사(急死)를 해갖고…. 집집마다 그 남자들이….

이야기인즉 예전에 김○○ 할머니가 살던 전포4동에는 형무소가 있다가 나간 터가 있었다. 그런데 그 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마을이 들어서면서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집집마다 남자들이 급사를 해서 죽더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놀란 필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다.

자다가도 죽고, 밖에 나가서도 죽고, 우리 뒷집에는 테니스 치다가 쓰러져 죽었제. 또 우리 밑에 밑에 집에는 머시마가 목을 매 죽었제. 또 저~ 우(위)에 그 집에는 아침에 일나가(일어나서) 화분 들다가 또 죽었제.

또 ○○이 저거 아부지는 오데(어디) 가서 누가 어쨌는고도 모르고 식물인간이 돼가 있다가 죽었제. 하여튼 다들 그리 죽데. 다들…. 남자들이….

필자가 의아해 하자 할머니도 그때의 일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 집 저 집을 짚어가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할매 있는 집들은 안 죽데. 안 죽었는데, 할매 있는 집들은 살림이 가더라. 사람은 안 죽었고 살림이…. 다른 집에는 전부 급사를 해가 다 죽었어.

유독 할머니가 있는 집만은 신기하게도 죽음을 면했다는 말을 듣고, 필자가 "혹시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소문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곳에 살 당시 할머니의 집에도 시어머니가 있어서 다행히 죽음은 면했다고 하면서, 대신 재산 손실은 많이 보고 나왔노라고 했다. 필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표했더니,

거(거기)가 형무소 자린데, 형무소 사형(死刑) 자리라 카대, 사형터라 카대.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필자가 "지금은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스레 물었더니,

"아이구~,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은 사람도 많이 살고, 발전이 돼가…."

하면서 필자의 걱정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마친 할머니는 필자에게 절대 실명(實名)들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다.

제보자: 김○○(여, 76세), 양산시 덕계동, 2015년 8월 5일 채록(자택)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142~145쪽.

[부산진구 설화 54]

‘얌새이(염소) 몬다’는 말의 유래

[줄거리]

부산지역의 민간에는 ‘얌새이(염소) 몬다’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도둑질 한다’라는 말의 은어(隱語)이다.

이 말은 해방 후 미국으로부터 구호물자가 부산항에 들어오면서 생긴 말이다. 부둣가의 하역장에는 구호물자를 하역하면서 곡식들이 땅에 떨어졌다. 인근의 민간에서는 하역장 근처에 염소를 풀어놓아 기르고 있었는데, 염소들이 떨어진 곡식을 먹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하역장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들어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염소를 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들어가 그 곳의 물건들을 조금씩 숨겨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얌새이 몬다’는 말은 지역민들 사이에 ‘도둑질 한다’는 말의 은어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초읍동의 초읍 제일 할머니 경로당에서 채록한 것인데, 연세가 좀 있는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얌새이(염소) 몬다’라는 말이 생겨난 유래를 밝히는 유래 전설(由來傳說)이다.

필자는 경로당에 모여 있는 할머니들에게 찾아온 취지를 밝힌 후, 이야깃거리들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채록을 시작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채록이 시작되어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서 경청하고 있던 노○○(여, 80세) 할머니가 필자를 보고 난데없이,

“얌새이(염소) 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교?”

하고 물었다. 필자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했더니, 필자의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나직이 필자에게,

“도둑질 하는 거로 ‘얌새이 몬다’ 칸다.”

하며 알려주었다. 그러자 노○○ 할머니는 또 다시, 필자와 모여 앉은 할머니들을 둘러보면서,

“그 말이 어데서 유래했는지 아는교?”

하고 물었다. 필자는 고개를 가로젓고, 모여 앉은 할머니들도 대답을 못하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녁때가 되면 '얌새이 몰로(몰러) 간다.' 이러카거덩. 부둣가에 얌새이로 많이 놔놔 놓고, 믹이는(먹이는) 거겉이 부둣가에 풀어놓고, 저녁때가 되면 얌새이 몰로 간다.

풀밭도 아닌 부둣가에 염소를 풀어놓는다는 할머니의 말에 필자가 의아해 하며, "부두에 정말로 염소를 풀어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랬노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어무이, 부둣가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 말하자면 용호동 저 짝에 선창가 있잖아예? 부산항."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청중의 한 할머니가,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해샀노!"

하며 노○○ 할머니를 나무랐다. 그러자 노○○ 할머니는 웃으며, 조금만 더 하고 말겠노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 거기다 이래 얌새이로 인자 풀어놓고, 뭐로 믹있냐 하면, 그때는 해방되고 나서 미국사람 원조, 뭐 옥수수, 밀가루 이런 기 많이 나왔거덩. 그기 흩어진다 말이요. 그러면 마, 얌새이들이 그걸 막 주와 묵고 이리 하는데, 그걸 인자 저녁 때로 얌새이를 몰로 가면서러 거기서 뭐슨 물건을 쌔비가(훔쳐가지고) 온다 말이다. 그런께,

"니 오데 가노?"

"얌새이 몰로 간다."

카면서 뭣을 뚱치가(훔쳐가지고) 온다, 구조품을 뚱치가 온다 말이라.

이야기인즉 해방 후 미국으로부터 구호품이 들어온 곳이 부산항인데, 부둣가에는 하역하는 과정 중에 떨어진 곡물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인근의 민간에서는 그 곳에 염소를 풀어놓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것들을 주워 먹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적장에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자, 염소를 몇 마리 풀어놓아 들어가게끔 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해질녘이 되면 염소를 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몰래 숨겨서 나왔다는 말이다.

얌새이 몰로 들어간다. 이러캐가 얌새이 몰고 나오면서 무슨 물건을 쌔비가 오는 기라. 그걸 인자 '얌새이 몰러 간다' 이러카는데, 얌새이 몬다는 말이 그래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얌새이 몬다는 말이 부두에서 나왔다. 얌새이 몬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이러더라고. 그 뒤부터는 뭐 뚱치고 하면 '염새이 몬다' 이래….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이전에는 '얌새이 몬다' 카는 소리 많이 했다. 도둑질 한다 카는 말은 못된 말이고, '얌생이 몬다' 캤다. 도둑질 한다 카는 말은 차마 못하니까 '얌생이 몬다' 캤다."

하면서 예전에는 살기가 힘들어 민간에서 공적인 물건들에 더러 손을 대곤 했노라고 했다. 그런데 서로 형편을 아는지라 차마 대놓고 '도둑질 한다'는 말은 못하고, 우회적으로 '얌새이 몬다'고 했었노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이 말에 힘을 얻은 노○○ 할머니가 청중을 돌아보며,

예전에 ○○동 거기 사람들이 의식을 어찌 했나 카면, 공작창에서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라왕이라 카는 나무가 있는데, 그 라왕 그거로 얌새이 몰아가지고, 그때 철도 공작창에서도 나무 많이 잊아뿟어요. 뭐 어짜면 '얌생이 몬다' 이리 안합디까?

그런데 그걸 내가 왜 아냐 카면, 당시 우리 아버지가 철도 거기 다니면서 경비대장을 했어요. 그래 들어서 아는데, 그 요만썩 요만썩한 나무, 그 나무를 짜개가(쪼개가지고) 와리바시(나무젓가락), 와리바시 그거로 만들었어요.

지금 ○○시장 있는 그 근방 하코방에 그 칼 없는 집이 없었어. 그거 짜개가 팔아서 묵고 살고 생계를 이어나갈라꼬….

하더니, 훔쳐온 나무를 쪼개던 방식과 기계의 모양까지도 일일이 알려주었다.

나무로 옇어가지고 땡기면 여러 가닥, 기차 레이루(레일) 같이 그래가지고 와리바시, 지금의 나무젓가락을 만들었어요.

기계가 인자 마, 똑 요새 도장 파면 와, 손 갖고 파는 도장 안있어요? 뭣을 꽉꽉 끼사(끼워)놓고 이래…. 그런 거 비슷한 기라. 지담허니(기다랗게) 칼날이 많이 서가 있고, 칼날에 이리 쫙 하면 밀리 나가고, 그 와리바시로 여자들이 솔찍이썩(가늘게) 솔찍이썩 잘 깎았어요.

그래 팔로 가는 기라. 그래가지고 교통부에서도 도둑 많이 맞았어요.

하면서 애초에 청중들의 나무람에 위축되어 조금만 하고 말겠다던 의도와는 달리, 그 당시 민간 삶의 한 모습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이야기 끝에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았노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노○○(여, 80세), 초읍동, 2015년 7월 6일 채록(초읍 제일 할머니 경로당)

*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146~151쪽.

2. 연제구 설화

[연제구 설화 1]

摩訶寺[85]의 十六 羅漢

경상 남도(慶尙南道) 동래(東萊)읍 연산리(蓮山里) 뒷산에 신라(新羅) 때 지었다고 하는 마하사(摩訶寺) 절에[86] 십륙 나한(十六羅漢)이 있으니,[87] 이 나한에 대하여 한 전설이 있다.

이조(李朝)[88] 초엽이라고 한다. 어느 해 이 절 공양중이 동짓날이 되어 새벽 일찌기[89] 동지 팥죽을 쑬려고[90] 부엌으로 나가 화로에 묻어 둔 불덩이를 찾았으나 불이라고는 없었다. (옛날에는 성냥이 없고, 불쇠 또는 불덩이를 묻어 놓고 사용하였었다.[91])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먼저 팥을 씻어 솥에다 안쳐 놓고 불씨를 얻으러[92] 아랫마을 갓직이(산 지키는 사람)네[93] 집으로 갔더니, 갓직이 말이, 조금 전에 상좌 아이가[94] 불을 얻으러 왔기에 불을 주고 또 먼저 쑤어 논 우리 집 죽을 주었더니 먹고 갔다고 한다. 절에서는 상좌아리도 없을뿐더러 불씨를 얻으러 보낸 일이 없으므로 공양중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어 절 부엌으로 돌아와 보니, 화로에 불덩어리가 벌겋게 들어 있었다. 이것을 본 공양중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95] 하고서 그 불로 동지 팥죽을 쑤었었다. 그리하여 죽을 퍼서 나한전에 올리려고 갔더니, 十六 나한이 오른쪽에서 셋째 나한 입술에 팥죽이 묻어 있었으므로 그제야 공양중은 이것은 나한님이 불 없는 것을 보시고 동자로 화신하여 아랫마을 갓직이네 집으로 가서 불을[96] 얻어다 죽을 쑤게 한 것인 줄 깨달았다고 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몇 십 년 전까지도 그 나한님의 입술에는 동지 팥죽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97] (檀紀 4262年 8月 東萊郡 蓮山里 摩訶寺 主持 高辰月氏[98] 談)

---

85)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에서 제목과 본문에서 '摩詞寺'로 잘못 표기함. 그리고 제목과 본문의 '나한'은 모두 '羅漢'으로 한자 표기를 함.
86) 『동래의 역사』에서는 '마하사에'로 적고 있다. 또한 본문의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
87)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이후 문헌에서는 "安置되어 있으니"로 표기하고 있음.
88) 『동래의 역사』에서는 '선조'로 바뀌어 있다.
89)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이후 문헌에서는 '일찍이'로 바로 잡아 표기함.
90)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이후 문헌에서는 '쑤려고'로 바로 잡아 표기함.
91) 『동래의 역사』에서는 "사용하였다"라고 바로잡아 썼다.
92)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이후 문헌에서는 '얻으려고'로 표기함.
93)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이후 문헌에서는 '갓직이(산 지키는 사람)'로 표기함.
94)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이후 문헌에서는 '상좌 아이'를 '상좌'로 줄여서 표기함.
95)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이후 문헌에서는 '일이라'로 고쳐 씀.
96)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이후 문헌에서는 '불씨를'으로 고쳐 씀.
97)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이후 문헌에서는 '한다'가 '전해 온다'로 고쳐 씀.
98)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에서는 "1930年 8月 東萊郡 南面 蓮山里 摩訶寺 住持"로 줄여서 표기하고, 『동래의 역사』에서는 제보시기와 제보자를 표시하지 않음.

* 최상수, 『조선민간전설집』(을유문화사, 1946)을 재수록하여 확장한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통문관, 1958), 203~204쪽.
** 「동래지」 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429쪽.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문화공보실, 『동래의 역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 1990, 187~188쪽.

[연제구 설화 2]

摩訶寺의 一六羅漢

金蓮山 摩訶寺의 건립은 신라 때보다 三〇〇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그 오랜 역사는 전국적으로도 희소한 古刹의 하나로서는 一六羅漢의 전설은 너무나 유명하다.

지금으로부터 五〇〇여년전 어느 해 동짓날 밤에 마침 절간에 있던 불이라고는 이름 붙은 것은 모두 꺼져버렸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성냥불이 없었던 때였으므로 화덕에다가 불쇠를 꽂아 불을 부쳐 써 왔던 까닭에 할 수 없이 그날 밤을 어둠속에서 세우고 아침에 住持가 부엌에 나가보니 뜻밖에 화덕에 불이 부쳐져 있었으므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남산에서 烽火를 지키는 사람이 절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어저께 밤처럼 눈보라가 심하던 험한 산길에 상좌 아이를 불을 얻으러 보내왔기에 불을 주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죽을 끓여 먹여 보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절에서는 그런 동자를 보낸 일이 없었기에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동지 팥죽을 쑤어 羅漢殿에 올리려고 갔더니 一六나한 중 오른쪽에서 세 번째의 나한 입술에 팥죽이 묻어 있었으므로 그제야 중은 이 나한님이 불 없는 것을 보시고 童子로 화신하여 불을 얻어다 죽을 쑤게 한 것인 줄 깨달았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一六나한님의 신통력을 알게 된 스님들은 모두들 놀래기만 했고 그 뒤 소문이 檀家에 퍼져서 찾아오는 신도가 많았다고 한다.

*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182~184쪽.

[연제구 설화 3]

마하사의 16나한 설화

마하사는 연제구의 전통사찰 중 하나이고 금련산(金蓮山)이 위치한 연산7동~연산3동에 걸쳐 있는 사찰이다. 이 사찰의 창건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록상 5세기경에 출현하는 아도화상 창건설을 들고 있으며 1965~1970년 마하사 중창불사 중 응진전 상량문에서 왜란

(1592~1598)으로 사찰이 전소되어 숙종 43년(1717)에 가서 겨우 초가집형태의 대웅전과 응진전(나한전)을 세웠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량문을 통해 볼 때 마하사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분명히 존속했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 마하사의 응진전에는 16나한이 봉안되어 있다. 나한이란 범어 아라한(Arahan 阿羅漢)의 준말이다. 나한이란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이룬 성자(聖者)이므로 천안통(天眼通)・타심통(他心通)・신족통(神足通)・누진통(漏盡通)으로 중생을 구제해 준다. 마하사의 나한이 신통력을 발휘한 3가지 설화를 소개한다.

(1) 마하사에 불씨를 구해준 나한과 동지팥죽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어느 해 동짓날 전후에 일어났던 일이다. 동짓날 전날 밤에 사찰부엌과 화덕불씨(옛날에는 성냥이나 가스가 없어 나무 숯불을 꺼트리지 않고 화덕에 보관하여 등불을 밝히고 취사를 하였다)가 모두 꺼져 공양보살과 스님들이 컴컴하고 추운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뜻밖에 화덕에 불씨가 있어 깜작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제4장 나-8-1) 참조) 이 때 황령산(마하사가 있는 금련산과 황령산은 동일산맥임)에서 봉화병이 마하사에 찾아와 "어제 밤 눈보라가 심한 험한 산길에 상좌가 와서 불씨를 구하기에 불씨를 주고 팥죽을 먹여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하사에서는 상좌를 보낸 사실이 없어 의아해할 뿐이었다. 동짓날이 되어 사찰에서도 동지팥죽을 끓여 나한전에 올리려 갔더니 16나한 중 오른쪽 3번째 나한 입술에 팥죽이 묻어 있어 그제서야 이 나한이 마하사에 불씨가 꺼져 춥고 어두운 처지를 아는 타심통을 발휘하고 신족통으로 험하고 눈보라치는 황령산 길을 거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2) 참새를 쫓아준 나한

마하사 마당에서는 덕석에 곡식을 말리는 일이 잦았는데 참새떼들이 몰려와 말리는 곡식을 쪼아 먹어 피해가 막대하였다. 스님이 응진전에 가서 참새를 쫓아 달라고 기원한 후로 참새 한 마리가 죽어 마당에 떨어지더니 그 이후 다시는 참새떼가 말리는 곡식에 달려들지 않았다 한다. 나한이 신통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3) 소리 나지 않는 금구(金口)

금구란 일명 반자(飯子) 또는 금고(金鼓)라고도 한다. 우리의 전통악기 4물 중 "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악기이다. 금속으로 만든 북이란 뜻이다. 이 금구는 나무틀을 만들어 걸고 법당이나 요사채 마루 등에 걸어두고 이를 쳐서 법회시간이나 공양시간을 알리는 법음구(法音口)이다.

마하사의 금구를 쳤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때가 1860년대와 1910년대 두 차례 있었다. 조선말기 1860년대 해령스님이 개금(改金) 번와(燔瓦)불사를 마치고 회향 시에 금구를 쳤으나 4주야로 계속 소리가 나지 않았고 1910년대 일본 강압정치기에 해봉스님이 개금과 탱화불사를

마치고 역시 회향 시에 금구를 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는 두 차례 모두 16나한이 신통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의 두 차례 불사시 자금이 모자라 응진전의 불사를 뒤로 미루었던 관계로 나한들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응진전의 불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금속으로 만든 금구를 쳐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였고 놀란 승도들이 목욕재계하고 16나한전의 불사를 약속하자 금구소리가 울렸다고 한다.

* 연제문화원, 『연제구의 유래』, 으뜸출판사, 1999, 177~179쪽.

[연제구 설화 4]

동지팥죽과 마하사의 16나한(羅漢)

지금의 금련산(金蓮山)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마하사(摩訶寺)는 그 창건의 역사로 볼 때, 전국적으로도 희소한 고찰(古刹)의 하나로서 16나한(羅漢)[99]의 전설은 오늘까지도 너무나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어느 해 동짓날 밤이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대개 모진 추위가 몰려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날도 눈이 푸짐하게 내리더니 찬바람이 불고 날씨는 바짝 추워졌습니다. 창 밖에서는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방 안에는 문풍지 떠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날이 워낙 추워서 그랬던지, 아니면 아궁이에 불이 꺼져버려서 그랬던지, 방바닥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해봉스님은 그만 잠이 깨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새벽 햇살이 영창에 비치어 날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가 몹시 고프고 더군다나 추위마저 겹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해봉스님은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공양주(供養主)[100]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봐요, 공양주."

공양주를 깨워서 아침 공양을 짓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몇 번 거듭해서 흔드는 바람에 공양주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가 뭐요?"

스님은 눈을 멀뚱거리는 공양주에게 턱을 받치듯,

"공양 올릴 생각은 않고 잠만 자기요? 어서 일어나요."

99) 부처의 제자들.
100) 여기서는 절에서 밥을 짓는 중을 가리킴.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공양주는 졸린 눈을 비비고 몸을 뒤척이고만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해봉스님은 공양주가 괘씸했습니다. 해가 높다랗게 떴는데도 아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생각을 않고 있으니 무슨 벌을 받고 싶어서 저 꼴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봐요, 공양주."

"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이나 알고 꾸무럭거리고 있소?"

"무슨 날이에요? 아침 해 뜨는 날이죠."

"아, 이런 변이 있나?"

스님은 기가 막혀서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오늘이 동짓날이요. 동짓날이면 팥죽을 쑤어서 나한전(羅漢殿)[101]에 바쳐야 할 게 아니오!"

"예? 동짓날....."

그제서야 공양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짓날 팥죽 쑤는 것을 잊어버리고 늦잠을 자다니, 실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양주는 마치 불에 덴 사람처럼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야단났군. 아이구, 내 정신 좀 봐. 이거 야단났군, 야단났어....."

공양주는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고는 부엌으로 부리나케 나갔습니다.

"이크 ....."

아궁이에 불씨를 보니, 불씨는 언제 꺼져버렸는지 꺼먼 재만 남아 있고, 불씨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쩐다? 해는 높다란데 ..... 언제 불을 지피고 팥죽을 쑨단 말이냐?"

정말이지 공양주로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동짓날이면 으레 팥죽을 잘 쑤어서 대웅전(大雄殿)[102], 칠성전(七星殿)[103], 나한전(羅漢殿)에 정성껏 공양을 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해가 높이 솟아 앞뜰 소나무 가지에 걸렸는데 불씨마저 꺼져버렸으니, 부처님의 벌은 말할 것도 없고 주지스님의 불호령을 장차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참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공양주는 생각다 못해서 절 아래 산등성이에 사는 나무꾼 김서방 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오기로 하였습니다.

"빨리 가자. 꾸물거리다간 야단맞을라."

걸음을 재촉해서 김 서방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간밤에 내린 눈이 발목까지 올라와

101) 나한은 부처의 제자들로서 16나한, 500나한을 모신 집을 가리킴.
102) 본존불상(本尊佛像)을 모신 법당.
103) 칠원성군(七元星君)을 모신 집.

도무지 걸음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마음은 급해서 앞으로 달리고 있지만 한 발 떼어놓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한 발 옮겨 놓고는 넘어져서 뒹굴기가 일쑤였고, 헉! 헉!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노라니, 여느 때는 가깝던 김 서방 집이 오늘따라 천 리 길 같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무슨 경칠 노릇 …… 눈은 왜 와서 속을 썩이는 거람!"

공양주는 겨우 산등성이를 내려 왔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에 김 서방 집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김 서방 집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양주는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옳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니, 불씨를 얻어갈 수 있겠다."

공양주는 급히 뛰어 갔습니다.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김 서방."

잠시 후 김서방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나요."

그제서야 김서방댁은 공양주를 알아보고,

"어머, 공양주가 웬일이세요?"

하고 의아한 얼굴로 바라다보았습니다.

"불씨 좀 얻으러 왔어요."

"불씨요?"

"네. 그만 늦잠을 자다가 오늘이 동짓날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지 뭐에요. 아궁이에 불이 꺼져서 왔답니다."

공양주는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김서방댁은 이상하다는 얼굴로,

"불이 또 꺼졌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만 ……."

"아니, 아까 상좌중이 와서 불씨를 얻어 갔는데요."

"네, 넷?"

이것이 무슨 소리냐 싶어서 공양주는 황망히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절에는 상좌가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상좌중 말입니까?"

"어떤 상좌라니오? 마하사 상좌요."

"네?"

"왜 그러세요?"

공양주는 무슨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댁은 자기대로 이상한 생각이 또한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상좌중이 와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불을 얻어 갔어요."

하며 그 사이에 무슨 불씨를 또 얻으러 왔느냐는 듯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팥죽까지 먹고 갔어요?"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한 그릇 주었더니 금방 다 먹어 버리던걸요."

"아이구 ……."

공양주는 그때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절에는 상좌가 없어요."

"네?"

"틀림없이 부처님이 오셨던 겁니다."

공양주는 허겁지겁 김서방 집을 나섰습니다. 불씨를 얻을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아침 공양을 기다리다 못해 변복(變服)하시고 팥죽을 얻어 잡수시러 가셨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양주는 절로 돌아오자 곧 해봉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

"왜 그러우?"

"우리 절에 상좌가 있소?"

"상좌는 별안간 웬 상좌요?"

"아니, 있는가 없는가 대답만 해주시오."

"상좌가 있고 없고는 밥그릇을 세는 공양주가 알지 누가 알겠소?"

공양주는 상좌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서방 집으로 불씨를 얻으러 갔던 상좌는 누구란 말인가? 공양주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이구, 이런?"

공양주의 눈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아궁이에 장작이 훨훨 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이 있나?"

공양주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솥을 열어 보았습니다. 더운물이 한 솥 가득 끓고 있었습니다. 공양주는 급히 팥을 씻어서 삶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지스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양주."

주지스님은 평소에 근엄해서 주방에 오는 일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공양이 안 되었나?"

"예 …… 곧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시장하시겠다. 어서 팥죽을 끓여라."

"네."

주지스님은 더 이상 말이 없이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지엄한 주지스님이 이 정도로 그친다면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공양주는 서둘러서 팥죽을 쑤었습니다. 먼저 한 그릇을 떠서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팥죽을 들고 나한전으로 갔습니다. 공양주는 나한전 앞에 팥죽을 내려 놓다가 황급히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구 …… 나한보살 ……."

공양주는 고개를 못 들고, 그대로 엎드려 크게 절을 올렸습니다. 공양주를 내려다 보고 빙그레 웃는 나한보살의 입가에는 붉은 팥죽이 묻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집에 가서 팥죽을 먹고, 불씨를 얻어 온 상좌는 바로 나한보살이었던 것입니다. 나한보살은 동짓날 공양을 기다리다가 늦잠을 자는 공양주의 버릇을 깨우치기 위해 추위에도 불씨를 얻어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놓은 것이었습니다. 공양주는 황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절만 하고 있었습니다.

"공양주야."

"예…… 예……."

"이제 네 잘못을 깨달았느냐?"

"예, 예, 깊이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공양주는 열심히 '나무아미타불'만 외웠습니다. 그 커다란 음성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나한보살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공양주는 새벽이면 일어나 목욕재계(沐浴齋戒)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貞潔)히 한 후 공양 올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지스님이 뜰에다가 벼를 널어놓고 잠시 바깥에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참새떼가 달려들어 벼를 쪼아먹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나한님께서는 벼를 좀 봐주시지 않으시고, 참새들이 벼를 다 까먹도록 내버려두시면 어찌합니까?"

하였더니, 그 후로는 다시 참새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89~99쪽.

[연제구 설화 5]

금련산 마하사의 나한 신통력

금련산 기슭에는 위대한 전통사찰 마하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나한전의 나한들은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불씨가 꺼진 화덕을 살리기 위해 황령산의 봉화대에서 불씨를 구

해놓거나 금고(金鼓: 쇠북) 소리를 나무 소리로 바꾸는 등 신통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위대한 절이라는 의미의 마하사(摩訶寺·부산시 연제구 연산7동 2039)는 금련산(金蓮山: 금색 빛나는 연꽃)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 사찰이다. 지금도 산꾼들에게 마하사는 금련산이나 이웃 황령산을 오르는 들머리로 애용되고 있다.

마하사의 나한(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은 6신통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6신통이란 ▷초능력을 가진 눈, 천안통(天眼通) ▷초능력을 가진 귀, 천이통(天耳通)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타심통(他心通)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을 모두 아는 숙명통(宿命通) ▷초능력적인 다리를 가진 신족통(神足通) ▷온갖 고뇌를 벗어날 수 있는 누진통(漏盡通)을 말한다. 마하사에는 나한이 6신통을 발휘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온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임진왜란(1592~1598) 이전 어느 동짓날 전후의 일이었다. 어느 스님이 화덕에 불씨가 꺼져 등불을 밝히지 못한 채 밤을 지샜다. 날이 밝아 걱정이 앞선 스님이 부엌에 나가 보니 뜻밖에 화덕에 불씨가 살아 있었다. 동짓날이라 팥죽을 쑤어 나한전에 올리려 갔더니 오른쪽 세 번째 나한 입술에 팥죽이 묻어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던 중 황령산에서 봉홧불을 지피던 봉화꾼이 마하사에 와서 말하기를 어젯밤 눈보라가 치던 험악한 산길에 상좌 아이가 불씨를 구하러 왔기에 너무나 애처로워 팥죽을 먹여 보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그제야 나한전의 나한이 타심통을 발휘해 신족통으로 멀고 험한 황령산에 가서 불씨를 구해다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새를 쫓아준 나한'의 이야기도 있다.

어느 해, 마하사에 참새 떼가 몰려와 짹짹거리며 말리고 있던 곡식들을 쪼아 먹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스님이 나한전에 가서 참새를 몰아내달라고 기원하자 일순간 죽은 참새 한 마리가 뜰에 떨어지더니 이후로 다시는 참새 떼가 마하사에 범접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나한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참새 떼를 경계한 모양이다.

또, 나한의 다른 이야기는 '소리 나지 않은 금고(金鼓: 쇠북)' 이야기다.

마하사의 '타종무성유래현판기(打種無聲由來懸板記)'에 따르면 범종이 아니고 금고로 기록돼 있다. 금고는 법당 내 혹은 요사채 마루에 걸어두고 법회시간이나 공양시간을 알리는 간단한 법음구(法音具)다.

마하사의 이 금고를 쳐도 종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1860년대와 1910년대에 두 번 있었다. 1860년대 해령(海嶺)스님이 개금(改金) 번와 불사를 마치고 회향 때 금고를 치니 4주야로 소리가 나지 않았고, 1910년대 해봉(海峯) 스님이 개금과 탱화불사를 마치고 역시 회향시에 금고를 쳤지만 소리가 나무소리로 변하고 종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는 두 번 모두 16나한의 신통력이었다고 한다. 불사는 두 번이나 했지만 16나한의 불사는 자금이 모자라 개분(改粉: 낡고 오래 된 불상을 새로 단장함)과 탱화의 신작(新作: 새로 지어 만듦)을 뒤로 미루었던 관계로 나한들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나한전의 불사를 촉구하였

던 것 같다. 이에 승도들이 목욕재계하고 나한전의 불사를 약속하자 금고 소리가 울렸다고 한다.

불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은 계속 주류를 이뤄왔지만, 나한 신앙은 말세적 시대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기우제나 외적 침입 격퇴를 위해 나한제는 성행하였는데, 특히 고려 말 이성계가 석왕사에 나한전을 짓고 광적사의 오백나한을 옮겨 500일 기도 끝에 조선 개국을 성공리에 이룬 후에 나한 신앙이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31~133쪽.
**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59~60쪽.

[연제구 설화 6]

거울바위(鏡岩)

지금의 배산 동북쪽 연산8동 연산시립도서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울바위는 한자로 거울 경(鏡)과 바위 암(岩)을 써서 경암(鏡岩)이라고 한다. 바위의 모양이 거울처럼 표면이 매끄럽고 평평했던 모양이다. 수은으로 만든 거울이 없었던 시대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거울바위에 비친 자기의 험상궂은 모습을 보고 좌절감에 빠져 거울바위를 깨트려 버렸다는 설화가 전해온다. 또한 어떤 처녀를 짝사랑하던 총각이 거울바위에 비친 험상궂은 자기얼굴을 비관하여 거울바위를 돌로 쳐서 깨뜨렸다고 한다. 지금은 연산시립도서관을 건립할 때 깨진 거울바위마저도 없어졌다고 한다. 문둥병은 얼굴과 손발 등에 염증이 생겨 얼굴이나 손발의 본래의 모습이 없어지고 치료 후에도 일그러진 흔적이 그대로 남는다고 하는 고약한 병이다. 이 문둥병에 대한 회한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 첫과장 문둥이 장(場)에서도 춤으로 포현하고 있어 옛날부터 문둥병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병마였음을 알 수 있다.

* 연제문화원, 『연제구의 유래』, 으뜸출판사, 1999, 181쪽.

[연제구 설화 7]

생명의 원천 황새알 우물

- 황새도 날아와 목 축이며 노닐던 곳 -

- 장소: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예부터 우물은 정착생활을 위한 식수 해결의 필수 공간이었다. 만물이 생명력과 동시에 신성(神聖)과 정화(淨化)로 상징되는 우물은 재앙이나 잡귀를 물리치는 공간으로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동래부지(1740년)'에 따르면 '대조리(大鳥里)는 서면 관내에 있으며 동래부관문(官門)에서 3리 거리에 있었다'고 적혀 있다. 대조마을은 지금의 부산교대 정문 일대와 십자산(46m) 동북쪽에 있던 마을. 18세기 조선 중기 땐 주민들이 야산 기슭과 저습지를 개간해 논밭을 일궈 10여 호를 이루며 살았다.

십자산 동북쪽 일대는 황새가 알을 낳아 서식한 곳이라 하여 학란(鶴卵 · 황새알 또는 한 새벌)이라 불렀다. 거학초등학교(1980년 개교) 일대는 소나무가 울창하고 정상에는 오씨묘 2기가 있었다. 묘등 주위는 덕석을 깔아 놓은 것처럼 금잔디가 무성하게 자라 아이들이 즐겨 놀았다. 해서 덕석언덕이라 불렸다.

십자산 소나무에는 황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고 산 아래 늪 주변에는 각종 야생초와 갈대가 우거져 있었다. 늪에는 물고기 등 먹거리가 풍부해 황새들은 이곳을 서식지로 삼아 알을 많이 낳아 황새알터로 알려졌다.

지금의 부산교대와 거학초등학교 중간쯤, 다시 말해 CU교대샘터편의점 옆에는 오래전 대조마을의 공동우물인 황새알우물(연제구 거제1동 253-7)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적어도 300년 이상 된 이 황새알우물은 지금도 샘물이 솟아 흐르고 있다.

옛날 황새가 날아와 입을 적셨던 원형의 황새알우물은 지름이 1m10cm이고 깊이는 2질로 바닥이 훤히 보이는 얕은 석조 우물이다. 바닥은 지하 수층 물길이 암반의 풍화된 틈새로 석간수처럼 항상 일정량이 흐르고 있다. 암반이 풍화돼 마사를 통해 나오는 정화된 이 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며, 미네랄이 풍부해 물맛이 아주 좋다. 1947년 부산시가 부산 지역 우물을 대상으로 연 수질대회에서 이 황새알우물물이 2등(1등은 괴정통샘물)을 차지해 물맛 좋은 우물로 소문이 났다.

우물 앞 직사각형 돌받침대는 우물물을 뜨는 바가지를 놓는 받침대로 황새알우물의 역사를 말해주는 유물이다. 그 뒤로 지면에서 원형 높이대를 설치해 두레박을 사용하게 하고 뚜껑을 만들어 놓았다.

대조마을 사람들은 우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우물 고사(告祀) 등 마을 민속에 관심을 가졌으며, 우물의 변화는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우물의 변화에 늘 긴장했다. 그들은 매년 정초 우물가에 제물을 차려놓고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깨끗한 물이 나오고 나쁜 병이 돌지 않게 용왕님께 빌고 또 빌었다. 마을사람들은 또 구장(지금의 통장 내지 반장)을 중심으로 합심해 1년에 두 번 우물치기를 했다. 1980년 당시 우물치기를 할 때 손수레 2대분의 흙과 돌멩이가 나왔다고 전해온다.

알고 보니 인근 거학초등학교 학생들이 퐁당퐁당 소리를 듣기 위해 돌멩이를 넣은 것이었다.

2005년 거학초등학교로 통하는 '교대로 24번' 길이 생기면서 황새알우물이 도로에 편입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당시 주민들이 우물살리기 운동을 벌여 보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지금은 우물의 석간수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지면에 구멍을 뚫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주위에 꽃밭을 조성해 작은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 유치원생들은 이 우물에 견학하러 오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황새알 우물물을 먹고 건강하게 자란 주민들은 지금도 용왕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다. 역사성과 민속성을 두루 갖춘 유서 깊은 이 우물이 문화재로 지정되길 기대한다.

*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188~190쪽.

참 고 문 헌

곽정식, 『이야기에 비친 선인(先人)들의 삶 - 우리 고장 부산의 전래 설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김승찬 편저, 『경남지방의 민담』, 제일문화사, 1986.

김의환, 『부산의 고적과 유물』, 아성출판사, 1969.

김의환, 『부산 지방의 지명의 유래』, 태화출판사, 1970.

동길산, 『100가지 서면 이야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

동래지 편찬위원회, 『우리 고장 동래(동래지)』, 부산직할시 동래구, 1982.

류경자, 『부산지역 도시민들의 삶과 이야기』, 인문과교양, 2018.

박경수 · 정규식 · 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2(부산광역시③ -중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5.

박원표, 『향토부산』, 태화출판사, 1967.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지』, 신흥인쇄사, 200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재미있는 부산진구 숨은 이야기,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16,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연제문화원, 『연제구의 유래』, 으뜸출판사, 1999.

이양훈, 『숨겨진 이야기 부산』, 다인커뮤니케이션즈, 2006.

주영택, 『부산, 전승설화를 찾아서』, BNK부산은행, 2015.

주영택,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최상수, 『조선민간전설집』, 을유문화사, 1947.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최해군, 『부산이야기 62마당』, 도서출판 태성, 2009.

제보자 색인

ㄱ

강녀필 226, 227, 228, 229, 230, 231
강대창 382, 386
강명숙 314
강순덕 479
강순이 59
강시준 44, 45, 49, 50, 51
강판순 223
강팔문 4, 5, 6
강헌순 314
고계순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고숙자 289
고재규 307
구연규 110
권미자 473
권봉수 494
권태순 195
김○○(여, 76세) 510
김○○(김승찬) 431, 436, 447, 455
김갑례 473
김경자 132, 133, 134, 135
김금이 210, 211, 212, 213, 214, 215
김금조 279, 280, 281
김기남 99, 100, 101, 103, 105, 107, 109
김기순 261
김기후 218
김길자 183, 184, 185
김남순 94, 95, 96
김남진 394, 395, 396, 399
김덕선 216, 217
김덕순 289, 290, 291, 292, 294
김도자 218, 219, 220, 221, 222
김병호 355, 356, 357, 358, 359
김복순 3, 4, 119, 121, 122, 126, 504, 509
김봉순 44, 48, 473, 482, 486
김삼자 208
김숙자 271
김양숙 147, 148, 149, 150, 151
김옥선 321, 322, 323, 324, 326
김옥순 206
김윤환 286, 287
김은희 63
김인재 335
김일순 53, 54
김정자 506
김정출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김종희 200, 201, 202
김천등 52, 54
김춘자 53
김필선 97, 98
김화자 112, 113

ㄴ

노○○ 513
노상주 90, 91
노선자 224, 225
노숙자 272, 273

ㄷ

도갑주 473

ㄹ

류덕연 295
류영자 172

ㅁ

맹분남 127, 128, 129, 130, 131
문경자 341, 342, 343, 344
문봉순 69, 70, 71, 72, 74
문봉자 36, 37, 38, 39, 40, 41, 42
민병애 59, 60, 62

ㅂ

박○○ 474
박달막 203, 204
박두복 113, 114
박말선 238, 239, 240, 241, 243, 244, 246, 247, 248. 250, 251, 255
박부임 195
박분조 256
박순옥 15
박영순 177, 223
박옥순 396, 400
박용래 360, 361
박월출 203, 204, 205, 206

ㅅ

서당내 172
서상순 45, 46
서영순 282, 283, 284, 285
서정순 362, 363
석말실 235, 236, 237
성인선 7
손○○ 473
손기섭 494
손성학 364, 365
손수호 257
손순연 501
손승연 137, 138, 139, 141, 142, 143, 145, 146
손정식 494, 499
손춘자 118
송순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신동저 316, 317
신말필 223
신순자 336, 337, 338, 339, 340
심경옥 366
심계순 315, 316, 319, 320

ㅇ

안수자 196, 197, 198, 199
안의자 91
양복남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양순연 89
양옥순 61
오순근 83, 84, 85, 86, 87, 88
오필순 473
오혜석 261, 262, 263, 264, 265, 266, 267

왕영순 326, 327
윤경현 310, 311, 312
윤도연 73
윤선이 64, 65, 66, 67, 68
윤정수 278
이경연 8
이기자 55, 56, 57,58
이말남 479
이복심 135, 136
이상해 152, 153, 164
이석충 288
이수금 397, 401
이순남 279
이순례 267, 268, 269
이영화 274, 275, 276, 277
이오순 326, 327, 328, 329, 331
이정선 258, 259
이정숙 8, 9, 10, 11
이종기 398, 401, 402
이차임 232, 233
이창순 29, 30, 31
이태희 498
이호야 313
이희대 327, 332, 333, 334
임덕봉 47, 51
임정예 98, 99

ㅈ

장덕이 368
장삼선 217
전명란 178
전명수 178, 179, 180, 181, 182
전수정 43
전순득 88
정갑순 209
정기저 92, 93
정김해 131
정남순 13, 14
정복조 115
정숙주 75, 76, 77, 78, 79, 80, 81, 82, 83
정옥엽 504
정자희 270
정정숙 344
정정희 31, 32, 33
정형순 185, 186, 187
정흥섭 368
조성교 373, 378, 380
조영자 234, 235
조우임 34, 35, 36, 473
조재남 344, 345, 346, 347
조필수 54
진봉숭 153, 154, 155, 156, 158, 159, 160, 161, 162, 164
진정자 271
진주댁 165, 166, 167, 168, 169, 170

ㅊ

차주열 116, 117
천분생 170, 171
최양락 173, 174, 176
최재욱 473

ㅎ

하만청 63

하명순 296
하영조 188, 189, 190, 191, 192, 193, 194
현정수 237
홍종숙 348, 349, 350, 351
황경녀 308
황보승 259
황상열 260

설화 제목 색인

ㄱ

귀신집 466
가랑비 283
가야동 458
가야석탑 457
가족 373
각시 97
간 191, 194
강원도 59
강피 3, 44, 60, 70, 87, 125, 136, 138, 154, 166, 184, 199, 213, 244, 230, 243, 259 271, 284, 316
개 17, 25, 26, 47, 49, 73, 78, 126, 128, 220, 312
개구리 341
개대가리 100
개똥 23, 113, 137, 162, 170, 319
개미마을 456
거울바위(鏡岩) 523
거인 364
거짓말 195
게 42, 75, 135, 211, 219, 232, 291, 306
게으름뱅이 160
겨울 262
견우 101, 225
결혼 76
계란장사 38
고개 462
고깃국 188
고려장 3, 11, 54, 60, 75, 90, 109, 115, 116, 122, 133, 139, 147, 152, 153, 172, 173, 177, 215, 218, 223, 224, 225, 227, 234, 240, 273, 274, 279, 280, 310, 313, 315, 327, 336, 342, 344, 386
고무신 396, 397, 400
고양이 29, 150, 220, 334
곡 40
골짜기 361
공동묘지 474, 486
곶감 13, 28, 53, 59, 89, 94, 125, 127, 134, 148, 154, 165, 209, 210, 223, 225, 258, 263, 302, 331, 335, 339, 346
과객 382
관음보살(觀音菩薩) 444
구렁이 66, 78, 84, 183, 185, 429
구멍 79, 314
구미호 241
군인들 88
권씨 67
귀머거리 392
귀신 50, 51, 61, 96, 112, 192, 322, 323, 329
귀신소동 486
금련산 521
기도 215
김 98
김삿갓 6
까치 366
꼬부랑 69, 222, 223
꿈 442

ㄴ

나무꾼 71, 156, 298
나병 7
나팔수 42, 291, 306
나한(羅漢) 514, 515, 517, 521
난장이 27
남편 34, 210
내기 200
내력 3, 6, 11, 54, 67, 75, 90, 100, 115, 116, 122, 133, 139, 147, 152, 153, 172, 173, 177, 215, 218, 240, 223, 225, 227, 232, 254, 273, 274, 279, 280, 310, 315, 327, 336, 342, 344, 386
노루고기 164
노부부 387
노비 373
노인 345
놀부 105
누이 23, 35, 205, 216
눈물 206, 227
늑대 190, 191

ㄷ

다리 119
단칸방 38, 55, 77, 78, 278, 348
단칸방 살림 30, 36, 37, 270
달래강 205, 232, 342
닭 38, 98, 345
당감동 360, 479
당산 63, 120
당산나무 119, 296, 323
대바위 100
대화 29, 40, 193
도깨비 55, 70, 95, 96, 110, 130, 158, 167, 170, 206, 214, 215, 216, 219, 237, 265, 268, 271, 277, 278, 287, 305, 321, 330, 338, 358, 363, 365, 367, 394, 395, 397, 401, 423, 426
도깨비 불 13, 14, 167, 217, 258, 267, 286
도둑 29, 221
도둑질 45
도술(道術) 447
돌부처 183
동네사람 81
동래 정씨 255, 417, 432
동래시조 410
동래온천 393
동박삭 181
동삼 64
동자 300
동지팥죽 517
동평현령 443
돼지 58
두구동 456
두꺼비 103, 281, 289
두루마기 358
딸 44, 76, 128, 143, 146, 186, 257
딸기 262
떡 53, 123
떡장사 94, 161
똥 391

ㅁ

마누라 142, 210
마루 79
마을 63
마하사(摩訶寺) 514, 515, 517, 521
말 41, 42, 56, 210
맷돼지 395, 399
머리 212
머리카락 4
머슴 76
며느리 14, 17, 23, 24, 30, 32, 45, 51, 52, 61, 73, 79, 89, 98, 107, 113, 118, 129, 132, 136, 137, 147, 155, 162, 164, 165, 178, 179, 188, 195, 197, 203, 211, 212, 238, 229, 256, 279, 299, 307, 315, 328, 337, 339, 345, 350
명당 263
명당 257, 414, 416, 423, 426, 410
명태 99
모너머 고개 462
모노은골 357
모함 5
목욕당 40
묏자리 257
묘 174, 255, 407, 412
묘지(墓地) 494
묘터 410, 417
무덤 408
문둥병 34
문어 19
문칠네 396, 397, 400
물 316
미타암 283, 314
밀양 16
밀양부사 311

ㅂ

바깥사돈 308
바람할매 120
바보 142, 146
바위 250
박문수 311
받침 42
방귀 24, 40, 92 129, 136, 159, 169, 170, 178, 187, 196, 211, 260, 261, 272, 307, 350
배롱나무 459
백양산(白楊山) 501
백일홍 459
뱀 17, 121, 126, 179, 246
뱀탕 88
범내골 99
벙어리 57, 346, 390
벼락 186
병 15
보리쌀 113, 117, 137, 162, 170, 203, 250, 260
보은 150
복 17, 27, 73, 248
복숭아 300
본처 282, 283
봄나물 29
봉사 57, 81, 346, 390, 392
봉양 23, 113, 118
부모 107, 109, 137
부부 346, 390

부인 3, 4, 8, 44, 60, 70, 87, 125, 136, 138, 154, 166, 184, 199, 201, 213, 230, 243, 259, 271, 284, 316
불 57
불효자 267
비녀 237
비행기 303
빗자루 95, 153, 158, 206, 219, 265, 278, 305

ㅅ

사돈 51
사람 29, 30, 36, 37, 38, 49, 55, 57, 70, 77, 78, 82, 85, 96, 109, 110, 112, 119, 130, 131, 144, 162, 214, 215, 217, 237, 268, 330, 348, 397,
사리암 271
사명대사 447
산 126
산삼동자 317
산신 15
산신령 64, 88, 127
살림살이 121
살인사건 311
삼천갑자 181
삿갓 6
상객 308
상사바위 232
상사뱀 35, 206, 227
상사병 68
상여 112
새마이 골짜기 361
새신랑 19
새끼 83, 186, 235, 265, 289, 304
샘 316, 479
선녀 71, 156, 172, 298
선비 378
선암사(仙岩寺) 436, 440, 441, 442, 443, 444
성지곡(聖知谷) 449, 450, 451, 452, 453
성지대사 451, 452
성지초등학교 498
성형수술 332
세상구경 244
세수 343
소 202, 231, 267
소금장사 44, 329
소리 323
소변 8
손님 10, 63, 198, 216
손주 123
송공삼거리 460
송아지 127
수꿩 72
수산 16
수수께끼 31, 32, 218, 219
수숫대 62, 91
수양대 199
수탉 193
술 144
스님 211, 219, 232, 359, 436
승천(昇天) 429
시숙 348
시시골 338
시신 194, 340
시아버지 30, 90, 115, 212, 238, 266
시어머니 17, 23, 52, 61, 73, 88, 93, 113, 118, 123, 129, 132, 137, 147,

155, 170, 178, 179, 183, 185, 197, 203, 228, 229, 256, 279, 295, 299, 315, 328, 337, 339, 345
시어머님 14
시조 410
시집 281
신랑 348
신부 182
신통력 521
신혼부부 18
심술 319
쌀 10, 250, 314
쌀독 185
쌍둥이 182
씨름 70
3일장 332

ㅇ

아기장수 16
아내 4, 34
아들 88, 126, 128, 244
아들집 25
아버지 60, 231, 465
아이 8, 20, 26, 48, 49, 65, 114, 124, 129, 134, 158, 180, 191, 198, 208, 226, 239, 301
아이들 94, 151, 303
앉은뱅이 392
암탉 193
애기성 361
애장터 235
약물 7
약초꾼 395, 399
얌새이 511
양산복 199
양정동 420, 474
어머니 25, 47, 66, 88, 94, 126, 128, 146, 151, 161, 176, 224, 234, 244, 272, 313
어미 267
업 121
에밀레종 8, 20, 65, 91, 114, 124, 134, 158, 180, 198, 208, 226, 239, 269, 301
여강 이씨 174
여동생 185
여승 91
여우 72, 97, 98, 185, 194, 237
여인 72
여자 22, 33, 42, 75, 135, 143, 204, 232, 241
여종 82
연지초등학교 499
염불 83
염소 190, 511
영동할매 213
영물 334
영험 98, 187, 432
영혼 204
예수재 232
오누이 21, 324
오빠 23, 35, 205, 216
옷 144
옹달샘 316
왼다리 287
욕심 9, 109
용 417

용두산공원 364
우물 523
우보골 357
울음 237
유(柳)씨 295
유래 7, 99, 116, 208, 342, 360, 393, 433, 435
유산 465
윤씨 67
은인 368
은행나무 65
은혜 72, 103
음부 33, 42, 75, 143, 211, 219, 232, 291, 306
의병장 447
이무기 498, 499
이슬비 283
이승 131
이유 62, 91, 99, 117, 122, 126, 204
일본 300
일화 139, 141
5일장 332

ㅈ

자린고비 80, 139, 141
자식 176, 283
장자늪 7
재앙(災殃) 429
저승 131, 162, 168, 229
절 10, 122
점쟁이 349
정묘(鄭墓) 414, 416, 418, 420, 423, 426, 459
정묘사 356, 365, 432
정문도(鄭文道) 410, 420
정성 27, 31, 46
정승 44, 373
정씨(鄭氏) 255, 407, 408, 412, 417, 432
제비 391
제사 27, 31, 46, 99, 117
제삿날 67, 191, 322
제삿밥 98, 112, 117, 164, 187, 192, 273, 319
조개껍질 360
조광조 5
조상 246
존댓말 79, 195, 350
종갓집 257
좆총 389
주인집 76
중 75, 135
지략 416
지렁이 164, 339
지렁이국 14, 52, 61, 73, 88, 93, 118, 129, 132, 137, 147, 155, 165, 178, 179, 197, 203, 229, 238, 256, 279, 299, 315, 328, 345
지명 435
지킴이 126, 474, 479, 483
직녀 101, 225
진주 139, 141
질경이 50, 51, 61, 96
집 10, 57, 63, 86, 182, 198, 216, 483
집안 84, 174
집지킴이 483
짝사랑 69

ㅊ

참빗 158
처녀 81
처녀귀신 67, 191
천자봉 58
첩 282, 283
초읍 357
초읍동(草邑洞) 453, 456
총각 9, 35, 65, 69, 292
출가외인 116
치매 345
친정아버지 143, 307
친정어머니 186
칠성이 373, 464
칠월칠석 215

ㅋ

콩쥐 212

ㅌ

탑골 458
택시기사 67, 191, 322
터 509
턱 55
토끼 387

ㅍ

팔자 362, 204
팥쥐 212
편지 42
폐병 146
포수 59
피 153

ㅎ

하마비(下馬碑) 433
하마정(下馬停) 356, 433, 435
할매 120, 213
할머니 40, 53, 69, 121, 123, 222, 223, 248
할미꽃 254
할아버지 82
해받이고개 358
혀 41, 56, 210
형무소 509
혜월스님 436
호랑이 13, 28, 32, 33, 48, 53, 59, 83, 89, 94, 125, 126, 127, 131, 134, 143, 148, 154, 161, 165, 186, 189, 209, 210, 223, 225, 235, 263, 265, 289, 295, 302, 304, 312, 331, 335, 378, 389
호식 21, 362
혼령 164, 382
화상 176
화장장(火葬場) 504, 506
화지산(華池山) 407, 408, 410, 412, 418, 420
환생 244, 246
황산 100
황새알 208, 523

황새알마을 208
황진이 69, 292
횃불 358
효부 115, 137, 170, 189, 237
효심 32, 414
효자 262, 317, 340
흑심 83
흥부 105
흰쥐 204
힘 24, 92, 129, 136, 159, 169, 178, 187,
196, 261, 307

■ **편저자**(현장조사 책임 · 교열 · 주석) **소개**

- **박경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을 졸업했다. 현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한국민요학회 회장. 제60회 부산시문화상(인문과학분야) 수상.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삼지원, 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한국문화사, 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국학자료원, 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국학자료원, 2000),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국학자료원, 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국학자료원, 2011) 등과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0~22 -부산광역시 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4~26 -경상남도 남해군 편』(이상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4~16) 등 다수가 있다.

- **황경숙**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문학석사, 문학박사)을 졸업했다. 현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시사편찬위원. 플랜비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월인, 2000), 『부산의 민속문화』(세종출판사, 2003)가 있고,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6 · 25 피란민의 자전기록 -부산의 기억과 삶』(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8 -경상남도 함양군 편』(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4) 등 다수가 있다.

■ **조사보조원**(현장조사 보조 · 채록, 자료 타이핑 등, 2018년도 2월 기준)

- 김남희(부산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김다련, 김대희, 김서연, 김은진, 박수민(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이상 가나다 순),

■ **조사팀 별 조사지역**

- 조사1팀(박경수 팀)
  - 부산진구 : 범천1~2동, 부암1동, 부전1~2동, 양정1~2동, 연지동, 전포1~2동(10개 동)
  - 연 제 구 : 연산1, 3~4동, 6, 8~9동(6개동)

- 조사2팀(황경숙 팀)
  - 부산진구 : 가야1~2동, 개금1~3동, 당감1~2, 4동, 부암3동, 초읍동(10개 동)
  - 연 제 구 : 거제1~4동, 연산2, 5동(6개 동)

■ **시사편찬위원회(2018. 4. 3. ~ 2021. 4. 2.)**

위 원 장 : 강대민(경성대)
부위원장 : 김동철(부산대)
위원(가나다순)

권영오(대저중)	김강식(한국해양대)	김대래(신라대)	김인호(동의대)
박경수(부산외대)	박재욱(신라대)	박창희(스토리랩 수작)	박화진(부경대)
백승충(부산대)	손숙경(동아대)	신지은(부산대)	양은경(부산대)
오인택(부산교대)	유영옥(동아대)	이정은(범어사 성보박물관)	이종봉(부산대)
최이숙(동아대)	황경숙(부경대)		

부산구술문화총서⑩
중부산 문화권 설화(Ⅱ) 부산진구·연제구 편

발 행 부산광역시
발 행 처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5056~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발 행 일 2019년 10월 31일
인 쇄 신흥인쇄사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22-7
978-89-964675-9-5(세트)

(비매품)

자료검색
부산시 (www.busan.go.kr)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

※ 표지 사진 제공 및 출처 : 부산진구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과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